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26-12

■ 정책보고서 2014-61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
오미애·이윤경·황남희·김경래·오신희
박보미·신현구·이금룡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중·노년층의 삶이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박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경희



발간사 <<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일환으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2014년도 조사는 법제화된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이며, 법제화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1994년, 1998년, 2004년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 생산 기제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로 실시되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 내부의 다양성도 증대하고 있어, 이러한 노인의 양적 증대 및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 조사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정책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노인의 제특성과 생활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시계열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노인 개개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기도 한 노인의 사회통합과 다양한 참여활동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방안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문지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선우덕 연구위원, 오영희 연

구위원, 이윤경 연구위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오미애 부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과 김경래 전문연구원, 오신휘 전문연구원, 박보미 연구위원과 원외의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자문위원, 현지 조사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와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본원 보건복지통계정보실 조사패널팀의 이해선 팀장 및 팀원 일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지도원 및 조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1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24
제3절 표본설계 개요	31
제2장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45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특징	47
제2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49
제3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	88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97
제1절 일반 특성	99
제2절 거주 실태	111
제4장 노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121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와 규모	123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127
제3절 자녀와의 관계	135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144
제5절 부모의 특징	145
제6절 형제자매·친척과의 접촉	149
제7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153

제5장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159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161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171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181
제4절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193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203
제6장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5
제1절 삶의 만족도	207
제2절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220
제3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228
제4절 연령차별 및 학대 경험	232
제5절 죽음관련 준비 및 태도	237
제7장 노인의 경제 상태	247
제1절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249
제2절 자산과 부채	270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291
제4절 객관적 경제 상태와 주관적 생활수준	297
제8장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301
제1절 건강 상태	303
제2절 건강 행태	320

제9장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335
제1절 신체적 기능 상태	337
제2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 수발	346
제10장 노인의 경제 활동	367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369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394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412
제11장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429
제1절 여가 활동과 사회단체 활동	431
제2절 평생교육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440
제3절 정보화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이용	456
제4절 종교와 향후 노후생활	469
제12장 노인의 생활 환경	481
제1절 주거 실태와 지역 환경	483
제2절 외출과 교통수단	499
제3절 안전 실태	508
제13장 요약과 시사점	515
제1절 조사결과 요약	517
제2절 시사점	546
참고문헌	553

부록 I.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559
부록 II. 부표: 시도별 분석표	564
부록 III.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687
부록 IV. 사후검증용 전화조사표	717
부록 V. 조사지역 명단	718
부록 VI. 자문위원 명단	727

표 목차

〈표 1- 1〉 사전조사대상자 기본사항	26
〈표 1- 2〉 지역별 노인인구 수 모집단 분포	32
〈표 1- 3〉 시도별 표본할당결과	33
〈표 1- 4〉 시도별 표본할당결과: 수정 후	34
〈표 1- 5〉 지역별 노인가구 수 모집단 분포	35
〈표 1- 6〉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 수	35
〈표 1- 7〉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당 노인 인구 비율	36
〈표 1- 8〉 표본조사구	37
〈표 1- 9〉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39
〈표 1-10〉 지역별 개인 가중치 분포	41
〈표 1-11〉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42
〈표 1-12〉 지역구분별 [가구 총소득액]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43
〈표 1-13〉 지역구분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43
〈표 2- 1〉 노인실태조사 개요 (1994~2014년)	48
〈표 2- 2〉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 (2008~2014년)	50
〈표 2- 3〉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52
〈표 2- 4〉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H영역과 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55
〈표 2- 5〉 노인의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관계(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58
〈표 2- 6〉 노인의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61
〈표 2- 7〉 노인의 경제 상태(G영역과 N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65
〈표 2- 8〉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B영역과 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69
〈표 2- 9〉 노인의 기능상태와 간병 수발(D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72
〈표 2-10〉 노인의 인지기능(M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74
〈표 2-11〉 노인의 경제 활동(F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77
〈표 2-12〉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81
〈표 2-13〉 노인의 생활환경(K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85
〈표 2-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내용	88
〈표 3- 1〉 노인(65세 이상)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99

〈표 3-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2011년도와 비교표)	101
〈표 3- 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일반특성 분포	104
〈표 3- 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일반특성 분포	107
〈표 3- 5〉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110
〈표 3-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111
〈표 3- 7〉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12
〈표 3- 8〉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13
〈표 3- 9〉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14
〈표 3-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115
〈표 3-1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17
〈표 3-1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18
〈표 3-13〉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18
〈표 3-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생활 부담 방법	119
〈표 3-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부담 방법	120
〈표 4-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125
〈표 4-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126
〈표 4-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128
〈표 4-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129
〈표 4-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	131
〈표 4-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 대한 신뢰	132
〈표 4-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134
〈표 4-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137
〈표 4-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138
〈표 4-10〉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139
〈표 4-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	140
〈표 4-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	141
〈표 4-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143
〈표 4-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146
〈표 4-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147
〈표 4-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148
〈표 4-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의 건강상태	148

〈표 4-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149
〈표 4-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	151
〈표 4-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152
〈표 4-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빈도	154
〈표 4-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	155
〈표 4-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원 외의 방문 빈도	157
〈표 5-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63
〈표 5-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64
〈표 5-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67
〈표 5-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68
〈표 5-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169
〈표 5-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170
〈표 5-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74
〈표 5-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75
〈표 5-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76
〈표 5-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77
〈표 5-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178
〈표 5-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179
〈표 5-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180
〈표 5-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86
〈표 5-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87
〈표 5-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88
〈표 5-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89
〈표 5-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190
〈표 5-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191
〈표 5-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192
〈표 5-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96
〈표 5-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97
〈표 5-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98
〈표 5-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99
〈표 5-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200

〈표 5-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201
〈표 5-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202
〈표 5-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 손자녀 수	204
〈표 6-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209
〈표 6-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211
〈표 6-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14
〈표 6-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15
〈표 6-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218
〈표 6-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219
〈표 6-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222
〈표 6-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	223
〈표 6-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224
〈표 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습에 대한 태도	226
〈표 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외모 가꿈에 대한 태도	227
〈표 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229
〈표 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230
〈표 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령차별 경험 여부 및 차별 경험 상황	234
〈표 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학대경험	236
〈표 6-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240
〈표 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죽음 준비 실태	241
〈표 6-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242
〈표 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244
〈표 6-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245
〈표 7-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251
〈표 7-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254
〈표 7-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258
〈표 7-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259
〈표 7-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261
〈표 7-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부부소득)	265
〈표 7-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부부소득)	266
〈표 7-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연금소득의 구성(부부소득)	268

〈표 7-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부부소득의 비중	269
〈표 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가구)	273
〈표 7-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개인)	274
〈표 7-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부부)	275
〈표 7-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구)	278
〈표 7-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개인)	279
〈표 7-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부부)	280
〈표 7-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가구)	283
〈표 7-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개인)	284
〈표 7-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부부)	285
〈표 7-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가구)	288
〈표 7-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개인)	289
〈표 7-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290
〈표 7-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293
〈표 7-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294
〈표 7-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296
〈표 7-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298
〈표 7-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대표 가구원 응답)	300
〈표 8-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소의 건강상태	305
〈표 8-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306
〈표 8-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309
〈표 8- 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311
〈표 8-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313
〈표 8-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315
〈표 8-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개월간 의원기관 방문 횟수	317
〈표 8-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319
〈표 8-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321
〈표 8-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323
〈표 8-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325
〈표 8-12〉 노인(65세 이상)의 지역 및 성별 운동실천자의 운동종류	327
〈표 8-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329

〈표 8-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331
〈표 8-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를	334
〈표 9-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40
〈표 9-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41
〈표 9-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42
〈표 9-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344
〈표 9-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1)2)	345
〈표 9- 6〉 노인(65세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346
〈표 9-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348
〈표 9- 8〉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349
〈표 9-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351
〈표 9-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352
〈표 9-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354
〈표 9-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발여부 및 수발자 (중복응답)	357
〈표 9-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359
〈표 9-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수발자의 도움정도	361
〈표 9-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발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362
〈표 9-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364
〈표 9-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365
〈표 10-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371
〈표 10-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사 직종	373
〈표 10-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의 내용	375
〈표 10-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377
〈표 10-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378
〈표 10-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380
〈표 10-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의 단속성	381
〈표 10-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일수	383
〈표 10-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시간	385
〈표 10-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387
〈표 10-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388
〈표 10-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390

〈표 10-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392
〈표 10-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393
〈표 10-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395
〈표 10-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396
〈표 10-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397
〈표 10-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399
〈표 10-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400
〈표 10-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업 여부	402
〈표 10-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종	403
〈표 10-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의 내용	405
〈표 10-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406
〈표 10-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408
〈표 10-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기간	409
〈표 10-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종사한 직종 그만둔 이유	411
〈표 10-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413
〈표 10-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하고 싶은 일의 종류	415
〈표 10-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시간	416
〈표 10-3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418
〈표 10-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1순위)	420
〈표 10-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2순위)	421
〈표 10-3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423
〈표 10-3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424
〈표 10-3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426
〈표 10-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욕구	427
〈표 11- 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433
〈표 11- 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434
〈표 11-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률 및 여행 횟수	436
〈표 11-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율	438
〈표 11-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439

〈표 11-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443
〈표 11-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444
〈표 11-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445
〈표 11-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나눔활동 참여율	447
〈표 11-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451
〈표 1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452
〈표 1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453
〈표 1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454
〈표 1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455
〈표 1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458
〈표 1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핸드폰 소유 여부 및 기능사용 수준	459
〈표 11-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461
〈표 1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463
〈표 1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464
〈표 11-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466
〈표 1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467
〈표 1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470
〈표 1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소득활동 희망 정도	472
〈표 1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473
〈표 1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475
〈표 11-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476
〈표 11-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477
〈표 11-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479
〈표 1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480
〈표 12-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485
〈표 12-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486
〈표 12-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형태	488
〈표 12-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490
〈표 12-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492
〈표 12- 6〉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494
〈표 12- 7〉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495

〈표 12- 8〉 노인(65세 이상)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빈도	496
〈표 12-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	498
〈표 12-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500
〈표 12-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502
〈표 12-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504
〈표 12-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506
〈표 12-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 여부	507
〈표 12-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509
〈표 12-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511
〈표 12-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이유	512
〈표 12-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513
〈표 13- 1〉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구성 및 평균 자녀수의 변화(1994~2014)	518
〈표 13- 2〉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원별 소지 비율의 변화(개인소득)	525
〈표 13- 3〉 노인(65세 이상)의 신체적 기능 제한과 인지기능 저하 상태	528
〈표 13- 4〉 노인(65세 이상)의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희망 실태	531
〈표 13- 5〉 노인(65세 이상)의 사회활동 참여비율 및 정보화 능력	532
〈표 13- 6〉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변화	539
〈표 13- 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현황	542
〈표 13- 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사회참여, 생활환경 및 안전 실태	543

부표 목차

〈부표 I - 4-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까운 친인척수	559
〈부표 I - 4-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까운 친구·이웃·지인수	560
〈부표 I -11- 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561
〈부표 I -11- 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순위	562
〈부표 I -11- 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563
〈부표 II -3-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역 및 성별 분포	564
〈부표 II -3-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령 및 결혼상태	564
〈부표 II -3-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형태 및 교육수준	565
〈부표 II -3-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취업여부 및 경제상태, 기능상태 제한여부	565
〈부표 II - 3-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566
〈부표 II - 3-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독거주 이유	566
〈부표 II - 3-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567
〈부표 II - 3-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567
〈부표 II - 3-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생활 분담 방법	568
〈부표 II - 3-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568
〈부표 II - 4-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유무(울)	569
〈부표 II - 4-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569
〈부표 II - 4-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570
〈부표 II - 4-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570
〈부표 II - 4-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	571
〈부표 II - 4-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 대한 신뢰	571
〈부표 II - 4-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572
〈부표 II - 4- 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572
〈부표 II - 4-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573
〈부표 II - 4-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573
〈부표 II - 4-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574
〈부표 II - 4-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574
〈부표 II - 4-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575
〈부표 II - 4-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575

〈부표 II - 4-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576
〈부표 II - 4-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576
〈부표 II - 4-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577
〈부표 II - 4-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	577
〈부표 II - 4-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구원 외의 방문 빈도	578
〈부표 II - 5- 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578
〈부표 II - 5- 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579
〈부표 II - 5-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579
〈부표 II - 5-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580
〈부표 II - 5- 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580
〈부표 II - 5- 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581
〈부표 II - 5-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581
〈부표 II - 5- 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582
〈부표 II - 5-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582
〈부표 II - 5-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583
〈부표 II - 5-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583
〈부표 II - 5-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584
〈부표 II - 5-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584
〈부표 II - 5-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585
〈부표 II - 5-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585
〈부표 II - 5-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586
〈부표 II - 5-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586
〈부표 II - 5-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587
〈부표 II - 5-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587
〈부표 II - 5-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588
〈부표 II - 5-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588
〈부표 II - 5-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589
〈부표 II - 5-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589
〈부표 II - 5-2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590
〈부표 II - 5-2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590
〈부표 II - 5-2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591

〈부표 II - 5-2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591
〈부표 II - 5-2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 손자녀 수	592
〈부표 II - 6- 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592
〈부표 II - 6- 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제상태 만족도	593
〈부표 II - 6-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593
〈부표 II - 6-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594
〈부표 II - 6- 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594
〈부표 II - 6- 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595
〈부표 II - 6-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595
〈부표 II - 6- 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	596
〈부표 II - 6-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596
〈부표 II - 6-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학습에 대한 태도	597
〈부표 II - 6-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외모 가꿈에 대한 태도	597
〈부표 II - 6-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598
〈부표 II - 6-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598
〈부표 II - 6-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령차별 경험 여부 및 차별 경험 상황	599
〈부표 II - 6-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학대경험	599
〈부표 II - 6-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600
〈부표 II - 6-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죽음 준비 실태	600
〈부표 II - 6-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601
〈부표 II - 6-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601
〈부표 II - 6-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602
〈부표 II - 7- 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602
〈부표 II - 7- 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603
〈부표 II - 7-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604
〈부표 II - 7-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605
〈부표 II - 7- 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606
〈부표 II - 7- 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부부소득)	606
〈부표 II - 7-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부부소득)	607
〈부표 II - 7-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구소득 중 부부소득의 비중	608
〈부표 II - 7-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가구)	608

〈부표 II - 7-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개인)	609
〈부표 II - 7-12〉 노인(65세 이상)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부부)	609
〈부표 II - 7-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구)	610
〈부표 II - 7-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개인)	610
〈부표 II - 7-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부부)	611
〈부표 II - 7-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가구)	611
〈부표 II - 7-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개인)	612
〈부표 II - 7-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부부)	612
〈부표 II - 7-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가구)	613
〈부표 II - 7-2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개인)	613
〈부표 II - 7-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614
〈부표 II - 7-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614
〈부표 II - 7-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615
〈부표 II - 7-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615
〈부표 II - 7-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616
〈부표 II - 7-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대표 가구원 응답)	616
〈부표 II - 8-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평소의 건강상태	617
〈부표 II - 8-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617
〈부표 II - 8-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만성질환 유병률	618
〈부표 II - 8-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우울증상	618
〈부표 II - 8- 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619
〈부표 II - 8- 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개월간 의원기관 방문 횟수	619
〈부표 II - 8- 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620
〈부표 II - 8-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흡연상태	620
〈부표 II - 8-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음주 정도	621
〈부표 II - 8-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동 정도	621
〈부표 II - 8-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영양관리 상태	622
〈부표 II - 8-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622
〈부표 II - 8-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623
〈부표 II - 9-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623
〈부표 II - 9-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624

<부표 II - 9-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624
<부표 II - 9-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하지 근력상태	625
<부표 II - 9- 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1)2)	625
<부표 II -9-6-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옷 입기 도움 정도	626
<부표 II -9-6-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도움 정도	626
<부표 II -9-6-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목욕 또는 샤워하기 도움 정도	627
<부표 II -9-6-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도움 정도	627
<부표 II -9-6-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도움 정도	628
<부표 II -9-6-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도움 정도	628
<부표 II -9-6-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대소변 조절하기 도움 정도	629
<부표 II - 9-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629
<부표 II -9-8-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몸단장 도움 정도	630
<부표 II -9-8-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집안일 도움 정도	630
<부표 II -9-8-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식사준비 도움 정도	631
<부표 II -9-8-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빨래 도움 정도	631
<부표 II -9-8-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도움 정도	632
<부표 II -9-8-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금전 관리 도움 정도	632
<부표 II -9-8-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근거리 외출하기 정도	633
<부표 II -9-8-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정도	633
<부표 II -9-8-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전화 걸고 받기 정도	634
<부표 II -9-8-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교통수단 이용하기 정도	634
<부표 II - 9 -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635
<부표 II - 9 -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635
<부표 II - 9 -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636
<부표 II - 9 -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발여부 및 수발자 (중복응답)	636
<부표 II - 9 -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637
<부표 II - 9 -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수발자의 도움정도	637
<부표 II - 9 -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발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638
<부표 II - 9 -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638
<부표 II - 9 -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639
<부표 II -10 - 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제활동 실태	639

〈부표 II-10 - 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종사 직종	640
〈부표 II-10 -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의 내용	640
〈부표 II-10 -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641
〈부표 II-10 - 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641
〈부표 II-10 - 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642
〈부표 II-10 -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의 단속성	642
〈부표 II-10 - 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주당 근무일수	643
〈부표 II-10 -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주당 근무시간	643
〈부표 II-10 -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644
〈부표 II-10 -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644
〈부표 II-10 -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645
〈부표 II-10 -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645
〈부표 II-10 -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일이 최장기 직업 여부	646
〈부표 II-10 -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646
〈부표 II-10 -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647
〈부표 II-10 -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647
〈부표 II-10 -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648
〈부표 II-10 -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648
〈부표 II-10 -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업 여부	649
〈부표 II-10 -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종	649
〈부표 II-10 -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의 내용	650
〈부표 II-10 -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650
〈부표 II-10 -2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651
〈부표 II-10 -2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기간	651
〈부표 II-10 -2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종사한 직종 그만둔 이유	652
〈부표 II-10 -2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652
〈부표 II-10 -2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하고 싶은 일의 종류	653
〈부표 II-10 -2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 근로시간	653
〈부표 II-10 -3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654
〈부표 II-10 -3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구직활동 (1순위)	654
〈부표 II-10 -3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구직활동 (2순위)	655

〈부표Ⅱ-10 -3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655
〈부표Ⅱ-10 -3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656
〈부표Ⅱ-10 -3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656
〈부표Ⅱ-10 -3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욕구	657
〈부표Ⅱ-11 - 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3순위 중복응답	657
〈부표Ⅱ-11-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순위	658
〈부표Ⅱ-11 - 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을 및 여행횟수	658
〈부표Ⅱ-11 - 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단체활동 참여율	659
〈부표Ⅱ-11 5-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동호회(클럽)	659
〈부표Ⅱ-11-5-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친목 단체	660
〈부표Ⅱ-11-5-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정치사회 단체	660
〈부표Ⅱ-11 - 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661
〈부표Ⅱ-11 - 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661
〈부표Ⅱ-11 - 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662
〈부표Ⅱ-11 - 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나눔활동 참여율	662
〈부표Ⅱ-11- 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663
〈부표Ⅱ-11- 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663
〈부표Ⅱ-11- 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664
〈부표Ⅱ-11- 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664
〈부표Ⅱ-11- 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665
〈부표Ⅱ-11- 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665
〈부표Ⅱ-11- 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핸드폰 소유 여부 및 기능 사용 수준	666
〈부표Ⅱ-11- 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666
〈부표Ⅱ-11- 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이용이유	667
〈부표Ⅱ-11- 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667
〈부표Ⅱ-11- 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668
〈부표Ⅱ-11-2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668
〈부표Ⅱ-11-2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669
〈부표Ⅱ-11- 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종교 현황	669
〈부표Ⅱ-11- 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여생)의 소득활동 희망 정도	670

〈부표 II-11- 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670
〈부표 II-11- 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671
〈부표 II-11- 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671
〈부표 II-11- 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672
〈부표 II-11- 2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672
〈부표 II-11- 2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673
〈부표 II-12 - 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종류	673
〈부표 II-12 - 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위치	674
〈부표 II-12 - 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형태	674
〈부표 II-12 - 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	675
〈부표 II-12 - 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675
〈부표 II-12-6-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	676
〈부표 II-12-6-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676
〈부표 II-12-6-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읍·면·동 사무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677
〈부표 II-12-6-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677
〈부표 II-12-6-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과의 도보 이동시간	678
〈부표 II-12-6-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버스·지하철역과의 도보 이동시간	678
〈부표 II-12-8-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빈도	679
〈부표 II-12-8-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빈도	679
〈부표 II-12-8-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빈도 ...	680
〈부표 II-12-8-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빈도	680
〈부표 II-12-8-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이용빈도	681
〈부표 II-12 - 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	681
〈부표 II-12- 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682
〈부표 II-12- 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682
〈부표 II-12- 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683
〈부표 II-12- 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683
〈부표 II-12- 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 여부	684

〈부표 II-12-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684
〈부표 II-12-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경험	685
〈부표 II-12-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이유	685
〈부표 II-12-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686

그림 목차

[그림 1 - 1] 조사 진행도	24
[그림 1 - 2] 조사설계준비·실시 과정	25
[그림 1 - 3]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28
[그림 1 - 4]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40
[그림 1 - 5]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42
[그림 13-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 변화(1994~2014)	518
[그림 13- 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의 변화(1994~2014)	519
[그림 13- 3]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년~2014년)	520
[그림 13- 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친구·이웃 규모	521
[그림 13- 5] 노인(65세 이상)의 노인의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부양의 종류별 교환 실태	523
[그림 13- 6] 노인(65세 이상)의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524
[그림 13- 7]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행위	527
[그림 13- 8] 노인(65세 이상)의 신체적 수행 능력	527
[그림 13- 9] 노인(65세 이상)의 기능 및 신체상태	528
[그림 13-10]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1994~2014)	529
[그림 13-11] 노인(65세 이상)의 근로직종 변화(1994~2014)	530
[그림 13-12] 노인(65세 이상)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	532
[그림 13-13] 노인(65세 이상)의 각 활동별 참여 희망 정도	533
[그림 13-14] 노인(65세 이상)의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535
[그림 13-15] 노인(65세 이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률, 이용희망률	536
[그림 13-16] 노인(65세 이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536
[그림 13-17] 노인(65세 이상)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537
[그림 13-18] 노인(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538

[그림 13-19]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규범	539
[그림 13-20] 노인(65세 이상)의 단독거주 이유	540
[그림 13-21] 노인(65세 이상)의 기혼자녀 동거 이유	540



I. 조사 개요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3년 주기의 법정조사로, 법제화된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임.
- 법제화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1994년, 1998년, 2004년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사전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통계변경승인(승인번호 제 11771호)을 받아 확정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2014년 6월 11일~9월 4일 기간 중 9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451명(대리응답 172명 포함)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음.

II. 주요 조사결과

1. 노인의 특성 변화

- 노인 중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노인 중 도시거주자 비중: 56.4%('94) → 67.9%('04) → 76.6%('14)
 - 이러한 거주지역 구성의 변화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의 기회나 거주형태의 변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남자노인의 비중은 약간 증대하여 2014년 현재 노인이 41.7%이며,
 - 유배우율은 6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는 평균수명의 증대가 한 요인 일 것으로 보임.

- 연령구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80세 이상의 비중의 증가임.
 - 2014년 현재 노인 중 20.6%가 80세 이상인데 이는 20년 전에 비하여 8.2%p, 10년 전에 비하여 4.4%p 증가한 것으로 후기노인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80세 이상의 비중이 읍·면부에서 월등히 높아 25.5%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노인의 교육수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어, 문맹노인의 비중이 1994년의 36.7%, 2004년의 19.2%, 2014년 9.6%으로 급감함.
 - 반면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중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인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욕구변화와 기대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시거주 노인의 비중 증대,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은 노인의 욕구의 다양성의 증대로 이어질 것임.

2. 노인의 거주 현황

- 노인 중 23.0%가 독거이며, 44.5%가 노인부부, 자녀동거는 28.4%로 독거가구의 증가 및 자녀동거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독거: 13.6%('94) → 20.6%('04) → 23.0%('14)
 - 자녀동거: 54.7%('94) → 38.6%('04) → 28.4%('14)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독거+부부가구) 약 1/3인 32.7%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20.6%는 자녀의 타 지역 거주로, 15.5%는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11.1%는 기존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로 그 이유가 다양함.
 -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불안감(25.8%)과 아플 때 간호문제(25.6%)가 가장 높고 다음이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21.7%)의 순임.

○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의 경제적 능력부족(24.4%)와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21.8%),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16.0%),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15.6%), 노인의 수발을 위해(15.4%)로 다양함.

- 이는 더 이상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보다는 노인이 의존적인 존재로 기혼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 등 실용적 이유로 인한 동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 이상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형태가 아니며 동거의 이유도 다양화하고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3.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규모

□ 노인의 대부분인 97.7%가 자녀가 있고(평균 3.4명) 90.8%가 손자녀(평균 5.5명)를 두고 있고, 82.8%는 형제자매를 갖고 있으나(평균 2.7명), 부모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5.5%가 본인의 부모가 있고 5.0%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약 절반 정도(53.1%)의 노인만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고(평균 1.1명),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노인은 62.7%(평균 1.6명)임.

2) 배우자와의 관계

□ 유배우 노인의 43.8%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노인본인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한 비율이 높아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은 경우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

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유배우 노인의 73.0%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음.
- 유배우 노인의 16.8%가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을 갈등의 원인으로 들고 있음.
- 유배우 노인의 75.0%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76.6%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 76.7%, 제공률 73.5%, 수발지원은 수혜율 64.6%와 제공률 66.0%임.

3) 동거 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60.8%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55.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음.
-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수혜율은 63.6%, 제공률은 68.2%이며,
- 수발의 경우 수혜율은 59.4%, 제공률은 22.7%로 수혜율이 월등히 높음.
-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45.1%, 제공률이 9.0%이며,
 -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73.3%, 제공률이 32.9%, 현물지원은 수혜율이 80.3%, 제공률이 52.7% 인 등
 - 수혜의 비율이 제공의 비율보다는 높으며,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주고받고 있음.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생활 부담은, 64.6%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25.4%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일상생활 부담의 경우는 45.6%가 공동으로, 자녀가 전적으로 31.1%, 부모가 전적으로 20.7%, 각자 따로 2.6%임.

- 이는 경제생활 분담방식에 비하여 공동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며 부모가 담당하는 경우도 훨씬 많은 것임.

4) 비동거 자녀와의 관계

-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및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경우가 37.7%이며, 72.9%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별거가 곧 자녀와의 접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50% 내외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고 있으며, 도구적 지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43.6%이지만 제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2.6%이며, 수발의 경우는 동 비율이 43.0%과 5.8%임.
 - 6.4%가 1년간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음.
 - 경제적인 지원은 40.9%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고 90% 내외가 비정기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을 받고 있음.
 - 제공의 경우 현물지원은 약 절반 정도의 노인이 제공하고 있지만 현금은 그 수준이 낮아 비정기가 26.9%, 정기가 2.3%에 그치고 있음.
-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는 노인은 9.3%이며 자녀의 장래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에 대한 생활비 보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손자녀와의 접촉 및 왕래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16.6%로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으며,
 -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도 18.3%에 불과함.

5) 친인척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 노인의 22.2%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전혀 왕래가 없고, 약 절반인 45.2%가 연 1,2회의 왕래만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의 방문을 하는 노인은 15.4%에 불과함.
 - 연락의 경우는 43.4%가 한 달에 1회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 이는 노화에 따른 기동력의 저하와 친인척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연락을 통하여 소식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친구·이웃의 경우는 79.1%가 주 1회 이상 왕래를, 60.2%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4. 노인의 경제 상태

- 연 총소득이 2,305만원으로,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37.4%이며,
 -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적이전소득으로 22.6%이며, 사업소득이 15.5%, 사적이전소득이 15.1%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92.9%이며, 다음이 기초노령연금 66.4%, 공적연금이 31.9%임. 이 외에도 기타공적 급여가 14.6%, 국민기초보장급여가 5.4% 등임.
 - 공적연금의 경우 2011년의 25.3%에서 31.9%로 약 6.6%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살펴보면 노인의 59.1%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12,072만원 수준이며 금융자산은 74.8%가 보유하고 있고, 규모는 1,667만원임.
 - 기타 자산은 26.7% 수준이며, 규모는 224.4만원임.

- 노인의 19.9%가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갖고 있고 평균 부채 규모는 1,415.6만원임.
- 가구소비지출액은 월 평균 143.9만원이며 도시지역과 남자노인에게서 소비지출액이 더 많음.
- 또한 가구소득 제5오분위 노인의 경우는 가구소비지출액이 305.9만원인 반면, 제1오분위의 경우는 52.1만원에 불과함.
-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주거관련비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35.4%이며, 다음이 보건의료비로 23.1%, 식비 16.2%, 경조사비가 15.2%임.
- 노인가구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약 절반인 49.7%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높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함.
- 제5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도 높다는 응답이 9.3%에 불과하여,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하여 하향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5.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

- 노인의 건강 상태
 -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32.4%이고, 부정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노인이 43.7%임.
 -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율 90.4%이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2.2%임.
 -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율은 89.2%이고 복합이환자가 69.7%이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음.
 - 의사진단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이 5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33.4%), 당뇨병(22.6%), 요통 및 좌골신경통(21.1%), 고지혈증(19.6%), 골다공증(14.0%) 등의 순임.
 - 전체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음.

- 의사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노인의 82.0%이며
 -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78.2%이고, 평균 방문횟수는 2.4회임.
 -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8.4%임.

□ 노인의 건강행태

- 현재 흡연율은 11.9%이고, 음주율은 27.6%임.
- 운동실천율은 58.1%이고, 이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43.9%임.
 - 주로 하는 운동 종류는 걷기가 68.2%, 체조(맨손체조 및 생활체조) 7.2%, 등산 6.3%, (실내)자전거 5.6%, 보디빌딩(헬스) 3.7% 등임.
-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는 51.0%는 양호한 수준이고, 28.8%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 비만지수(BMI)로 노인의 4.7%는 저체중이며, 33.1%는 정상, 27.3%는 과체중, 31.1%가 경도비만, 3.8%가 중증도 비만임.
 - 비만 및 저체중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3.8%임.
-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 미치료율은 8.8%임.
 - 지난 1년간 치과 미치료율은 18.0%로 상대적으로 치과의 미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 노인의 61.2%가 시력 보조기를, 4.0%가 청력 보조기를, 51.2%가 씹기 보조기(의치)를 사용하고 있음.
- 노인의 40% 정도가 시력에 불편함을, 약 25%가 청력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

으며, 씹기 기능의 경우 54.6%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하지 근력상태를 보면 약 80%가 수행이 가능했고, 각 신체 근력상태를 비교해보면 (1~4점, 점수가 낮을수록 수행이 어려움), 운동장 한 바퀴 뛰기가 가장 점수가 낮아 2.3점이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가 3.8점으로 6개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음.

□ 7개의 ADL 항목과 10개의 IADL에 기초하여 파악한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81.8%가 기능제한이 전혀 없지만, 11.3%는 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6.9%는 ADL의 제한까지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기능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율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ADL도 제한이 있는 비율이 25.5%에 달하고 있음.

□ MMSE-DS를 이용한 인지기능 점수는 평균 23.7점이며 31.5%가 인지저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52.5%임.

□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81.7%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 중 91.9%가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음.

○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15.4%임.

7. 노인의 경제 활동

□ 노인의 28.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노인이 10.7%임. 평생 일하지 않은 비율은 여자노인에게서 높아 18.0%임.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종사 직종은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아 각각 36.6%와 36.4%임.

- 동부에는 단순노무직이 49.1%에 달하고 있으며, 읍면부의 경우는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72.7%임.

- 노인 중 관리자(3.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7%)는 소수에 불과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비·수위·청소로 19.3%, 운송·건설관련이 10.8%로 분석됨.

- 특히 도시지역에서 경비·수위·청소의 비중이 높아 26.3%로 가장 높음.

○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아 38.7%, 임시근로자가 26.2%, 무급가족종사자가 13.7%의 순임.

○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절대적이어서 79.3%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용돈마련으로 8.6%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종사상의 지위나 일의 내용에 있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일이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노인의 최장기 일자리는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아 27.7%이며, 다음이 단순 노무직(19.2%), 판매종사자(12.7%)의 순서이며,

○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업자(30.1%), 상용근로자(28.1%)로 근무한 비중이 높음.

○ 최장기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등 비자발적인 것이 24.1%, 정년퇴직이 14.5%임.

○ 최장기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하였다가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24.1%로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노인 4명 중 1명은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의 65.3%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23.7%는 현재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1.3%는 현재하는 일과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함. 그리고 나머지 9.7%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이는 도시지역, 남자노인, 전기노인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음.

- 향후 하고 싶은 일로는 취업이 65.5%, 여가형 일자리가 15.2%, 사회기여형 일자리가 14.3%이며, 주 40시간 미만의 일자리 희망자가 전체의 약 73%에 이르며,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으로는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가 가장 높아 36.0%이며 다음이 2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가 32.4%임.
- 구직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취업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63.0%로 절대 다수이며, 다음이 개인 인맥을 활용하는 것으로 30.4%로 나타남. 공공영역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인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노인의 4.3%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며, 4.3%는 과거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4.6%는 신청했지만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즉, 전체 노인의 13.2%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 이들이 참여한 일자리는 공익형이 가장 많아 71.9%이며, 다음이 복지형으로 15.1%, 교육형 5.8%, 인력파견형, 4.0%, 시장형 3.2%임.
 - 또한 노인의 18.2%가 향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음. 이러한 욕구는 지역, 성,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별 차이는 있지만,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수준과는 그리 밀접한 관계가 없음.

8.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 노인의 대부분이 TV를 보고 있으나 여행경험률은 29.7%에 불과함. 또한 학습활동 참가율도 13.7%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단체활동참가율의 경우 친목단체가 43.3%로 참여율이 가장 높고, 동호회는 4.9%, 정치사회단체는 0.5%에 불과함.
- 지난 1개월간 기부를 한 비율은 3.5%,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한 노인은 9.5%임.

- 평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5%,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경험이 있는 노인이 14.5%임.
- 노인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83.0%가 전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는 약 10%에 불과함.
- 약 80%의 노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 보급률이 높은 편임. 그러나 스마트 폰은 13.7%임.
- 노인의 각 활동에 대한 참여 희망 정도를 살펴보면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 비율(반드시 하고 싶음 +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이 소득활동이 29.1%, 자원봉사 6.4%, 학습활동 13.0%, 취미여가활동이 61.6%, 종교활동 45.6%, 정치사회 단체활동이 0.7%, 친목단체활동이 40.1%임.
- 이는 노인이 선호하는 활동이 취미여가활동 → 종교활동 → 친목단체활동의 순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 정치사회 단체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임.

9. 노인의 생활 환경

- 노인의 51.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그 다음으로 34.7%임. 단독주택 거주율이 감소하고 있지만(2008년 60.5%, 2011년 55.7%),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임.
- 노인이 생활하기 어려워하는 공간으로는 계단, 화장실 및 욕실 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55.0%는 불편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의 69.2%가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외 무상 11.0%, 보증금 있는 월세가 9.8%, 전세 8.4%, 보증금 없는 월세 1.7%의 순서임.
- 노인이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을 버스로 48.2%이며, 지하철이

21.2%, 자가용이 20.0%임.

○ 외출 시 불편한 점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34.1%),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1%)임.

□ 운전과 관련하여 16.1%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데 2011년의 12.2%보다 늘어난 수치로 전기 노인을 중심으로 자가용 운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 중 72.1%가 운전 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밝힌 노인 또한 12.2%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노인 가구 내에 32.7%가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소유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각각 65.1%, 70.4%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0. 노인의 안전 실태

□ 노인의 3.0%가 안전사고(화재, 가스, 누수 등) 경험이 있으며, 25.1%는 낙상 경험이 있고, 78.8%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 낙상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며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임.

○ 낙상이유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가 29.5%로 가장 높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다) 13.8%,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등의 순서임.

□ 노인의 78.8%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6%나 되어 낙상이 노년기의 주요 관심사임을 볼 수 있음.

- 노인의 7.1%가 연령차별경험이 있고 차별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로 37.7%이며, 다음이 판매시설 이용 시 17.7%, 의료시설 이용 시 14.4%의 순서임.
- 9.9%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 가장 빈번한 학대는 타인의 말과 행동(정서적 학대)로 7.3%이며, 다음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방임) 2.8%,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음(방임) 1.5%,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0.3%),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0.2%)의 순서임.
-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이 중 12.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아 40.4%이며, 다음이 건강문제로 24.4%임.

11. 노인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

-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은 5.2%,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는 1.6%이며,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는 1.4%의 이용률로 매우 낮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6.6%,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은 4.5%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노인의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34.2%임.
 - 이에 비하여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은 8.9%로 낮으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이 19.5%에 달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많음을 볼 수 있음.
 - 이용 만족도는 경로당에 비하여 노인복지관이 높은 편으로, 각각 76.2%와 84.4%임.
 -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목도모로 85.5%이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53.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식사 서비스와 친목도모임.

- 죽음과 관련한 준비 실태를 보면 묘지를 준비했다는 노인이 29.1%, 수의가 11.2%이고, 상조회 가입률이 6.7%임.
- 이에 비하여 죽음준비 교육수강(0.6%)이나 유서작성(0.5%)과 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소수에 불과함.

12.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삶의 만족도

-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9.5%, 그저 그렇다가 26.2%, 만족하지 않는다가 44.2%이며, 경제상태의 경우 각 응답률이 15.2%, 30.8%, 53.9%로 건강상태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음.
- 사회여가문화활동의 경우는 만족도가 34.8%로 건강이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다양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친구 및 지역사회의 경우는 만족도가 54.2%이며, 그저 그렇다가 33.9%, 만족하지 않는다가 12.0%임.
 - 이는 건강, 경제, 참여활동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만족률인 68.7%과 자녀의 69.8%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2) 연령기준 및 연령규범

-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60대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21.7%이며,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5.3%에 달하고 있음.
- 가장 응답이 높은 것은 70~74세라는 응답으로 약 절반 수준인 46.7%임. 또한 75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31.6%에 달하고 있음.
- 연령규범을 살펴보면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24.2%에 불과하고 부

정적인 응답은 61.7%에 달하고 있음. 반면 노인이 일하는 것은 69.9%, 노인의 학습 72.4%, 노인의 외모 가꿈이 62.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일과 학습, 외모 가꿈 등 자신을 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임을 볼 수 있음.

3) 노년기 부양관

□ 노년기의 자녀 동거와 관련해서는 19.1%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으며 51.6%가 장남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4.3%, 본인 스스로가 3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적인 차원이 18.6%인 것을 고려해보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노인이 52.9%임.

4) 죽음관련 태도

□ 희망하는 재산처리방식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52.3%이며, 다음으로는 자신(배우자)를 위해 사용한다가 15.2%이며, 장남에게 더 많이(11.4%), 장남에게만(6.3%)은 그리 많지 않음.

□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3.9%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절대다수인 88.9%가 반대하고 있음.

III. 정책적 함의

□ 노인의 특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노인의 규모가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노인의 5명 중 1명이 80대이므로 후기 노인을 특화한 서비스 개발 필요

- 신체적 기능도 저하되고 따라서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이들 80대 이후 노인들이 무의와 고독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저하된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독거나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인단독가구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책적 대응을 해가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기존의 독거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부가구를 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

○ 노인의 교육수준도 상향조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었음.

- 노인이 90%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홍보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을 것임.
- 반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노인도 24.4%로 노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인구의 증대 및 다양화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가족, 지역사회가 강점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갈 때 증대하며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영역별 주요 과제

-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필요
 - 주택연금의 확대 등 노인들의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모색과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즉각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응 긴급
-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적 접근의 강화
 -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체계적 질환관리의 강화 필요
 -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양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필요
-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참여실태와 서비스 기반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 감소, 경제활동관련 미충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화된 일자리 창출 필요
 - 학습활동참여에 비하여 자원봉사참여율의 증가폭이 적어 좀 더 적극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양한 활동방법의 개발 필요
 - 학습활동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학교 및 사설문화센터 등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노인의 높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구축
-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 필요
 -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노년상을 정립해가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양질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제도 정비

*주요용어: 노인, 삶의 질, 노인단독가구, 소득 및 지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생활환경, 가치관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 제3절 표본설계 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일환으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2014년도 조사는 법제화된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이며, 법제화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1994년, 1998년, 2004년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다양한 참여활동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방안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성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와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14년 현재 63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의 339만 명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규모가 2배 증가한 것이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0년의 7.2%에 비하여 5.5%p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규모는 2017년에는 712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의 규모가 1,033만 명으로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인구구성에서 갖는 비중

의 증대는 노인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특성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어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꾸준히 파악할 필요성도 높다 하겠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 년도 노인실태조사에 기초해볼 때 다음과 같은 노인의 생활실태의 특징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도시지역 거주율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후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노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단독가구로 변화하였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동거가구가 27.3%로 급감한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68.1%로 급증하였고, 전통적인 노년기 거주형태인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형태는 약 11%에 불과하다. 한편,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1994년 2.9%에서 2011년도의 25.3%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사적이전소득이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의 90% 내외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후기 노인의 증가 등으로 낙상사고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1.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료검진이 이루어져, 건강검진을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이 대부분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처럼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수준이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사교단체/친목단체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자원봉사 참여경험률이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경우도 5%를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아직도 다양한 여가 및 사회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노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한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높아져 다수가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에 있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 가족 및 자녀를 노후생활비의 책임주체로 보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자녀와의 동거희망률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 변화와 함께 노인 내부의 다양성도 증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 노인의 생활상의 차이가 분명하여 공적소득 안정망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

면, 교통 및 주거 등 물리적 환경은 농어촌 지역이 열악하다. 농어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으나 자원봉사참가율, 단체활동 및 여가문화활동 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이,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물리적인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별로는 건강상태,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건강 저하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함,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고립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악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령군별 차이 또한 극명하다. 특히 80세를 전후로 하여 기능상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80대 이후 후기노인의 기능 저하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과 활동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전기노인 및 예비노인에서의 소득원의 독자성 증가는 노인의 자율성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노인의 특성변화 및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건강상태도 좋고, 여가문화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본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는 그들의 경제적·신체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예비노인에게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 생산 기제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14년도 조사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정책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노인의 제특성과 생활현황

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시계열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연구진에 의해 사전에 훈련된 전문 조사원 60명(조사원 4명과 지도원 1명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2014년 6월 11일~2014년 9월 4일 기간 중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각 조사구별로 도시지역은 10명, 농어촌지역은 20명을 조사완료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시도별 통계 산출을 위하여 각 시도별 400명 이상의 노인이 조사완료되도록 하였다¹⁾.

[그림 1-1] 조사 진행도



가구 내의 모든 노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노인이 가구원 사항이나 가구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영역에 대하여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응답해줄 수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부인과 같은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노인의 경우에는 그 노인과 가장 가까운 가구원이나 가족이 대리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

1) 구체적인 표본추출과 조사진행의 통계적 기반에 대한 것은 3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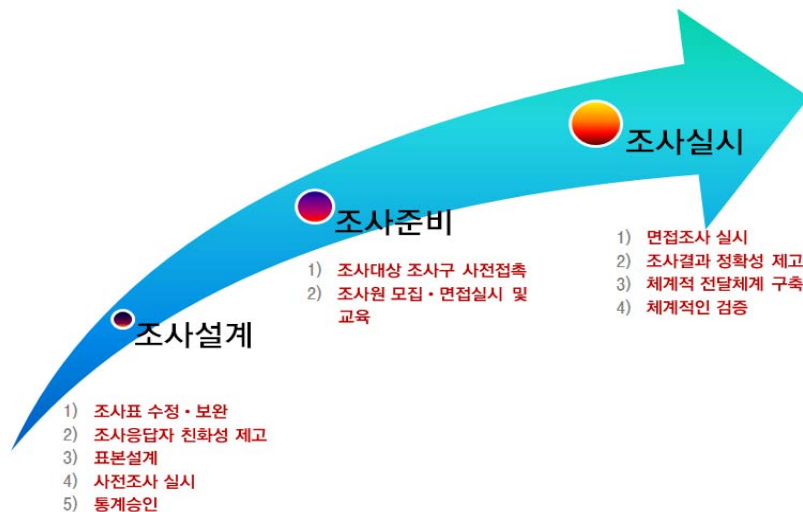
지는 조사문항에 대한 질문은 대리응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가구에서 부부노인을 면접하는 경우에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기 위해 노인을 1명씩 분리하여 면접하도록 하고, 부부에게 공통된 객관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질문하고, 그 내용을 배우자의 조사표에 옮겨 적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이 가구조사의 응답자인 경우에는 가구조사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가구조사내용을 노인개인조사표에 옮겨 적도록 하였다.

2. 현장 조사준비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는 [그림 1-2]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조사준비 과정은 크게 조사설계, 조사준비, 조사실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조사설계준바실시 과정



가. 조사표 수정보완

2011년도 조사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노인의 특성변화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부록 V 자문위원 명단 참조) 및 연구진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사전조사는 47명에 대하여 2014년 4월 29일~2014년 5월 2일 기간 중 연구진과 숙련된 조사원 2명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지역(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70대, 80대 노인 및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접촉하였다. 사전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1>과 같다. 한편, 평균 조사 소요시간이 86.3분으로 나타나 응답자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내용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 항목별 지출액이나 지출주체(노인 본인, 타 가구원, 비동거 가족 등)별 지출, 주제별 조사 내용 부분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외에도 질문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역 순서 조정 및 영역 내 질문 문항의 순서 조정을 하였고, 추가되어야 할 보기들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조사표는 국립국어원의 표현 및 어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확정하였다.

<표 1-1> 사전조사대상자 기본사항

(단위: %, 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지역	
남자	40.4	서울	27.7
여자	59.6	경기	27.7
		인천	14.9
		기타	29.8
학력		연령	
무학	21.3	60대	12.8
초졸	34.0	70대	63.8
중졸	21.3	80대 이상	23.4
고졸	14.9	평균연령(세)	75.8
전문대졸 이상	8.5		
평균소요시간(분)	86.3		
계	47명(100.0)	계	47명(100.0)

나. 표본설계 및 통계승인

노인실태조사는 법정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11771호)을 받은 바 있으며, 매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통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통계청에 조사표와 표본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2014년 5월 8일에 통계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5월 23일 변경승인을 득하였다. 이로써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정조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조사지역 주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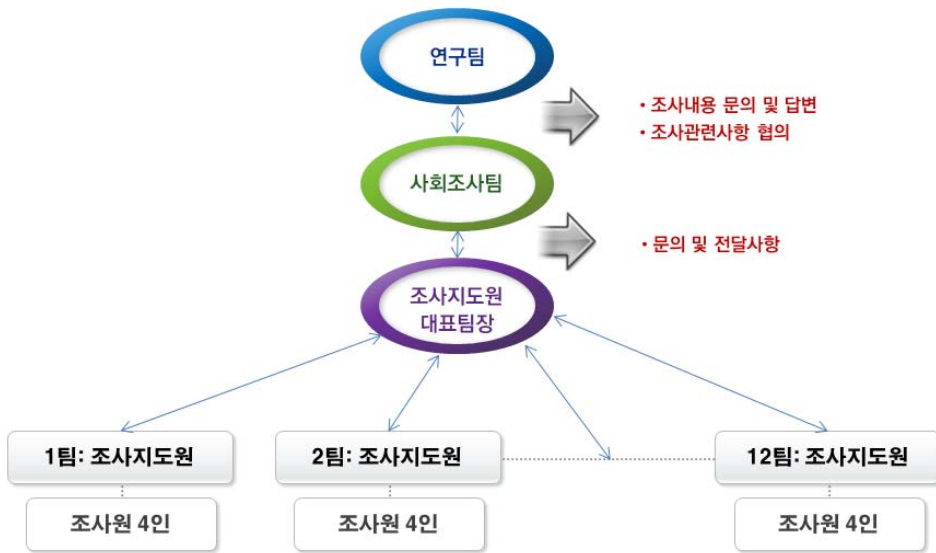
안정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숙련된 조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각종 전국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원을 확보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명으로 구성(조사지도원 1인, 조사원 4인)된 12개 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일정을 마련하였다. 2014년 5월 29일에는 조사지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조사진행방법을 점검하고 팀별 조사구 배정 및 그에 따른 조사일정을 확정하였다.

한편, 조사원들이 정확한 면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을 2014년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조사에 임하는 자세, 조사 태도 등 조사원 소양 교육 부분과 현지조사 실시 요령, 조사의 배경, 설문내용에 대한 영역별 문항 소개, 연습 및 질의응답 시간 및 조사팀별 실습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2014년에는 개인정보관련교육이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증대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교육은 조사원과 조사과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조사팀과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3. 지도·감독

지도원 1명과 조사원 4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된 12개의 조사팀이 2014년 6월 11일 ~ 2014년 9월 4일 기간 중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원활한 진행과 조사의 질 확보를 위하여 사회조사팀 및 연구진에 의한 다각적인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림 1-3]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무엇보다도 추출된 조사지역의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각 조사구 이동시 사회조사팀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이 이루어졌다.

한편, 표준화되고 정확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으로부터의 질의응답에 대한 지침을 수시로 전달하였다. 둘째, 각 팀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임의의 2개 조사구의 설문지에 대한 연구진의 설문결과 검토

를 실시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하였다. 2014년 7월 14일 조사지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설문지 검토결과 도출된 유의점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7월말부터 8월초 기간 중 조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종료 후 7일간(2014년 10월 8일~2014년 10월 14일) 조사완료 노인의 약 10%인 1,006명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대상은 조사원별로 비례배분하여 선정하였다.

4. 자료처리 및 결과제시

조사원이 완료한 설문지는 현장에서 조사지도원의 검토를 거쳐 설문항목의 누락이나 오류를 점검하여 보완하였다. 이렇게 점검된 설문지는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작업에는 약 20일이 소요되었다.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약 두 달에 걸쳐 자료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확인 작업의 주요 내용은 입력에러 확인, 아이디 오류 확인, 범주 에러 확인, 로직 에러 확인, 산식 에러 확인 등이다. 첫째, 입력확인은 기본적인 입력에러를 찾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하여 입력내용과 설문지와 대조 작업을 통해 입력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작업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읍·면·동 번호, 조사구 번호 등이 본 조사의 표본설계의 의한 조사구와 동일한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 성명과 응답자 성명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등을 통하여 각 설문지의 ID를 확인하고 입력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각 문항별 보기를 벗어나는 번호나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 무응답 및 비해당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 등을 찾아 확인하는 범주 에러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셋째, 로직 에러 확인은 문항의 흐름 확인 및 앞뒤 응답의 일치 여부를 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만 연령이 65세 미만(노인이 아닌)인데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에서 대상으로 표기된 경우 등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문항의 지시 사항을 잘 준수했는지, 또는 앞 문항의 응답내용과 뒷 문항의 응답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넷째, 산식 에러 확인은 문항 답변 중 산식을 통해 일치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총 자녀수는 비동거 자녀수와 동거 자녀수의 합이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토된 입력 자료는 연구진의 각자의 전공을 감안한 업무 분장에 따라 SPSS와 SAS, STATA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하여 발견되는 예러나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다시 확인하여 필요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주에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 조사결과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므로 백분율 및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계'의 수치가 '소계'의 합과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의 '계'의 수치가 각 행의 개별 수치의 합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중치 부여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해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항분석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하여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연구구소 득, 취업상태 및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질문 항목에 따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시는 추가되었다. 또한 주제의 특성에 따라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전체응답자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본인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리 응답자의 포함 여부는 표에 주로 표기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도 동일한 항목이 조사된 경우는 관련 표의 하단에 2011년도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2011년과 2014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내용에 대한 시도 통계는 부록에 제시하여 정책입안자나 지역별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표본설계 개요

1. 표본설계 개요

가. 노인가구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모집단은 조사 목적에 의해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표본조사에 의해 표본을 직접 추출하여 대상을 규정하는 조사모집단(sampled population)이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의 2010년 당시, 만 61세 이상인 노인을 모집단으로 정하였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의 전국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리스트이고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층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예전 조사와의 비교가능성과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차 층화하고,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7개 특별·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9개 도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는 중소도시, 9개 도 읍·면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5개 층으로 표본수를 정할 때, 각 층 별로 노인인구 수에 따라 계급근 비례 배분하여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개 시·도별 통계를 고려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지역별 노인 수 모집단 분포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지역별 노인인구 수 모집단 분포

(단위: %, 명)

지역	노인인구 수					
	계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6,884,104		4,873,264		2,010,840	
서울특별시	1,298,685	18.86	1,298,685	18.86	-	-
부산광역시	520,890	7.57	520,890	7.57	-	-
대구광역시	314,806	4.57	314,806	4.57	-	-
인천광역시	286,210	4.16	286,210	4.16	-	-
광주광역시	177,385	2.58	177,385	2.58	-	-
대전광역시	172,952	2.51	172,952	2.51	-	-
울산광역시	79,193	1.15	79,193	1.15	-	-
경기도	12,99,188	18.87	988,407	14.36	310,781	4.51
강원도	277,485	4.03	137,046	1.99	140,439	2.04
충청북도	254,220	3.69	110,030	1.60	144,190	2.09
충청남도	377,792	5.49	81,641	1.19	296,151	4.30
전라북도	356,209	5.17	173,070	2.51	183,139	2.66
전라남도	373,427	5.42	100,463	1.46	272,964	3.97
경상북도	523,299	7.60	166,998	2.43	356,301	5.18
경상남도	488,562	7.10	215,898	3.14	272,664	3.96
제주특별자치도	83,801	1.22	49,590	0.72	34,211	0.50

다. 표본규모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인구의 분포가 시·도별, 동부와 읍·면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가 16개 시·도별로 제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조사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적정표본크기는 적절한 신뢰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각 16개 시·도별로 노인인구 수에 따라 제공근 비례 배분하여 층별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시도별 표본할당결과

(단위: 명)

제공근 비례배정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10,000	6,574	3,426
서울특별시	950	950	-
부산광역시	602	602	-
대구광역시	468	468	-
인천광역시	446	446	-
광주광역시	351	351	-
대전광역시	347	347	-
울산광역시	235	235	-
경기도	1,293	828	465
강원도	621	309	312
충청북도	593	276	317
충청남도	692	238	454
전라북도	703	347	356
전라남도	699	264	435
경상북도	838	341	497
경상남도	822	387	435
제주특별자치도	340	186	154

16개 시·도별 최소표본은 단순임의추출 가정으로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를 5%로 유지한다고 하면, 16개 시도의 최소 표본크기는 384명이다. 제공근 비례 배분으로 표본수를 배분한 결과 시·도별로 최소 4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따라서 16개 시·도별 통계자료 공표 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 표본에서 최대허용오차 한계는 단순임의추출 가정으로 95% 신뢰수준 하에서 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49명, 대전광역시 53명, 울산광역시 165명, 제주 동부 33명, 제주 읍·면부 27명을 추가 배정하여 16개 시·도별로 최소 표본크기가 400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한 시·도별 제공근 비례배정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1-4〉 시도별 표본할당결과: 수정 후

(단위: 명)

제공근 비례배정 수정안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10,327	6,875	3,452
서울특별시	950	950	-
부산광역시	602	602	-
대구광역시	468	468	-
인천광역시	446	446	-
광주광역시	400	400	-
대전광역시	400	400	-
울산광역시	400	400	-
경기도	1,293	828	465
강원도	621	309	312
충청북도	593	276	317
충청남도	692	238	454
전라북도	703	347	356
전라남도	699	264	435
경상북도	838	341	497
경상남도	822	387	435
제주특별자치도	400	219	181

표본추출은 층화 2단계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로,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의 표본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는 조사구 내의 가구로, 최종 조사단위는 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가구는 가구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모집단의 노인가구 수는 5,059,178개이며, 모집단의 조사구 수는 299,902개이다.

지역별 노인가구 수 모집단 분포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6개 시도별로, 동부와 읍·면부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 수는 〈표 1-6〉과 같다.

〈표 1-5〉 지역별 노인가구 수 모집단 분포

(단위: 명, %)

노인가구 수						
지역	계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5,059,178		3,612,982		1,446,196	
서울특별시	947,441	18.73	947,441	18.73	-	-
부산광역시	390,828	7.73	390,828	7.73	-	-
대구광역시	233,203	4.61	233,203	4.61	-	-
인천광역시	215,738	4.26	215,738	4.26	-	-
광주광역시	131,411	2.60	131,411	2.60	-	-
대전광역시	127,440	2.52	127,440	2.52	-	-
울산광역시	61,032	1.21	61,032	1.21	-	-
경기도	953,740	18.85	731,267	14.45	222,473	4.40
강원도	202,760	4.01	101,949	2.02	100,811	1.99
충청북도	183,876	3.63	81,452	1.61	102,424	2.02
충청남도	268,818	5.31	60,563	1.20	208,255	4.12
전라북도	260,097	5.14	128,501	2.54	131,596	2.60
전라남도	273,906	5.41	75,470	1.49	198,436	3.92
경상북도	381,149	7.53	125,083	2.47	256,066	5.06
경상남도	366,665	7.25	165,230	3.27	201,435	3.98
제주특별자치도	61,074	1.21	36,374	0.72	24,700	0.49

〈표 1-6〉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 수

(단위: 개, %)

조사구 수						
지역	계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299,902	100.00	243,292		56,610	
서울특별시	60,928	20.32	60,928	20.32	-	-
부산광역시	21,134	7.05	21,134	7.05	-	-
대구광역시	14,242	4.75	14,242	4.75	-	-
인천광역시	14,978	4.99	14,978	4.99	-	-
광주광역시	9,011	3.00	9,011	3.00	-	-
대전광역시	8,957	2.99	8,957	2.99	-	-
울산광역시	5,394	1.80	5,394	1.80	-	-
경기도	66,581	22.20	54,779	18.27	11,802	3.94
강원도	10,179	3.39	6,117	2.04	4,062	1.35
충청북도	10,059	3.35	5,927	1.98	4,132	1.38
충청남도	13,560	4.52	4,986	1.66	8,574	2.86
전라북도	11,811	3.94	7,865	2.62	3,946	1.32
전라남도	11,270	3.76	4,935	1.65	6,335	2.11
경상북도	18,184	6.06	9,183	3.06	9,001	3.00
경상남도	20,337	6.78	12,475	4.16	7,862	2.62
제주특별자치도	3,277	1.09	2,381	0.79	896	0.30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의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동부 지역의 조사구 당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13% 정도이며, 읍·면부 지역의 조사구당 노인인구비율은 평균 3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모집단의 조사구 당 노인가구 수 및 노인인구 수의 크기가 시도별 보다는 동부/읍·면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동부와 읍·면부의 조사구 당 조사완료수를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당 노인 인구 비율

(단위: %)

지역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13.53	30.82
서울특별시	13.84	-
부산광역시	17.11	-
대구광역시	15.02	-
인천광역시	11.77	-
광주광역시	13.71	-
대전광역시	12.57	-
울산광역시	10.03	-
경기도	11.13	18.09
강원도	16.77	28.96
충청북도	13.06	28.85
충청남도	11.74	28.58
전라북도	15.45	40.52
전라남도	14.51	39.47
경상북도	13.98	34.91
경상남도	12.15	29.77
제주특별자치도	13.62	28.18

각 층별 표본조사구는 해당 지역별로 인구수(세대수)의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소 표집되지 않도록 하였고, 조사구당 동부와 읍·면부의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동부지역은 조사구 당 10명, 읍·면부는 조사구 당 20명을 조사 완료하도록 하였다. 각 층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세대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을 고려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법을 사용하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 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가하도

록 하였다. 표본 가구 선정은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가구를 조사하도록 하며,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총 표본 조사구 수는 866개이며, 표본 노인 수는 10,327명이다. 실제 완료된 총 조사구 수는 975개이며, 조사 완료 노인 수는 10,451명이다.

〈표 1-8〉 표본조사구

(단위: 개)

지역	표본조사구		
	계	동부	읍·면부
전국	866	690	176
서울특별시	96	96	-
부산광역시	60	60	-
대구광역시	48	48	-
인천광역시	45	45	-
광주광역시	39	39	-
대전광역시	39	39	-
울산광역시	42	42	-
경기도	110	84	26
강원도	46	30	16
충청북도	43	27	16
충청남도	46	24	22
전라북도	54	36	18
전라남도	49	27	22
경상북도	57	33	24
경상남도	61	39	22
제주특별자치도	31	21	10

2. 가중치 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가. 가구 가중치

먼저, 설계 가중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본설계 단계에서 표본추출의 1차 추출 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지역과 노인가구 수(1인 가구, 비1인 가구)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청 2014년 노인가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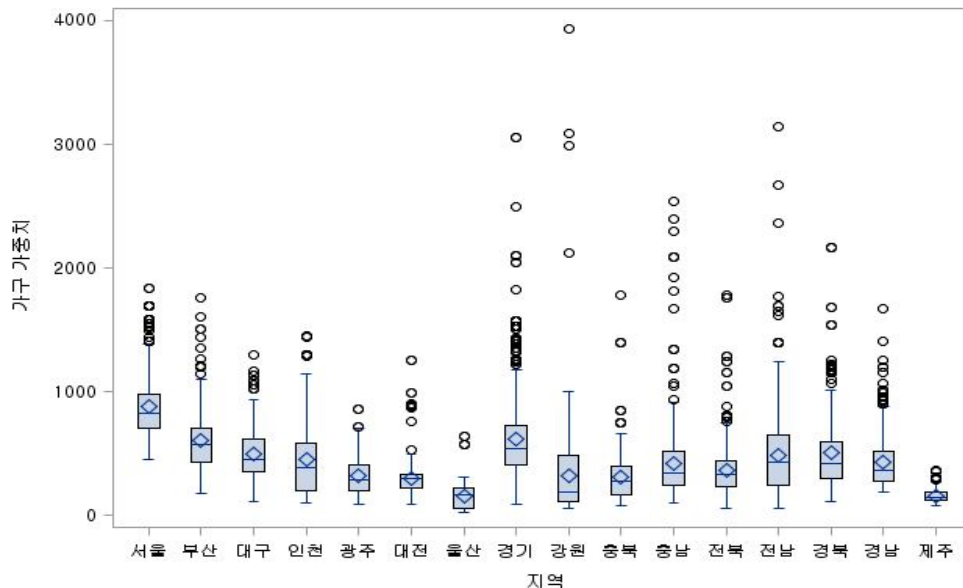
〈표 1-9〉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 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7,889	469.3	3.57	401.2	234.9	622.5	0.7
서울	728	877.0	9.1	824.4	707.7	983.5	1.0
부산	484	602.2	11.2	570.1	426.8	705.5	1.9
대구	359	491.2	11.9	454.7	349.7	614.8	2.4
인천	354	447.7	15.4	388.6	195.0	585.1	3.4
광주	297	316.2	8.7	285.9	203.8	408.6	2.7
대전	288	302.8	9.3	298.0	216.7	329.9	3.1
울산	334	159.2	5.4	170.7	52.5	219.7	3.4
경기	1,042	613.4	10.4	540.0	409.4	726.5	1.7
강원	474	317.0	15.7	193.3	114.5	485.0	4.9
충북	437	313.2	9.3	278.5	168.1	394.9	3.0
충남	501	416.5	13.9	340.3	248.2	519.9	3.3
전북	545	367.3	9.2	331.7	233.3	440.6	2.5
전남	517	483.9	15.1	433.9	248.1	648.9	3.1
경북	583	504.3	12.3	423.7	300.7	591.8	2.4
경남	647	428.1	7.8	367.8	276.4	520.4	1.8
제주	299	158.5	3.1	149.2	119.1	183.6	2.0

전체 표본 노인가구 수는 7,889가구이며, 가구 가중치의 전체 평균은 469.3으로, 노인가구 한 가구가 469.3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가구 가중값 평균은 877로 가장 높으며, 제주 지역은 158.5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은 평균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이 824.4로 제일 높았으며, 제주 지역이 149.2로 가장 낮았다.

[그림 1-4] 가구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나. 개인 가중치

개인 가중치의 설계 가중치는 가구의 설계가중치에 가구의 조사된 노인수와 가구의 총 노인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A_{hij}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j 번째 가구의 총 노인 수

a_{hij}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j 번째 가구의 조사된 노인 수

$$\text{설계가중치} = \text{가구 설계가중치} \times \frac{A_{hij}}{a_{hij}}$$

무응답 조정은 가구가중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 (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개인 가중치는 지역, 성별, 연령별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청 2014년 노인인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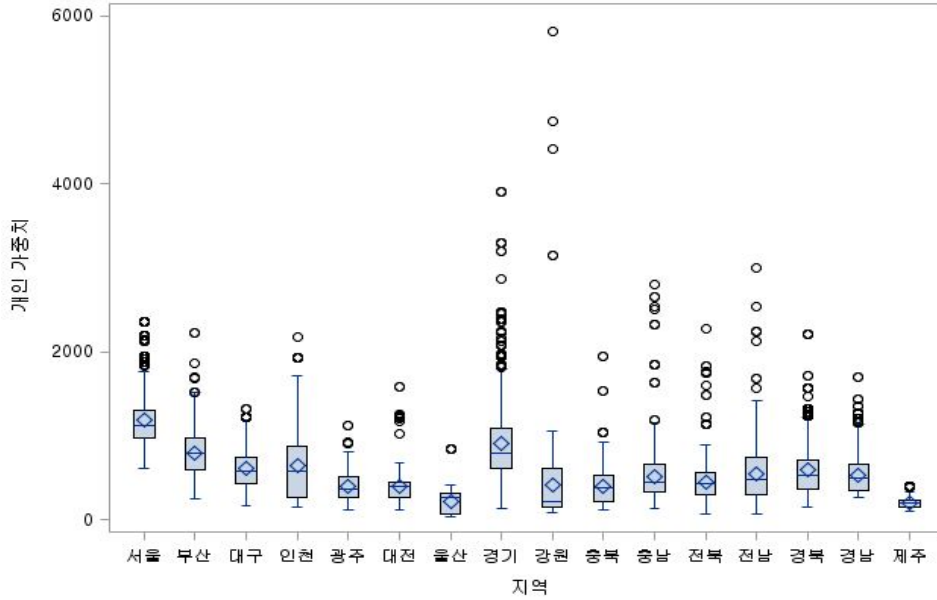
〈표 1-10〉 지역별 개인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10,451	610.9	4.1	519.7	307.1	816.6	0.6
서울	960	1,184.8	10.2	1,115.0	977.6	1,306.8	0.9
부산	600	794.5	12.0	792.0	602.7	971.2	1.5
대구	481	616.3	11.9	580.9	436.7	744.5	1.9
인천	450	639.1	19.4	578.3	261.5	876.2	3.0
광주	400	398.3	9.0	362.7	260.1	507.5	2.3
대전	400	390.1	9.7	397.8	271.6	443.6	2.5
울산	420	221.4	6.5	264.2	64.7	312.2	2.9
경기	1,360	902.7	13.2	797.1	607.5	1,088.5	1.5
강원	621	407.4	18.3	216.9	154.8	605.2	4.5
충북	590	395.7	9.2	373.4	209.3	523.4	2.3
충남	688	513.6	13.0	440.6	325.5	666.9	2.5
전북	721	451.2	9.1	435.0	299.3	562.0	2.0
전남	710	539.4	12.9	481.2	294.9	746.8	2.4
경북	800	592.7	11.5	534.9	367.9	713.0	1.9
경남	840	534.0	8.1	502.5	343.5	668.0	1.5
제주	410	196.3	3.2	192.5	148.3	236.0	1.6

전체 표본 노인 수는 10,451명이며, 개인 가중치의 전체 평균은 610.9로, 노인 한 명이 610.9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개인 가중값 평균은 1,184.8으로 가장 높으며, 제주 지역은 196.3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 역시, 서울 지역이 1,115로 제일 높았으며, 제주 지역이 192.5로 가장 낮았다.

[그림 1-5] 개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다음은 가구특성에 대한 주요항목의 추정값과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여 추정값의 정확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주요항목은 가구 총소득액과 월평균 소비지출액이고 지역 구분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상대표준오차 결과, 가구 총소득액에서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상대표준오차가 컸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는 동부보다 읍면부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CV, %)

항목		전체	지역구분	
			동부	읍면부
		CV	CV	CV
주요항목	가구 총소득액	4.30	5.16	4.42
	월평균 소비지출액	3.19	3.80	4.54

주요항목인 가구 총소득액을 표준오차와 95% 신뢰구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는 가구 총소득액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이 2,204.61만원인데 반해, 읍면부는 하한값이 1,653.16만원이며, 동부의 가구 총소득액 95% 신뢰구간 상한값은 2,704.74만원, 읍면부는 1,972.30만원이다. 읍면부의 가구 총소득액 95% 상한값은 동부의 가구 총소득액 95% 하한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지역구분별 [가구 총소득액]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원)

지역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99.19	2109.82	2500.24
동부	126.88	2204.61	2704.74
읍면부	80.19	1653.16	1972.30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표준오차와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이 140.90만원, 상한값은 163.73만원이다. 읍면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이 105.76만원, 상한값은 126.80만원이다. 읍면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95% 상한값은 동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95% 하한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지역구분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원)

지역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4.60	134.84	152.95
동부	5.79	140.90	163.73
읍면부	5.28	105.76	126.80





제2장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특징
- 제2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 제3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



2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특징

1. 노인실태조사 개요

노인실태조사가 법정 조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은 2008년도 조사부터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의 생활현황과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1994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998년, 2004년에 노인실태조사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기간 중 실시된 각 조사를 비교한 <표 2-1>에 의하면 조사규모 및 조사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2008년 이전까지는 법적 기반이 없어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의 규모가 작았다. 따라서 전국통계 산출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이전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도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지역별 고령화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인식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조사는 종단조사로서의 성격을 내세웠고, 2011년 조사는 2008년 조사의 두 번째 주기(wave)의 조사임과 동시에 2011년 기준 65세 이상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는 횡단조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노인실태조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²⁾ 2014년 조사에서 비로소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의 횡단조사로 성격을 확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4년 조사표는 이러한 횡단조사로서의 성격에 기초한 조사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 각 년도의 노인실태조사의 특성과 변화과정은 정경희(2013)에 정리되어 있음.

〈표 2-1〉 노인실태조사 개요 (1994~2014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조사 명칭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기간	1994년 4월 4일 ~ 5월 5일(32일)	1998년 4월 13일 ~ 5월 31일(49일)	2004년 6월 28일 ~ 9월 10일(75일간)	2008년 8월 11일 ~ 2009년 1월 10일 (5개월간)	2011. 8. 30 ~ 11. 29 (3개월간)	2014. 6. 11 ~ 9. 4 (3개월간)
조사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2008년 기준 만 60세 이상 (2011년 기준 만 63세 이상)	2014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58명	2,535명	3,278명	15,146명	11,542명 (65세 이상 10,675명 포함)	10,451명
수행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계명대산학협력단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조사 성격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종단조사	종단조사 + 횡단조사	횡단조사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설문지 종류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동거자녀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 승인	통계공표승인번호 331-03	통계공표승인번호 09807	통계승인번호 33105	통계승인번호 11771	통계승인번호 117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71 변경승인

주: 각 년도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1994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8 -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수정보완의 기본방향

조사표를 수정·보완함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한 것은 주요 조사내용을 유지함으로써 시계열 비교를 통하여 노인의 특성과 요구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정보완작업을 실시하는 것

또한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노인관련 유사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조사자료의 활용 정도의 점검 및 정책담당자의 의견 청취,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실태조사가 법정 조사라는 측면에서 제도 보완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항목을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노인 및 고령화 대책의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의 강화, 보편적·사전 예방적 정책으로의 변화 및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노인상 정립의 강조 등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였다(이삼식 외, 2010). 더불어 노인복지학 및 노년학 등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사항목 개발에도 관심을 두었다.

제2절 노인실태조사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2008년, 2011년, 2014년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비교하기에 앞서 전체 설문지 구성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표 2-2>와 같다. 2008년 조사에서는 가구사항은 가구조사표를 통하여, 노인개인사항은 노인개인조사표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동거자녀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노인개인조사표로 일원화하고 가구사항은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에게 질문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표 일원화는 2014년 조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영역별 구성은 2011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역의 순서의 조정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재배치하는 것이 조사의 원활한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사전조사 결과, 노인으로부터 조사에 대한 호응을 얻어내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응답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건강관련 영역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가족관계가 예전에 비하여 약화되면서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심리적 장벽이 생기고 있다는 현실 판단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건강상태-건강 행태-기능상태와 간병 수발-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경제 상태(개인)-(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생활환경-노후 생활과 삶의 질-인지기능-경

제상태(가구)의 순서로 영역을 재배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 증대 및 조사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지는 등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사내용을 2011년에 비하여 약간 축소하였다. 특히 정책적 필요도가 낮은 영역은 삭제하고(『노인복지서비스(K)』영역), 의미있는 몇 개의 질문 항목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동배치하였다. 더불어 노인생활현황과 관심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사 항목을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조사나 행정통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사내용을 조정하였다. 각 영역별 조사내용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 (2008~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1. 가구조사표	I.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원 일반사항		
B. 주거형태		
C. 소득	II. 가구 경제상태	N. 가구 경제상태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2. 노인 개인조사표	III. 노인개인특성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A. 가구형태 및 (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G.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B. 건강상태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C. 건강행태
N. 의료서비스 이용	-	-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F.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H. 소득	I. 경제상태	G. 경제상태
I. 생활비와 용돈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F. 경제 활동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E.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T.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K. 생활환경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M. 인지기능

1. 가구 일반사항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기본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노인실태조사 중 가장 변화가 적은 영역이기도 하다. 본 영역은 가구의 규모와 구조, 각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가구 및 노인의 일반특성과 관련해서는 각 가구원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를 파악하는 내용이 2008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표 2-3〉 참조). 단, 노인가구원인 경우 교육연수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인지기능(M)』영역의 경우 인지기능저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성과 연령 및 교육년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의 교육년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2008년도에는 재학, 중퇴, 졸업 등 이수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이수여부는 삭제하고 중퇴나 휴학의 경우는 그 전 단계의 학력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단, 만 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현재 재학 중인 학력으로 기록된다.

또한 연령의 경우 2014년 조사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연령만을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실제 연령만을 조사하였고, 2011년 조사에서는 실제 연령과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연령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전국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것과 정책대상자 선정 등이 주민등록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생월과 만 연령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2011년 조사부터는 각 가구원의 가구 내 위치를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하여 파악하던 것에서 노인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조사에도 이어지고 있다. 본 조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2-3〉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각)가구원 이름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성별	○	○	○
연령	△ ²⁾	○	○
비동거이유	○	×	×
혼인상태	○	○	○
교육수준			
- 이수 여부	○	×	×
- 학력	○	○	○
- 교육연수(노인만)	△ ⁴⁾	○	○
취업여부	○	○	○
응답 노인과의 관계	×	○	○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	○	○	○
배우자 노인조사 실시 여부	×	×	○ ⁵⁾
조사원 확인사항(가구원 형태) ¹⁾	×	○	×
현재와 2013년 가구원 수 비교			
- 증감 여부	×	×	○
- 2013년 가구원 수	×	×	○
가구원수	△ ²⁾	○	○
노인가구원 수	△ ²⁾	△ ²⁾	○
조사원료노인 수	△ ²⁾	○ ³⁾	○
노인가구 형태	△ ²⁾	○	○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수			
-성별, 혼인상태별	△ ²⁾ 6)	△ ²⁾	○

- 주: 1)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누락가구원, 분가가구원, 삭제가구원
 2)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3) 종단조사 특성으로 인해 2008년도 조사원료노인수도 조사하였음.
 4) 만 60세 이상 응답자 중 초등학교 중퇴자에 한해 교육연수를 질문하였음.
 5)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배우자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6)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영역)에서 생존해 있는 자녀 여부, 자녀 수, 자녀성별, 자녀와의 동거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질문하고 있음.

각 가구원에 대한 기본 특성이 파악되면 가구원 수, 가구형태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조사원이 이러한 기본 사항을 종합하여 기록하는 것을 설계하였다. 이 외에도 가구원 정보에 기초하여 동거 자녀의 수를 성별 및 혼인상태별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영역에서 비동거자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가구원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 상황을 종합 정리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조사원의 기록 부담을 저하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2013년과 2014년 6월 30일 기준의 가구원 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상태(N)』(가구)영역 및 노인 개인 소득관련

『경제상태(G)』(개인)영역이 모두 2013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균등화 소득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3년의 가구원수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1년간의 노인가구의 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일상생활에 다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소정 외, 2009; Ward, 1985). 기본적인 틀은 2008년~201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2011년의 주제(특성 파악, 접촉, 연락, 부양의 교환 등) 별 설문지 구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구조와 작동 실태를 모두 살펴봐야 하는 복합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에 이 모든 측면을 담기에는 조사실시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 파악에 초점을 두되 관계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갈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구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항목을 강화하였으며, 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른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배우자의 중요성 증대를 반영하여 배우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질문항목은 축소를 하고 손자녀 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대상별로 조사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2-4>와 같다. 자녀관계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접촉이나 부양의 교환과 같은 긍정적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본다

는 기본방향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도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배우자와의 건강과 활동의 공유 정도 및 만족도, 정서적 및 도구적인 도움의 교환 외에도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의 충분성과 신뢰도에 대한 질문과 부부갈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단독가구의 경우는 거주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자녀와 경제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가 중심이 되는 형태에서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목 추가 외에도 항목 삭제가 있었는데, 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항목이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생존여부와 건강상태만을 파악하고 왕래 및 연락빈도, 동거여부 등은 삭제하였다. 이는 노인의 부모세대가 생존해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항목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상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형제·자매와 친인척을 분리해서 물어봤으나, 2014년에는 2008년과 동일하게 묶어서 파악하고, 친구의 범위가 주관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친구·이웃이라는 표현은 친구·이웃지인으로 확장하는 등의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배우자, 자녀,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타 영역(『노후 생활과 삶의 질(L)』) 영역에서 조사하고 있다.

〈표 2-4〉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H영역과 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 자녀 여부	○ ¹⁾	○	○ (선택지 수정)
- 자녀 수	△ ²⁾	○	○
- 자녀 성별	△ ²⁾	○	○
- 자녀 결혼상태	△ ²⁾	○	○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조사원 확인사항(동거자녀/비동거자녀/총자녀)			
- 성별/결혼상태별 자녀 수	△ ²⁾	○	△ ²⁾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³⁾			
- 대상(노인과의 관계)	○	○	○
- 해당자녀 거주지까지의 이동시간	○	○ (선택지 수정)	○
- 해당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 갈등 경험 여부	×	×	○
-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	×	○
비동거손자녀			
- 존재 여부	○	○	○
- 손자녀 수	○	○	○
-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손자녀 배우자 포함)	○	○
조사원 확인사항 (동거손자녀/비동거손자녀/총손자녀 수)	△ ²⁾	○	△ ²⁾
배우자			
- 배우자의 건강상태	○ ⁴⁾	○	○
-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년')	○ ⁴⁾	×	×
-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은 기간('년')	○ ⁴⁾	×	×
-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빈도	×	○	○
- 배우자와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교환	○ ⁴⁾	○ ⁵⁾	○
- 배우자와의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교환	○ ⁴⁾	○ ⁵⁾	○
- 배우자와의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교환	○ ⁴⁾	○ ⁵⁾	○
-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⁵⁾	×
-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⁵⁾	×
-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⁵⁾	×
- 배우자에 대한 생각(대화, 신뢰)	×	×	○
- 지난 1개월간 갈등 경험 여부	×	×	○
- 갈등의 가장 큰 원인	×	×	○
가구형태			
- 단독가구 시작 시점	○ ⁶⁾	○	○
- 단독가구 형성 이유	×	○	○ (선택지 수정)
-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	×	○
- 기혼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기혼자녀 동거가구)	○ ¹⁾	○	○ (선택지 수정)
- 기혼자녀와의 경제생활/일상생활 분담방식 (기혼자녀 동거가구)	×	×	○
선호하는 노후생활			
-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생각	○ ⁷⁾	○ ⁸⁾	○
-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 ⁷⁾	○ ⁸⁾ (선택지 수정)	○
- 선호하는 향후의 거주형태	×	○	×
-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⁷⁾	○ ⁸⁾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생존여부	○ ⁹⁾	○	○
- 생년	○ ⁹⁾	○ (연령 질문)	×
- 건강상태	○ ⁹⁾	○ (선택지 수정)	○
- 비동거 여부	○ ⁹⁾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왕래빈도(지난 1년간)	○ ⁹⁾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연락빈도(지난 1년간)	○ ⁹⁾	△ (동거포함 질문)	×
-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⁹⁾	×	×
형제자매			
- 생존여부	△ (비동거만)	○	○
- 살아있는 형제자매수	△ (비동거만+성별포함)	○	○
-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고민상담 (정서적 도움)교환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교환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① (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② (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③ (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	×
-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 (형제자매 제외)	○	○
친구이웃지인			
-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지인 제외)	△ (지인 제외)	○
-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 (지인 제외)	△ (지인 제외)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친구이웃과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교환	○	×	×
- 친구이웃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교환	○	×	×
- 친구이웃과의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친구이웃과의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	×
-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관계만족도	○	×	×
동거가족 외 사람이 찾아오는 빈도(지난 1개월)	×	×	○

주: 1)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직접 기입하는 항목은 없지만, 조사표상에서 산출가능함.

3) 2008년의 경우, 연락과 왕래를 구분하여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을 구분하였고, 2011년과 2014년은 통합하여 구분

4)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5)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C)』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6)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영역에서 단독가구로 살게 된 '기간'으로 질문

7) 2008 『노후 생활과 삶의 질(T)』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8) 2011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9) 『부모님과과의 관계 및 지원(E)』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10) 현물은 시가로 환산

3. 부양의 교환실태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과 그 사이에서 이뤄지는 자원의 교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노년기에는 은퇴 등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관계망이 줄어들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나 부모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가정 내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비공식적 관계망 역시 축소될 수 있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은 고립과 관련되어 있고, 노년기의 고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노년기의 삶, 나아가 생존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관계망의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노인실태조사는 이전의 조사부터 부양의 교환에 대해 조사해왔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를 기점으로 부양의 내용별 조사에서 대상별로 주고받는 부양의 내용을 상

세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부양 교환 조사 대상은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다. 각 대상별과 정서적 도움(고민상담), 도구적 도움(청소, 식사 준비, 세탁), 간병·수발·병원 도움 동행 여부에 대해 교환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적 도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정기적 현금 지원, 비정기적 현금 지원, 현물 자원에 대해 교환을 확인하였다.

노년기의 부양의 교환이라고 하면 수혜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점차 노년기가 장기화 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려는 의지가 증가하는 등의 추세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부양의 수혜뿐만 아니라 제공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내용을 유지하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동거, 비동거)와 부모의 존재 여부와, 존재할 경우 정서적·도구적·신체적·경제적 도움에 대하여 주고받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는 2011년과 동일한 형태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의 교환을 제외하고 물어봤으며, 설문지 흐름 상 본 영역이 아닌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H)』영역으로 배치하였다.

2014년에 보완된 부분은 손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으로,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증)손자녀를 직접 돌본 경험에 대해 그 여부와 돌본 손자녀 수를 기록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현 노인세대의 위와 아래로의 부양의 교환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5〉 노인의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관계(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동거자녀/비동거자녀/본인(배우자)부모 ¹⁾²⁾³⁾			
- 존재여부(조사원 확인사항)	△ ⁵⁾	○	○
-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간병·수발·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	○	○
-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⁴⁾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손자녀			
- 지난 1년간 직접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명수	○ ⁶⁾	×	○
- 손자녀를 돌보게 된 이유(중복선택)	○	×	×
- 손자녀를 돌본 평균 시간(주당)	○	×	×
-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 여부 및 월평균 금액	○	×	×
- 손자녀 돌봄에 대한 생각	○	×	×
- 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	×

- 주: 1) 2008년에는 동거자녀/비동거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하였고, 타 연도에는 없는 '손자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음(『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D)』영역).
- 2) 2008년의 경우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은 '현재부터 1년 전'이 기준인 반면에 경제적 도움은 '작년 한해(2007년)'로 질문함. 2011년도와 2014년도의 경우 모두 '지난 1년간'이 기준이었음.
- 3) 2008년은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영역,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D)』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 4) 현물은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
- 5)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표의 여러 영역에 확인하는 문항 존재
- 6) '현재부터 1년 전' 기준으로 만 9세 이하의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았는가를 질문하였고, 손자녀 수를 동거와 비동거 손자녀로 구분하였음.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본 영역의 경우 2008년도부터 대상자별로 각 자원의 교환에 대해 물어보았기 때문에 2008년도 문항을 되도록 유지하였다(〈표 2-5〉 참조). 2008년도에는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손자녀, 부모, 배우자와 정서적·도구적·신체적·경제적 도움 교환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1년도에는 손자녀와의 관계는 응답비율이 높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노년기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즉, 2008년도에는 손자녀의 경우에도 다른 비공식 자원과 마찬가지로 각 자원에 대해 물어보고 양육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실제로 손자녀와 관련 자원의 교환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삭제될 유지하되, 양육에 관한 내용은 위아래로의 부양의 부담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추가하였다. 또한 배우자와의 도움의 교환은 질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하여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H.)』영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4. 노후 생활과 삶의 질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기존의 조사내용을 유지하되 노인의 특성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령구범의 변화 및 연령차별,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증대가 바로 이번 설문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최근 관심사이다. 노인들은 어떠한 연령구범을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사회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 및 이성교제관련(intimate relationships) 설문과 같은 기존 조사내용 중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대폭 삭제하였다. 아직 노인들이 적극적이고도 솔직하게 설문에 응하지 않는 경향과 성상담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정책 활용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혼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노후의 이성관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각 조사의 본 영역관련 조사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2-6>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2011년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노인단독가구 증대에 따라 친구 및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항목은 모두 삭제하였다.

한편, 노인차별 경험 유무 및 가장 차별을 많이 당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을 처음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종류별 경험유무와 행위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보호에 있어 구심점이 되고 있는 노인보호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죽음과 관련한 항목은 유지하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존엄성을 유지하는 죽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표 2-6〉 노인의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삶의 만족도			
- 건강상태	○ ¹⁾	○	○
- 경제상태	○ ²⁾	○	○
-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 ³⁾	○	○
-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 ⁴⁾	○	○
- 사회·여가문화활동	○ ⁵⁾	△ ⁵⁾	○
-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 ⁶⁾	×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구간측정)	○	○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	×	○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생각	×	×	○
노인차별			
- 차별 경험 여부	×	×	○
- 빈번한 차별 경험 내용	×	×	○
노인학대 경험 유무/행위자 ⁷⁾			
- 신체적 학대	○	○	○
- 정서적 학대	○	○	○
- 경제적 학대	○	○	○
- 방임	○	○	○
- 유기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 여부	×	×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죽음에 대한 준비			
- 수의	×	×	○
- 묘지(납골당 포함)	×	×	○
- 상조회 가입	×	×	○
- 유서 작성	×	×	○
- 죽음준비 교육 수강	×	×	○
장례			
- 선호하는 장례방식	○	○	○
- 화장 시 유골처리방법	○	×	○ (통합질문, 선택지 수정)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	×	○
주택연금/농지연금			
- 인지 여부	×	○	×
- 활용 의사 여부	×	○	×
- 활용 의사가 없는 이유	×	○	×
자살(만 60세 이후)			
- 자살 생각 경험 여부	×	○	○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	○	○ (선택지 수정)
- 자살 시도 경험 여부 및 횟수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	○ (선택지 수정)	×
지속적인 간병·수발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법	○	×	×
현재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	×	×
현재 가구형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
노후생활 준비 여부(준비 중 포함)	○	×	×
노후생활비 마련 여부 또는 마련 계획(복수응답)	○	×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영역	○	×	×
본인 삶에 대한 생각(25가지 척도)	○	×	×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	×	×
성생활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 의향	○	×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중요성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빈도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만족도	○	○ ⁸⁾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불만족 이유	○	×	×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도	×	○	×

주: 1) 『건강상태(L)』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자산과 부채(J)』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3)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 영역과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C)』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만족도 측정

5) 2008년: 『여가 및 사회활동(R)』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011년: 『여가 및 사회활동(J)』 영역에서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함.

6)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G)』 영역에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

7) 2008년: 행위자를 '함께 사는 가족', '따로 사는 가족', '가족이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복수응답형태 질문

2011년, 2014년: '노인과의 관계'로 질문

8) 배우자/이성친구에 대한 제한없이 질문

5. 경제 상태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 빈곤율이 점차 심화되면서 경제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험적 자료로는 노인의 경제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기존의 노인 경제 상태에 대한 조사들을 참고하여 노인과 가구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들의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노인가구와 가구 내에서 노인개인의 객관적인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2008년, 2011년 노인실태조사와 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국민연

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살펴본 결과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에 대한 조사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의 소득 및 자산과 항목별 지출액이 조사되었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조사부담으로 인하여 가구 수준의 경우 총지출액과 가구 내에서 항목별 부담순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고령화패널조사는 일부항목에 대한 가구지출만을 조사하고 개인지출을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부분에서는 개인의 항목별 소득을 조사하고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가구지출만을 조사하고 개인에 대한 지출은 조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가구와 개인의 항목별 소득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을 5점 척도로 살펴보고 현재 가구의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식비, 교육비, 월세, 주거 관련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부채상환 그리고 기타항목에서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객관적인 소비지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가구지출에서 노인만을 위한 지출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12가지 항목을 참고하여 노년기 삶에서 의미 있는 항목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년 한 해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를 노인을 위한 지출항목으로 설문에 포함시켰다.

소득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알기 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세후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 본인의 지난 한 해의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노인과 함께 배우자의 연소득을 조사하여 합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별로 파악하였고, 가구소득과 노인개인소득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가구 소득중 개인소득과 부부단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정량적인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경

제 상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의료급여수급 실태를 통해 파악하였다.

자산에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타자산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구전체의 자산을 조사하여 가구자산에서 노인의 소유의 자산비율을 통해 가구 내에 노인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2014년 조사표는 2008년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2011년의 조사표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표 2-7〉 참조). 특히, 가구지출에 대해서는 2011년과 같이 가구총지출만을 살펴보고 식비를 포함한 항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개인지출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 경조사비, 문화여가비를 새롭게 조사하여 노인의 삶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2011년 조사와 동일하게 노인, 배우자 그리고 가구의 소득을 나누어 조사했으며 질문사항은 2008, 2011, 2014년의 조사표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됐다. 2011년 조사표와 같이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재산소득으로 합산해서 조사하고 보험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을 기타공적급여로 합산했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여기에 근로장려세제를 추가하였다.

주택의 경우 거주형태라는 측면은 『생활환경(K.)』영역에서 파악하고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가치는 ‘부동산자산 시가’에 모두 포함해서 조사하였다. 이전 조사에서는 (자가) 집의 시가, (전세) 전세보증금, (월세/기타)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조사하였으나 2014년도 조사에서는 단순화한 것이다. 또한 2008년, 2011년과 같이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지만 2014년에는 ‘기타자산’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자산기준과 유사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7〉 노인의 경제 상태(G영역과 N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	2011	2014
가구 (N)	주관적 생활수준	○ ¹⁾²⁾	○ ²⁾ (선택지 수정)	○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 ³⁾	○	○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작년 한 해)			
	- 식비	○	×	×
	- 교육비	○	×	×
	- 차량유지비	○	×	×
	- 주거비	○	×	×
	- 보건의료비	○	×	×
	- 교양문화오락비	○	×	×
	- 내구재	○	×	×
	- 통신비	○	×	×
	- 피복비	○	×	×
	- 대중교통비	○	×	×
	- 기타	○	×	×
	- 경조사비	○	×	×
	- 헌금 및 각종 기부금	○	×	×
	- 이자상환액	○	×	×
	- 비동거가족에 대한 생활보조금	○	×	×
	- 기타	○	×	×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	○ (선택지 수정)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⁴⁾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통합질문)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공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기타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총소득	△ ³⁾	○	○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소유하고 있는 집 여부	×	○	×	
주택 시가(소유, 전세, 보증금, 월세)	○	○ ⁶⁾	×	
주택 종류	○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 및 월평균 급여액	○	△ ⁷⁾	△ ⁷⁾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노인(본인) (G)	가구 생활비 및 용돈 주 부담 주체	○ ⁸⁾	○	×
	생활비 또는 용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자녀	○	×	×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용돈 금액(월)	○	×	×
	용돈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영역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⁹⁾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⁷⁾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¹¹⁾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¹²⁾	○	○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 ¹³⁾	○	○
	등록장애인 여부	×	○	×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부채를 지게 된 이유(노인 본인 + 배우자)	△ (배우자 미포함)	○ (선택지 수정)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¹⁵⁾ (연 지출액)	○ ¹⁴⁾	○
	- 의료비 주 부담주체	○ ¹⁵⁾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여부	○	×	×	
배우자 (G)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	○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노인+배우자	총 수입액	×	○	○

주: 1) 2011년/2014년과 다르게 “어르신 님의 경제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

2) 개인의 경제상태 관련영역에서 질문함.

3)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분리할 수 없음.
- 5)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질문
- 6) 조사표 맨 뒤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항목이 있음.
- 7) 2008년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물어본 반면에 2011년, 2014년에는 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액 여부 및 연금여부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경제적 지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로 구분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음.
- 8) 가구생활비가 아닌 노인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만 해당
- 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분리하여 질문
- 10) 2008년 조사에서는 해당영역에 경로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서비스(S영역)에서 인지여부, 현재 수령여부, 급여액, 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 11) 세무항목별(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교통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로 질문
- 12)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산출가능함.
- 13)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여부만 파악가능함.
- 14) 작년 한해 월평균 보건의료비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로 질문, 『건강상태(D)』영역에 해당문항 있으며, 지출유무를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음.
- 15) 『의료서비스 이용(N)』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6.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 향상을 직접 추진하는 중점과제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질병·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및 건강지원 환경의 조성으로 구체화하여 구성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본 계획은 노인의 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의 신체기능 장애율을 유지시키고, 치매 유병률 증가를 경감시키며, 독감예방접종률 및 건강검진 수진율을 증가시키고, 노인의 낙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체계 추진,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이다.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 설계는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년의 조사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였고 분석의 의미가 적었던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위의 두 가지 국가 계획에 언급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사표 문항을 개발하였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의 변화는 다음 <표 2-8>과 같다. 우선 노인의 신체적 건강수준 파악을 위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문항은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소 건강상태와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를 모두 파악하였다.

만성질환은 개인적으로는 기대여명의 감소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의료비의 증가와 생산성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노인의 만성질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본인이 인지하는 만성질환 뿐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여부 및 현재 치료 여부, 의사 처방약 개수에 대한 항목으로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한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우울 증상 및 증후군을 파악하였고, 지표로는 SGDS-K(15개 항목)를 사용하였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신체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자기관리의 건강증진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흡연 및 음주실태, 운동실천율, 영양관리 상태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흡연 및 음주량에 대한 항목은 2011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신체활동 상태는 1주간 운동 여부 및 횟수, 1회 운동 시 운동시간, 운동종류 항목을 유지하고 분석에서 의미가 낮은 운동장소 항목은 삭제하였다. 영양상태(영양관리필요율)파악을 위한 문항은 2008년에 사용한 10개 항목을 모두 유지하였고, 객관적 파악이 어려운 수면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삭제하였다.

예방중심의 질병예방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를 파악하였고,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는 행정통계에 의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본 조사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병원입원 횟수, 보건의료비 등을 파악하였고, 계층 간 의료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의원과 치과 진료의 미충족 항목을 개발하였다.

〈표 2-8〉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B영역과 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평소의 건강상태	○	○ (선택지 수정)	○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	○ (선택지 수정)	○
의사로부터의 장애판정 유무 및 내용	○	×	×
만성질환(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			
- 유무	○	○	○
- 이환 년수	○	×	×
- 의사진단 여부	○	○	○
- 치료 여부	△ (처방약 복용)	×	○
-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 ¹⁾	○	○
-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수('알'기준)	△ (종류, 기간제외)	△(종류)	○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	○	○
현재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	×	×
치료기관 유형(빈도기준)	○	×	×
통증			
- 평소에 느끼는 통증부위(복수응답)	○	×	×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	×	×
건강을 위한 약/건강식품			
- 복용 유무	○	×	×
- 복용의약품 유형 및 종류 수 (처방약, 비처방약, 한방처방약, 건강보조/기능성 식품)	○	△ (처방약만, 3개월 기준)	△ (처방약만('알'), 3개월 기준)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힘듦 정도(주관적)	○	×	×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수행 가능성 정도 (주관적)	○	×	×
신체활동(일주일 기준)			
- 가벼운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경도)	○	×	×
- 가벼운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중강도)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고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고강도)	○	×	×
- 고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흡연			
- 현재까지의 총 흡연량	○	×	×
- 현재 흡연 여부	○	○	○ (과거흡연삭제)
- 1일 흡연량	○	○	×
- 흡연 기간	○	×	×
음주			
- 음주 빈도(지난 1년간)	○	○	○
- 1회 음주량	○	○ (선택지 확대)	○ (선택지 수정)
운동			
- 평소 운동 수행 여부	×	○	○
- 일주일간 운동 횟수	×	△(1개월 기준)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운동시, 1회당 운동 시간	×	○	○
-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	×	○	○
- 주로 운동하는 장소	×	○	×
신체 측정(몸무게, 키)	○ ³⁾	○ ³⁾	○
-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10개, 6개월)	△(7개, 6개월)	○(10개)
의료기관 이용(지난 1개월간)			
- 이용여부 및 횟수	×	△ (2주간 횟수만 질문)	○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지난 1년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외)			
- 이용여부 및 횟수	×	○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난 1년간)			
- 참여여부	×	○	×
- 참여기관	×	○	×
병원 입원(지난 1년간)			
- 입원여부	○ ²⁾	×	○
- 입원횟수	○	×	○
건강검진(지난 2년간)			
- 수진 여부	○	○	○
- 미수진 이유	○	○	×
병의원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	×	○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	×	○
수면			
- 1일 평균 수면 시간(지난 일주일간)	△ ¹⁾	○	×
- 밤 수면 시간	○	×	×
- 낮 수면시간	○	×	×
- 수면제 복용 여부	○	×	×
- 숙면 빈도	○	×	×
독감 예방접종 유무	○	×	×
의료서비스 만족도(지난 1년간)	○	×	×

주: 1)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2)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포함. 『의료서비스 이용(N)』영역에 있음.

3) 신체기능(2008년: 『Q』영역, 2011년: 『F』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7.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의 기능상태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노인의 기능상태는 크게 신체구조상의 감각계통의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들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과거에 사용한 동일한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감각계통의 기능은 시력, 청력 및 씹기 기능,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은 기본적 동작과 수단적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기능발생위험인자를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사전적인 기능장애발생의 예방 및 지연대상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시행하였다. 이는 신체기능상의 허약노인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신체기능의 하락이 예견되는 노인을 선별하여 사전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등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움제공자(수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노인의 기능상태 및 간병 수발에 대한 조사내용의 변화는 <표 2-9>와 같다. 먼저, 감각계통의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청력 및 씹기 능력에 대한 지표는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노인의 허약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과거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지표도 과거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지표로는,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식사능력),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보행능력),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7개 지표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지표로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10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신체기능상의 허약노인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지표들이다.

일상생활동작 기능의 장애에 따른 생활기능의 도움실태는 도움여부, 도움제공주체 및 도움제공시간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특히, 도움제공주체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신설된 요양보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가족원인

경우에는 공적제도에 의해서 마련된 도움제공인력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누구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도록 설문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도움필요자의 비자의적인 제공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두고자 하였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나 이용여부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제도 도입 후 이미 6년이 경과하여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도움필요노인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용여부와 관련된 통계는 이미 노인 장기요양보험통계로 발표되고 있어서 조사의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표 2-9〉 노인의 기능상태와 간병 수발(D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시력/청력/씹기			
- 보조기 사용 여부	○	○	○
- 시력, 청력, 씹기 수준(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	×
-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¹⁾	×	○
물건 쥐기			
- 어려움 여부	○	×	×
- 사용하기 어려운 손	○	×	×
- 오른손잡이/왼손잡이	○	×	×
- 약력측정(응답자 욕구, 자세 포함)	○	×	×
- 약력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걷기			
- 어려움 여부	○	×	×
- 걷기 측정(응답자 욕구 포함)	○	×	×
- 걷기 미측정 이유(중복응답)	○	×	×
근력상태(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수행)	×	○	○ (선택지 수정)
항목별 활동 어려움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	○	○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	○	○
-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	○
-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	○	○
-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	○	○
-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	○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 옷 입기	○	○	○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	○
-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	○	○
- 차려 놓은 음식 먹기	○	○	○
-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	○	○
-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	○	○
- 대소변 조절하기	○	○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	○	○
-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정리정돈 등)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	○	○
-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	○	○
-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	○	○
-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	○	○
-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	○	○
-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	○	○
- 전화 걸고 받기	○	○	○
-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	○	○
일상생활 수발 도움			
- 도움 받음 여부	○	○	○
- 도움을 받게 된 기간	○	×	×
- 도움 받은 주체	(1, 2순위만) ²⁾	(선택지 중 택임) ³⁾	(복수응답)
· 가족원(동거, 비동거)	○	○	○
· 친척, 이웃·친구·지인	○	○	○
·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파출부)	○	○	○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	○	○
·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	○	○
- 가족원 중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	× ⁴⁾	○ (지난 3개월간)	○
-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가족원의 도움정도(일주일)	× ⁴⁾ (빈도구간)	○ (지난 3개월간, 설수기입)	○ (빈도구간)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	×	○
노인장기요양보험 ⁵⁾			
- 인지여부	○	○	×
-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	○	×
- 현재 서비스 이용여부	○	×	×
- 서비스 만족도	○	○	×
- 등급신청경험 여부	×	○	○ (선택지 수정)
- (등급신청 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	○	○ (선택지 수정)
- (등급미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	×	○
일상생활 수행관련 노인복지서비스 ⁵⁾⁶⁾			
-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요양시설	○	△	×
·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병원 등)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주간(야간)보호서비스	○	△	×
· 단기보호서비스	○	△	×
· 방문요양서비스	○	△	×
· 방문간호서비스	○	△	×
· 방문목욕서비스	○	△	×
· 장기요양 보장구 구매 및 대여	×	△	×

주: 1) '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문구 생략, 시력과 청력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 씹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사래가 든 경험 질문.

2)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만 해당

3) 가족원, 외부서비스, 가족원/외부서비스, 기타, 이웃, 가사도우미 중 택일

4) 가족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있음.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2011년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여부만 복수응답형태로 질문함

8. 인지기능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의 기능상태에는 전술한 감각기능과 신체기능 이외에 인지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인지기능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의 치매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의 변화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주관적인 기억력 상태에 대한 설문항목은 개인적인 편차가 심하고, 설문조사당시의 신체적 상태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인지기능진단표는 2008년, 2011년의 MMSE-KC 척도에서 2014년에는 현재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치매유병률조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MMSE-DS로 변경하였다. 이는 활용도 제고의 차원에서의 선택이었다.

<표 2-10> 노인의 인지기능(M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주관적인 기억력 상태	○	×	×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 문항			
- 연도	○	○	○
- 계절	○	○	○
- '일'	○	○	○
- 요일	○	○	○
- '월'	○	○	○
- 도/특별시/광역시	○	○	○
- 시/군/구	○	○	○
- 동/읍/면	○	○	○
- 건물 층수	○	○	○
- 장소 이름	○	○	○
- 3가지 물건 이름 기억(나무, 자동차, 모자)	○	○	○
- 단어 거꾸로 말하기(삼천리강산)	○	○	×
- 빨셈(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3가지 물건 이름 재질문(나무, 자동차, 모자)	○	○	○
- 사물 이름 맞추기 ³⁾	○	○	○
- 듣고 따라하기(간장공장공장장)	○	○	○
-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오른손으로 종이를 받아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놓기)	○	○	○
- 겹쳐진 오각형 그리기	○	○	○
- 이유 말하기(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	○	○
- 속담 뜻 말하기(티끌 모아 태산)	×	×	○
- 상황별 적절한 행동 말하기(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	○	×

주: 1) 2008년/2011년: 열쇠, 도장, 2014년: 시계, 연필

9. 경제활동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2014년도 노인 경제활동 영역의 조사표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은퇴경로에 대한 부분적인 파악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현황에 대한 구체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표 설계와 구성에 있어 구조적 및 내용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조사표 설계의 구조적 변화에서는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직전에 참여했던 일자리(즉,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에 대한 세부영역과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여 노년기 경제활동의 스펙트럼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와 최장기 일자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분류, 종사상지위, 종사기간, 그만둔 이유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노동시장 은퇴 직전의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표의 내용적 변화에서는 현재 노인들의 근로실태의 실증적인 파악에 무게를 두고 조사문항을 검토 및 개발하였으며,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문항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사문항 및 응답범주를 간략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선택지에서 노인대표직업에 대한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노인실태조사는 타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직업구분을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및 중분류를 반영하고 조사하였으며, 표준직업분류군의 빈도와 분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표준직업분류표는 현재 노인

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기존 문헌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65세 노인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대표직종 목록을 구성하여 응답항목으로 개발하여 조사표에 반영하였다.

더불어 노인들의 근로환경과 조건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조사표 설계단계에서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장소)의 특성에 관한 문항과 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한편, 유사하거나 모호한 내용의 응답범주를 대폭 수정하여 응답범주를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일을 그만둔 이유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는 '정리하고, 명예퇴직, 폐업, 휴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소득이 적어서'는 '근로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시간의 축소와 응답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간, 일자리 유형, 만족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 등 비교적 많은 조사문항을 할애하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문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한편, 설문지 개발과정에서 고려하였으나 최종 설문에는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각 단계별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현재 근로소득, 최장기일자리, 최근 그만둔 일자리에서의 발생한 소득을 묻는 문항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근로소득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2011년, 농림어업종사자 52.9%), 2014년 조사시점에서(6월~8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를 기점으로 한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현황 문항은 제외하였다. 최장기 일자리와 최근 그만둔 일자리 영역에서의 근로소득의 경우, 일을 그만둔 시점이 10년 혹은 30~40년 이상이 되는 노인은 응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0~40년 전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기 고용의 질과 관련한 문항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근로환경의 적절성, 육체적 부담정도, 구직과 고용상의 차별경험, 현재 일자리 채용경로 등에 대한 항목들이 조사표 설계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타 영역과의 형평성과 중요도, 우선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조사표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현재 일자리 및 최장기 일자리에 관련된 문항들은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11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표 2-11〉 참조). 향후 희망직종의 경우, 조사문항은 유사하지만 응답대상에서 차이를 두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현재 미취업자 중에서 향후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희망직종 관련 질문을 했다면, 2014년도에서는 미취업자 중 향후 근로희망노인과 현재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직종 관련 문항을 질문하였다.

〈표 2-11〉 노인의 경제 활동(F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조사내용	2008	2011	2014
현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	○ (선택지 수정)	○
-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일의 내용	×	×	○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	×	○
- 근무하는 기관 유형	×	×	○
- 향후 1년간 지속가능여부	×	×	○
-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	△ (근무일수 제외)	○
- 종사 기간	○	○	○
- 근로소득(월평균)	○	×	×
- 경제활동 이유	○	○ (선택지 수정)	○
- 직업에 대한 만족도	○	○	○
-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	×	○
- 현재 일에 대한 지속의향	○	○	○ ¹⁾
-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	○	○
현재까지 취업경험 여부	○	○ ²⁾	○ ²⁾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최장기 종사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	×	○
- 종사 기간(연도/개월)	○ ³⁾	○	○
- 근로소득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활동 참여여부	×	×	○
최근 그만둔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일의 내용	×	×	○
- 종사상 지위	○	×	○ (선택지 수정)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	×	○
- 종사기간(연도/개월)	○ ³⁾	×	○
- 근로소득	○	×	×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향후 근로 희망			
- 향후 근로 희망 유무	○	○	○
- 하고 싶은 일의 특성	×	○	○ (선택지 수정)
- 하고 싶은 일의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희망근로시간	△ ⁴⁾	○	○
- 희망근로소득	○	○	○
- 구직 시 우선 조건(1/2순위)	○	○	×
- 구직노력(1/2순위)	×	○	○ (선택지 수정)
- 근로 희망 이유	○	○ (선택지 수정)	○
노인일자리사업 ⁵⁾			
- 인지 여부	○	○	×
- 참여 경험 여부	○	○ (선택지 수정)	○
- 참여기간/참여빈도	×	○	×
- 참여 유형	×	○	○
- 참여 만족도	○	○	×
-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선택지 수정)	×
- 향후 참여 의향	×	○	○
- 향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	×

주: 1) 향후 근로 희망에 관한 문항에서 파악할 수 있음.
 2) 현재 경제활동 상태문항에서 파악가능함.
 3) 일한 시점에서 그만둔 시점까지 질문한 문항에서 계산가능함. 단, '개월'은 불가함.
 4) 시간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간접적으로만 파악가능함.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2014년 조사표에서 제외된 문항은 '현재 재직자 중 향후 근로희망 유형',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직 시 우선순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일부 문항 등이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향후 근로 희망 유형(유지, 이직, 은퇴)'는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문항으로 통합되어 간소화하였다.

2014년 조사표에서 신규로 추가된 문항은 노년기 대표적 일자리 내용,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현재 일하는 기관(장소),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불만족 이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 문항에서 2011년에는 구직을 위해 이용한 공공 및 사적 직업알선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항목을 구성하였다면, 2014년도 조사에서는 구직과정에서의 이용기관, 구직활동의 내용 등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참여사업 유형, 향후 참여 의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2011년에 포함되었던 인지 여부 및 참여 개월 및 시간, 참여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노인일자리 미참여자의 미참여 이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향후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도 의향만 조사하고 구체적인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관련 질문은 2011년에는 『노인복지서비스』영역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2014년에는 『노인복지서비스』영역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용적 연관성이 높은 본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10.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은 수동적이고 단조로운 편이므로 기존의 활동유형별 실태조사 형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설문 및 응답대상이 적은 문항은 삭제하고 유사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은 삭제 또는 단순화하였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관계 증가 및 사회적 의미(자원봉사 등)와 연계, 재사회화 기능, 도구(컴퓨터, 스마트폰)를 통한 고립 예방,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증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소모 예방 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영역의 조사표 설계는 정책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가활동유형인 평생교육과 자원봉사 등은 기본항목을 유지하되, 활용도가 낮은 세부 질문은 삭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자원봉사는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시민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예: helping others, 기부)에 기초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국제비교를 고려하여 기존의 전 생애에 걸친 자원봉사 경험 외에 지난 1개월간 기부, 다른 사람 돕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여가·일·사회참여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것에 본 조사표 수정보완 작업의 초점을 두었다. 즉 욕구와 실제 참여 실태에 대해 동일한 선택지 개발을 통하여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의 일치여부를 비교하고자 한다. 관심을 두는 활동은 소득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사회 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의 7가지 활동이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과 관련된 조사내용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표 2-12>와 같다. 2014년의 경우 기존에 분리조사된 TV시청 및 여행, 운동 등의 여가문화활동 설문문항을 통합하되, 1순위 조사를 3순위 조사로 확대하였다. 또한 문항별로 상이하던 기존 조사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일치시켰다. 정책적으로 여가문화활동을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고, 조사기간이 지난 1개월과 지난 1년으로 혼재되어 있어 조사 대상자 및 자료 활용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료 활용도가 낮은 여가활동 관련 하위 문항은 삭제하였다.

한편, 평생교육 및 단체활동에서 향후 참여의향에 대한 설문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설문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료의 활용도가 낮은 설문 문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경우 참여비용 자체가 아직도 낮아 관련된 하위 문항의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폭 삭제하였다. 또한 단체활동의 경우도 참여여부와 빈도만을 유지하고 참여역로나 향후 참여 의향은 삭제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기존의 자원봉사 설문문항을 유지하되,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1개월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

기 때문에 관련 중요도가 낮은 하위 문항은 삭제하였다.

더불어,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핸드폰 기능 및 서비스 활용능력에 대한 설문을 신설하였다. 단순한 핸드폰 소지여부 보다는 이를 활용한 여가문화활동의 가능성이 노인층 내에서도 점차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을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시계열자료 축적을 위한 이유도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 7가지 사회참여활동별로 향후 희망하는 정도를 5점 척도의 조사문항을 추가하였다. 노후 삶에서 일-여가 등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노인 사회참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 삶의 유형을 ‘일·개인적 여가·사회적 여가(자원봉사, 평생교육 등)·사교’ 등으로 현재의 참여 정도와 욕구의 비교를 통하여 입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11년도 조사 시 『노인복지서비스』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관한 항목은 본 영역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였다. 이들 기관은 대표적인 노인여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본 영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문 항목 중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시설에 대한 인지 여부, 만족이유 및 미이용 이유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지하였다.

〈표 2-12〉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여가문화 활동 (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 시청 등)			
- 여가문화 활동 여부(지난 1년간)	△ ¹⁾ (통합질문, 1, 2순위)	△ ²⁾	○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3순위		△(1순위)	○
- 주된 여가문화 활동 빈도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 장소	×	○	×
- TV시청 여부(지난 1개월간) 및 평균 시청시간	×	○	×
- 향후 희망하는 여성	×	○	×
여행			
- 여행 경험 여부(지난 1년간)	×	○	○
- 여행 횟수(지난 1년간, 국내/해외)	×	○	○
- 여행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	×	○	×
- 주된 여행 방법(희망)	×	○	×
평생학습	(전 생애 기준)	(현재 기준)	(지난 1년간 기준)
- 참여 여부	○	○	○
- 향후 참여 희망 여부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참여 교육 종류	×	○	○ (선택지 수정)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종류	○	○ (선택지 수정)	×
- 교육 장소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실시 기관	×	○	×
- 참여 횟수	×	○	○
- 향후 참여 희망 횟수	×	○	×
- 교육 미참여(원하지 않는) 이유	○	○ (선택지 수정)	×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현재 기준)	(현재 기준)	(지난 1년간 기준)
- 참여 여부	○ ³⁾	○	○
- 참여 빈도	○	○ (선택지 수정)	○
- 참여 경로(친목단체 제외)	×	○	×
- 향후 참여 의향	×	○	×
항목별 활동(지난 1개월간)			
- 기부	×	×	○
- 잘 모르는 타인 돕기(금전적 대가 없이)	×	×	○
- 자원봉사활동	×	×	○
자원봉사활동			
- 전 생애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	○ (선택지 수정)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	○	○ (선택지 수정)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시작 시점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빈도	×	○	○
- 자원봉사활동 하는 주된 이유	×	○	×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	×
-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분야	○	○ (선택지 수정)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종류	×	○	×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	×
-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원	○	○ (선택지 수정)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	○	○ (선택지 수정)
컴퓨터/인터넷 이용			
- 이용 경험	○	×	×
- 이용 능력 수준	×	○	○
- 이용 영역	○	×	×
핸드폰			
- 보유 여부	×	○	○
- 기능 및 서비스 활용 능력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종교	○	○ ⁴⁾ (선택지 수정)	○
삶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	×	○ ⁴⁾	×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 소득활동	×	×	○
- 자원봉사활동	×	×	○
- 학습활동	×	×	○
- 취미·여가활동	×	×	○
- 종교활동	×	×	○
- 정치사회 단체활동	×	×	○
- 친목단체활동	×	×	○
경로당/노인복지관 ⁵⁾	(전 생애 기준)	(현재 기준)	(지난 1년간 기준)
- 인지 여부	○	×	×
- 이용 여부	○	○	○
- 이용 빈도(일주일 기준)	×	○	○
- 이용 이유	×	○	○
- 이용 만족도	×	○	○
- 이용 불만족 이유	×	○	○
- 이용 만족 이유	×	○	×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
- 향후 이용 의향	○	○	○

주: 1) 현재부터 1년 전까지 가장 즐거웠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우선순위 2가지 질문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제외

3)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단체/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로 개별 구분하여 질문.

4)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있음.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11. 생활환경

가.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노년기 후기로 갈수록 나타나는 보건의료비 급상승은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저하 추세를, 광열수도비 상승과 교통통신비 급감은 가택내 거주시간의 증가와 생활환경의 축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노화는 인간의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이동성이 약화된 노인은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김경래, 2011).

노인의 생활환경은 고령후기로 갈수록 노인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실태자료는 욕구를 예측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 영역은 노인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물리적 환경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들이 노인들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환경영역 조사문항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되, 이동성·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먼저, 주요기관·시설에의 접근성에 관한 항목을 새로 개발하였다. 노인의 신체기능상 거리가 멀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요 생활편의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시간을 측정하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주요시설·서비스 이용 빈도에 관한 항목을 강화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는 경로식당 이용 빈도에 대하여만 개별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나, 식사배달서비스, 종합복지시설, 공공여가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등 주요시설 전반에 대하여 1년간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한 생활환경 개선관련 항목을 개발하였다. 거주지역 불편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종 생활시설, 대중교통, 녹지공간,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족이나 이용불편을 질문하였다.

생활환경은 객관적인 상황파악도 중요하지만, 응답노인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생활환경을 묻는 문항 수에 비례하여 주관적 문항도 적정수준에서 분포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구성 순서는 주거환경에서 외부환경으로 생활반경을 확대하고, 이후 낙상·안전사고·범죄피해 등 개인적 경험을 묻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설문내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여 응답 상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나. 연도별 조사내용 비교

각 연도별로 조사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항목은 주택거주유형, 거주공간, 외출, 운전, 낙상 경험과 두려움, 안전사고, 범죄피해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그리고 조사원 확인사항인 주택종류, 주거위치, 주택편리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외 항목은 당해년도 조사목적상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삭제된 항목에 해당한다(〈표 2-13〉참조).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선택지의 변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거주유형에 관한 질문에서 월세의 유형을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로 구분하였다. 최근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거주지 이외의 소유한 집의 여부는 삭제하였다. 주택의 추가소유여부는 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동산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표 2-13〉 노인의 생활환경(K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4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주택거주유형(자가, 전세, 월세)	○ ¹⁾	○ ¹⁾	○ (선택지 수정)
현 거주지 거주기간	○	×	×
주거위치(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	○	○
주택의 편리성(조사원 확인사항)	×	○	○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	×	○	○ (선택지 수정)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생활하기 편리성 정도	○	×	×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운전			
- 현재 운전 여부	○	○	○
- 과거 운전 경험	○	(통합질문)	(통합질문)
- 운전을 그만둔 연령	(통합질문)	○	○
- 운전 시 어려움 정도(현재)	×	○	○
- 운전 시 가장 어려운 점	×	○	×
비영업용 차량 소유 여부	×	○	○ (선택지 수정)
- 차량가격	×	○	○
교통사고 경험 여부(지난 1년간)	○	○ (선택지 수정)	×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 거리			
-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	○
-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	○
- 읍면동 사무소	×	×	○
-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	×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	×	○
- 버스지하철역	×	×	○
주요시설 및 서비스 이용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인지여부	○ ³⁾	×	×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경험여부	○ ³⁾	○ ⁴⁾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 빈도	×	(지난 2주간, 통합질문)	(지난 1년간, 통합질문, 선택지 수정)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	○ ⁴⁾	×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 여부	○ ³⁾	○ ⁴⁾	×
- 노인돌보미바우처 카드 사용 여부	○ ³⁾	×	×
-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 미이용 이유	○ ³⁾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 여부	×	○ ⁴⁾	×
-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인지 여부	×	○ ⁴⁾	×
-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	○ ⁴⁾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서비스	×	○ ⁴⁾	×
- 양로시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공동생활가정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복지주택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교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휴양소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치매상담센터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학대예방센터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보장구대여 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노인자원봉사지원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³⁾	×	×
- 맞춤형식사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의사	×	○ ⁴⁾	×
-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인지여부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 ³⁾	×	×
-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경험여부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 ³⁾	×	○ (지난 1년간, 통합질문)
-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	×	×
-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 ³⁾	×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경험 및 이용 빈도	×	×	○
-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경험 및 이용 빈도	×	×	○
-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이용경험 및 이용 빈도	×	×	○
경로우대서비스(이용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희망여부)			
- 지하철 무료 이용	×	○ ⁴⁾	×
- 철도 할인	×	○ ⁴⁾	×
-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	×	○ ⁴⁾	×
-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	○ ⁴⁾	×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	○ ⁴⁾	×
- 기타	×	○ ⁴⁾	×
거주지역 불편사항	×	×	○
지금 가장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항		○ ⁴⁾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 ³⁾ (60세 이상)	○ ⁴⁾	×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 2가지	×	○ ⁴⁾	×
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 2가지	×	○ ⁴⁾	×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 ³⁾	×	×
범죄로부터의 거주지역 안전성 정도	○	×	×
낙상(지난 1년간)			
- 낙상 경험 유무	○ ⁵⁾	○ ⁶⁾	○
- 낙상 횟수	○ ⁵⁾	×	(통합질문)
- 병원치료 유무	×	○ ⁶⁾	○
- 낙상 장소	○ ⁵⁾	○ ⁶⁾ (선택지 수정)	×
- 낙상 이유	○ ⁵⁾	○ ⁶⁾ (선택지 수정)	○
-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경험 여부 및 증상	×	○ ⁶⁾	×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도	○ ⁵⁾	○ ⁶⁾	○
1년간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 유무	○	○	○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여부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피싱)	×	○	○
부엌·화장실 유형, 세면·목욕시설 운수여부	○	×	×
화장실·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 여부	○	×	×

주: 1) 2008년: 가구용 설문지에 해당문항 있음.

2011년: 『가구 경제상태(II)』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생활환경(U영역)에서 이동시 문턱, 저녁시간 이후 조명에 대하여 불편함에 대하여 질문

3) 2008년: 『노인복지서비스(S)』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2011년: 『노인복지서비스(K)』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5) 2008년: 『건강상태(L)』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6) 2011년: 『건강상태(D)』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과 관련해서는 선택지를 축소하였다. 기존 설문에서는 기타 포함 13개 항목을 각각 선택지로 구성했으나,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떨어지는 선택지는 삭제하고, 용도가 동일하거나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은 합쳐서 질문하는 형태로 7개로 축소하였다.

외출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전동휠체어와 경운기를 삭제하는 등 선택지를 축소하였다. 전동휠체어와 경운기는 각각 복지용구, 농기계로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전 조사결과 이용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외출 시 불편한 점에 있어서도 보행환경, 도로환경, 교통환경, 편의시설 등으로 집약하여 선택지를 11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다.

비영업용 차량 소유여부는 기존설문지에서는 가구원 중 누가 소유하고 있는 지까지 선

택지를 구분하였으나, 가구원 구분 없이 소유, 비소유로 구분하여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한편, 노인의 낙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낙상 여부 및 횟수, 낙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유무 및 낙상 이유 등에 관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분석의 중요성이 낮은 낙상 장소와 낙상 후유증은 삭제 하였다. 또한 주관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낙상 두려움에 관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낙상관련 질문은 2011년의 경우 『건강상태』영역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응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상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좀 더 질문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동하여 배치하였다.

제3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표 2-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설문영역과 질문의 순서는 응답자의 관점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주요 주제별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부 분석내용은 설문지의 설문항목별 순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각 조사항목별로 분석내용이 포함된 장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전국단위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시도별 분석결과를 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관련된 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본문의 표와 동일한 번호로 부표를 제시하고 있다³⁾.

<표 2-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내용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A. 가구 일반사항	A1.	(각)가구원 이름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A2.	가구주와의 관계	
	A3.	성별	
	A4.	연령	
	A5.	혼인상태	
	A6.	교육수준	
	A6-1.	-교육수준	
	A6-2.	-교육연수(노인만)	
	A7.	취업여부	
A8.	응답 노인과의 관계		

3) 일부 동일한 항목에 대한 표가 본문에 복수로 제시된 경우, 처음 시작하는 표 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렬번호 중 빠진 부표 번호가 있을 수 있음.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A9.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 현재와 2013년 가구원 수 비교	
	A10.	-증감 여부 -2013년 가구원 수 확인 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노인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조사완료노인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노인가구 형태(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수(조사원 확인사항) -성별, 혼인상태별	
	B. 건강상태	B1.	
B2.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B3.		만성질환(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	
B3-1.		-유무	
B3-2.		-의사진단 여부	
B3-3.		-치료 여부	
확인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B4.		복용의약품(처방약) 유형 및 종류 수	
B5.		의료기관 이용(지난 1개월간)	
B6.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및 횟수	
B7.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C. 건강 행태	C1.	흡연: 현재 흡연 여부	
	C2.	음주: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C2-1.	-1회 음주량	
	C3.	운동: 평소 운동 수행 여부	
	C3-1.	-일주일간 운동 횟수	
	C3-2.	-운동 시, 1회당 운동 시간	
	C3-3.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	
	C4.	신체 측정(몸무게, 키)	
	C5.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10개 항목)	
C6.	건강검진(지난 2년간)		
C7.	병의원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C8.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D1.	시력	제9장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D2.	청력	
	D3.	씻기 1) 보조기 사용 여부 2)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D4.	근력상태(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수행) 항목별 활동 어려움	
	D5	1)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2)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러 앉거나, 무릎 꿇기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D6.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7개 항목) 1) 옷 입기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3)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7) 대소변 조절하기				
		D7.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10개 항목)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2)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정리정돈 등)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6)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 관리)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8)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 전화 걸고 받기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D8.	일상생활 수발 도움 받음 여부	
				D8-1.	-도움 받은 주체 · 가족원(동거, 비동거) · 친척, 이웃친구지인 ·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 도우미(파출부)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D8-2.	가족원 중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
					D8-2-1.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가족원의 도움정도(일주일)
					D8-3.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D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경험 여부		
				D9-1.	-(등급신청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D9-2.	-(등급미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E.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E1.	여가문화 활동(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 시청 등) 여부(지난 1년간)	
		E1-1.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3순위	
		E1-2.		-여행 경험 여부(지난 1년간) 및 여행 횟수(지난 1년간, 국내/해외)		
				E2.	평생학습 참여 여부	
		E2-1.		-참여 교육 종류		
				E2-2.	-실시 주체	
				E2-3.	-참여 빈도	
		E3.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E3-1.	-참여 빈도	
		E4.		항목별 활동(지난 1개월간) 1) 기부 2) 잘 모르는 타인 돕기(금전적 대가 없이) 3) 자원봉사활동		

제11장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E5.	전 생애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E5-1.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E5-2.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E5-3.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빈도	
	E5-4.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E6.	컴퓨터·인터넷 이용 능력	
	E7.	핸드폰 보유 여부	
	E7-1.	-기능 및 서비스 활용 능력	
	E8.	종교	
	E9.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1) 소득활동	
		2) 자원봉사활동	
		3) 학습활동	
		4) 취미·여가활동	
		5) 종교활동	
		6) 정치사회단체활동	
	7) 친목단체활동		
	E10.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여부	
	E10-1.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빈도(일주일 기준)	
	E10-2.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E10-3.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E10-4.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불만족 이유		
E10-5.	-경로당노인복지관 향후 이용 의향		
F. 경제 활동	F1.	현재 경제활동 상태	제10장 노인의 경제 활동
	F1-1.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F1-2.	-일일 내용	
	F1-3.	-종사상 지위	
	F1-3-1.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F1-4.	-근무하는 기관 유형	
	F1-5.	-향후 1년간 지속가능여부	
	F1-6.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F1-7.	-종사 기간	
	F1-8.	-경제활동 이유	
	F1-9.	-직업에 대한 만족도	
	F1-9-1.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F1-10.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F2.	최장기 일자리	
	F2-1.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F2-2.	-종사상 지위	
	F2-2-1.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F2-3.	-종사 기간(년/개월)	
	F2-4.	-그만둔 이유	
	F2-5.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활동 참여여부	
	F3.	최근 그만둔 직업	
	F3-1.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F3-1-1.	-일일 내용	
	F3-2.	-종사상 지위	
	F3-2-1.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F3-3.	-중사기간(년/개월)				
	F3-4.	-그만둔 이유				
	F4.	향후 근로 희망				
	F4-1.	-하고 싶은 일의 특성				
	F4-2.	-희망근로시간				
	F4-3.	-희망근로소득				
	F4-4.	-구직노력(1/2순위)				
	F4-5.	-근로 희망 이유				
	F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여부				
	F5-1.	-참여 유형				
	F5-2.	-향후 참여 의향				
	G. 경제상태	G1-1.		본인/배우자 소득 1)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2)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3)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4)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5)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6)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제7장 노인의 경제 상태	
		G1-2.		7)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8)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9)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10)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11)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12)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13) (작년 한 해)총 수입액 14) (작년 한 해)총 수입액(본인+배우자)		
		G2.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G3-1.		본인/배우자 자산 및 부채 1)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G3-2.		2)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3)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4) 부채 유무 및 금액				
G4.		주요 항목별 지출액 1)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2)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3)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H. (손)자녀·배우자 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H1.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자녀 여부 및 수, 성 별, 결혼상태		제4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H2.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빈도		
H2-1.		-(지난 1년간)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연락빈도				
H3.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의 노인과의 관계				
H3-1.		-해당자녀 거주지까지의 이동시간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H3-2.	-(지난 1년간) 해당자녀와의 왕래빈도	제5장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H3-3.	-(지난 1년간) 해당자녀와의 접촉빈도		
	H4.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 여부		
	H4-1.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H5.	비동거손자녀 존재 여부 및 수		
	H5-1.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H5-2.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H6.	배우자의 건강상태		
	H7.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빈도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		
	H8.	1)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교환		
		2) 배우자와의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교환		
		3) 배우자와의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교환		
	H9.	1)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		제4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 배우자에 대한 신뢰		
	H10.	지난 1개월간 갈등 경험 여부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H10-1.	-갈등의 가장 큰 원인		
	H11.	단독가구 시작 시점		
H12.	단독가구 형성 이유			
H13.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H14.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기혼자녀 동거가구)			
	기혼자녀와의 분담방식 (기혼자녀 동거가구)			
H15.	1) 경제생활			
	2) 일상생활			
H16.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생각	제6장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H16-1.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H17.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I1.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제4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 본인의 부 2) 본인의 모 3) 배우자의 부 4) 배우자의 모		
	I2.	부모 및 배우자 부모 건강상태		
		1) 본인의 부 2) 본인의 모 3) 배우자의 부 4) 배우자의 모		
	I3.	형제·자매 생존여부 및 형제·자매수		
	I4.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I4-1.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I5.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I5-1.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빈도		
	I6.	1)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2)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I7.	동거가족 외 사람이 찾아오는 빈도(지난 1개월)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J1.	동거자녀	제5장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J2.	비동거자녀		
	J3.	본인(배우자)부모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K. 생활환경	확인	존재여부(조사원 확인사항) 1)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2)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3) 간병·수발·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4) 경제적 도움 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제12장 노인의 생활 환경
	J4.	(지난 1년간) 직접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명수	
	K1.	주택거주유형(자가, 전세, 월세)	
	K2.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	
	K3.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K4.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K5.	운전	
	K5-1.	현재 운전 여부	
	K5-2.	운전을 그만둔 연령	
	K6.	비영업용 차량 소유 여부	
	K6-1.	-차량가격	
	K7.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 거리 1)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2)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3) 읍면동 사무소 4)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5)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6) 버스지하철역	
	K8.	주요시설 및 서비스 이용 1)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경험 및 이용빈도 2)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빈도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경험 및 이용빈도 4)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경험 및 이용빈도 5)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이용경험 및 이용빈도	
	K9.	거주지역 불편사항	
	K10.	낙상(지난 1년간)경험 유무 및 횟수	
	K10-1.	-병원치료 유무	
	K10-2.	-낙상 이유	
	K11.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도	
	K12.	1년간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 유무	
	K13.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여부 1) 재산범죄 2) 폭력 및 강력범죄 3) 사기성 물건 구매 4) 보이스포싱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1.	삶의 만족도	제6장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건강상태	
		2) 경제상태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4)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5) 사회·여가문화활동	
	L2.	6)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L3.	연령 규범	
		1)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2)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3)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L4.	4)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생각	
		노인차별 경험 여부	
	L4-1.	-빈번한 차별 경험 내용	
	L5.	노인학대 경험 유무 및 행위자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방임(물림)			
5) 방임(경제적)			
L6.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 여부	
L7.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L8.		죽음에 대한 준비	
		1) 수의	
	2) 묘지(납골당 포함)		
	3) 상조회 가입		
	4) 유서 작성		
L9.	5) 죽음준비 교육 수강		
L10.	선호하는 장례방식		
L11.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L11-1.	자살(만 60세 이후) 생각 경험 여부		
L11-2.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자살 시도 경험 여부 및 횟수		
M. 인지기능	M1.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 문항	제9장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1.	연도	
	2.	계절	
	3.	'일'	
	4.	요일	
	5.	'월'	
	6.	도/특별시/광역시	
	7.	시/군/구	
	8.	동/읍/면	
	9.	건물 층수	
	10.	장소 이름	
	11.	3가지 물건 이름 기억(나무, 자동차, 모자)	
12.	백셈(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분석 내용		
	13.	3가지 물건 이름 재질문(나무, 자동차, 모자)			
	14.	사물 이름 맞히기			
	15.	듣고 따라하기(간장공장공장장)			
	16.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오른손으로 종이를 받아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놓기)			
	17.	접혀진 오각형 그리기			
	18.	이유 말하기(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19.	속담 뜻 말하기(타끌 모아 태산)			
	N. 가구 경제상태	N1.		기구의 주관적 생활수준	제7장 노인의 경제 상태
		N2.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N3.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가구소득			
N4.		1)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2)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3)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4)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5) (작년 한 해)공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6) (작년 한 해)기타소득 유무 및 금액			
		7) (작년 한 해)총소득			
N5.	1)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2)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3)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4) 부채 유무 및 금액				
조사원 확인 사항	1.	주택의 종류	제12장 노인의 생활 환경		
	2.	주거위치(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3.	주택의 편리성	-		
	4.	배우자 조사 실시 여부	제1장 서론		
		대리 응답 이유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제1절 일반 특성

제2절 거주 실태



3

노인의 일반 특성 <<

본 장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노인의 응답유형을 살펴본 뒤,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징인 지역, 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등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각 영역별 조사 결과 분석에 활용할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기능상태와 같은 노년기 신체적 독립성 등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영역별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본특징별로 각 영역별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현황과 욕구를 심도있게 파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의 가구형태는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제1절 일반 특성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총 10,451명이며, 이들의 응답유형을 살펴보면 1.6%인 172명이 대리응답이다. 대리응답 중 25명은 비동거 가족이 응답한 경우이다. 대리응답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정신·심리상태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96명이며 다음은 노쇠와 와병이다.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대리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41.5%에 달하고 있고 다음이 장남, 장녀의 순이다(<표 3-1> 참조).

<표 3-1> 노인(65세 이상)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응답유형	비율	(명)	대리응답 이유	비율	(명)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비율	(명)
본인응답	98.4	(10,279)	와병	11.6	(20)	배우자	41.5	(71)
대리응답 ¹⁾	1.6	(172)	정신·심리상태의 불안정	56.0	(96)	장남	12.4	(21)
			청각 장애	12.8	(22)	장남의 배우자	10.2	(17)
			언어장애	6.2	(11)	차남	5.3	(9)
			노쇠	11.7	(20)	장녀	12.7	(22)
			기타	1.8	(3)	기타 ²⁾	18.0	(31)
계	100.0	(10,451)	계	100.0	(172)	계	100.0	(172)

주: 1) 대리응답자중 25명은 비동거 가족임.

2) 기타에는 차남의 배우자, 삼남 이상의 아들과 그 배우자, 잔여의 남편, 차녀, 삼녀 이상 등 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부분이며, 친손자 및 친손녀, 기타 관계가 포함되어 있음.

조사가 이루어진 10,451명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동부 76.6%, 읍면부 23.4%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동부의 비율이 좀 높고, 읍면부의 비율은 낮은 수치이다.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17.8%, 부산 7.5%, 대구 4.6%, 인천 4.5%, 광주 2.5%, 대전 2.4%, 울산 1.5%, 경기 19.2%, 강원 4.0%, 충북 3.7%, 충남 5.5%, 전북 5.1%, 전남 6.0%, 경북 7.4%, 경남 7.0%, 제주 1.3%로 2011년도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41.7%, 여자 58.3%이다. 이는 201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남자의 비율이 줄고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 편이다. 연령별 분포의 경우 65~69세 연령군 31.7%, 70~74세 연령군 27.1%, 75~79세 연령군 20.6%, 80~84세 연령군 12.6%, 85세 이상 연령군 8.0%이다. 2011년도에 비해 65~69세 연령군과 80세 이상 연령군의 비율이 약간 높고, 70~79세 연령군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평균연령은 2014년 기준 73.9세로 2011년 73.7세에 비하여 약간 높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61.4%, 배우자가 없는(미혼, 기혼 후 이혼, 사별, 별거 등) 비율이 38.6%이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무배우율이 높은 것이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23.0%, 노인부부가구 44.5%, 자녀동거가구 28.4%, 기타가구 4.0%이다. 2011년도에 비해 노인독거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높고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명이 23.0%, 2명 51.5%, 3명 13.5%, 4명 5.0%, 5명 4.5%, 6명 이상 2.4%로 평균 2.2명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인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아 62.5%, 가구주의 배우자가 24.0%로 전체 응답자의 86.5%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이다. 그 다음으로 가구주 부모가 13.1%, 가구주의 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기타관계가 0.5%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글자모름) 9.6%, 무학(글자해독) 20.9%, 초등학교 32.0%, 중·고등학교 29.8%, 전문대학 이상 7.8%이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보면 무학률은 감소하고, 중·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은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중이라는 응답자가 28.5%, 미취업자라는 응답자가 71.5%인데, 이는 2011년도에 비해 취업률은 약간 낮아진 것이다. 가구소득은 제1오분위 754만원 이하, 제2오분위 754만원 초과~1,208만원 이하, 제3오분위 1,208만원 초과~1,946만원 이하, 제4오분위 1,946만원 초과~3,426만원 이하, 제5오분위 3,426만원 초과로 구분되었다⁴⁾.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제한이 있다는 응답자가 18.2%로 2011년 14.9%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2011년도와 비교표)

(단위: %, 명)

특성	2014년		2011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¹⁾	100.0	(10,451)	100.0	(10,674)
지역				
동부	76.6	(8,008)	68.0	(7,257)
읍면부	23.4	(2,443)	32.0	(3,418)
시도				
서울	17.8	(1,862)	18.2	(1,939)
부산	7.5	(780)	7.8	(837)
대구	4.6	(485)	5.0	(534)
인천	4.5	(471)	4.6	(495)
광주	2.5	(261)	2.6	(281)
대전	2.4	(255)	2.7	(285)
울산	1.5	(152)	1.7	(182)
경기	19.2	(2,009)	19.3	(2,058)
강원	4.0	(414)	3.9	(418)
충북	3.7	(382)	3.5	(373)
충남	5.5	(578)	5.6	(594)
전북	5.1	(532)	5.0	(533)
전남	6.0	(627)	6.1	(652)
경북	7.4	(776)	7.6	(813)
경남	7.0	(734)	5.1	(543)
제주	1.3	(132)	1.3	(138)
성				
남자	41.7	(4,354)	43.1	(4,605)
여자	58.3	(6,097)	56.9	(6,069)
연령				
65~69세	31.7	(3,316)	29.8	(3,180)
70~74세	27.1	(2,830)	30.4	(3,240)
75~79세	20.6	(2,151)	22.6	(2,414)
80~84세	12.6	(1,319)	11.1	(1,183)
85세 이상	8.0	(835)	6.2	(658)
(평균)	73.9	(10,451)	73.7	(10,67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4	(6,418)	67.4	(7,199)
배우자 없음	38.6	(4,033)	32.6	(3,475)
가구형태				
노인독거	23.0	(2,407)	19.6	(2,094)
노인부부	44.5	(4,655)	48.5	(5,172)
자녀동거	28.4	(2,973)	27.3	(2,916)
기타	4.0	(416)	4.6	(492)

4) 가구소득 응답자 중 무응답은 28명으로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는 동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특성	2014년		2011년	
	비율	명	비율	명
가구원수				
1명	23.0	(2,407)	19.6	(2,094)
2명	51.5	(5,382)	53.1	(5,672)
3명	13.5	(1,412)	13.0	(1,383)
4명	5.0	(522)	5.3	(564)
5명	4.5	(468)	4.9	(521)
6명 이상	2.4	(260)	4.1	(440)
(평균)	2.2	(10,451)	2.4	(10,67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2.5	(6,533)	61.3	(6,539)
가구주의 배우자	24.0	(2,508)	26.6	(2,835)
가구주의 자녀	0.1	(6)	0.0	(5)
가구주 부모	13.1	(1,366)	11.9	(1,275)
가구주의 조부모	0.1	(13)	0.1	(14)
가구주의 형제자매	0.2	(19)	0.0	(3)
기타	0.1	(7)	0.0	(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6	(1,006)	10.9	(1,169)
무학(글자해독)	20.9	(2,181)	20.7	(2,213)
초등학교	32.0	(3,345)	35.4	(3,782)
중·고등학교	29.8	(3,108)	25.9	(2,770)
전문대학 이상	7.8	(811)	6.9	(7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5	(2,974)	33.4	(3,569)
미취업	71.5	(7,477)	66.6	(7,105)
연가구소득 ²⁾				
제1오분위	20.0	(2,088)	20.0	(2,135)
제2오분위	20.0	(2,085)	20.0	(2,138)
제3오분위	20.0	(2,085)	20.0	(2,132)
제4오분위	20.0	(2,082)	20.0	(2,135)
제5오분위	20.0	(2,083)	20.0	(2,134)
기능상태				
제한 없음	81.8	(8,545)	85.1	(9,081)
제한 있음 ³⁾	18.2	(1,906)	14.9	(1,593)

주: 1) 2014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4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도는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2) 2014년도 분위는 제1오분위 0만원~754만원 이하, 제2오분위 754만원 초과~1,208만원 이하, 제3오분위 1,208만원 초과~1,946만원 이하, 제4오분위 1,946만원 초과~3,426만원 이하, 제5오분위 3,426만원 초과이며, 2011년도 분위는 제1오분위 0만원~763만원 이하, 제2오분위 763만원 초과~1,193만원 이하, 제3오분위 1,193만원 초과~1,849만원 이하, 제4오분위 1,849만원 초과~3,170만원 이하, 제5오분위 3,170만원 초과임.
 3) ADL 7개 항목과 IADL 10개 항목 중 한 개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기능제한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ADL과 IAD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장에 제시되어 있음.

지역별 일반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여자 비율: 동부 57.9%, 읍면부 59.8%). 연령군 분포를 살펴보

면 동부의 경우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33.8%로 가장 높고, 85세 이상 연령군의 비율이 7.2%로 제일 적다. 반면, 읍면부의 경우 70~74세 연령군이 25.5%로 가장 많고, 85세 이상 연령군이 10.6%로 가장 적지만 동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80대 이상 연령군의 비율이 19.1%인 반면 읍면부는 25.5%인 등 동부는 전기 노년층 위주로 읍면부는 후기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율이 동부 61.5%, 읍면부 61.1%로 매우 유사하다. 가구형태의 경우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동부 43.5%, 읍면부 48.0%) 제일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동부의 경우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30.4%)이 노인독거가구의 비율(21.9%) 보다 높은 반면 읍면부는 노인독거가구의 비율(26.8%)이 자녀동거가구 비율(21.8%) 보다 높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부(31.5%)와 읍면부(33.7%)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제일 많지만,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무학(글자모름+글자해독)의 비율은 동부 26.7%, 읍면부 42.8%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무학(글자모름)의 비율에서 동부 7.8%, 읍면부 15.5%로 읍면부에서 무학의 비율이 약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은 동부 41.7%, 읍면부 23.6%로 동부에서 월등히 높다. 다음으로 가구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제1오분위 18.4%, 제5오분위 22.2%로 제5오분위가 더 높은 반면, 읍면부는 제1오분위 25.3%, 제5오분위 12.7%로 구성에 있어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율은 동부 17.1%, 읍면부 21.9%로 읍면부가 더 높다.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여자 및 고령 노인, 기능제한자의 비율이 더 높고,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동부에 비해 낮고, 취업률은 높지만 가구소득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제특성을 비교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남자: 36.1%, 여자:28.6%), 구체적인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65~74세 연령군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더 높고, 반대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80세 이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비율이 남자는 15.2%인 반면, 여자는 24.5%로 그 차이가 크다.

〈표 3-3〉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지역		성		전체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지역 ¹⁾					
동부	-	-	77.4	76.1	76.6
읍면부	-	-	22.6	23.9	23.4
성					
남자	42.1	40.2	-	-	41.7
여자	57.9	59.8	-	-	58.3
연령					
65~69세	33.8	25.0	36.1	28.6	31.7
70~74세	27.6	25.5	28.7	25.9	27.1
75~79세	19.5	24.0	20.0	21.0	20.6
80~84세	11.9	14.9	10.3	14.3	12.6
85세 이상	7.2	10.6	4.9	10.2	8.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5	61.1	86.4	43.6	61.4
배우자 없음	38.5	38.9	13.6	56.4	38.6
가구형태					
노인독거	21.9	26.8	10.0	32.3	23.0
노인부부	43.5	48.0	61.4	32.5	44.5
자녀동거	30.4	21.8	24.6	31.2	28.4
기타	4.2	3.3	4.0	4.0	4.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8	15.5	2.4	14.8	9.6
무학(글자해독)	18.9	27.3	11.6	27.5	20.9
초등학교	31.5	33.7	28.6	34.4	32.0
중학교	14.0	10.3	16.9	10.5	13.2
고등학교	18.9	9.0	26.3	9.7	16.6
전문대학 이상	8.8	4.3	14.2	3.2	7.8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4	44.9	37.0	22.3	28.4
미취업	76.6	55.1	63.0	77.7	7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4	25.3	12.1	25.7	20.0
제2오분위	19.0	23.3	20.0	20.0	20.0
제3오분위	20.0	20.1	22.8	18.0	20.0
제4오분위	20.4	18.6	22.3	18.3	20.0
제5오분위	22.2	12.7	22.8	18.0	2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82.9	78.1	89.4	76.3	81.8
제한 있음	17.1	21.9	10.6	23.7	1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008)	(2,443)	(4,354)	(6,097)	(10,45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남자의 유배우율이 86.4%에 달하는데 비하여 여자는 유배우율이 43.6%에 불과하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구가 61.4%로 가장 높으나, 여자의 경우 노인독거가구 32.3%, 노인부부가구 32.5%, 자녀동거가구 31.2%로 고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이 40.5%로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12.9%에 그치고 있고, 무학의 비율은 남자 14.0%, 여자 42.3%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률이 남자 37.0%, 여자 22.3%로 남자가 더 높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남자노인이 제5오분위가 22.8%인 반면, 여자의 경우 제1오분위가 25.7%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기능제한율을 살펴보면 남자 10.6%, 여자 23.7%로 여자가 약 두 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고령층 및 기능제한자의 비율이 높고, 무배우율 및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무학률이 높고, 취업률 및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일반특성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군에서 동부 거주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 65~69세 연령군의 경우 동부 81.6%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은 68.9%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부 거주율이 낮고 읍면부 거주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참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 여자의 비중이 60%를 넘고 있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여자의 비중이 74.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65~69세 연령군의 52.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다. 즉 65~69세 연령군의 유배우율이 76.5%인데 반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은 26.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군에서 노인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65~69세 51.7%, 70~74세 48.0%, 75~79세 44.3%, 80~84세 33.9%),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만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42.8%로 가장 높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독거가구의 비율도 높아 65~69세 연령군의 경우 14.5%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32.2%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85세 이상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다(65~69세 32.9%, 70~74세 34.2%, 75~79세 30.9%, 80~84세 29.2%). 단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무학(글자해독)의 비율(32.6%)이 가장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34.3%), 80세 이상에서는 무학률이 80~84세 연령군 48.0%, 85세 이상 연령군 58.1%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취업률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미취업율이 취업률보다 높지만,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 65~69세 연령군의 미취업률은 61.0%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94.0%로 큰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의 경우 제5오분위가 28.0%로 가장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제1오분위 쪽으로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85세 이상의 경우 제1오분위 비율이 32.3%로 65~69세 연령군의 제1오분위 9.9%와 큰 차이를 보인다. 기능상태 제한율을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은 5.4%에 불과하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6.0%로 나타났다. 즉, 연령군이 높을수록 읍·면부 거주율이 높고,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무배우율이 높고,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낮으며, 무학자의 비중이 높고, 취업률 및 가구소득이 낮으며, 기능상태 제한율이 높다.

다음으로 결혼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없지만(유배우율: 동부 76.7%, 읍면부:76.4%), 유배우자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58.6%로 높은 반면, 무배우자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85.3%로 높아 차이를 보인다. 유배우자의 경우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39.5%로 높고,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3.5%로 적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노인부부가구 형태이며(72.5%), 무배우자의 경우 노인독거가구(58.7%) 아니면 자녀동거가구(36.5%)이다. 배우자 여부에 상관없이 두 그룹 모두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약 30%대로 제일 높다. 그러나 유배우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32.5%인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 11.2%에 불과한 등 유배우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취업률은 33.9%, 무배우자의 취업률은 19.8%이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경우 제3오분위가 23.8%로 가장 높고, 제1오분위는 9.4%로 비율이 작은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 제1오분위가 37.0%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인다. 기능상태 제한율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12.3%이고 무배우 노인은 27.6%이다. 즉, 무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며, 노인독거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무학률이 높고 미취업률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고, 기능상태 제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지역							
동부	81.6	78.0	72.7	72.5	68.9	76.7	76.4
읍·면부	18.4	22.0	27.3	27.5	31.1	23.3	23.6
성							
남자	47.4	44.0	40.4	34.0	25.6	58.6	14.7
여자	52.6	55.9	59.6	66.0	74.4	41.4	85.3
연령							
65~69세	-	-	-	-	-	39.5	19.3
70~74세	-	-	-	-	-	29.3	23.6
75~79세	-	-	-	-	-	19.2	22.7
80~84세	-	-	-	-	-	8.5	19.1
85세 이상	-	-	-	-	-	3.5	15.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6.5	66.4	57.4	41.5	26.7	-	-
배우자 없음	23.5	33.6	42.6	58.5	73.3	-	-
가구형태							
노인독거	14.5	20.9	27.7	35.5	32.2	0.7 ²⁾	58.7
노인부부	51.7	48.0	44.3	33.9	21.8	72.5	-
자녀동거	28.5	27.2	24.8	27.9	42.8	23.4	36.5
기타	5.2	4.0	3.1	2.7	3.2	3.4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6	7.3	11.5	19.3	25.5	4.0	18.6
무학(글자해독)	11.6	19.9	27.1	28.7	32.6	14.3	31.4
초등학교	32.9	34.2	30.9	29.2	28.3	33.1	30.3
중학교	18.7	14.2	10.3	7.0	4.9	16.0	8.6
고등학교	24.0	16.9	13.5	9.7	4.8	21.8	8.2
전문대학 이상	10.3	7.3	6.8	6.1	3.9	10.7	3.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0	31.2	25.0	16.0	6.0	33.9	19.8
미취업	61.0	68.8	75.0	84.0	94.0	66.1	8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	17.9	27.0	31.2	32.3	9.4	37.0
제2오분위	13.9	22.8	24.1	23.5	19.1	21.1	18.3
제3오분위	23.2	20.3	19.1	14.1	18.0	23.8	14.0
제4오분위	25.0	21.1	16.3	14.1	14.8	23.7	14.0
제5오분위	28.0	18.0	13.6	17.2	15.8	22.0	1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94.6	86.4	80.3	65.7	44.0	87.7	72.3
제한 있음	5.4	13.6	19.7	34.3	56.0	12.3	2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16)	(2,830)	(2,151)	(1,319)	(835)	(6,422)	(4,02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는 있으나 3개월 이상 단 가구에서 (손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생활하고 있어 가구원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임.

가구형태별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형태에서 동부 거주자의 비율이 읍면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가구형태별 성비에 차이가 있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여자의 비율이 81.9%로 다른 어떤 가구유형보다 여자의 비중이 높다(〈표 3-5〉 참조).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75~79세 연령군의 비율이 24.8%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65~69세 연령군이 36.8%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역시 65~69세 연령군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가구형태별 무학노인의 비중이 차이가 커서 노인독거가구 48.2%, 노인부부가구 19.4%, 자녀동거가구 33.7%로 노인독거가구에서 무학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태의 경우 취업률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22.5%, 노인부부가구 34.2%, 자녀동거가구 23.6%, 기타가구 32.2%로 노인독거가구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에서는 제1오분위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제3오분위가 28.0%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제5오분위가 48.6%에 달하는 등 가구유형별로 가구소득의 분위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능상태 제한율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22.1%, 노인부부가구 12.6%, 자녀동거가구 24.3%, 기타가구 15.2%로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제한율이 가장 높다. 즉, 독거노인의 경우 여자 및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무학노인의 비중 및 미취업률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고, 기능상태 제한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인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데,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본 노인개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인 것은 아니며 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노인에게서는 비교적 노년기 초기인 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타 가구형태에 비해 취업률이 높으며, 가구소득은 중간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능상태 제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형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동거가구는 노인독거와 노인부부의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학력군에서 동부의 거주율이 높은 공통점이 있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동부 거주율의 수준차이가 커, 무학의 경우 동부 거주율이 약 60%대인 반면(무학(글자모름) 62.3%, 무학(글자해독) 69.5%), 중학교 이상에서는 80%대를 보이고 있다(중학교 81.8%, 고등학교 87.3%, 전문대 이상 87.2%).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의 비율이 무학(글자모름) 89.7%, 무학(글자해독) 76.9%, 초등학교 62.8%, 중학교 46.5%, 고등학교 34.0%, 전문대 이상 24.0%로 학력이 높을수록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에서는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며, 중학교 이상의 학력군에서는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무학(글자모름) 25.6%, 무학(글자해독) 42.0%, 초등학교 63.5%, 중학교 74.9%, 고등학교 80.9%, 전문대학 이상 85.0%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높는데, 이는 연령과 성별과도 상관이 있어 보인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노인독거가구: 무학(글자모름) 43.1%, 무학(글자해독)의 33.4%),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을 살펴보면 무학(글자모름) 21.8%, 무학(글자해독) 26.2%, 초등학교 32.0%, 중학교 33.2%, 고등학교 27.0%, 전문대이상 23.3%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별 가구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제1오분위가 40.1%, 무학(글자해독)의 경우 제1오분위가 32.1%로 가장 매우 높다.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으로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제4오분위(27.4%), 제5오분위(27.3%)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의 경우 제5오분위가 49.8%에 달하고 있다. 기능상태 제한율에서는 무학(글자모름) 49.3%, 무학(글자해독) 27.1%, 초등학교 15.9%, 중학교 8.6%, 고등학교 6.6%, 전문대학 이상 6.7%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제한자의 비율이 낮다. 즉 저학력일수록, 읍면부 거주율이 높고,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무배우율이 높으며, 노인독거가구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기능상태 제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교육수준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지역										
동부	72.8	74.8	82.1	80.5	62.3	69.5	75.4	81.8	87.3	87.2
읍·면·부	27.2	25.2	17.9	19.5	37.7	30.5	24.6	18.2	12.7	12.8
성										
남자	18.1	57.5	36.0	41.8	10.4	23.1	37.2	53.5	66.0	76.0
여자	81.9	42.5	64.0	58.2	89.7	76.9	62.8	46.5	34.0	24.0
연령										
65~69세	20.0	36.8	31.8	41.8	8.4	17.6	32.6	45.0	46.0	42.2
70~74세	24.5	29.2	25.9	26.9	20.7	25.9	29.0	29.3	27.6	25.6
75~79세	24.8	20.5	18.0	16.1	24.5	26.7	19.9	16.1	16.7	18.1
80~84세	19.5	9.6	12.4	8.7	25.2	17.4	11.5	6.7	7.4	10.0
85세 이상	11.2	3.9	12.0	6.5	21.2	12.5	7.1	3.0	2.3	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	100.0	50.5	52.8	25.6	42.0	63.5	74.9	80.9	85.0
배우자 없음	98.3	0.0	49.5	47.2	74.4	58.0	36.5	25.1	19.1	15.0
가구형태										
노인독거	-	-	-	-	43.1	33.4	21.8	14.8	13.6	9.6
노인부부	-	-	-	-	19.5	32.5	47.3	53.3	54.0	61.4
자녀동거	-	-	-	-	32.9	30.8	26.7	28.1	28.5	24.2
기타	-	-	-	-	4.6	3.3	4.2	3.9	3.9	4.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8.0	4.2	11.1	11.1	-	-	-	-	-	-
무학(글자해독)	30.2	15.2	22.6	17.3	-	-	-	-	-	-
초등학교	30.3	34.0	30.1	33.4	-	-	-	-	-	-
중학교	8.4	15.7	13.0	12.7	-	-	-	-	-	-
고등학교	9.8	20.1	16.6	16.1	-	-	-	-	-	-
전문대학 이상	3.2	10.7	6.6	9.4	-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5	34.2	23.6	32.2	21.8	26.2	32.0	33.2	27.0	23.3
미취업	77.5	65.8	76.4	67.8	78.2	73.8	68.0	66.8	73.0	76.7
연가소득										
제1오분위	58.9	12.2	2.8	5.1	40.1	32.1	18.7	11.3	9.9	4.0
제2오분위	23.8	26.5	5.3	29.6	21.5	23.4	24.1	17.5	14.5	8.1
제3오분위	10.9	28.0	13.5	29.9	12.8	17.2	22.4	26.6	20.9	13.1
제4오분위	4.8	21.5	29.7	21.7	13.3	13.5	19.3	24.3	27.4	25.0
제5오분위	1.6	11.9	48.6	13.7	11.9	13.7	15.4	20.4	27.3	4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7.9	87.4	75.7	84.8	50.7	72.9	84.1	91.2	93.4	93.3
제한 있음	22.1	12.6	24.3	15.2	49.3	27.1	15.9	8.8	6.6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07)	(4,655)	(2,973)	(416)	(1,006)	(2,181)	(3,345)	(1,376)	(1,732)	(81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거주 실태

1.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주요 관심사항을 파악해보았다. 노인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 거주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5년 미만인 비중이 19.0%, 5~10년 미만인 비중이 18.5%, 10~15년 미만인 비중이 20.3%, 15~20년 미만인 비중이 16.2%이며, 20~30년이 19.1%이다. 30년 이상인 경우도 6.9%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의 단독가구 거주기간이 길고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30년 이상의 비중이 높다. 연령군별로도 연령이 많은 노인이 단독가구 거주 기간이 긴 현상이 발견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의 경우 5년 미만인 비중이 높다(〈표 3-6〉 참조).

〈표 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 20년 미만	2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19.0	18.5	20.3	16.2	19.1	6.9	100.0 (6,956)
지역							
동부	20.9	19.7	20.5	16.0	16.7	6.3	100.0 (5,152)
읍면부	13.6	15.2	20.0	16.8	25.8	8.6	100.0 (1,803)
성							
남자	18.2	19.3	21.8	16.8	18.5	5.6	100.0 (3,051)
여자	19.6	17.9	19.3	15.8	19.5	8.0	100.0 (3,904)
연령							
65~69세	26.4	26.5	22.9	12.1	9.5	2.6	100.0 (2,181)
70~74세	17.6	18.9	22.9	18.8	16.6	5.2	100.0 (1,925)
75~79세	15.2	14.0	19.8	19.5	24.2	7.3	100.0 (1,525)
80~84세	14.4	9.9	13.9	15.8	32.4	13.6	100.0 (894)
85세 이상	10.7	9.9	11.6	14.6	32.6	20.7	100.0 (430)
가구형태							
노인독거	24.1	19.2	15.8	14.2	17.0	9.8	100.0 (2,372)
노인부부	16.3	18.2	22.7	17.3	20.1	5.4	100.0 (4,58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또한 단독거주노인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1/3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20.6%는 자녀의 타 지역 거주, 15.5%는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11.1%는 기존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등으로 단독거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 (<표 3-7>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개인(부부)생활 향유가, 읍면부 노인에게서는 기존 거주지에 살고 싶어서가 많아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게 보인다. 즉, 읍면부 노인의 18.6%가 기존 거주지에 살고 싶어서로 응답하여 동부의 8.4%에 비하여 약 10%p 높은데, 이는 자녀가 교육, 취업 및 결혼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해서라는 응답도 28.1%에 달하고 있다. 한편, 동부에서는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은데 이는 결혼하면 분가한다는 규범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가 타 지역에 인해서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서와 같이 자녀의 인구학적 상황에 의한 단독가구 거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기존 거주지 거주를 희망해서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7>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2011년도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경제적 능력	2.6	2.7	2.3	3.4	2.0	6.3
건강	1.8	1.9	1.5	1.5	2.0	7.0
개인(부부)생활 향유	15.5	16.9	11.2	14.8	16.0	15.0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1.1	8.4	18.6	8.1	13.4	10.9
자녀의 결혼	32.7	34.7	27.1	36.1	30.1	31.7
자녀의 별거 희망	10.1	11.1	7.0	8.8	11.1	7.8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20.6	17.9	28.1	23.3	18.4	14.7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5	3.7	2.9	2.3	4.5	3.3
기타	2.2	2.5	1.4	1.7	2.7	3.3 ²⁾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83)	(5,172)	(1,810)	(3,065)	(3,918)	(7,20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2011년에는 자녀가 모두 딸이거나 자녀가 없어서, 가사 및 손자녀 양육부담 등이 별도의 선택지로 조사되었음.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은 경우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고,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다. 한편,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40.4%)이 절대적이며, 다음으로 자녀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24.5%)가 주요 이유이다. 반면 노인독거의 경우는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20.1%),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어서(19.3%), 자녀의 결혼(18.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따로 살고 싶어서(13.1%),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13.0%) 등도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표 3-8〉 참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결혼이나 타 지역 거주라는 상황적 요인이 많은 반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개인생활의 향유나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과 같은 자발적 요인과 자녀가 별거를 희망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요인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양극단의 독거형성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8〉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연령					가구형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부부	노인독거
경제적 능력	2.6	3.1	2.5	2.6	2.2	1.9	2.9	2.1
건강	1.8	2.2	1.9	1.0	2.1	0.9	1.2	2.3
개인(부부)생활 향유	15.5	16.5	17.0	13.0	14.0	14.8	13.0	20.1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1.1	6.8	8.7	14.7	16.9	18.3	6.8	19.3
자녀의 결혼	32.7	35.3	33.3	32.0	30.5	24.4	40.4	18.0
자녀의 별거 희망	10.1	7.7	10.4	11.1	10.9	15.4	8.5	13.1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20.6	23.8	21.3	19.4	15.9	14.5	24.5	13.0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5	2.0	2.6	4.9	5.3	6.5	1.9	6.7
기타	2.2	2.6	2.4	1.3	2.0	3.3	0.6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83)	(2,189)	(1,931)	(1,532)	(889)	(433)	(4,593)	(2,39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한편, <표 3-9>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과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서구적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가능성과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타 지역 거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는 자녀의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8.3%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약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3-9>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교육수준						기능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있음
경제적 능력	2.6	0.9	1.0	1.9	3.6	3.6	7.9	2.9	0.9
건강	1.8	0.9	1.3	2.2	1.6	2.3	1.3	2.0	0.7
개인(부부)생활 향유	15.5	11.2	14.1	16.8	15.6	17.4	13.8	15.7	14.1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1.1	19.5	16.7	11.2	8.6	4.9	3.7	9.8	18.3
자녀의 결혼	32.7	26.1	30.4	30.5	36.2	37.6	39.3	33.8	26.6
자녀의 별거 희망	10.1	12.3	11.2	10.5	8.3	9.5	7.1	9.5	13.3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20.6	15.8	19.0	21.1	22.6	20.9	23.3	21.0	17.8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5	9.0	4.4	3.5	2.4	1.5	1.2	3.2	5.4
기타	2.2	4.3	1.9	2.4	1.1	2.2	2.4	2.1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83)	(620)	(1,420)	(2,296)	(915)	(1,159)	(572)	(5,938)	(1,04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한 <표 3-10>에 의하면 경제적 불안감(25.8%)과 아플 때 간호문제(25.6%)가 가장 높고 다음이 심리적 불안감(21.7%)의 순이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12.7%이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응답이 27.7%로 읍면부 노인의 20.3%보다 높다. 반면 읍면부 노인은 아플 때 간호문제라는 응답이 30.6%로 동부의 23.8%보다 월등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기타	계 (명)
전체 ¹⁾	12.7	25.6	10.4	25.8	3.7	21.7	0.2	100.0 (6,984)
지역								
동부	13.8	23.8	8.8	27.7	3.6	21.9	0.3	100.0 (5,174)
읍면부	9.3	30.6	14.8	20.3	3.9	21.0	0.1	100.0 (1,810)
성								
남자	16.9	19.5	9.4	27.7	4.2	21.9	0.3	100.0 (3,066)
여자	9.3	30.3	11.1	24.3	3.3	21.4	0.2	100.0 (3,918)
연령								
65~69세	20.0	19.6	7.2	27.0	3.6	22.4	0.1	100.0 (2,189)
70~74세	12.9	23.3	9.3	28.3	4.5	21.4	0.4	100.0 (1,933)
75~79세	8.9	28.5	12.5	25.2	3.5	21.2	0.3	100.0 (1,532)
80~84세	4.9	35.1	14.3	21.4	3.2	21.0	0.3	100.0 (898)
85세 이상	3.9	36.0	15.6	20.2	2.5	21.9	0.0	100.0 (433)
가구형태								
노인독거	4.2	37.2	10.1	21.6	2.1	24.4	0.3	100.0 (2,390)
노인부부	17.0	19.5	10.5	28.0	4.6	20.2	0.2	100.0 (4,5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	34.1	11.3	29.4	1.5	18.7	0.2	100.0 (1,971)
제2오분위	6.9	27.4	10.0	33.5	2.9	19.1	0.1	100.0 (1,778)
제3오분위	13.8	20.9	9.4	27.6	3.7	24.5	0.2	100.0 (1,536)
제4오분위	21.9	19.3	11.2	16.0	6.5	25.0	0.2	100.0 (1,107)
제5오분위	36.0	15.9	9.2	4.2	8.4	25.5	1.0	100.0 (58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3	24.7	9.5	25.7	3.9	21.7	0.3	100.0 (5,940)
제한 있음	3.5	31.0	15.1	26.3	2.5	21.5	0.1	100.0 (1,04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을 대상으로 함.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경제적 불안감을, 여자노인은 아플 때 간호와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을 좀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아플 때 간호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동 응답이 36.0%에 달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불안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성이 있다.

가구형태별 차이는 매우 분명한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아플 때 간호라는 응답이 37.2%로 노인부부가구의 19.5%에 비하여 약 18%p 높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어려

움이 없다는 응답이 17.0%로 노인독거가구 4.2%에 비하여 약 13%p 높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많은 제5오분위 노인에게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36.0%에 달하고 있고,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응답은 매우 적다. 반면 제1오분위의 경우는 아플 때 간호 문제가 34.1%, 경제적 불안감이 29.4%로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이 이 두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 간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14.3%가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경우부터 경제적, 돌봄 문제 등을 경험하는 노인까지 삶의 현황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기혼자녀 동거

〈표 3-11〉을 통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 이유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경제적 능력부족(24.4%)과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21.8%),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16.0%),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15.6%), 본인/배우자 수발을 위해(15.4%)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더 이상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보다는 노인이 의존적인 존재로 기혼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 등 실용적 이유로 인한 동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의 특성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5%로 읍면부 노인의 15.9%에 비하여 매우 높은 등 자녀에게 도구적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가 약 4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읍면부에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높고, 본인/배우자의 수발이 필요해서라는 응답도 동부에 비하여 높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자녀에게 도구적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가 53.5%에 달하여 여자노인의 32.3%에 비하여 매우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7.0%로 남자노인에 비하여 약 10%p 높다.

〈표 3-1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2011년도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15.6	14.3	20.2	12.2	16.8	28.4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6.4	7.1	4.1	6.6	6.3	3.9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15.4	14.5	18.7	10.0	17.4	9.2 ²⁾
경제적 능력 부족	24.4	24.2	25.2	17.0	27.0	20.9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8	23.5	15.9	27.3	19.9	24.2 ³⁾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0	16.2	15.3	26.2	12.4	12.8
기타	0.3	0.3	0.5	0.7	0.2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0)	(1,134)	(326)	(379)	(1,081)	(1,55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을 대상으로 함.

2) 가사노동이 부담되어서 포함.

3) 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포함.

또한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규범적인 이유를 언급한 경우가 많고 60대 노인에게서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9%에 달하고 있어 연령대별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가 대비되고 있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인 경우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반면 유배우 노인의 경우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3.9%로 무배우 노인의 15.0%보다 약 19%p 높다(〈표 3-12〉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이라는 응답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기능상태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경우 노인에서는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26.6%)과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18.9%)등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거의 비중이 높다. 더불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22.6%이지만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29.0%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는 본인/배우자 수발이 필요해서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와 같이 노인의 독자성 부족으로 인한 동거가 많다(〈표 3-13〉 참조).

〈표 3-1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결혼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15.6	7.4	10.7	17.7	19.5	24.1	12.2	17.5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6.4	7.4	6.2	5.9	5.4	7.2	3.7	7.9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15.4	3.8	9.2	15.3	23.2	27.9	8.0	19.7
경제적 능력 부족	24.4	9.0	21.6	28.6	31.5	30.9	16.5	28.9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8	42.9	27.9	19.8	10.8	5.6	33.9	15.0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0	28.7	23.6	12.7	9.5	3.3	25.1	10.8
기타	0.3	0.7	0.8	0.1	0.0	0.0	0.6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0)	(269)	(353)	(305)	(270)	(263)	(530)	(93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을 대상으로 함.

〈표 3-13〉 노인(65세 이상)의 교육·기능상태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교육수준						기능상태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있음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15.6	16.4	19.0	16.0	12.2	10.7	9.8	15.4	16.1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6.4	6.8	6.7	6.7	5.7	4.9	6.7	6.5	6.2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15.4	23.1	17.5	14.3	10.1	8.9	14.9	9.6	30.1
경제적 능력 부족	24.4	33.0	26.4	25.8	16.8	19.3	8.5	22.6	29.0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21.8	11.3	19.5	21.2	26.2	32.8	33.5	26.6	9.9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0	9.3	10.9	15.3	28.2	23.2	26.6	18.9	8.7
기타	0.3	0.0	0.0	0.8	0.7	0.2	0.0	0.5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0)	(208)	(424)	(428)	(152)	(168)	(78)	(1,042)	(418)

주: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을 대상으로 함.

이렇게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를 돕기 위한 동거와 노인의 독자성 부족으로 인한 동거, 규범적 이유로 인한 동거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동거 이유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역할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3-14〉와 〈표 3-15〉를 통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실제적인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경제생활 분담방식을 살펴보면, 64.6%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25.4%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7.3%이며 각자 따로 한다는 응답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생활 분담방식에 있어서의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성별 차이는 매우 크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39.6%로 여자노인의 20.4%의 약 두 배이며, 부모가 부담한다는 응답도 11.4%로 여자노인의 5.9%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로 71.3%이다. 즉 기혼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여자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의존성이 더 큰 것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특히 75세 이전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율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

〈표 3-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체 ¹⁾	7.3	64.6	25.4	2.7	100.0 (1,454)
지역					
동부	7.3	64.6	25.1	3.1	100.0 (1,129)
읍면부	7.3	64.8	26.6	1.3	100.0 (325)
성					
남자	11.4	45.3	39.6	3.6	100.0 (379)
여자	5.9	71.3	20.4	2.4	100.0 (1,075)
연령					
65~69세	12.1	39.3	43.8	4.8	100.0 (267)
70~74세	10.5	51.5	33.8	4.3	100.0 (353)
75~79세	4.9	71.5	21.7	1.8	100.0 (304)
80~84세	4.0	82.3	12.3	1.4	100.0 (270)
85세 이상	4.3	82.0	13.0	0.8	100.0 (260)

주: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한편, 일상생활 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45.6%가 공동으로, 자녀가 전적으로 31.1%, 부모가 전적으로 20.7%, 각자 따로 2.6%이다. 이는 경제생활 분담방식에 비하여 공동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며 부모가 담당하는 경우도 훨씬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에서 자녀가 수행하는 비율이 35.4%로 동부노인의 30.0% 보다 높고, 부모가 수행한다는 응답은 동부에서 높은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 부모가 수행한다는 응답이나 공동수행이 더 많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가 수행하는 비율은 낮은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체 ¹⁾	20.7	31.1	45.6	2.6	100.0 (1,454)
지역					
동부	22.4	30.0	45.2	2.5	100.0 (1,129)
읍면부	14.5	35.4	46.9	3.2	100.0 (325)
성					
남자	25.3	24.9	47.7	2.2	100.0 (379)
여자	19.0	33.3	44.9	2.8	100.0 (1,075)
연령					
65~69세	34.5	12.8	51.9	0.9	100.0 (267)
70~74세	29.5	15.8	51.8	2.9	100.0 (353)
75~79세	19.5	23.4	52.8	4.3	100.0 (304)
80~84세	11.0	42.7	44.5	1.9	100.0 (270)
85세 이상	5.9	67.8	23.5	2.9	100.0 (260)

주: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4장

노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와 규모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제3절 자녀와의 관계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제5절 부모의 특징

제6절 형제자매·친척과의 접촉

제7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4

노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삶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시작하여 자녀, 손자녀, 부모, 친인척, 친구이웃 등의 규모, 접촉 정도 및 관계의 질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와 규모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노인의 대부분인 97.7%가 자녀가 있고 90.8%가 손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갖고 있는 노인은 적어서 5.5%가 본인의 부모가 있고 5.0%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 즉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직 생존해있는 노인도 일정 규모가 되는 것이다. 또한 82.8%는 형제자매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자녀는 평균 3.4명이며 손자녀는 5.4명이다. 형제자매는 2.7명인데 이는 노인의 부모세대의 출생자녀수를 고려해볼 때 적은 것으로 고령화에 따라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표 4-2> 참조).

위에서 객관적인 규모를 살펴보았다면 친인척은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친인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의 수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약 절반 정도의 노인만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규모는 평균 1.1명이다. 한편,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노인은 친인척에 비하여 많아 62.7%이면서 평균 1.6명이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부모가 있는 노인의 비중은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자녀가 생존해있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 또한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유배우 노인, 소득이 많은 노인에게서도 높다. 친한 친인척의 경우

도 유사한 경향인데 그 차이가 형제자매에 비하여 훨씬 크다. 친한 친구이웃의 경우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여, 65~69세 연령군의 68.9%가 친한 친구가 있고 평균 1.9명인데 비하여 85세 이상인 경우는 동 비율이 46.3%에 불과하고 평균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 노인에게서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높으며 각각 평균 1.8명과 1.4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형태에도 반영되어 노인부부가구에서 가장 높은 64.0%와 1.7명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62.5%가 친한 친구 이웃이 있고 평균은 1.5명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노인이 많고 평균수도 많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평균 2.6명, 무학(글자모름)인 노인은 1.1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으로 제1오분위의 58.8%만이 친한 친구이웃이 있고 평균 규모는 1.4명에 불과한데 비하여 제5오분위의 경우는 71.9%와 2.1명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노인의 기능상태별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66.4%가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데 비하여,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44.3%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 친구이웃수가 1.8명과 0.9명으로 차이가 크다.

〈표 4-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단위: %)

특성	생존자녀 ¹⁾	생존손자녀 ²⁾	생존부모 ¹⁾	생존배우자 부모 ¹⁾³⁾	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⁴⁾	친한 친구·이웃 ⁴⁾
전체	97.7	90.8	5.5	5.0	82.8	53.1	62.7
지역							
동부	97.6	89.7	6.1	5.5	83.3	53.0	62.6
읍·면부	98.3	94.2	3.6	3.2	81.1	53.2	63.1
성							
남자	98.4	89.4	7.0	9.6	83.3	50.9	63.2
여자	97.3	91.8	4.4	1.7	82.5	54.6	62.4
연령							
65~69세	97.4	84.0	12.9	10.9	91.6	61.3	68.9
70~74세	97.8	92.0	4.4	4.3	87.1	55.4	64.0
75~79세	98.5	94.7	0.7	1.3	80.9	51.4	61.5
80~84세	97.6	95.9	0.2	0.4	71.5	42.5	55.3
85세 이상	97.6	95.4	0.1	0.3	56.5	31.5	46.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1	91.9	6.9	7.9	85.8	56.1	64.2
배우자 없음	95.6	89.0	3.2	0.3 ⁵⁾	78.1	48.1	60.2
가구형태							
노인독거	94.4	90.3	2.8	0.3	78.7	49.2	62.5
노인부부	98.8	96.2	5.2	6.5	85.5	56.4	64.0
자녀동거	100.0	84.0	5.1	5.0	82.1	50.6	61.1
기타	89.8	80.6	26.1	13.9	81.7	55.9	60.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8	92.9	2.0	0.8	71.2	38.1	52.0
무학(글자해독)	97.5	93.1	1.9	1.5	77.1	45.7	54.7
초등학교	98.1	93.0	5.3	4.3	84.7	55.2	62.0
중학교	98.0	89.2	7.7	6.7	87.4	59.5	65.8
고등학교	98.3	86.6	9.0	8.6	87.8	58.8	70.3
전문대학 이상	97.9	84.0	8.9	11.2	86.2	58.6	78.2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7	91.4	7.0	6.8	87.6	58.4	67.4
미취업	97.4	90.5	4.9	4.2	80.9	50.9	6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8	90.1	1.8	0.6	75.4	45.0	58.8
제2오분위	97.5	94.1	4.1	3.0	81.3	50.0	57.2
제3오분위	98.9	92.3	5.8	6.0	83.6	52.8	61.7
제4오분위	99.3	90.7	8.1	6.7	87.1	57.0	64.1
제5오분위	99.3	86.6	7.7	8.4	87.0	60.8	71.9
기능상태							
제한 없음	98.0	90.3	6.3	5.8	84.6	56.0	66.4
제한 있음	96.9	92.7	1.6	1.4	74.8	38.8	44.3
2011년도	99.1	95.4	5.0	7.4 ⁶⁾	82.2	54.4	75.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유배우거나 무배우여도 배우자의 부모와 교류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동 비율이 8.0%임.

4)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5)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임.

〈표 4-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단위: 명)

특성	생존자녀 ¹⁾	생존손자녀 ²⁾	생존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³⁾	친한 친구·이웃 ³⁾
전체	3.4	5.5	2.7	1.1	1.6
지역					
동부	3.2	5.0	2.7	1.1	1.6
읍면부	3.9	6.9	2.6	1.1	1.7
성					
남자	3.2	4.7	2.7	1.1	1.8
여자	3.5	6.0	2.7	1.0	1.5
연령					
65~69세	2.7	3.5	3.4	1.3	1.9
70~74세	3.3	5.2	2.9	1.2	1.7
75~79세	3.8	6.6	2.4	1.0	1.5
80~84세	4.1	7.4	1.8	0.7	1.3
85세 이상	4.2	8.3	1.2	0.5	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3	5.1	2.9	1.2	1.8
배우자 없음	3.5	6.0	2.3	0.9	1.4
가구형태					
노인독거	3.4	5.9	2.4	0.9	1.5
노인부부	3.4	5.6	2.9	1.2	1.7
자녀동거	3.5	5.0	2.6	1.0	1.6
기타	3.0	5.0	2.6	1.1	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7.6	2.0	0.6	1.1
무학(글자해독)	3.8	6.7	2.3	0.8	1.2
초등학교	3.5	5.6	2.7	1.1	1.5
중학교	3.1	4.5	3.0	1.3	1.7
고등학교	2.9	3.9	3.1	1.3	2.1
전문대학 이상	2.7	3.5	3.0	1.3	2.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	5.3	3.0	1.2	1.8
미취업	3.4	5.5	2.6	1.0	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	6.0	2.3	0.8	1.4
제2오분위	3.6	6.2	2.5	0.9	1.3
제3오분위	3.4	5.4	2.7	1.1	1.7
제4오분위	3.4	4.9	3.0	1.2	1.7
제5오분위	3.2	4.7	2.9	1.3	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	5.1	2.8	1.1	1.8
제한 있음	3.9	6.9	2.1	0.7	0.9
2011년도	3.8	6.3	3.2	1.3	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노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는 배우자이다. 배우자는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항상 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보면 34.8%가 건강하다. 반면 43.8%는 건강하지 않으며, 특히 7.9%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요한다 할 수 있겠다(〈표 4-3〉 참조).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동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건강한 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건강이 좋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에게서 배우자가 건강한 비중이 높다. 노인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본인이 건강하면 배우자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즉,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63.9%가 배우자도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도 49.0%가 배우자가 건강하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36.3%가 배우자가 건강하고,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낮아서 23.2%에 불과하다.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대화의 충분성과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의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실태를 살펴본 〈표 4-4〉에 의하면 46.5%가 월 1회 이상의 동반 외출을 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고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 1회 이상의 외출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외출에 병의원에 가는 것도 포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가구소득수준별 비교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매일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없다는 응답도 많은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동반외출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동반외출은 적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하여 거의 매일 외출과 없음이 모두 높다. 이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동반외출해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배우자의 건강상태별 비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표 4-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2	33.6	21.4	35.9	7.9	100.0 (6,338)
지역						
동부	1.3	34.6	21.3	35.3	7.6	100.0 (4,864)
읍면부	0.9	30.6	21.6	38.0	9.0	100.0 (1,474)
성						
남자	1.0	32.9	21.4	38.2	6.6	100.0 (3,704)
여자	1.6	34.7	21.4	32.7	9.7	100.0 (2,634)
연령						
65~69세	1.7	40.6	21.3	31.3	5.1	100.0 (2,524)
70~74세	1.2	33.7	21.8	36.7	6.6	100.0 (1,862)
75~79세	1.1	26.7	21.2	40.6	10.4	100.0 (1,212)
80~84세	0.0	23.0	19.3	42.3	15.5	100.0 (530)
85세 이상	0.1	16.2	23.6	41.5	18.6	100.0 (21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8	19.2	23.4	42.7	13.9	100.0 (592)
제2오분위	0.7	24.7	21.6	42.1	11.0	100.0 (1,326)
제3오분위	0.8	31.8	22.1	37.3	7.9	100.0 (1,500)
제4오분위	1.7	37.1	21.4	33.6	6.2	100.0 (1,508)
제5오분위	1.9	46.7	19.1	28.1	4.2	100.0 (1,39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15.7	48.2	11.3	20.6	4.2	100.0 (98)
건강한 편	1.4	47.6	17.8	29.0	4.3	100.0 (2,254)
그저 그렇다	0.6	28.2	30.1	34.0	7.1	100.0 (1,560)
건강하지 않은 편	1.0	25.0	20.1	44.6	9.4	100.0 (2,013)
전혀 건강하지 않음	0.7	16.7	16.2	42.4	24.1	100.0 (41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	35.1	21.3	35.0	7.4	100.0 (5,627)
제한 있음	1.1	22.1	22.1	42.8	12.0	100.0 (71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4-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 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전체 ¹⁾	14.7	6.8	8.3	16.7	28.5	12.3	12.8	100.0 (6,338)
지역								
동부	14.9	7.1	8.8	17.2	28.3	11.4	12.4	100.0 (4,864)
읍면부	13.8	6.0	6.6	15.2	29.2	15.2	14.0	100.0 (1,474)
성								
남자	13.4	6.9	8.6	16.8	29.7	12.4	12.3	100.0 (3,704)
여자	16.5	6.7	7.8	16.6	26.9	12.1	13.5	100.0 (2,634)
연령								
65~69세	10.2	7.1	10.0	17.7	30.5	12.4	12.1	100.0 (2,524)
70~74세	13.8	6.3	7.7	16.5	31.0	12.6	12.1	100.0 (1,862)
75~79세	18.7	7.3	6.7	17.5	24.1	11.8	13.9	100.0 (1,212)
80~84세	23.5	5.7	6.9	12.5	24.4	12.2	14.7	100.0 (530)
85세 이상	32.1	7.5	4.8	11.4	18.0	10.1	16.2	100.0 (21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5	6.1	4.5	11.9	21.6	10.6	16.8	100.0 (592)
제2오분위	17.6	7.5	5.2	11.8	29.2	13.8	14.9	100.0 (1,326)
제3오분위	14.3	6.0	8.2	14.7	28.3	13.6	14.9	100.0 (1,500)
제4오분위	13.4	6.8	9.5	18.6	29.6	11.9	10.4	100.0 (1,508)
제5오분위	7.8	7.4	11.6	23.6	29.9	10.3	9.4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9	7.2	8.9	17.2	29.1	12.3	12.4	100.0 (5,627)
제한 있음	28.5	4.2	3.1	12.3	24.0	12.4	15.5	100.0 (711)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5.0	10.1	9.8	22.8	36.3	7.0	8.9	100.0 (78)
건강한 편	7.8	7.8	10.0	19.1	32.3	13.5	9.5	100.0 (2,132)
그저 그렇다	12.9	6.7	8.3	17.6	27.8	12.6	14.0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6.1	6.4	7.1	15.1	27.7	12.3	15.4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44.0	4.5	5.9	10.1	17.0	6.7	11.9	100.0 (499)
2011년도	4.2	9.2	13.4	22.3	14.2	24.2	12.5	100.0 (7,11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73.0%가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4명 중 3명이 배우자와의 대화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의 만족률이 75.1%로 동부 노인의 72.4%보다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만족률이 76.7%로 여자노인의 67.8%보다 8.9%p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은 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만족률이 높고,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만족률이 74.7%이고,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59.3%로 15.4%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별로도 매우 건강한 경우 만족률이 86.3%로 전혀 건강하지 않는 경우가 48.4%의 만족률을 보여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노인이나 노인의 배우자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6〉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인의 94.3%가 배우자를 신뢰하고 있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특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신뢰도가 다소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와 배우자가 건강한 경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다.

한편, 지난 1개월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노인의 1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갈등을 경험한 이유로는 58.1%가 생활습관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경제적 문제(23.2%), 이해 부족(6.1%), 가사분담을 둘러싼 갈등(5.2%), 자녀문제(3.9%) 등의 순이다(〈표 4-7〉 참조).

〈표 4-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8.7	54.3	24.1	2.8	100.0 (6,338)
지역					
동부	18.6	53.8	24.6	3.1	100.0 (4,864)
읍면부	19.2	55.9	22.8	2.2	100.0 (1,474)
성					
남자	20.5	56.2	21.4	1.9	100.0 (3,704)
여자	16.2	51.6	28.0	4.2	100.0 (2,634)
연령					
65~69세	20.8	55.5	21.4	2.3	100.0 (2,524)
70~74세	19.1	55.2	22.9	2.8	100.0 (1,862)
75~79세	17.3	52.1	27.4	3.1	100.0 (1,212)
80~84세	15.1	48.9	30.9	5.1	100.0 (530)
85세 이상	8.2	57.5	32.4	1.8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	40.8	44.1	5.7	100.0 (250)
무학(글자해독)	10.7	53.1	30.7	5.6	100.0 (903)
초등학교	14.2	57.3	25.3	3.2	100.0 (2,105)
중학교	21.1	55.3	21.7	1.9	100.0 (1,008)
고등학교	25.2	52.9	20.4	1.5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30.2	52.8	15.6	1.4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0	57.0	22.2	1.8	100.0 (2,170)
미취업	18.6	52.9	25.2	3.4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1	51.3	30.7	6.0	100.0 (592)
제2오분위	13.4	54.4	28.6	3.7	100.0 (1,326)
제3오분위	18.1	56.0	23.9	2.1	100.0 (1,500)
제4오분위	19.7	55.4	22.3	2.6	100.0 (1,508)
제5오분위	26.3	52.8	19.1	1.7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9	54.8	22.7	2.6	100.0 (5,627)
제한 있음	9.5	49.8	35.8	4.8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1.9	44.4	12.3	1.4	100.0 (78)
건강한 편	26.6	55.8	16.9	0.7	100.0 (2,132)
그저 그렇다	15.9	57.4	23.9	2.8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4.7	54.4	28.6	2.3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7.9	40.5	36.8	14.8	100.0 (49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4-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 대한 신뢰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1.6	62.7	5.2	0.6	100.0 (6,338)
지역					
동부	31.4	62.5	5.4	0.7	100.0 (4,864)
읍면부	32.1	63.3	4.5	0.1	100.0 (1,474)
성					
남자	33.6	62.7	3.5	0.2	100.0 (3,704)
여자	28.7	62.8	7.6	1.0	100.0 (2,634)
연령					
65~69세	34.7	59.7	5.0	0.6	100.0 (2,524)
70~74세	31.6	63.0	4.9	0.5	100.0 (1,862)
75~79세	28.8	65.6	5.0	0.7	100.0 (1,212)
80~84세	28.0	64.3	7.5	0.2	100.0 (530)
85세 이상	19.5	75.6	4.7	0.2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4	68.7	7.9	1.1	100.0 (250)
무학(글자해독)	23.3	67.9	7.6	1.2	100.0 (903)
초등학교	26.2	67.4	5.9	0.5	100.0 (2,105)
중학교	31.6	63.6	4.4	0.4	100.0 (1,008)
고등학교	40.0	55.5	4.0	0.5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45.1	52.4	2.3	0.2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6	63.6	4.2	0.6	100.0 (2,170)
미취업	31.5	62.2	5.7	0.5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2	65.8	10.0	1.1	100.0 (592)
제2오분위	25.8	66.8	6.2	1.2	100.0 (1,326)
제3오분위	30.7	65.3	3.8	0.2	100.0 (1,500)
제4오분위	33.7	61.6	4.4	0.3	100.0 (1,508)
제5오분위	38.9	56.2	4.6	0.4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3	62.0	5.2	0.5	100.0 (5,627)
제한 있음	25.5	68.3	5.4	0.9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58.7	33.0	5.9	2.3	100.0 (78)
건강한 편	39.4	57.2	3.2	0.2	100.0 (2,132)
그저 그렇다	30.1	64.4	4.6	0.9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26.2	67.8	5.7	0.3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22.5	63.0	12.6	1.9	100.0 (49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갈등경험률을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높고, 노인 자신이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 높다.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거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배려나 포기 등으로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도 일부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의 경우는 건강이 매우 좋을 경우 갈등 경험률이 낮은 경향만이 있고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에 따른 차이는 적다. 또한 갈등의 이유로는 읍면부의 경우는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높다. 즉 노인의 연령대에 따라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된다. 즉 배우자 건강이 매우 좋으면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적고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아 91.5%에 달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은 47.0%에 불과한 반면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37.6%이다.

〈표 4-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이유							계 (명)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부양	가사 분담	이해 부족	생활 습관	기타	
전체	16.8	23.2	3.9	0.2	5.2	6.1	58.1	3.4	100.0 (1,064) ²⁾
지역									
동부	17.3	26.2	4.0	0.2	4.3	6.8	55.3	3.2	100.0 (841)
읍면부	15.2	11.8	3.4	0.2	8.6	3.2	68.4	4.5	100.0 (224)
성									
남자	16.7	23.3	4.0	0.4	5.7	5.5	58.0	3.1	100.0 (618)
여자	16.9	23.1	3.6	0.0	4.4	6.8	58.1	4.0	100.0 (446)
연령									
65~69세	17.9	23.5	3.8	0.4	4.5	6.4	59.0	2.5	100.0 (452)
70~74세	18.8	25.9	5.1	0.0	6.2	4.9	54.0	3.9	100.0 (351)
75~79세	14.8	19.1	1.8	0.3	4.1	5.6	65.2	3.8	100.0 (179)
80~84세	12.4	19.2	4.6	0.0	7.4	12.7	49.1	7.0	100.0 (66)
85세 이상	7.6	17.3	0.0	0.0	6.0	0.0	76.7	0.0	100.0 (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4	16.6	1.9	0.0	4.2	3.9	69.4	3.9	100.0 (41)
무학(글자해독)	17.7	30.8	2.8	0.0	5.7	2.7	54.7	3.4	100.0 (160)
초등학교	16.3	21.2	3.3	0.0	7.4	6.3	58.7	3.1	100.0 (342)
중학교	17.4	20.9	5.1	0.0	4.8	5.4	61.4	2.4	100.0 (175)
고등학교	18.2	25.5	4.2	0.7	4.1	6.1	56.4	3.0	100.0 (252)
전문대학 이상	13.7	18.2	5.4	0.5	0.3	13.0	54.9	7.6	100.0 (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4	23.7	5.2	0.0	7.0	3.7	59.1	1.4	100.0 (377)
미취업	16.5	22.9	3.2	0.3	4.2	7.4	57.5	4.6	100.0 (68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2	32.6	0.0	0.0	3.5	0.0	61.9	2.1	100.0 (96)
제2오분위	17.9	29.9	1.0	0.8	3.2	7.4	52.9	4.8	100.0 (237)
제3오분위	16.0	19.7	4.9	0.0	7.1	2.8	61.5	4.0	100.0 (240)
제4오분위	16.7	20.9	4.7	0.2	8.3	9.4	53.3	3.3	100.0 (252)
제5오분위	17.1	18.6	6.4	0.0	2.6	6.9	63.3	2.2	100.0 (23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1	23.4	4.3	0.2	5.2	5.8	58.1	3.0	100.0 (960)
제한 있음	14.7	21.1	0.0	0.0	5.0	8.8	57.6	7.4	100.0 (104)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9.9	8.5	0.0	0.0	0.0	0.0	91.5	0.0	100.0 (8) ³⁾
건강한편	16.5	20.6	4.9	0.1	5.9	5.4	60.4	2.6	100.0 (351)
그저 그렇다	18.5	17.9	2.9	0.7	4.5	6.5	62.2	5.3	100.0 (250)
건강하지 않은 편	16.6	26.4	3.9	0.0	5.3	6.8	54.8	3.0	100.0 (379)
전혀 건강하지 않음	15.4	37.6	2.7	0.0	4.2	4.7	47.0	3.7	100.0 (7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1,0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3절 자녀와의 관계

1.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

노인의 대부분은 비동거 자녀를 두고 있다.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를 살펴 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1.8%는 비동거자녀와 전혀 왕래를 하고 있지 않다. 노인의 약 1/3인 37.7%는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31.5%는 월 1회 정도, 20.2%는 분기 1,2회 정도, 8.8%는 연 1,2회 정도 왕래를 하고 있다. 한편 연락의 경우는 전혀 연락 없음이 2.0%이며,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72.9%이며, 19.3%는 한 달에 1회 정도, 4.2%는 분기 1,2회, 1.5%는 연 1,2회로 파악되었다. 즉 일반적인 비동거자녀와의 접촉은 일주일의 1회 정도의 연락과 월 1회 정도의 왕래로 보여진다(〈표 4-8〉과 〈표 4-9〉 참조).

노인의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실태를 주 1회 이상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39.3%로 읍면부 노인의 32.7%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37.6%, 여자노인이 37.9%로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의 경우, 연령군별 차이는 적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32.8%만이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다. 또한 65~69세 연령군과 70~74세 연령군은 약 12%가 거의 매일 자녀와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군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는 비율이 40.2%로 무배우 노인의 33.6%보다 높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도 빈번하여 무배우 노인보다 가족 자원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가 동 비율이 가장 높고 별거자녀가 많을수록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 2명인 경우에 비하여 주 1회 이상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무학(글자모름) 노인의 경우 30.4%인 반면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41.1%이다. 또한 무학 노인(글자 모름과 글자 해독)의 경우 연 1,2회라는 비중이 12.5%와 10.5%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높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1회 이상 접촉자

의 비중이 높다. 제5오분위의 경우 동 비율이 41.6%로 제1오분위의 30.7%와 약 11%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재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와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연락 빈도의 경우도 일주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해 보았다.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고,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70.9%, 여자노인이 74.5%로 여자노인이 조금 더 빈번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남녀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다. 연령군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76.1%로 무배우 노인의 67.8%보다 높다. 이는 왕래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성이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도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가 77.8%로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가 70.8%, 기타가구 70.3%, 자녀동거가구가 66.9%의 순이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가 상대적으로 연락을 적게 하는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수의 경우는 별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락빈도가 빈번한데 이는 왕래의 경우와 유사하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왕래의 경우와 유사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문맹 노인의 경우 65.7%인데 비하여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의 경우는 78.2%이다. 또한 현재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나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경우는 왕래빈도와는 달리 소득수준별 큰 차이가 없다.

2. 접촉이 가장 빈번한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별거자녀 중 가장 접촉이 빈번한 비동거 자녀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남과 장녀가 가장 많고 26.1%는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으며 다음이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가 19.5%,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가 17.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표 4-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10.8	9.2	17.7	31.5	20.2	8.8	1.8	100.0 (9,745)
지역								
동부	11.8	9.5	18.0	31.5	18.8	8.5	2.0	100.0 (7,412)
읍면부	7.8	8.3	16.6	31.8	24.6	9.5	1.4	100.0 (2,334)
성								
남자	10.7	8.7	18.2	32.8	19.5	8.1	2.2	100.0 (4,077)
여자	11.0	9.6	17.3	30.6	20.8	9.2	1.6	100.0 (5,668)
연령								
65-69세	12.1	8.8	17.5	33.1	18.0	8.7	1.7	100.0 (3,059)
70-74세	12.4	9.0	16.9	30.5	21.0	7.9	2.3	100.0 (2,675)
75-79세	8.7	9.4	18.5	31.5	21.8	8.4	1.7	100.0 (2,061)
80-84세	8.6	10.0	20.3	28.7	20.8	10.5	1.1	100.0 (1,232)
85세 이상	9.2	9.5	14.1	33.7	21.4	10.1	2.0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7	9.5	19.0	32.9	19.6	6.8	0.6	100.0 (6,104)
배우자 없음	9.4	8.7	15.5	29.3	21.3	12.0	3.8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10.4	10.6	16.6	27.6	19.7	10.7	4.5	100.0 (2,255)
노인부부	12.0	9.6	19.1	32.8	19.5	6.6	0.5	100.0 (4,539)
자녀동거	9.4	7.1	15.5	32.8	22.6	10.9	1.8	100.0 (2,591)
기타	9.2	9.9	22.7	31.4	15.9	9.2	1.8	100.0 (360)
별거자녀수								
1명	7.9	2.7	13.0	29.9	22.0	18.5	6.1	100.0 (1,052)
2명	9.9	8.0	16.1	32.2	20.0	11.5	2.2	100.0 (2,288)
3명	12.2	9.5	19.3	31.9	19.0	6.5	1.5	100.0 (2,653)
4명	10.7	10.5	19.0	31.9	20.9	6.3	0.7	100.0 (1,913)
5명	12.0	13.7	18.7	29.7	20.9	4.6	0.5	100.0 (1,120)
6명 이상	11.6	10.6	18.3	32.2	20.0	7.1	0.3	100.0 (71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3	7.1	13.0	32.1	23.4	12.5	1.7	100.0 (912)
무학(글자해독)	9.5	9.8	15.6	30.4	22.2	10.5	2.0	100.0 (2,032)
초등학교	11.1	9.5	18.4	30.6	21.1	7.8	1.6	100.0 (3,178)
중학교	12.3	9.4	16.8	33.4	19.4	7.5	1.1	100.0 (1,283)
고등학교	11.7	8.3	20.5	32.3	17.2	7.7	2.4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9.4	10.4	21.3	33.2	15.1	8.1	2.6	100.0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2	9.7	16.5	32.6	21.1	7.6	1.3	100.0 (2,841)
미취업	10.7	9.0	18.1	31.1	19.9	9.2	2.0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	8.3	15.0	29.1	22.0	13.6	4.7	100.0 (1,935)
제2오분위	10.3	8.8	18.9	30.3	22.7	7.7	1.4	100.0 (1,985)
제3오분위	12.4	9.0	16.6	33.8	19.9	7.0	1.3	100.0 (1,975)
제4오분위	11.5	9.9	19.1	31.2	18.7	8.6	0.9	100.0 (1,948)
제5오분위	12.7	10.1	18.8	33.3	17.5	7.0	0.7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8	9.2	17.9	31.9	19.8	8.5	1.9	100.0 (8,123)
제한 있음	10.8	9.3	16.7	29.7	22.3	9.8	1.5	100.0 (1,622)
2011년도 ²⁾	9.4	14.6	24.3	31.8	14.7	4.2	1.0	100.0 (10,15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함.

〈표 4-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²⁾	계 (명)
전체 ¹⁾	25.9	24.9	22.1	19.3	4.2	1.5	2.0	100.0 (9,745)
지역								
동부	25.6	25.1	21.8	19.4	4.5	1.4	2.2	100.0 (7,412)
읍면부	26.9	24.5	23.2	19.1	3.3	1.6	1.5	100.0 (2,334)
성								
남자	24.4	24.9	21.6	20.5	4.6	1.5	2.5	100.0 (4,077)
여자	27.0	25.0	22.5	18.5	4.0	1.4	1.7	100.0 (5,668)
연령								
65~69세	27.9	23.2	22.9	19.1	3.9	1.6	1.4	100.0 (3,059)
70~74세	26.2	25.9	22.2	18.8	3.6	1.1	2.2	100.0 (2,675)
75~79세	24.0	27.6	21.4	19.5	4.4	1.2	2.0	100.0 (2,061)
80~84세	26.4	25.1	21.1	19.8	3.7	2.4	1.6	100.0 (1,232)
85세 이상	21.6	20.5	22.5	20.7	8.8	1.6	4.2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4	26.2	22.5	18.4	3.5	1.0	0.9	100.0 (6,104)
배우자 없음	23.5	22.8	21.5	20.8	5.5	2.2	3.9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27.5	23.3	20.0	17.6	5.0	2.2	4.4	100.0 (2,255)
노인부부	29.7	26.1	22.0	17.5	3.1	0.8	0.8	100.0 (4,539)
자녀동거	18.5	24.5	23.9	24.0	5.4	1.8	1.9	100.0 (2,591)
기타	22.6	23.5	24.2	19.2	5.2	2.4	2.9	100.0 (360)
별거자녀수								
1명	17.3	15.4	23.0	28.0	7.8	3.7	4.7	100.0 (1,052)
2명	22.8	24.3	22.7	21.6	4.5	2.1	2.0	100.0 (2,288)
3명	27.9	26.0	21.5	18.2	3.7	1.0	1.6	100.0 (2,653)
4명	27.3	27.8	22.5	16.8	3.5	0.8	1.4	100.0 (1,913)
5명	31.7	24.9	22.4	15.4	3.2	0.9	1.6	100.0 (1,120)
6명 이상	28.7	29.7	19.8	16.4	3.6	0.3	1.4	100.0 (71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9	25.2	20.6	23.8	4.2	2.9	3.3	100.0 (912)
무학(글자해독)	24.5	25.1	21.3	19.7	5.4	2.0	2.1	100.0 (2,032)
초등학교	24.8	25.7	23.7	18.6	4.3	1.2	1.8	100.0 (3,178)
중학교	26.5	24.4	23.2	19.6	4.3	0.9	1.2	100.0 (1,283)
고등학교	30.6	24.2	19.5	19.3	3.5	0.9	2.1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31.1	23.9	23.2	15.7	2.5	1.7	2.0	100.0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4	25.5	20.8	19.9	4.1	1.3	1.0	100.0 (2,841)
미취업	25.3	24.7	22.6	19.1	4.3	1.6	2.4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6	22.3	21.2	20.8	6.0	2.7	5.4	100.0 (1,935)
제2오분위	24.6	28.1	21.2	19.8	4.0	1.0	1.2	100.0 (1,985)
제3오분위	28.3	24.9	22.8	18.2	3.7	0.7	1.5	100.0 (1,975)
제4오분위	25.2	25.5	24.8	17.7	4.3	1.4	1.2	100.0 (1,948)
제5오분위	30.3	23.8	20.5	19.8	3.2	1.6	0.8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5	25.0	22.1	19.6	4.0	1.3	1.6	100.0 (8,123)
제한 있음	23.2	24.8	22.1	18.1	5.5	2.5	3.8	100.0 (1,622)
2011년도	23.9	34.1	25.6	12.4	2.5	0.9	0.7	100.0 (10,15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표 4-10〉 노인(65세 이상)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특성	비율	(명)	특성	비율	(명)
형제자매 순위 ¹⁾			거주거리 ²⁾		
장남	32.5	(3,131)	걸어서 10분 이내	7.7	(739)
차남	14.1	(1,355)	걸어서 10분~30분 이내	11.4	(1,097)
삼남 이상	5.4	(520)	자동차로 30분 이내	26.2	(2,516)
장녀	29.6	(2,854)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19.5	(1,879)
차녀	11.5	(1,107)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17.2	(1,649)
삼녀 이상	6.9	(663)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7.0	(671)
			자동차로 3시간 이상	9.9	(954)
			해외거주 ³⁾	1.2	(112)
계	100.0	(9,630)	계	100.0	(9,616)

주: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접촉(왕래 또는 방문)이 있는 비동거자녀가 있는 9,630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접촉(왕래 또는 방문)이 있는 비동거자녀가 있는 9,630명 중 무응답 1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기타 포함

접촉이 가장 빈번한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33.1%가 주1회 이상의 왕래를, 66.7%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표 4-11〉과 〈표 4-12〉 참조).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비동거 자녀 전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에서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고 성별 차이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 또한 비동거 자녀 전체와 유사한 경향이다. 연령군별 비교에서도 전체 비동거 자녀와 동일하게 65~69세 연령군과 70~74세 연령군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결혼상태 및 가구형태별 경향성과 학력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은 경향 또한 비동거 자녀의 왕래 빈도와 유사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1회 이상 접촉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자녀의 거주거리별로 비교해보면 걸어서 10분 이내의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70% 이상이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고 걸어서 10~3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동 비율이 35.4%가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다.

연락 빈도의 경우도 비동거 자녀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및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4-12〉 참조). 연령군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이 높은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조금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가 71.5%로 가장 높는데, 이 또한 비동거 자녀 전체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현상이다. 또한 현재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와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비동거 자녀 전체의 조사결과시의 특징과 유사하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전체 비동거 자녀와 유사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4-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9.5	6.7	16.9	32.4	22.2	10.3	2.0	100.0 (9,745)
지역								
동부	10.3	7.1	17.4	32.7	20.6	9.8	2.1	100.0 (7,411)
읍·면·부	6.7	5.6	15.5	31.5	27.4	12.0	1.4	100.0 (2,334)
성								
남자	9.5	6.1	17.5	33.6	21.4	9.6	2.3	100.0 (4,077)
여자	9.4	7.2	16.5	31.5	22.8	10.8	1.7	100.0 (5,668)
연령								
65~69세	10.9	6.2	17.9	33.7	19.7	9.8	1.9	100.0 (3,059)
70~74세	11.1	6.3	16.1	31.6	22.5	10.0	2.5	100.0 (2,674)
75~79세	7.4	7.1	16.8	32.2	24.7	9.9	1.9	100.0 (2,061)
80~84세	6.9	7.6	18.8	30.0	23.5	12.1	1.1	100.0 (1,232)
85세 이상	7.8	8.4	12.7	34.2	22.6	12.4	2.0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4	6.7	18.4	34.0	21.6	8.1	0.8	100.0 (6,100)
배우자 없음	7.9	6.7	14.5	29.8	23.2	14.0	4.0	100.0 (3,644)
가구형태								
노인독거	8.8	8.3	16.3	28.2	21.4	12.4	4.7	100.0 (2,254)
노인부부	10.7	6.3	18.4	34.3	21.9	7.8	0.7	100.0 (4,539)
자녀동거	8.2	6.1	13.8	33.3	23.8	12.9	1.9	100.0 (2,591)
기타	7.2	7.7	24.5	27.5	20.1	11.2	1.8	100.0 (361)
거주거리 ²⁾								
걸어서 10분 이내	58.4	12.5	16.6	9.4	2.2	1.0	0.0	100.0 (739)
걸어서 10분~30분 이내	19.4	16.0	28.9	27.0	6.7	2.1	0.0	100.0 (1,097)
자동차로 30분 이내	8.1	9.0	24.3	41.2	13.5	3.8	0.1	100.0 (2,516)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3.0	5.6	19.6	43.2	22.4	6.3	0.0	100.0 (1,879)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0.7	3.0	11.2	39.6	32.5	12.2	0.6	100.0 (1,649)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0.2	0.9	4.1	23.6	49.7	20.6	1.0	100.0 (671)
자동차로 3시간 이상 ²⁾	0.4	0.3	1.5	12.2	41.4	39.2	5.0	100.0 (1,0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0	5.3	12.3	30.7	25.0	15.9	1.8	100.0 (912)
무학(글자해독)	8.3	7.7	14.0	31.5	24.3	12.2	2.0	100.0 (2,032)
초등학교	9.7	6.4	17.5	32.0	23.2	9.5	1.8	100.0 (3,177)
중학교	10.7	7.5	15.8	35.5	20.3	9.1	1.2	100.0 (1,283)
고등학교	10.6	5.9	20.8	32.3	19.5	8.3	2.6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7.7	8.1	21.4	33.2	18.2	8.6	2.8	100.0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1	5.9	17.2	32.4	23.2	9.7	1.6	100.0 (2,841)
미취업	9.2	7.1	16.8	32.4	21.8	10.6	2.1	100.0 (6,905)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6.4	6.6	13.2	29.5	23.7	15.9	4.8	100.0 (1,935)
제2오분위	8.7	7.0	17.2	31.3	24.8	9.5	1.5	100.0 (1,985)
제3오분위	11.1	6.0	16.5	34.1	22.6	8.4	1.3	100.0 (1,975)
제4오분위	10.3	7.3	17.8	33.0	20.6	9.7	1.4	100.0 (1,948)
제5오분위	11.0	6.9	20.0	34.0	19.1	8.3	0.8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6.5	17.1	32.8	21.9	10.1	2.1	100.0 (8,123)
제한 있음	9.4	7.8	15.8	30.4	23.6	11.5	1.5	100.0 (1,622)
2011년도 ²⁾	7.8	7.9	20.1	32.9	22.2	7.9	1.1	100.0 (10,15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전혀 접촉이 없는 116명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해외거주 및 기타 포함.

〈표 4-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17.9	20.3	28.5	24.4	5.0	1.7	2.3	100.0 (9,745)
지역								
동부	18.2	20.4	28.1	24.0	5.2	1.7	2.5	100.0 (7,411)
읍면부	17.0	19.9	29.7	25.5	4.3	1.8	1.8	100.0 (2,334)
성								
남자	17.1	20.1	27.6	25.3	5.4	1.9	2.7	100.0 (4,077)
여자	18.5	20.4	29.2	23.7	4.7	1.6	2.0	100.0 (5,668)
연령								
65~69세	21.2	20.9	27.1	23.2	4.4	1.7	1.5	100.0 (3,059)
70~74세	18.0	20.3	29.5	23.8	4.4	1.4	2.5	100.0 (2,674)
75~79세	15.5	20.0	30.3	25.3	5.0	1.5	2.4	100.0 (2,061)
80~84세	16.2	20.4	27.6	26.6	4.6	2.7	1.9	100.0 (1,232)
85세 이상	13.3	18.1	26.9	24.7	10.2	1.6	5.0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9	21.3	30.0	23.3	4.3	1.2	1.1	100.0 (6,100)
배우자 없음	16.2	18.5	26.2	26.0	6.2	2.6	4.3	100.0 (3,644)
가구형태								
노인독거	19.1	19.4	25.1	23.1	5.8	2.5	5.0	100.0 (2,254)
노인부부	20.0	21.5	30.0	22.6	4.0	1.0	1.1	100.0 (4,539)
자녀동거	13.9	18.8	28.6	28.5	6.0	2.2	2.0	100.0 (2,591)
기타	13.0	21.0	30.2	24.0	5.7	3.1	2.9	100.0 (361)
거주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39.9	23.1	19.8	10.3	2.4	1.3	3.1	100.0 (739)
걸어서 10분~30분 이내	28.6	25.3	29.7	12.6	2.2	0.6	1.0	100.0 (1,097)
자동차로 30분 이내	18.2	22.7	31.6	22.1	3.2	0.9	1.3	100.0 (2,516)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14.0	20.6	30.3	27.3	4.4	2.2	1.1	100.0 (1,879)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13.3	18.3	29.9	29.7	6.7	1.2	0.9	100.0 (1,649)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12.2	14.1	27.4	36.2	7.1	2.3	0.4	100.0 (671)
자동차로 3시간 이상 ²⁾	10.7	15.9	24.5	33.3	11.0	4.1	0.4	100.0 (1,0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1	18.4	25.1	29.8	6.3	3.3	4.0	100.0 (912)
무학(글자해독)	15.1	19.0	29.6	25.5	5.8	2.4	2.6	100.0 (2,032)
초등학교	16.5	20.5	30.3	24.2	5.1	1.4	2.1	100.0 (3,177)
중학교	18.0	22.6	28.5	23.7	4.9	1.2	1.3	100.0 (1,283)
고등학교	23.5	20.7	24.8	23.7	4.0	1.1	2.2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25.1	20.1	29.9	17.8	3.2	1.7	2.2	100.0 (7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6	20.8	28.3	25.5	4.8	1.7	1.3	100.0 (2,841)
미취업	18.0	20.1	28.6	23.9	5.1	1.7	2.7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3	18.7	26.2	25.8	6.8	3.0	6.2	100.0 (1,935)
제2오분위	16.4	21.3	29.1	25.0	5.3	1.5	1.4	100.0 (1,985)
제3오분위	18.5	19.9	31.4	23.3	4.4	1.0	1.7	100.0 (1,975)
제4오분위	18.1	21.2	30.1	22.7	5.0	1.6	1.2	100.0 (1,948)
제5오분위	23.5	20.1	25.6	24.8	3.4	1.5	1.0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6	20.4	28.4	24.5	4.7	1.5	1.9	100.0 (8,123)
제한 있음	14.5	19.5	28.9	23.5	6.5	2.8	4.3	100.0 (1,622)
2011년도 ²⁾	14.8	24.8	32.1	21.9	4.0	1.3	1.2	100.0 (10,15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전혀 접촉이 없는 116명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해외거주 및 기타 포함.

3. 자녀와의 갈등

지난 1년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3%로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자녀와의 갈등의 주 이유로는 자녀의 장래문제가 29.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로 20.9%, 노인의 생활비 보조가 20.6%,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11.9%이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에게서 갈등경험률이 10.2%로 나타나 읍면부 노인의 6.1% 보다 높고, 갈등의 이유에 있어서도 동부 노인은 자녀 장래문제라는 비율이 30.2%로 읍면부 노인의 25.2%에 비하여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게서 34.8%가 자녀 장래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여자노인의 26.0%에 비하여 8.8%p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동거 여부가 이유인 경우가 13.9%로 남자노인의 8.8%보다 약 5%p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차이가 매우 커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노인에 대한 생활비 보조(34.0%)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인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요구(29.1%)가 가장 큰 요인이고, 자녀동거가구인 경우 자녀의 장래문제(42.7%)가 가장 많은 등 가구형태별로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기능상태 제한 여부 등에 있어서는 갈등경험률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구체적인 갈등 이유에 있어서는 특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의 생활비 보조라는 이유가, 취업노인의 경우는 자녀의 장래문제(33.8%)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요구(25.0%)가 큰 갈등 요인이고 가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래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경향이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또한 자녀의 장래문제가 중요한 이유이고 노인이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경우 노인의 생활비 보조 외에도 수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표 4-13〉 참조).

〈표 4-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이유							계 (명)
		동거 여부	수발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편애	자녀장래 문제	기타	
전체	9.3	11.9	7.7	20.9	20.6	1.6	29.4	8.0	100.0 (929) ²⁾
지역									
동부	10.2	12.1	6.4	20.8	20.7	1.5	30.2	8.4	100.0 (735)
읍면부	6.1	10.4	14.8	21.5	20.2	2.2	25.2	5.6	100.0 (143)
성									
남자	8.6	8.8	5.9	21.7	19.7	1.5	34.8	7.7	100.0 (362)
여자	9.8	13.9	8.8	20.4	21.1	1.7	26.0	8.1	100.0 (567)
연령									
65~69세	8.6	9.7	5.5	18.1	10.8	3.1	41.8	11.1	100.0 (277)
70~74세	10.4	11.8	5.3	22.2	19.2	1.2	31.8	8.5	100.0 (285)
75~79세	10.8	13.3	8.3	22.5	28.1	0.3	23.0	4.6	100.0 (225)
80~84세	7.2	18.2	13.2	20.6	28.6	2.5	12.5	4.5	100.0 (91)
85세 이상	7.0	7.5	19.9	22.9	33.6	0.0	7.3	8.8	100.0 (51)
가구형태									
노인독거	9.1	8.0	11.8	25.7	34.0	1.8	11.9	6.8	100.0 (205)
노인부부	5.3	4.4	6.7	29.1	22.1	3.3	23.4	11.0	100.0 (242)
자녀동거	15.0	18.1	7.1	14.4	11.9	0.2	42.7	5.7	100.0 (432)
기타	13.2	11.1	0.3	18.2	33.2	4.5	15.1	17.6	100.0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9	14.9	14.4	19.2	30.2	0.0	17.4	3.9	100.0 (92)
무학(글자해독)	10.3	13.4	8.0	22.6	22.9	1.0	23.6	8.4	100.0 (214)
초등학교	9.6	11.2	8.3	19.6	20.1	3.4	29.6	7.9	100.0 (311)
중학교	10.8	9.2	6.6	26.4	17.6	1.5	27.8	11.0	100.0 (142)
고등학교	8.1	12.5	3.6	18.0	16.6	0.0	44.3	5.0	100.0 (137)
전문대학 이상	4.3	10.3	1.6	15.8	12.7	0.4	43.5	15.8	100.0 (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9.5	8.5	5.4	25.0	14.3	4.1	33.8	8.9	100.0 (273)
미취업	9.2	13.3	8.6	19.2	23.2	0.6	27.6	7.6	100.0 (65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5	5.8	12.2	29.1	34.2	2.0	10.1	6.6	100.0 (204)
제2오분위	8.2	10.2	8.0	20.4	31.6	0.2	23.9	5.7	100.0 (164)
제3오분위	8.5	10.4	5.1	18.2	17.9	2.0	31.2	15.2	100.0 (171)
제4오분위	10.4	13.4	6.8	19.7	9.2	2.1	45.3	3.7	100.0 (212)
제5오분위	8.7	20.4	5.8	16.1	10.2	1.5	36.2	9.8	100.0 (176)
기능상태									
제한 없음	9.2	12.0	5.8	21.6	19.3	1.7	31.4	8.3	100.0 (773)
제한 있음	9.3	11.7	17.2	17.4	26.8	1.0	19.5	6.5	100.0 (15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생존자녀가 있는 10,055명을 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929명을 대상으로 함.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표 4-14〉와 〈표 4-15〉는 노인의 손자녀와의 왕래와 연락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손자녀 전체와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16.6%로 자녀(37.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왕래 빈도는 연 1,2회가 가장 많아 35.0%이다. 한편 연락 빈도의 경우는 주 1회 이상이 18.3%로 왕래 빈도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전체(72.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녀와는 빈번한 접촉을 하지만 손자녀와의 접촉은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이러한 손자녀와의 접촉 실태를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일주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38.9%는 연 1,2회 왕래한다고 응답하여 남자노인의 29.5%에 비하여 10%p 정도 많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 1,2회 정도만 왕래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가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가 많아서 20.0%가 일주일 1회 이상 왕래하고 있다. 무배우 노인은 동 비율이 11.0%에 불과하다. 가구형태별로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연 1,2회 왕래한다는 응답이 42.9%인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30.1%이며, 일주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 또한 노인독거가구는 11.8%, 노인부부가구는 19.1%, 자녀동거가구는 16.9%, 기타가구는 11.7%로 가구형태별 차이가 크다.

노인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모두 수준이 높으면 연 1,2회 왕래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일주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노인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일주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18.0%로 기능제한 노인의 9.9%와는 차이가 크다.

〈표 4-15〉에 의하면 손자녀와 연락이 없는 비율이 26.9%에 달하고 있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18.3%에 불과하며, 월 1회 이상까지 포함하여도 39.0%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조금 더 높고, 성별로도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 일주일 1

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20.9% 대 16.6%).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2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연락이 없다는 비율이 31.2%로 유배우 노인의 24.3%보다 높다. 그러나 유배우 노인의 경우는 22.2%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비하여 무배우 노인은 동 비율이 12.8%에 불과하여 결혼상태별로도 손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적고 빈번한 연락을 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지만 기능상태 제한에 따른 차이는 일정 수준 나타나고 있다. 즉,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는 연락이 전혀 없는 비율이 25.7%이고, 일주일 1회 이상 연락을 하는 비율이 20.6%인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동 비율이 각각 32.7%와 7.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5절 부모의 특징

노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본인 부모가 5.6%, 배우자의 부모가 8.1%이다(〈표 4-16〉 참조). 또한 생존해 있는 부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약 50%가 건강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동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 어머니의 경우 읍면부 노인의 어머니가 동부 노인의 어머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은 편이며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어머니가 건강한 편이다(〈표 4-17〉 참조).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배우자의 아버지는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없고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36.7%이다(〈표 4-18〉 참조). 배우자의 어머니는 건강하다는 비율이 32.1%이다. 배우자의 아버지의 경우 모두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높고, 어머니의 경우는 차이는 폭은 적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 차이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표 4-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6.4	2.9	7.3	19.1	25.3	35.0	4.1	100.0 (9,292)
지역								
동부	7.4	3.2	8.0	20.4	25.5	31.5	4.2	100.0 (7,026)
읍면부	3.2	2.0	5.5	15.1	24.7	45.9	3.8	100.0 (2,266)
성								
남자	7.2	3.4	9.0	21.8	25.7	29.5	3.5	100.0 (3,805)
여자	5.8	2.6	6.2	17.1	25.0	38.9	4.5	100.0 (5,487)
연령								
65~69세	10.5	3.8	11.2	24.8	23.8	22.8	3.1	100.0 (2,767)
70~74세	7.8	2.9	7.1	20.2	25.7	32.8	3.5	100.0 (2,568)
75~79세	3.4	2.7	6.2	16.8	26.7	39.9	4.4	100.0 (1,998)
80~84세	1.7	1.5	4.6	12.6	27.6	47.4	4.7	100.0 (1,233)
85세 이상	1.6	2.3	1.4	10.5	21.6	55.0	7.5	100.0 (7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6	3.4	9.0	21.8	26.4	29.5	2.4	100.0 (5,819)
배우자 없음	4.3	2.1	4.6	14.5	23.2	44.2	7.0	100.0 (3,473)
가구형태								
노인독거	4.8	2.4	4.6	14.6	23.0	42.9	7.7	100.0 (2,131)
노인부부	7.6	2.7	8.8	21.1	27.6	30.1	2.1	100.0 (4,419)
자녀동거	6.1	3.7	7.1	18.7	22.8	37.3	4.4	100.0 (2,410)
기타	2.2	2.2	7.3	23.6	26.1	34.2	4.5	100.0 (3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	2.1	3.5	8.4	22.0	53.7	7.4	100.0 (898)
무학(글자해독)	4.4	2.4	4.5	14.4	26.5	43.7	4.2	100.0 (1,980)
초등학교	6.8	2.0	7.3	19.1	27.4	33.9	3.6	100.0 (3,068)
중학교	7.5	4.3	8.2	23.9	24.1	30.2	1.9	100.0 (1,198)
고등학교	9.6	3.8	9.6	23.9	23.4	25.0	4.8	100.0 (1,477)
전문대학 이상	5.9	4.9	14.8	27.7	22.8	20.5	3.5	100.0 (6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1	3.0	8.6	20.5	26.2	32.3	3.3	100.0 (2,711)
미취업	6.5	2.8	6.8	18.5	24.9	36.2	4.4	100.0 (6,5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	1.6	3.6	13.7	22.5	46.0	8.9	100.0 (1,843)
제2오분위	5.0	2.0	6.0	15.3	26.5	40.6	4.6	100.0 (1,926)
제3오분위	7.4	3.6	7.5	20.1	26.3	33.0	2.1	100.0 (1,881)
제4오분위	8.3	3.5	8.5	21.7	27.6	27.5	3.1	100.0 (1,855)
제5오분위	7.5	3.7	11.5	24.9	22.9	28.1	1.5	100.0 (1,763)
가능상태								
제한 없음	7.0	3.0	8.0	20.2	25.3	32.8	3.8	100.0 (7,700)
제한 있음	3.2	2.4	4.3	13.6	25.1	46.0	5.4	100.0 (1,594)
2011년도	4.0	3.5	7.2	18.6	32.5	31.4	2.7	100.0 (9,87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9,292명을 대상으로 함.

〈표 4-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4.0	4.5	9.8	20.7	14.5	19.6	0.0	26.9	100.0 (9,292)
지역									
동부	4.9	5.0	10.7	20.7	13.4	18.0	0.0	27.4	100.0 (7,026)
읍면부	1.3	3.3	7.2	20.8	17.7	24.7	0.0	25.1	100.0 (2,266)
성									
남자	5.0	5.2	10.7	21.8	13.2	16.9	0.0	27.1	100.0 (3,805)
여자	3.4	4.0	9.2	19.9	15.3	21.5	0.0	26.7	100.0 (5,487)
연령									
65~69세	6.9	7.5	12.2	20.4	11.5	13.3	0.0	28.2	100.0 (2,767)
70~74세	4.9	4.0	11.7	22.7	13.4	18.5	0.0	24.8	100.0 (2,568)
75~79세	2.2	3.2	8.2	21.8	16.1	23.0	0.0	25.6	100.0 (1,998)
80~84세	1.2	3.2	5.8	17.6	19.3	25.3	0.0	27.7	100.0 (1,233)
85세 이상	0.4	1.0	5.2	17.2	16.3	28.7	0.0	31.4	100.0 (7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4	5.5	11.3	21.9	13.9	17.8	0.0	24.3	100.0 (5,819)
배우자 없음	1.8	3.0	7.4	18.6	15.4	22.7	0.0	31.2	100.0 (3,473)
가구형태									
노인독거	2.2	2.3	7.9	19.4	14.9	22.3	0.0	31.0	100.0 (2,131)
노인부부	5.6	5.3	11.3	22.2	14.4	18.1	0.0	23.0	100.0 (4,419)
자녀동거	3.3	5.1	8.8	18.7	14.4	20.5	0.0	29.2	100.0 (2,410)
기타	0.5	4.1	9.0	22.6	12.5	16.2	0.0	35.2	100.0 (3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	0.8	4.2	16.3	17.0	26.4	0.0	33.9	100.0 (898)
무학(글자해독)	1.5	2.5	7.6	19.5	16.4	24.1	0.0	28.5	100.0 (1,980)
초등학교	3.0	4.7	9.1	21.6	15.0	21.2	0.0	25.4	100.0 (3,068)
중학교	4.9	6.2	11.0	22.3	13.1	16.4	0.1	26.1	100.0 (1,198)
고등학교	7.5	6.1	13.1	22.9	11.7	12.3	0.0	27.4	100.0 (1,477)
전문대학 이상	10.6	8.5	17.9	20.2	11.2	11.8	0.0	19.8	100.0 (6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	4.7	10.0	21.7	14.9	20.1	0.0	24.3	100.0 (2,711)
미취업	4.0	4.5	9.7	20.3	14.3	19.4	0.0	27.9	100.0 (6,5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	1.7	5.9	19.4	13.6	22.5	0.0	35.2	100.0 (1,843)
제2오분위	2.2	3.6	7.4	20.4	16.7	24.6	0.0	25.1	100.0 (1,926)
제3오분위	3.5	6.2	10.9	20.4	14.8	19.6	0.0	24.7	100.0 (1,881)
제4오분위	6.2	5.0	13.1	21.9	13.8	15.8	0.0	24.2	100.0 (1,855)
제5오분위	7.0	6.1	12.1	21.1	12.9	15.4	0.0	25.4	100.0 (1,763)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	5.1	10.8	21.4	13.9	18.5	0.0	25.7	100.0 (7,700)
제한 있음	0.8	2.1	5.0	17.2	17.1	25.2	0.0	32.7	100.0 (1,594)
2011년도	2.8	4.5	7.6	18.1	21.6	25.6	0.0	19.7	100.0 (9,875)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9,292명을 대상으로 함.

〈표 4-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실태

(단위: %, 명)

		부모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두 분 모두 사망	계 (명)
2014	본인의 부모 ¹⁾	0.2	0.3	5.1	94.4	100.0 (10,279)
	배우자의 부모 ²⁾	0.6	0.4	7.1	91.9	100.0 (6,381)
2011	본인의 부모	0.3	0.3	4.5	95.0	100.0 (10,544)
	배우자의 부모	0.3	0.4	6.6	92.7	100.0 (7,10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거나(6,338명)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43명) 6,381명을 대상으로 함.

3) 모든 본인응답자(무배우자와 유배우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 4-1〉과는 차이가 있음.

〈표 4-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본인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¹⁾	1.7	47.8	13.1	37.5	100.0 (50)
지역					
동부	0.0	47.2	13.5	39.3	100.0 (42)
읍면부	9.8	50.7	10.7	28.8	100.0 (9) ³⁾
성					
남자	3.0	55.3	7.6	34.1	100.0 (28)
여자	0.0	38.7	19.7	41.6	100.0 (23)
연령					
65~69세	0.0	49.7	14.2	36.1	100.0 (46)
70~74세	26.2	35.1	0.0	38.7	100.0 (3) ³⁾
85세 이상	0.0	0.0	0.0	100.0	100.0 (1) ³⁾
2011년도	2.1	45.8	33.3	18.8	100.0 (48)
본인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²⁾	1.4	33.3	30.6	34.7	100.0 (539)
지역					
동부	0.8	31.8	31.6	35.9	100.0 (458)
읍면부	5.0	41.3	25.1	28.6	100.0 (82)
성					
남자	1.4	37.6	30.4	30.6	100.0 (290)
여자	1.5	28.2	30.9	39.5	100.0 (250)
연령					
65~69세	1.2	33.3	30.7	34.8	100.0 (398)
70~74세	2.4	30.8	32.7	34.1	100.0 (122)
75~79세	0.0	37.6	17.8	44.6	100.0 (15)
80~84세	0.0	100.0	0.0	0.0	100.0 (2) ³⁾
85세 이상	0.0	100.0	0.0	0.0	100.0 (1) ³⁾
2011년도	1.5	42.2	31.9	24.3	100.0 (49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5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배우자의 아버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¹⁾	0.0	36.7	38.8	24.5	100.0 (62)
지역					
동부	0.0	27.1	43.9	29.1	100.0 (49)
읍면부	0.0	73.5	19.5	7.0	100.0 (13)
성					
남자	0.0	35.2	42.2	22.7	100.0 (57)
여자	0.0	53.0	5.2	42.9	100.0 (6) ³⁾
연령					
65~69세	0.0	37.7	43.0	19.3	100.0 (50)
70~74세	0.0	30.8	16.4	52.9	100.0 (11)
75~79세	0.0	42.7	57.3	0.0	100.0 (2) ³⁾
2011년도	2.1	45.8	33.3	18.8	100.0 (48)
배우자의 어머니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²⁾	0.6	31.5	36.7	31.2	100.0 (489)
지역					
동부	0.4	31.0	36.3	32.4	100.0 (416)
읍면부	1.5	34.5	39.2	24.8	100.0 (74)
성					
남자	0.3	31.5	37.9	30.3	100.0 (392)
여자	1.5	31.6	31.9	35.0	100.0 (97)
연령					
65~69세	0.4	33.2	37.8	28.7	100.0 (343)
70~74세	1.1	25.7	37.4	35.8	100.0 (114)
75~79세	0.0	26.8	23.7	49.6	100.0 (25)
80~84세	0.0	58.8	15.4	25.7	100.0 (5) ³⁾
85세 이상	0.0	63.3	36.7	0.0	100.0 (2) ³⁾
2011년도	0.3	36.5	40.2	23.0	100.0 (49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6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489명을 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6절 형제자매·친척과의 접촉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척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친인척과 왕래가 없는 비율이 22.2%이다. 약 절반 정도인 45.2%가 연 1,2회 정도만 왕래하고 있고, 15.6%는 연락이 전혀 없고 14.2%만이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표 4-19〉와 〈표 4-20〉 참조).

이러한 형제자매·친척과의 왕래빈도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성별

로는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하여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많고,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많은 경우 형제자매·친척과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는데,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49.6%이다. 즉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친인척의 수도 감소하고 기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친인척과의 왕래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31.5%로 유배우 노인의 16.4%보다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동 비율이 노인독거가구가 31.0%로 노인부부가구의 16.8%보다 월등히 높아 친인척과는 유대가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친인척이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친인척이 없는 경우는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39.2%에 달한 반면, 3명 이상인 경우는 4.9%로 큰 차이가 있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인척과의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친인척과의 왕래가 없어 경제적 여력이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 노인에 비하여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고,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경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하여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왕래와 비교해 볼 때 연락 빈도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도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는 왕래 빈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은 경우 형제자매·친척과의 연락이 전혀 없는 비율이 높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동 비율이 40.5%로 왕래 빈도의 49.6%와 함께 고려해볼 때 후기 노인의 절반 정도는 전혀 연락이나 왕래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락이 없는 비율이 유배우 12.0%, 무배우 21.4%로 배우자가 없으면 친인척과의 연락도 적다. 또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동 비율이 21.1%, 노인부부가구 12.2%, 자녀동거가구 16.1%, 기타가구 17.6%로 독거노인에게서 친인척과의 연락이 낮은 경향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을 하지 않는 노인,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친인척과의 연락이 적은 편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친인척과의 연락이 없는 비율이 높은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 나쁜 노인의 경우 친인척과도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2.4	1.3	1.9	9.8	17.1	45.2	0.2	22.2	100.0 (10,236)
지역									
동부	1.6	1.0	1.8	10.1	17.7	45.2	0.3	22.3	100.0 (7,840)
읍면부	4.7	2.0	2.1	8.7	15.4	45.0	0.1	21.9	100.0 (2,396)
성									
남자	2.0	1.2	1.5	10.0	18.8	47.8	0.1	18.5	100.0 (4,277)
여자	2.6	1.3	2.2	9.6	15.9	43.3	0.3	24.8	100.0 (5,959)
연령									
65~69세	2.1	1.0	2.1	13.4	22.6	44.9	0.1	13.8	100.0 (3,297)
70~74세	2.2	1.2	2.1	9.6	18.2	47.3	0.3	19.1	100.0 (2,794)
75~79세	2.2	1.7	1.4	8.0	15.8	47.2	0.4	23.3	100.0 (2,109)
80~84세	3.1	0.8	2.0	7.0	9.5	45.2	0.2	32.3	100.0 (1,277)
85세 이상	3.1	1.9	1.8	4.2	6.1	33.1	0.2	49.6	100.0 (7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	1.2	1.9	11.1	20.0	47.1	0.2	16.4	100.0 (6,311)
배우자 없음	2.7	1.4	2.0	7.7	12.5	42.0	0.3	31.5	100.0 (3,925)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1.7	2.0	8.0	12.2	42.3	0.1	31.0	100.0 (2,378)
노인부부	2.4	1.1	1.8	10.4	19.8	47.5	0.3	16.8	100.0 (4,572)
자녀동거	1.7	0.8	2.1	9.9	17.1	45.2	0.3	22.8	100.0 (2,874)
기타	5.0	3.3	1.1	11.1	16.5	35.9	0.0	27.2	100.0 (413)
가까운 친인척수									
0명	1.1	0.7	1.0	4.4	10.3	42.9	0.4	39.2	100.0 (4,784)
1명	4.3	2.1	2.6	12.9	18.6	49.7	0.2	9.6	100.0 (2,594)
2명	2.5	1.4	2.1	14.2	26.4	48.3	0.0	5.1	100.0 (1,564)
3명 이상	2.8	1.5	3.8	17.9	28.3	40.8	0.0	4.9	100.0 (1,29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9	1.1	0.9	4.6	7.9	40.5	0.2	40.8	100.0 (967)
무학(글자해독)	2.7	1.1	2.0	6.6	10.7	46.3	0.4	30.2	100.0 (2,124)
초등학교	2.7	1.6	1.7	10.0	18.4	45.6	0.2	19.8	100.0 (3,287)
중학교	2.0	1.1	1.8	12.2	21.5	46.3	0.0	15.1	100.0 (1,342)
고등학교	1.5	1.1	2.8	12.2	20.5	46.0	0.4	15.6	100.0 (1,713)
전문대학 이상	0.5	1.1	2.2	13.9	25.7	42.6	0.0	14.2	100.0 (803)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	1.5	1.6	10.7	20.5	46.7	0.1	15.6	100.0 (2,961)
미취업	2.0	1.2	2.1	9.4	15.8	44.5	0.3	24.9	100.0 (7,27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	1.2	1.6	6.3	10.9	42.5	0.2	34.6	100.0 (2,060)
제2오분위	2.6	1.4	1.7	8.8	14.9	46.1	0.4	24.3	100.0 (2,039)
제3오분위	2.7	1.5	1.4	10.2	19.4	44.8	0.2	19.7	100.0 (2,031)
제4오분위	2.1	1.3	1.7	11.0	17.3	49.2	0.3	17.1	100.0 (2,042)
제5오분위	1.5	1.0	3.1	12.6	23.1	43.5	0.2	15.1	100.0 (2,03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	1.2	1.9	10.7	18.6	45.5	0.2	19.7	100.0 (8,505)
제한 있음	3.1	1.6	2.2	5.0	9.7	43.6	0.3	34.5	100.0 (1,732)
2011년도	3.6	2.3	3.2	10.7	22.8	42.5	-	14.8 ²⁾	100.0 (10,50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기타 포함

〈표 4-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2.8	3.4	8.0	29.2	21.5	19.5	0.0	15.6	100.0 (10,236)
지역									
동부	2.7	3.6	8.4	29.5	21.7	18.6	0.1	15.4	100.0 (7,840)
읍면부	3.0	2.4	6.8	28.1	21.1	22.3	0.0	16.1	100.0 (2,396)
성									
남자	1.5	1.9	6.8	30.1	23.6	20.6	0.1	15.4	100.0 (4,277)
여자	3.7	4.4	8.9	28.5	20.1	18.7	0.1	15.7	100.0 (5,959)
연령									
65~69세	3.0	3.9	9.7	37.0	21.7	16.1	0.0	8.6	100.0 (3,297)
70~74세	2.8	3.9	8.2	31.2	22.1	18.4	0.1	13.3	100.0 (2,794)
75~79세	2.5	2.8	7.9	25.3	23.1	22.6	0.1	15.6	100.0 (2,109)
80~84세	3.0	2.5	5.8	20.5	20.4	24.1	0.0	23.8	100.0 (1,277)
85세 이상	2.2	2.0	4.0	13.4	16.2	21.7	0.1	40.5	100.0 (7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	3.3	8.7	31.8	22.3	19.4	0.1	12.0	100.0 (6,311)
배우자 없음	3.3	3.4	7.1	25.0	20.3	19.6	0.1	21.4	100.0 (3,925)
가구형태									
노인독거	3.3	3.7	6.2	24.9	20.7	20.2	0.0	21.1	100.0 (2,378)
노인부부	2.6	3.3	8.0	31.4	23.0	19.5	0.0	12.2	100.0 (4,572)
자녀동거	2.3	3.0	9.7	29.3	20.1	19.3	0.2	16.1	100.0 (2,875)
기타	6.0	4.6	7.2	28.1	20.1	16.5	0.0	17.6	100.0 (413)
가까운 친인척수									
0명	0.8	0.8	3.2	17.8	20.5	26.1	0.1	30.7	100.0 (4,784)
1명	5.3	5.6	11.3	35.2	23.6	16.3	0.0	2.7	100.0 (2,594)
2명	3.5	5.4	12.6	39.9	24.3	11.9	0.0	2.6	100.0 (1,564)
3명 이상	4.3	5.6	13.9	46.5	17.9	10.7	0.0	1.1	100.0 (1,29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	1.9	4.2	17.6	18.2	23.3	0.0	32.0	100.0 (967)
무학(글자해독)	2.5	2.4	6.0	24.7	20.6	22.2	0.1	21.4	100.0 (2,124)
초등학교	2.9	3.5	8.6	29.8	23.1	18.9	0.1	13.2	100.0 (3,287)
중학교	3.9	3.4	8.2	33.7	22.3	18.0	0.0	10.5	100.0 (1,344)
고등학교	2.1	4.5	10.0	33.5	22.1	17.2	0.1	10.4	100.0 (1,713)
전문대학 이상	2.7	4.5	11.1	35.7	19.2	17.4	0.0	9.5	100.0 (80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	2.8	7.8	33.3	23.3	19.5	0.0	11.0	100.0 (2,961)
미취업	3.0	3.6	8.1	27.5	20.8	19.5	0.1	17.4	100.0 (7,27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2.7	4.9	21.5	20.4	22.2	0.0	25.7	100.0 (2,060)
제2오분위	2.7	2.6	6.3	27.7	22.4	21.8	0.1	16.6	100.0 (2,039)
제3오분위	3.2	3.3	8.5	31.0	22.4	17.7	0.0	13.8	100.0 (2,031)
제4오분위	2.3	4.5	9.3	30.7	22.0	19.9	0.1	11.2	100.0 (2,042)
제5오분위	3.2	3.7	11.1	35.2	20.3	15.9	0.1	10.5	100.0 (2,03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	3.5	8.6	31.2	22.1	18.1	0.1	13.7	100.0 (8,505)
제한 있음	2.5	2.6	5.3	19.4	18.9	26.1	0.1	25.1	100.0 (1,732)
2011년도	2.1	4.4	9.3	29.9	24.5	18.5	-	11.2 ²⁾	100.0 (10,5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기타 포함

제7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표 4-21〉과 〈표 4-22〉는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79.1%가 친구·이웃·지인과 일주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6.3%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 빈도의 경우는 노인의 60.2%가 일주일 1회 이상의 연락을 하고 있고 15.6%가 전혀 연락이 없다. 연락보다는 왕래 빈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가족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다.

동부 노인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에게서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이 높고(46.6% 대 70.2%), 전혀 왕래가 없는 비율은 동부가 6.8%로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서 좀 더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져 거의 매일 왕래한다는 응답이 여자노인이 56.7% 남자노인 45.8%이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거의 매일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하는 비율이 높아 가족(자녀, 손자녀, 친인척)에 비하여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친구·이웃·지인은 배우자의 부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친구·이웃·지인이 없는 경우, 왕래가 전혀 없는 노인의 비중이 높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가 빈번한 편이며, 취업중인 경우도 그러하다. 이 또한 가족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으면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이 13.8%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취업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매일 왕래하는 비율이 62.0%로 미취업 노인의 48.2%보다 높다.

제특성별 연락 빈도는 왕래 빈도와 유사하지만, 왕래 빈도에 비하여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연령군별 차이가 좀 더 뚜렷하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연락 빈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반면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락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이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연락 빈도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좀 더 빈번한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왕래 빈도와는 다른 특징이 도출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왕래를 통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연락을 통하여 유대를 유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52.2	15.2	11.7	11.6	1.7	1.3	0.0	6.3	100.0 (10,279)
지역									
동부	46.6	16.2	13.3	13.6	2.0	1.4	0.0	6.8	100.0 (7,870)
읍면부	70.2	11.8	6.5	5.3	0.8	0.8	0.0	4.6	100.0 (2,408)
성									
남자	45.8	14.7	12.3	16.3	2.6	1.6	0.0	6.8	100.0 (4,291)
여자	56.7	15.5	11.3	8.3	1.2	1.1	0.0	5.9	100.0 (5,989)
연령									
65~69세	47.4	16.1	12.7	16.0	2.5	1.3	0.1	4.1	100.0 (3,303)
70~74세	52.6	15.3	11.2	12.1	1.7	1.2	0.0	5.9	100.0 (2,809)
75~79세	56.4	15.7	10.6	7.9	1.5	1.3	0.0	6.6	100.0 (2,120)
80~84세	56.2	13.7	12.0	7.9	1.2	1.6	0.0	7.5	100.0 (1,284)
85세 이상	52.3	11.4	12.4	8.0	0.6	0.7	0.0	14.7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8.9	15.2	12.2	14.4	2.0	1.3	0.0	6.0	100.0 (6,338)
배우자 없음	57.4	15.1	10.9	7.2	1.4	1.2	0.0	6.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60.6	15.4	10.1	6.4	1.5	0.7	0.0	5.2	100.0 (2,390)
노인부부	51.1	14.6	11.8	13.4	2.0	1.2	0.0	5.8	100.0 (4,595)
자녀동거	47.2	16.0	13.0	12.9	1.6	1.9	0.0	7.4	100.0 (2,881)
기타	48.9	14.1	10.9	13.6	1.3	0.8	0.0	10.3	100.0 (414)
가까운 친구·이웃·지인 수									
0명	49.7	12.3	10.4	9.1	1.6	1.9	0.0	15.1	100.0 (3,706)
1명	50.7	14.6	14.6	14.2	2.1	1.8	0.0	2.1	100.0 (1,845)
2명	54.2	17.3	12.2	13.4	1.7	0.8	0.0	0.4	100.0 (2,045)
3명	54.2	19.7	12.1	12.0	1.2	0.4	0.2	0.3	100.0 (1,007)
4명 이상	50.4	19.6	11.6	10.1	3.0	0.6	0.0	4.8	100.0 (6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1.8	13.5	9.2	4.3	0.3	1.7	0.0	9.3	100.0 (971)
무학(글자해독)	62.0	12.8	10.1	6.6	1.3	0.9	0.0	6.4	100.0 (2,136)
초등학교	55.2	14.5	10.6	11.1	1.7	1.0	0.0	5.9	100.0 (3,303)
중학교	51.7	17.0	10.6	12.9	1.7	1.9	0.0	4.2	100.0 (1,347)
고등학교	40.8	16.3	14.8	18.3	2.4	1.3	0.0	6.2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6.9	20.9	19.1	19.8	3.7	1.9	0.2	7.6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62.0	12.9	8.5	11.0	1.7	0.9	0.0	3.2	100.0 (2,970)
미취업	48.2	16.1	13.0	11.9	1.8	1.4	0.0	7.6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3	14.9	10.1	7.0	1.6	1.0	0.0	8.3	100.0 (2,075)
제2오분위	57.0	15.0	10.1	9.5	1.3	1.2	0.0	6.0	100.0 (2,051)
제3오분위	51.1	14.1	13.5	12.4	1.4	1.7	0.0	5.8	100.0 (2,041)
제4오분위	50.2	15.2	11.5	13.4	2.3	1.0	0.0	6.4	100.0 (2,047)
제5오분위	45.0	16.6	13.6	16.1	2.1	1.6	0.1	5.0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2.3	15.5	11.8	12.5	1.9	1.2	0.0	4.8	100.0 (8,544)
제한 있음	51.3	13.6	11.1	7.3	1.2	1.7	0.0	13.8	100.0 (1,735)
2011년도	43.3	19.4	13.6	13.2	3.2	2.5	-	4.7 ²⁾	100.0 (10,5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표 4-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19.8	18.7	21.7	19.1	3.3	1.8	15.6	100.0 (10,279)
지역								
동부	18.9	19.0	22.3	19.5	3.6	1.9	14.8	100.0 (7,870)
읍·면·부	22.9	17.6	19.8	17.5	2.6	1.5	18.2	100.0 (2,409)
성								
남자	19.1	18.8	22.9	20.2	4.1	1.9	13.0	100.0 (4,291)
여자	20.4	18.6	20.8	18.2	2.8	1.7	17.5	100.0 (5,988)
연령								
65~69세	22.8	22.4	25.2	17.3	3.3	1.6	7.5	100.0 (3,303)
70~74세	20.2	20.4	22.6	20.1	2.8	1.7	12.3	100.0 (2,808)
75~79세	20.2	16.2	20.7	20.7	3.4	1.7	17.1	100.0 (2,120)
80~84세	16.9	14.8	17.7	20.8	3.8	2.3	23.7	100.0 (1,284)
85세 이상	10.0	9.9	12.7	15.3	4.1	2.8	45.3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0	19.6	23.3	19.7	3.5	1.7	12.3	100.0 (6,337)
배우자 없음	19.6	17.2	19.1	18.1	3.1	2.0	20.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1.3	18.1	20.0	18.4	3.1	1.9	17.2	100.0 (2,390)
노인부부	20.4	19.3	23.1	19.5	3.4	1.7	12.7	100.0 (4,593)
자녀동거	17.7	18.7	20.6	19.2	3.3	2.3	18.1	100.0 (2,881)
기타	20.3	15.3	22.8	16.1	3.6	0.2	21.8	100.0 (414)
가까운 친구·이웃·지인수								
0명	11.1	11.9	18.0	19.3	4.3	3.1	32.4	100.0 (3,706)
1명	17.3	20.2	23.7	23.8	3.8	1.9	9.3	100.0 (1,845)
2명	23.3	22.6	25.9	19.7	2.4	0.8	5.5	100.0 (2,045)
3명	28.5	25.2	24.1	15.6	1.9	0.6	4.2	100.0 (1,007)
4명 이상	27.4	23.0	19.5	15.4	5.1	1.7	7.8	100.0 (6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5	11.9	17.1	19.1	3.1	2.6	32.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7.1	15.5	22.0	18.1	3.4	1.5	22.3	100.0 (2,136)
초등학교	20.0	19.2	20.3	20.8	3.5	1.7	14.5	100.0 (3,303)
중학교	23.1	22.0	23.9	18.3	2.8	1.4	8.7	100.0 (1,347)
고등학교	23.1	20.8	23.5	18.0	3.5	2.3	8.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1.9	23.1	24.7	17.6	3.3	1.7	7.8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4.5	21.3	22.9	17.8	2.8	1.3	9.6	100.0 (2,969)
미취업	18.0	17.6	21.2	19.6	3.5	2.0	18.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9	14.9	18.9	20.8	4.4	1.7	22.5	100.0 (2,075)
제2오분위	17.7	17.8	22.7	19.0	3.2	2.0	17.6	100.0 (2,051)
제3오분위	19.5	18.6	24.3	18.6	3.0	2.3	13.8	100.0 (2,041)
제4오분위	22.6	21.1	21.1	17.7	3.0	1.7	12.7	100.0 (2,047)
제5오분위	22.7	21.1	21.5	19.2	2.9	1.5	11.1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8	19.9	22.5	19.0	3.3	1.7	11.7	100.0 (8,543)
제한 있음	10.3	12.6	17.5	19.2	3.6	2.2	34.7	100.0 (1,735)
2011년도	14.8	17.9	22.1	23.0	5.0	3.5	13.6 ²⁾	100.0 (10,5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한편, 가구원 외의 외부 사람이 노인의 집을 어느 정도 찾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본 <표 4-23>에 의하면 9.0%는 전혀 없고, 주 1회 이상이 61.2%이다. 즉 9.0%는 외부인의 방문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비상시 도움요청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특성별로는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과 유사하게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에게서 방문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으면 외부 방문이 전혀 없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도 그러하다. 기능상태별로는 주 1회 이상인 비율이 기능제한이 전혀 없는 노인의 60.1%에 비하여 기능제한 경험 노인이 67.7%로 높다.

〈표 4-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원 외의 방문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주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월 1~2회 정도	월 1회 미만	없음	계 (명)
전체 ¹⁾	21.2	20.3	19.7	19.2	10.5	9.0	100.0 (10,279)
지역							
동부	19.6	18.9	19.7	20.6	12.0	9.2	100.0 (7,870)
읍면부	26.6	24.8	19.7	14.7	5.5	8.6	100.0 (2,409)
성							
남자	19.9	19.5	19.9	20.1	11.1	9.6	100.0 (4,291)
여자	22.2	20.9	19.6	18.6	10.1	8.6	100.0 (5,988)
연령							
65~69세	20.0	18.5	19.6	20.5	11.7	9.7	100.0 (3,303)
70~74세	21.7	20.0	20.1	18.8	9.9	9.5	100.0 (2,808)
75~79세	21.2	22.7	19.5	18.2	10.4	8.0	100.0 (2,120)
80~84세	21.6	21.0	20.5	18.0	11.6	7.3	100.0 (1,284)
85세 이상	24.7	21.7	17.7	19.4	6.0	10.4	100.0(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0	20.5	20.1	19.9	10.1	8.5	100.0 (6,337)
배우자 없음	21.7	20.1	19.1	18.1	11.1	9.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3.0	21.6	20.1	16.1	10.6	8.7	100.0 (2,390)
노인부부	21.3	21.2	20.4	19.8	9.2	8.2	100.0 (4,593)
자녀동거	19.0	17.3	18.9	21.3	12.8	10.9	100.0 (2,881)
기타	26.3	25.0	16.0	16.4	8.8	7.5	100.0(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5.7	21.9	17.6	18.8	7.4	8.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23.0	22.3	19.6	16.9	9.0	9.4	100.0 (2,136)
초등학교	22.8	21.3	20.4	18.5	10.1	7.1	100.0 (3,303)
중학교	20.6	19.1	19.2	19.9	12.0	9.2	100.0 (1,347)
고등학교	18.1	18.8	20.7	19.5	11.6	11.4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2.8	14.7	18.7	27.2	15.3	11.2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1	21.9	19.4	17.5	8.8	7.3	100.0 (2,969)
미취업	19.7	19.7	19.8	19.9	11.2	9.7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7	21.2	19.3	16.7	10.1	11.1	100.0 (2,075)
제2오분위	22.9	23.2	20.4	17.8	9.8	6.0	100.0 (2,051)
제3오분위	21.0	18.4	22.3	19.3	9.1	9.9	100.0 (2,041)
제4오분위	20.2	21.4	18.7	19.1	11.2	9.6	100.0 (2,047)
제5오분위	20.3	17.5	17.9	23.3	12.4	8.5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5	19.9	19.7	19.8	10.9	9.2	100.0 (8,543)
제한 있음	24.7	22.5	19.9	16.3	8.5	8.1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5장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 제4절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5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

본 장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배우자, 비동거자녀,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양은 그 내용이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지원 외에도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도움, 수발지원, 정기 및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의 경제적 도움 등이 대표적인 부양의 내용이다. 노인의 특성변화에 따라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기도 하는 적극적 존재라는 측면에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및 수발지원 실태를 살펴본 <표 5-1>~<표 5-6>에 의하면 75.0%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76.6%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4명중 3명 정도가 배우자와 정서적 지원을 원활히 주고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도구적 지원의 경우도 정서적 지원의 경우와 유사한 76.7%의 수혜율과 73.5%의 제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발지원의 경우는 수혜율 64.6%와 제공률 66.0%로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정서적인 측면이나 일상생활의 도움에 비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지역별 차이는 적지만 성별 차이가 있어 남자노인의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8.0%로 여자노인의 70.8%보다 낮고, 제공률은 남자노인이 76.6% 여자노인이 76.4%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 수혜율과 제공률이 낮은 현상이 있지만 제공률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나 배우자의 건강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좋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중학교 학력 이하 군에서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큰 편이다. 제공률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

인에게서 제공률과 수혜율이 높아 제5오분위의 경우 수혜율 80.9%와 제공률 82.5%인데 비하여 제1오분위는 각각 65.9%와 67.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중인 노인이 미취업 노인에 비하여 수혜율이나 제공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기능상태별 차이에 비하여 적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수혜율이 75.9%이며 제공률은 78.5%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67.9%와 60.7%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수혜율과 제공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률에 비하여 수혜율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이 좋을수록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모두 높지만 특히 제공률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건강에 따른 차이가 더욱 더 분명하다(〈표 5-1〉과 〈표 5-2〉 참조).

〈표 5-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3.8	61.2	19.0	6.0	100.0 (6,338)
지역					
동부	14.1	60.6	19.4	5.9	100.0 (4,864)
읍면부	12.7	63.2	17.6	6.5	100.0 (1,474)
성					
남자	14.7	63.3	17.4	4.5	100.0 (3,704)
여자	12.5	58.3	21.2	8.1	100.0 (2,634)
연령					
65~69세	15.9	61.3	18.1	4.7	100.0 (2,524)
70~74세	13.3	63.5	17.3	5.9	100.0 (1,862)
75~79세	11.7	60.5	20.2	7.7	100.0 (1,212)
80~84세	12.5	57.0	24.1	6.5	100.0 (530)
85세 이상	8.3	54.8	24.5	12.4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0	48.4	33.6	9.1	100.0 (250)
무학(글자해독)	8.4	58.0	23.3	10.3	100.0 (903)
초등학교	11.3	62.6	19.7	6.4	100.0 (2,105)
중학교	15.9	63.8	15.8	4.6	100.0 (1,008)
고등학교	16.6	62.5	16.9	4.0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21.7	59.5	14.7	4.2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8	66.2	17.4	3.6	100.0 (2,170)
미취업	14.3	58.6	19.9	7.3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0	54.9	22.5	11.6	100.0 (592)
제2오분위	12.5	60.5	21.5	5.5	100.0 (1,326)
제3오분위	12.9	60.7	21.4	5.0	100.0 (1,500)
제4오분위	12.0	64.3	16.9	6.9	100.0 (1,508)
제5오분위	19.2	61.7	14.8	4.4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8	62.1	18.6	5.5	100.0 (5,627)
제한 있음	13.6	54.3	22.1	10.0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6.4	45.1	10.7	7.9	100.0 (78)
건강한 편	18.8	66.0	12.8	2.5	100.0 (2,132)
그저 그렇다	12.4	63.0	18.7	5.9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1.0	60.8	23.6	4.6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5.8	40.2	26.7	27.3	100.0 (499)
2011년도	19.8	66.4	10.5	3.3	100.0 (7,1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5-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3.7	62.9	18.2	5.3	100.0 (6,338)
지역					
동부	14.1	62.4	18.3	5.2	100.0 (4,864)
읍면부	12.2	64.4	17.7	5.8	100.0 (1,474)
성					
남자	13.8	62.8	18.8	4.7	100.0 (3,704)
여자	13.5	62.9	17.4	6.2	100.0 (2,634)
연령					
65~69세	15.5	63.2	17.2	4.1	100.0 (2,524)
70~74세	13.2	64.9	16.7	5.2	100.0 (1,862)
75~79세	11.6	61.7	19.7	6.9	100.0 (1,212)
80~84세	13.5	59.3	21.1	6.2	100.0 (530)
85세 이상	7.5	56.2	26.0	10.3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9	52.7	29.9	7.5	100.0 (250)
무학(글자해독)	8.3	61.3	21.6	8.9	100.0 (903)
초등학교	11.2	64.5	18.9	5.4	100.0 (2,105)
중학교	15.4	65.0	15.9	3.8	100.0 (1,008)
고등학교	16.4	62.6	16.9	4.1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21.6	60.8	13.4	4.3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8	67.2	16.7	3.3	100.0 (2,170)
미취업	14.1	60.6	18.9	6.4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8	58.0	22.5	9.7	100.0 (592)
제2오분위	12.1	63.3	20.2	4.5	100.0 (1,326)
제3오분위	12.6	63.0	19.9	4.5	100.0 (1,500)
제4오분위	12.5	63.8	17.3	6.4	100.0 (1,508)
제5오분위	19.2	63.3	13.6	4.0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5	64.0	17.1	4.4	100.0 (5,627)
제한 있음	7.3	53.4	26.9	12.5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3.7	47.3	13.6	5.4	100.0 (78)
건강한 편	17.7	66.5	13.0	2.8	100.0 (2,132)
그저 그렇다	10.8	64.2	19.2	5.8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1.2	62.0	22.2	4.6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12.2	49.6	20.1	18.0	100.0 (499)
2011년도	19.4	67.2	10.8	2.6	100.0 (7,11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도구적 지원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별 차이가 있어 동부 노인의 수혜율은 77.7%이며 제공률은 74.8%인데 비하여 읍면부 노인은 73.8%와 69.3%로 동부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특히 제공률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다(〈표 5-3〉과 〈표 5-4〉 참조).

성별 차이는 매우 큰데, 남자노인은 수혜율이 93.2%이고 제공률은 60.2%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수혜율 53.6%, 제공률 92.3%이다. 즉, 남자노인의 경우는 제공에 비하여 도움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아 수혜율이 33%p 높고, 여자노인은 제공률이 38.7%p 훨씬 높다. 즉, 남자노인은 받는 편이며 여자노인은 주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전통적으로 가사의 분담이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 보인다.

한편,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도구적 지원 수혜율에는 연령군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인데 유독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0.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제공률의 경우는 연령군별 차이가 커서 연령이 높을수록 제공률이 낮다. 65~69세 연령군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률은 77.5%인데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5.8%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하여 가사활동 등의 도움을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도구적 지원을 받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 전문대 이상의 경우는 수혜율이 86.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률에는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단, 전문대학교 이상의 경우 제공률이 조금 낮아 69.9%이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수혜율이 높아 제1오분위는 66.6%이지만 제5오분위는 79.7%이다. 반면 제공률에 있어서는 소득수준별 제공률의 차이가 적다. 단 제1오분위의 경우는 67.1%로 7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수혜율이 80.9%로 미취업노인의 74.7%보다 높다. 그러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각각 70.4%와 75.1%로 미취업 노인이 더 높다. 즉 취업노인은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도움을 받는 편이며, 미취업노인은 배우자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 기능상태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수혜율은 77.4%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72.2%에 비하여 약간 높다. 그러나 제공률은 각각 76.4%와 50.5%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배우자의 건강상태별로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을 비교해보면 배우자가 건강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다. 즉 배우자가 매우 건강한 경우는 81.2%, 건강한 편인 경우 83.1%로 매우 높다. 이에 비하여 배우자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동 비율은 39.6%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구적 지원의 제공률에 있어서는 수혜율에 비하여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적인 도구적 활동을 하기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5〉과 〈표 4-6〉을 통하여 간병·수발·병원 동행 등의 수발지원의 제공률과 수혜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성별로는 도구적 도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노인 간 차이가 크다. 남자노인의 경우 수발 수혜율이 68.0%이고 제공률이 62.5%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동 비율이 59.8%와 71.0%이다. 즉, 수혜율은 남자노인이 높지만 제공률은 여자노인이 높다. 도구적 도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노인은 수혜하는 편인 반면 여자노인은 제공하는 편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은 노인에게서 수발 수혜율이 월등히 높고 수발 제공률은 낮은 경향이 있어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수혜율이 70.3%로 제일 높고 제공률은 60.5%로 타 연령군보다 월등히 낮다. 또한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은 연령군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노인의 교육수준의 경우 도구적 지원과는 달리 수혜율이나 제공률에 있어 뚜렷한 경향은 없고, 소득수준별로도 수혜율과 제공률에 있어서 특정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기능상태별로는 차이가 커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63.1%가 간병·수발·병원 동행 등의 수발지원을 받았고 68.0%가 도움을 제공하였다.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수혜율이 77.0%와 제공률 50.4%이다.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의 차이가 큰데, 이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다양한 수발도움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기능 제한이 없어도 수발도움을 받는 것은 급성질병 시 간호나 병원 이용 시 동행을 하는 등의 도움을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배우자의 건강별로는 배우자의 건강이 좋을수록 수발지원을 받는 비중이 높지만 제공률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수발을 제공한 비율이 높다.

〈표 5-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9.2	47.5	13.9	9.3	100.0 (6,338)
지역					
동부	28.6	49.1	13.6	8.7	100.0 (4,864)
읍면부	31.3	42.5	14.9	11.3	100.0 (1,474)
성					
남자	42.6	50.6	4.3	2.5	100.0 (3,704)
여자	10.4	43.2	27.5	18.9	100.0 (2,634)
연령					
65~69세	28.1	49.7	14.8	7.4	100.0 (2,524)
70~74세	29.9	47.6	13.4	9.1	100.0 (1,862)
75~79세	28.2	48.8	13.1	9.9	100.0 (1,212)
80~84세	29.9	40.9	13.4	15.9	100.0(530)
85세 이상	40.1	31.0	14.1	14.9	100.0(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3	27.5	28.2	25.1	100.0(250)
무학(글자해독)	21.4	45.0	19.6	14.2	100.0(903)
초등학교	25.7	48.2	15.2	10.9	100.0 (2,105)
중학교	31.0	49.6	13.0	6.4	100.0 (1,008)
고등학교	36.2	49.5	9.3	5.0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37.3	49.4	7.9	5.4	100.0(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8	49.1	11.5	7.7	100.0 (2,170)
미취업	27.9	46.8	15.2	10.2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8	37.8	17.2	16.2	100.0(592)
제2오분위	26.5	48.4	15.1	10.1	100.0 (1,326)
제3오분위	29.4	47.5	14.5	8.6	100.0 (1,500)
제4오분위	30.4	49.3	12.8	7.6	100.0 (1,508)
제5오분위	30.4	49.3	11.9	8.4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5	48.9	13.7	9.0	100.0 (5,627)
제한 있음	35.2	37.0	15.7	12.0	100.0(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2.8	48.4	9.4	9.4	100.0 (78)
건강한 편	31.9	51.2	11.8	5.2	100.0 (2,132)
그저 그렇다	30.6	50.6	12.5	6.3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28.4	47.8	15.5	8.3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17.2	22.4	20.5	39.9	100.0(499)
2011년도	35.0	39.6	16.0	9.4	100.0 (7,1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5-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5.2	48.3	17.3	9.2	100.0 (6,338)
지역					
동부	25.4	49.4	16.9	8.3	100.0 (4,864)
읍면부	24.7	44.6	18.4	12.3	100.0 (1,474)
성					
남자	11.1	49.1	26.1	13.7	100.0 (3,704)
여자	45.0	47.3	4.8	2.9	100.0 (2,634)
연령					
65~69세	27.4	50.1	16.4	6.1	100.0 (2,524)
70~74세	24.5	50.4	16.1	9.0	100.0 (1,862)
75~79세	23.6	47.1	18.3	11.0	100.0 (1,212)
80~84세	24.5	42.3	21.1	12.2	100.0 (530)
85세 이상	15.4	30.4	23.1	31.2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7.4	40.0	14.9	7.6	100.0 (250)
무학(글자해독)	29.9	43.9	15.1	11.1	100.0 (903)
초등학교	25.7	49.6	16.0	8.7	100.0 (2,105)
중학교	23.0	48.3	19.8	8.9	100.0 (1,008)
고등학교	23.0	50.3	18.2	8.5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20.6	49.3	19.4	10.8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0.7	49.7	20.7	8.9	100.0 (2,170)
미취업	27.5	47.6	15.5	9.4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9	37.2	18.3	14.6	100.0 (592)
제2오분위	25.6	49.9	15.8	8.8	100.0 (1,326)
제3오분위	25.0	49.6	18.2	7.3	100.0 (1,500)
제4오분위	24.6	48.7	17.4	9.3	100.0 (1,508)
제5오분위	23.5	50.2	17.0	9.3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1	50.3	16.6	7.0	100.0 (5,627)
제한 있음	17.7	32.8	23.0	26.5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4.9	49.0	10.9	5.2	100.0 (78)
건강한 편	23.6	51.2	18.0	7.1	100.0 (2,132)
그저 그렇다	23.8	47.2	18.6	10.4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22.9	49.7	17.2	10.3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44.6	32.9	11.7	10.9	100.0 (499)
2011년도	26.6	42.4	22.3	8.7	100.0 (7,1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5-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4.5	50.1	20.4	15.0	100.0 (6,338)
지역					
동부	14.3	49.6	20.8	15.3	100.0 (4,864)
읍면부	15.3	51.6	18.9	14.1	100.0 (1,474)
성					
남자	17.3	50.7	18.5	13.5	100.0 (3,704)
여자	10.6	49.2	23.0	17.3	100.0 (2,634)
연령					
65~69세	13.2	48.4	22.0	16.5	100.0 (2,524)
70~74세	14.7	51.0	20.3	14.0	100.0 (1,862)
75~79세	14.1	53.4	19.4	13.1	100.0 (1,212)
80~84세	17.6	48.8	17.7	16.0	100.0(530)
85세 이상	23.5	46.8	13.9	15.8	100.0(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8	39.9	20.7	21.6	100.0(250)
무학(글자해독)	11.9	52.6	19.1	16.4	100.0(903)
초등학교	13.9	51.8	20.7	13.7	100.0 (2,105)
중학교	14.5	49.1	22.6	13.9	100.0 (1,008)
고등학교	15.6	48.3	21.8	14.4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16.7	50.6	14.7	18.1	100.0(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8	52.6	21.6	14.1	100.0 (2,170)
미취업	16.0	48.8	19.7	15.6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6	43.5	18.6	19.3	100.0(592)
제2오분위	15.8	53.9	19.0	11.3	100.0 (1,326)
제3오분위	12.4	53.5	20.6	13.5	100.0 (1,500)
제4오분위	15.9	47.0	21.3	15.8	100.0 (1,508)
제5오분위	12.2	49.2	20.8	17.7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5	50.6	21.3	15.7	100.0 (5,627)
제한 있음	30.8	46.2	13.1	9.9	100.0(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31.6	51.1	7.0	10.3	100.0(78)
건강한 편	16.5	51.9	18.0	13.7	100.0 (2,132)
그저 그렇다	15.4	55.2	18.4	11.0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2.9	50.8	23.6	12.7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8.8	25.2	22.9	43.2	100.0(499)
2011년도	19.8	50.3	19.4	10.5	100.0 (7,1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표 5-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4.1	51.9	19.9	14.1	100.0 (6,338)
지역					
동부	14.1	51.4	20.3	14.2	100.0 (4,864)
읍면부	14.2	53.6	18.3	14.0	100.0 (1,474)
성					
남자	11.1	51.4	21.8	15.7	100.0 (3,704)
여자	18.4	52.6	17.1	12.0	100.0 (2,634)
연령					
65~69세	13.7	51.1	20.3	14.9	100.0 (2,524)
70~74세	13.8	53.2	19.6	13.4	100.0 (1,862)
75~79세	14.1	52.8	20.0	13.2	100.0 (1,212)
80~84세	17.8	50.8	19.1	12.2	100.0 (530)
85세 이상	13.3	47.2	18.1	21.3	100.0 (2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0	44.5	21.4	12.1	100.0 (250)
무학(글자해독)	15.8	51.7	17.2	15.3	100.0 (903)
초등학교	15.2	53.5	19.2	12.1	100.0 (2,105)
중학교	12.2	52.4	22.0	13.4	100.0 (1,008)
고등학교	12.2	50.1	21.9	15.8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12.6	52.7	17.4	17.3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1	55.1	20.4	11.3	100.0 (2,170)
미취업	14.7	50.2	19.5	15.6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1	43.8	19.0	18.2	100.0 (592)
제2오분위	16.3	57.9	17.0	8.9	100.0 (1,326)
제3오분위	12.1	55.2	19.7	13.0	100.0 (1,500)
제4오분위	14.4	47.3	21.7	16.7	100.0 (1,508)
제5오분위	11.8	51.4	20.8	16.0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8	53.2	19.4	12.7	100.0 (5,627)
제한 있음	9.0	41.4	23.7	25.9	100.0 (711)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23.3	50.8	10.4	15.6	100.0 (78)
건강한 편	10.4	50.8	21.8	17.0	100.0 (2,132)
그저 그렇다	8.9	52.8	22.4	16.0	100.0 (1,353)
건강하지 않은 편	14.6	55.8	18.9	10.8	100.0 (2,276)
전혀 건강하지 않음	40.9	36.5	10.7	11.8	100.0 (499)
2011년도	18.7	52.2	20.2	8.9	100.0 (7,11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표 5-7〉~〈표 5-13〉에 의하면, 60.8%의 노인들이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55.9%는 정서적 지원을 동거자녀들에게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준다는 응답에 비해 5%p가량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노인들의 50~60%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경우, 63.6%가 받고 있으며 68.2%가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제공률이 수혜율에 비하여 약 5%p 정도 높은 것이다. 수발의 경우는 59.4%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22.7%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혜율과 제공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이 45.1%, 제공률이 9.0%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의 경우는 수혜율이 73.3%, 제공률이 32.9%이다. 한편, 현물지원의 경우 수혜율은 80.3%이고, 제공률은 52.7%이다. 즉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제공보다는 수혜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제적 도움의 교환수준을 비교해보면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약간 높지만(동부 62.4%, 읍면부 69.2%), 제공의 경우에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약간 높은(동부 68.7%, 읍면부 65.9%)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발 지원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에게서 높지만(동부 57.3%, 읍면부 69.2%), 준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동부 23.0%, 읍면부 21.0%).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높으며(동부 48.8%, 읍면부 28.3%), 제공률은 비슷하다(동부 9.1%, 읍면부 8.2%). 한편, 비정기적 현금지원의 경우 수혜율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동부 73.4%, 읍면부 72.7%), 제공률은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약간 높다(동부 33.9%, 읍면부 28.1%). 또한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율이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약간 높지만(동부 79.6%, 읍면부 83.8%), 제공률은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이 유사하다(동부

52.5%, 읍·면부 53.8%).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제공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의 수혜율과 제공률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에 있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으며, 도구적 지원에서도 수혜율과 제공률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발 지원에 있어서도 여자노인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남자노인보다 높다. 경제적 지원에서 수혜율 역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으나, 제공률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높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혜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다(정서적 지원 수혜율: 65~69세 59.4%, 85세 이상 67.4%, 정서적 지원 제공률: 65~69세 62.5%, 85세 이상 40.4%). 한편, 도구적 지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율이 크게 높고(65~69세 49.6%, 85세 이상 90.8%), 제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73.2%, 85세 이상 43.6%). 수발 지원의 수혜율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65~69세 44.6%, 85세 이상 86.3%), 제공률은 낮다(65~69세 22.9%, 85세 이상 16.2%).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대체적으로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제공률은 높고 수혜율은 낮은 경향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70~79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교환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는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수혜율이 높지만 제공률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도구적 지원과 수발지원의 경우는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역시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보다 높다. 특히 도구적 지원의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수혜율은 무배우 노인이 더 높지만 제공은 유배우 노인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중학교 졸업자에게서 가장 낮고 무학(글자해독)에서 가장 높으나,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제공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 역시 높다(무학(글자모름) 45.3%, 전문대학 이상 63.7%). 반면,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으며(무학(글자모름) 82.8%, 전문대학 이상 57.6%), 제공률은 중학교 졸업자에게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서 가장 낮았으나,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수발 지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으며(무학(글자모름) 80.8%, 전문대학 이상 44.4%),

제공률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31.3%로 가장 높으나, 그 외 학력군에서는 20%대이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제공률은 낮은 경향성이 있다. 비정기적 현금 지원이나 현물지원 역시 유사한 경향성이 있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미취업자가 63.2%로 취업중인 노인의 53.5%보다 약 10%p 높지만 제공률은 미취업자가 55.5%로 취업자가 57.2%로 차이가 거의 없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또한 수혜율은 미취업자가 67.2%로 취업자의 52.8%보다 매우 높지만, 제공률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취업자 69.0%, 미취업자 68.0%). 수발 지원의 경우도 수혜율은 미취업자가 높았으며(미취업자 63.3%, 취업자 47.7%), 제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취업자 24.2%, 미취업자 22.1%). 경제적 지원의 경우 모든 영역(정기적 현금 지원, 비정기적 현금 지원, 현물 지원)에서 미취업자의 수혜율이 더 높고, 제공률은 취업자가 큰 차이로 높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제5오분위가 가장 수혜율이 높고, 제공률 역시 높으나, 가구소득별로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혜율이 높고(제1오분위 53.1%, 제5오분위 68.7%), 제공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다(제1오분위 73.7%, 제5오분위 66.3%). 수발지원의 수혜율은 제3오분위 및 제5오분위에서 가장 높으나, 소득분위별로 일정한 패턴은 보이지 않으며, 제공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다(제1오분위 36.1%, 제5오분위 18.8%). 경제적 지원의 수혜율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혜율도 높으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가구소득에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인 자녀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능상태별 부양의 교환의 경향성은 분명하여,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모든 영역-정서적·도구적·수발·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수혜율이 더 높고 제공률은 적다.

한편,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정서적 도움의 경우, 차남 이하 기혼 아들과 동거하거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수혜율이 60%대 이하로 다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차남 이하 기혼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47.1%다. 즉 차남 이하의 기혼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정서적 도움의 교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다. 다음으로 도구적 도움의 수혜율을 살펴보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45.6%로 다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80%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구적 도움의 제공률은 기혼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낮은 경향이 있다. 즉 동거 자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도구적 도움의 교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서, 기혼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노인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이 낮고 자녀가 미혼이면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이 낮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표 5-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7.4	53.4	27.6	11.5	100.0 (2,924)
지역					
동부	7.1	54.3	27.7	10.9	100.0 (2,402)
읍면부	8.6	49.6	27.2	14.6	100.0 (522)
성					
남자	4.8	48.1	35.1	12.0	100.0 (1,077)
여자	8.9	56.5	23.3	11.3	100.0 (1,847)
연령					
65~69세	6.0	53.4	29.8	10.8	100.0 (969)
70~74세	7.4	50.0	30.1	12.5	100.0 (775)
75~79세	7.1	52.5	28.1	12.4	100.0 (524)
80~84세	8.0	60.6	23.3	8.1	100.0 (352)
85세 이상	11.8	55.5	18.8	14.0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7	50.0	32.5	11.9	100.0 (1,528)
배우자 없음	9.3	57.2	22.3	11.2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5	52.1	28.1	11.2	100.0 (307)
무학(글자해독)	9.1	55.4	24.4	11.1	100.0 (646)
초등학교	7.2	52.9	27.6	12.4	100.0 (885)
중학교	4.8	51.9	28.6	14.7	100.0 (383)
고등학교	7.8	52.0	30.3	9.8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5.3	58.0	28.9	7.8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5.5	48.0	35.5	11.0	100.0 (722)
미취업	8.0	55.2	25.0	11.7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	48.5	21.5	21.7	100.0 (82)
제2오분위	9.1	40.9	40.7	9.3	100.0 (150)
제3오분위	6.6	44.4	32.4	16.6	100.0 (385)
제4오분위	7.7	52.5	25.3	14.6	100.0 (865)
제5오분위	7.3	58.4	26.4	7.9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8	52.9	29.1	11.2	100.0 (2,295)
제한 있음	9.6	55.3	22.2	12.9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7.5	59.1	22.8	10.6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9.9	46.5	31.7	11.9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8.7	54.7	21.2	15.4	100.0 (367)
미혼자녀	6.8	51.3	30.9	11.1	100.0 (1,421)
2011년도	11.9	52.9	26.5	8.7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5.3	50.6	32.1	12.0	100.0 (2,924)
지역					
동부	5.2	51.4	32.1	11.3	100.0 (2,402)
읍·면부	6.0	46.7	32.1	15.2	100.0 (522)
성					
남자	4.3	47.8	36.5	11.3	100.0 (1,077)
여자	5.9	52.2	29.6	12.3	100.0 (1,847)
연령					
65~69세	6.0	56.5	27.6	10.0	100.0 (969)
70~74세	7.0	49.8	31.0	12.3	100.0 (775)
75~79세	5.4	46.3	36.1	12.2	100.0 (524)
80~84세	2.3	53.3	33.2	11.1	100.0 (352)
85세 이상	2.6	37.8	41.5	18.1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2	51.1	32.6	11.1	100.0 (1,528)
배우자 없음	5.4	50.0	31.6	13.0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6	41.7	39.0	15.6	100.0 (307)
무학(글자해독)	4.7	51.2	33.2	11.0	100.0 (646)
초등학교	5.1	49.4	32.6	12.9	100.0 (885)
중학교	3.2	56.3	26.1	14.3	100.0 (383)
고등학교	9.0	49.9	31.2	9.9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5.6	58.2	30.2	6.0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5.5	51.7	34.0	8.7	100.0 (722)
미취업	5.3	50.2	31.5	13.0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	49.9	21.7	22.7	100.0 (82)
제2오분위	7.9	44.2	39.5	8.4	100.0 (150)
제3오분위	4.2	46.3	33.2	16.3	100.0 (385)
제4오분위	5.7	50.1	30.4	13.9	100.0 (865)
제5오분위	5.1	53.0	32.5	9.3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7	53.3	30.8	10.2	100.0 (2,295)
제한 있음	3.9	40.8	37.0	18.4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3.7	49.9	32.9	13.5	100.0 (824)
기혼자남 이하(와 기타자녀)	4.8	42.3	39.4	13.6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6.1	52.3	25.8	15.8	100.0 (367)
미혼자녀	6.3	51.8	32.0	9.9	100.0 (1,421)
2011년도	9.0	50.8	31.3	9.0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7.8	45.8	26.4	10.1	100.0 (2,924)
지역					
동부	16.7	45.7	27.6	10.0	100.0 (2,402)
읍면부	23.0	46.2	20.8	10.1	100.0 (522)
성					
남자	11.8	41.8	33.6	12.8	100.0 (1,077)
여자	21.3	48.1	22.1	8.4	100.0 (1,847)
연령					
65~69세	8.3	41.3	36.5	13.9	100.0 (969)
70~74세	11.4	46.9	29.9	11.8	100.0 (775)
75~79세	14.3	53.8	23.8	8.1	100.0 (524)
80~84세	30.0	53.7	12.7	3.6	100.0 (352)
85세 이상	56.1	34.7	5.2	4.1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8	40.8	35.8	13.6	100.0 (1,528)
배우자 없음	26.6	51.3	16.0	6.2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3.7	49.1	11.9	5.3	100.0 (307)
무학(글자해독)	24.3	48.2	21.0	6.6	100.0 (646)
초등학교	17.1	44.9	27.6	10.5	100.0 (885)
중학교	8.9	48.3	30.7	12.1	100.0 (383)
고등학교	10.9	39.9	35.5	13.7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10.1	47.5	28.8	13.5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8.7	44.1	33.5	13.7	100.0 (722)
미취업	20.8	46.4	24.0	8.8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5	38.6	21.7	25.7	100.0 (82)
제2오분위	18.1	37.7	29.4	14.8	100.0 (150)
제3오분위	16.7	40.0	29.1	14.2	100.0 (385)
제4오분위	17.2	43.2	29.9	9.6	100.0 (865)
제5오분위	18.6	50.1	23.5	7.8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3	46.1	30.0	11.5	100.0 (2,295)
제한 있음	37.8	44.6	12.9	4.7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29.6	53.0	12.7	4.8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30.4	48.3	19.1	2.2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26.9	54.6	17.5	1.0	100.0 (367)
미혼자녀	6.6	39.0	37.3	17.1	100.0 (1,421)
2011년도	16.3	42.9	29.6	11.2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3.2	45.0	17.5	14.3	100.0 (2,924)
지역					
동부	24.2	44.5	17.5	13.7	100.0 (2,402)
읍·면·부	18.6	47.3	17.4	16.7	100.0 (522)
성					
남자	15.4	36.7	25.4	22.5	100.0 (1,077)
여자	27.7	49.9	13.0	9.4	100.0 (1,847)
연령					
65~69세	30.6	42.6	16.2	10.6	100.0 (969)
70~74세	26.7	44.4	14.3	14.6	100.0 (775)
75~79세	19.7	51.4	16.0	12.9	100.0 (524)
80~84세	12.2	53.1	20.8	14.0	100.0 (352)
85세 이상	9.5	34.1	28.8	27.6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9	39.7	18.2	17.2	100.0 (1,528)
배우자 없음	21.3	50.9	16.7	11.1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3	50.8	18.6	15.4	100.0 (307)
무학(글자해독)	21.6	47.9	19.5	11.1	100.0 (646)
초등학교	26.7	42.3	15.7	15.3	100.0 (885)
중학교	27.2	43.8	17.4	11.6	100.0 (383)
고등학교	24.2	40.3	17.3	18.2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15.2	53.3	18.1	13.4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24.4	44.5	18.1	12.9	100.0 (722)
미취업	22.8	45.2	17.3	14.7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5	39.2	13.6	12.7	100.0 (82)
제2오분위	24.7	46.1	15.7	13.4	100.0 (150)
제3오분위	21.2	49.2	16.4	13.3	100.0 (385)
제4오분위	25.0	44.7	16.8	13.5	100.0 (865)
제5오분위	21.8	44.5	18.6	15.1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4	46.5	16.3	10.8	100.0 (2,295)
제한 있음	11.6	39.8	21.9	26.7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14.2	47.5	21.4	16.9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17.5	47.0	22.8	12.8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18.9	51.8	15.1	14.2	100.0 (367)
미혼자녀	30.6	41.4	14.9	13.1	100.0 (1,421)
2011년도	21.0	40.7	25.1	13.3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4.6	44.8	23.2	17.3	100.0 (2,924)
지역					
동부	13.6	43.7	24.7	18.0	100.0 (2,402)
읍면부	19.1	50.1	16.3	14.5	100.0 (522)
성					
남자	6.9	38.8	30.5	23.8	100.0 (1,077)
여자	19.1	48.3	19.0	13.6	100.0 (1,847)
연령					
65~69세	5.2	39.4	31.9	23.5	100.0 (969)
70~74세	9.7	45.4	25.0	19.9	100.0 (775)
75~79세	13.5	50.3	21.3	14.9	100.0 (524)
80~84세	23.3	56.5	11.8	8.4	100.0 (352)
85세 이상	48.6	37.7	7.8	5.9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	40.4	30.4	22.5	100.0 (1,528)
배우자 없음	23.3	49.6	15.4	11.7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2.9	47.9	11.4	7.9	100.0 (307)
무학(글자해독)	21.6	47.6	16.9	13.8	100.0 (646)
초등학교	12.7	48.9	21.7	16.7	100.0 (885)
중학교	5.8	41.9	30.4	22.0	100.0 (383)
고등학교	7.7	37.1	29.3	26.0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6.5	37.9	39.9	15.7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5.8	41.9	29.8	22.5	100.0 (722)
미취업	17.5	45.8	21.1	15.7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6	45.5	10.7	28.1	100.0 (82)
제2오분위	14.3	37.5	30.5	17.8	100.0 (150)
제3오분위	18.1	42.8	21.3	17.9	100.0 (385)
제4오분위	13.9	44.2	24.7	17.2	100.0 (865)
제5오분위	14.0	46.7	22.3	17.0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7	43.9	27.5	20.0	100.0 (2,295)
제한 있음	36.2	48.2	7.7	7.9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21.0	52.5	15.6	10.9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26.1	43.0	20.5	10.5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20.2	46.2	23.4	10.2	100.0 (367)
미혼자녀	7.8	40.5	27.9	23.9	100.0 (1,421)
2011년도	14.9	47.4	24.9	12.8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4.8	17.9	31.3	46.0	100.0 (2,924)
지역					
동부	4.7	18.3	32.4	44.6	100.0 (2,402)
읍면부	4.9	16.1	26.3	52.7	100.0 (522)
성					
남자	5.1	14.6	31.1	49.3	100.0 (1,077)
여자	4.6	19.8	31.5	44.2	100.0 (1,847)
연령					
65~69세	5.0	17.9	31.2	45.9	100.0 (969)
70~74세	6.7	18.9	29.5	44.9	100.0 (775)
75~79세	3.4	21.0	30.3	45.3	100.0 (524)
80~84세	3.1	15.1	37.2	44.6	100.0 (352)
85세 이상	3.2	13.0	31.4	52.5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0	16.5	30.6	47.9	100.0 (1,528)
배우자 없음	4.5	19.3	32.1	44.0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2	20.5	29.5	46.8	100.0 (307)
무학(글자해독)	3.8	17.6	31.9	46.7	100.0 (646)
초등학교	5.6	16.3	31.4	46.7	100.0 (885)
중학교	5.1	19.0	33.0	42.8	100.0 (383)
고등학교	5.8	14.6	29.1	50.6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3.3	28.0	34.2	34.5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4.7	19.5	31.8	44.0	100.0 (722)
미취업	4.8	17.3	31.1	46.7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3	24.8	20.5	43.4	100.0 (82)
제2오분위	9.5	27.1	27.8	35.6	100.0 (150)
제3오분위	8.8	21.5	31.0	38.7	100.0 (385)
제4오분위	5.1	16.8	31.1	47.0	100.0 (865)
제5오분위	2.8	16.1	32.2	49.1	100.0 (1,4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3	19.6	31.8	43.3	100.0 (2,295)
제한 있음	2.7	11.5	29.6	56.2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2.1	15.6	32.5	49.8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1.1	13.0	35.6	50.3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3.4	20.9	30.1	45.6	100.0 (367)
미혼 자녀	7.5	19.3	30.0	43.2	100.0 (1,421)
2011년도	6.0	21.9	34.8	37.4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5-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 지원	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정기 현금 지원	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전체 ¹⁾	45.1	73.3	80.3	9.0	32.9	52.7	100.0 (2,924)
지역							
동부	48.8	73.4	79.6	9.1	33.9	52.5	100.0 (2,402)
읍면부	28.3	72.7	83.8	8.2	28.1	53.9	100.0 (522)
성							
남자	38.1	69.4	76.6	11.9	41.6	56.2	100.0 (1,077)
여자	49.3	75.6	82.5	7.3	27.8	50.7	100.0 (1,847)
연령							
65~69세	39.9	69.8	79.7	12.5	42.8	65.7	100.0 (969)
70~74세	49.6	74.2	77.7	7.7	36.4	56.7	100.0 (775)
75~79세	47.8	74.6	78.2	7.6	24.7	45.5	100.0 (524)
80~84세	46.8	75.9	83.8	6.7	24.7	40.9	100.0 (352)
85세 이상	44.1	77.0	88.7	6.2	15.5	27.8	100.0 (3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3	70.3	76.7	10.6	39.9	60.6	100.0 (1,528)
배우자 없음	51.6	76.6	84.3	7.3	25.1	44.2	100.0 (1,39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1	78.0	88.6	8.0	18.7	40.6	100.0 (307)
무학(글자해독)	48.5	77.0	81.0	6.1	30.2	45.5	100.0 (646)
초등학교	45.4	75.2	79.6	6.8	29.5	52.9	100.0 (885)
중학교	46.3	69.1	78.2	9.4	36.1	57.6	100.0 (383)
고등학교	37.7	67.1	79.6	12.6	43.2	61.4	100.0 (504)
전문대학 이상	40.2	69.3	74.4	19.7	45.8	63.1	100.0 (198)
현취업상태							
취업중	32.6	68.8	76.8	14.3	46.0	71.1	100.0 (722)
미취업	49.3	74.8	81.5	7.2	28.5	46.7	100.0 (2,2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6	48.1	51.4	8.9	35.0	49.7	100.0 (82)
제2오분위	35.8	47.4	52.7	10.4	32.6	51.7	100.0 (150)
제3오분위	37.7	57.4	67.7	13.3	32.3	49.2	100.0 (385)
제4오분위	47.5	75.2	79.9	7.0	30.6	50.0	100.0 (865)
제5오분위	48.3	80.8	88.6	9.0	34.2	55.9	100.0 (1,418)
가능상태							
제한 없음	44.3	72.1	79.2	9.8	35.3	57.5	100.0 (2,295)
제한 있음	48.3	77.6	84.6	6.0	23.9	35.5	100.0 (629)
동거 자녀의 특성 ²⁾							
기혼장남(와 기타자녀)	45.2	79.8	91.9	6.6	28.1	46.8	100.0 (824)
기혼차남 이하(와 기타자녀)	48.5	83.5	87.1	5.5	30.3	46.0	100.0 (266)
기혼 딸(과 기타자녀)	46.0	72.2	81.4	14.2	34.6	49.5	100.0 (367)
미혼 자녀	44.8	67.7	71.9	9.9	35.0	57.8	100.0 (1,421)
2011년도	40.8	74.6	76.6	4.6	27.0	45.4	100.0 (2,9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자녀가 있는 2,924명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4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표 5-14〉~〈표 5-20〉을 통하여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부양에 있어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다. 부양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4.5%의 노인들이 비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55.2%는 정서적 지원을 비동거자녀들에게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준다는 응답에 비해 10%p가량 높다. 한편,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경우, 43.6%가 받고 있으나 제공률은 12.6%에 불과하여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의 경우는 43.0%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5.8%만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혜율이 37.2%p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이 40.9%이며 제공률은 2.3%이고, 비정기적 현금지원의 경우는 수혜율이 91.6%이며 제공률은 26.9%이다. 한편, 현물지원의 경우는 수혜율이 89.0%이고 제공률은 52.5%이다. 즉 경제적 도움의 경우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높으며, 비정기적 현금지원-현물지원-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받고 있고, 현물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고(동부 64.3%, 읍면부 65.2%), 제공률은 동부 노인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동부 56.1%, 읍면부 52.7%).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조금 더 높은 반면(동부 42.6%, 읍면부 46.4%), 제공률은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동부 13.7%, 읍면부 9.0%). 수발 수혜율은 동부 노인 41.7%, 읍면부 노인 46.9%로 읍면부 노인이 5.2%p 높고, 제공률은 동부 노인 6.3%, 읍면부 노인 4.1%로 동부 노인이 2.2%p 높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동부 노인이, 비정기적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의 수혜율은 읍면부 노인이 높으며, 정기적 현금지원과 비정기적 현금지원의 제공률은 동부 노인이, 현물지원의 제공률은 읍면부 노인이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금 지원 제공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의 수혜율과 제공률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

혜울과 제공률에 있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으며(정서적 지원 수혜율: 남자 59.1%, 여자 68.5%, 제공률 남자 52.9%, 여자 57.0%),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남자노인 41.1%, 여자노인 45.4%이다. 도구적 지원의 제공률은 수혜율의 차이에 비하여 커, 남자노인이 7.9%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15.9%이다. 수발 지원에 있어서도 여자노인의 수혜율이 47.9%로 남자노인의 36.2%보다 10%p 이상 높다. 제공률의 경우 여자노인이 6.3%이고 남자노인은 5.0%로 수혜율의 차이에 비해서는 작은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여자노인 45.4%, 남자노인 34.6%로 여자노인이 10%p 이상 높다. 반면 비정기적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수혜율에 있어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현금지원에 비해서는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적 지원 제공률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지만, 비정기 현금지원의 경우 남자노인 30.9%, 여자노인 24.0%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약 7%p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제공률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65~69세 61.2%, 85세 이상 39.5%). 도구적 지원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율은 높고(65~69세 36.4%, 85세 이상 52.2%), 제공률은 낮은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65~69세 17.0%, 85세 이상 4.6%). 수발지원의 경우도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율은 높고(65~69세 33.0%, 85세 이상 55.8%) 제공률은 낮다(65~69세 7.8%, 85세 이상 3.2%). 한편, 경제적 지원에서 수혜율은 대체적으로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고 제공률은 낮은 경향성이 있다. 수혜율의 경우는 연령군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8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비정기적인 현금과 현물지원이 80~84세 연령군에 비하여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공률의 경우 수혜율에 비하여 연령군별 차이가 큰 편으로 비정기 현금지원의 경우 65~69세군은 제공률이 33.7%인데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은 12.5%로 11.2%p의 차이를,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각각 63.0%와 23.0%로 4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제공률에서는 유배우 노인은 58.4%로 무배우 노인의 49.9%보다 8.5%p 높다.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 역시 결혼상태별로 거의 동일하며 제공률 또한 유배우 노인 13.3%, 무배우 노인 11.3%

로 결혼상태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수발 지원 수혜율은 유배우 노인 40.1%, 무배우 노인 47.8%로 무배우 노인이 7.7%p가 높고, 제공률은 유배우 노인 6.4%, 무배우 노인 4.6%로 유배우 노인이 1.8%p 높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유배우 노인이 37.6%이고 무배우 노인이 46.4%로 무배우 노인의 수혜율이 8.8%p 높다. 반면 비정기적 현금지원 및 현물 지원의 경우는 유배우 노인이 약간 더 높아(비정기적 현금지원 95.3%대 88.8%, 현물 지원: 90.7% 대 86.2%) 경제적 부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공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이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모든 영역에서 무배우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정기적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에서는 약 두 배 가까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 수혜율의 경우 노인부부가구가 66.9%로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 64.2%, 자녀동거가구 61.5%, 기타가구 58.4%로 가구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제공률의 경우는 노인부부가구가 59.9%로 가장 높으나 다른 가구형태별로는 차이가 없다. 즉 노인부부가구인 경우가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 가장 활발하다.

한편,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노인독거가구 49.0%, 노인부부가구 46.5%인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34.0%, 기타가구는 41.6%로 노인단독가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공률의 경우는 가구형태별 특정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발 지원의 수혜율 또한 노인독거가구가 5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노인부부가구로 43.3%, 자녀동거가구 35.3%, 기타가구 30.5%이다. 반면 제공률은 낮은 수준으로 가구형태별 차이도 크지 않다. 즉, 도구적 도움이나 수발 도움 모두 도와줄 가구가 없는 노인독거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수혜율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자녀동거가구의 수혜율이 타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27.7%이다.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수혜율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높다. 제공률 또한 노인부부가구가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에 있어 가장 높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기타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각각 3.0%와 2.8%로 노인독거가구의 1.8%, 자녀동거가구의 1.9%보다는 높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초등학교 졸업자에게서 가장 높지만(67.9%), 학력군별 큰 차이나 패턴은 없어보인다. 제공률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

공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무학(글자모름) 43.2%, 전문대학 이상 62.5%).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며(무학(글자모름) 51.3%, 전문대학 이상 35.3%), 제공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수발지원의 수혜율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며(무학(글자모름) 55.4%, 전문대학 이상 31.4%), 제공률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무학(글자모름) 3.1%, 전문대학 이상 8.3%).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적 현금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현물지원의 수혜율이 높았으며, 제공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취업자나 미취업자나 큰 차이는 없으나, 제공률은 취업자가 더 높다(취업중 60.2%, 미취업 53.2%).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수발 지원에서는 미취업자의 수혜율이 더 높으며(취업중 38.3%, 미취업 44.9%), 제공률은 비슷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미취업자의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이 45.7%로 취업자 29.2%보다 15.5%p 높으며, 비정기적 현금지원(92.1% 대 91.4%)이나 현물지원의 수혜율(91.8% 대 87.9%)의 경우는 취업노인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현금지원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적다. 즉, 미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취업자는 현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공률은 취업자가 정기적 현금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현물지원 모두에서 미취업 노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의 경우 제1오분위가 57.7%로 가장 낮으며 제2오분위가 69.2%로 가장 높고, 그 외 분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제공률의 경우는 제1오분위가 41.9%로 가장 낮고 제3오분위가 60.2%로 가장 높다. 소득수준별로 의미있는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도구적 지원의 경우 소득분위별 수혜율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며 제공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제공률이 높은 경향성은 있지만 아주 뚜렷하지는 않다. 수발 지원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다(제1오분위 45.7%, 제5오분위 32.2%). 제공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지만(제1오분위 4.2%, 제5오분위 7.0%) 수혜율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지만(제1오분위 49.7%, 제5오분위 24.7%),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은 소득수준과 \cap 형의 관련성을 갖고 있고, 현물지원 수혜율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향이 없다. 제공의 경우는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모든 종류의 경제적 지원의 제공률이 높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제한 없음 7.3%, 제한 있음 8.5%), 제공률에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제한 없음 58.3%, 제한 있음 40.0%). 도구적 지원에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수혜율이 약간 더 높고(제한 없음 42.5%, 제한 있음 49.2%), 제공률은 낮다(제한 없음 14.3%, 제한 있음 4.1%). 수발 지원의 수혜율은 제한이 있는 경우 훨씬 높고(제한 없음 40.3%, 제한 있음 56.5%), 제공률은 더 낮다(제한 없음 6.6%, 제한 있음 1.8%). 한편,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제한이 있는 경우 더 높으나(제한 없음 39.7%, 제한 있음 46.7%), 비정기적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제공률에서는 기능제한이 없을수록 더 높다.

한편, 비동거 자녀의 특성별로 비동거 자녀수별 부양의 교환실태를 비교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높은 경향성은 있지만 제공률은 비동거 자녀수 별큰 차이는 없다.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 역시 비동거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으며(1명 28.0%, 5명 이상 58.8%), 제공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수발 지원의 수혜율에서도 비동거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고(1명 25.6%, 5명 이상 60.8%), 제공률은 큰 차이가 없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기적 현금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현물지원 모든 영역에서 더 수혜율이 높으나 제공률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비동거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수혜율은 대체적으로 높지만, 제공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7.5	57.0	22.9	12.6	100.0 (9,745)
지역					
동부	7.4	56.9	22.9	12.9	100.0 (7,412)
읍·면·부	8.0	57.2	23.2	11.6	100.0 (2,334)
성					
남자	5.7	53.4	27.0	13.9	100.0 (4,077)
여자	8.9	59.6	20.0	11.6	100.0 (5,668)
연령					
65~69세	7.4	56.8	22.7	13.1	100.0 (3,059)
70~74세	7.2	57.3	22.7	12.9	100.0 (2,675)
75~79세	7.8	56.4	23.4	12.4	100.0 (2,061)
80~84세	7.5	59.0	24.0	9.6	100.0 (1,233)
85세 이상	8.5	55.1	21.6	14.9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	58.1	23.1	11.7	100.0 (6,100)
배우자 없음	8.1	55.2	22.7	14.1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10.2	54.0	21.1	14.8	100.0 (2,255)
노인부부	7.4	59.5	22.3	10.8	100.0 (4,539)
자녀동거	5.7	55.8	25.6	13.0	100.0 (2,591)
기타	6.4	52.0	24.2	17.5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2	57.1	24.7	12.0	100.0 (912)
무학(글자해독)	6.6	57.0	23.9	12.5	100.0 (2,032)
초등학교	7.6	60.3	21.8	10.4	100.0 (3,178)
중학교	8.0	54.1	25.0	13.0	100.0 (1,283)
고등학교	8.1	53.8	22.4	15.6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9.4	54.1	20.8	15.7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6.5	59.4	24.2	9.9	100.0 (2,841)
미취업	8.0	56.0	22.4	13.7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	50.3	24.3	18.0	100.0 (1,935)
제2오분위	7.8	61.4	23.0	7.9	100.0 (1,985)
제3오분위	7.5	58.3	22.9	11.4	100.0 (1,975)
제4오분위	7.8	57.7	20.4	14.2	100.0 (1,948)
제5오분위	7.3	57.1	24.2	11.4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7.3	57.5	22.7	12.4	100.0 (8,123)
제한 있음	8.5	54.3	24.0	13.2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5.4	46.7	25.0	22.9	100.0 (1,052)
2명	6.7	52.8	25.4	15.1	100.0 (2,288)
3명	8.7	58.4	20.5	12.4	100.0 (2,653)
4명	8.2	58.4	24.4	9.0	100.0 (1,913)
5명 이상	7.4	64.5	20.6	7.5	100.0 (1,839)
2011년도	11.4	58.8	22.3	7.6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4.9	50.3	29.5	15.3	100.0 (9,745)
지역					
동부	5.1	51.0	28.5	15.4	100.0 (7,412)
읍·면부	4.4	48.3	32.5	14.8	100.0 (2,334)
성					
남자	4.2	48.7	31.0	16.1	100.0 (4,077)
여자	5.5	51.5	28.4	14.7	100.0 (5,668)
연령					
65~69세	6.1	55.1	24.8	14.0	100.0 (3,059)
70~74세	5.0	53.1	27.3	14.6	100.0 (2,675)
75~79세	4.6	47.6	32.8	15.0	100.0 (2,061)
80~84세	3.1	45.5	35.5	15.8	100.0 (1,233)
85세 이상	3.8	35.7	37.2	23.3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3	53.1	28.1	13.5	100.0 (6,100)
배우자 없음	4.3	45.6	31.7	18.2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5.0	46.3	30.3	18.5	100.0 (2,255)
노인부부	5.3	54.6	27.1	13.0	100.0 (4,539)
자녀동거	4.4	46.8	32.9	16.0	100.0 (2,591)
기타	4.6	47.4	29.6	18.5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	40.8	40.0	16.8	100.0 (912)
무학(글자해독)	3.4	46.3	34.1	16.2	100.0 (2,032)
초등학교	4.8	53.2	28.8	13.3	100.0 (3,178)
중학교	5.8	52.6	27.2	14.5	100.0 (1,283)
고등학교	6.2	51.8	24.2	17.8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8.7	53.8	22.0	15.5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4.8	55.5	28.7	11.0	100.0 (2,841)
미취업	5.0	48.2	29.8	17.0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	38.8	35.1	23.0	100.0 (1,935)
제2오분위	4.3	51.9	32.8	11.1	100.0 (1,985)
제3오분위	5.0	55.2	26.1	13.7	100.0 (1,975)
제4오분위	5.8	52.9	25.3	16.0	100.0 (1,948)
제5오분위	6.6	52.7	28.0	12.7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5.2	53.1	27.6	14.0	100.0 (8,123)
제한 있음	3.5	36.5	38.6	21.5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4.7	43.8	27.9	23.7	100.0 (1,052)
2명	5.2	48.5	29.9	16.4	100.0 (2,288)
3명	6.2	52.7	26.4	14.7	100.0 (2,653)
4명	4.6	50.3	31.6	13.4	100.0 (1,913)
5명 이상	3.3	52.9	31.9	11.8	100.0 (1,839)
2011년도	7.8	53.6	29.1	9.5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4.3	39.3	30.8	25.7	100.0 (9,745)
지역					
동부	4.1	38.5	31.6	25.8	100.0 (7,412)
읍·면·부	4.7	41.7	28.3	25.3	100.0 (2,334)
성					
남자	4.3	36.8	31.6	27.3	100.0 (4,077)
여자	4.3	41.1	30.2	24.5	100.0 (5,668)
연령					
65~69세	3.0	33.4	34.6	29.0	100.0 (3,059)
70~74세	3.6	39.6	31.5	25.3	100.0 (2,675)
75~79세	4.4	44.0	28.0	23.7	100.0 (2,061)
80~84세	6.2	43.0	29.3	21.6	100.0 (1,233)
85세 이상	8.9	43.2	22.6	25.4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	39.7	31.9	24.5	100.0 (6,100)
배우자 없음	4.9	38.6	28.9	27.6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6.0	43.0	26.3	24.8	100.0 (2,255)
노인부부	3.7	42.8	31.0	22.5	100.0 (4,539)
자녀동거	4.2	29.8	34.7	31.3	100.0 (2,591)
기타	2.0	39.6	28.0	30.4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1	44.2	27.5	21.3	100.0 (912)
무학(글자해독)	4.0	42.6	29.9	23.5	100.0 (2,032)
초등학교	4.4	40.0	32.4	23.2	100.0 (3,178)
중학교	3.0	39.8	30.9	26.4	100.0 (1,283)
고등학교	4.1	34.1	30.6	31.2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3.8	31.5	30.7	34.1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3.6	39.4	33.1	23.9	100.0 (2,841)
미취업	4.6	39.2	29.8	26.4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	39.7	26.5	28.6	100.0 (1,935)
제2오분위	4.3	47.8	31.0	16.9	100.0 (1,985)
제3오분위	3.7	40.4	30.5	25.4	100.0 (1,975)
제4오분위	3.6	38.2	32.5	25.7	100.0 (1,948)
제5오분위	4.7	30.1	33.6	31.7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	38.9	31.3	26.3	100.0 (8,123)
제한 있음	7.8	41.4	28.2	22.6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3.3	24.7	29.3	42.7	100.0 (1,052)
2명	3.3	30.1	33.8	32.9	100.0 (2,288)
3명	3.2	40.8	32.5	23.5	100.0 (2,653)
4명	4.9	44.2	30.1	20.7	100.0 (1,913)
5명 이상	7.0	51.8	26.1	15.2	100.0 (1,839)
2011년도	5.6	40.5	38.1	15.8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2	11.4	27.8	59.6	100.0 (9,745)
지역					
동부	1.3	12.4	27.7	58.6	100.0 (7,412)
읍면부	0.6	8.4	28.2	62.8	100.0 (2,334)
성					
남자	0.8	7.1	25.3	66.8	100.0 (4,077)
여자	1.5	14.5	29.6	54.5	100.0 (5,668)
연령					
65~69세	1.9	15.1	28.7	54.2	100.0 (3,059)
70~74세	1.3	12.6	29.9	56.3	100.0 (2,675)
75~79세	0.7	10.2	26.7	62.3	100.0 (2,061)
80~84세	0.3	5.6	27.0	67.1	100.0 (1,233)
85세 이상	0.3	4.4	20.7	74.5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	12.1	28.4	58.2	100.0 (6,100)
배우자 없음	1.1	10.2	26.8	61.9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0.9	10.7	26.8	61.6	100.0 (2,255)
노인부부	0.9	12.8	28.3	58.0	100.0 (4,539)
자녀동거	1.6	9.8	27.4	61.2	100.0 (2,591)
기타	3.2	10.1	31.2	55.6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8	10.6	27.8	60.7	100.0 (912)
무학(글자해독)	0.8	10.2	28.0	60.9	100.0 (2,032)
초등학교	1.1	12.2	30.2	56.5	100.0 (3,178)
중학교	1.6	13.7	27.1	57.6	100.0 (1,283)
고등학교	1.6	9.8	26.2	62.6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1.6	11.9	21.8	65.1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0.9	12.0	30.0	57.2	100.0 (2,841)
미취업	1.3	11.1	26.9	60.6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10.2	25.6	63.6	100.0 (1,935)
제2오분위	0.9	11.5	30.2	57.4	100.0 (1,985)
제3오분위	1.2	11.4	27.8	59.7	100.0 (1,975)
제4오분위	1.6	11.1	30.1	57.2	100.0 (1,948)
제5오분위	1.6	12.9	25.3	60.2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	13.0	29.3	56.5	100.0 (8,123)
제한 있음	0.7	3.4	20.6	75.4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1.3	12.7	22.2	63.9	100.0 (1,052)
2명	1.5	10.8	26.7	61.1	100.0 (2,288)
3명	1.8	12.2	28.9	57.2	100.0 (2,653)
4명	0.5	11.8	28.8	58.9	100.0 (1,913)
5명 이상	0.5	9.9	30.0	59.6	100.0 (1,839)
2011년도	1.3	10.0	38.8	49.9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6.0	37.0	29.3	27.8	100.0 (9,745)
지역					
동부	5.5	36.2	29.6	28.7	100.0 (7,412)
읍·면·부	7.6	39.3	28.2	24.8	100.0 (2,334)
성					
남자	4.8	31.4	31.4	32.4	100.0 (4,077)
여자	6.9	41.0	27.7	24.4	100.0 (5,668)
연령					
65~69세	3.3	29.7	33.0	34.0	100.0 (3,059)
70~74세	5.3	36.5	29.3	28.9	100.0 (2,675)
75~79세	7.6	40.7	28.2	23.5	100.0 (2,061)
80~84세	8.7	45.4	26.0	20.0	100.0 (1,233)
85세 이상	11.0	44.8	21.8	22.5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	35.2	31.4	28.5	100.0 (6,100)
배우자 없음	7.8	40.0	25.8	26.5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9.3	43.8	23.3	23.6	100.0 (2,255)
노인부부	4.9	38.4	30.4	26.3	100.0 (4,539)
자녀동거	5.2	30.1	31.7	33.0	100.0 (2,591)
기타	4.9	25.7	34.6	34.8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4	44.0	25.0	19.6	100.0 (912)
무학(글자해독)	6.8	41.3	27.9	24.0	100.0 (2,032)
초등학교	5.8	39.9	29.7	24.5	100.0 (3,178)
중학교	4.3	33.6	32.3	29.9	100.0 (1,283)
고등학교	4.7	28.8	30.5	36.1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4.0	27.3	28.3	40.4	100.0 (740)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4.7	33.6	33.7	28.0	100.0 (2,841)
미취업	6.5	38.4	27.5	27.7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7	38.0	27.2	27.2	100.0 (1,935)
제2오분위	7.7	46.0	27.0	19.3	100.0 (1,985)
제3오분위	5.0	39.7	28.2	27.0	100.0 (1,975)
제4오분위	4.4	33.9	31.7	30.0	100.0 (1,948)
제5오분위	5.2	27.0	32.1	35.7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4.9	35.4	30.6	29.1	100.0 (8,123)
제한 있음	11.6	44.9	22.5	21.0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3.7	21.9	27.8	46.5	100.0 (1,052)
2명	4.2	29.5	29.9	36.5	100.0 (2,288)
3명	5.2	35.8	31.7	27.3	100.0 (2,653)
4명	5.9	43.3	30.0	20.8	100.0 (1,913)
5명 이상	10.8	50.0	25.1	14.1	100.0 (1,839)
2011년도	7.4	41.8	32.1	18.7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5	5.3	25.5	68.8	100.0 (9,745)
지역					
동부	0.5	5.8	25.3	68.5	100.0 (7,412)
읍·면·부	0.4	3.7	26.1	69.9	100.0 (2,334)
성					
남자	0.5	4.5	22.5	72.6	100.0 (4,077)
여자	0.5	5.8	27.6	66.1	100.0 (5,668)
연령					
65~69세	0.5	7.3	28.1	64.1	100.0 (3,059)
70~74세	0.6	5.5	26.9	67.0	100.0 (2,675)
75~79세	0.6	4.2	23.8	71.3	100.0 (2,061)
80~84세	0.4	2.5	23.4	73.7	100.0 (1,233)
85세 이상	0.2	3.1	17.0	79.7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5	5.9	26.1	67.5	100.0 (6,100)
배우자 없음	0.5	4.1	24.3	71.1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4.0	25.3	70.3	100.0 (2,255)
노인부부	0.5	6.1	26.9	66.6	100.0 (4,539)
자녀동거	0.7	4.7	23.0	71.7	100.0 (2,591)
기타	0.0	5.8	26.9	67.3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1	3.0	27.5	69.5	100.0 (912)
무학(글자해독)	0.5	3.6	24.7	71.3	100.0 (2,032)
초등학교	0.6	5.6	26.5	67.3	100.0 (3,178)
중학교	0.6	6.0	26.7	66.8	100.0 (1,283)
고등학교	0.6	6.1	24.0	69.4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0.4	7.9	21.9	69.8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0.3	5.2	29.0	65.5	100.0 (2,841)
미취업	0.6	5.3	24.0	70.2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4	3.8	25.1	70.7	100.0 (1,935)
제2오분위	0.5	5.0	26.1	68.5	100.0 (1,985)
제3오분위	0.6	4.5	27.0	67.9	100.0 (1,975)
제4오분위	0.3	6.6	25.6	67.5	100.0 (1,948)
제5오분위	0.5	6.5	23.2	69.8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0.6	6.0	27.6	65.9	100.0 (8,123)
제한 있음	0.1	1.6	14.9	83.4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0.1	5.5	22.0	72.4	100.0 (1,052)
2명	0.8	6.7	23.4	69.1	100.0 (2,288)
3명	0.5	6.1	26.5	66.8	100.0 (2,653)
4명	0.3	4.3	26.7	68.7	100.0 (1,913)
5명 이상	0.5	3.0	27.3	69.2	100.0 (1,839)
2011년도	0.7	7.0	37.7	54.6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¹⁾	40.9	91.6	89.0	2.3	26.9	52.5	100.0 (9,745)
지역							
동부	41.6	90.7	88.2	2.7	27.6	49.1	100.0 (7,412)
읍면부	38.7	94.4	91.7	1.3	24.6	63.1	100.0 (2,334)
성							
남자	34.6	90.4	88.0	2.8	30.9	52.3	100.0 (4,077)
여자	45.4	92.4	89.8	2.0	24.0	52.6	100.0 (5,668)
연령							
65~69세	32.0	90.1	88.0	3.0	33.7	63.0	100.0 (3,059)
70~74세	40.1	91.8	88.5	2.7	28.9	56.9	100.0 (2,675)
75~79세	47.5	93.0	89.8	1.8	23.6	49.1	100.0 (2,061)
80~84세	48.6	93.8	91.9	1.5	19.5	39.6	100.0 (1,233)
85세 이상	49.3	89.6	88.5	0.8	12.5	23.0	100.0 (7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6	93.3	90.7	2.7	32.3	60.1	100.0 (6,100)
배우자 없음	46.4	88.8	86.2	1.6	17.9	39.7	100.0 (3,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55.4	87.8	87.0	1.8	18.7	42.7	100.0 (2,255)
노인부부	40.7	93.9	91.4	2.8	33.4	61.6	100.0 (4,539)
자녀동거	27.7	91.0	86.6	1.9	23.3	45.9	100.0 (2,591)
기타	46.9	90.6	89.4	3.0	22.0	46.0	100.0 (36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2	92.3	90.4	0.8	15.7	42.1	100.0 (912)
무학(글자해독)	45.1	92.8	89.3	1.1	21.0	47.8	100.0 (2,032)
초등학교	42.9	92.6	90.4	2.2	25.4	54.2	100.0 (3,178)
중학교	35.7	91.4	89.7	3.3	31.0	57.7	100.0 (1,283)
고등학교	37.0	89.5	86.0	2.3	31.9	54.3	100.0 (1,601)
전문대학 이상	31.2	87.7	86.2	6.4	45.1	57.8	100.0 (740)
현취업상태							
취업중	29.2	92.1	91.8	3.3	34.9	69.2	100.0 (2,841)
미취업	45.7	91.4	87.9	1.9	23.5	45.6	100.0 (6,9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9.7	87.0	85.3	0.5	11.4	34.9	100.0 (1,935)
제2오분위	55.6	94.3	93.6	1.7	23.4	55.5	100.0 (1,985)
제3오분위	42.6	94.0	88.7	1.4	27.0	55.6	100.0 (1,975)
제4오분위	31.4	90.8	88.0	3.5	33.4	57.4	100.0 (1,948)
제5오분위	24.7	91.6	89.8	4.6	39.4	59.0	100.0 (1,87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7	91.6	88.8	2.6	28.6	55.9	100.0 (8,123)
제한 있음	46.7	91.5	90.2	1.0	18.0	35.1	100.0 (1,622)
비동거 자녀 수							
1명	24.3	80.0	76.2	2.3	23.3	43.8	100.0 (1,052)
2명	35.0	87.9	84.4	3.4	30.5	52.2	100.0 (2,288)
3명	39.9	92.9	89.9	2.7	28.5	54.5	100.0 (2,653)
4명	47.4	95.3	93.1	1.9	26.8	55.0	100.0 (1,913)
5명 이상	52.3	97.0	96.6	0.8	22.1	52.3	100.0 (1,839)
2011년도	37.0	93.0	90.6	0.9	23.7	58.5	100.0 (10,16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을 대상으로 함.

제4절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표 5-21〉~〈표 5-27〉에 의하면, 14.0%의 노인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29.0%는 정서적 지원을 부모에게 주었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경우 5.7%가 받고 있는 반면 제공률은 27.5%로 큰 차이가 있다. 수발의 경우는 3.7%만이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33.6%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혜율보다 제공률이 월등히 높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1.1%, 제공한다는 응답은 16.7%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 5.5%, 제공률 69.8%, 현물지원은 수혜율 9.2%, 제공률 73.3%이다. 즉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제공의 비율이 수혜의 비율보다 훨씬 높지만,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현물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정기적 현금지원 순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자녀 세대 관련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자녀로부터는 지원을 받고, 부모세대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를 제특성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적은 편이다. 단, 수혜율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인데 비하여 제공률에 있어서 동부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이 3.6%p 낮은 편이라는 차이는 있다(수혜율: 동부 14.1%, 읍면부 13.2%, 제공률: 동부 28.5%, 읍면부 32.1%). 도구적 지원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수혜율: 동부 5.8%, 읍면부 5.2%, 제공률: 동부 27.0%, 읍면부 29.9%). 수발 지원의 경우도 수혜율과 제공률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매우 적다(수혜율: 동부 3.5%, 읍면부 5.1%, 제공률: 동부 33.5%, 읍면부 33.5%). 한편, 경제적 지원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이 거의 같지만, 비정기적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의 수혜율은 읍면부 노인이 더 높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현금지원은 동부 노인이, 현물지원은 읍면부 노인이 약간씩 더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즉, 지역별로 보여지는 부양의 종류별 수혜율과 제공률에 있어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에서는 여자노인이 더 높은 편이다(수혜율: 남자 12.7%, 여자 16.2%, 제공률: 남자 26.6%, 여자 33.6%). 수발 지원의 경우도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지만 제공률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큰 편이다(수혜율: 남자 3.2%, 여자 4.8%, 제공률: 남자 31.4%, 여자 37.4%).

반면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은 남자노인이 더 높고(남자 6.7%, 여자 3.8%), 제공률은 여자노인이 더 높은 특징이 있다(남자 23.5%, 여자 35.0%).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자노인이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에서 여자노인보다 약간씩 더 높지만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은 여자노인의 제공률이 약 3%p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8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지원을 주고받는 생존 부모가 있는 대상자 자체가 10명 미만으로 소수이다. 따라서 80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도구적·수발·경제적 지원의 수혜율이나 제공률 모두 낮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부모와의 교류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기적인 현금을 제외하고는 정서적·도구적·수발·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무배우자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에서는 기타가구가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구를 제외하고는 노인독거가구에서 수혜율이, 노인부부가구에서 제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수발·경제적 지원에서도 기타가구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상당히 높으며, 기타가구에서는 비슷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은 고등학교 학력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는 약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율과 제공에 있어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수발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은 교육수준과 \cap 형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수준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경제적 지원의 수혜율에서는 학력에 따른 큰 차이가 없으나 제공률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공률도 높은 경향성이 있다. 단 현물 지원은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에게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정서적·도구적·수발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이 모두 미취업자가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이 있기 하지만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미취업자의 수혜율이 다소 높으며, 제공률은 취업자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정서적·도구적·수발 지원의 교환에서는 소득군별 큰 차이나 패턴이 없다. 단,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고 제공률은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과 유사한 경향성이다.

노인의 기능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제한이 없을 경우 있을 경

우 보다 높으며(제한 없음 14.3%, 제한 있음 8.8%), 제공률에서는 제한이 없을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제한 없음 29.9%, 제한 있음 13.4%).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제공률에서 제한이 없을 때 높게 나타났다(제한 없음 28.0%, 제한 있음 16.4%). 수발 지원에서도 수혜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제공률에서는 제한이 없을 경우 약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제한 없음 34.5%, 제한 있음 16.5%). 경제적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있을 경우 수혜율은 더 높고 제공률은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단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는 제공률에 있어 더 크다.

한편, 생존 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생존부모의 건강이 모두 나쁜 경우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이 낮으며, 제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기타 도구적·수발·경제적 지원의 수혜율과 제공률 역시 생존부모 모두의 건강이 나쁜 경우 그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낮은 편이다.

〈표 5-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6	12.4	43.1	43.0	100.0 (1,010)
지역					
동부	1.8	12.3	43.1	42.8	100.0 (861)
읍면부	0.2	13.0	43.3	43.6	100.0 (149)
성					
남자	1.0	11.7	45.1	42.2	100.0 (655)
여자	2.6	13.6	39.4	44.4	100.0 (355)
연령					
65~69세	1.7	14.2	43.9	40.2	100.0 (730)
70~74세	1.5	8.3	40.8	49.4	100.0 (241)
75~79세	0.0	6.9	32.2	60.8	100.0 (40)
80~84세	0.0	0.0	100.0	0.0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36.7	63.3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	11.3	44.4	42.7	100.0 (877)
배우자 없음	1.4	19.6	34.5	44.6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2.5	36.1	51.4	100.0 (70)
노인부부	1.7	11.2	45.0	42.1	100.0 (516)
자녀동거	0.8	10.8	40.8	47.6	100.0 (272)
기타	3.1	19.4	43.9	33.7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6.1	52.7	41.3	100.0 (25)
무학(글자해독)	0.0	8.4	50.5	41.1	100.0 (72)
초등학교	1.3	11.6	43.5	43.6	100.0 (303)
중학교	3.0	13.0	40.6	43.4	100.0 (178)
고등학교	1.5	9.6	47.0	41.7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1.6	21.6	32.2	44.6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1.1	11.3	44.5	43.0	100.0 (385)
미취업	1.9	13.1	42.2	42.9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	43.4	38.5	54.9	100.0 (50)
제2오분위	2.3	14.3	44.4	39.0	100.9 (136)
제3오분위	1.9	10.0	45.0	43.1	100.0 (228)
제4오분위	1.0	13.0	47.0	39.0	100.0 (284)
제5오분위	1.2	14.1	38.4	46.3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	12.6	43.2	42.6	100.0 (959)
제한 있음	0.0	8.8	41.6	49.5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1.6	15.1	43.9	39.4	100.0 (339)
모두 나쁨	1.5	11.1	42.7	44.7	100.0 (670)
2011년도	3.2	20.1	39.2	37.6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2	25.8	38.9	32.0	100.0 (1,010)
지역					
동부	3.5	25.0	39.5	31.9	100.0 (861)
읍·면·부	1.4	30.7	35.6	32.3	100.0 (149)
성					
남자	2.2	24.4	40.9	32.5	100.0 (655)
여자	5.1	28.5	35.4	31.0	100.0 (355)
연령					
65~69세	3.8	27.6	39.8	28.8	100.0 (730)
70~74세	2.3	22.6	36.4	38.8	100.0 (241)
75~79세	0.0	17.6	30.4	52.0	100.0 (40)
80~84세	0.0	0.0	100.0	0.0	100.0 (7) ²⁾
85세 이상	0.0	36.7	0.0	63.3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8	25.4	40.2	31.6	100.0 (877)
배우자 없음	6.1	28.7	30.6	34.6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4.4	14.0	42.7	39.3	100.0 (70)
노인부부	2.6	26.2	42.8	28.5	100.0 (516)
자녀동거	2.4	19.1	36.0	42.6	100.0 (272)
기타	6.6	42.2	29.5	21.7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2.2	40.2	37.6	100.0 (25)
무학(글자해독)	3.7	19.4	40.3	36.6	100.0 (72)
초등학교	5.2	23.0	41.2	30.6	100.0 (303)
중학교	2.5	26.4	39.5	31.5	100.0 (178)
고등학교	2.3	25.0	41.4	31.3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2.3	36.3	28.0	33.4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4.1	25.2	39.2	31.5	100.0 (385)
미취업	2.7	26.2	38.7	32.3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	18.2	34.4	43.8	100.0 (50)
제2오분위	4.4	24.1	50.2	21.3	100.0 (136)
제3오분위	3.6	23.2	43.2	29.8	100.0 (228)
제4오분위	2.2	28.9	37.1	31.9	100.0 (284)
제5오분위	3.4	27.0	33.3	36.3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	26.5	38.4	31.7	100.0 (959)
제한 있음	0.0	13.4	48.7	37.9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1.5	26.7	38.7	33.1	100.0 (339)
모두 나쁨	4.1	25.4	39.1	31.4	100.0 (670)
2011년도	6.5	31.0	35.3	27.3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6	5.1	18.7	75.6	100.0 (1,010)
지역					
동부	0.6	5.2	18.6	75.6	100.0 (861)
읍면부	0.8	4.4	19.5	75.3	100.0 (149)
성					
남자	0.9	5.8	19.8	73.5	100.0 (655)
여자	0.0	3.8	16.8	79.3	100.0 (355)
연령					
65~69세	0.8	6.1	20.1	73.0	100.0 (730)
70~74세	0.0	3.0	13.6	83.5	100.0 (241)
75~79세	0.0	1.7	20.0	78.4	100.0 (40)
80~84세	0.0	0.0	55.0	45.0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100.0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3	4.8	20.3	74.6	100.0 (877)
배우자 없음	2.3	7.0	8.5	81.8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1	8.0	90.0	100.0 (70)
노인부부	0.5	2.3	18.2	79.1	100.0 (516)
자녀동거	0.0	2.0	18.7	79.3	100.0 (272)
기타	2.3	21.7	25.6	50.5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22.7	77.3	100.0 (25)
무학(글자해독)	0.0	6.8	12.6	80.7	100.0 (72)
초등학교	1.5	5.2	20.7	72.7	100.0 (303)
중학교	0.9	3.8	17.8	77.4	100.0 (178)
고등학교	0.0	5.0	17.7	77.3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0.0	6.8	20.0	73.3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1.0	6.4	20.1	72.5	100.0 (385)
미취업	0.4	4.3	17.9	77.4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2.9	7.2	89.9	100.0 (50)
제2오분위	3.5	1.1	16.3	79.2	100.0 (136)
제3오분위	0.0	4.9	16.8	78.3	100.0 (228)
제4오분위	0.5	8.2	21.6	69.8	100.0 (284)
제5오분위	0.0	4.7	20.7	74.6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0.6	5.1	18.9	75.4	100.0 (959)
제한 있음	0.0	4.9	16.1	79.0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0.4	7.2	20.3	72.1	100.0 (339)
모두 나쁨	0.7	4.0	18.0	77.3	100.0 (670)
2011년도	0.2	5.9	25.0	68.9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6.9	20.6	24.5	48.0	100.0 (1,010)
지역					
동부	7.3	19.7	25.2	47.7	100.0 (861)
읍면부	4.5	25.4	20.7	49.5	100.0 (149)
성					
남자	5.5	18.0	26.3	50.3	100.0 (655)
여자	9.6	25.4	21.3	43.7	100.0 (355)
연령					
65~69세	7.2	22.2	25.8	44.7	100.0 (730)
70~74세	7.6	16.6	20.9	55.0	100.0 (241)
75~79세	0.0	14.7	20.6	64.7	100.0 (40)
80~84세	0.0	28.0	45.5	26.5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100.0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	19.9	25.6	48.0	100.0 (877)
배우자 없음	9.3	25.2	17.5	48.0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0.7	13.5	21.7	64.1	100.0 (70)
노인부부	1.3	20.2	25.9	52.5	100.0 (516)
자녀동거	4.1	11.3	28.1	56.6	100.0 (272)
기타	34.0	41.5	15.1	9.2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6.9	15.0	58.1	100.0 (25)
무학(글자해독)	5.3	16.1	22.4	56.1	100.0 (72)
초등학교	6.0	21.3	21.3	51.4	100.0 (303)
중학교	9.8	17.8	30.6	41.8	100.0 (178)
고등학교	8.1	18.7	26.2	47.0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5.1	27.1	23.4	44.4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6.4	21.6	26.6	45.5	100.0 (385)
미취업	7.3	20.0	23.3	49.5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	21.0	9.2	65.0	100.0 (50)
제2오분위	3.7	22.3	27.0	47.0	100.0 (136)
제3오분위	5.6	22.0	23.2	49.1	100.0 (228)
제4오분위	9.4	21.0	23.0	46.7	100.0 (284)
제5오분위	7.5	18.6	28.7	45.2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	20.8	25.0	46.9	100.0 (959)
제한 있음	1.0	15.4	15.2	66.4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8.5	20.7	22.8	48.0	100.0 (339)
모두 나쁨	6.1	20.5	25.4	47.9	100.0 (670)
2011년도	8.2	23.9	23.0	45.0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5	3.2	18.0	78.3	100.0 (1,010)
지역					
동부	0.6	2.9	17.2	79.3	100.0 (861)
읍면부	0.0	5.1	22.6	72.3	100.0 (149)
성					
남자	0.0	3.2	19.6	77.2	100.0 (655)
여자	1.5	3.3	15.1	80.1	100.0 (355)
연령					
65~69세	0.4	3.5	19.2	76.8	100.0 (730)
70~74세	1.0	2.9	13.7	82.5	100.0 (241)
75~79세	0.0	0.4	16.8	82.9	100.0 (40)
80~84세	0.0	0.0	55.0	45.0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100.0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3	2.7	19.0	78.0	100.0 (877)
배우자 없음	1.8	6.9	11.4	79.9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0	8.2	89.8	100.0 (70)
노인부부	0.0	1.8	17.2	81.0	100.0 (516)
자녀동거	0.0	0.9	18.5	80.6	100.0 (272)
기타	3.4	12.6	24.7	59.3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5.6	12.5	81.9	100.0 (25)
무학(글자해독)	0.0	5.3	14.7	80.0	100.0 (72)
초등학교	0.0	5.0	19.0	76.0	100.0 (303)
중학교	0.9	2.0	16.3	80.8	100.0 (178)
고등학교	1.3	1.2	17.3	80.2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0.0	3.5	21.9	74.6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0.4	4.3	17.6	77.7	100.0 (385)
미취업	0.6	2.6	18.3	78.6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	0.6	16.4	79.8	100.0 (50)
제2오분위	0.6	8.0	13.7	77.7	100.0 (136)
제3오분위	1.2	3.2	14.6	81.0	100.0 (228)
제4오분위	0.0	3.5	19.9	76.6	100.0 (284)
제5오분위	0.0	1.3	21.3	77.4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0.5	3.1	18.1	78.2	100.0 (959)
제한 있음	0.0	3.9	16.1	79.0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0.8	3.5	22.4	73.3	100.0 (339)
모두 나쁨	0.4	3.1	15.8	80.8	100.0 (670)
2011년도	0.2	3.3	25.7	70.8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7.8	25.7	26.5	39.9	100.0 (1,010)
지역					
동부	8.2	25.3	27.1	39.4	100.0 (861)
읍면부	5.4	28.2	23.5	43.0	100.0 (149)
성					
남자	7.8	23.7	28.7	39.8	100.0 (655)
여자	7.9	29.6	22.5	40.0	100.0 (355)
연령					
65~69세	8.5	26.4	29.4	35.7	100.0 (730)
70~74세	7.0	23.1	20.2	49.6	100.0 (241)
75~79세	0.0	23.1	17.9	59.0	100.0 (40)
80~84세	0.0	71.4	14.3	14.3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100.0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	25.4	27.7	39.7	100.0 (877)
배우자 없음	11.3	27.8	19.5	41.4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20.3	23.2	55.1	100.0 (70)
노인부부	2.3	27.3	29.8	40.5	100.0 (516)
자녀동거	5.5	12.1	30.5	51.8	100.0 (272)
기타	32.9	47.4	9.9	9.9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8.0	20.0	52.0	100.0 (25)
무학(글자해독)	6.1	16.7	27.3	50.0	100.0 (72)
초등학교	8.3	25.8	23.2	42.7	100.0 (303)
중학교	9.0	27.0	31.5	32.6	100.0 (178)
고등학교	6.4	24.1	28.4	41.1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10.0	30.7	25.3	34.0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8.0	26.4	28.0	37.6	100.0 (385)
미취업	7.7	25.3	25.6	41.3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	18.4	14.3	63.3	100.0 (50)
제2오분위	7.3	27.7	27.7	37.2	100.0 (136)
제3오분위	4.8	28.2	25.6	41.4	100.0 (228)
제4오분위	8.5	24.4	27.9	39.2	100.0 (284)
제5오분위	10.1	26.0	27.9	36.0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8.1	26.3	26.9	38.7	100.0 (959)
제한 있음	0.0	16.0	20.0	64.0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8.3	28.7	25.4	37.6	100.0 (339)
모두 나쁨	7.5	24.3	27.1	41.1	100.0 (670)
2011년도	12.3	31.0	24.6	32.2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 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 지원	
전체 ¹⁾	1.1	5.5	9.2	16.7	69.8	73.3	100.0 (1,010)
지역							
동부	1.2	4.3	8.6	16.8	70.5	73.0	100.0 (861)
읍면부	1.1	12.2	12.3	16.0	66.2	75.4	100.0 (149)
성							
남자	1.4	6.6	10.6	18.4	72.8	72.3	100.0 (655)
여자	0.6	3.5	6.5	13.5	64.4	75.2	100.0 (355)
연령							
65~69세	1.5	6.5	10.2	18.6	72.4	76.9	100.0 (730)
70~74세	0.5	3.7	7.5	13.2	65.2	66.4	100.0 (241)
75~79세	0.0	0.4	2.8	6.8	56.3	56.1	100.0 (40)
80~84세	0.0	0.0	0.0	0.0	57.6	61.9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2)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	6.0	9.5	16.3	72.2	73.2	100.0 (877)
배우자 없음	0.0	2.5	6.7	19.1	61.0	74.1	100.0 (13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5	5.8	14.5	60.7	70.5	100.0 (70)
노인부부	0.6	5.8	11.0	15.0	70.3	75.9	100.0 (516)
자녀동거	0.0	4.2	4.2	14.1	66.2	63.2	100.0 (272)
기타	5.7	8.1	12.9	28.2	78.9	84.1	100.0 (15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1.9	6.5	5.2	53.9	49.7	100.0 (25)
무학(글자해독)	0.0	2.8	12.1	7.6	61.7	66.0	100.0 (72)
초등학교	0.4	6.1	6.3	13.7	65.6	73.3	100.0 (303)
중학교	1.0	8.3	6.2	13.6	67.7	82.8	100.0 (178)
고등학교	2.8	5.3	9.6	16.0	73.5	70.5	100.0 (282)
전문대학 이상	0.4	3.2	6.6	34.1	80.7	74.9	100.0 (149)
현취업상태							
취업중	0.3	5.0	6.9	17.5	73.1	75.7	100.0 (385)
미취업	1.7	5.8	10.5	16.2	67.8	71.9	100.0 (6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9.1	11.3	5.3	47.0	62.2	100.0 (50)
제2오분위	0.0	3.3	15.4	8.1	68.0	71.8	100.0 (136)
제3오분위	0.5	6.3	9.3	7.9	63.8	73.3	100.0 (228)
제4오분위	0.6	5.7	9.1	22.6	73.7	77.8	100.0 (284)
제5오분위	2.8	4.8	5.1	23.6	75.8	72.8	100.0 (3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	5.4	9.1	17.3	70.5	74.0	100.0 (959)
제한 있음	0.0	6.6	12.8	4.8	57.8	60.0	100.0 (50)
생존부모의 건강							
일부/전부 건강	1.7	4.1	10.0	20.2	76.4	73.2	100.0 (339)
모두 나쁨	0.9	6.2	8.8	14.9	66.5	73.4	100.0 (670)
2011년도	0.3	4.9	6.9	10.9	65.0	74.9	100.0 (9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6.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돌봄 손자녀수는 1.5명이며, 1명 62.6%, 2명 32.2%, 3명 이상 5.1%이다(〈표 5-28〉 참조). 인구학적 특성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자녀를 돌본 노인은 동부가 6.8%, 읍면부 5.2%이며, 남자노인의 경우 6.7% 여자노인은 6.2%, 유배우 노인 7.3%, 무배우 노인 5.0%로 지역과 성별, 결혼상태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젊은 노년층일수록 손자녀 돌봄률이 높아 65~69세 연령군은 10.2%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은 1.0%에 불과하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8%, 노인부부가구 5.9%, 자녀동거가구 10.4%이며, 기타가구는 11.7%로 가장 높은데, 기타가구의 경우 이미 손자녀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을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손자녀 돌봄률이 높아, 무학(글자 모름) 3.1%, 전문대학 이상 8.8%이다. 단, 교육수준은 연령 등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4.8%, 미취업자 7.1%로 미취업자의 손자녀 돌봄률이 약간 더 높다. 가구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제1오분위 1.8%, 제5오분위 12.1%). 가구소득 역시 연령 및 자녀동거여부와 관련이 높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손자녀 돌봄률이 7.0%로 제한이 있는 경우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손자녀 돌봄률	돌봄 손자녀 수			평균 돌봄 손자녀 수	계 (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¹⁾	6.4	62.6	32.2	5.1	1.5	100.0 (661)
지역						
동부	6.8	63.4	32.1	4.5	1.5	100.0 (535)
읍면부	5.2	59.6	32.7	7.6	1.5	100.0 (126)
성						
남자	6.7	63.2	32.9	4.0	1.4	100.0 (288)
여자	6.2	62.1	31.8	6.1	1.5	100.0 (373)
연령						
65~69세	10.2	63.8	32.6	3.6	1.4	100.0 (338)
70~74세	7.6	61.0	32.7	6.2	1.5	100.0 (213)
75~79세	3.5	63.0	27.4	9.6	1.6	100.0 (74)
80~84세	2.3	61.0	36.3	2.7	1.4	100.0 (29)
85세 이상	1.0	57.3	42.7	0.2	1.4	100.0 (8)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	64.1	32.1	3.8	1.4	100.0 (464)
배우자 없음	5.0	58.9	32.8	8.3	1.6	100.0 (197)
가구형태						
노인독거	1.8	54.8	28.6	16.7	1.9	100.0 (42)
노인부부	5.9	62.7	34.8	2.5	1.4	100.0 (271)
자녀동거	10.4	63.2	30.3	6.4	1.5	100.0 (299)
기타	11.7	64.8	34.1	1.1	1.4	100.0 (4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1	74.9	22.5	2.6	1.3	100.0 (30)
무학(글자해독)	5.0	74.8	22.7	2.5	1.3	100.0 (108)
초등학교	7.1	55.4	37.5	7.1	1.6	100.0 (235)
중학교	6.1	70.6	26.5	2.9	1.3	100.0 (83)
고등학교	7.8	62.9	32.6	4.5	1.4	100.0 (134)
전문대학 이상	8.8	53.9	40.0	6.1	1.6	100.0 (71)
현취업상태						
취업중	4.8	64.2	29.2	6.6	1.5	100.0 (143)
미취업	7.1	62.1	33.2	4.6	1.5	100.0 (51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70.9	19.8	9.3	1.7	100.0 (37)
제2오분위	4.2	80.4	16.4	3.2	1.2	100.0 (86)
제3오분위	6.4	54.3	41.9	3.8	1.5	100.0 (130)
제4오분위	7.6	56.2	40.4	3.4	1.5	100.0 (156)
제5오분위	12.1	62.9	30.1	7.0	1.5	100.0 (24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0	62.2	32.4	5.4	1.5	100.0 (598)
제한 있음	3.6	66.3	31.0	2.7	1.4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손자녀 수는 돌보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6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6장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1절 삶의 만족도

제2절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제3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제4절 연령차별 및 학대 경험

제5절 죽음관련 준비 및 태도



6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본 장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연령규범 및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노인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가는 정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전통적인 연령규범과 부양관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가를 연령차별 경험이나 학대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제1절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외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9.5%, 그저 그렇다가 26.2%, 만족하지 않는다가 44.2%이다. 경제상태의 경우 각각의 응답률이 15.2%, 30.8%, 53.9%로 건강상태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다. 사회·여가문화활동의 경우는 만족도가 34.8%로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가 39.0%, 만족하지 않는다가 26.2% 수준이다(〈표 6-1〉, 〈표 6-2〉와 〈표 6-5〉 참조). 한편, 다양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친구 및 지역사회의 경우는 만족도가 54.2%이며, 그저 그렇다가 33.9%, 만족하지 않는다가 12.0%이다. 이는 건강, 경제, 참여활동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지만, 배우자의 만족률인 68.7%과 자녀의 69.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표 6-3〉~〈표 6-6〉 참조). 영역별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9.5%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만족률이 30.2%로 읍·면부 노인의 27.5%보다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39.3%로 여자노인의 22.6%보다 훨씬 높아 성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군별로도 매우 큰데 65~69세 연령군의 경우는 만족률이 37.2%이지만 8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동 비율이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75세 이상의 연령군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0%를 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건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가구형태의 경우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동 비율이 22.4%, 노인 부부가구는 33.6%, 자녀동거가구는 29.0%, 기타가구의 경우는 30.3% 등으로 노인 부가구의 경우가 가장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취업의 경우도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낮다. 특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을 하는 경우가 2.7%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10.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득수준의 경우도 유사하여,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건강상태 만족도도 높다.

기능상태별로 비교해보면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족률이 10.3%로 매우 낮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4%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38.5%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등 객관적인 기능상태가 주관적인 건강상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1.8	27.7	26.2	35.9	8.3	100.0 (10,279)
지역						
동부	2.0	28.2	26.3	35.4	8.2	100.0 (7,870)
읍면부	1.4	26.1	26.2	37.7	8.6	100.0 (2,409)
성						
남자	3.2	36.1	26.4	28.4	5.9	100.0 (4,291)
여자	0.9	21.7	26.1	41.3	10.0	100.0 (5,989)
연령						
65~69세	2.9	34.3	28.9	28.0	5.9	100.0 (3,303)
70~74세	2.0	28.3	25.8	37.7	6.3	100.0 (2,809)
75~79세	0.9	22.3	25.1	40.7	11.0	100.0 (2,120)
80~84세	1.0	20.7	24.3	43.0	11.1	100.0 (1,284)
85세 이상	0.6	24.3	22.9	38.7	13.6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	31.9	26.8	32.3	6.9	100.0 (6,338)
배우자 없음	1.4	21.1	25.3	41.7	10.5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21.0	25.7	42.5	9.5	100.0 (2,390)
노인부부	2.0	31.6	26.1	33.4	6.9	100.0 (4,595)
자녀동거	1.9	27.1	26.6	35.1	9.3	100.0 (2,881)
기타	2.0	28.3	28.5	31.7	9.5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16.1	20.4	44.8	18.4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8	19.3	25.8	43.7	10.4	100.0 (2,136)
초등학교	1.0	24.4	27.2	40.0	7.4	100.0 (3,303)
중학교	1.6	33.5	27.3	31.8	5.7	100.0 (1,347)
고등학교	3.0	38.5	28.3	24.4	5.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6	45.4	24.4	19.0	3.6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	38.3	27.7	29.5	2.7	100.0 (2,970)
미취업	1.8	23.5	25.7	38.5	10.6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16.9	23.9	46.4	11.7	100.0 (2,075)
제2오분위	0.5	20.7	27.6	41.7	9.4	100.0 (2,051)
제3오분위	1.6	30.0	25.6	35.2	7.6	100.0 (2,041)
제4오분위	2.6	32.8	27.4	30.3	7.0	100.0 (2,047)
제5오분위	3.2	38.4	26.8	25.9	5.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	31.3	28.1	33.3	5.2	100.0 (8,544)
제한 있음	0.3	10.0	17.2	48.8	23.6	100.0 (1,735)
2011년도	3.0	31.0	21.3	36.1	8.7	100.0 (10,54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지역별 차이가 적은 편으로, 동부 노인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15.2%, 읍면부 노인이 15.5%이다. 반면 성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남자노인이 18.2%, 여자노인이 13.0%로 5%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족률이 65~69세 연령군 18.5%, 70~74세 연령군 15.2%, 75~79세 연령군 13.2%, 80~84세 연령군 12.5%, 85세 이상 연령군이 11.6%로 연령이 높은 경우 만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에 비해서는 연령군별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률이 낮은 경향성이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17.9%, 배우자가 없는 경우 11.1%로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상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0.6%, 노인부부가구가 18.8%로 큰 차이를 보인다. 노인부부가구의 만족도는 자녀동거가구 노인의 13.6%에 비해서도 5%p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경제상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하며,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만족도가 7.2%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38.4%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경제상태 불만족률이 70%에 달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제상태 불만율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가구소득수준별로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경제상태와 주관적인 만족률 간의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재 취업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취업중인 노인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17.3%로 미취업 노인의 14.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미취업 노인이 56.5%로 취업노인의 47.7%에 비하여 훨씬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높다(16.9% 대 7.2%).

〈표 6-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0.7	14.5	30.8	43.6	10.3	100.0 (10,279)
지역						
동부	0.8	14.4	29.6	44.3	11.0	100.0 (7,870)
읍·면부	0.4	15.1	34.7	41.6	8.3	100.0 (2,409)
성						
남자	1.0	17.2	31.6	41.0	9.2	100.0 (4,291)
여자	0.4	12.6	30.3	45.5	11.1	100.0 (5,989)
연령						
65~69세	0.8	17.7	31.9	41.2	8.4	100.0 (3,303)
70~74세	0.8	14.4	30.1	44.6	10.1	100.0 (2,809)
75~79세	0.5	12.7	29.8	45.4	11.6	100.0 (2,120)
80~84세	0.6	11.9	32.2	42.5	12.9	100.0 (1,284)
85세 이상	0.5	11.1	29.0	47.8	11.5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8	17.1	32.7	41.0	8.5	100.0 (6,338)
배우자 없음	0.6	10.5	27.8	48.0	13.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0.5	10.1	27.2	48.3	13.8	100.0 (2,390)
노인부부	0.8	18.0	34.0	39.6	7.7	100.0 (4,595)
자녀동거	0.6	13.0	30.0	45.4	11.0	100.0 (2,881)
기타	1.3	12.5	21.9	49.0	15.4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7.2	23.8	50.4	18.6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3	8.0	27.7	50.7	13.3	100.0 (2,136)
초등학교	0.2	11.8	32.3	46.2	9.4	100.0 (3,303)
중학교	0.5	16.4	32.6	42.5	8.0	100.0 (1,347)
고등학교	1.1	21.2	33.2	37.0	7.5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3.6	34.8	33.5	22.1	6.1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6	16.7	35.0	39.9	7.8	100.0 (2,970)
미취업	0.7	13.7	29.1	45.2	11.3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1	4.2	20.4	56.3	19.0	100.0 (2,075)
제2오분위	0.2	7.4	29.8	49.8	12.9	100.0 (2,051)
제3오분위	0.4	12.7	32.8	46.9	7.3	100.0 (2,041)
제4오분위	1.0	19.4	36.6	35.2	7.8	100.0 (2,047)
제5오분위	1.8	29.2	34.6	29.8	4.8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0.8	16.1	31.6	42.7	8.9	100.0 (8,544)
제한 있음	0.1	7.1	27.0	48.3	17.4	100.0 (1,735)
2011년도	1.0	16.9	37.2	35.8	9.1	100.0 (10,53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3.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8.7%인데 지역별 차이는 적은 반면 성별 차이는 크다. 남자노인의 만족도는 75.4%로 여자노인의 59.4%보다 16%p 더 높다. 또한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아 65~69세 연령군의 경우 72.2%에 달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비교해보면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 만족도가 70.3%로 가장 높다. 반면 배우자가 있지만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가구에서 생활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14.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아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0.8%에 달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취업노인 73.4%, 미취업노인 66.3%이다. 한편,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아 제1오분위의 경우는 55.0%인데 비하여 제5오분위의 경우는 77.1%로 20%p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소득수준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수준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별로 비교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70.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58.2%로 약 12%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9.8%로 배우자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를 인구학적 요인별로 비교해본 결과 지역별, 성별 및 연령군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 68.1%, 읍면부 노인 75.4%로 읍면부 노인에게서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72.2%로 여자노인의 68.1%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60대인 경우 만족도가 73.4%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군에서는 70%에 약간 못 미치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64.7%로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즉, 60대가 가장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75.6%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60.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만족도가 78.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동거가구로 66.5%이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59.2%에 불과하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건강, 경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무학(글자모름) 노인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7.9%인데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동 비율이 81% 수준에 달하여 약 23%p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다. 제1오분위 소득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53.0%이지만 제5오분위 소득군의 경우는 80.0%에 달하는 등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만족률이 71.0%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63.9%보다 높다. 즉,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7.7	61.0	25.7	4.8	0.8	100.0 (6,338)
지역						
동부	8.4	60.2	25.5	5.0	1.0	100.0 (4,864)
읍면부	5.3	63.6	26.6	4.3	0.2	100.0 (1,474)
성						
남자	8.7	66.7	21.4	2.8	0.5	100.0 (3,704)
여자	6.3	53.1	31.8	7.7	1.2	100.0 (2,634)
연령						
65~69세	9.2	63.0	22.9	4.2	0.8	100.0 (2,524)
70~74세	7.4	62.2	24.7	4.9	0.9	100.0 (1,862)
75~79세	7.0	57.0	29.6	5.7	0.7	100.0 (1,212)
80~84세	6.0	57.3	30.7	4.9	1.1	100.0 (530)
85세 이상	1.1	59.3	34.2	5.3	0.1	100.0 (210)
가구형태						
노인독거 ²⁾	0.0	14.8	41.7	29.1	14.5	100.0 (44)
노인부부	8.1	62.2	24.9	4.3	0.5	100.0 (4,595)
자녀동거	7.2	58.5	27.9	5.2	1.3	100.0 (1,483)
기타	3.9	62.9	24.3	7.6	1.3	100.0 (21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9	42.0	41.4	12.2	0.6	100.0 (250)
무학(글자해독)	3.7	53.5	35.6	5.8	1.4	100.0 (903)
초등학교	5.4	60.4	27.5	5.7	1.0	100.0 (2,105)
중학교	7.6	63.8	23.7	4.4	0.6	100.0 (1,108)
고등학교	10.9	66.0	19.4	3.4	0.5	100.0 (1,387)
전문대학 이상	15.0	65.8	17.4	1.3	0.5	100.0 (684)
현 취업상태						
취업중	6.9	66.5	21.7	4.3	0.7	100.0 (2,170)
미취업	8.1	58.2	27.8	5.1	0.9	100.0 (4,1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	50.8	37.8	5.7	1.5	100.0 (592)
제2오분위	5.9	58.1	28.5	6.7	0.7	100.0 (1,326)
제3오분위	6.2	62.6	25.7	5.0	0.7	100.0 (1,500)
제4오분위	8.8	61.8	24.5	4.3	0.7	100.0 (1,508)
제5오분위	11.3	65.8	19.2	2.9	0.8	100.0 (1,396)
기능상태						
제한 없음	8.0	62.1	24.7	4.6	0.7	100.0 (5,627)
제한 있음	5.5	52.7	34.0	6.6	1.2	100.0 (711)
2011년도	6.9	61.4	24.5	6.2	1.0	100.0 (7,11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가 별도의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임.

〈표 6-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7.8	62.0	22.3	6.3	1.6	100.0 (10,039)
지역						
동부	8.1	60.0	23.5	6.6	1.8	100.0 (7,671)
읍면부	6.9	68.5	18.6	5.1	0.9	100.0 (2,368)
성						
남자	7.7	64.5	19.9	6.2	1.7	100.0 (4,219)
여자	7.9	60.2	24.1	6.4	1.4	100.0 (5,820)
연령						
65~69세	9.7	63.7	19.1	6.0	1.5	100.0 (3,215)
70~74세	7.2	62.3	23.0	5.8	1.6	100.0 (2,746)
75~79세	8.2	59.2	24.1	6.9	1.8	100.0 (2,087)
80~84세	6.5	62.0	24.4	6.2	1.0	100.0 (1,251)
85세 이상	3.1	61.6	25.6	7.5	2.1	100.0 (74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8	66.8	19.1	4.5	0.9	100.0 (6,281)
배우자 없음	6.2	54.0	27.8	9.3	2.8	100.0 (3,758)
가구형태						
노인독거	6.9	52.3	27.0	10.0	3.9	100.0 (2,248)
노인부부	9.2	69.2	17.5	3.4	0.7	100.0 (4,539)
자녀동거	6.5	60.0	25.6	7.2	0.9	100.0 (2,881)
기타	7.0	49.9	28.2	11.7	3.2	100.0 (37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	53.2	30.7	9.4	2.0	100.0 (929)
무학(글자해독)	4.9	58.5	26.9	7.9	1.8	100.0 (2,079)
초등학교	6.8	64.4	21.9	6.0	1.1	100.0 (3,237)
중학교	7.2	64.4	20.7	6.5	1.3	100.0 (1,318)
고등학교	11.6	63.7	18.1	4.4	2.2	100.0 (1,688)
전문대학 이상	16.3	64.7	14.1	3.1	1.8	100.0 (787)
현 취업상태						
취업중	7.8	64.4	20.0	6.6	1.1	100.0 (2,931)
미취업	7.8	61.0	23.3	6.1	1.8	100.0 (7,1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	48.4	31.8	11.0	4.2	100.0 (1,940)
제2오분위	6.9	62.0	23.9	6.4	0.9	100.0 (1,999)
제3오분위	7.9	65.4	20.2	4.9	1.6	100.0 (2,017)
제4오분위	9.0	64.4	20.6	5.1	1.0	100.0 (2,032)
제5오분위	10.6	69.4	15.7	4.1	0.3	100.0 (2,024)
기능상태						
제한 없음	8.3	62.7	21.4	6.1	1.5	100.0 (8,367)
제한 있음	5.1	58.8	26.9	7.1	2.1	100.0 (1,672)
2011년도	6.5	67.0	20.0	5.3	1.2	100.0 (10,34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생존자녀가 있는 10,041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노인들이 실제 그들의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34.8%, 즉 약 1/3만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2%에 달하고 있다. 제특성별로는 지역별 차이는 없지만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만족률이 39.1%로 여자노인의 31.8%보다 높다. 또한 연령군별로는 60대 노인의 경우 41.5%의 만족률을 보이는 반면 80~84세 연령군에서는 30.5%,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9.4%로 나타나 후기노인에게서 매우 낮은 만족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 노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여가문화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아 39.6%로 무배우 노인의 27.1%보다 12.5%p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28.1%, 노인부부가구 41.1%, 자녀동거가구 30.6%, 기타가구 32.4%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본 결과,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의 경우 본인의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률이 19.4%에 불과한 반면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는 45.9%,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는 57.5%로 그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유사하여 제1오분위의 경우는 23.3%, 제2오분위 30.1%, 제3오분위 35.8%, 제4오분위 39.1%, 제5오분위는 46.0%로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다. 즉,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률이 높은 것이다.

6.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노인의 가족 외에도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노인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률은 54.2%로 약 절반 정도의 노인이 만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만족률이 읍면부 노인이 61.6%로 동부 노인의 51.9%보다 9.7%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 차이도 큰데, 65~69세 연령군은 만족률이 60.1%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39.1%로 연령이 낮은 노인에게서 만

족도가 높은 경향이 분명히 관찰되었다. 반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56.9%로 무배우 노인의 49.9%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만족률이 가장 높아 58.0%이며 기타가구 51.4%, 노인독거가구 52.4%로 가구형태별 차이는 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은 편이다.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높은 경향이 또 발견되어,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만족률이 44.0%이지만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66.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의 경우도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많은 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높다. 제1오분위 45.6%, 제2오분위 47.6%, 제3오분위 56.8%, 제4오분위 58.2%, 제5오분위 62.9%로 오분위별 격차가 크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별로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만족도가 56.4%, 제한이 있는 노인이 38.4%이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불만족률 또한 높아 22.0%에 달하고 있다.

〈표 6-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2.1	32.7	39.0	23.2	3.0	100.0 (10,278)
지역						
동부	2.2	32.9	38.3	23.4	3.1	100.0 (7,870)
읍·면·부	1.8	32.0	41.2	22.4	2.6	100.0 (2,408)
성						
남자	2.7	36.4	37.6	20.8	2.5	100.0 (4,291)
여자	1.7	30.1	40.0	24.9	3.4	100.0 (5,988)
연령						
65~69세	2.9	38.6	36.5	19.8	2.1	100.0 (3,303)
70~74세	2.2	32.7	41.0	22.0	2.1	100.0 (2,809)
75~79세	1.8	30.6	38.3	25.9	3.4	100.0 (2,120)
80~84세	1.3	29.2	39.5	26.6	3.4	100.0 (1,283)
85세 이상	0.9	18.5	43.4	29.0	8.2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	37.1	37.5	20.6	2.4	100.0 (6,338)
배우자 없음	1.5	25.6	41.4	27.4	4.1	100.0 (3,9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26.7	43.4	25.3	3.3	100.0 (2,389)
노인부부	2.7	38.4	37.0	19.7	2.2	100.0 (4,595)
자녀동거	1.7	28.9	38.7	26.4	4.2	100.0 (2,881)
기타	2.4	30.0	37.5	27.8	2.4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18.9	39.9	34.0	6.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9	22.5	45.9	26.7	3.9	100.0 (2,136)
초등학교	1.3	31.3	39.9	25.2	2.2	100.0 (3,303)
중학교	2.6	38.8	38.2	18.1	2.3	100.0 (1,347)
고등학교	3.4	42.5	33.6	18.0	2.5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0	50.5	28.6	12.0	1.8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	37.0	38.0	20.5	2.3	100.0 (2,970)
미취업	2.1	31.0	39.4	24.3	3.3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22.1	42.4	29.2	5.0	100.0 (2,074)
제2오분위	1.3	28.8	42.8	24.8	2.3	100.0 (2,051)
제3오분위	1.8	34.0	40.3	21.9	2.1	100.0 (2,041)
제4오분위	2.5	36.6	35.9	21.6	3.3	100.0 (2,047)
제5오분위	3.8	42.2	33.5	18.1	2.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	36.3	38.5	20.7	2.1	100.0 (8,543)
제한 있음	0.3	15.1	41.3	35.7	7.6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6-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3.7	50.5	33.9	10.1	1.9	100.0 (10,278)
지역						
동부	3.8	48.1	35.2	10.9	2.0	100.0 (7,870)
읍면부	3.2	58.4	29.6	7.4	1.4	100.0 (2,409)
성						
남자	4.0	49.9	34.2	10.2	1.8	100.0 (4,286)
여자	3.5	51.0	33.7	10.0	1.9	100.0 (5,993)
연령						
65~69세	4.9	55.2	30.4	8.2	1.4	100.0 (3,303)
70~74세	4.1	51.6	34.5	8.4	1.4	100.0 (2,808)
75~79세	2.5	49.5	34.4	11.6	2.0	100.0 (2,120)
80~84세	2.6	45.9	37.3	12.3	1.9	100.0 (1,284)
85세 이상	2.3	36.8	39.7	16.3	5.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1	52.8	32.3	9.2	1.6	100.0 (6,337)
배우자 없음	3.1	46.8	36.4	11.5	2.4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3.4	49.0	36.5	9.4	1.8	100.0 (2,390)
노인부부	4.1	53.9	31.7	8.9	1.3	100.0 (4,594)
자녀동거	3.5	46.4	34.9	12.4	2.9	100.0 (2,881)
기타	2.0	49.4	36.7	10.6	1.3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	42.6	39.2	13.2	3.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2.4	45.0	38.6	11.1	2.9	100.0 (2,136)
초등학교	2.8	50.4	35.0	10.5	1.2	100.0 (3,303)
중학교	4.9	53.8	32.2	8.2	1.0	100.0 (1,346)
고등학교	5.6	55.3	28.6	8.8	1.6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6	59.1	24.5	7.5	1.3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	58.7	30.3	6.1	1.0	100.0 (2,970)
미취업	3.6	47.2	35.3	11.7	2.2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	42.8	38.2	13.3	3.0	100.0 (2,075)
제2오분위	2.4	45.2	40.0	10.9	1.5	100.0 (2,051)
제3오분위	3.3	53.5	31.7	10.1	1.5	100.0 (2,040)
제4오분위	4.8	53.4	32.6	7.6	1.7	100.0 (2,047)
제5오분위	5.4	57.5	27.2	8.2	1.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52.2	32.7	8.7	1.2	100.0 (8,543)
제한 있음	1.3	37.1	39.6	16.9	5.1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2절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1. 연령기준

노인이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은 몇 살일까? <표 6-7>에 의하면 노인이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은 평균 71.7세로 현재의 65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은 70~74세로 46.7%이며, 65세 미만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하며 65~69세군이 18.0%였다.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31.6%이다. 이러한 응답에 있어 제특성별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 연령이 높은 경우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고,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좀 더 높은 연령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규범

한 사회는 특정 연령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연령 규범을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결혼, 노동, 학습, 외모에 대한 관심은 청장년기에 기대 되는 역할로 규정되어 왔다. 즉 노년기는 이러한 활동과 역할로부터 분리되는 시기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 노동, 학습, 외모에 대한 관심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표 6-8>~<표 6-11>에 의하면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24.2%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61.7%에 달하고 있다. 반면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69.9%, 노인의 학습 72.4%, 노인의 외모 가꿈 62.0%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학습, 외모 가꿈 등 자신을 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혼의 경우 동부 노인에게서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이(25.1% 대 21.1%) 있었고, 여자노인(14.0%)에 비해서는 남자노인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아 남자노인의 38.5%가 좋아 보인다는 응답을 하였다. 연령군 별로도 차이가 있어, 65~69세 연령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32.7%인 반면 8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14.1%에 그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좋아 보인다는 응답이 29.4%로 무배우 노인의 15.9%에 비하여 13.5%p가 높다. 가구형태별

로도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29.0% 수준을 보였고, 노인독거가구 17.5%, 자녀동거가구 22.3%, 기타가구 23.6%이다.

이러한 태도를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월등히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노인이 많아서 고등학교 이상 학력 노인의 약 1/3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반면 무학(글자모름)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11.0%에 그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노년기의 재혼에 대하여 훨씬 긍정적이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기능상태의 경우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26.1%,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14.9%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11.2%p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8〉 참조).

한편,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표 6-9〉 참조).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 남자노인에게서 좋아 보인다는 응답이 많다. 즉 동부 노인의 72.4%(읍면부 노인 61.4%), 남자노인의 75.7%(여자노인 65.8%)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연령군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서 79.3%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동 비율이 50.1%에 불과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73.0%, 무배우 노인의 64.8%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72.0%로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가 65.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은 노인에게서 노년기의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긍정적으로 보는 노인이 54.6%에 불과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는 동 비율이 75.4%에 달하고 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비교한 결과도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즉, 제1오분위의 경우는 62.7%인 반면 제5오분위는 74.2%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이 훨씬 강한 긍정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72.7% 대 56.4%).

〈표 6-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특성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평균 (세)
전체 ¹⁾	0.3	3.4	18.0	46.7	16.3	15.3	100.0 (10,275)	71.7
지역								
동부	0.2	3.2	17.5	47.4	16.5	15.2	100.0 (7,867)	71.8
읍면부	0.7	4.2	19.6	44.4	15.4	15.8	100.0 (2,408)	71.6
성								
남자	0.2	2.3	17.2	45.7	18.5	16.2	100.0 (4,284)	72.1
여자	0.4	4.3	18.5	47.4	14.7	14.7	100.0 (5,989)	71.4
연령								
65~69세	0.3	3.4	20.9	47.3	16.0	12.0	100.0 (3,303)	71.2
70~74세	0.3	3.2	17.0	50.7	15.9	13.0	100.0 (2,807)	71.5
75~79세	0.5	3.6	16.5	47.2	16.6	15.7	100.0 (2,120)	71.9
80~84세	0.3	3.8	16.8	42.5	16.7	19.9	100.0 (1,282)	72.3
85세 이상	0.3	3.4	14.6	35.0	17.1	29.8	100.0 (762)	73.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3	3.0	17.7	47.2	17.0	14.7	100.0 (6,336)	71.8
배우자 없음	0.4	4.1	18.3	45.8	15.0	16.3	100.0 (3,939)	71.7
가구형태								
노인독거	0.5	3.9	18.9	45.7	15.1	15.8	100.0 (2,389)	71.6
노인부부	0.3	3.3	17.9	47.0	16.6	14.9	100.0 (4,594)	71.8
자녀동거	0.3	3.2	17.1	47.3	16.7	15.4	100.0 (2,879)	71.8
기타	0.0	3.4	19.0	44.8	16.1	16.8	100.0 (414)	72.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6	5.2	20.2	41.5	15.8	16.7	100.0 (970)	71.7
무학(글자해독)	0.4	4.3	17.7	46.0	14.1	17.6	100.0 (2,132)	71.8
초등학교	0.4	3.8	19.0	47.7	14.5	14.5	100.0 (3,303)	71.5
중학교	0.3	3.4	17.3	47.6	16.8	14.7	100.0 (1,347)	71.7
고등학교	0.0	1.7	16.7	46.9	20.1	14.6	100.0 (1,717)	72.1
전문대학 이상	0.3	1.0	15.5	48.8	20.6	13.7	100.0 (805)	72.1
현 취업상태								
취업중	0.3	3.0	18.3	45.5	16.9	16.0	100.0 (2,970)	71.9
미취업	0.4	3.6	17.8	47.2	16.0	15.0	100.0 (7,305)	7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5.6	20.5	45.3	13.4	14.6	100.0 (2,074)	71.2
제2오분위	0.5	4.2	19.7	46.7	14.3	14.5	100.0 (2,049)	71.5
제3오분위	0.2	1.9	18.5	47.0	16.8	15.7	100.0 (2,040)	71.9
제4오분위	0.1	3.3	15.5	47.6	17.5	16.1	100.0 (2,045)	72.0
제5오분위	0.2	2.2	15.6	46.7	19.5	15.8	100.0 (2,038)	7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0.3	3.1	17.5	47.3	16.7	15.1	100.0 (8,541)	71.8
제한 있음	0.7	5.0	20.0	44.0	14.0	16.4	100.0 (1,734)	71.6
2011년도	0.0	3.4	12.9	59.1	11.3	13.3	100.0 (10,53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6-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 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체 ¹⁾	3.1	21.1	14.1	40.9	20.8	100.0 (10,278)
지역						
동부	3.3	21.8	14.3	40.3	20.2	100.0 (7,869)
읍면부	2.3	18.8	13.4	42.7	22.8	100.0 (2,409)
성						
남자	5.3	33.2	18.3	33.0	10.2	100.0 (4,291)
여자	1.5	12.5	11.1	46.5	28.4	100.0 (5,987)
연령						
65~69세	4.4	28.3	15.3	36.9	15.1	100.0 (3,301)
70~74세	2.7	20.8	15.0	40.8	20.7	100.0 (2,809)
75~79세	2.4	17.6	12.6	43.9	23.5	100.0 (2,120)
80~84세	2.0	14.5	14.4	43.7	25.5	100.0 (1,284)
85세 이상	2.2	11.9	9.6	45.6	30.7	100.0 (73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6	25.8	15.6	38.7	16.3	100.0 (6,341)
배우자 없음	2.2	13.7	11.7	44.4	28.1	100.0 (3,938)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14.9	12.4	43.6	26.6	100.0 (2,390)
노인부부	3.5	25.5	15.3	39.1	16.7	100.0 (4,593)
자녀동거	2.9	19.4	13.5	41.8	22.5	100.0 (2,881)
기타	2.9	20.7	15.1	39.7	21.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	10.0	9.5	47.6	32.0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6	15.1	12.4	43.8	27.2	100.0 (2,136)
초등학교	3.0	19.3	13.1	43.3	21.3	100.0 (3,303)
중학교	3.7	28.1	15.0	37.9	15.2	100.0 (1,347)
고등학교	4.2	29.5	16.6	35.1	14.5	100.0 (1,716)
전문대학 이상	5.9	28.7	21.7	32.4	11.3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	24.0	14.9	39.1	18.1	100.0 (2,970)
미취업	2.7	19.9	13.8	41.6	21.9	100.0 (7,3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16.9	11.9	41.7	27.2	100.0 (2,075)
제2오분위	1.8	20.0	13.0	44.6	20.6	100.0 (2,051)
제3오분위	3.4	22.8	15.7	40.1	18.1	100.0 (2,041)
제4오분위	3.2	23.7	13.6	39.2	20.3	100.0 (2,045)
제5오분위	4.7	22.4	16.5	38.8	17.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	22.8	14.6	40.0	19.4	100.0 (8,542)
제한 있음	1.8	13.1	11.8	45.5	27.8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6-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 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0.2	59.7	15.9	13.0	1.2	100.0 (10,279)
지역						
동부	11.1	61.3	15.1	11.3	1.1	100.0 (7,870)
읍면부	7.1	54.3	18.7	18.5	1.4	100.0 (2,409)
성						
남자	13.3	62.4	13.0	10.6	0.8	100.0 (4,291)
여자	8.0	57.8	18.0	14.7	1.5	100.0 (5,989)
연령						
65~69세	13.1	66.2	11.4	8.8	0.5	100.0 (3,303)
70~74세	10.3	61.2	15.1	12.6	0.8	100.0 (2,809)
75~79세	8.8	56.9	17.2	15.2	1.9	100.0 (2,120)
80~84세	6.7	54.1	20.1	17.1	2.0	100.0 (1,284)
85세 이상	7.1	43.0	28.4	19.6	2.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4	61.6	14.0	12.0	0.9	100.0 (6,338)
배우자 없음	8.2	56.6	19.0	14.6	1.6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8.5	57.0	18.8	14.4	1.3	100.0 (2,390)
노인부부	10.9	61.1	14.6	12.5	0.9	100.0 (4,595)
자녀동거	10.5	59.6	16.1	12.3	1.6	100.0 (2,881)
기타	10.3	60.4	13.1	15.2	1.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4	50.2	25.0	18.6	1.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7.7	55.5	18.5	16.7	1.7	100.0 (2,136)
초등학교	9.3	60.7	16.5	12.4	1.0	100.0 (3,303)
중학교	10.7	65.6	12.0	10.7	1.2	(1,347)
고등학교	15.6	63.3	11.0	9.4	0.7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5.1	60.3	13.0	10.7	0.9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4	62.8	12.4	9.7	0.7	100.0 (2,970)
미취업	8.5	58.4	17.4	14.3	1.4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3	55.4	20.3	15.9	1.1	100.0 (2,075)
제2오분위	8.4	59.3	18.3	12.8	1.3	100.0 (2,051)
제3오분위	9.7	64.3	13.8	11.2	1.0	100.0 (2,041)
제4오분위	12.1	59.0	14.9	13.1	1.0	100.0 (2,047)
제5오분위	13.7	60.5	12.5	11.9	1.5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4	61.3	14.2	12.1	1.1	100.0 (8,544)
제한 있음	4.5	51.9	24.6	17.3	1.8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세 번째로 살펴본 연령규범은 노년기의 학습활동이다. <표 6-10>에 의하면 노인의 72.4%가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여 연령규범관련 4개 항목 가운데 가장 긍정적 응답률이 높다. 동부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74.4%로 읍면부 노인의 65.8%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지역별 차이보다는 적지만 성별 차이도 존재하고 있어, 긍정적인 응답률이 남자노인 75.2%, 여자노인 70.4%이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경우 81.9%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동 비율이 50.4%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기 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가 무배우자에 비하여 긍정적(75.6% 대 67.3%)인데 이는 유배우자의 연령이 낮은 경향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좋아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67.7%이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노년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발견된다. 무학(글자모름) 노인의 경우 54.7%만이 좋아 보인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노인은 86.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으로, 제1오분위가 62.2%인 반면 제5오분위는 79.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강상태별 차이도 매우 큰데 기능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은 57.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기능저하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75.4%로 17.7%p의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나 학습에 비하여 긍정적인 답변은 적지만 그래도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하여 62.0%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동 비율은 동부 노인에게서 좀 더 높고(63.1% 대 58.3%), 연령군별 차이는 매우 큰 반면,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60대 노인의 경우는 70.6%가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의 44.1%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배우가 무배우보다 더 긍정적인 것과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 등은 다른 항목과 유사하다(<표 6-11> 참조).

〈표 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습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 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0.1	62.3	17.4	9.5	0.8	100.0 (10,279)
지역						
동부	11.0	63.4	16.5	8.4	0.7	100.0 (7,870)
읍면부	7.2	58.6	20.4	13.0	0.9	100.0 (2,409)
성						
남자	11.3	63.9	16.1	8.3	0.3	100.0 (4,291)
여자	9.3	61.1	18.3	10.3	1.1	100.0 (5,989)
연령						
65~69세	12.4	69.5	12.2	5.7	0.3	100.0 (3,303)
70~74세	10.1	64.6	16.1	8.8	0.4	100.0 (2,809)
75~79세	9.9	58.0	18.7	12.4	1.1	100.0 (2,120)
80~84세	6.6	56.9	21.1	14.1	1.3	100.0 (1,284)
85세 이상	7.1	43.3	34.6	12.7	2.3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1	64.5	15.4	8.6	0.5	100.0 (6,338)
배우자 없음	8.6	58.7	20.6	10.9	1.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8.3	59.4	21.2	9.8	1.2	100.0 (2,390)
노인부부	10.2	64.3	16.1	8.9	0.5	100.0 (4,595)
자녀동거	11.3	61.0	16.7	10.2	0.8	100.0 (2,881)
기타	10.6	65.5	13.4	9.6	1.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	50.0	26.4	16.7	2.3	100.0 (971)
무학(글자해독)	6.6	54.4	24.1	14.2	0.8	100.0 (2,136)
초등학교	8.0	65.6	17.8	8.1	0.6	100.0 (3,303)
중학교	11.4	66.8	13.6	7.9	0.3	100.0 (1,347)
고등학교	16.6	66.7	10.4	5.5	0.8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8.8	67.3	8.4	5.5	0.0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	64.7	15.9	9.0	0.5	100.0 (2,970)
미취업	10.2	61.3	18.0	9.7	0.9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2	55.0	24.3	12.3	1.1	100.0 (2,075)
제2오분위	7.4	61.3	20.7	9.9	0.8	100.0 (2,051)
제3오분위	9.2	67.4	15.1	8.1	0.3	100.0 (2,041)
제4오분위	11.7	63.3	14.4	9.7	0.9	100.0 (2,047)
제5오분위	15.4	64.5	12.1	7.3	0.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4	64.0	15.2	8.9	0.6	100.0 (8,544)
제한 있음	4.0	53.7	28.1	12.7	1.5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의 외모 가꿈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 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체 ¹⁾	8.2	53.8	19.2	16.1	2.7	100.0 (10,279)
지역						
동부	9.0	54.1	18.2	16.2	2.5	100.0 (7,870)
읍면부	5.7	52.6	22.8	15.9	3.0	100.0 (2,409)
성						
남자	9.3	54.2	19.4	14.6	2.6	100.0 (4,291)
여자	7.5	53.5	19.1	17.2	2.7	100.0 (5,989)
연령						
65~69세	10.4	60.2	14.1	13.2	2.1	100.0 (3,303)
70~74세	8.0	55.6	19.0	15.2	2.2	100.0 (2,809)
75~79세	7.8	50.5	21.0	17.1	3.6	100.0 (2,120)
80~84세	5.0	48.1	24.5	19.7	2.7	100.0 (1,284)
85세 이상	6.6	37.5	28.4	23.3	4.2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0	55.0	18.6	15.0	2.5	100.0 (6,338)
배우자 없음	7.1	51.8	20.3	18.0	2.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7.3	54.2	20.0	16.3	2.2	100.0 (2,390)
노인부부	8.6	55.5	18.7	14.7	2.5	100.0 (4,595)
자녀동거	8.6	50.5	19.6	18.3	3.0	100.0 (2,881)
기타	7.1	55.1	18.0	15.8	4.1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	43.3	26.2	23.7	3.4	100.0 (971)
무학(글자해독)	6.1	47.8	23.7	19.3	3.2	100.0 (2,136)
초등학교	7.7	54.6	19.4	15.9	2.5	100.0 (3,303)
중학교	9.7	57.2	17.9	12.5	2.7	100.0 (1,347)
고등학교	11.3	61.3	13.0	12.3	2.1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3.3	57.0	14.0	13.7	2.0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8.8	53.5	18.8	16.4	2.5	100.0 (2,970)
미취업	8.0	53.9	19.4	16.0	2.7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6	48.6	21.8	20.0	3.1	100.0 (2,075)
제2오분위	6.7	53.6	21.9	14.7	3.1	100.0 (2,051)
제3오분위	7.3	56.0	18.3	16.2	2.2	100.0 (2,041)
제4오분위	9.3	55.4	17.6	15.2	2.5	100.0 (2,047)
제5오분위	11.6	55.4	16.5	14.2	2.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0	55.6	17.5	15.5	2.6	100.0 (8,544)
제한 있음	4.7	44.8	27.7	20.0	2.7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3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표 6-12〉와 〈표 6-13〉은 노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던 가치관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19.1%만이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절반 정도가 장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마음이 맞는 자녀(16.8%), 형편이 되는 자녀(14.7%)의 순이다.

특성별 비교를 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별 차이는 커 여자노인이 21.4%로 남자노인의 15.8%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즉, 65~69세 연령군은 동 응답률이 13.8%인데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은 38.6%로 약 25%p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26.8%와 14.2%),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응답률이 가장 높아(39.6%) 실제 행위와 가치관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은 노인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득수준의 경우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동 비율이 높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기능상태의 경우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29.7%가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한이 없는 노인의 16.9%보다 약 13%p 높는데, 이는 이들 노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살펴보면 34.3%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1.9%는 본인 스스로, 18.6%는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 7.9%는 자녀, 6.9%는 본인과 자녀, 기타 0.5%로 다양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표 6-13〉 참조).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든 본인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3.1%,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이 52.9%로 높은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14.8%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매우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책임인식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단위: %, 명)

특성	자녀동거 희망률 ¹⁾	노후 동거 희망 자녀 ²⁾							계 (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기타	
전체	19.1	51.6	9.9	5.0	1.8	14.7	16.8	0.2	100.0 (1,961)
지역									
동부	18.5	50.1	8.7	5.8	2.0	14.3	18.9	0.3	100.0 (1,459)
읍면부	20.9	56.1	13.5	2.8	1.3	15.7	10.6	0.0	100.0 (503)
성									
남자	15.8	51.5	8.6	5.5	1.0	15.9	17.2	0.3	100.0 (679)
여자	21.4	51.7	10.6	4.7	2.2	14.0	16.5	0.2	100.0 (1,283)
연령									
65~69세	13.8	51.1	8.1	7.0	1.5	13.7	18.2	0.4	100.0 (456)
70~74세	16.5	52.4	10.2	6.3	1.6	10.6	18.5	0.5	100.0 (462)
75~79세	19.7	54.7	8.3	4.7	1.6	15.9	14.8	0.0	100.0 (418)
80~84세	25.6	46.9	10.0	3.7	2.5	17.1	19.8	0.0	100.0 (329)
85세 이상	38.6	52.0	14.5	1.8	2.1	18.1	11.6	0.0	100.0 (29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3	52.5	8.8	5.2	1.2	15.2	16.7	0.5	100.0 (903)
배우자 없음	26.9	50.9	10.9	4.8	2.3	14.2	16.9	0.0	100.0 (1,059)
가구형태									
노인독거	13.3	48.8	9.7	5.5	2.4	12.6	21.0	0.0	100.0 (318)
노인부부	9.9	54.1	8.9	2.6	1.0	16.1	16.5	0.9	100.0 (455)
자녀동거	39.7	51.2	10.5	5.9	2.0	14.8	15.6	0.0	100.0 (1,145)
기타	10.6	58.0	8.3	2.6	0.0	9.6	21.5	0.0	100.0 (4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2	51.3	12.5	2.7	1.9	13.5	18.2	0.0	100.0 (284)
무학(글자해독)	23.6	50.5	10.9	4.6	1.7	18.4	13.9	0.0	100.0 (504)
초등학교	18.3	58.1	10.0	2.2	1.3	11.2	17.2	0.0	100.0 (606)
중학교	14.5	44.6	13.3	3.6	1.3	19.3	17.0	1.0	100.0 (196)
고등학교	15.6	48.5	5.0	12.2	3.8	12.4	18.2	0.0	100.0 (268)
전문대학 이상	13.0	41.2	4.3	13.6	0.8	17.4	20.7	2.1	100.0 (1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0	49.8	11.6	4.2	1.2	14.1	18.6	0.5	100.0 (446)
미취업	20.7	52.1	9.4	5.2	2.0	14.8	16.3	0.1	100.0 (1,5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1	47.6	10.4	5.7	1.6	15.7	19.0	0.0	100.0 (293)
제2오분위	12.8	50.0	8.1	3.9	0.7	16.0	20.6	0.7	100.0 (263)
제3오분위	15.3	49.9	10.6	4.3	2.9	19.6	12.7	0.0	100.0 (312)
제4오분위	21.9	55.2	10.8	4.9	2.1	12.0	15.0	0.0	100.0 (448)
제5오분위	31.1	52.4	9.2	5.7	1.6	13.4	17.5	0.4	100.0 (6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9	54.0	8.5	5.7	1.6	13.4	16.5	0.3	100.0 (1,446)
제한 있음	29.7	44.7	13.8	3.2	2.3	18.3	17.7	0.0	100.0 (515)
2011년도	27.6	57.6	11.5	0.8	2.4	14.1	13.5	0.1	100.0 (2,90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동거희망자 1,961명을 대상으로 함.

〈표 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기타	계 (명)
전체 ¹⁾	31.9	7.9	18.6	6.9	34.3	0.5	100.0 (10,277)
지역							
동부	32.7	7.1	18.3	6.7	34.7	0.5	100.0 (7,868)
읍·면부	29.3	10.2	19.5	7.6	33.0	0.6	100.0 (2,408)
성							
남자	40.4	4.7	15.0	5.4	34.3	0.3	100.0 (4,289)
여자	25.8	10.1	21.2	8.0	34.3	0.7	100.0 (5,988)
연령							
65~69세	40.6	3.3	13.8	5.8	36.2	0.3	100.0 (3,301)
70~74세	33.5	6.0	18.8	6.2	35.0	0.5	100.0 (2,808)
75~79세	26.4	9.8	21.2	7.5	34.4	0.7	100.0 (2,120)
80~84세	22.9	11.9	23.4	8.6	32.5	0.7	100.0 (1,284)
85세 이상	18.9	22.1	23.0	9.3	25.8	0.8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3	4.9	15.3	6.2	36.0	0.4	100.0 (6,335)
배우자 없음	23.2	12.7	23.8	8.1	31.6	0.8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24.6	9.2	25.3	6.9	33.4	0.6	100.0 (2,390)
노인부부	36.9	4.3	15.6	6.3	36.5	0.5	100.0 (4,593)
자녀동거	29.9	12.5	16.9	8.5	31.6	0.6	100.0 (2,881)
기타	31.6	7.0	24.6	3.2	33.5	0.2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7	16.7	29.4	6.9	31.0	0.4	100.0 (970)
무학(글자해독)	22.5	11.1	23.8	7.5	34.2	0.9	100.0 (2,136)
초등학교	29.9	7.5	17.6	7.8	36.6	0.6	100.0 (3,303)
중학교	37.6	4.7	17.2	6.7	33.6	0.2	100.0 (1,347)
고등학교	42.1	4.3	12.8	6.3	34.0	0.5	100.0 (1,715)
전문대학 이상	52.8	2.5	10.5	3.5	30.7	0.0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6	4.5	14.3	5.8	37.5	0.3	100.0 (2,968)
미취업	29.6	9.2	20.3	7.4	33.0	0.6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8	9.1	31.2	6.2	30.1	0.6	100.0 (2,074)
제2오분위	25.6	7.8	20.2	8.3	37.5	0.6	100.0 (2,051)
제3오분위	31.7	6.3	16.7	7.9	36.9	0.6	100.0 (2,041)
제4오분위	36.9	7.1	14.5	6.1	34.8	0.5	100.0 (2,047)
제5오분위	42.6	8.8	10.1	6.0	32.2	0.3	100.0 (2,036)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6	6.9	17.5	6.1	34.5	0.4	100.0 (8,542)
제한 있음	18.4	12.5	24.1	10.7	33.2	1.0	100.0 (1,735)
2011년도	55.0	14.2	30.6	- ²⁾	- ²⁾	0.3	100.0 (10,52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2011년도에는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음.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에게서는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32.7%대 29.3%)이, 읍면부 노인에게서는 자녀라는 응답(7.1%대 10.2%)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게서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40.4%로 여자노인의 25.8%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독자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여자노인에게서 더 높다(10.1%대 4.7%). 또한 사회보장이라는 응답(21.2% 대 15.0%)과 본인과 자녀라는 응답(8.0% 대 5.4%)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높다.

연령군별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여, 65~69세 연령군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40.6%인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85세 이상 연령군의 노인은 18.9%만이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하였고 22.1%가 자녀라고 답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도 23.0%로 65~69세 연령군의 13.8%와 대조되고 있다. 반면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5.8%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37.3%대 23.2%)과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36.0%대 31.6%)이 높다.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23.8%와 15.3%)이 많다. 가구형태별로 비교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본인 스스로, 자녀동거가구는 자녀라는 응답이 다른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스스로라는 응답이 높고 무학노인에게서는 자녀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음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되어,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에게서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높고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 분명히 발견된다. 또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든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률이 제1오분위의 경우 61.2%인 반면 제5오분위에서는 42.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 대한 기대가 큼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있는 노인은 스스로라는 응답률이 낮고

(18.4%대 34.6%),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이라는 응답이 높은(24.1%대 17.5%)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라는 응답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24.1%으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17.5%에 비하여 6.6%p 높다. 본인과 자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도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10.7%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6.1%에 비하여 4.6%p 높다. 즉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있어 자녀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응답이 높다.

제4절 연령차별 및 학대 경험

노인의 7.1%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차별을 경험한 경우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37.7%이며, 다음이 판매시설 이용 시 17.7%, 의료시설 이용 시 14.4%, 식당, 기타 9.8%, 커피숍 이용 시 9.6%의 순이다(〈표 6-14〉 참조).

연령차별경험은 읍면부 노인(5.1%)보다 동부 노인의 차별경험률이 좀 더 높고(7.7%), 읍면부 노인의 경우 의료시설 이용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차별경험률이 약간 높고(7.8%와 6.1%) 남자노인의 경우는 대중교통이용 시라는 응답이, 여자노인에게서는 의료시설 이용 시라는 응답(16.9%대 9.7%)과 판매시설 이용시라는 응답(19.5%대 14.3%)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다.

차별경험률에 있어 연령군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높아,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이 노인의 기능저하에 대응하는 이해와 서비스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반면 판매시설 이용 시라는 응답은 85세 이상 노인에게서는 낮고 70대에서 높은 편인데, 이는 이들 연령군은 아직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차별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8.9%와 6.0%), 의료시설 이용 시라는 응답(18.3% 대 10.7%)과 공공기관 이용 시라는 응답(12.9% 대 8.9%)이 높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가장 높은 차별경험률을 보여 9.6%이며 의료시설 이용 시라는 응답(18.1%)과 판매시설 이용 시라는 응답(20.1%)이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수준과 비교해보면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의료시설 이용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고, 미취업 노인의 경우도 의료시설 이

용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차별 경험이 적은 경향성이 있으나 그리 뚜렷하지는 않다. 단,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의 경우 식당커피숍 이용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소득군의 노인은 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차별경험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의료시설 이용 시 차별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다. 이 또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의료시설을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시설 이용과정에서 비노인에 비하여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황의 경우는 제특성별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표 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령차별 경험 여부 및 차별 경험 상황

(단위: %, 명)

특성	차별 경험률 ¹⁾	차별 경험 상황 ¹⁾						대상자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식당, 커피숍 이용 시	판매시설 이용 시	공공기관 이용 시	의료시설 이용 시	기타	
전체	7.1	37.7	9.6	17.7	11.0	14.4	9.8	(729)
지역								
동부	7.7	38.5	9.9	17.8	10.7	13.2	10.0	(606)
읍면부	5.1	33.5	8.2	16.9	12.3	20.2	8.9	(123)
성								
남자	6.1	41.5	9.8	14.3	11.4	9.7	13.2	(261)
여자	7.8	35.5	9.4	19.5	10.7	16.9	7.9	(468)
연령								
65~69세	6.0	35.1	12.5	18.5	15.8	6.5	11.6	(198)
70~74세	8.0	40.3	5.9	21.8	8.6	11.8	11.6	(225)
75~79세	6.9	33.7	10.8	13.9	11.2	23.1	7.4	(146)
80~84세	7.8	36.1	10.2	17.7	6.0	20.3	9.7	(100)
85세 이상	7.8	48.7	9.4	8.4	11.5	18.6	3.6	(6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0	38.7	9.7	18.9	12.9	10.7	9.2	(379)
배우자 없음	8.9	36.6	9.5	16.3	8.9	18.3	10.5	(350)
가구형태								
노인독거	9.6	35.4	6.8	20.1	8.3	18.1	11.5	(229)
노인부부	5.4	34.4	10.8	21.7	12.2	12.1	8.8	(250)
자녀동거	7.5	41.3	11.1	12.1	11.7	13.6	10.3	(217)
기타	8.1	54.0	9.7	7.2	14.7	11.0	3.4	(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0	36.0	7.8	13.8	11.8	25.6	5.1	(68)
무학(글자해독)	7.8	33.8	7.5	17.2	9.7	19.5	12.4	(169)
초등학교	6.7	41.4	7.9	20.2	8.9	13.2	8.5	(222)
중학교	6.8	29.5	10.9	16.5	17.9	15.6	9.7	(92)
고등학교	7.6	46.1	8.2	14.5	13.1	5.2	12.9	(131)
전문대학 이상	6.1	29.3	27.8	24.0	4.8	8.6	5.5	(49)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	33.3	11.2	18.4	11.8	7.2	18.2	(188)
미취업	7.4	39.2	9.0	17.4	10.6	16.8	6.9	(5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9	35.9	7.1	15.8	9.3	23.6	8.3	(184)
제2오분위	7.2	37.0	4.9	24.9	8.6	12.4	12.1	(147)
제3오분위	6.4	43.5	9.8	15.6	14.5	6.2	10.4	(131)
제4오분위	7.1	39.5	14.7	16.8	10.0	12.0	7.1	(146)
제5오분위	5.8	33.1	12.8	15.1	13.7	14.5	10.9	(119)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	38.8	10.7	16.5	10.9	12.9	10.3	(612)
제한 있음	6.7	32.0	3.6	23.7	11.4	21.8	7.6	(11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차별경험이 있는 729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학대경험을 살펴본 <표 6-15>에 의하면 9.9%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했고 학대의 종류 중 가장 경험률이 높은 것이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된 정서적 학대로 7.3%이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임이 2.8%,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이 1.5%로 방임 경험률이 4.3%에 달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제적 학대는 0.3%이며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을 당한 신체적 학대는 0.2%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대 경험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동부 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높고(10.8%와 6.9%),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10.6%가 노인학대를 경험하고 있어 남자노인의 8.9%보다 약간 높다. 연령군별로는 학대 경험률에 있어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방임 경험률이 높은 현상이 있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이 4.5%이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이 2.8%로 총 7.3%가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 비교를 해보면 무배우 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월등히 높아 13.8%인데 이는 유배우 노인의 7.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험을 한 노인이 많다. 가구형태별로도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학대 경험률이 15.3%에 달하고 있으며 학대의 내용도 무배우 노인과 유사하다.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학대 경험률이 6.9%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노인에게서 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아 무학(글자모름)노인이 11.6%, 무학(글자해독)노인 12.4%이다.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방임 경험률이 다른 교육수준의 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학대경험률이 약간 높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험을 한 노인이 많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높아 제1오분위가 15.7%, 제2오분위가 10.4%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 소득군에서 노인학대율이 높은 것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는 방임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학대경험

(단위: %, 명)

특성	학대 경험률 ²⁾	학대 유형별 경험률 ¹⁾					노인보호 전문기관 인지율 ³⁾	대상자수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9.9	0.2	7.3	0.3	1.5	2.8	12.6	(10,279)
지역								
동부	10.8	0.1	7.9	0.4	1.7	3.1	13.4	(7,870)
읍면부	6.9	0.2	5.4	0.1	0.9	1.7	10.2	(2,409)
성								
남자	8.9	0.1	6.7	0.3	1.1	2.3	16.7	(4,291)
여자	10.6	0.2	7.7	0.4	1.8	3.1	9.7	(5,989)
연령								
65~69세	8.9	0.1	7.4	0.3	0.7	1.5	17.3	(3,303)
70~74세	10.8	0.2	8.3	0.4	1.4	2.8	12.8	(2,809)
75~79세	10.6	0.2	7.3	0.4	2.1	3.3	10.3	(2,120)
80~84세	10.1	0.0	6.5	0.2	2.1	3.9	7.6	(1,284)
85세 이상	8.8	0.4	4.4	0.0	2.8	4.5	6.6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5	0.1	6.1	0.2	0.7	1.4	14.8	(6,338)
배우자 없음	13.8	0.2	9.2	0.6	2.9	5.0	9.1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5.3	0.2	9.9	0.7	3.6	6.1	10.0	(2,390)
노인부부	6.9	0.1	5.2	0.2	0.7	1.7	14.5	(4,595)
자녀동거	9.8	0.1	8.3	0.2	1.0	1.4	12.1	(2,881)
기타	13.2	0.9	8.0	0.7	2.5	4.9	11.7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6	0.3	8.0	0.4	2.0	5.1	3.1	(971)
무학(글자해독)	12.4	0.2	8.4	0.4	2.3	4.0	5.8	(2,136)
초등학교	9.4	0.2	6.9	0.2	1.6	2.5	9.7	(3,303)
중학교	9.2	0.1	6.8	0.6	0.8	2.1	17.8	(1,347)
고등학교	9.1	0.1	7.3	0.2	1.1	2.0	21.8	(1,717)
전문대학 이상	6.3	0.0	5.7	0.2	0.5	0.5	25.9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8.5	0.2	7.0	0.4	1.1	1.9	13.8	(2,970)
미취업	10.5	0.1	7.4	0.3	1.7	3.1	12.1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7	0.2	9.3	0.6	3.7	7.5	8.2	(2,075)
제2오분위	10.4	0.3	7.4	0.3	1.6	3.0	9.5	(2,051)
제3오분위	8.7	0.1	6.9	0.3	1.3	1.7	12.9	(2,041)
제4오분위	7.2	0.2	6.1	0.3	0.4	0.9	15.4	(2,047)
제5오분위	7.5	0.1	6.9	0.1	0.6	0.8	17.1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3	0.2	6.9	0.3	1.3	2.4	14.1	(8,544)
제한 있음	12.9	0.1	9.1	0.4	2.6	4.5	5.4	(1,735)
2011년도	12.7	0.5	9.4	1.5	1.4	2.5	-	(10,54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임.
 2)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제시된 학대 항목 중 한 개라도 경험한 노인의 비율임.
 3)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 학대 경험률이 12.9%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9.3%보다 높아 기능저하와 함께 학대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많아 수발과정에서 정서적인 침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대와 관련한 상담과 대응을 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노인은 12.6%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율은 동부 노인에게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노인과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4명 중 1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제한이 있는 노인의 약 3배에 달하는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제5절 죽음관련 준비 및 태도

1. 상속

노인이 피할 수 없는 과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이슈는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노인의 절반인 52.3%가 자녀에게 균등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15.2%는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이 좋다, 11.4%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하다(〈표 6-16〉 참조). 즉 아직 전통적인 자녀상속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균등 분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또한 아직 사회 환원은 확산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지역별 차이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동부 노인의 경우 16.5%로 읍면부 노인의 10.8%에 비하여 높아 자신(배우자)을 중심으로 놓은 가치관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균등분배보다는 장남이나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응답이 여자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높다(17.8% 대 13.3%). 또한 연령군별로는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5~69세 연령군에서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언급한 비율이 높아 13.1%에 달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 균등분배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며, 가구형태별로도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균등분배 선호도가 높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 노인의 비중이 높다.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구소득별로는 몇 가지 특징들이 도출되는데, 가구소득이 적은 노인의 경우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한 선호가 강하며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응답이 적은 편이다.

또한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자녀균등분배를 언급한 비율이 조금 높고(53.0%와 49.2%),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

2. 죽음준비 및 장례

죽음을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두었는가를 살펴보면 묘지를 준비했다는 노인이 29.1%, 수의가 11.2%이며 상조회 가입률이 6.7%이다. 이에 비하여 유서작성이나 죽음준비 교육수강 등과 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표 6-17〉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에게서 수의 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5.5%이며, 묘지는 37.1%로 동부 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경우 수의 준비율이 남자노인의 7.5%의 약 두 배 규모인 13.9%이지만 묘지 준비율에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은 경우 수의 준비율이 월등히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32.7%가 수의를 준비해두고 있다. 또한 묘지 준비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41.2%가 묘지를 준비해두고 있다. 반면 65~69세 연령군은 준비율이 23.0%에 불과하다. 상조회 가입이나 유서작성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

다. 그러나 죽음준비 교육을 수강한다는 적극적인 준비율은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60대 노인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의 경우 수의 준비율이 월등히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수의 준비율이 가장 높아 14.8%인 반면 기타가구의 경우는 특히 수의 준비율이 낮아 4.9%에 불과하다. 그 외의 가구형태별 차이는 미미하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의 준비율이 낮지만 묘지 준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상태별로는 다른 항목에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미취업노인의 수의 준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수의는 준비하지만 묘지준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조회 가입을 또한 높다. 한편, 기능상태별로 차이가 커,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하여 수의 및 묘지 준비율이 높다. 이는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죽음이 더 근접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표 6-18〉에 의하면 본인의 장례방법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노인은 22.9%이며, 산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아 34.4%이다. 화장은 19.7%, 자연장 9.6%,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11.3%이다. 아직 시신기증을 생각해본 노인은 소수로 2.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에게서 산골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여 36.1%인데 이는 읍면부 노인의 28.7%보다 7.4%p 높다. 반면 매장에 대한 선호는 읍면부 노인에게서 높아 32.7%인데, 이는 동부 노인의 19.8%에 비하여 12.9%p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녀 공통적으로 산골이 가장 선호되기는 하지만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하여 화장과 자연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산골 선호도가 높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자연장에 대한 선호는 65~69세 연령군에서 뚜렷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의 경우 산골이나 매장에 대한 선호가 있고, 가구형태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다. 취업상태의 경우도 동일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화장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산골에 대한 선호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화장을 선호하며 산골에 대한 선호가 적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자연장과 산골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자연장: 10.2% 대 6.4%, 산골: 35.1% 대 30.6%).

〈표 6-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특성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 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사회환원/ 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 (배우자) 을 위해	기타	계 (명)
전체 ¹⁾	52.3	11.4	6.3	3.3	7.0	4.2	15.2	0.4	100.0 (10,263)
지역									
동부	52.4	10.2	5.9	3.2	7.0	4.5	16.5	0.3	100.0 (7,859)
읍면부	52.2	15.1	7.7	3.4	7.1	3.1	10.8	0.6	100.0 (2,404)
성									
남자	54.1	10.1	4.8	2.6	5.7	4.5	17.8	0.4	100.0 (4,284)
여자	51.0	12.3	7.4	3.8	8.0	3.9	13.3	0.4	100.0 (5,980)
연령									
65~69세	52.7	9.5	4.5	3.0	6.0	5.0	19.1	0.3	100.0 (3,300)
70~74세	52.7	11.4	5.8	3.3	7.4	4.2	14.7	0.4	100.0 (2,808)
75~79세	53.6	13.1	6.5	2.7	7.3	3.7	12.6	0.5	100.0 (2,112)
80~84세	51.1	12.6	7.6	3.4	7.5	3.5	14.0	0.4	100.0 (1,280)
85세 이상	47.6	12.7	13.1	5.9	8.4	3.0	9.3	0.2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5.0	11.6	4.8	2.4	6.6	3.5	15.8	0.3	100.0 (6,330)
배우자 없음	48.1	11.0	8.7	4.7	7.7	5.3	14.1	0.4	100.0 (3,934)
가구형태									
노인독거	46.6	10.2	8.7	3.9	7.9	5.3	16.8	0.6	100.0 (2,384)
노인부부	55.9	11.6	4.9	2.4	6.4	2.8	15.8	0.2	100.0 (4,588)
자녀동거	51.8	12.0	7.3	4.1	7.3	5.2	12.0	0.3	100.0 (2,879)
기타	49.2	11.2	0.9	4.1	7.4	5.3	20.8	1.1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2	15.5	9.4	3.7	9.1	2.3	12.1	0.8	100.0 (970)
무학(글자해독)	50.1	12.0	8.2	3.8	7.9	3.3	14.5	0.3	100.0 (2,129)
초등학교	52.1	13.6	6.8	3.2	7.3	3.6	13.2	0.3	100.0 (3,303)
중학교	52.5	9.3	5.2	3.5	6.5	3.8	19.1	0.2	100.0 (1,345)
고등학교	58.1	7.7	3.9	2.9	5.1	5.6	16.4	0.3	100.0 (1,716)
전문대학 이상	52.6	7.1	2.6	2.3	6.0	8.9	19.9	0.7	100.0 (8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6	12.8	5.5	2.1	7.2	3.5	14.8	0.7	100.0 (2,970)
미취업	51.8	10.8	6.6	3.8	7.0	4.5	15.3	0.3	100.0 (7,29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4	8.7	8.5	2.9	7.2	5.0	19.8	0.6	100.0 (2,070)
제2오분위	52.1	13.0	6.8	3.9	8.9	2.8	12.2	0.3	100.0 (2,049)
제3오분위	54.9	10.8	4.5	2.7	7.3	3.5	16.0	0.2	100.0 (2,039)
제4오분위	54.4	12.9	6.6	2.9	5.4	3.9	13.7	0.4	100.0 (2,043)
제5오분위	53.2	11.1	5.2	4.1	6.4	5.7	14.0	0.3	100.0 (2,0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3.0	10.8	5.8	3.0	6.8	4.6	15.8	0.4	100.0 (8,529)
제한 있음	49.2	14.3	8.7	4.8	8.4	2.3	11.9	0.4	100.0 (1,734)
2011년도	50.8	16.0	7.3	1.2	3.8	9.1	2.6	9.0	100.0 (10,53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죽음 준비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익 ²⁾	묘지 ²⁾	상조회 가입 ²⁾	유서 작성 ²⁾	죽음준비 교육 수강 ²⁾	(명)
전체 ¹⁾	11.2	29.1	6.7	0.5	0.6	(10,279)
지역						
동부	9.9	26.6	7.1	0.5	0.7	(7,870)
읍면부	15.5	37.1	5.5	0.4	0.3	(2,409)
성						
남자	7.5	28.4	6.8	0.8	0.4	(4,291)
여자	13.9	29.6	6.7	0.3	0.8	(5,989)
연령						
65~69세	2.7	23.0	8.3	0.5	0.9	(3,303)
70~74세	6.5	25.9	6.1	0.5	0.5	(2,809)
75~79세	14.7	32.4	5.9	0.3	0.5	(2,120)
80~84세	25.1	39.1	5.5	1.2	0.5	(1,284)
85세 이상	32.7	41.2	6.3	0.1	0.2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7	28.3	7.4	0.6	0.6	(6,338)
배우자 없음	15.3	30.3	5.7	0.4	0.6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4.8	29.9	4.3	0.6	0.6	(2,390)
노인부부	10.1	29.3	7.6	0.6	0.4	(4,595)
자녀동거	11.1	28.7	7.3	0.3	0.8	(2,881)
기타	4.9	25.6	6.2	0.5	2.1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3	27.2	4.1	0.1	0.3	(971)
무학(글자해독)	16.3	30.4	4.7	0.0	0.4	(2,136)
초등학교	10.3	26.8	5.8	0.3	0.6	(3,303)
중학교	7.0	29.1	7.7	0.5	0.7	(1,347)
고등학교	7.4	30.0	9.5	0.9	0.7	(1,717)
전문대학 이상	7.5	35.5	11.3	2.3	1.2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8.1	28.7	7.1	0.4	0.6	(2,970)
미취업	12.5	29.2	6.6	0.6	0.6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4	24.9	3.7	0.3	0.3	(2,075)
제2오분위	12.5	25.9	5.5	0.3	0.6	(2,051)
제3오분위	9.3	29.0	5.9	0.5	0.6	(2,041)
제4오분위	10.5	31.7	7.3	0.7	0.7	(2,047)
제5오분위	9.5	34.0	11.1	0.6	0.7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28.2	6.8	0.6	0.7	(8,544)
제한 있음	19.6	33.3	6.2	0.2	0.4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각 항목별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표 6-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특성	화장 ²⁾	자연장	산골	매장	시신기증	기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	(명)
전체 ¹⁾	19.7	9.6	34.4	22.9	2.2	0.0	11.3	100.0	(10,279)
지역									
동부	20.4	9.7	36.1	19.8	2.4	0.0	11.6	100.0	(7,870)
읍·면·부	17.4	9.1	28.7	32.7	1.6	0.0	10.5	100.0	(2,409)
성									
남자	21.8	11.0	30.7	22.4	2.5	0.0	11.5	100.0	(4,291)
여자	18.1	8.6	37.0	23.2	2.0	0.0	11.1	100.0	(5,989)
연령									
65~69세	19.4	13.3	35.8	14.6	3.5	0.0	13.3	100.0	(3,303)
70~74세	18.5	8.5	38.6	21.1	1.8	0.0	11.6	100.0	(2,809)
75~79세	20.4	8.2	32.5	27.3	1.5	0.0	10.0	100.0	(2,120)
80~84세	22.1	7.9	30.0	30.1	1.4	0.0	8.4	100.0	(1,284)
85세 이상	19.2	4.3	24.8	40.1	1.6	0.0	10.1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0	11.1	32.1	21.7	2.3	0.0	11.8	100.0	(6,338)
배우자 없음	17.5	7.1	38.0	24.8	2.1	0.0	10.6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8.6	7.2	38.9	23.4	1.8	0.0	10.1	100.0	(2,390)
노인부부	21.4	10.8	31.7	22.9	2.1	0.0	11.1	100.0	(4,595)
자녀동거	17.9	9.6	34.4	23.5	2.6	0.0	12.0	100.0	(2,881)
기타	19.4	9.8	36.9	15.0	3.4	0.0	15.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0	4.8	39.0	29.1	0.6	0.0	11.5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5.5	6.1	37.3	28.0	1.1	0.0	12.0	100.0	(2,136)
초등학교	19.6	9.2	37.1	21.7	1.5	0.0	10.9	100.0	(3,303)
중학교	19.6	12.1	34.1	18.3	3.2	0.0	12.8	100.0	(1,347)
고등학교	23.4	13.0	29.1	19.2	4.4	0.0	11.0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8.9	15.0	21.1	21.8	3.8	0.0	9.3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8	9.9	32.9	24.4	2.3	0.0	12.7	100.0	(2,970)
미취업	20.4	9.5	35.0	22.2	2.2	0.0	10.7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4	5.4	41.0	24.1	1.7	0.0	11.5	100.0	(2,075)
제2오분위	19.0	8.7	36.9	22.5	1.7	0.0	11.2	100.0	(2,051)
제3오분위	18.1	10.1	34.8	22.5	3.0	0.0	11.4	100.0	(2,041)
제4오분위	22.5	11.4	31.4	21.8	1.9	0.0	11.0	100.0	(2,047)
제5오분위	22.7	12.5	26.9	23.5	3.1	0.0	11.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6	10.2	35.1	21.2	2.5	0.0	11.4	100.0	(8,544)
제한 있음	20.3	6.4	30.6	31.1	0.7	0.0	10.8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 조사에서는 화장(60.2%), 매장(25.6%),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13.1%), 시신기증(1.0%)으로 조사하여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3. 연명치료와 자살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렵는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하여 3.9%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88.9%가 반대하고 있다(〈표 6-19〉참조). 이러한 연명치료에 대한 반대는 제특성별로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의 경우 노인의 10.9%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⁵⁾.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아 40.4%이며 다음이 건강문제로 24.4%이다. 자살 생각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무배우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미취업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기능상태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높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동부 노인에게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높고(42.0%대 33.6%), 읍면부 노인에게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동부노인에 비하여 높다(32.5%대 22.4%). 읍면부 노인에게서는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도 높다. 연령군별로는 80세 이전 연령군이 80세 이후의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배우자의 경우는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배우자·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고,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외로움과 배우자,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높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는 건강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취업중인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취업노인은 건강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은 제5오분위 노인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응답과 배우자·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이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기능상태의 경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건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배우자·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응답이 높은 특징이 나타났다.

5) 자살을 시도해본 노인 중 51.4%는 1회, 24.4%는 2회이며, 나머지는 2회 이상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명)
전체 ¹⁾	0.5	3.4	7.3	36.7	52.2	100.0 (10,271)
지역						
동부	0.5	3.2	6.8	37.2	52.2	100.0 (7,862)
읍면부	0.3	4.0	8.8	35.0	51.9	100.0 (2,409)
성						
남자	0.7	3.6	7.8	36.6	51.4	100.0 (4,288)
여자	0.3	3.2	7.0	36.8	52.7	100.0 (5,982)
연령						
65~69세	0.5	3.0	6.8	35.7	54.1	100.0 (3,301)
70~74세	0.2	3.9	6.4	36.7	52.7	100.0 (2,808)
75~79세	0.6	2.7	7.1	37.6	51.9	100.0 (2,118)
80~84세	0.8	4.0	8.7	37.4	49.2	100.0 (1,284)
85세 이상	0.3	4.1	11.0	37.3	47.3	100.0 (7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5	3.4	7.4	36.2	52.5	100.0 (6,334)
배우자 없음	0.3	3.4	7.1	37.5	51.7	100.0 (3,937)
가구형태						
노인독거	0.3	3.1	7.0	37.6	52.0	100.0 (2,387)
노인부부	0.6	3.4	7.5	36.2	52.3	100.0 (4,591)
자녀동거	0.4	3.6	7.5	37.3	51.2	100.0 (2,879)
기타	0.0	3.5	5.8	32.7	58.1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4	2.7	10.0	37.7	49.2	100.0 (970)
무학(글자해독)	0.2	3.3	7.2	38.8	50.5	100.0 (2,134)
초등학교	0.5	3.8	6.8	37.5	51.5	100.0 (3,300)
중학교	0.5	4.4	6.9	37.8	50.5	100.0 (1,347)
고등학교	0.5	2.8	6.7	34.4	55.6	100.0 (1,716)
전문대학 이상	0.7	2.5	8.8	29.9	58.1	100.0 (8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5	3.7	8.1	36.2	51.6	100.0 (2,968)
미취업	0.5	3.3	7.0	36.9	52.4	100.0 (7,3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3.6	7.1	37.8	51.2	100.0 (2,072)
제2오분위	0.5	3.1	7.4	38.6	50.4	100.0 (2,049)
제3오분위	0.2	3.3	6.7	35.4	54.5	100.0 (2,041)
제4오분위	0.8	3.9	8.0	37.7	49.5	100.0 (2,046)
제5오분위	0.3	2.9	7.4	33.9	55.5	100.0 (2,036)
기능상태						
제한 없음	0.4	3.3	6.9	36.4	52.9	100.0 (8,536)
제한 있음	0.6	3.7	9.2	38.0	48.5	100.0 (1,73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6-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단위: %, 명)

특성	자살 생각률 ¹⁾	자살 시도율 ²⁾	자살생각 이유 ²⁾							계 (명)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배우자 가족, 친구)	부부자녀 친구갈등 및 단절	배우자 가족 건강	기타	
전체	10.9	12.5	24.4	40.4	13.3	5.4	11.5	4.8	0.2	100.0 (1,121)
지역										
동부	11.5	12.4	22.4	42.0	13.8	5.5	10.8	5.2	0.1	100.0 (904)
읍·면부	9.1	12.7	32.5	33.6	11.3	4.9	14.2	3.2	0.3	100.0 (218)
성										
남자	10.0	10.1	23.6	42.0	16.7	4.2	9.6	3.7	0.4	100.0 (428)
여자	11.6	13.9	24.9	39.4	11.3	6.2	12.7	5.6	0.1	100.0 (694)
연령										
65~69세	11.0	11.9	23.4	39.6	15.5	3.6	14.0	3.8	0.1	100.0 (360)
70~74세	11.7	15.2	23.0	41.4	11.6	6.1	13.4	4.5	0.1	100.0 (328)
75~79세	11.4	11.9	24.5	43.9	11.9	5.9	10.6	2.6	0.5	100.0 (241)
80~84세	9.3	13.1	29.7	35.7	14.8	7.1	6.6	6.1	0.0	100.0 (119)
85세 이상	9.7	3.7	26.3	35.5	12.8	6.9	1.8	16.8	0.0	100.0 (7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9	11.9	25.2	40.0	11.3	3.6	13.9	5.9	0.3	100.0 (559)
배우자 없음	14.3	13.0	23.6	40.8	15.4	7.2	9.1	3.8	0.1	100.0 (562)
가구형태										
노인독거	15.3	12.7	25.4	36.0	17.9	9.0	9.1	2.5	0.0	100.0 (364)
노인부부	8.1	12.3	26.0	40.7	11.7	3.8	12.3	5.1	0.4	100.0 (370)
자녀동거	11.7	11.1	23.9	39.5	11.8	3.7	13.7	7.3	0.1	100.0 (334)
기타	12.9	20.8	9.0	73.4	2.7	3.3	8.3	3.4	0.0	100.0 (5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8	12.2	33.9	36.9	11.7	3.9	9.8	3.8	0.0	100.0 (163)
무학(글자해독)	12.4	15.6	23.8	46.1	8.9	4.2	12.8	4.1	0.1	100.0 (264)
초등학교	10.3	9.2	27.4	36.6	13.4	5.1	10.3	6.7	0.5	100.0 (341)
중학교	9.8	12.1	23.7	28.7	20.7	7.9	14.6	4.4	0.0	100.0 (129)
고등학교	9.4	17.5	16.6	45.0	12.1	7.5	13.6	5.2	0.0	100.0 (162)
전문대학 이상	7.8	5.5	7.4	57.3	24.2	5.7	5.1	0.4	0.0	100.0 (63)
현 취업상태										
취업중	8.8	9.3	18.7	49.5	11.9	2.9	13.2	3.7	0.1	100.0 (259)
미취업	11.8	13.4	26.1	37.6	13.8	6.2	11.0	5.2	0.2	100.0 (862)
연가소득										
제1오분위	16.5	14.1	23.9	41.5	18.0	5.4	8.4	2.8	0.0	100.0 (342)
제2오분위	10.5	10.9	23.2	49.6	9.7	3.5	8.1	5.9	0.2	100.0 (216)
제3오분위	9.5	13.3	27.3	38.4	8.1	5.3	16.1	4.1	0.6	100.0 (194)
제4오분위	9.8	12.4	26.8	43.3	6.0	6.1	9.4	8.3	0.0	100.0 (220)
제5오분위	8.3	10.5	20.4	24.3	23.6	7.4	19.6	4.5	0.2	100.0 (16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	13.4	18.4	43.5	14.1	6.1	13.4	4.4	0.1	100.0 (848)
제한 있음	15.7	9.5	43.0	30.7	11.0	3.3	5.8	6.1	0.2	100.0 (273)
2011년도	11.2	11.2	32.6	30.8	10.2	3.6	15.6	4.5	2.8	100.0 (1,18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 1,12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7장

노인의 경제 상태

제1절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제2절 자산과 부채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제4절 객관적 경제 상태와 주관적 생활수준



본 장에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를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의 경우 가구, 부부, 개인 단위별로 파악하고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 및 부부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출에서는 노인가구의 월평균지출수준과 함께 노인을 위한 지출 그리고 노인가구가 지출하는 항목에서 부담이 가는 지출항목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그리고 부채를 가구, 부부, 개인단위로 보유여부와 규모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경제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도 파악하여 노인의 경제상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1절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가구의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구의 2013년 연간 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로 구성되며,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된다.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원천별로 해당 소득의 존재여부를 살펴본 <표 7-1>에 의하면 노인의 93.9%는 사적이전소득을 92.7%는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전소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39.4%, 재산소득 38.2%, 사업소득 25.1%, 그리고 기타소득 4.8%의 순으로 각 소득원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근로소득(42.3%), 재산소득

(38.9%)이 높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사업소득(47.1%), 사적이전소득(95.9%), 공적이전소득(94.6%), 그리고 기타소득(6.1%)에서 보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근로소득(41.6%), 사업소득(29.2%), 재산소득(44.0%)에서 보유율이 높고, 여자노인은 사적이전소득(94.3%)과 공적이전소득(93.1%)에서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근로소득(50.3%), 사업소득(29.3%), 재산소득(44.6%)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보유율이 낮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이 높다.

한편,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39.9%, 사업소득은 30.2%, 재산소득 45.9%, 사적이전소득 95.1%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94.2%, 기타소득이 5.4%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15.3%), 사업소득(11.7%), 재산소득(26.0%)이 매우 낮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형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인부부가구는 재산소득(48.0%), 사적이전소득(97.2%)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근로소득(77.3%)이 높고 사적이전소득(90.1%)의 보유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높다가 낮아지는 \cap 자형을 나타내는 반면, 재산소득의 보유율이 높아지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낮아진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중인 경우 근로소득(53.7%), 사업소득(61.6%)의 보유율이 미취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보유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사적이전소득은 \cap 형의 관계성을 보이지만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는 않다. 공적 이전소득은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서 보유율이 타 분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별 소득원천별 보유율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근로소득(97.6%), 사업소득(56.8%)이 높게 나타났고 재산소득은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40.2%로 더 높았으며, 사적이전소득은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93.8%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9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명)
전체 ¹⁾²⁾	39.4	25.1	38.2	93.9	92.7	4.8	(10,451)
지역							
동부	42.3	18.4	38.9	93.3	92.1	4.4	(8,008)
읍·면부	29.9	47.1	35.7	95.9	94.6	6.1	(2,443)
성							
남자	41.6	29.2	44.0	93.2	92.1	4.8	(4,354)
여자	37.8	22.2	34.0	94.3	93.1	4.8	(6,097)
연령							
65~69세	50.3	29.3	44.6	91.2	92.9	5.8	(3,316)
70~74세	40.1	26.1	39.2	93.8	92.4	4.4	(2,830)
75~79세	33.2	22.1	35.4	96.2	90.8	3.7	(2,151)
80~84세	27.0	20.8	31.7	95.8	93.9	4.3	(1,319)
85세 이상	29.6	19.3	26.2	95.8	95.4	5.8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9	30.2	45.9	95.1	91.7	4.4	(6,418)
배우자 없음	38.5	16.9	25.9	91.9	94.2	5.4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5.3	11.7	26.0	92.1	93.7	5.8	(2,407)
노인부부	27.7	29.2	48.0	97.2	91.3	4.5	(4,655)
자녀동거	77.3	29.8	33.7	90.1	93.4	4.4	(2,973)
기타	38.3	23.2	30.1	94.1	96.4	5.2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3	25.6	24.3	93.8	97.2	5.2	(1,006)
무학(글자해독)	38.6	24.8	29.3	94.5	95.0	4.0	(2,181)
초등학교	39.7	27.6	38.3	95.5	92.5	4.4	(3,345)
중학교	44.9	27.7	42.5	94.2	91.1	5.2	(1,376)
고등학교	41.3	21.7	45.3	92.3	91.4	4.8	(1,732)
전문대학 이상	33.3	17.6	56.0	88.3	86.8	7.4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7	61.6	40.6	94.2	92.2	4.5	(2,974)
미취업	33.7	10.6	37.2	93.8	92.9	4.9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0	12.1	19.3	90.8	96.1	3.7	(2,088)
제2오분위	23.7	21.7	35.9	96.2	94.7	4.3	(2,085)
제3오분위	37.5	26.9	40.1	97.2	90.2	4.8	(2,085)
제4오분위	53.6	29.5	43.6	93.2	90.8	6.1	(2,082)
제5오분위	69.6	34.9	52.2	92.0	91.4	5.1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97.6	56.8	18.2	85.2	95.7	4.3	(8,545)
제한 있음	40.3	26.1	40.2	93.8	92.1	4.9	(1,906)
2011년도	39.0	30.4	36.5	96.1	87.4	18.1	(10,67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2〉를 통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금액과 구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연 총소득은 2,305.0만원이고, 소득원천별 구성비율은 근로소득이 862.0만원(37.4%)으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520.4만원(22.6%), 사업소득 357.1만원(15.5%),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347.8만원(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규모와 구성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연 총 가구소득이 2,454.7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연 1,812.7만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부와 읍면부의 소득구성을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980.8만원(40.0%), 재산소득 214.1만원(8.7%),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이 559.9만원(22.8%)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읍면부 지역은 사업소득이 488.7만원(27.0%)으로 동부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사적이전소득은 읍면부 노인이 329.6만원(18.2%)으로 동부 노인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기타소득은 동부 노인이 30.4만원(1.2%)으로 규모에서는 더 크지만 구성비는 읍면부 노인보다 낮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2,523.3만원으로 여자노인의 가구소득 2,148.9만원 보다 연 374.4만원 더 많으며, 구성비의 특징으로는 남자노인은 근로소득이 875.5만원(34.7%)로 규모면에서는 여자노인보다 더 크지만 구성비에서는 더 낮다. 사업소득이 421.7만원(16.7%), 재산소득이 234.9만원(9.3%)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이 622.3만원(24.7%)으로 더 많았으며, 여자노인은 사적이전이 354.2만원(16.5%)으로 다소 높다. 연령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낮으나, 80대 초반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2,509.8만원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의 연소득 1,979.0만원보다 높았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6.3(25.8%)만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320.1만원(16.2%)의 규모면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더 적었지만 사업소득 409.1만원(16.3%), 재산소득 248.5만원(9.9%),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은 372.4만원(14.8%)으로 규모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지만 비중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연 909.7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연 1,943.8만원, 기타가구가 연 2,066.3만원, 자녀동거가구는 연 4,047.8만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구성을 보면, 노

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355.1만원(39.0%)과 공적이전소득 305.6만원(33.6%)을 나타냈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도 사적이전소득이 397.8만원(20.5%)과 공적이전소득이 633.2만원(32.6%)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2,444.7만원(60.4%)로 가장 높으며, 사업소득이 637.7만원(15.8%)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가구는 근로소득 482.6만원(23.4%), 사업소득 289.6만원(14.0%), 재산소득 192.9만원(9.3%)로 낮지만(독거가구보다는 높은 수준임), 사적이전소득 443.4만원(21.5%), 공적이전소득 630.0만원(30.5%)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인의 연 총 가구소득은 4,453.8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연 1,580.5만원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1/2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고학력인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의 수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근로소득이 1,216.3만원(27.3%), 공적이전소득이 1,557.7만원(35.0%)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무학(글자모름)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656.1만원(41.5%)으로 타 학력 수준에 비해 금액은 적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적이전소득이 290.9만원(18.4%), 공적이전소득이 300.4만원(19.0%)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연소득은 2,460.5만원이며 미취업자는 연 2,243.3만원으로 취업자의 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근로소득 907.8만원(36.9%), 사업소득 738.6만원(30.0%)의 비율이 높고 미취업자는 근로소득 843.7만원(37.6%), 사적이전소득 380.3만원(17.0%)과 공적이전소득 572.7만원(25.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의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제5오분위에서는 근로소득 2,882.9만원(49.2%), 사업소득 1,108.5만원(18.9%),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1,036.1만원(17.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제1오분위에서는 사적이전소득 249.2만원(45.0%), 공적이전소득 233.6

만원(42.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연소득이 2,357.6만원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의 2,069.8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849.5만원(36.0%), 공적이전소득 545.8만원(23.1%), 사적이전소득 348.1만원(14.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917.8만원(44.3%), 공적이전소득 407.0만원(19.7%), 사적이전소득 346.5만원(16.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단위: %, 만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²⁾	862.0	357.1	188.5	347.8	520.4	29.8	2,305.0
지역							
동부	980.8	317.0	214.1	353.4	559.9	30.4	2,454.7
읍면부	471.3	488.7	104.7	329.6	391.3	27.9	1,812.7
성							
남자	875.5	421.7	234.9	338.9	622.3	31.5	2,523.3
여자	852.3	310.9	155.4	354.2	447.7	28.6	2,148.9
연령							
65~69세	1,082.7	480.2	246.1	297.6	674.3	43.9	2,823.9
70~74세	817.2	323.6	194.8	343.9	506.5	20.8	2,201.9
75~79세	629.2	247.9	149.1	399.0	405.6	17.6	1,849.6
80~84세	870.2	342.1	136.5	386.0	429.6	27.7	2,192.1
85세 이상	721.7	286.0	122.2	368.7	396.1	39.2	1,940.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02.4	409.1	248.5	372.4	646.3	32.0	2,509.8
배우자 없음	956.8	274.2	93.1	308.7	320.1	26.3	1,979.0
가구형태							
노인독거	81.3	74.0	70.9	355.1	305.6	22.5	909.7
노인부부	294.7	330.7	258.3	397.8	633.2	28.9	1,943.8
자녀동거	2,444.7	637.7	173.8	250.3	502.5	37.5	4,047.8
기타	482.6	289.6	192.9	443.4	630.0	27.8	2,066.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56.1	259.2	60.8	290.9	300.4	13.4	1,580.5
무학(글자해독)	744.6	262.1	94.2	320.5	310.0	15.6	1,747.1
초등학교	774.5	338.9	149.5	351.0	385.6	21.9	2,022.5
중학교	902.7	401.8	225.2	339.7	497.6	25.1	2,386.7
고등학교	1,099.9	407.0	286.0	372.7	706.2	36.5	2,905.1
전문대학 이상	1,216.3	626.0	491.4	439.7	1,557.7	114.8	4,45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907.8	738.6	147.5	266.1	389.1	16.1	2,460.5
미취업	843.7	205.3	204.8	380.3	572.7	35.3	2,243.3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9	21.5	22.8	249.2	233.6	1.5	553.6
제2오분위	89.3	72.1	78.2	399.1	323.0	7.6	969.3
제3오분위	348.8	196.1	155.7	422.9	402.8	15.1	1,541.5
제4오분위	958.8	388.5	259.7	357.2	609.3	33.0	2,606.3
제5오분위	2,882.9	1,108.5	428.5	312.6	1,036.1	92.2	5,86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849.5	378.2	205.2	348.1	545.8	31.7	2,357.6
제한 있음	917.8	262.5	114.0	346.5	407.0	21.4	2,069.8
2011년도	774.3	390.2	215.9	339.6	409.9	31.8	2,161.8
<구성비>							
전체 ¹⁾²⁾	37.4	15.5	8.2	15.1	22.6	1.3	100.0 (10,423)
지역							
동부	40.0	12.9	8.7	14.4	22.8	1.2	100.0 (7,993)
읍면부	26.0	27.0	5.8	18.2	21.6	1.5	100.0 (2,430)
성							
남자	34.7	16.7	9.3	13.4	24.7	1.2	100.0 (4,348)
여자	39.7	14.5	7.2	16.5	20.8	1.3	100.0 (6,075)
연령							
65~69세	38.3	17.0	8.7	10.5	23.9	1.6	100.0 (3,314)
70~74세	37.1	14.7	8.8	15.6	23.0	0.9	100.0 (2,816)
75~79세	34.0	13.4	8.1	21.6	21.9	1.0	100.0 (2,147)
80~84세	39.7	15.6	6.2	17.6	19.6	1.3	100.0 (1,317)
85세 이상	37.2	14.8	6.3	19.1	20.5	2.0	100.0 (8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2.0	16.3	9.9	14.8	25.8	1.3	100.0 (6,403)
배우자 없음	48.3	13.9	4.7	15.6	16.2	1.3	100.0 (4,020)
가구형태							
노인독거	8.9	8.1	7.8	39.0	33.6	2.5	100.0 (2,406)
노인부부	15.2	17.0	13.3	20.5	32.6	1.5	100.0 (4,653)
자녀동거	60.4	15.8	4.3	6.2	12.4	0.9	100.0 (2,948)
기타	23.4	14.0	9.3	21.5	30.5	1.3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5	16.4	3.8	18.4	19.0	0.8	100.0 (1,004)
무학(글자해독)	42.6	15.0	5.4	18.3	17.7	0.9	100.0 (2,175)
초등학교	38.3	16.8	7.4	17.4	19.1	1.1	100.0 (3,335)
중학교	37.8	16.8	9.4	14.2	20.8	1.1	100.0 (1,373)
고등학교	37.9	14.0	9.8	12.8	24.3	1.3	100.0 (1,729)
전문대학 이상	27.3	14.1	11.0	9.9	35.0	2.6	100.0 (8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9	30.0	6.0	10.8	15.8	0.7	100.0 (2,964)
미취업	37.6	9.2	9.1	17.0	25.5	1.6	100.0 (7,4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	3.9	4.1	45.0	42.2	0.3	100.0 (2,088)
제2오분위	9.2	7.4	8.1	41.2	33.3	0.8	100.0 (2,085)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제3오분위	22.6	12.7	10.1	27.4	26.1	1.0	100.0 (2,085)
제4오분위	36.8	14.9	10.0	13.7	23.4	1.3	100.0 (2,082)
제5오분위	49.2	18.9	7.3	5.3	17.7	1.6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0	16.0	8.7	14.8	23.1	1.3	100.0 (8,518)
제한 있음	44.3	12.7	5.5	16.7	19.7	1.0	100.0 (1,905)
2011년도	23.5	14.4	8.7	26.5	25.2	1.7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2. 개인소득

노인 자신의 소득원천별 소유율을 분석한 <표 7-3>에 의하며 근로소득 14.3%, 사업소득 13.8%, 재산소득 27.6%, 사적이전소득 92.9%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가는 공적연금은 31.9%, 기초노령연금 66.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4%, 기타공적급여 14.6%, 사적연금소득 0.8%, 기타소득 2.5%이다. 즉 노인 개인의 소득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적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이다. 또한 노인 3중 1명은 공적연금소득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표 7-4>에서 노인 본인의 항목별 소득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은 959.3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35.5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사적이전소득 228.7만원, 사업소득 145.0만원, 근로소득 122.3만원, 재산소득 110.6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은 12.9만원, 사적연금소득은 4.3만원 순으로 가장 낮았다.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 35.0%, 사적이전소득 23.8%, 사업소득 11.5%, 근로소득 12.7%, 재산소득 11.5%, 기타소득 1.3%,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0.4% 순이다.

구성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13.8%, 재산소득이 12.6%로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25.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농어업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구성비가 12.7%로 여자노인의 41.7%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15.5%), 사업소득(19.6%), 재산소득(12.8%)로 여자노인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근로소득이 14.7%, 사업소득이 18.2%, 재산소득이 13.0%로 무배우 노인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무배우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37.7%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본인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39.7%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표 7-5>에서 총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3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가구소득 20% 이하가 25.1%이다. 평균비중은 5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균 비중이 동부의 54.7%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이 60.1%로 읍면부 노인에게서 가구소득 대비 노인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노인 62.5%, 여자노인 51.3%로 남자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의 비중이 37.1%인 반면, 가구소득의 80~100% 차지하고 있고, 가구소득의 20% 이하인 경우는 13.3%이다. 반면, 여자노인은 가구소득 80~100%가 35.7%, 33.5%가 가구소득의 2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80~84세 연령군까지는 61.3%로 평균 비중이 높아지고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4.5%로 낮은 \cap 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평균비중은 47.3%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69.8%에 달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대부분인 96.6%가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동 비율이 24.7%, 자녀동거가구는 6.9%, 기타가구는 24.8%이다. 노인부부가구는 모든 영역에서 20% 내외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20% 이하인 비중이 57.5%로 나타나 가구형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거가구는 개인이 스스로의 소득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20% 이하인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취업자 보다 미취업자가 노인 본인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제1오분위의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72.7%인 반면, 제5오분위의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20% 이하인 경우가 54.1%로 매우 높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의 소득 외에도 다른 가구원으로부터의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기타 공적 급여			
전체 ¹⁾²⁾³⁾	14.3	13.8	27.6	92.9	31.9	66.4	5.4	14.6	0.8	2.5	(10,451)
지역											
동부	15.2	9.7	28.1	92.1	32.3	64.3	5.9	12.2	0.7	2.4	(8,008)
읍면부	11.3	27.2	25.7	95.2	30.7	73.3	3.9	22.4	1.1	3.2	(2,443)
성											
남자	18.1	22.6	37.9	91.7	51.0	57.3	3.6	22.3	1.3	2.3	(4,354)
여자	11.6	7.5	20.2	93.7	18.3	72.9	6.8	9.1	0.4	2.7	(6,097)
연령											
65~69세	22.2	17.2	32.4	90.1	49.0	48.9	3.4	12.4	1.0	3.2	(3,316)
70~74세	15.2	14.8	28.2	92.7	37.7	68.2	5.9	11.0	0.8	2.5	(2,830)
75~79세	10.5	13.0	26.7	95.6	20.4	75.4	5.7	11.0	0.5	2.2	(2,151)
80~84세	6.6	9.9	23.2	95.1	13.2	77.8	7.3	23.2	0.8	1.9	(1,319)
85세 이상	1.5	5.1	15.0	93.8	4.0	88.4	8.3	30.8	0.6	2.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1	16.5	31.3	93.9	36.3	56.6	2.0	14.9	0.9	1.7	(6,418)
배우자 없음	13.0	9.6	21.5	91.1	25.0	82.0	11.0	14.0	0.5	3.9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8	11.7	25.8	92.1	26.8	81.8	14.5	15.2	0.8	4.9	(2,407)
노인부부	14.8	16.8	33.1	96.3	35.7	57.5	2.1	15.9	1.1	1.7	(4,655)
자녀동거	12.2	10.8	21.0	88.8	29.7	67.8	2.1	12.1	0.4	2.0	(2,973)
기타	20.0	14.6	23.4	87.3	35.9	66.8	14.9	14.3	0.2	2.2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6	11.4	14.9	92.7	13.8	89.8	12.9	16.6	0.3	3.4	(1,006)
무학(글자해독)	13.6	12.3	19.2	93.7	19.3	83.4	7.3	15.9	0.3	2.3	(2,181)
초등학교	14.6	14.3	26.6	94.8	29.3	71.7	5.3	15.2	0.5	2.3	(3,345)
중학교	17.9	17.3	30.3	92.9	39.8	56.4	3.1	14.6	0.9	2.7	(1,376)
고등학교	15.8	13.6	35.7	90.7	46.6	48.1	2.5	12.5	0.9	2.4	(1,732)
전문대학 이상	11.2	13.4	48.0	87.2	54.8	25.7	1.9	10.2	3.4	3.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0.3	45.9	31.0	93.0	41.9	60.4	0.9	18.4	0.9	2.5	(2,974)
미취업	4.0	1.0	26.2	92.8	28.0	68.8	7.3	13.0	0.7	2.6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	9.4	16.1	90.6	16.7	92.3	15.9	15.4	0.2	3.2	(2,088)
제2오분위	14.5	13.8	26.2	95.5	26.2	85.4	8.1	17.3	0.7	2.4	(2,085)
제3오분위	16.8	15.3	28.7	96.1	35.0	64.3	2.4	16.5	1.0	1.9	(2,085)
제4오분위	16.0	15.5	30.7	92.0	37.9	48.6	0.6	12.8	1.5	2.5	(2,082)
제5오분위	14.4	14.9	36.4	90.1	44.2	41.2	0.3	11.0	0.6	2.7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3	15.5	30.3	92.8	35.8	62.8	4.5	13.3	0.9	2.6	(8,545)
제한 있음	5.1	6.1	15.5	92.9	14.7	82.3	9.6	20.5	0.3	2.3	(1,906)
2011년도	13.6	16.8	27.5	95.3	25.3	63.9	6.1	8.9	0.7	10.7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수입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³⁾	122.3	145.0	110.6	228.7	335.5	4.3	12.9	959.3
지역								
동부	138.2	124.3	125.4	231.8	360.0	4.0	14.2	998.0
읍면부	70.0	212.8	61.8	218.4	255.3	5.2	8.7	832.2
성								
남자	219.8	277.4	181.3	179.7	533.2	8.1	17.6	1,417.1
여자	52.6	50.5	60.0	263.7	194.4	1.6	9.5	632.3
연령								
65~69세	262.1	253.7	145.2	181.3	423.2	2.7	24.2	1,292.5
70~74세	106.7	133.7	115.3	217.4	338.9	5.0	10.9	927.9
75~79세	38.3	83.8	95.0	268.3	252.9	5.3	5.9	749.5
80~84세	15.9	65.5	80.3	279.6	302.4	5.5	5.4	754.5
85세 이상	4.1	35.2	44.9	272.5	240.9	4.1	4.5	606.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8.2	196.3	139.7	189.5	376.1	5.6	12.0	1,077.4
배우자 없음	65.2	63.4	64.2	291.1	270.9	2.2	14.4	771.3
가구형태								
노인독거	66.8	72.9	69.8	348.1	296.9	3.6	18.4	876.5
노인부부	139.1	186.8	142.2	201.0	364.9	7.3	9.1	1,050.5
자녀동거	137.9	136.2	91.5	171.6	318.5	0.8	15.9	872.5
기타	142.7	158.4	128.0	255.5	351.3	0.6	1.4	1,037.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8.7	39.1	20.5	227.2	197.7	1.0	3.2	527.3
무학(글자해독)	64.8	56.0	50.6	236.7	194.9	1.4	5.1	609.5
초등학교	103.7	116.1	79.4	232.3	222.8	1.9	8.6	764.9
중학교	162.3	191.2	128.9	210.7	284.3	2.2	14.6	994.3
고등학교	158.9	194.7	183.4	220.2	456.0	5.5	16.4	1,235.2
전문대학 이상	310.9	450.6	325.2	242.5	1,179.2	27.3	53.2	2,589.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6.8	491.0	95.9	158.3	275.5	3.2	8.8	1,399.4
미취업	25.0	7.5	116.4	256.7	359.4	4.8	14.5	78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0	16.2	18.5	214.3	198.5	0.4	0.9	468.8
제2오분위	48.2	45.6	51.1	268.6	200.9	3.0	2.8	620.4
제3오분위	126.2	105.6	94.4	260.2	256.7	5.0	4.3	852.5
제4오분위	168.7	171.1	149.3	214.7	372.0	10.5	10.3	1,096.6
제5오분위	250.2	387.3	240.8	186.3	650.9	2.6	46.3	1,764.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6.1	170.1	125.6	224.1	357.2	4.8	14.2	1,042.1
제한 있음	15.7	32.8	43.1	249.1	238.3	2.2	6.9	588.1
2011년도	86.5	154.0	131.4	207.4	252.9	3.7	13.6	849.5

260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구성비>								
전체 ¹⁾³⁾	12.7	15.1	11.5	23.8	35.0	0.4	1.3	100.0 (10,451)
지역								
동부	13.8	12.5	12.6	23.2	36.1	0.4	1.4	100.0 (8,008)
읍면부	8.4	25.6	7.4	26.2	30.7	0.6	1.0	100.0 (2,443)
성								
남자	15.5	19.6	12.8	12.7	37.6	0.6	1.2	100.0 (4,354)
여자	8.3	8.0	9.5	41.7	30.7	0.3	1.5	100.0 (6,097)
연령								
65~69세	20.3	19.6	11.2	14.0	32.7	0.2	1.9	100.0 (3,316)
70~74세	11.5	14.4	12.4	23.4	36.5	0.5	1.2	100.0 (2,830)
75~79세	5.1	11.2	12.7	35.8	33.7	0.7	0.8	100.0 (2,151)
80~84세	2.1	8.7	10.6	37.1	40.1	0.7	0.7	100.0 (1,319)
85세 이상	0.7	5.8	7.4	45.0	39.7	0.7	0.7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7	18.2	13.0	17.6	34.9	0.5	1.1	100.0 (6,418)
배우자 없음	8.4	8.2	8.3	37.7	35.1	0.3	1.9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6	8.3	8.0	39.7	33.9	0.4	2.1	100.0 (2,407)
노인부부	13.2	17.8	13.5	19.1	34.7	0.7	0.9	100.0 (4,655)
자녀동거	15.8	15.6	10.5	19.7	36.5	0.1	1.8	100.0 (2,973)
기타	13.7	15.3	12.3	24.6	33.8	0.1	0.1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3	7.4	3.9	43.1	37.5	0.2	0.6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10.6	9.2	8.3	38.8	32.0	0.2	0.8	100.0 (2,181)
초등학교	13.6	15.2	10.4	30.4	29.1	0.2	1.1	100.0 (3,345)
중학교	16.3	19.2	13.0	21.2	28.6	0.2	1.5	100.0 (1,376)
고등학교	12.9	15.8	14.9	17.8	36.9	0.4	1.3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12.0	17.4	12.6	9.4	45.5	1.1	2.1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2	35.1	6.8	11.3	19.7	0.2	0.6	100.0 (2,974)
미취업	3.2	1.0	14.8	32.7	45.8	0.6	1.9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	3.5	3.9	45.7	42.3	0.1	0.2	100.0 (2,088)
제2오분위	7.8	7.4	8.2	43.3	32.4	0.5	0.5	100.0 (2,085)
제3오분위	14.8	12.4	11.1	30.5	30.1	0.6	0.5	100.0 (2,085)
제4오분위	15.4	15.6	13.6	19.6	33.9	1.0	0.9	100.0 (2,082)
제5오분위	14.2	21.9	13.6	10.6	36.9	0.1	2.6	100.0 (2,083)
가능상태								
제한 없음	14.0	16.3	12.1	21.5	34.3	0.5	1.4	100.0 (8,545)
제한 있음	2.7	5.6	7.3	42.4	40.5	0.4	1.2	100.0 (1,906)
2011년도	7.4	9.5	9.0	39.8	32.5	0.3	1.4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수입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이 모두 포함되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 비중
전체 ¹⁾²⁾	25.1	13.7	14.3	10.7	36.3	100.0 (10,423)	56.0
지역							
동부	26.2	14.0	14.4	10.7	34.7	100.0 (7,993)	54.7
읍·면부	21.6	12.7	13.8	10.6	41.3	100.0 (2,430)	60.1
성							
남자	13.3	12.2	17.8	19.6	37.1	100.0 (4,348)	62.5
여자	33.5	14.7	11.8	4.3	35.7	100.0 (6,075)	51.3
연령							
65~69세	25.7	16.3	13.7	11.8	32.6	100.0 (3,314)	53.4
70~74세	24.4	14.0	14.5	11.7	35.5	100.0 (2,816)	55.8
75~79세	23.2	13.9	16.3	8.5	38.1	100.0 (2,147)	57.5
80~84세	23.8	9.1	12.7	11.3	43.2	100.0 (1,317)	61.3
85세 이상	32.1	9.1	13.6	7.4	37.8	100.0 (830)	5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0	17.9	19.9	15.9	20.3	100.0 (6,403)	47.3
배우자 없음	23.7	7.0	5.4	2.3	61.6	100.0 (4,020)	69.8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0.5	1.6	0.9	96.6	100.0 (2,406)	98.1
노인부부	18.2	16.6	22.3	18.2	24.7	100.0 (4,653)	53.2
자녀동거	57.5	19.4	10.8	5.5	6.9	100.0 (2,948)	26.0
기타	16.2	16.7	22.8	19.5	24.8	100.0 (416)	55.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7.2	11.8	9.5	4.8	46.7	100.0 (1,004)	60.2
무학(글자해독)	25.4	13.1	14.4	7.8	39.4	100.0 (2,175)	57.7
초등학교	26.1	15.3	15.6	10.1	32.8	100.0 (3,335)	53.5
중학교	27.4	13.3	13.7	13.5	32.1	100.0 (1,373)	53.1
고등학교	23.3	13.7	14.8	13.9	34.3	100.0 (1,729)	55.6
전문대학 이상	17.4	11.5	14.2	16.2	40.7	100.0 (807)	61.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6	13.9	13.6	16.0	42.9	100.0 (2,963)	64.5
미취업	29.7	13.6	14.6	8.5	33.6	100.0 (7,460)	5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	5.6	13.6	6.7	72.7	100.0 (2,088)	85.8
제2오분위	6.7	16.5	24.0	17.4	35.6	100.0 (2,085)	64.5
제3오분위	20.7	17.8	14.2	14.9	32.4	100.0 (2,085)	55.6
제4오분위	42.8	13.9	9.6	7.7	26.0	100.0 (2,082)	42.6
제5오분위	54.1	14.7	10.0	6.6	14.6	100.0 (2,083)	31.3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5	13.8	14.0	11.9	37.0	100.0 (8,518)	57.1
제한 있음	32.5	13.3	15.6	5.4	33.2	100.0 (1,905)	50.9
2011년도	27.9	13.0	15.6	10.1	33.5	100.0 (10,663)	53.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3. 부부소득

부부소득을 통하여 가족구성의 핵심 부부단위의 경제 상황과 독립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소득은 무배우인 경우는 본인 소득과 동일하며 유배우인 경우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이다. <표 7-6>에서 이러한 부부소득의 소득원별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21.4%, 사업소득 21.1%, 재산소득 36.1%, 사적이전소득 93.5%, 공적연금 43.7%, 기초노령연금 67.0%, 기초보장 5.5%, 기타공적급여 20.1%, 기타수입 1.2%, 기타소득 2.5%로 나타났다.

<표 7-7>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동시에 고려한 부부의 항목별 금액과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총수입은 1,478.1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 499.0만원(33.8%), 사적이전소득 340.8만원(23.1%), 사업소득 232.3만원(15.7%), 근로소득 204.0만원(13.8%), 재산소득 176.2만원(11.9%), 기타소득 18.1만원(1.2%) 순으로 많았으며, 사적연금은 7.7만원(0.5%)으로 가장 낮다.

지역별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의 순이며, 읍면부 노인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노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근로, 사업,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무배우 노인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부부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형태에서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39.7%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8.7%로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형태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글자 모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3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 높으며 취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미취업자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낮다. 또한 기능상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표 7-8>에서 부부 수입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6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19.2%, 기타공적급여 10.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3%의 순이다. 노인의 특성별 구성비를 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읍면부의 경우에는 동부에 비해 공적연금의 비중이 낮고 기초노령연금과 기타공적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읍면부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공적연금비율이 높고 여자노인은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공적연금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모든 형태에서 가장 높지만, 노인부부가구 7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독거와 자녀동거가구에서 각각 31.1%, 20.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독거와 기타가구에서 17.2%와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기타공적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높고 비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중이 다소 높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중은 낮다.

한편, 사적연금소득의 보유율은 1.2% 밖에 되지 않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33.2%, 주택·농지연금 36.5%, 퇴직연금 30.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이 각각 38.2%, 35.7%로 읍면부 노인보다 높으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농지연금이 6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개인연금, 여자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의 비중이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높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의 비중이 낮고, 주택·농지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퇴직연금은 학력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에 기초하여 총 가구소득에서 부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73.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소득 20% 이하로 12.1%이다.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80.9%이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79.4%, 읍면부가 85.6%로 6.2%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의 20%이하인 경우는 5.8%인 반면, 여자노인은 가구소득 20% 이하인 비중이 16.6%이다. 평균은 각각 86.2%와 77.0%로 9.2%p의 차이를 나타내 개인단위보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비중이 적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인 비중이 각각 99.5%와 98.7%이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부부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인 비중이 42.7%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중 부부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구소득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평균비중이 높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평균 비중이 낮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의 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 자녀동거의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7-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부부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²⁾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기타 공적 급여			
전체 ¹⁾	21.4	21.1	36.1	93.5	43.7	67.0	5.5	20.1	1.2	2.5	(10,451)
지역											
동부	22.8	14.9	36.8	92.9	44.1	64.9	6.0	16.4	1.1	2.4	(8,008)
읍면부	16.9	41.2	33.9	95.6	42.5	73.8	4.0	32.4	1.5	3.2	(2,443)
성											
남자	28.0	27.0	43.3	93.1	55.1	57.6	3.6	23.1	1.6	2.3	(4,354)
여자	16.7	16.8	30.9	93.9	35.6	73.7	6.8	18.0	0.9	2.7	(6,097)
연령											
65~69세	34.4	27.4	43.7	90.9	67.3	50.6	3.5	17.9	1.7	3.2	(3,316)
70~74세	22.4	23.9	38.2	93.6	50.9	68.3	5.9	16.2	1.0	2.5	(2,830)
75~79세	15.7	18.3	34.0	96.0	28.8	75.5	5.7	18.0	0.9	2.2	(2,151)
80~84세	8.1	12.8	27.9	95.4	17.8	77.8	7.4	29.2	1.0	1.9	(1,319)
85세 이상	2.3	6.4	17.1	94.3	5.3	88.4	8.3	33.6	1.0	2.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7	28.3	45.1	95.0	55.4	57.6	2.0	23.9	1.6	1.7	(6,418)
배우자 없음	13.1	9.6	21.7	91.1	25.2	82.0	11.0	14.2	0.6	3.9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8	11.7	26.0	92.1	27.2	81.9	14.5	15.4	0.8	4.9	(2,407)
노인부부	26.6	29.0	48.0	97.2	55.8	58.5	2.2	25.5	1.9	1.7	(4,655)
자녀동거	17.9	16.2	26.4	89.6	38.0	68.2	2.1	16.1	0.5	2.0	(2,973)
기타	26.8	21.3	30.1	88.9	45.1	67.4	14.9	16.9	0.6	2.2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2.1	17.7	18.9	92.9	18.8	90.1	13.0	22.9	0.5	3.4	(1,006)
무학(글자해독)	18.4	19.0	26.0	94.0	27.3	83.9	7.4	22.1	0.4	2.3	(2,181)
초등학교	22.8	23.7	36.6	95.3	43.1	72.5	5.4	23.1	0.8	2.3	(3,345)
중학교	28.5	24.7	41.4	94.2	55.3	57.1	3.1	18.6	1.5	2.7	(1,376)
고등학교	24.9	19.6	44.4	91.8	59.6	48.9	2.5	15.1	1.6	2.4	(1,732)
전문대학 이상	16.2	17.0	55.7	88.1	67.7	25.9	1.9	12.3	4.5	3.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4.7	59.8	39.6	94.1	53.7	61.4	0.9	26.3	1.1	2.5	(2,974)
미취업	12.2	5.6	34.7	93.3	39.8	69.2	7.3	17.7	1.2	2.6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6	11.8	19.1	90.8	19.6	92.4	15.9	17.6	0.3	3.2	(2,088)
제2오분위	21.6	21.2	35.7	95.9	37.6	86.1	8.2	24.2	0.9	2.4	(2,085)
제3오분위	28.5	24.8	39.2	96.8	49.2	64.9	2.4	24.1	1.5	1.9	(2,085)
제4오분위	24.9	24.7	41.2	92.9	54.1	49.6	0.6	19.3	2.2	2.5	(2,082)
제5오분위	20.9	22.9	45.7	91.4	58.2	41.7	0.3	15.7	1.1	2.7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0	23.0	38.9	93.6	48.6	63.5	4.5	18.6	1.3	2.6	(8,545)
제한 있음	9.8	12.4	23.5	93.4	22.1	82.5	9.7	27.1	0.6	2.3	(1,906)
2011년도	20.9	26.2	35.3	95.8	36.2	65.0	6.2	13.6	1.1	15.9	(10,67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수입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부부소득)

(단위: %, 만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³⁾	204.0	232.3	176.2	340.8	499.0	7.7	18.1	1,478.1
지역								
동부	230.9	198.3	199.2	345.7	535.9	7.4	19.1	1,536.5
읍면부	115.8	343.6	100.5	324.8	378.0	8.6	15.0	1,286.4
성								
남자	329.9	344.5	231.4	334.5	612.1	9.9	20.8	1,883.1
여자	114.1	152.2	136.7	345.3	418.2	6.1	16.2	1,188.8
연령								
65~69세	437.2	402.3	243.6	291.6	662.8	7.2	34.7	2,079.4
70~74세	178.2	240.1	189.1	340.2	496.5	6.1	12.5	1,462.7
75~79세	66.7	113.0	142.3	395.8	396.3	10.3	6.8	1,131.3
80~84세	22.6	96.1	111.6	379.5	403.3	7.4	11.1	1,031.7
85세 이상	5.6	53.1	53.3	334.9	272.8	9.1	11.8	740.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91.0	338.4	246.0	369.3	638.9	10.9	20.3	1,914.8
배우자 없음	65.5	63.4	65.0	295.5	276.3	2.6	14.7	783.0
가구형태								
노인독거	67.1	72.9	70.9	355.0	305.2	3.6	18.9	893.5
노인부부	264.1	327.0	258.3	397.4	633.0	14.2	14.7	1,908.7
자녀동거	218.0	211.6	131.5	238.6	448.6	1.3	22.9	1,272.6
기타	223.6	243.0	185.5	355.4	481.2	4.7	17.8	1,51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3.8	81.1	37.3	274.4	254.7	2.7	3.4	707.3
무학(글자해독)	99.3	101.7	79.9	311.8	279.3	2.4	6.2	880.6
초등학교	190.1	216.1	136.7	344.6	367.7	4.0	14.2	1,273.5
중학교	281.4	280.0	219.8	335.6	486.1	5.3	17.2	1,625.3
고등학교	287.6	298.7	280.4	367.9	690.3	13.0	21.9	1,959.8
전문대학 이상	419.4	614.9	473.4	436.1	1,548.1	36.2	78.0	3,606.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6.1	656.4	145.0	261.1	382.3	4.0	10.9	1,915.7
미취업	103.8	63.7	188.5	372.5	545.4	9.1	21.0	1,30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4	20.9	22.7	249.1	231.5	0.5	1.0	549.1
제2오분위	75.4	69.6	77.8	393.8	302.1	4.0	3.4	926.1
제3오분위	229.3	173.9	151.2	413.9	382.1	9.1	5.5	1,365.0
제4오분위	309.9	291.5	251.4	347.0	586.2	18.7	13.6	1,818.2
제5오분위	384.8	606.9	380.0	301.8	995.6	6.2	67.5	2,742.9
가능상태								
제한 없음	239.3	265.8	197.6	342.5	533.2	8.5	19.6	1,606.6
제한 있음	45.9	82.1	79.8	333.2	345.5	4.0	11.5	902.0
2011년도	154.3	261.9	205.2	331.1	394.2	9.2	19.4	1,375.3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구성비>								
전체 ¹⁾³⁾	13.8	15.7	11.9	23.1	33.8	0.5	1.2	100.0 (10,451)
지역								
동부	15.0	12.9	13.0	22.5	34.9	0.5	1.2	100.0 (8,008)
읍면부	9.0	26.7	7.8	25.2	29.4	0.7	1.2	100.0 (2,443)
성								
남자	17.5	18.3	12.3	17.8	32.5	0.5	1.1	100.0 (4,354)
여자	9.6	12.8	11.5	29.0	35.2	0.5	1.4	100.0 (6,097)
연령								
65~69세	21.0	19.3	11.7	14.0	31.9	0.3	1.7	100.0 (3,316)
70~74세	12.2	16.4	12.9	23.3	33.9	0.4	0.9	100.0 (2,830)
75~79세	5.9	10.0	12.6	35.0	35.0	0.9	0.6	100.0 (2,151)
80~84세	2.2	9.3	10.8	36.8	39.1	0.7	1.1	100.0 (1,319)
85세 이상	0.8	7.2	7.2	45.2	36.8	1.2	1.6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2	17.7	12.8	19.3	33.4	0.6	1.1	100.0 (6,418)
배우자 없음	8.4	8.1	8.3	37.7	35.3	0.3	1.9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5	8.2	7.9	39.7	34.2	0.4	2.1	100.0 (2,407)
노인부부	13.8	17.1	13.5	20.8	33.2	0.7	0.8	100.0 (4,655)
자녀동거	17.1	16.6	10.3	18.7	35.3	0.1	1.8	100.0 (2,973)
기타	14.8	16.1	12.3	23.5	31.8	0.3	1.2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6	11.5	5.3	38.8	36.0	0.4	0.5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11.3	11.6	9.1	35.4	31.7	0.3	0.7	100.0 (2,181)
초등학교	14.9	17.0	10.7	27.1	28.9	0.3	1.1	100.0 (3,345)
중학교	17.3	17.2	13.5	20.6	29.9	0.3	1.1	100.0 (1,376)
고등학교	14.7	15.2	14.3	18.8	35.2	0.7	1.1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11.6	17.1	13.1	12.1	42.9	1.0	2.2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8	34.3	7.6	13.6	20.0	0.2	0.6	100.0 (2,974)
미취업	8.0	4.9	14.5	28.6	41.8	0.7	1.6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	3.8	4.1	45.4	42.2	0.1	0.2	100.0 (2,088)
제2오분위	8.1	7.5	8.4	42.5	32.6	0.4	0.4	100.0 (2,085)
제3오분위	16.8	12.7	11.1	30.3	28.0	0.7	0.4	100.0 (2,085)
제4오분위	17.0	16.0	13.8	19.1	32.2	1.0	0.7	100.0 (2,082)
제5오분위	14.0	22.1	13.9	11.0	36.3	0.2	2.5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9	16.5	12.3	21.3	33.2	0.5	1.2	100.0 (8,545)
제한 있음	5.1	9.1	8.8	36.9	38.3	0.4	1.3	100.0 (1,906)
2011년도	9.8	12.7	10.0	32.9	32.7	0.4	1.5	100.0 (10,67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수입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연금소득의 구성(부부소득)

(단위: %)

특성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 ²⁾			
	공적 연금	기초 노령연금	기초생활 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소계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주택 농지연금	소계
전체 ¹⁾	65.9	19.2	4.3	10.6	100.0	33.2	30.3	36.5	100.0
지역									
동부	69.2	17.2	4.3	9.3	100.0	38.2	35.7	26.0	100.0
읍면부	50.3	28.6	4.2	16.8	100.0	19.2	14.9	65.8	100.0
성									
남자	72.9	14.4	2.5	10.2	100.0	41.5	23.2	35.3	100.0
여자	58.5	24.4	6.1	11.1	100.0	23.6	38.5	37.9	100.0
연령									
65~69세	78.3	10.3	2.1	9.3	100.0	57.9	23.4	18.7	100.0
70~74세	67.1	20.8	4.6	7.5	100.0	53.4	30.1	16.5	100.0
75~79세	56.7	28.7	5.3	9.3	100.0	11.1	49.5	39.4	100.0
80~84세	45.4	27.0	7.1	20.5	100.0	13.0	27.4	59.6	100.0
85세 이상	20.8	42.9	12.3	23.9	100.0	0.4	0.0	99.6	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0	15.2	1.5	10.4	100.0	33.2	28.1	38.7	100.0
배우자 없음	39.8	34.3	14.4	11.5	100.0	33.0	45.0	22.0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41.3	31.1	17.2	10.5	100.0	36.3	36.8	26.8	100.0
노인부부	72.2	15.8	1.7	10.4	100.0	29.9	29.2	40.9	100.0
자녀동거	66.0	20.5	1.9	11.7	100.0	91.7	8.3	0.0	100.0
기타	62.9	18.5	10.9	7.7	100.0	21.4	78.6	0.0	100.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0.0	46.3	18.3	15.4	100.0	23.2	0.0	76.8	100.0
무학(글자해독)	28.8	41.8	10.0	19.5	100.0	37.3	0.0	62.7	100.0
초등학교	49.9	29.0	6.1	15.0	100.0	29.8	36.1	34.1	100.0
중학교	68.7	17.3	2.5	11.5	100.0	51.3	34.3	14.4	100.0
고등학교	80.5	10.6	1.3	7.6	100.0	45.8	14.5	39.8	100.0
전문대학 이상	93.5	2.5	0.6	3.4	100.0	20.9	46.9	32.3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65.7	23.7	0.7	9.9	100.0	71.7	1.4	26.9	100.0
미취업	65.9	18.0	5.3	10.8	100.0	26.5	35.3	38.2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9	52.8	24.3	6.0	100.0	94.2	0.0	5.8	100.0
제2오분위	32.5	44.1	11.9	11.5	100.0	41.9	31.8	26.3	100.0
제3오분위	52.2	25.6	3.0	19.2	100.0	19.7	11.1	69.2	100.0
제4오분위	75.7	12.0	0.3	11.9	100.0	23.1	41.1	35.8	100.0
제5오분위	86.9	5.6	0.1	7.4	100.0	72.4	27.6	0.0	10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70.2	17.2	3.3	9.3	100.0	35.3	29.8	34.9	100.0
제한 있음	35.8	33.2	11.2	19.9	100.0	13.5	34.7	51.8	100.0
2011년도	31.9	55.1	5.0	8.0	100.0	53.9	22.5	23.6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수입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이 모두 포함되어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부부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체 ¹⁾²⁾	12.1	6.6	5.2	2.6	73.6	100.0 (10,423)	80.9
지역							
동부	12.9	7.1	5.7	2.9	71.4	100.0 (7,993)	79.4
읍면부	9.5	4.8	3.4	1.8	80.6	100.0 (2,430)	85.6
성							
남자	5.8	6.2	6.0	3.6	78.5	100.0 (4,348)	86.2
여자	16.6	6.9	4.6	1.9	70.0	100.0 (6,075)	77.0
연령							
65~69세	6.6	6.7	8.1	4.2	74.3	100.0 (3,314)	83.8
70~74세	9.8	7.5	5.1	2.2	75.6	100.0 (2,816)	82.6
75~79세	13.4	6.0	2.5	1.8	76.2	100.0 (2,147)	81.7
80~84세	17.4	5.3	3.0	1.5	72.8	100.0 (1,317)	78.3
85세 이상	30.3	6.5	4.2	1.4	57.7	100.0 (830)	65.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0	6.3	5.6	3.0	80.1	100.0 (6,403)	87.3
배우자 없음	23.4	7.0	4.5	2.0	63.1	100.0 (4,020)	70.6
가구형태 ³⁾							
노인독거	0.2	0.3	0.2	0.1	99.2	100.0 (2,406)	99.5
노인부부	0.1	0.5	0.4	0.4	98.7	100.0 (4,653)	99.2
자녀동거	41.7	21.3	15.6	6.2	15.3	100.0 (2,948)	37.3
기타	5.5	7.0	13.4	16.7	57.5	100.0 (416)	76.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1.0	7.4	3.4	1.7	66.5	100.0 (1,004)	73.2
무학(글자해독)	17.4	6.4	3.9	1.4	70.9	100.0 (2,175)	77.1
초등학교	11.6	6.2	5.9	2.0	74.2	100.0 (3,335)	81.4
중학교	8.3	8.3	5.3	2.6	75.5	100.0 (1,373)	83.0
고등학교	7.0	7.1	5.6	4.5	75.7	100.0 (1,729)	84.3
전문대학 이상	5.8	3.6	6.4	5.5	78.8	100.0 (807)	87.2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	6.2	6.2	4.3	79.7	100.0 (2,963)	87.8
미취업	15.4	6.7	4.8	1.9	71.1	100.0 (7,460)	7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1	0.1	0.7	0.5	98.6	100.0 (2,088)	99.3
제2오분위	0.7	1.9	3.3	1.8	92.3	100.0 (2,085)	95.7
제3오분위	6.0	4.8	2.6	2.5	84.1	100.0 (2,085)	89.0
제4오분위	18.8	12.2	5.9	2.3	60.9	100.0 (2,082)	70.8
제5오분위	34.8	13.9	13.5	6.0	31.8	100.0 (2,083)	4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6	6.5	5.2	2.9	75.8	100.0 (8,518)	83.1
제한 있음	23.2	6.8	5.1	1.5	63.3	100.0 (1,905)	70.9
2011년도	12.6	7.1	4.6	2.5	73.1	100.0 (10,663)	80.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배우자가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제2절 자산과 부채

1. 부동산

〈표 7-10〉에 의하면 노인의 89.1%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모는 2억 1,342.3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보유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율이 낮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보유율이 96.1%로 가장 높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가 73.9%로 가장 낮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취업중인 경우 보유율이 더 높았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보유율이 더 높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부동산 보유율이 더 높다.

〈표 7-11〉에서 노인개인의 부동산 보유율과 규모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응답노인의 5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약 1억 2,072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다소 높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의 가격도 동부 노인의 경우 1억 2,622.3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억 267.1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보유율이 79.1%로 여자노인의 44.8%에 비하여 매우 높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규모 또한 남자노인은 1억 9,729.2만원이나 여자노인은 6,610.1만원으로 남자노인의 1/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5~69세 연령군이 63.1%, 75~79세 연령군이 59.0%, 85세 이상 연령군이 40.1%였으며, 보유부동산의 가격 또한 각각 1억 4,899.3만원, 1억 786.2만원, 6,454.6만원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율이 56.5%이며, 무배우 노인의 경우 63.2%로 나타내 무배우 노인의 보유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보유부동산 규모는 유배우 노인이 1억 4,436.6만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8,312.0만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 보유율이 73.9%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는 50.4%로 가장 낮다. 보유부동산 가격은 노인 부부가구 1억 3,945.2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8,646.3만원에 불과하다. 즉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소유율은 높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크지 않은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글자모름)의 보유율은 44.0%로 가장 낮고, 보유 부동산 가격 또한 3,512.9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은 74.1%로 가장 높고, 가격 또한 3억 9,044.5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10배 이상 높다. 취업자의 보유율은 67.4%로 미취업자의 55.8%보다 11.6%p 높으며, 규모 역시 취업자가 1억 6,691.4만원으로 미취업자의 1억 235.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동산 보유율은 분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제1오분위의 보유율이 63.0%로 가장 높고 제5오분위에서 56.0%로 가장 낮지만 보유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제1오분위의 보유가격 4,803.9만원인 반면, 제5오분위의 보유가격 2억 3,626.6만원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62.2%의 보유율을 나타내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의 45.3%보다 높은 부동산 보유율을 나타냈으며 규모도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가 1억 3,547.8만원으로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의 5,458.2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7-12>를 통하여 부부의 부동산 보유율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없는 비율은 19.7%,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73.4%, 그리고 부부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6.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보유 유무의 큰 차이는 없으나,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동부 노인은 1억 9,465.4만원, 읍면부 노인은 1억 6,017.4만원으로 동부의 부동산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10.8%가 보유부동산이 없으며, 여자노인은 26.2%가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부동산 가격은 남자노인은 2억 3,803.7만원이나 여자노인은 1억 4,985.2만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미보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65~69세 연령군이 8.6%, 70~74세 연령군이 14.0%, 75~79세 연령군이 22.2%, 80~84세 연령군이 34.6%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군인 경우 54.0%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부동산의 가격은 65~69세 연령군이 2억 5,098.2만원, 70~74세 연령군이 2억 107.8만원, 75~79세 연령군이 1억 5,288.1만원, 84~84세 연령군이 1억1,399.2만원, 85세 이상 연령군인 경우가 8,329.8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낮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율이 9.0%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36.8%로 매우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2억 5,161.4만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8,311.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가구형태별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노인부부가구가 7.5%로 가장 낮은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33.9%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부동산의 가격은 노인부부가구의 부동산 가격이 2억 5,038.1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8,644.6만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글자모름)의 부동산 미보유율은 42.5%, 보유부동산 가격은 5,921.4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부동산 미보유율은 8.2%로 가장 낮고, 보유부동산 가격 또한 5억 5,897.3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약 9배 정도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동산 미보유율은 제1오분위 저소득층이 26.1%로 가장 높고, 고소득층인 제5오분위에서 25.2%로 그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제5오분위에서는 부부가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비율이 13.9%로 가장 높다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보유가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제1오분위의 보유부동산 가격 6,140.9만원, 제5오분위 3억 6,563.4만원을 보이고 있다.

〈표 7-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동산 규모
전체 ¹⁾	10.9	89.1	100.0 (10,441)	21,342.3
지역				
동부	9.6	90.4	100.0 (8,001)	22,231.8
읍·면부	15.2	84.8	100.0 (2,440)	18,425.5
성				
남자	7.3	92.7	100.0 (4,348)	25,288.8
여자	13.5	86.5	100.0 (6,093)	18,525.9
연령				
65~69세	5.9	94.1	100.0 (3,311)	26,189.2
70~74세	8.3	91.8	100.0 (2,828)	21,810.6
75~79세	12.2	87.8	100.0 (2,151)	17,734.9
80~84세	18.7	81.3	100.0 (1,319)	16,305.1
85세 이상	24.4	75.6	100.0 (833)	17,772.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5	93.5	100.0 (6,410)	26,297.1
배우자 없음	18.0	82.0	100.0 (4,031)	13,46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6.1	73.9	100.0 (2,407)	8,646.3
노인부부	7.5	92.5	100.0 (4,647)	25,084.1
자녀동거	3.9	96.1	100.0 (2,972)	25,951.3
기타	11.7	88.3	100.0 (416)	20,08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2	75.8	100.0 (1,005)	9,902.1
무학(글자해독)	14.2	85.8	100.0 (2,180)	12,967.9
초등학교	10.1	89.9	100.0 (3,345)	18,371.1
중학교	5.1	94.9	100.0 (1,372)	21,432.1
고등학교	8.1	91.9	100.0 (1,730)	26,991.5
전문대학 이상	4.9	95.1	100.0 (808)	58,21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8.0	92.0	100.0 (2,971)	25,334.0
미취업	12.1	87.9	100.0 (7,470)	19,75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6	74.4	100.0 (2,088)	6,177.5
제2오분위	13.5	86.5	100.0 (2,082)	11,126.9
제3오분위	8.5	91.5	100.0 (2,084)	17,791.3
제4오분위	5.4	94.6	100.0 (2,082)	25,479.0
제5오분위	1.6	98.4	100.0 (2,078)	46,11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90.5	100.0 (8,536)	22,866.0
제한 있음	17.4	82.6	100.0 (1,905)	14,513.5

주: 1) 부동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동산 규모는 무응답 10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개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동산 규모
전체 ¹⁾	40.9	59.1	100.0 (10,444)	12,072.0
지역				
동부	40.0	60.0	100.0 (8,003)	12,622.3
읍면부	43.9	56.1	100.0 (2,441)	10,267.1
성				
남자	20.9	79.1	100.0 (4,348)	19,729.2
여자	55.2	44.8	100.0 (6,096)	6,610.1
연령				
65~69세	36.9	63.1	100.0 (3,311)	14,899.3
70~74세	38.0	62.0	100.0 (2,830)	13,093.3
75~79세	41.0	59.0	100.0 (2,151)	10,786.2
80~84세	45.3	54.7	100.0 (1,319)	8,427.8
85세 이상	59.9	40.1	100.0 (833)	6,454.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5	56.5	100.0 (6,412)	14,436.6
배우자 없음	36.8	63.2	100.0 (4,032)	8,312.0
가구형태				
노인독거	26.1	73.9	100.0 (2,407)	8,646.3
노인부부	43.5	56.5	100.0 (4,649)	13,945.2
자녀동거	49.6	50.4	100.0 (2,973)	11,867.4
기타	36.2	63.8	100.0 (416)	12,422.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6.0	44.0	100.0 (1,005)	3,512.9
무학(글자해독)	45.8	54.2	100.0 (2,181)	6,151.9
초등학교	43.7	56.3	100.0 (3,345)	9,795.2
중학교	35.7	64.3	100.0 (1,374)	12,050.4
고등학교	31.9	68.1	100.0 (1,730)	16,328.5
전문대학 이상	26.0	74.1	100.0 (808)	39,04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6	67.4	100.0 (2,971)	16,691.4
미취업	44.2	55.8	100.0 (7,472)	10,235.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0	63.0	100.0 (2,088)	4,803.9
제2오분위	40.5	59.5	100.0 (2,082)	7,414.5
제3오분위	40.0	60.0	100.0 (2,085)	10,636.9
제4오분위	42.7	57.3	100.0 (2,082)	13,914.0
제5오분위	44.0	56.0	100.0 (2,080)	23,626.6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8	62.2	100.0 (8,539)	13,547.8
제한 있음	54.8	45.3	100.0 (1,905)	5,458.2
2011년도	41.5	58.5	100.0 (10,674)	13,760.1

주: 1) 부동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동산 규모는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부동산 규모	계 (명)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¹⁾	19.7	73.4	6.9	18,659.4	100.0 (10,451)
지역					
동부	18.6	74.6	6.8	19,465.4	100.0 (7,005)
읍면부	23.4	69.4	7.3	16,017.4	100.0 (3,446)
성					100.0
남자	10.8	79.3	10.0	23,803.7	100.0 (4,280)
여자	26.2	69.1	4.7	14,985.2	100.0 (6,171)
연령					
65~69세	8.6	80.3	11.1	25,098.2	100.0 (2,804)
70~74세	14.0	79.0	7.0	20,107.8	100.0 (3,159)
75~79세	22.2	73.6	4.3	15,288.1	100.0 (2,499)
80~84세	34.6	61.7	3.8	11,399.2	100.0 (1,350)
85세 이상	54.0	44.5	1.5	8,329.8	100.0 (63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0	79.7	11.2	25,161.4	100.0 (6,476)
배우자 없음	36.8	63.2	0.0	8,311.0	100.0 (3,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26.1	73.9	0.0	8,644.6	100.0 (2,509)
노인부부	7.5	80.9	11.7	25,038.1	100.0 (4,904)
자녀동거	33.9	60.9	5.2	16,847.9	100.0 (2,655)
기타	19.4	75.6	5.1	18,182.6	100.0 (38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2.5	56.5	1.1	5,921.4	100.0 (1,088)
무학(글자해독)	27.5	70.1	2.4	9,527.4	100.0 (2,380)
초등학교	18.1	76.2	5.8	16,057.7	100.0 (3,469)
중학교	10.7	81.2	8.1	19,220.4	100.0 (1,340)
고등학교	12.6	75.9	11.5	24,700.8	100.0 (1,503)
전문대학 이상	8.2	73.0	18.8	55,897.3	100.0 (6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0	80.0	9.1	24,399.3	100.0 (3,299)
미취업	23.2	70.7	6.0	16,376.8	100.0 (7,1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1	72.6	1.3	6,140.9	100.0 (2,196)
제2오분위	15.9	80.2	3.9	10,953.3	100.0 (2,322)
제3오분위	13.2	81.0	5.9	16,996.5	100.0 (2,088)
제4오분위	17.8	72.7	9.5	22,709.9	100.0 (2,013)
제5오분위	25.2	60.9	13.9	36,563.4	100.0 (1,8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9	76.3	7.8	20,747.7	100.0 (8,523)
제한 있음	36.9	60.1	3.0	9,296.2	100.0 (1,928)
2011년도	18.6	75.0	6.4	21,742.2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부 중 1인이라도 부동산 자산이 조사되었으면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금융자산

〈표 7-13〉에 의하면 노인 중 가구소유의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85.2%이며,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3,142.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보유비율이 다소 더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보유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보유율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독거노인의 경우 82.5%이며 기타가구의 경우가 77.4%로 가장 낮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취업중인 경우 보유율이 더 높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부동산 보유율이 더 높다.

다음으로는 〈표 7-14〉에 기초하여 노인의 금융자산 유무와 규모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의 74.8%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667.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5.5%이고 읍면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2.5%로 동부의 보유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규모는 동부 노인이 1,865.2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016.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6.5%로 여자노인의 73.5%보다 높다. 연령별 금융자산보유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규모면에서는 65~69세 연령군이 2,321.7만원으로 가장 높고, 80대 후반에서는 575.9만원으로 가장 낮다. 가구형태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노인부부가구가 73.0%이며, 2,061.7만원으로 가장 많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보유율은 8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규모는 1,247.0만원으로 제일 낮다.

교육수준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규모 또한 학력수준이 높으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6,169.4만원으로 무학(글자모름) 477.1만원의 12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별 특징은 제1오분위의 보유율이 7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금액 또한 606.6만원으로 가장 낮다. 한편, 제5오분위의 금융자산보유율은 78.5%로 가장 높고 규모 또한 3,348.3만원으로 가장 높아 제1오분위의 5배 수준에 이른다.

다음으로 〈표 7-15〉를 통하여 부부단위에서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체의 17.6%,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보유한 경우 47.5%, 부부 모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34.9%이며, 전체 평균 2,670.4만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금융자산 미보유율이 17.3%, 읍면부 노인은 18.5%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유금융자산 규모는 동부 노인이 2,982.3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648.1만원 보다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16.0%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자노인은 18.6%가 없고, 보유금액은 남자노인은 3,521.7만원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적은 2,062.4만원이다. 즉 보유율에 비하여 금액에 있어 남녀 차이가 크다. 연령별 미보유율을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이 15.6%, 70~74세 연령군이 16.3%, 75~79세 연령군이 17.6%, 80~84세 연령군 19.1%, 85세 이상 연령군이 27.2%로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미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유금융자산 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금액이 적어 65~69세 연령군은 3,749.4만원인 것에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은 692.4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을 비교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13.7%로 가장 낮은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2.5%, 기타가구가 25.4%로 가장 높은 미보유율을 나타냈으며 보유 금융자산 규모는 노인부부가구 3,774.4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245.2만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미보유율이 낮고 보유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글자모름)의 금융자산 미보유율은 29.9%로 가장 높으나 보유금액은 686.0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미보유율은 11.4%로 가장 낮고 보유금액은 9,322.8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약 12배 이상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금융자산 미보유율은 제1오분위 저소득층이 23.3%로 미보유율이 가장 높고 보유 금액도 768.7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 제5오분위의 미보유율은 가장 낮은 14.8%이며 보유금액도 5,459.8만원으로 가장 높다. 즉 가구소득과 자산 보유는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표 7-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전체 ¹⁾	14.8	85.2	100.0 (10,406)	3,142.2
지역				
동부	14.5	85.5	100.0 (7,975)	3,534.5
읍면부	16.0	84.0	100.0 (2,431)	1,855.2
성				
남자	14.4	85.6	100.0 (4,342)	3,793.9
여자	15.2	84.9	100.0 (6,065)	2,675.7
연령				
65~69세	13.4	86.6	100.0 (3,301)	4,073.0
70~74세	14.4	85.6	100.0 (2,820)	2,937.7
75~79세	15.5	84.5	100.0 (2,142)	2,433.7
80~84세	16.1	83.9	100.0 (1,312)	3,283.4
85세 이상	18.3	81.7	100.0 (832)	1,74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8	86.2	100.0 (6,395)	3,906.5
배우자 없음	16.5	83.5	100.0 (4,011)	1,923.6
가구형태				
노인독거	17.5	82.5	100.0 (2,404)	1,248.9
노인부부	13.7	86.3	100.0 (4,646)	3,784.6
자녀동거	13.3	86.7	100.0 (2,942)	3,696.3
기타	22.7	77.4	100.0 (414)	2,989.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3.3	76.7	100.0 (1,001)	1,057.4
무학(글자해독)	14.8	85.2	100.0 (2,175)	1,642.4
초등학교	13.3	86.7	100.0 (3,333)	2,371.3
중학교	14.2	85.8	100.0 (1,366)	3,423.5
고등학교	15.2	84.8	100.0 (1,725)	4,406.4
전문대학 이상	11.2	88.8	100.0 (806)	9,783.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6	87.5	100.0 (2,966)	3,010.3
미취업	15.7	84.3	100.0 (7,441)	3,194.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0	77.0	100.0 (2,086)	782.5
제2오분위	16.4	83.6	100.0 (2,078)	1,457.9
제3오분위	13.5	86.5	100.0 (2,083)	2,622.4
제4오분위	13.2	86.8	100.0 (2,078)	3,715.2
제5오분위	7.8	92.2	100.0 (2,057)	7,176.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3	85.7	100.0 (8,506)	3,419.3
제한 있음	17.0	83.0	100.0 (1,901)	1,902.4

주: 1) 금융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 금융자산 규모는 무응답 4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개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전체 ¹⁾	25.2	74.8	100.0 (10,439)	1,667.0
지역				
동부	24.5	75.5	100.0 (8,001)	1,865.2
읍·면부	27.5	72.5	100.0 (2,438)	1,016.5
성				
남자	23.5	76.5	100.0 (4,346)	2,431.5
여자	26.5	73.5	100.0 (6,093)	1,121.7
연령				
65~69세	23.8	76.2	100.0 (3,311)	2,321.7
70~74세	25.2	74.8	100.0 (2,826)	1,556.1
75~79세	25.7	74.3	100.0 (2,150)	1,344.3
80~84세	24.6	75.4	100.0 (1,318)	1,476.2
85세 이상	30.7	69.4	100.0 (833)	57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8	72.2	100.0 (6,409)	2,013.1
배우자 없음	21.2	78.8	100.0 (4,029)	1,116.3
가구형태				
노인독거	17.6	82.4	100.0 (2,404)	1,247.0
노인부부	27.0	73.0	100.0 (4,649)	2,061.7
자녀동거	27.9	72.1	100.0 (2,970)	1,403.5
기타	30.4	69.6	100.0 (416)	1,563.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3.8	66.2	100.0 (1,006)	477.1
무학(글자해독)	24.7	75.3	100.0 (2,179)	755.2
초등학교	23.5	76.5	100.0 (3,344)	1,107.7
중학교	25.0	75.0	100.0 (1,375)	1,657.1
고등학교	27.6	72.4	100.0 (1,728)	2,498.4
전문대학 이상	18.3	81.7	100.0 (806)	6,16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8	78.3	100.0 (2,971)	1,779.9
미취업	26.6	73.4	100.0 (7,467)	1,62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9	72.1	100.0 (2,086)	606.6
제2오분위	25.6	74.4	100.0 (2,081)	937.6
제3오분위	25.3	74.7	100.0 (2,085)	1,550.7
제4오분위	25.6	74.4	100.0 (2,080)	1,903.6
제5오분위	21.5	78.5	100.0 (2,079)	3,34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9	76.1	100.0 (8,533)	1,892.4
제한 있음	31.1	68.9	100.0 (1,906)	657.6
2011년도	24.6	75.4	100.0 (10,674)	1,624.5

주: 1) 금융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금융자산 규모는 무응답 1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금융자산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¹⁾	17.6	47.5	34.9	100.0 (10,451)	2,670.4
지역					
동부	17.3	46.5	36.3	100.0 (8,008)	2,982.3
읍면부	18.5	50.9	30.6	100.0 (2,443)	1,648.1
성					
남자	16.0	34.1	49.9	100.0 (4,354)	3,521.7
여자	18.6	57.1	24.3	100.0 (6,097)	2,062.4
연령					
65~69세	15.6	38.9	45.5	100.0 (3,316)	3,749.4
70~74세	16.3	45.1	38.6	100.0 (2,830)	2,606.5
75~79세	17.6	51.6	30.8	100.0 (2,151)	2,074.2
80~84세	19.1	59.4	21.5	100.0 (1,319)	2,318.7
85세 이상	27.2	60.4	12.4	100.0 (835)	692.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3	27.8	56.9	100.0 (6,418)	3,647.4
배우자 없음	21.2	78.9	0.0	100.0 (4,033)	1,115.4
가구형태					
노인독거	17.5	82.5	0.0	100.0 (2,407)	1,245.2
노인부부	13.7	28.9	57.4	100.0 (4,655)	3,777.4
자녀동거	22.5	48.3	29.2	100.0 (2,973)	2,150.4
기타	25.4	47.9	26.7	100.0 (416)	2,246.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9	58.2	11.9	100.0 (1,006)	686.0
무학(글자해독)	18.5	59.0	22.4	100.0 (2,181)	1,174.9
초등학교	15.2	47.9	36.9	100.0 (3,345)	1,824.7
중학교	16.0	41.1	43.0	100.0 (1,376)	2,948.2
고등학교	17.8	38.5	43.7	100.0 (1,732)	4,004.0
전문대학 이상	11.4	32.1	56.5	100.0 (811)	9,322.8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3	42.8	42.9	100.0 (2,974)	2,768.8
미취업	18.9	49.4	31.8	100.0 (7,477)	2,631.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3	65.3	11.3	100.0 (2,088)	768.7
제2오분위	17.0	48.3	34.7	100.0 (2,085)	1,433.2
제3오분위	15.4	43.5	41.1	100.0 (2,085)	2,407.5
제4오분위	17.1	40.0	42.9	100.0 (2,082)	3,301.8
제5오분위	14.8	40.5	44.8	100.0 (2,083)	5,45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5	45.2	38.4	100.0 (8,545)	3,017.0
제한 있음	22.4	58.0	19.6	100.0 (1,906)	1,116.2
2011년도	17.8	41.9	40.3	100.0 (10,674)	2,554.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3. 기타자산

노인 중 가구원 소유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47.5%이며 규모는 513.2만원으로 나타났다(〈표 7-16〉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보다 읍·면부가,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보유비율이 다소 더 높으며, 금액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율과 금액이 더 높다. 가구형태의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보유율과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독거가구의 경우는 보유율과 금액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율과 금액이 높고 취업중인 경우 보유율과 금액이 더 높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보유율과 금액이 더 높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기타자산 보유율과 금액이 더 높다.

다음으로 〈표 7-17〉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의 기타자산 유무와 규모를 살펴보면, 기타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26.7%이며, 전체 대상자의 보유한 평균 기타자산규모는 224.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기타자산 규모는 192.0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330.6만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467.6만원, 여자 노인이 50.8만원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큰 규모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한 기타자산의 규모가 줄어들어 65~69세 연령군이 431.4만원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은 22.6만원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기타자산보유액이 105.1만원으로 가장 적고 노인 부부가구가 308.8만원으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한 기타자산의 규모는 커 전문대 졸업 이상의 경우 9,322.8만원으로 무학(글자모름) 21.9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의 규모가 커 저소득층인 제1오분위의 자산규모는 44.5만원이지만 제5오분위에서는 482.2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부단위로 기타자산 유무와 규모를 살펴본 〈표 7-18〉에 의하며, 기타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62.7%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 1인만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31.9%, 부부 모두 기타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5.4%에 이른다. 전체 대상자의 보유한 평균 기타자산규모는 351.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기타자산 규모는 302.8만원이고 읍·면부 노인은 512.4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기타자산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523.8만원으로 여자노인의 두 배에 달하는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한 기타자산의 규모가 작아, 65~69세군의 679.1만원에 비하여 85세 이상은 이의 1/20에 불과한 29.7만원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기타자산보유액이 105.1만원으로 가장 적고 노인부부가구가 520.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한 기타자산의 규모가 커, 전문대졸업 이상의 경우 788.4만원으로 무학(글자모름) 45.5만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의 규모가 커, 저소득층인 제1오분위의 자산규모는 78.4만원이지만 제5오분위에서는 751.8만원이다.

〈표 7-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전체 ¹⁾	52.5	47.5	100.0 (10,446)	513.2
지역				
동부	55.4	44.6	100.0 (8,003)	454.2
읍·면부	43.0	57.0	100.0 (2,443)	706.5
성				
남자	44.5	55.6	100.0 (4,353)	636.8
여자	58.2	41.8	100.0 (6,093)	424.9
연령				
65~69세	39.3	60.7	100.0 (3,316)	773.4
70~74세	51.4	48.6	100.0 (2,828)	483.5
75~79세	62.0	38.0	100.0 (2,151)	315.7
80~84세	64.8	35.3	100.0 (1,319)	353.9
85세 이상	64.4	35.6	100.0 (831)	33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6	56.4	100.0 (6,417)	609.6
배우자 없음	66.6	33.4	100.0 (4,029)	359.7
가구형태				
노인독거	83.3	16.7	100.0 (2,407)	105.1
노인부부	47.6	52.4	100.0 (4,654)	520.8
자녀동거	34.5	65.6	100.0 (2,969)	857.4
기타	57.5	42.5	100.0 (416)	33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8.4	31.6	100.0 (1,006)	266.7
무학(글자해독)	63.6	36.4	100.0 (2,178)	307.7
초등학교	53.9	46.1	100.0 (3,345)	459.8
중학교	43.9	56.1	100.0 (1,376)	753.3
고등학교	42.0	58.0	100.0 (1,732)	664.4
전문대학 이상	34.1	65.9	100.0 (809)	861.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4	61.6	100.0 (2,974)	883.1
미취업	58.1	41.9	100.0 (7,472)	36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4	15.6	100.0 (2,088)	80.5
제2오분위	67.1	32.9	100.0 (2,085)	107.6
제3오분위	52.2	47.8	100.0 (2,085)	349.2
제4오분위	38.6	61.4	100.0 (2,082)	687.2
제5오분위	20.6	79.5	100.0 (2,082)	1,34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0	50.0	100.0 (8,540)	552.2
제한 있음	63.9	36.2	100.0 (1,906)	338.2

주: 1) 기타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개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전체 ¹⁾	73.3	26.7	100.0 (10,449)	224.4
지역				
동부	75.1	24.9	100.0 (8,006)	192.0
읍면부	67.5	32.5	100.0 (2,443)	330.6
성				
남자	57.1	43.0	100.0 (4,353)	467.6
여자	85.0	15.0	100.0 (6,097)	50.8
연령				
65~69세	61.4	38.6	100.0 (3,316)	431.4
70~74세	70.7	29.3	100.0 (2,828)	219.8
75~79세	80.8	19.3	100.0 (2,151)	99.5
80~84세	84.7	15.3	100.0 (1,319)	45.5
85세 이상	92.6	7.4	100.0 (835)	2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3	33.7	100.0 (6,417)	312.0
배우자 없음	84.5	15.5	100.0 (4,033)	85.1
가구형태				
노인독거	83.3	16.7	100.0 (2,407)	105.1
노인부부	66.1	34.0	100.0 (4,654)	308.8
자녀동거	76.7	23.3	100.0 (2,973)	195.3
기타	73.1	26.9	100.0 (416)	179.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9.3	10.7	100.0 (1,006)	21.9
무학(글자해독)	84.8	15.2	100.0 (2,181)	46.2
초등학교	75.2	24.8	100.0 (3,345)	139.5
중학교	65.3	34.7	100.0 (1,376)	421.0
고등학교	62.8	37.2	100.0 (1,732)	388.0
전문대학 이상	51.2	48.8	100.0 (811)	9,322.8
현 취업상태				
취업중	56.4	43.6	100.0 (2,974)	574.9
미취업	80.1	19.9	100.0 (7,476)	85.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8.0	12.0	100.0 (2,088)	44.5
제2오분위	78.3	21.7	100.0 (2,085)	68.8
제3오분위	71.2	28.8	100.0 (2,085)	209.2
제4오분위	64.9	35.1	100.0 (2,082)	320.9
제5오분위	64.0	36.0	100.0 (2,082)	48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9	30.1	100.0 (8,544)	266.7
제한 있음	88.8	11.2	100.0 (1,906)	34.8

주: 1) 기타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기타자산 규모	계 (명)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¹⁾	62.7	31.9	5.4	351.8	100.0 (10,451)
지역					
동부	65.5	29.4	5.1	302.8	100.0 (8,008)
읍면부	53.7	40.2	6.2	512.4	100.0 (2,443)
성					
남자	50.3	41.7	8.1	523.8	100.0 (4,354)
여자	71.6	25.0	3.5	228.9	100.0 (6,097)
연령					
65~69세	44.9	46.5	8.6	679.1	100.0 (3,316)
70~74세	59.6	34.2	6.2	355.3	100.0 (2,830)
75~79세	72.9	23.8	3.3	141.9	100.0 (2,151)
80~84세	79.8	18.1	2.1	67.6	100.0 (1,319)
85세 이상	90.6	9.0	0.4	29.7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0	42.2	8.8	519.3	100.0 (6,418)
배우자 없음	84.5	15.5	0.0	85.1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83.3	16.7	0.0	105.1	100.0 (2,407)
노인부부	47.6	43.6	8.8	520.8	100.0 (4,655)
자녀동거	69.6	25.8	4.6	298.1	100.0 (2,973)
기타	62.7	33.3	4.1	272.2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4.6	14.0	1.4	45.5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77.8	19.7	2.5	84.0	100.0 (2,181)
초등학교	63.6	31.3	5.1	297.6	100.0 (3,345)
중학교	52.1	41.2	6.7	619.7	100.0 (1,376)
고등학교	49.0	43.6	7.4	554.3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38.6	48.9	12.6	788.4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4	48.2	8.5	759.6	100.0 (2,974)
미취업	70.4	25.5	4.1	189.6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0	14.2	0.8	78.4	100.0 (2,088)
제2오분위	68.3	29.0	2.7	99.4	100.0 (2,085)
제3오분위	57.7	36.9	5.4	306.0	100.0 (2,085)
제4오분위	51.5	39.9	8.7	528.5	100.0 (2,082)
제5오분위	50.9	39.8	9.3	751.8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3	35.6	6.1	411.6	100.0 (8,545)
제한 있음	82.3	15.6	2.2	83.7	100.0 (1,90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부 중 1인이라도 기타자산이 조사되었으면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4. 부채

〈표 7-19〉는 가구의 부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가구 중에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33.5%이며 부채 규모는 2,6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보유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유율이 더 높다. 한편, 가구형태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보유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거의 경우가 18.1%로 가장 낮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고 취업중인 경우 보유율이 더 높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부채보유율이 더 높다.

〈표 7-20〉을 통하여 조사응답자 본인의 부채 유무와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의 19.9%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415.6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부채 보유율이 21.5%로 읍면부의 1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동부가 1,602.4만원으로 읍면부의 801.8보다 더 많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부채 보유율이 29.5%로 높으며, 규모 면에서도 2,331.4만원으로 여자노인의 부채보유율 13.0%, 규모 762.4만원의 약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 보유율이 높으며, 부채 수준 또한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65~69세 연령군은 1,770.0만원, 70~74세 연령군은 1,849.3만원, 75~79세 연령군은 970.3만원, 85세 이상 연령군은 379.8만원이다. 가구형태별 부채 보유율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부채율이 18.1%로 가장 낮으며, 노인부부가구는 20.7%, 자녀동거가구는 19.4%, 그리고 기타가구가 24.0%로 가장 높았다. 부채규모는 노인독거가구가 829.3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자녀동거가구가 1,451.9만원, 노인부부가구가 1,666.9만원, 그리고 기타가구가 1,741.3만원의 순으로 많다.

교육수준별 부채 보유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규모 또한 학력수준이 높으면 보유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4,735.8만원으로 무학(글자모름) 329.4만원의 14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부채 보유율이 14.2%로 가장 낮고, 보유금액 또한 546.4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 제5오분위의 부채율은 24.0%로 가장 높으며 규모는 3,001.9만원으로 가장 높아 제1오분위의 5배를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부를 단위로 한 기준으로 부채 유무와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의 71.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평균 부채규모는 2,171.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중 부채가 없는 비율이 69.2%로 읍면부 노인의 79.3%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동부 노인이 2,413.9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374.8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부채가 없는 비율이 65.3%로 여자노인의 75.9%보다 낮으며 보유한 부채규모는 남자노인이 2,880.2만원으로 여자노인의 부채규모 1,664.5만원 더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는 비율이 높으며, 부채 수준 또한 연령층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65~69세 연령군 3,003.9만원, 70~74세 연령군 2,645.3만원, 75~79세 연령군 1,438.1만원, 80~84세 연령군 1,249.0만원, 85세 이상 연령군 599.8만원이다. 가구형태별 부채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부채가 없는 비율이 81.9%로 가장 높고 보유한 부채규모도 828.9만원으로 가장 낮다. 노인부부가구의 부채가 없는 비율은 65.6%로 가장 낮고 보유한 부채규모도 2,902.1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수준별 부채가 없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으며, 규모 또한 학력수준이 높으면 보유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미보유율이 60.8%이지만 부채규모는 7,034.5만원으로 무학(글자모름) 629.5만원의 11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부채 미보유율이 82.4%이며 부채규모는 753.4만원으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보유율이 높아 제5오분위의 부채 미보유율은 66.2%이며 보유한 부채규모는 4,542.8만원에 이른다(〈표 7-21〉 참조).

〈표 7-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전체 ¹⁾	66.6	33.5	100.0 (10,403)	2,630.8
지역				
동부	64.3	35.7	100.0 (7,980)	2,881.1
읍면부	74.0	26.0	100.0 (2,423)	1,806.4
성				
남자	63.0	37.0	100.0 (4,338)	3,185.9
여자	69.1	30.9	100.0 (6,064)	2,233.7
연령				
65~69세	59.3	40.7	100.0 (3,309)	3,234.0
70~74세	64.0	36.0	100.0 (2,816)	2,973.6
75~79세	71.3	28.7	100.0 (2,139)	1,899.2
80~84세	75.9	24.1	100.0 (1,313)	2,090.9
85세 이상	76.8	23.2	100.0 (826)	1,798.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3	37.8	100.0 (6,387)	3,135.6
배우자 없음	73.4	26.6	100.0 (4,016)	1,827.9
가구형태				
노인독거	81.9	18.1	100.0 (2,406)	829.3
노인부부	65.6	34.4	100.0 (4,640)	2,911.4
자녀동거	55.6	44.4	100.0 (2,940)	3,650.7
기타	66.9	33.2	100.0 (416)	2,713.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7.6	22.4	100.0 (1,001)	1,180.6
무학(글자해독)	72.8	27.2	100.0 (2,171)	1,414.1
초등학교	65.9	34.1	100.0 (3,333)	2,211.2
중학교	62.2	37.8	100.0 (1,367)	2,861.8
고등학교	60.9	39.1	100.0 (1,727)	3,392.8
전문대학 이상	58.2	41.8	100.0 (803)	7,436.0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6	36.4	100.0 (2,964)	3,175.9
미취업	67.7	32.3	100.0 (7,439)	2,41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3	17.7	100.0 (2,085)	758.1
제2오분위	76.2	23.8	100.0 (2,081)	984.3
제3오분위	66.2	33.8	100.0 (2,080)	2,126.1
제4오분위	57.3	42.7	100.0 (2,074)	3,135.2
제5오분위	51.3	48.8	100.0 (2,068)	6,18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64.9	35.2	100.0 (8,498)	2,859.5
제한 있음	74.2	25.8	100.0 (1,904)	1,610.1

주: 1) 부채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채 규모는 무응답 4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개인)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전체 ¹⁾	80.1	19.9	100.0 (10,439)	1,415.6
지역				
동부	78.5	21.5	100.0 (8,003)	1,602.4
읍·면부	85.6	14.4	100.0 (2,436)	801.8
성				
남자	70.5	29.5	100.0 (4,346)	2,331.4
여자	87.0	13.0	100.0 (6,093)	762.4
연령				
65~69세	75.2	24.8	100.0 (3,315)	1,770.0
70~74세	76.7	23.3	100.0 (2,827)	1,849.3
75~79세	82.7	17.3	100.0 (2,151)	970.3
80~84세	87.6	12.4	100.0 (1,317)	972.2
85세 이상	92.8	7.2	100.0 (829)	37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8.3	21.7	100.0 (6,408)	1,681.6
배우자 없음	83.1	16.9	100.0 (4,032)	992.8
가구형태				
노인독거	81.9	18.1	100.0 (2,406)	829.3
노인부부	79.3	20.7	100.0 (4,646)	1,666.9
자녀동거	80.6	19.4	100.0 (2,971)	1,451.9
기타	76.0	24.0	100.0 (416)	1,7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1.6	8.4	100.0 (1,006)	329.4
무학(글자해독)	86.3	13.7	100.0 (2,179)	568.4
초등학교	80.3	19.7	100.0 (3,345)	1,120.4
중학교	76.9	23.1	100.0 (1,374)	1,531.5
고등학교	71.9	28.1	100.0 (1,730)	2,047.7
전문대학 이상	71.4	28.6	100.0 (805)	4,735.8
현 취업상태				
취업중	74.7	25.3	100.0 (2,973)	2,212.4
미취업	82.3	17.7	100.0 (7,466)	1,098.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8	14.2	100.0 (2,087)	546.4
제2오분위	83.5	16.5	100.0 (2,085)	677.6
제3오분위	79.0	21.0	100.0 (2,083)	1,302.8
제4오분위	76.4	23.6	100.0 (2,076)	1,560.5
제5오분위	76.0	24.0	100.0 (2,080)	3,001.9
기능상태				
제한 없음	78.0	22.1	100.0 (8,533)	1,625.4
제한 있음	89.9	10.1	100.0 (1,906)	476.0
2011년도	80.0	20.0	100.0 (10,674)	1,148.5

주: 1) 부채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채규모는 무응답 1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7-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체 ¹⁾	71.5	26.6	1.9	100.0 (10,451)	2,171.0
지역					
동부	69.2	29.0	1.9	100.0 (8,008)	2,413.9
읍면부	79.3	18.9	1.8	100.0 (2,443)	1,374.8
성					
남자	65.3	32.1	2.6	100.0 (4,354)	2,880.2
여자	75.9	22.7	1.4	100.0 (6,097)	1,664.5
연령					
65~69세	62.0	35.3	2.7	100.0 (3,316)	3,003.9
70~74세	67.6	30.0	2.4	100.0 (2,830)	2,645.3
75~79세	76.2	22.9	0.9	100.0 (2,151)	1,438.1
80~84세	84.5	14.4	1.1	100.0 (1,319)	1,249.0
85세 이상	90.1	9.2	0.6	100.0 (835)	59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4.3	32.7	3.1	100.0 (6,418)	2,911.5
배우자 없음	83.1	16.9	0.0	100.0 (4,033)	992.5
가구형태					
노인독거	81.9	18.1	0.0	100.0 (2,407)	828.9
노인부부	65.6	31.0	3.4	100.0 (4,655)	2,902.1
자녀동거	72.9	25.9	1.3	100.0 (2,973)	2,067.0
기타	68.2	31.4	0.4	100.0 (416)	2,500.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7.4	11.9	0.7	100.0 (1,006)	629.5
무학(글자해독)	80.0	19.6	0.5	100.0 (2,181)	919.2
초등학교	70.7	27.6	1.8	100.0 (3,345)	1,763.2
중학교	65.2	33.4	1.4	100.0 (1,376)	2,432.7
고등학교	63.4	33.0	3.6	100.0 (1,732)	2,945.1
전문대학 이상	60.8	34.6	4.7	100.0 (811)	7,03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66.2	31.1	2.7	100.0 (2,974)	3,001.1
미취업	73.6	24.8	1.6	100.0 (7,477)	1,84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4	17.5	0.1	100.0 (2,088)	753.4
제2오분위	76.9	21.8	1.3	100.0 (2,085)	957.2
제3오분위	68.2	30.2	1.6	100.0 (2,085)	2,000.6
제4오분위	63.8	32.9	3.3	100.0 (2,082)	2,616.4
제5오분위	66.2	30.7	3.2	100.0 (2,083)	4,54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0	29.0	2.1	100.0 (8,545)	2,444.1
제한 있음	83.0	16.0	1.0	100.0 (1,906)	946.4
2011년도	71.6	27.1	1.3	100.0 (10,674)	1,722.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1. 가구지출

〈표 7-22〉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은 143.9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152.3만원, 읍·면부 노인 116.3만원으로 동부 노인이 약 36.0만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155.6만원, 여자노인이 135.6만원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소비지출이 20.0만원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소비지출이 168.6만원으로 가장 많고, 70~74세 연령군이 142.0만원, 75~79세 연령군이 122.7만원이지만 80~84세 연령군이 132.6만원,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124.6만원으로 U형의 지출구조를 나타냈다.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인 경우 156.4만원, 무배우 노인의 경우 124.0만원으로 유배우 노인이 32.4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65.0만원, 노인부부가구 128.7만원 그리고 자녀동거가구 소비지출이 231.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구는 144.9만원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학과 초등학교는 13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49.8만원, 고등학교는 173.4만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은 253.7만원의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소비지출은 차이는 크지 않아 취업중인 경우가 145.1만원, 미취업이 143.4만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1.7만원의 다소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상위 분위로 올라감에 따라 소비지출도 높다. 제5오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05.9만원으로 제1오분위 52.1만원보다 약 6배정도 더 높으며, 제4오분위는 169.4만원, 제3오분위 112.0만원, 제2오분위 78.6만원을 각각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147.6만원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의 127.4만원보다 약 20.2만원 더 높은 소비지출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가구소비지출 중 노인가구가 부담이라고 느끼는 생활비 항목을 살펴본 〈표 7-23〉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35.4%가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관련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으며, 월세 5.1%를 더하면 전

체 응답자 중에 39.5%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관리비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23.1%, 식비 16.2%, 경조사비 15.2%의 순으로 부담이 간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와 읍면부가 부담이 가는 순서는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동부 노인에게서는 읍면부 노인보다 식비, 월세, 그리고 경조사비가 더 부담이 가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은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조사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비,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연령과 \cap 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비, 식비, 그리고 기타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세, 주거관련비, 그리고 경조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가구형태별 특징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으며(41.1%),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보건의료비와 기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식비와 경조사비의 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특징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식비, 경조사비, 교양오락·통신 등의 기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력이 낮을수록 월세,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은 주거관련비, 경조사비 그리고 기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미취업중인 노인은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식비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제1오분위, 제2오분위인 경우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의 노인은 경조사비와 기타 항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을 받지 않는 노인의 경우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식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만원, 명)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전체 ¹⁾	143.9	(10,447)
지역		
동부	152.3	(8,005)
읍면부	116.3	(2,442)
성		
남자	155.6	(4,353)
여자	135.6	(6,094)
연령		
65~69세	168.6	(3,316)
70~74세	142.0	(2,828)
75~79세	122.7	(2,150)
80~84세	132.6	(1,319)
85세 이상	124.6	(83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6.4	(6,416)
배우자 없음	124.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65.0	(2,406)
노인부부	128.7	(4,655)
자녀동거	231.5	(2,970)
기타	144.9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5.8	(1,006)
무학(글자해독)	115.5	(2,179)
초등학교	129.6	(3,345)
중학교	149.8	(1,376)
고등학교	173.4	(1,732)
전문대학 이상	253.7	(80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5.1	(2,972)
미취업	143.4	(7,47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1	(2,088)
제2오분위	78.6	(2,085)
제3오분위	112.0	(2,085)
제4오분위	169.4	(2,082)
제5오분위	305.9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7.6	(8,541)
제한 있음	127.4	(1,906)
2011년도	141.3	(10,65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기준임.

〈표 7-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특성	식비	월세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 (명)
전체 ¹⁾	16.2	5.1	35.4	23.1	15.2	5.1	100.0 (10,451)
지역							
동부	17.7	6.1	33.1	22.2	16.1	5.0	100.0 (8,008)
읍면부	11.3	1.6	43.0	26.3	12.2	5.6	100.0 (2,443)
성							
남자	17.1	4.5	34.2	22.1	15.0	7.1	100.0 (4,354)
여자	15.5	5.5	36.2	23.8	15.3	3.7	100.0 (6,097)
연령							
65~69세	16.3	5.2	32.5	18.3	18.9	8.8	100.0 (3,316)
70~74세	16.8	5.5	35.4	23.4	14.2	4.8	100.0 (2,830)
75~79세	15.5	3.9	36.8	28.7	11.9	3.2	100.0 (2,151)
80~84세	14.3	4.7	37.8	26.7	14.4	2.2	100.0 (1,319)
85세 이상	18.0	6.9	39.3	21.3	13.3	1.2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4	3.1	34.7	24.9	14.1	6.9	100.0 (6,418)
배우자 없음	15.7	8.3	36.4	20.4	16.9	2.3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6	10.3	41.1	24.6	7.1	2.4	100.0 (2,407)
노인부부	14.4	2.9	37.3	27.9	10.1	7.4	100.0 (4,655)
자녀동거	18.7	4.2	28.1	15.9	29.0	4.2	100.0 (2,973)
기타	26.7	5.9	32.6	13.7	19.3	1.9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7	6.6	40.9	26.2	10.9	1.7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14.6	6.1	36.8	26.6	13.9	2.1	100.0 (2,181)
초등학교	16.2	4.8	37.5	23.4	13.5	4.5	100.0 (3,345)
중학교	16.1	3.8	33.1	24.0	15.8	7.2	100.0 (1,376)
고등학교	18.9	5.2	33.4	18.5	15.4	8.4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17.3	3.3	24.0	17.3	28.8	9.2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6	4.0	39.0	20.5	16.1	6.9	100.0 (2,974)
미취업	17.2	5.5	34.0	24.2	14.8	4.4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3	9.3	41.3	26.6	4.2	1.3	100.0 (2,088)
제2오분위	14.3	5.4	43.1	28.1	5.6	3.5	100.0 (2,085)
제3오분위	15.6	5.2	37.8	25.9	8.9	6.5	100.0 (2,085)
제4오분위	15.6	3.8	32.6	22.7	18.0	7.3	100.0 (2,082)
제5오분위	17.9	1.6	22.3	12.6	38.6	7.0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4	4.8	35.9	21.5	15.6	5.8	100.0 (8,545)
제한 있음	15.0	6.2	33.0	30.5	13.3	2.1	100.0 (1,906)
2011년도	12.0	43.0 ²⁾		24.7	8.3	12.0 ³⁾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기타에는 부담없음, 교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부채상환 등이 포함됨.

2) 2011년도에는 주거관련비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음.

3) 2011년도에는 교육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비 6.5%, 기타 5.5%임.

2. 개인지출

〈표 7-24〉에 기초하여 본인을 위한 지출항목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비율이 93.6%, 63.8%, 60.5%로 지출액은 각각 7.1만원, 4.6만원, 3.2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에게서는 문화여가비, 경조사비지출이 읍면부 노인보다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에게서는 의료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보다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지출이 더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지출의 비율과 금액이 적어, 65~69세 연령군의 경조사비가 5.2만원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0.5만원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비,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비율과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의료비 지출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가 타가구보다 높게 지출하고 있다(69.0%와 5.1만원).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모두 더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다소 낮고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의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상위 분위일수록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의 지출이 의료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의료비지출은 낮고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서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

〈표 7-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만원, 명)

특성	지출유무			지출액			(명)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체 ¹⁾	93.6	63.8	60.5	7.1	4.4	3.2	(10,451)
지역							
동부	93.4	64.3	59.9	7.0	4.8	3.2	(8,008)
읍면부	94.5	62.2	62.6	7.3	3.1	3.0	(2,443)
성							
남자	91.4	68.7	76.0	7.3	6.2	5.0	(4,354)
여자	95.2	60.3	49.5	7.0	3.1	1.8	(6,097)
연령							
65~69세	91.9	75.0	78.4	6.6	6.9	5.2	(3,316)
70~74세	94.2	67.2	66.7	7.3	4.3	3.2	(2,830)
75~79세	95.2	59.5	54.6	7.7	2.6	2.0	(2,151)
80~84세	94.5	53.2	38.5	8.0	3.2	1.4	(1,319)
85세 이상	93.0	35.6	18.5	5.6	1.1	0.5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3.0	69.0	71.0	7.3	5.3	4.1	(6,418)
배우자 없음	94.7	55.5	43.9	6.8	2.9	1.7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94.5	59.4	48.5	6.5	3.1	1.8	(2,407)
노인부부	93.1	69.0	69.9	7.2	5.1	3.9	(4,655)
자녀동거	94.0	59.6	55.8	7.7	4.3	3.2	(2,973)
기타	91.2	61.4	58.9	4.9	4.0	2.8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5.0	42.1	30.8	6.4	1.3	0.8	(1,006)
무학(글자해독)	95.4	52.0	46.4	6.7	2.1	1.6	(2,181)
초등학교	94.3	64.1	59.9	7.0	3.1	2.4	(3,345)
중학교	92.1	70.2	72.3	7.2	4.3	3.7	(1,376)
고등학교	92.1	76.5	77.4	7.6	6.7	4.9	(1,732)
전문대학 이상	90.1	83.3	82.0	8.6	14.9	8.8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3.4	71.7	77.6	6.5	5.5	4.8	(2,974)
미취업	93.7	60.7	53.7	7.4	3.9	2.5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9	50.1	39.7	4.7	2.0	1.0	(2,088)
제2오분위	95.2	58.8	56.8	6.1	2.4	1.9	(2,085)
제3오분위	93.3	66.2	66.7	7.2	3.3	3.1	(2,085)
제4오분위	93.6	67.9	68.0	8.3	4.6	3.7	(2,082)
제5오분위	93.0	76.2	71.7	9.3	9.6	6.2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93.2	69.8	67.5	6.7	5.1	3.6	(8,545)
제한 있음	95.7	37.0	29.4	8.9	1.0	1.0	(1,90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지출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기준임.

제4절 객관적 경제 상태와 주관적 생활수준

〈표 7-25〉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5.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의료급여만 적용되는 노인은 1.6%, 그 외 일반노인은 9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1%로 읍면부 노인 3.8%보다 2.3%p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 3.7%, 여자노인 6.9%로 여자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2.1%이지만 배우자 없는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1.1%로 훨씬 더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14.6%, 노인부부가구 2.2%, 자녀동거가구 2.1%, 그리고 기타가구가 14.9%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무학(글자모름) 12.7%, 무학(글자해독) 7.5%, 초등학교 5.5%, 전문대학 이상 2.0%이다. 취업상태별로도 취업자가 0.8%, 미취업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7.4%로 더 높으며, 가구소득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제1오분위 16.0%, 제2오분위 8.4%, 제3오분위 2.5% 순이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10.0%로 제한이 없는 경우 4.6%보다 5.4%p 높게 나타났다.

〈표 7-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 (명)
전체 ¹⁾	5.6	1.6	92.8	100.0 (10,451)
지역				
동부	6.1	1.7	92.3	100.0 (8,008)
읍면부	3.8	1.5	94.7	100.0 (2,443)
성				
남자	3.7	1.5	94.8	100.0 (4,350)
여자	6.9	1.7	91.4	100.0 (6,101)
연령				
65~69세	3.6	1.3	95.1	100.0 (3,316)
70~74세	6.0	1.5	92.5	100.0 (2,830)
75~79세	5.8	1.6	92.6	100.0 (2,151)
80~84세	7.3	2.6	90.0	100.0 (1,319)
85세 이상	8.3	1.5	90.1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	1.3	96.7	100.0 (6,422)
배우자 없음	11.1	2.2	86.7	100.0 (4,0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4.6	2.2	83.2	100.0 (2,407)
노인부부	2.2	1.3	96.4	100.0 (4,655)
자녀동거	2.1	1.2	96.7	100.0 (2,972)
기타	14.9	4.8	80.2	100.0 (41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2.7	3.5	83.9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7.5	1.8	90.7	100.0 (2,180)
초등학교	5.5	1.6	92.9	100.0 (3,346)
중학교	3.1	1.4	95.5	100.0 (1,377)
고등학교	2.8	0.7	96.5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2.0	1.2	96.8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0.8	1.0	98.2	100.0 (2,974)
미취업	7.4	1.9	90.7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0	3.1	80.9	100.0 (2,089)
제2오분위	8.4	2.3	89.3	100.0 (2,086)
제3오분위	2.5	1.8	95.7	100.0 (2,094)
제4오분위	0.6	0.5	99.0	100.0 (2,088)
제5오분위	0.3	0.5	99.2	100.0 (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	1.5	93.9	100.0 (8,553)
제한 있음	10.0	2.0	88.0	100.0 (1,898)
2011년도	6.2	1.0	92.9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표 7-26>을 통하여 노인가구에서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3.2%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9.7%는 낮은 편, 약 절반 정도인 47.2%의 노인가구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50.2%가 낮다고 생각한 반면 3.1%만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부 노인은 47.7%가 낮은 것으로 3.6%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4.0%,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0%라고 응답하고 생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 노인이 44.3%, 무배우 노인이 58.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5.3%로 가장 높은 반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하며 기타가구의 경우도 유사하게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0%에 달하고 있고,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교육수준별 주관적 생활수준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들이 생활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기능상태별 생활수준을 보면, 제한이 있는 경우 56.6%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한 없는 경우에는 48.1%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7-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특성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명)
전체 ¹⁾	11.8	37.9	47.2	3.1	0.1	100.0 (10,451)
지역						
동부	12.6	37.6	46.7	3.0	0.1	100.0 (8,008)
읍면부	9.0	38.7	48.7	3.4	0.2	100.0 (2,443)
성						
남자	10.1	35.8	50.4	3.7	0.1	100.0 (4,354)
여자	13.0	39.4	44.8	2.7	0.1	100.0 (6,097)
연령						
65~69세	9.3	34.9	51.9	3.9	0.1	100.0 (3,316)
70~74세	11.3	38.8	46.5	3.4	0.1	100.0 (2,830)
75~79세	13.9	39.9	44.1	2.1	0.1	100.0 (2,151)
80~84세	14.2	39.1	44.1	2.7	0.0	100.0 (1,319)
85세 이상	14.1	39.7	43.4	2.5	0.3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1	35.2	51.8	3.9	0.1	100.0 (6,418)
배우자 없음	16.0	42.2	39.8	1.9	0.1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9.6	45.7	32.8	1.8	0.1	100.0 (2,407)
노인부부	9.1	35.8	50.9	4.1	0.1	100.0 (4,655)
자녀동거	9.1	33.9	54.3	2.8	0.0	100.0 (2,973)
기타	15.4	45.6	37.4	1.6	0.0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0.4	47.4	31.0	1.2	0.1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15.3	45.1	38.0	1.4	0.2	100.0 (2,181)
초등학교	11.2	41.0	45.6	2.3	0.1	100.0 (3,345)
중학교	8.3	35.6	53.3	2.9	0.0	100.0 (1,376)
고등학교	8.4	29.6	57.2	4.7	0.1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7.1	15.7	66.5	10.8	0.0	100.0 (8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8.4	36.5	51.0	3.9	0.1	100.0 (2,974)
미취업	13.1	38.4	45.6	2.8	0.1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4	52.1	21.1	0.4	0.0	100.0 (2,089)
제2오분위	14.8	48.5	35.8	0.7	0.3	100.0 (2,086)
제3오분위	8.5	41.8	48.2	1.6	0.0	100.0 (2,086)
제4오분위	6.5	28.3	61.5	3.7	0.1	100.0 (2,083)
제5오분위	2.8	18.9	69.1	9.3	0.0	100.0 (2,08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5	37.6	48.4	3.4	0.1	100.0 (8,545)
제한 있음	17.2	39.4	41.6	1.7	0.1	100.0 (1,906)
2011년도	10.5	36.1	47.4	5.8	0.2	100.0 (10,54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에는 노인이 응답한 결과이며(본인응답자만 응답), 2014년도는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제8장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제1절 건강 상태

제2절 건강 행태



8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

본 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상태, 처방약 복용, 우울증상, 의료이용 등을 파악하고, 건강행태영역에서는 흡연 및 음주실태, 운동실천율, 영양관리 상태, 건강검진 여부, 병원 및 치과 진료의 미치료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건강 상태

1. 주관적 건강 상태

65세 이상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의 분포를 보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1.3%, 건강한 편이다 31.1%, 그저 그렇다 23.9%, 건강이 나쁜 편이다 36.4%, 건강이 매우 나쁘다 7.3%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2.4%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은 43.7%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표 8-1〉 참조).

지역별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을 비교하면, 읍·면부 노인(47.3%)이 동부 노인(42.6%) 보다 더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50.5%)이 남자노인(34.1%) 보다 평소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80~84세 연령군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56.2%로 가장 높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52.4%)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38.3%)에 비해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 부정적 건강인식률의 경우 노인독거가구가 52.2%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39.5%, 자녀동거가구는 44.0%, 기타가구는 38.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같은 무학 내에서도 글자모름의 경우 62.5%, 글자해독의 경우 55.1%로 문맹자의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더 높다.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이 55.5%로 대조적이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노인(48.5%)이 취업노인(31.9%)에 비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16.6%p 더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일수록 부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1오분위(57.4%)는 제5오분위(32.0%)에 비하여 25.4%p 더 높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기능상태별 분포에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는데, 부정적 건강인식률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73.8%)의 경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7.6%)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더 높다.

〈표 8-2〉에서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7%, 건강한 편이다 34.2%, 그저 그렇다 24.8%, 건강이 나쁜 편이다 31.6%, 건강이 매우 나쁘다 6.7%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36.9%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노인이 38.3%로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지역별로 보면, 긍정적(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 응답률은 동부 노인(37.1%)이 읍·면부 노인(36.1%) 보다 약간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45.3%)이 여자노인(30.9%)보다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 연령군의 긍정적 인식이 44.4%로 가장 높고, 80~84세 연령군이 28.1%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40.7%)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30.8%)에 비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약 10%p 더 높다. 가구형태별 긍정적 주관적 건강인식률은 노인독거가구가 29.6%로 가장 낮고, 자녀동거가구 37.3%, 노인부부가구 39.9%, 기타가구 42.7% 등의 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5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하여 무학(글자모름 23.0%, 글자해독 26.5%)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노인(48.2%)이 미취업노인(32.3%)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15.9%p 더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고소득일수록 긍정적 건강인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5오분위(49.0%)는 제1오분위(24.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4.4%p 더 높게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으로 평가하였다.

기능상태별 분포에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데, 긍정적 건강인식률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41.1%)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6.0%)에 비하여 약 2.5배 정도 더 높다.

〈표 8-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소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¹⁾	1.3	31.1	23.9	36.4	7.3	100.0 (10,279)
지역						
동부	1.3	31.8	24.3	35.4	7.2	100.0 (7,870)
읍·면·부	1.1	28.9	22.7	39.7	7.6	100.0 (2,409)
성						
남자	2.2	39.8	23.8	28.0	6.1	100.0 (4,291)
여자	0.6	24.9	24.0	42.4	8.1	100.0 (5,989)
연령						
65~69세	2.1	40.5	24.4	28.0	5.0	100.0 (3,303)
70~74세	1.4	30.9	24.6	37.0	6.2	100.0 (2,809)
75~79세	0.6	24.8	23.4	42.5	8.8	100.0 (2,120)
80~84세	0.9	21.7	21.2	45.7	10.5	100.0 (1,284)
85세 이상	0.1	24.6	25.5	38.4	11.4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6	35.6	24.6	31.8	6.5	100.0 (6,338)
배우자 없음	0.8	23.9	22.8	43.9	8.5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23.5	23.4	44.2	8.0	100.0 (2,390)
노인부부	1.6	34.9	24.0	33.1	6.4	100.0 (4,595)
자녀동거	1.2	30.8	24.1	35.9	8.1	100.0 (2,881)
기타	0.7	36.1	24.2	32.4	6.5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16.4	20.6	49.4	13.1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5	21.3	23.2	45.4	9.7	100.0 (2,136)
초등학교	0.4	28.2	25.3	39.6	6.4	100.0 (3,303)
중학교	1.9	37.6	24.3	30.4	5.9	100.0 (1,347)
고등학교	2.2	43.1	24.6	25.2	4.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5.0	50.5	22.0	18.3	4.2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1.9	42.2	24.1	28.4	3.5	100.0 (2,970)
미취업	1.0	26.6	23.9	39.7	8.8	100.0 (7,309)
연가소득						
제1오분위	0.5	19.2	22.9	47.6	9.8	100.0 (2,075)
제2오분위	0.7	25.3	23.3	42.0	8.7	100.0 (2,051)
제3오분위	1.3	31.5	25.3	34.4	7.5	100.0 (2,041)
제4오분위	2.0	36.6	25.2	29.8	6.4	100.0 (2,047)
제5오분위	1.8	43.1	23.1	28.3	3.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	34.9	26.0	32.8	4.8	100.0 (8,544)
제한 있음	0.2	12.3	13.6	54.4	19.4	100.0 (1,735)
2011년도	2.5	31.7	21.5	37.6	6.8	100.0 (10,54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8-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¹⁾	2.7	34.2	24.8	31.6	6.7	100.0 (10,279)
지역						
동부	2.8	34.3	25.7	30.4	6.7	100.0 (7,870)
읍면부	2.2	33.9	22.0	35.4	6.5	100.0 (2,409)
성						
남자	4.3	41.0	24.1	24.7	5.9	100.0 (4,291)
여자	1.5	29.4	25.4	36.5	7.2	100.0 (5,989)
연령						
65~69세	3.8	40.6	25.2	25.4	4.9	100.0 (3,303)
70~74세	2.4	34.4	24.8	32.8	5.6	100.0 (2,809)
75~79세	2.0	28.7	24.9	36.2	8.2	100.0 (2,120)
80~84세	1.5	26.6	24.0	38.1	9.8	100.0 (1,284)
85세 이상	2.7	33.6	24.3	30.2	9.2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	37.6	25.1	28.1	6.1	100.0 (6,338)
배우자 없음	1.9	28.9	24.5	37.1	7.6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27.7	25.2	37.2	7.9	100.0 (2,390)
노인부부	3.2	36.7	25.0	29.3	5.9	100.0 (4,595)
자녀동거	2.6	34.7	24.6	30.9	7.1	100.0 (2,881)
기타	1.9	40.8	22.9	29.0	5.3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	21.5	21.9	43.5	11.5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3	25.2	25.2	40.0	8.3	100.0 (2,136)
초등학교	1.7	31.3	26.2	34.6	6.2	100.0 (3,303)
중학교	2.9	41.1	24.8	25.6	5.6	100.0 (1,347)
고등학교	4.6	44.5	24.6	21.2	5.1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0	52.1	22.1	15.2	3.6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4.0	44.2	24.7	23.8	3.2	100.0 (2,970)
미취업	2.1	30.2	24.9	34.7	8.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23.3	25.0	41.7	8.7	100.0 (2,075)
제2오분위	2.0	28.0	25.0	36.5	8.5	100.0 (2,051)
제3오분위	2.8	34.7	25.9	30.3	6.2	100.0 (2,041)
제4오분위	3.4	39.9	23.9	26.5	6.3	100.0 (2,047)
제5오분위	3.7	45.3	24.4	22.8	3.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	38.0	26.2	28.2	4.4	100.0 (8,544)
제한 있음	0.6	15.4	18.2	48.1	17.8	100.0 (1,735)
2011년도	3.4	35.7	25.8	29.7	5.3	100.0 (10,54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만성질환 상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상태는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을 먼저 파악하고, 그 질환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인지를 다시 질문하였다(〈표 8-3〉 참조). 우선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상태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1개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18.2%, 2개 22.8%, 3개 이상 49.4% 등으로 전체 노인의 90.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2.2%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유병률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읍·면부 노인(91.8%)이 동부 노인(90.0%)보다 약간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3.4%로 남자노인의 86.3%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80~84세 연령군이 95.2%로 가장 높고, 65~69세 연령군이 85.5%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유병률이 93.9%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88.3%보다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4.2%로 가장 높으며, 자녀동거가구 90.8%, 노인부부가구는 88.6% 등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글자해독)노인의 경우 유병률이 95.0%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이상은 83.9%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노인의 유병률이 91.8%로 취업노인의 87.0%보다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가구소득 제1오분위 유병률이 93.7%로 가장 높으며, 제5오분위는 86.5%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유병률(97.2%)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유병률(89.0%)보다 8.2%p 더 높다.

한편,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69.7%이고, 3개 이상 지닌 경우도 46.2%에 달하여, 전체노인이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상태를 지역별로 보면, 읍·면부 노인(90.4%)이 동부 노인(88.8%)보다 약간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92.4%)이 남자노인(84.7%)보다 더 높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은 동부 노인(69.6%)과 읍·면부 노인(69.8%)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76.2%로 남자노인 60.7%보다 15.5%p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여 65~69세 연령군은 84.0%로 가장 낮고, 80~84세 연령군은 94.1%로 가장 높다.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65~69세 연령군 60.9%에서 80~84세 연령군 76.5%로 크게 증가하였고, 85세 이상(71.1%) 연령군에서는 오히려 70~74세(71.9%) 연령군보다 다소 낮은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유병률(92.9%)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86.8%)보다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3.2%로 가장 높으며, 자녀동거가구 89.6%, 노인부부가구는 87.1% 등이다.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배우자 없는 노인이 76.8%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65.3% 보다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77.4%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는 66.1%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저학력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글자해독)의 경우 유병률이 94.0%로 가장 높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83.1%로 나타났다. 특히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78.9%인데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은 56.0%로 22.9%p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노인의 유병률이 90.8%로 취업노인의 85.1%보다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유병률이 92.9%로 가장 높으며, 제5오분위는 85.4%이다. 한편,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미취업노인이 73.0%로 취업노인의 61.7%보다 11.3%p 더 높고,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77.2%로 제5오분위의 61.1% 보다 16.1%p 더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96.3%)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87.7%)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복합만성질환 유병률도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83.3%)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66.9%)에 비해 16.4%p 더 높다.

〈표 8-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명, 개)

특성	본인인지 만성질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계 (명)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개)	
전체 ¹⁾	9.6	18.2	22.8	49.4	10.8	19.5	23.5	46.2	2.6	100.0(10,279)
지역										
동부	10.0	17.8	22.5	49.7	11.2	19.1	23.2	46.4	2.6	100.0(7,870)
읍·면·부	8.2	19.5	23.8	48.5	9.6	20.5	24.3	45.5	2.5	100.0(2,409)
성										
남자	13.7	22.9	24.8	38.6	15.3	24.0	24.8	35.9	2.1	100.0(4,291)
여자	6.6	14.8	21.4	57.2	7.6	16.2	22.6	53.6	2.9	100.0(5,989)
연령										
65~69세	14.5	21.9	22.7	40.9	16.0	23.1	22.7	38.2	2.2	100.0(3,303)
70~74세	8.8	17.1	22.9	51.3	10.1	17.9	24.1	47.8	2.7	100.0(2,809)
75~79세	6.5	15.0	21.9	56.6	7.5	16.8	22.5	53.2	2.8	100.0(2,120)
80~84세	4.8	16.4	23.1	55.6	5.8	17.6	24.3	52.2	2.9	100.0(1,284)
85세 이상	7.7	18.2	24.7	49.3	8.9	20.0	25.9	45.2	2.5	100.0(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7	20.5	23.7	44.2	13.2	21.6	24.1	41.2	2.4	100.0(6,338)
배우자 없음	6.1	14.6	21.4	57.9	7.1	16.1	22.6	54.2	2.9	100.0(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8	14.6	19.9	59.7	6.8	15.7	21.5	55.9	3.0	100.0(2,390)
노인부부	11.4	20.0	23.2	45.4	12.9	21.0	23.9	42.2	2.4	100.0(4,595)
자녀동거	9.2	18.8	24.3	47.6	10.4	20.4	24.6	44.5	2.5	100.0(2,881)
기타	13.1	15.3	24.2	47.5	13.8	17.7	23.0	45.5	2.5	100.0(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7	13.1	23.0	58.3	7.1	14.0	24.2	54.7	2.9	100.0(971)
무학(글자해독)	5.0	14.1	22.4	58.5	6.0	16.2	23.5	54.4	2.9	100.0(2,136)
초등학교	8.2	17.6	22.2	52.0	9.5	18.7	23.2	48.6	2.7	100.0(3,303)
중학교	11.6	21.5	22.9	44.1	13.0	23.0	22.8	41.2	2.4	100.0(1,347)
고등학교	15.3	21.4	24.2	39.1	16.8	22.0	24.4	36.8	2.2	100.0(1,717)
전문대학 이상	16.1	25.5	23.0	35.4	16.9	27.1	23.5	32.5	2.1	100.0(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13.0	22.4	24.5	40.1	14.9	23.4	25.0	36.7	2.2	100.0(2,970)
미취업	8.2	16.5	22.1	53.2	9.2	17.9	22.9	50.1	2.7	100.0(7,309)
연가소득										
제1오분위	6.3	14.6	21.0	58.2	7.1	15.7	22.4	54.8	2.9	100.0(2,075)
제2오분위	6.6	16.6	22.1	54.8	8.2	17.7	23.7	50.3	2.8	100.0(2,051)
제3오분위	10.4	17.5	22.5	49.5	11.6	19.3	22.3	46.8	2.6	100.0(2,041)
제4오분위	11.2	19.3	24.0	45.5	12.8	20.2	24.7	42.4	2.4	100.0(2,047)
제5오분위	13.5	22.9	24.4	39.2	14.6	24.3	24.6	36.5	2.2	100.0(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0	19.6	23.6	45.9	12.3	20.8	24.1	42.8	2.4	100.0(8,544)
제한 있음	2.8	11.4	18.9	66.9	3.7	13.0	20.6	62.7	3.3	100.0(1,735)
2011년도	11.5	20.3	24.0	44.3	-	-	-	-	-	100.0(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이 56.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33.4%), 당뇨병(22.6%), 요통 및 좌골신경통(21.1%), 고지혈증(19.6%), 골다공증(14.0%) 등의 순이다(〈표 8-4〉 참조).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남녀 모두 고혈압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여자노인은 60.2%로 남자노인의 51.9% 보다 8.3%p 더 높다.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인 관절염의 유병률도 여자노인이 44.5%로 남자노인의 17.9%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 외에 당뇨병, 요통 및 좌골신경통, 고지혈증, 골다공증, 백내장, 위·십이지장 궤양 등은 여자노인의 유병률이 남자노인 유병률 보다 더 높다. 그러나 뇌졸중, 만성기 관지염 및 폐기종, 악성신생물, 전립선비대증, 피부병 등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한편, 만성질환별 치료율을 보면, 유병률이 높은 순환기계 질환 및 당뇨병은 95%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근골격계 질환은 8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다.

〈표 8-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단위: %, 명)

특성	전체		남자		여자		2011년도 유병률
	유병률 ¹⁾	치료율 ²⁾	유병률	치료율	유병률	치료율	
고혈압	56.7	98.6	51.9	98.1	60.2	98.9	54.8
뇌졸중(중풍, 뇌경색)	6.9	95.6	8.0	93.6	6.0	97.5	7.3
고지혈증	19.6	96.1	14.6	96.2	23.2	96.0	13.9
협심증, 심근경색증	6.8	97.4	6.8	98.3	6.9	96.8	11.4
기타 심장질환	6.4	96.4	5.8	97.6	6.9	95.6	0.0
당뇨병	22.6	97.5	22.2	98.2	22.8	97.1	20.5
갑상선 질환	3.3	83.3	0.9	89.7	5.0	82.5	2.5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33.4	84.2	17.9	83.7	44.5	84.3	40.4
골다공증	14.0	80.9	2.7	76.3	22.1	81.3	17.4
요통, 좌골신경통	21.1	82.1	12.6	78.3	27.2	83.3	19.9
만성기관지염, 폐기종(COPD)	1.7	85.6	2.5	83.2	1.1	89.6	2.1
천식	3.0	85.6	2.8	86.8	3.1	84.9	4.5
폐결핵, 결핵	0.3	90.0	0.4	89.5	0.2	90.9	0.5
백내장	8.7	69.3	6.8	70.8	10.0	68.6	10.9
녹내장	1.8	89.9	1.6	85.3	2.0	92.6	1.6
만성중이염	0.8	67.1	0.5	60.9	0.9	69.6	0.8
암(악성신생물)	4.3	91.6	5.5	95.3	3.5	87.5	3.5
위십이지장궤양	6.4	91.5	5.4	90.5	7.2	92.1	11.1 ³⁾
간염	0.8	73.8	0.9	69.2	0.8	77.8	0.7
간경변	0.5	92.9	0.7	90.0	0.4	96.2	0.3
만성신부전증	1.2	98.3	1.2	100.0	1.2	97.1	1.2
전립선비대증	8.2	92.9	19.7	92.9	0.0	0.0	0.0
요실금	2.2	58.4	0.1	100.0	3.7	57.8	5.1
성병(매독 등)	0.0	100.0	0.0	0.0	0.0	100.0	0.0
빈혈	2.9	73.2	1.4	80.6	3.9	71.2	3.4
피부병	2.5	84.0	3.1	83.7	2.0	84.4	2.8
우울증	2.8	84.9	1.4	84.5	3.8	85.0	3.8
치매	2.1	95.3	1.6	97.1	2.4	94.4	0.0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2.4	74.2	1.9	72.8	2.7	74.8	4.2

주: 1)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병률이고,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치료율은 각 만성질환별 의사진단을 받은 질환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의사진단 유병률이 낮은 경우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2011년도 경우 본인인지 만성질환 유병률이고, 위십이지장 궤양은 위염이 포함된 비율임.

3. 우울증상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여 0~15점으로 측정된 결과에서 8~15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증상으로 정의했을 때, 전체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고, 15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5.4점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33.2%)과 읍·면부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32.9%)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성별로는 여자노인(38.1%)이 남자노인(26.1%)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12.0%p 더 높다. 연령별 우울증상률을 보면, 65~69세 연령군 23.9%, 70~74세 연령군 31.5%, 75~79세 연령군 38.5%, 80~84세 연령군 41.9%, 85세 이상 연령군 49.0%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하여 85세 이상 연령군 우울증상률은 65~69세 연령군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률(43.0%)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26.9%) 보다 16.1%p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우울증상률이 43.7%로 가장 높고, 기타가구 36.5%, 자녀동거가구 34.9%, 노인부부가구 26.2% 등의 순이다.

교육수준별 우울증상의 분포를 보면 저학력일수록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무학(글자 모름)의 경우 58.1%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는 12.9%로 낮은 수준이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노인의 37.8%가 우울증상을 보여 취업노인의 21.4% 보다 16.4%p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1오분위의 우울증상률은 50.0%로 가장 높고, 제5오분위의 우울증상률은 19.6%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상률은 60.2%로 매우 높아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률 27.6%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8-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단위: %, 명)

특성	정상	우울증상	계 (명)	평균(점)
전체 ¹⁾	66.9	33.1	100.0 (10,261)	5.4
지역				
동부	66.8	33.2	100.0 (7,855)	5.4
읍면부	67.1	32.9	100.0 (2,405)	5.5
성				
남자	73.9	26.1	100.0 (4,281)	4.6
여자	61.9	38.1	100.0 (5,980)	6.0
연령				
65~69세	76.1	23.9	100.0 (3,293)	4.2
70~74세	68.5	31.5	100.0 (2,807)	5.2
75~79세	61.5	38.5	100.0 (2,116)	6.1
80~84세	58.1	41.9	100.0 (1,282)	6.4
85세 이상	51.0	49.0	100.0 (764)	7.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1	26.9	100.0 (6,326)	4.7
배우자 없음	57.0	43.0	100.0 (3,935)	6.5
가구형태				
노인독거	56.3	43.7	100.0 (2,386)	6.6
노인부부	73.8	26.2	100.0 (4,587)	4.6
자녀동거	65.1	34.9	100.0 (2,875)	5.6
기타	63.5	36.5	100.0 (414)	5.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9	58.1	100.0 (971)	8.1
무학(글자해독)	55.7	44.3	100.0 (2,131)	6.7
초등학교	66.8	33.2	100.0 (3,299)	5.5
중학교	75.0	25.0	100.0 (1,346)	4.5
고등학교	79.3	20.7	100.0 (1,714)	3.9
전문대학 이상	87.1	12.9	100.0 (799)	3.0
현취업상태				
취업중	78.6	21.4	100.0 (2,962)	4.0
미취업	62.2	37.8	100.0 (7,299)	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0	50.0	100.0 (2,071)	7.3
제2오분위	61.2	38.8	100.0 (2,048)	6.1
제3오분위	69.7	30.3	100.0 (2,038)	5.1
제4오분위	73.5	26.5	100.0 (2,043)	4.5
제5오분위	80.4	19.6	100.0 (2,033)	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4	27.6	100.0 (8,526)	4.7
제한 있음	39.8	60.2	100.0 (1,735)	8.6
2011년도	70.8	29.2	100.0 (10,540)	4.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자 1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였으며,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함.

4. 의료이용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노인의 82.0%이다. 1개를 복용하는 노인이 11.0%, 2개 10.7%, 3개 이상 60.3% 등이고, 전체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개(알)수는 평균 5.3개이다(〈표 8-6〉 참조).

지역별 처방약 복용률은 읍·면부 노인(83.5%)이 동부 노인(81.5%)보다 약간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84.9%)이 남자노인(77.9%)에 비해 더 높다. 3개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도 읍·면부 노인(63.7%)이 동부 노인(59.3%) 보다 약간 더 높고, 여자노인이 64.0%로 남자노인 55.3% 보다 더 높다. 연령별 복용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 연령군의 처방약 복용률은 75.3%이고, 80~84세 연령군의 처방약 복용률은 86.9%로 가장 높다. 3개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도 65~69세 연령군은 49.7%인데 80~84세 연령군은 69.3%로 19.6%p 더 높은 수준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86.2%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79.3%보다 더 높은 편이고, 처방약을 3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도 무배우 노인은 65.6%로 유배우 노인의 57.1%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노인독거가구 복용률이 86.2%로 노인부부가구 79.7%, 자녀동거가구 82.4%, 기타가구 56.9%에 비해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복용 처방약 개(알)수도 평균 6.1개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처방약 복용률은 저학력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86.6%로 가장 높은 복용률을 보였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77.7%로 가장 낮은 복용률을 보인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노인(84.2%)이 취업노인(76.6%)에 비해 높은 복용률을 보인다. 가구소득별 분포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처방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1오분위의 85.2%가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며, 3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65.9%에 달한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는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90.1%가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비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80.3%가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표 8-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단위: %, 명,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체 ¹⁾	18.0	11.0	10.7	60.3	100.0 (10,279)	5.3
지역						
동부	18.5	11.3	10.9	59.3	100.0 (7,870)	5.2
읍·면·부	16.5	10.0	9.9	63.7	100.0 (2,409)	5.7
성						
남자	22.1	11.6	11.0	55.3	100.0 (4,291)	4.8
여자	15.1	10.6	10.4	64.0	100.0 (5,989)	5.7
연령						
65~69세	24.7	13.5	12.1	49.7	100.0 (3,303)	4.3
70~74세	16.8	10.0	10.3	62.9	100.0 (2,809)	5.4
75~79세	13.2	9.2	10.4	67.2	100.0 (2,120)	6.3
80~84세	13.1	8.9	8.8	69.3	100.0 (1,284)	6.1
85세 이상	14.6	12.8	9.7	62.9	100.0 (764)	5.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7	11.8	10.4	57.1	100.0 (6,338)	5.0
배우자 없음	13.8	9.6	11.0	65.6	100.0 (3,942)	5.8
가구형태						
노인독거	13.8	9.3	10.8	66.0	100.0 (2,390)	6.1
노인부부	20.3	11.2	10.0	58.6	100.0 (4,595)	5.1
자녀동거	17.6	12.3	11.1	59.0	100.0 (2,881)	5.0
기타	19.4	9.9	13.8	56.9	100.0 (414)	5.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4	7.4	8.7	70.5	100.0 (971)	6.5
무학(글자해독)	14.2	9.2	8.8	67.8	100.0 (2,136)	6.2
초등학교	17.0	11.1	10.6	61.3	100.0 (3,303)	5.4
중학교	20.9	12.6	11.3	55.2	100.0 (1,347)	4.7
고등학교	23.1	13.1	11.5	52.4	100.0 (1,717)	4.4
전문대학 이상	22.3	12.6	15.5	49.6	100.0 (805)	4.0
현취업상태						
취업중	23.4	12.7	12.6	51.3	100.0 (2,970)	4.3
미취업	15.8	10.3	9.9	64.0	100.0 (7,309)	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8	9.4	9.9	65.9	100.0 (2,075)	6.1
제2오분위	15.8	8.0	9.7	66.5	100.0 (2,051)	6.0
제3오분위	19.5	10.0	11.2	59.4	100.0 (2,041)	5.4
제4오분위	18.7	13.5	10.9	56.9	100.0 (2,047)	4.7
제5오분위	21.4	14.4	11.5	52.7	100.0 (2,038)	4.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7	11.7	11.2	57.5	100.0 (8,544)	4.9
제한 있음	9.9	7.7	8.2	74.2	100.0 (1,735)	7.2
2011년도 ²⁾	16.0	24.4	27.0	32.6	100.0 (10,540)	2.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2014년도 조사에서는 약의 개(알)수이고, 2011년도 조사는 약의 종류임.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78.2%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방문횟수는 2.4회였으며,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21.0%에 달했다(〈표 8-7〉 참조).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면 읍·면부 노인(81.0%)이 동부 노인(77.4%)보다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81.8%)이 남자노인(73.2%)에 비해 더 높다. 4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읍·면부 노인(23.2%)이 동부 노인(20.3%)보다 더 높고, 여자노인(25.8%)이 남자노인(14.3%) 보다 더 높으며, 평균방문횟수가 여자노인은 2.8회, 남자노인은 1.9회이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 연령군의 이용률은 73.4%이고, 75~79세 연령군과 80~84세 연령군의 이용률은 약 83%이다. 4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65~69세 연령군은 17.4%이고 80~84세 연령군은 23.9%이며, 오히려 85세 이상 연령군은 17.3%로 가장 낮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이용률(82.7%)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75.5%)보다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83.4%로 가장 낮고, 노인부부가구가 76.1%로 가장 낮다.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노인독거가구가 26.1%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글자모름)이 83.6%로 가장 높고, 평균 이용횟수도 3.0회로 가장 많다. 전문대학 이상은 의료기관 이용률이 67.2%이고,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0.3%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미취업노인의 이용률이 79.5%로 취업노인의 75.2%에 비해 높다. 한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1오분위의 이용률이 82.4%로 가장 높으며, 의료기관을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25.2%에 달한다. 기능상태별 의료기관 이용률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85.7%)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76.7%)에 비해 더 높고, 4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동일한 경향이다.

〈표 8-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개월간 의원기관 방문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¹⁾	21.8	38.0	19.3	10.3	10.7	100.0 (10,279)	2.4
지역							
동부	22.6	38.1	18.9	9.5	10.8	100.0 (7,870)	2.4
읍·면·부	19.0	37.4	20.3	12.8	10.4	100.0 (2,409)	2.5
성							
남자	26.8	40.3	18.6	7.5	6.8	100.0 (4,291)	1.9
여자	18.2	36.3	19.8	12.3	13.5	100.0 (5,989)	2.8
연령							
65~69세	26.5	38.8	17.2	8.2	9.2	100.0 (3,303)	2.2
70~74세	21.5	36.3	19.5	11.7	11.0	100.0 (2,809)	2.5
75~79세	16.7	37.7	21.7	10.7	13.2	100.0 (2,120)	2.8
80~84세	16.8	38.4	21.0	12.1	11.8	100.0 (1,284)	2.7
85세 이상	24.6	40.7	17.4	9.7	7.6	100.0 (764)	2.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5	38.9	18.3	9.4	8.9	100.0 (6,338)	2.2
배우자 없음	17.3	36.5	20.9	11.6	13.7	100.0 (3,942)	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6.6	35.1	22.3	12.1	14.0	100.0 (2,390)	3.0
노인부부	23.9	38.9	18.5	9.5	9.2	100.0 (4,595)	2.2
자녀동거	22.6	38.9	18.6	9.9	10.1	100.0 (2,881)	2.3
기타	22.2	38.2	15.2	11.6	12.8	100.0 (414)	2.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6.4	34.1	21.4	12.7	15.5	100.0 (971)	3.0
무학(글자해독)	17.5	35.9	20.5	13.1	13.1	100.0 (2,136)	2.8
초등학교	19.0	37.5	20.1	11.9	11.6	100.0 (3,303)	2.7
중학교	22.4	41.4	18.9	8.2	9.1	100.0 (1,347)	2.2
고등학교	29.9	39.5	16.8	6.5	7.3	100.0 (1,717)	1.8
전문대학 이상	32.8	40.9	16.0	5.1	5.2	100.0 (805)	1.6
현취업상태							
취업중	24.8	37.5	18.9	10.2	8.7	100.0 (2,970)	2.1
미취업	20.5	38.2	19.4	10.3	11.6	100.0 (7,309)	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6	35.3	21.9	12.0	13.2	100.0 (2,075)	2.8
제2오분위	17.9	35.7	21.3	12.0	13.1	100.0 (2,051)	2.9
제3오분위	21.1	39.5	18.9	10.2	10.3	100.0 (2,041)	2.4
제4오분위	24.6	39.3	19.0	8.8	8.3	100.0 (2,047)	2.1
제5오분위	27.8	39.9	15.5	8.2	8.6	100.0 (2,038)	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3	37.9	18.6	10.1	10.1	100.0 (8,544)	2.4
제한 있음	14.3	38.5	22.6	11.0	13.6	100.0 (1,735)	2.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보건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를 포함함.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회 14.9%, 2회 2.3%, 3회 이상 1.1% 등으로 전체노인의 18.4%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평균 입원횟수는 0.2회이다(〈표 8-8〉 참조).

거주지역별 입원 경험률 보면 읍·면부 노인(20.1%)이 동부 노인(17.8%)보다 더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19.1%)이 남자노인(17.4%)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75~79세 연령군의 입원율이 22.5%로 가장 높고, 다음은 80~84세 연령군으로 21.5%이며, 85세 이상 연령군 18.5%, 70~74세 연령군 17.5%, 65~69세 연령군 15.1% 등의 순으로 일정한 경향성은 없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입원율(20.1%)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입원율(17.2%)보다 더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입원율이 20.2%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18.5%, 노인부부가구 17.6%, 기타가구 15.5% 등의 순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입원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입원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글자모름)이 21.6%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이상 노인은 13.2%이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미취업 노인의 입원율이 19.8%로 취업노인의 14.7% 보다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의 입원율이 19.9%로 가장 높고, 제5오분위의 입원율이 16.5%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별 입원율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28.8%)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6.2%)에 비해 12.6%p 더 높은 수준이다.

〈표 8-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¹⁾	81.6	14.9	2.3	1.1	100.0 (10,279)	0.2
지역						
동부	82.2	14.6	2.1	1.1	100.0 (7,870)	0.2
읍·면·부	79.9	15.9	3.0	1.2	100.0 (2,409)	0.3
성						
남자	82.6	14.0	2.4	1.0	100.0 (4,291)	0.2
여자	80.9	15.5	2.3	1.3	100.0 (5,989)	0.3
연령						
65~69세	84.9	12.7	1.6	0.8	100.0 (3,303)	0.2
70~74세	82.5	14.1	2.3	1.0	100.0 (2,809)	0.2
75~79세	77.5	18.3	3.0	1.2	100.0 (2,120)	0.3
80~84세	78.5	16.6	2.9	2.0	100.0 (1,284)	0.3
85세 이상	81.5	14.8	2.5	1.2	100.0 (764)	0.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8	14.1	2.3	0.9	100.0 (6,338)	0.2
배우자 없음	79.9	16.2	2.5	1.5	100.0 (3,942)	0.3
가구형태						
노인독거	79.8	16.1	2.7	1.3	100.0 (2,390)	0.3
노인부부	82.4	14.4	2.3	1.0	100.0 (4,595)	0.2
자녀동거	81.5	15.1	2.2	1.2	100.0 (2,881)	0.2
기타	84.5	12.3	1.7	1.4	100.0 (414)	0.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8.4	17.7	2.1	1.9	100.0 (971)	0.3
무학(글자해독)	79.3	16.4	2.8	1.5	100.0 (2,136)	0.3
초등학교	80.8	15.5	2.6	1.1	100.0 (3,303)	0.3
중학교	84.2	13.3	1.9	0.6	100.0 (1,347)	0.2
고등학교	83.6	13.6	2.1	0.8	100.0 (1,717)	0.2
전문대학 이상	86.8	10.4	1.9	0.9	100.0 (805)	0.2
현취업상태						
취업중	85.3	12.6	1.6	0.5	100.0 (2,970)	0.2
미취업	80.2	15.8	2.6	1.4	100.0 (7,309)	0.3
연가소득						
제1오분위	80.9	15.7	2.3	1.1	100.0 (2,075)	0.3
제2오분위	80.1	15.6	3.0	1.4	100.0 (2,051)	0.3
제3오분위	80.7	15.7	2.5	1.1	100.0 (2,041)	0.3
제4오분위	83.0	14.1	1.6	1.2	100.0 (2,047)	0.2
제5오분위	83.5	13.3	2.3	0.9	100.0 (2,038)	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83.8	13.5	1.9	0.8	100.0 (8,544)	0.2
제한 있음	71.2	21.7	4.5	2.6	100.0 (1,735)	0.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건강 행태

1. 흡연 실태

〈표 8-9〉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현재 흡연율을 보면, 응답노인의 11.9%가 현재 흡연을 하고, 88.1%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 현재 흡연율은 동부 노인(11.9%)과 읍·면부 노인(11.7%)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23.3%가 흡연 증으로 여자노인 3.7%에 비해 현재 흡연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 현재 흡연율을 보면 65~69세 연령군은 15.4%, 70~74세 연령군은 12.2%, 75~79세 연령군은 10.5%, 80~84세 연령군은 7.9%, 85세 이상 연령군은 6.2%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흡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현재 흡연율이 14.2%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흡연율 8.2%에 비해 더 높다. 가구형태별 현재 흡연율은 노인독거가구가 8.7%로 가장 낮고, 자녀동거가구 12.1%, 노인부부가구 13.2%, 기타가구 13.8% 등의 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흡연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무학(글자모름)이 7.9%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12.2%, 중학교 15.0%, 고등학교 이상 13.5% 등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현재 흡연율이 15.0%로 미취업노인의 10.6%보다 더 높고, 가구소득별 흡연율을 보면 제1오분위가 10.4%로 가장 낮고, 제2오분위 11.4%, 제5오분위 12.1%, 제3오분위 12.9%, 제4오분위 12.8%의 순서를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현재 흡연율이 12.4%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9.1% 보다 더 높다.

〈표 8-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흡연	비흡연	계 (명)
전체 ¹⁾	11.9	88.1	100.0 (10,279)
지역			
동부	11.9	88.1	100.0 (7,870)
읍·면·부	11.7	88.3	100.0 (2,409)
성			
남자	23.3	76.7	100.0 (4,291)
여자	3.7	96.3	100.0 (5,989)
연령			
65~69세	15.4	84.6	100.0 (3,303)
70~74세	12.2	87.8	100.0 (2,809)
75~79세	10.5	89.5	100.0 (2,120)
80~84세	7.9	92.1	100.0 (1,284)
85세 이상	6.2	93.8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2	85.8	100.0 (6,338)
배우자 없음	8.2	91.8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8.7	91.3	100.0 (2,390)
노인부부	13.2	86.8	100.0 (4,595)
자녀동거	12.1	87.9	100.0 (2,881)
기타	13.8	86.2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9	92.1	100.0 (971)
무학(글자해독)	9.3	90.7	100.0 (2,136)
초등학교	12.2	87.8	100.0 (3,303)
중학교	15.0	85.0	100.0 (1,347)
고등학교	13.5	86.5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3.5	86.5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15.0	85.0	100.0 (2,970)
미취업	10.6	89.4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4	89.6	100.0 (2,075)
제2오분위	11.4	88.6	100.0 (2,051)
제3오분위	12.9	87.1	100.0 (2,041)
제4오분위	12.8	87.2	100.0 (2,047)
제5오분위	12.1	87.9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4	87.6	100.0 (8,544)
제한 있음	9.1	90.9	100.0 (1,735)
2011년도	12.6	87.4	100.0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음주실태

지난 1년간 음주실태를 보면, 전체노인의 72.4%는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27.6%는 술을 마셨다. 음주 노인 중 적정음주노인(1주일에 7잔 이하)은 11.2%이고, 과음주 노인은 16.4%이다(〈표 8-10〉 참조). 지역별 음주율은 동부 노인(27.8%)과 읍·면부 노인(27.0%)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과음주율도 읍·면부 노인이 17.2%, 동부 노인 16.2%로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 음주율은 남자노인이 48.0%로 여자노인의 13.1%에 비해 3배 이상 더 높았으며, 남자노인의 14.6%는 적정음주자, 33.4%는 과음주자로 나타났다. 연령별 음주율을 보면 65~69세 연령군은 36.3%, 70~74세 연령군은 28.8%, 75~79세 연령군은 23.4%, 80~84세 연령군은 18.5%, 85세 이상 연령군은 13.1%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과음주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음주율이 33.4%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18.4%에 비해 더 높고, 과음주율도 동일한 경향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음주율이 19.8%로 가장 낮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음주율(31.9%) 뿐 아니라 과음주율(20.4%)도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과음주율도 중학교(21.9%), 고등학교(21.5%), 전문대학 이상(19.6%)의 경우 무학(9.4%) 및 초등학교(11.4%) 보다 더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음주율이 37.8%로 미취업노인의 23.5% 보다 더 높다. 가구소득별 음주율은 고소득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5오분위의 음주율이 32.1%로 가장 높으며, 과음주율은 제3오분위에서 19.3%로 가장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음주율(30.3%)과 과음주율(18.2%)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4.4%, 7.4%) 보다 각각 두 배 이상 더 높다.

〈표 8-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단위: %, 명)

특성	비음주	적정 음주 ²⁾	과음주 ³⁾	계 (명)
전체 ¹⁾	72.4	11.2	16.4	100.0 (10,279)
지역				
동부	72.2	11.7	16.2	100.0 (7,870)
읍·면·부	73.0	9.8	17.2	100.0 (2,409)
성				
남자	52.0	14.6	33.4	100.0 (4,291)
여자	86.9	8.8	4.2	100.0 (5,989)
연령				
65~69세	63.7	14.4	21.8	100.0 (3,303)
70~74세	71.2	12.1	16.7	100.0 (2,809)
75~79세	76.6	9.1	14.4	100.0 (2,120)
80~84세	81.5	7.5	11.1	100.0 (1,284)
85세 이상	86.9	6.3	6.8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6	11.9	21.5	100.0 (6,338)
배우자 없음	81.6	10.1	8.3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80.2	10.3	9.4	100.0 (2,390)
노인부부	68.1	11.5	20.4	100.0 (4,595)
자녀동거	73.2	11.4	15.4	100.0 (2,881)
기타	68.4	11.8	19.8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3.0	7.6	9.4	100.0 (971)
무학(글자해독)	78.0	10.6	11.4	100.0 (2,136)
초등학교	73.7	10.2	16.1	100.0 (3,303)
중학교	67.3	10.8	21.9	100.0 (1,347)
고등학교	64.8	13.6	21.5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63.5	16.9	19.6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62.2	12.7	25.1	100.0 (2,970)
미취업	76.5	10.6	12.9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9.5	9.3	11.2	100.0 (2,075)
제2오분위	74.7	10.4	14.9	100.0 (2,051)
제3오분위	70.0	10.8	19.3	100.0 (2,041)
제4오분위	69.5	12.0	18.6	100.0 (2,047)
제5오분위	67.9	13.7	18.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7	12.1	18.2	100.0 (8,544)
제한 있음	85.6	6.9	7.4	100.0 (1,735)
2011년도	66.2	20.4	13.4	100.0 (10,54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임.

3) 과음주는 일주일에 8잔 이상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임.

3. 운동실천

응답노인의 58.1%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41.9%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실천 노인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43.9%이고, 14.2%는 권장수준 미달의 운동을 하고 있다(〈표 8-11〉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운동실천율(62.4%)이 읍·면부 노인(44.2%) 보다 더 높고, 권장수준 운동율도 동부 노인(48.0%)이 읍·면부 노인(30.6%) 보다 더 높다. 성별 운동실천율에서는 남자노인(63.2%)이 여자노인(54.4%) 보다 더 높고, 권장수준 운동율은 남자노인(52.9%)과 여자노인(37.5%) 간에 15.4%p의 큰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권장운동률을 보면 65~69세 연령군은 53.1%, 70~74세 연령군은 47.7%, 75~79세 연령군은 38.4%, 80~84세 연령군은 33.4%, 85세 이상 연령군은 22.9% 등의 순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운동실천율(60.4%)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운동실천율(54.4%) 보다 더 높고, 권장운동률은 각각 48.1%, 37.1%이다. 가구형태별 운동실천율은 노인부부가구가 60.3%로 가장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권장수준 운동률도 노인부부가구는 48.0%로 가장 높은데, 동 비율이 노인독거가구는 각각 57.7%, 39.2%이고, 자녀동거가구는 각각 55.9%, 42.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운동실천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운동실천율은 42.1%로 가장 낮고, 전문대학 이상은 76.4%로 매우 높다. 특히 권장수준 운동률은 전문대학 이상(63.1%)은 무학(글자모름)(25.8%)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운동실천율이 49.7%로 미취업노인의 61.5%보다 더 낮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52.5%가 운동을 하는데 비해 제5오분위는 64.0%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62.1%)이 기능제한 없는 노인(38.2%)에 비해 운동실천율이 높고, 권장수준 운동률에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47.9%)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24.2%)보다 약 두 배 정도 더 높다.

〈표 8-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단위: %, 명)

특성	운동실천율 ²⁾	운동 정도			계 (명)
		비활동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³⁾	
전체 ¹⁾	58.1	41.9	14.2	43.9	100.0 (10,279)
지역					
동부	62.4	37.6	14.4	48.0	100.0 (7,870)
읍·면·부	44.2	55.8	13.6	30.6	100.0 (2,409)
성					
남자	63.2	36.8	10.4	52.9	100.0 (4,291)
여자	54.4	45.6	17.0	37.5	100.0 (5,989)
연령					
65~69세	64.7	35.3	11.6	53.1	100.0 (3,303)
70~74세	61.9	38.1	14.2	47.7	100.0 (2,809)
75~79세	55.2	44.8	16.8	38.4	100.0 (2,120)
80~84세	48.9	51.1	15.5	33.4	100.0 (1,284)
85세 이상	39.0	61.0	16.1	22.9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0.4	39.6	12.3	48.1	100.0 (6,338)
배우자 없음	54.4	45.6	17.3	37.1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7.7	42.3	18.5	39.2	100.0 (2,390)
노인부부	60.3	39.7	12.3	48.0	100.0 (4,595)
자녀동거	55.9	44.1	13.6	42.3	100.0 (2,881)
기타	50.7	49.3	14.0	36.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2.1	57.9	16.3	25.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48.2	51.8	14.7	33.5	100.0 (2,136)
초등학교	55.1	44.9	14.2	40.9	100.0 (3,303)
중학교	65.5	34.5	14.3	51.2	100.0 (1,347)
고등학교	70.7	29.3	12.7	58.0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6.4	23.6	13.3	63.1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49.7	50.3	12.0	37.7	100.0 (2,970)
미취업	61.5	38.5	15.1	46.4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5	47.5	17.0	35.5	100.0 (2,075)
제2오분위	53.4	46.6	14.4	39.0	100.0 (2,051)
제3오분위	60.1	39.9	14.0	46.1	100.0 (2,041)
제4오분위	60.6	39.4	13.7	46.9	100.0 (2,047)
제5오분위	64.0	36.0	11.6	52.5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2.1	37.9	14.2	47.9	100.0 (8,544)
제한 있음	38.2	61.8	14.1	24.2	100.0 (1,735)
2011년도	50.3	49.7	11.3	39.1	100.0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운동실천율 = 권장수준 미달+권장수준

3)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표 8-11〉에서는 노인의 58.1%가 현재 운동을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표 8-12〉에 제시하였다. 주로 하는 운동 종류는 걷기가 6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체조(맨손체조 및 생활체조)로 7.2%, 등산 6.3%, (실내)자전거 5.6%, 보디빌딩(헬스) 3.7%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걷기(68.1%), 등산(6.9%), 체조(6.8%), 자전거(5.4%), 보디빌딩(4.0%) 등의 순이고, 읍·면부 노인은 걷기(68.8%), 체조(9.2%), 자전거(6.4%), 등산(3.9%), 요가·단전호흡(2.7%) 등의 순이다.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산과 보디빌딩(헬스)의 비율이 더 높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조, 자전거, 요가·단전호흡 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걷기(61.1%), 등산(11.3%), 자전거(9.9%), 체조(6.4%), 보디빌딩(5.2%)의 순이고, 여자노인은 걷기(74.2%), 체조(7.9%), 수영(3.6%), 요가·단전호흡(3.4%), 보디빌딩(헬스)(2.5%) 등의 순으로,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산, 자전거, 보디빌딩(헬스)의 비율이 더 높고, 여자노인은 걷기, 체조, 수영 등의 비율이 더 높다.

〈표 8-12〉 노인(65세 이상)의 지역 및 성별 운동실천자의 운동종류

(단위: %, 명)

특성	전체 ²⁾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운동실천율 ¹⁾ (대상자수)	58.1 (10,279)	62.3 (7,870)	44.2 (2,409)	63.2 (4,287)	54.4 (5,993)
구기					
게이트볼	0.7	0.3	2.4	0.9	0.5
골프/그라운드 골프	0.6	0.6	0.5	0.8	0.3
당구/볼링/축구	0.1	0.1	0.0	0.2	0.0
라켓					
배드민턴	0.4	0.4	0.3	0.4	0.3
탁구	0.8	0.8	0.8	1.3	0.5
테니스/정구	0.1	0.2	0.0	0.3	0.0
무도/격투기(검도/무도/유도)	0.1	0.1	0.1	0.2	0.1
민속스포츠(석궁, 양궁, 국궁)	0.0	0.0	0.0	0.0	0.0
리듬스포츠					
댄스스포츠	0.6	0.6	0.3	0.6	0.6
아쿠아로빅	0.6	0.7	0.1	0.0	1.1
에어로빅	0.3	0.3	0.5	0.1	0.5
체력단련					
걷기	68.2	68.1	68.8	61.1	74.2
마라톤	0.1	0.1	0.0	0.1	0.0
기타 육상	0.2	0.2	0.0	0.3	0.1
보디빌딩(헬스)	3.7	4.0	2.6	5.2	2.5
수영	2.3	2.5	1.3	0.7	3.6
요가, 단전호흡	1.9	1.8	2.7	0.2	3.4
(실내)자전거	5.6	5.4	6.4	9.9	1.9
줄넘기/홀라후프	0.2	0.1	0.2	0.1	0.2
체조(맨손체조/생활체조)	7.2	6.8	9.2	6.4	7.9
지상레저스포츠					
등산	6.3	6.9	3.9	11.3	2.2
빙상/산악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0.1	0.0	0.1	0.1	0.0
수상 레저스포츠	0.0	0.0	0.0	0.0	0.0
기타 스포츠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973)	(4,910)	(1,063)	(2,715)	(3,25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운동을 하는(운동실천자) 5,972명을 대상으로 함.

4. 영양관리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8-13>과 같다. 노인의 영양관리상태는 51.0%는 양호한 수준이고, 28.8%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읍·면부 노인(20.7%)과 동부 노인(20.1%)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성별로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여자노인이 23.4%로 남자노인의 15.9% 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영양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3.3%가 영양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30.6%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13.8%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36.8%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부부가구의 13.8%, 자녀동거가구의 16.4% 보다 두 배 이상 영양관리의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일수록 영양상태의 위험이 높은 경향인데,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37.7%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고, 그 비율이 전문대학 이상은 8.4%로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노인의 22.6%가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노인(14.4%)보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가구소득별 영양관리 개선 요구율을 비교하면, 제1오분위는 40.5%, 제3오분위는 16.3%, 제5오분위는 7.7% 등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영양관리의 개선이 더 필요한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의 경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39.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은 16.3%가 영양관리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특성	양호 (0~2점)	영양관리주의 (3~5점)	영양관리개선 (6점 이상)	계 (명)	평균 (점수)
전체 ¹⁾	51.0	28.8	20.2	100.0 (10,279)	3.7
지역					
동부	52.1	27.8	20.1	100.0 (7,870)	3.7
읍·면·부	47.3	32.0	20.7	100.0 (2,409)	3.8
성					
남자	56.9	27.2	15.9	100.0 (4,291)	3.2
여자	46.7	29.9	23.4	100.0 (5,989)	4.1
연령					
65~69세	64.1	23.0	13.0	100.0 (3,303)	2.8
70~74세	52.2	28.9	18.9	100.0 (2,809)	3.6
75~79세	43.6	32.2	24.3	100.0 (2,120)	4.2
80~84세	39.4	33.3	27.3	100.0 (1,284)	4.5
85세 이상	30.0	36.7	33.3	100.0 (764)	5.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0.4	25.8	13.8	100.0 (6,338)	3.0
배우자 없음	35.8	33.6	30.6	100.0 (3,942)	4.9
가구형태					
노인독거	27.5	35.7	36.8	100.0 (2,390)	5.6
노인부부	59.6	26.6	13.8	100.0 (4,595)	3.0
자녀동거	56.5	27.1	16.4	100.0 (2,881)	3.3
기타	51.9	24.6	23.4	100.0 (414)	4.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8.4	34.0	37.7	100.0 (971)	5.8
무학(글자해독)	37.3	34.2	28.5	100.0 (2,136)	4.8
초등학교	51.8	29.0	19.2	100.0 (3,303)	3.6
중학교	58.5	27.7	13.8	100.0 (1,347)	3.1
고등학교	64.0	23.3	12.6	100.0 (1,717)	2.7
전문대학 이상	70.6	21.0	8.4	100.0 (805)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58.2	27.4	14.4	100.0 (2,970)	3.1
미취업	48.0	29.4	22.6	100.0 (7,309)	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4	33.2	40.5	100.0 (2,075)	6.0
제2오분위	45.3	31.4	23.2	100.0 (2,051)	4.1
제3오분위	54.3	29.4	16.3	100.0 (2,041)	3.4
제4오분위	59.8	26.8	13.3	100.0 (2,047)	3.0
제5오분위	69.4	22.9	7.7	100.0 (2,038)	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8	26.9	16.3	100.0 (8,544)	3.3
제한 있음	22.2	38.3	39.4	100.0 (1,735)	6.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NSI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 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5. 비만지수(BMI)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비만지수(BMI)를 살펴보았다. 비만지수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활용하여, $BMI = \text{체중} / (\text{신장 m})^2$ 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경도비만 25~30 미만, 중증도비만 3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신장(키)과 체중(몸무게)을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4.7%는 저체중이며, 33.1%는 정상, 27.3%는 과체중, 31.1%가 경도비만, 3.8%가 중증도 비만 등으로 경도비만 이상의 비만도 비율이 34.9%로 나타났다 (<표 8-14>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5.9%)이 동부 노인(4.3%)에 비해서 저체중에 비율이 높으며, 동부 노인은 경도비만 이상(35.7%)의 비율이 읍면부 노인(32.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노인(5.0%)이 남자노인(4.3%)에 비해 저체중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남자노인(31.4%)에 비해 경도비만 이상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7.4%).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체중의 비중이 높아지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저체중의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과체중 이상(68.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연령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저체중(5.7%) 및 경도비만 이상(36.4%)의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저체중(4.0%) 및 경도비만 이상(34.0%) 비율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저체중(5.5%) 및 경도비만 이상(36.8%)의 비율이 각각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저체중(4.1%) 및 경도비만 이상(33.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저체중의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무학(글자모름)인 경우(6.7%) 가장 높고, 전문대학 이상(2.6%)과 차이를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의 경우 저체중(3.8%) 및 경도비만 이상(3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취업노인(5.0%, 35.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구소득에서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체중의 비율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 저체중 비율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8.0%)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4.0%)보다 더 높고, 과체중 및 경도비만 비율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8-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단위: %, 명)

특성	비만지수(BMI) ²⁾					계 (명)
	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비만	중증도비만	
전체 ¹⁾	4.7	33.1	27.3	31.1	3.8	100.0 (10,279)
지역						
동부	4.3	32.1	27.8	31.7	4.0	100.0 (7,870)
읍·면부	5.9	36.4	25.7	28.9	3.2	100.0 (2,409)
성						
남자	4.3	34.2	30.1	29.5	1.9	100.0 (4,291)
여자	5.0	32.3	25.3	32.2	5.2	100.0 (5,989)
연령						
65~69세	2.4	28.8	30.4	35.0	3.5	100.0 (3,303)
70~74세	3.7	30.2	28.1	33.6	4.4	100.0 (2,809)
75~79세	5.2	36.3	25.9	28.5	4.0	100.0 (2,120)
80~84세	7.1	40.2	23.5	26.1	3.1	100.0 (1,284)
85세 이상	12.5	42.2	21.6	20.0	3.8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	32.3	29.8	31.0	3.0	100.0 (6,338)
배우자 없음	5.7	34.5	23.4	31.2	5.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2	34.9	24.0	31.5	4.4	100.0 (2,390)
노인부부	4.1	32.9	29.9	30.4	2.8	100.0 (4,595)
자녀동거	5.5	32.5	25.3	32.1	4.7	100.0 (2,881)
기타	2.4	30.3	32.4	29.1	5.8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7	39.3	21.3	27.0	5.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5.7	33.5	23.7	31.9	5.2	100.0 (2,136)
초등학교	4.7	33.1	28.1	30.3	3.8	100.0 (3,303)
중학교	3.7	29.7	31.4	32.3	2.9	100.0 (1,347)
고등학교	3.9	31.3	28.8	33.2	2.8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6	34.5	31.2	29.8	1.9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3.8	32.2	29.6	31.6	2.8	100.0 (2,970)
미취업	5.0	33.5	26.4	30.8	4.2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	34.5	24.0	31.0	4.6	100.0 (2,075)
제2오분위	5.9	34.8	28.5	27.4	3.4	100.0 (2,051)
제3오분위	4.5	32.4	27.7	32.0	3.5	100.0 (2,041)
제4오분위	3.7	31.6	28.5	32.4	3.8	100.0 (2,047)
제5오분위	3.4	32.6	28.1	32.3	3.6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32.3	28.3	32.0	3.4	100.0 (8,544)
제한 있음	8.0	37.1	22.7	26.5	5.8	100.0 (1,735)
2011년도	5.5	41.4	25.1	25.5	2.5	100.0 (10,5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 실측이 아닌 경우가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6. 건강검진 및 병원·치과 미치료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3.8%이다(〈표 8-15〉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85.0%로 동부 노인의 83.4% 보다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86.4%)이 여자노인(81.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령별 수진율은 65~69세 연령군은 90.4%로 가장 높고, 70~74세 연령군은 87.0%, 75~79세 연령군은 82.9%, 80~84세 연령군은 77.9%, 85세 이상 연령군은 55.6% 등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수진율(87.9%)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77.1%) 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수진율이 79.1%로 가장 낮는데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88.2%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 건강검진 수진율은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수진율이 71.3%이고, 초등학교 84.0%, 고등학교 87.0%, 중학교 89.4%, 전문대학 이상 89.8% 등으로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수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 수진율은 취업노인이 89.4%로 미취업노인의 81.5%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수진율이 76.0%로 가장 낮으며, 제3오분위의 경우 85.6%, 제5오분위 87.1%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진율은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수진율(86.1%)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72.2%)에 비해 수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병원(치과 제외)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연간 병원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전체노인 중 8.8%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8.9%)의 병원 미치료율과 읍·면부 노인(8.7%)의 미치료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병원 미치료율(10.3%)이 남자노인(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령별 병원 미치료율은 65~69세 연령군이 6.0%로 가장 낮고, 70~74세 연령군 9.1%, 75~79세 연령군 10.2%, 80~84세 연령군 10.0%, 85세 이상 연령군 14.7% 등의 순으로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12.3%)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6.7%) 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병원 미치료율이 12.6%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9.6%, 기타가구 8.9%, 노인부부가구 6.4% 순이다. 교육수준별 병원 미치료율은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16.2%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교 8.9%, 고등학교 5.7%, 중학교 5.0%, 전문대학 이상 3.1% 등으로 미치료율은 대체적으로 저학력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 병의원 미치료율은 미취업 노인이 9.1%로 취업노인의 8.1% 보다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병의원 미치료율이 14.8%로 가장 높고, 제3오분위 7.9%, 제5오분위 4.2%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이 증가하였다. 기능상태별 병의원 미치료율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8.7%)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6.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연간 치과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18.0%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병의원 미치료율 8.8%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19.0%)의 치과 미치료율이 읍·면부 노인(15.0%)의 미치료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치과 미치료율(19.9%)이 남자노인(1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령별 치과 미치료율은 65~69세 연령군이 16.3%로 가장 낮고, 70~74세 연령군 18.8%, 75~79세 연령군 18.3%, 80~84세 연령군 18.4%, 85세 이상 연령군 21.7% 등으로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21.8%)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15.7%) 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치과 미치료율이 21.9%로 가장 높고, 기타가구 21.5%, 자녀동거가구 19.2%, 노인부부가구는 15.0% 순이다.

교육수준별 치과 미치료율은 무학(글자모름)인 경우 25.8%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19.2%, 중학교 13.8%, 고등학교 12.9%, 전문대학 이상 7.7% 등으로 미치료율은 저학력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 치과 미치료율은 미취업노인이 18.6%로 취업노인의 16.7%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치과 미치료율이 25.2%로 가장 높고, 제3오분위 19.5%, 제5오분위 9.1%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이 증가한다. 기능상태별 치과 미치료율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27.8%)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6.1%) 보다 더 높다.

〈표 8-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단위: %, 명)

특성	건강검진수진율	미치료율		(대상자수)
		병원진료	치과진료	
전체 ¹⁾	83.8	8.8	18.0	(10,279)
지역				
동부	83.4	8.9	19.0	(7,870)
읍면부	85.0	8.7	15.0	(2,409)
성				
남자	86.4	6.8	15.5	(4,291)
여자	81.9	10.3	19.9	(5,989)
연령				
65~69세	90.4	6.0	16.3	(3,303)
70~74세	87.0	9.1	18.8	(2,809)
75~79세	82.9	10.2	18.3	(2,120)
80~84세	77.9	10.0	18.4	(1,284)
85세 이상	55.6	14.7	21.7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7.9	6.7	15.7	(6,338)
배우자 없음	77.1	12.3	21.8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79.1	12.6	21.9	(2,390)
노인부부	88.2	6.4	15.0	(4,595)
자녀동거	80.6	9.6	19.2	(2,881)
기타	83.5	8.9	21.5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1.3	16.2	25.8	(971)
무학(글자해독)	80.7	12.5	23.4	(2,136)
초등학교	84.0	8.9	19.2	(3,303)
중학교	89.4	5.0	13.8	(1,347)
고등학교	87.0	5.7	12.9	(1,717)
전문대학 이상	89.8	3.1	7.7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89.4	8.1	16.7	(2,970)
미취업	81.5	9.1	18.6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0	14.8	25.2	(2,075)
제2오분위	84.2	10.2	20.3	(2,051)
제3오분위	85.6	7.9	19.5	(2,041)
제4오분위	86.0	7.1	16.3	(2,047)
제5오분위	87.1	4.2	9.1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6.1	6.8	16.1	(8,544)
제한 있음	72.2	18.7	27.8	(1,735)
2011년도	81.6	-	-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미치료율은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한 비율임.



제9장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제1절 신체적 기능 상태

제2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 수발



9

노인의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

노인의 기능저하는 노인 자신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수요로 이어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노인의 기능 저하 수준을 감각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기능저하에 따른 간병수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신체적 기능 상태

1. 시력, 청력과 씹기 능력

노인의 시력과 청력의 감각기능과 씹기 기능은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수준의 유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먼저, 시력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은 눈의 노화로 시력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돋보기와 같은 보조기의 착용여부가 중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체노인의 61.2%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동부 노인의 보조기 착용률(64.2%)이 읍면부 노인(51.4%)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여자노인(59.0%)보다는 남자노인이(64.3%), 무배우 노인(58.9%)보다는 유배우 노인(62.7%)이, 취업중인 노인(57.8%)보다는 미취업 노인이(62.5%),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54.8%)보다는 제한이 없는 노인이(62.6%) 보조기 착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62.6%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65~69세: 62.2%, 85세 이상: 52.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무학(글자모름) 41.5%, 전문대학 이상 70.5%) 보조기 사용률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시력수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정도는 전체 노인의 39.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기의 미착용률(38.8%)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조기 미착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이(42.7%) 동부 노인(38.5%)보다 불편함을 좀 더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여자노인(43.7%)이 남자노인(33.4%)보다 불편함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31.6%, 85세 이상 56.2%)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58.1%, 전문대학 이상 17.7%), 미취업노인(41.2%)이 취업노인(35.2%)보다 그 수준이 높다. 한편,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45.8%)의 경우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무배우 노인(45.6%)이 유배우 노인(35.6%)보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56.6%)이 제한이 없는 노인(36.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제1오분위 47.9%, 제5오분위 29.4%)(<표 9-1> 참조).

청력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가 일반적이지만, 시력과 같은 급격한 퇴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의 착용여부가 중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체노인의 4.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력만큼의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청기 사용실태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읍면부 노인(4.9%)이 동부 노인(3.7%)보다 보조기 사용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2.0%, 85세 이상 9.7%), 유배우 노인(3.6%)보다는 무배우 노인(4.7%)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4.6%, 전문대학 이상 3.2%), 취업 중 보다는 미취업 노인이(취업노인: 3.3%, 미취업노인: 4.3%),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5.3%, 제5오분위 3.5%) 역시 사용률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6.0%)이 그렇지 않은 노인(3.6%)보다 보조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청력수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정도는 전체노인의 24.6%로 시력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당수 노인이 청력의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있다.

이를 다시 노인의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27.8%)이 동부 노인(23.6%)보다, 무배우 노인(30.3%)이 유배우 노인(21.2%)보다 생활상의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28.9%)가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14.4%, 85세 이상 52.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

름) 40.2%, 전문대학 이상 16.2%),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31.8%, 제5오분위: 20.2%) 생활상의 불편함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 노인(26.3%)이 취업 중인 노인(20.5%)보다 그리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39.5%)이 그렇지 않은 노인(21.6%)보다 불편함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9-2〉 참조).

씹기는 음식물의 섭취 및 소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표 9-3〉을 통하여 씹기 기능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노인의 51.2%가 노화로 인한 치아결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틀니와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더라도 자연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씹기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

먼저, 특성별로 보조기의 사용률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57.1%), 여자노인(53.5%), 후기노인(65~69세 35.5%, 85세 이상 74.3%)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무배우 노인(58.1%), 독거노인(59.5%), 미취업 노인(52.4%),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61.6%)에게서 보조기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65.1%, 전문대학 이상 36.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61.2%, 제5오분위 41.7%) 보조기 사용률은 높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보조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의 씹기 수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정도는 전체 노인의 54.6%로 절반 정도의 노인이 씹기의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노인의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57.8%), 여자노인(57.6%), 무배우 노인(63.0%), 독거노인(64.1%), 미취업노인(56.4%), 신체기능제한노인(74.4%)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73.9%, 전문대학 이상 28.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67.5%, 제5오분위 39.5%) 불편함의 정도가 크다.

〈표 9-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체	61.2	100.0 (10,451)	60.6	34.3	5.2	100.0 (10,279)
지역						
동부	64.2	100.0 (8,008)	61.6	33.9	4.6	100.0 (7,870)
읍면부	51.4	100.0 (2,443)	57.3	35.6	7.1	100.0 (2,409)
성						
남자	64.3	100.0 (4,354)	66.6	30.1	3.3	100.0 (4,291)
여자	59.0	100.0 (6,097)	56.3	37.3	6.5	100.0 (5,989)
연령						
65~69세	62.2	100.0 (3,316)	68.4	28.6	2.9	100.0 (3,303)
70~74세	63.3	100.0 (2,830)	62.1	34.2	3.7	100.0 (2,809)
75~79세	60.5	100.0 (2,151)	57.1	36.6	6.3	100.0 (2,120)
80~84세	60.5	100.0 (1,319)	52.7	39.2	8.1	100.0 (1,284)
85세 이상	52.8	100.0 (835)	43.8	44.2	12.1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7	100.0 (6,418)	64.4	31.7	3.9	100.0 (6,338)
배우자 없음	58.9	100.0 (4,033)	54.4	38.4	7.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60.0	100.0 (2,407)	54.2	38.1	7.7	100.0 (2,390)
노인부부	62.6	100.0 (4,655)	63.3	32.8	3.9	100.0 (4,595)
자녀동거	60.4	100.0 (2,973)	60.6	34.0	5.4	100.0 (2,881)
기타	58.7	100.0 (416)	65.7	30.7	3.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5	100.0 (1,006)	41.9	45.2	12.9	100.0 (971)
무학(글자해독)	57.3	100.0 (2,181)	51.7	41.9	6.5	100.0 (2,136)
초등학교	62.3	100.0 (3,345)	59.2	35.5	5.3	100.0 (3,303)
중학교	65.4	100.0 (1,376)	65.2	31.4	3.4	100.0 (1,347)
고등학교	67.7	100.0 (1,732)	70.9	26.8	2.3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0.5	100.0 (811)	82.3	16.5	1.1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57.8	100.0 (2,974)	64.8	31.7	3.5	100.0 (2,970)
미취업	62.5	100.0 (7,477)	58.8	35.3	5.9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7	100.0 (2,088)	52.1	39.2	8.7	100.0 (2,075)
제2오분위	61.9	100.0 (2,085)	53.5	40.5	6.0	100.0 (2,051)
제3오분위	62.9	100.0 (2,085)	61.7	34.0	4.4	100.0 (2,041)
제4오분위	59.8	100.0 (2,082)	65.1	31.2	3.7	100.0 (2,047)
제5오분위	63.5	100.0 (2,083)	70.6	26.3	3.1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2.6	100.0 (8,545)	64.0	32.2	3.8	100.0 (8,544)
제한 있음	54.8	100.0 (1,906)	43.4	44.5	12.1	100.0 (1,735)
2011년도	58.6	100.0 (10,674)	-	-	- ³⁾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3) 2011년에는 시력 상태(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사용 후)를 조사하였음.

〈표 9-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체	4.0	100.0 (10,451)	75.4	20.5	4.1	100.0 (10,279)
지역						
동부	3.7	100.0 (8,008)	76.4	19.8	3.8	100.0 (7,870)
읍면부	4.9	100.0 (2,443)	72.2	22.7	5.1	100.0 (2,409)
성						
남자	4.5	100.0 (4,354)	75.0	20.9	4.1	100.0 (4,291)
여자	3.6	100.0 (6,097)	75.7	20.3	4.1	100.0 (5,989)
연령						
65~69세	2.0	100.0 (3,316)	85.6	13.4	1.0	100.0 (3,303)
70~74세	3.0	100.0 (2,830)	79.9	17.7	2.4	100.0 (2,809)
75~79세	4.7	100.0 (2,151)	71.1	24.7	4.2	100.0 (2,120)
80~84세	6.5	100.0 (1,319)	62.5	29.2	8.3	100.0 (1,284)
85세 이상	9.7	100.0 (835)	47.9	35.5	16.6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6	100.0 (6,418)	78.8	17.9	3.2	100.0 (6,338)
배우자 없음	4.7	100.0 (4,033)	69.7	24.8	5.5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0	100.0 (2,407)	71.1	24.4	4.5	100.0 (2,390)
노인부부	3.6	100.0 (4,655)	78.3	18.2	3.5	100.0 (4,595)
자녀동거	4.1	100.0 (2,973)	73.3	21.6	5.1	100.0 (2,881)
기타	1.4	100.0 (416)	81.6	16.5	1.9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	100.0 (1,006)	59.8	30.9	9.3	100.0 (971)
무학(글자해독)	5.1	100.0 (2,181)	69.2	25.6	5.2	100.0 (2,136)
초등학교	3.9	100.0 (3,345)	75.7	20.4	3.8	100.0 (3,303)
중학교	3.3	100.0 (1,376)	81.1	16.5	2.4	100.0 (1,347)
고등학교	3.3	100.0 (1,732)	82.7	14.4	2.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3.2	100.0 (811)	83.8	14.8	1.4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3.3	100.0 (2,974)	79.5	17.9	2.6	100.0 (2,970)
미취업	4.3	100.0 (7,477)	73.7	21.6	4.7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100.0 (2,088)	68.2	25.9	5.9	100.0 (2,075)
제2오분위	4.8	100.0 (2,085)	72.5	22.9	4.6	100.0 (2,051)
제3오분위	2.8	100.0 (2,085)	76.9	19.1	4.0	100.0 (2,041)
제4오분위	3.6	100.0 (2,082)	80.0	17.4	2.6	100.0 (2,047)
제5오분위	3.5	100.0 (2,083)	79.8	17.0	3.2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	100.0 (8,545)	78.4	18.7	2.9	100.0 (8,544)
제한 있음	6.0	100.0 (1,906)	60.5	29.5	10.0	100.0 (1,735)
2011년도	3.9	100.0 (10,674)	-	-	- ³⁾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3) 2011년에는 청력 상태(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사용 후)를 조사하였음.

〈표 9-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계 (명)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51.2	100.0 (10,451)	45.3	39.3	15.3	100.0 (10,279)
지역						
동부	49.4	100.0 (8,008)	46.3	39.6	14.2	100.0 (7,870)
읍면부	57.1	100.0 (2,443)	42.2	38.6	19.2	100.0 (2,409)
성						
남자	48.1	100.0 (4,354)	49.4	38.0	12.6	100.0 (4,291)
여자	53.5	100.0 (6,097)	42.4	40.3	17.3	100.0 (5,989)
연령						
65~69세	35.5	100.0 (3,316)	56.7	34.2	9.1	100.0 (3,303)
70~74세	48.9	100.0 (2,830)	47.4	40.5	12.1	100.0 (2,809)
75~79세	59.9	100.0 (2,151)	37.2	43.9	18.9	100.0 (2,120)
80~84세	67.2	100.0 (1,319)	37.0	40.0	23.1	100.0 (1,284)
85세 이상	74.3	100.0 (835)	24.9	43.7	31.4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9	100.0 (6,418)	50.5	37.2	12.3	100.0 (6,338)
배우자 없음	58.1	100.0 (4,033)	37.0	42.8	20.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9.5	100.0 (2,407)	35.9	43.9	20.2	100.0 (2,390)
노인부부	47.1	100.0 (4,655)	50.3	36.9	12.8	100.0 (4,595)
자녀동거	50.5	100.0 (2,973)	45.1	39.3	15.5	100.0 (2,881)
기타	54.8	100.0 (416)	45.4	40.8	13.8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5.1	100.0 (1,006)	26.1	42.8	31.1	100.0 (971)
무학(글자해독)	60.0	100.0 (2,181)	32.2	47.1	20.7	100.0 (2,136)
초등학교	53.4	100.0 (3,345)	43.5	41.0	15.5	100.0 (3,303)
중학교	44.5	100.0 (1,376)	52.0	36.7	11.4	100.0 (1,347)
고등학교	40.2	100.0 (1,732)	58.4	34.3	7.3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36.5	100.0 (811)	71.9	23.0	5.1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48.2	100.0 (2,974)	49.6	38.0	12.4	100.0 (2,970)
미취업	52.4	100.0 (7,477)	43.6	39.9	16.5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2	100.0 (2,088)	32.5	44.8	22.7	100.0 (2,075)
제2오분위	56.9	100.0 (2,085)	36.3	44.7	19.0	100.0 (2,051)
제3오분위	51.5	100.0 (2,085)	45.2	41.5	13.3	100.0 (2,041)
제4오분위	44.7	100.0 (2,082)	52.2	35.5	12.4	100.0 (2,047)
제5오분위	41.7	100.0 (2,083)	60.5	30.2	9.3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8.9	100.0 (8,545)	49.3	38.4	12.3	100.0 (8,544)
제한 있음	61.6	100.0 (1,906)	25.6	43.8	30.5	100.0 (1,735)
2011년도	52.9	100.0 (10,674)	-	-	- ³⁾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3) 2011년에는 씹기 상태(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사용 후)를 조사하였음.

2. 근력

근력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력의 저하는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5회 수행했는가의 여부로 하체의 근력상태를 보고자 하였고, 다른 지표와 함께 신체기능상의 허약한 상태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표 9-4>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79.7%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0.3%에 해당하는 노인은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수행시도조차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수행여부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81.6%), 남자노인(87.4%), 배우자가 있는 노인(84.9%), 기타가구노인(86.3%), 취업노인(89.4%),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87.8%)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수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91.2%, 85세 이상 51.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무학(글자모름) 57.0%, 전문대학 이상 92.7%),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제1오분위 69.2%, 제5오분위 85.3%) 수행률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 기능의 제한상태(functional limitation)를 보고 기능의 허약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도 다양하게 개발·제시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 운동장(400m) 한 바퀴 걷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등 6개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인 지표는 운동장(400m) 한 바퀴 뛰기(2.3점)였고,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인 것은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3.8점)였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대체로 동부 노인, 남자노인, 유배우 노인, 취업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 근력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특정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았다(<표 9-5> 참조).

〈표 9-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특성	수행함	시도했으나 수행 못함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	계 (명)
전체 ¹⁾	79.7	18.4	1.9	100.0 (10,451)
지역				
동부	81.6	16.6	1.8	100.0 (8,008)
읍면부	73.3	24.3	2.4	100.0 (2,443)
성				
남자	87.4	11.0	1.6	100.0 (4,354)
여자	74.2	23.7	2.2	100.0 (6,097)
연령				
65~69세	91.2	7.9	0.9	100.0 (3,316)
70~74세	85.3	13.7	1.0	100.0 (2,830)
75~79세	75.6	22.2	2.2	100.0 (2,151)
80~84세	63.2	34.2	2.6	100.0 (1,319)
85세 이상	51.4	40.9	7.7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4.9	13.6	1.5	100.0 (6,418)
배우자 없음	71.3	26.0	2.6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2.3	26.1	1.6	100.0 (2,407)
노인부부	84.0	14.6	1.4	100.0 (4,655)
자녀동거	78.0	19.1	3.0	100.0 (2,973)
기타	86.3	11.3	2.4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7.0	39.8	3.3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71.9	25.7	2.3	100.0 (2,181)
초등학교	79.6	18.5	2.0	100.0 (3,345)
중학교	87.9	10.6	1.5	100.0 (1,376)
고등학교	90.4	8.5	1.1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92.7	5.9	1.4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89.4	10.4	0.2	100.0 (2,974)
미취업	75.8	21.5	2.6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2	28.4	2.3	100.0 (2,088)
제2오분위	76.2	21.4	2.4	100.0 (2,085)
제3오분위	82.5	15.8	1.7	100.0 (2,085)
제4오분위	85.2	13.6	1.2	100.0 (2,082)
제5오분위	85.3	12.8	1.9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87.8	12.0	0.2	100.0 (8,545)
제한 있음	43.2	47.0	9.8	100.0 (1,906)
2011년도	76.1	23.9 ²⁾		100.0 (10,66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에는 수행함/수행하지 못함으로만 구분하였음.

〈표 9-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¹⁾²⁾

(단위: 점, 명)

특성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운동장 한바퀴 걷기(400m)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쭈그러 앉기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달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체	2.3	3.4	3.3	3.2	3.8	3.4
지역						
동부	2.3	3.5	3.3	3.3	3.8	3.4
읍면부	2.1	3.2	3.1	3.1	3.7	3.4
성						
남자	2.6	3.6	3.5	3.5	3.9	3.7
여자	2.0	3.3	3.1	3.1	3.7	3.2
연령						
65~69세	2.7	3.7	3.6	3.5	3.9	3.7
70~74세	2.3	3.5	3.4	3.3	3.9	3.6
75~79세	2.0	3.3	3.1	3.1	3.7	3.3
80~84세	1.8	3.1	2.8	3.0	3.7	3.0
85세 이상	1.6	2.7	2.5	2.7	3.5	2.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	3.5	3.4	3.4	3.8	3.6
배우자 없음	2.0	3.2	3.0	3.0	3.7	3.2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3.3	3.1	3.1	3.7	3.2
노인부부	2.4	3.5	3.4	3.4	3.8	3.6
자녀동거	2.3	3.4	3.2	3.2	3.8	3.3
기타	2.4	3.5	3.3	3.3	3.8	3.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	2.9	2.7	2.7	3.5	2.8
무학(글자해독)	1.9	3.2	3.0	3.0	3.7	3.2
초등학교	2.2	3.4	3.2	3.2	3.8	3.4
중학교	2.5	3.6	3.5	3.4	3.9	3.6
고등학교	2.7	3.7	3.6	3.6	3.9	3.7
전문대학 이상	2.9	3.7	3.7	3.7	3.9	3.8
현취업상태						
취업중	2.6	3.6	3.5	3.5	3.9	3.7
미취업	2.2	3.3	3.2	3.2	3.8	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3.2	3.0	3.0	3.7	3.2
제2오분위	2.1	3.3	3.1	3.2	3.7	3.3
제3오분위	2.3	3.5	3.3	3.3	3.8	3.5
제4오분위	2.4	3.5	3.4	3.4	3.8	3.6
제5오분위	2.6	3.6	3.5	3.4	3.9	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	3.6	3.4	3.4	3.9	3.6
제한 있음	1.5	2.6	2.4	2.5	3.4	2.5
2011년도 ³⁾	2.2	3.4	3.2	3.2	3.8	3.5

주: 1) 평균점수는 전혀 할 수 없다=1, 매우 어렵다=2, 약간 어렵다=3, 전혀 어렵지 않다=4로 계산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함. '모르겠다' 응답자 수는 아래와 같음.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75명, 운동장 한바퀴 걷기(400m): 3명, 쉬지않고 10계단 오르기: 20명, 쌀 1말(8kg)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3명)

3) 2011년도 응답자 수는 10,669명임.

제2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 수발

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7개 지표 중에서 완전자립률이 가장 높은 것은 차려 놓은 음식 먹기(99.1%)이고, 그 다음으로는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98.7%),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98.2%), 대소변 조절하기(97.8%), 옷 입기(97.4%), 세수·양치질·머리감기(96.6%), 목욕 또는 샤워하기(9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작이 목욕 또는 샤워하기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것은 차려 놓은 음식 먹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가장 늦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능이다(〈표 9-6〉 참조).

〈표 9-6〉 노인(65세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¹⁾	2011년 완전자립률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97.4	2.1	0.5	100.0(10,451)	97.5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96.6	2.7	0.7	100.0(10,451)	96.5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94.2	4.4	1.4	100.0(10,451)	94.6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9.1	0.7	0.3	100.0(10,451)	98.6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8.7	0.8	0.5	100.0(10,451)	98.3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98.2	1.2	0.6	100.0(10,451)	98.1
대소변 조절하기	97.8	1.8	0.4	100.0(10,451)	96.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그런데, 7개의 지표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체의 0.5%이고, 6개 이상의 지표에서는 0.9%, 5개 이상의 지표에서는 1.3%, 4개 이상의 지표에서는 1.7%, 3개 이상의 지표에서는 2.5%, 2개 이상의 지표에서는 3.9%,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전체의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특성별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완전자립률을 살펴보면, 남자노인(95.0%)이 여자노인(91.7%)보다, 유배우 노인(94.7%)이 무배우 노인(90.5%)보다, 취업노인(98.9%)이 미취업 노인(90.8%)보다 높다. 특히 남자노인이 상대적으로 여자노인보다 기능상태가 양호한 것은 후기노인의 다수가 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적으로도 후기노인일수록 완전자립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94.6%로 완전자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90.4%로 가장 낮다.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로 자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자녀와 동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건강수준과 유사하게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대체로 기능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학(글자모름) 노인이 86.3%로 가장 낮은 완전자립률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제1오분위가 9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9-7〉 참조).

〈표 9-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²⁾
전체 ¹⁾	93.1	2.9	1.4	0.8	0.4	0.4	0.4	0.5	100.0 (10,451)	7.2
지역										
동부	93.1	2.9	1.3	0.8	0.5	0.4	0.4	0.5	100.0 (8,008)	7.2
읍면부	93.0	3.0	1.5	0.9	0.3	0.4	0.2	0.6	100.0 (2,443)	7.2
성										
남자	95.0	1.5	1.0	0.8	0.4	0.4	0.3	0.6	100.0 (4,354)	7.2
여자	91.7	4.0	1.6	0.8	0.5	0.4	0.5	0.5	100.0 (6,097)	7.2
연령										
65~69세	97.8	1.3	0.3	0.2	0.1	0.2	0.1	0.2	100.0 (3,316)	7.1
70~74세	95.9	1.6	1.0	0.6	0.2	0.2	0.2	0.4	100.0 (2,830)	7.1
75~79세	93.1	3.1	1.2	0.7	0.3	0.5	0.6	0.6	100.0 (2,151)	7.2
80~84세	87.0	5.8	2.7	1.4	1.0	0.8	0.8	0.7	100.0 (1,319)	7.4
85세 이상	74.5	9.5	5.3	3.6	2.0	1.6	1.3	2.3	100.0 (835)	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4.7	1.9	1.1	0.8	0.4	0.4	0.3	0.5	100.0 (6,418)	7.2
배우자 없음	90.5	4.6	1.9	0.9	0.5	0.5	0.4	0.7	100.0 (4,033)	7.3
가구형태										
노인독거	93.4	4.2	1.3	0.4	0.1	0.3	0.1	0.2	100.0 (2,407)	7.1
노인부부	94.6	1.9	1.2	0.9	0.4	0.4	0.4	0.4	100.0 (4,655)	7.2
자녀동거	90.4	3.6	1.8	1.0	0.8	0.5	0.7	1.1	100.0 (2,973)	7.3
기타	93.5	3.1	1.0	1.0	0.2	0.7	0.0	0.5	100.0 (416)	7.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6.3	6.8	2.7	1.9	0.2	0.6	0.5	1.1	100.0 (1,006)	7.4
무학(글자해독)	91.4	3.7	1.9	0.9	0.7	0.5	0.5	0.3	100.0 (2,181)	7.2
초등학교	92.9	3.2	1.2	0.9	0.4	0.4	0.4	0.6	100.0 (3,345)	7.2
중학교	95.3	1.8	1.0	0.5	0.2	0.4	0.2	0.6	100.0 (1,376)	7.2
고등학교	96.7	1.1	0.8	0.2	0.5	0.3	0.1	0.3	100.0 (1,732)	7.1
전문대학 이상	95.4	1.1	1.1	0.6	0.2	0.2	0.7	0.5	100.0 (811)	7.2
현취업상태										
취업중	98.9	0.8	0.2	0.1	0.0	0.0	0.0	0.0	100.0 (2,974)	7.0
미취업	90.8	3.8	1.9	1.1	0.6	0.6	0.5	0.7	100.0 (7,477)	7.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1.8	4.5	1.2	1.1	0.4	0.3	0.2	0.3	100.0 (2,088)	7.2
제2오분위	92.2	3.7	1.5	0.8	0.3	0.6	0.3	0.6	100.0 (2,085)	7.2
제3오분위	92.9	2.7	1.4	1.1	0.5	0.4	0.5	0.5	100.0 (2,085)	7.2
제4오분위	94.9	1.6	1.6	0.4	0.4	0.5	0.2	0.4	100.0 (2,082)	7.2
제5오분위	93.3	2.2	1.2	0.9	0.6	0.4	0.6	0.8	100.0 (2,083)	7.3
2011년도	92.8	3.1	1.3	0.7	0.5	0.3	0.5	0.7	100.0 (10,674)	7.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점수는 완전자립=1, 부분도움=2, 완전도움=3을 부여하여 7개 항목을 합하여 계산함.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보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상태를 나타낸다. 이 지표에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의 10개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완전자립률을 보이고 있는 지표는 제시간에 정해진 약 챙겨먹기(97.3%)이며, 그 다음으로 몸단장하기(95.6%), 근거리 외출하기(95.1%),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94.6%) 등의 순이고, 가장 낮은 완전자립률을 보인 것은 금전관리(88.6%)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인 빨래하기(92.0%), 식사준비하기(91.0%), 집안일하기(90.5%)는 다른 동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완전자립률을 보이고 있다(〈표 9-8〉 참조).

〈표 9-8〉 노인(6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¹⁾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2011년 완전자립률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몸단장 (의복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95.6	3.6		0.8	100.0(10,451)	96.0
집안일 (실내정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단정리정돈 등)	90.5	7.1		2.4	100.0(10,451)	91.1
식사준비 (음식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91.0	6.7		2.2	100.0(10,451)	92.1
빨래 (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늘여 말리기 포함)	92.0	5.7		2.3	100.0(10,451)	92.3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97.3	1.9		0.7	100.0(10,451)	97.3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88.6	9.0		2.5	100.0(10,451)	93.5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95.1	3.4		1.5	100.0(10,451)	95.1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4.6	3.0	1.8	0.6	100.0(10,451)	95.6
전화 걸고 받기	92.6	5.0	1.8	0.6	100.0(10,451)	94.5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91.0	4.6	3.8	0.6	100.0(10,451)	91.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표 9-9>에 의하면 10개의 지표 중에서 모두 완전자립률을 보이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2.2%로 나머지의 17.8%는 한 개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그 중에서 10개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2.2%로 나타났다.

완전자립률을 기준으로 노인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완전자립률을 보인 것은 동부 노인(83.3%), 남자노인(89.4%), 유배우 노인(88.0%), 노인부부가구(87.6%), 취업노인(92.7%)이며, 연령이 낮을수록(65~69세 94.7%, 85세 이상 44.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무학(글자모름) 51.2%, 전문대학 이상 93.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제1오분위 75.8%, 제5오분위 85.2%) 대체로 완전자립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장기요양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정책적 우선순위를 본다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제한이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우선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이차적인 정책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제한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 시에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분류해보면 전체노인 중에서 81.8%의 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신체기능상의 건강한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1.3%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모두 제한을 보인 노인은 6.9%이다(<표 9-10 주석 참조).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기능제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9-10> 참조).

이를 다시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로 한다면 전체노인의 7%정도가 이에 해당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까지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노인의 약 18.2%가 이에 해당한다.

〈표 9-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²⁾
전체 ¹⁾	82.2	7.9	3.5	2.3	1.9	2.2	100.0 (10,451)	0.7
지역								
동부	83.3	6.9	3.3	2.2	2.0	2.3	100.0 (8,008)	0.7
읍면부	78.4	11.4	3.8	2.7	1.9	1.8	100.0 (2,443)	0.8
성								
남자	89.4	3.0	2.4	1.8	1.4	1.9	100.0 (4,354)	0.5
여자	77.0	11.5	4.2	2.7	2.3	2.4	100.0 (6,097)	0.9
연령								
65~69세	94.7	2.6	1.1	0.5	0.8	0.4	100.0 (3,316)	0.2
70~74세	87.0	6.6	2.7	1.8	1.0	0.9	100.0 (2,830)	0.4
75~79세	80.9	9.6	3.4	2.3	1.7	2.1	100.0 (2,151)	0.7
80~84세	66.3	15.7	6.9	4.0	3.6	3.5	100.0 (1,319)	1.3
85세 이상	44.2	17.0	10.4	8.5	7.9	12.0	100.0 (835)	2.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8.0	4.8	2.1	1.9	1.5	1.7	100.0 (6,418)	0.5
배우자 없음	72.9	12.9	5.6	3.0	2.6	3.0	100.0 (4,033)	1.0
가구형태								
노인독거	78.7	13.0	4.1	1.7	1.7	0.9	100.0 (2,407)	0.6
노인부부	87.6	5.3	2.1	1.9	1.5	1.6	100.0 (4,655)	0.5
자녀동거	76.0	8.2	5.1	3.6	2.7	4.3	100.0 (2,973)	1.1
기타	85.3	6.2	3.4	1.0	2.4	1.7	100.0 (416)	0.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1.2	25.0	7.4	6.7	5.5	4.3	100.0 (1,006)	1.8
무학(글자해독)	73.7	13.5	5.5	2.2	2.5	2.7	100.0 (2,181)	0.9
초등학교	84.6	6.6	3.0	2.3	1.5	2.1	100.0 (3,345)	0.6
중학교	91.6	1.6	2.1	1.5	1.5	1.7	100.0 (1,376)	0.5
고등학교	93.5	1.6	1.8	1.0	0.9	1.2	100.0 (1,732)	0.3
전문대학 이상	93.5	1.5	1.1	1.1	1.0	1.8	100.0 (811)	0.4
현취업상태								
취업중	92.7	5.6	0.9	0.6	0.1	0.0	100.0 (2,974)	0.2
미취업	78.0	8.9	4.5	3.0	2.7	3.1	100.0 (7,477)	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5.8	13.6	4.6	2.4	2.1	1.5	100.0 (2,088)	0.8
제2오분위	80.6	9.4	3.5	2.3	2.1	2.1	100.0 (2,085)	0.7
제3오분위	83.2	6.8	3.4	2.2	2.1	2.4	100.0 (2,085)	0.7
제4오분위	86.0	5.8	3.0	1.9	1.2	2.1	100.0 (2,082)	0.6
제5오분위	85.2	4.2	2.8	2.7	2.2	2.9	100.0 (2,083)	0.7
2011년도	86.2	4.9	2.9	2.6	1.2	2.3	100.0 (10,674)	0.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IADL 10개 항목 중 제한이 있는 수의 평균값

〈표 9-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특성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²⁾	계 (명)
전체 ¹⁾	81.8	11.3	6.9	100.0 (10,451)
지역				
동부	82.9	10.2	6.9	100.0 (8,008)
읍면부	78.1	15.0	6.9	100.0 (2,443)
성				
남자	89.4	5.6	5.0	100.0 (4,354)
여자	76.3	15.4	8.3	100.0 (6,097)
연령				
65~69세	94.6	3.2	2.2	100.0 (3,316)
70~74세	86.4	9.4	4.1	100.0 (2,830)
75~79세	80.3	12.8	6.9	100.0 (2,151)
80~84세	65.7	21.3	13.0	100.0 (1,319)
85세 이상	44.0	30.5	25.5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7.7	7.0	5.3	100.0 (6,418)
배우자 없음	72.3	18.2	9.5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7.9	15.6	6.6	100.0 (2,407)
노인부부	87.4	7.2	5.4	100.0 (4,655)
자녀동거	75.7	14.7	9.6	100.0 (2,973)
기타	84.8	8.7	6.5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0.7	35.7	13.6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72.9	18.6	8.5	100.0 (2,181)
초등학교	84.1	8.7	7.2	100.0 (3,345)
중학교	91.2	4.1	4.7	100.0 (1,376)
고등학교	93.4	3.2	3.3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93.3	2.1	4.6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92.6	6.3	1.1	100.0 (2,974)
미취업	77.5	13.3	9.2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5.1	16.7	8.1	100.0 (2,088)
제2오분위	80.0	12.3	7.7	100.0 (2,085)
제3오분위	82.8	10.1	7.1	100.0 (2,085)
제4오분위	85.8	9.2	5.0	100.0 (2,082)
제5오분위	85.0	8.4	6.6	100.0 (2,083)
2011년도	85.1	7.7	7.2	100.0 (10,66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동 항목에는 IADL에는 제한이 없고 ADL만 제한이 있는 사람 42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조사 기간 내(조사 표 문항 상 조사 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임.

3. 인지기능

노인의 인지기능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인지기능을 파악하는데 이용된 도구는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이다. 이 도구로 측정된 점수가 총 30점 중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 일정점수⁶⁾이하인 경우에는 치매의심의 인지저하자로 판정하고, 치매확정을 위한 진단 검사의 대상이 된다.

전체노인의 MMSE-DS의 평균점수는 23.7점으로 나타났는데, 인지저하자비율은 31.5%이다.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저하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읍면부 노인(37.9%), 무배우 노인(33.5%), 미취업 노인(32.6%),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49.1%)이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가 33.6%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 한편, 성별 차이는 없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인지저하자 비율이 높다. 특히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절반 가량(52.5%)이 인지저하자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인지기능저하자의 비중이 높다(〈표 9-11〉 참조).

6)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치매의심 판정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MMSE-DS 진단검사 의뢰점수표〉

연령	성별	교육연수			
		0~3년	4~6년	7~12년	13년 이상
60~69세	남	20	24	25	26
	여	19	23	25	26
70~74세	남	21	23	25	26
	여	18	21	25	26
75~79세	남	20	22	25	25
	여	17	21	24	26
80세 이상	남	18	22	24	25
	여	16	20	24	27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4.

〈표 9-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단위: 점, %, 명)

특성	평균점수	인지저하자 비율	대상자수
전체 ¹⁾²⁾	23.7	31.5	(10,248)
지역			
동부	24.2	29.5	(7,844)
읍·면부	22.2	37.9	(2,404)
성			
남자	25.2	31.8	(4,280)
여자	22.6	31.2	(5,968)
연령			
65~69세	25.7	27.5	(3,294)
70~74세	24.4	29.7	(2,802)
75~79세	23.0	31.0	(2,119)
80~84세	21.4	33.9	(1,278)
85세 이상	18.6	52.5	(75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8	30.2	(6,319)
배우자 없음	22.0	33.5	(3,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22.4	30.9	(2,386)
노인부부	24.6	30.7	(4,586)
자녀동거	23.2	33.6	(2,865)
기타	24.1	28.3	(41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7	47.6	(970)
무학(글자해독)	21.4	24.4	(2,132)
초등학교	24.0	31.4	(3,288)
중학교	25.6	39.1	(1,346)
고등학교	26.4	26.3	(1,713)
전문대학 이상	27.1	29.3	(800)
현취업상태			
취업중	24.5	28.7	(2,967)
미취업	23.4	32.6	(7,2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7	35.7	(2,065)
제2오분위	23.1	32.9	(2,049)
제3오분위	24.2	31.2	(2,037)
제4오분위	24.7	29.7	(2,040)
제5오분위	24.9	28.0	(2,0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6	27.9	(8,531)
제한 있음	19.4	49.1	(1,717)
IADL만 제한	19.6	46.1	(1,143)
ADL도 제한	19.1	55.1	(574)

주: 1) 본인응답자(대리응답자 제외) 10,279명 중 무응답 및 시각장애인 등 3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2011년도와는 척도가 일치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함.

4. 수발실태

노인은 일상생활상의 동작수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족이든, 타인이든 간에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한 가지 이상의 지표 중에 부분도움이나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발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들에 대한 수발률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81.7%의 노인이 수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12〉 참조).

이를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84.4%), 남자노인(93.3%), 유배우 노인(85.2%), 미취업 노인(84.9%)에게서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수발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68.1%)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월등히 수발률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72.0%, 전문대학 이상 98.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74.0%, 제5오분위 90.1%) 수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인력이 15.4%, 친척이나 이웃·친구·지인 등이 7.3%, 노인돌봄서비스제공 인력이 6.4%, 개인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단, 수발주체는 중복응답으로 하나의 주체에게서만 수발도움을 받는 것이 아님을 해석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16.0%) 비중이 높았고, 읍면부 노인은 상대적으로 친척·이웃·친구·지인(9.0%), 노인돌봄서비스 비중(8.0%)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노인은 가족원의 수발도움을 받는 경우(96.0%)가 대부분인 반면 여자노인은 가족원을 제외한 다른 항목 모두에서 남자노인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의 경우, 각 수발주체별로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족원을 제외할 때, 대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가족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았고(유배우 98.7%, 무배우 86.7%), 무배우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17.4%), 친척·이웃·친구·지인(10.6%), 노인돌봄서비스(8.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가족원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72.2%),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1.4%)를 제외한 다른 수발

주체의 도움을 고르게 받고 있다(친척·이웃·친구·지인 17.0%,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8.7%, 노인돌봄서비스 18.2%). 특히 이들은 현행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노인돌봄서비스제도에 의한 수발비율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수발 실태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가족원의 도움(제1오분위 77.9%, 제5오분위 98.6%)을 많이 받고 있었고,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의 도움(제2오분위 0.6%, 제5오분위 3.5%)도 큰 폭은 아니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친척·이웃·친구·지인의 수발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제1오분위 13.8%, 제5오분위 3.2%),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제1오분위의 경우, 가족원의 도움보다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16.4%), 노인돌봄서비스(14.0%) 등 다른 주체들의 수발도움을 고르게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수발자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고, 친척이나 친구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공식인력에 의한 수발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에 가족원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은 공적 제도에 의한 수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친척·이웃·친구·지인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6.4%),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9-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발여부 및 수발자 (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수발률	수발자 ²⁾					계 (명)
		가족원 (동거/비동거)	친척,이웃 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전체 ¹⁾	81.7	91.9	7.3	1.3	15.4	6.4	100.0(1,557)
지역							
동부	84.4	92.1	6.8	1.6	16.0	5.9	100.0(1,156)
읍·면부	74.8	91.3	9.0	0.5	13.7	8.0	100.0(401)
성							
남자	93.3	96.0	4.4	0.9	10.7	5.8	100.0(430)
여자	77.9	90.2	8.4	1.4	17.2	6.7	100.0(1,126)
연령							
65~69세	81.6	88.4	6.2	1.4	13.7	6.2	100.0(146)
70~74세	75.8	92.8	7.9	0.7	6.2	5.5	100.0(291)
75~79세	76.6	95.7	5.2	1.2	16.4	5.9	100.0(324)
80~84세	82.3	89.8	8.3	1.9	15.8	7.8	100.0(373)
85세 이상	90.6	91.5	8.3	1.2	21.5	6.4	100.0(42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5.2	98.7	3.0	1.6	12.8	3.1	100.0(673)
배우자 없음	79.1	86.7	10.6	1.0	17.4	8.8	100.0(883)
가구형태							
노인독거	68.1	72.2	17.0	1.4	18.7	18.2	100.0(363)
노인부부	84.2	98.4	3.0	2.0	13.9	3.2	100.0(496)
자녀동거	89.5	98.9	3.6	0.9	13.5	2.5	100.0(645)
기타	82.8	79.2	28.3	0.0	30.2	3.8	100.0(5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2.0	90.2	12.3	0.0	13.7	5.6	100.0(357)
무학(글자해독)	76.0	93.3	7.3	0.4	13.6	5.6	100.0(449)
초등학교	89.6	92.0	4.8	0.4	15.8	6.5	100.0(476)
중학교	90.9	94.5	8.2	0.9	19.1	5.5	100.0(110)
고등학교	99.1	92.0	3.5	7.1	17.7	8.0	100.0(113)
전문대학 이상	98.1	84.6	3.8	13.2	26.4	17.3	100.0(53)
현취업상태							
취업중	57.0	92.1	13.5	1.6	4.8	0.8	100.0(126)
미취업	84.9	91.8	6.8	1.3	16.4	6.9	100.0(1,4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0	77.9	13.8	0.0	16.4	14.0	100.0(384)
제2오분위	78.9	91.2	7.6	0.6	17.3	7.3	100.0(330)
제3오분위	84.4	98.0	6.0	0.3	13.0	4.0	100.0(302)
제4오분위	86.8	99.2	3.5	2.7	12.1	3.1	100.0(257)
제5오분위	90.1	98.6	3.2	3.5	17.0	0.7	100.0(282)
2011년도 ³⁾	76.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906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문항과 다르게 수발자 주체 모두에 관하여 중복체크가 가능한 문항으로 2011년도와 비교가 불가하며, 현재 수발도움을 받고 있는 1,557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593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수발자는 가족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족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13) 참조). 배우자가 3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딸 20.6%, 장남 14.3%, 차남이하가 10.9%, 장남의 배우자(며느리) 9.7%, 기타 4.1%, 차남이하의 배우자(며느리)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배우자가 주수발자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했을 때 딸이나 며느리 등 여자에 의한 수발(33.0%) 외에도 남자에 의한 수발비중(25.2%)도 상당부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를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딸의 비중이 높다(동부 22.5%, 읍면부 15.4%). 남자노인은 대부분이 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지만(76.5%), 여자노인은 배우자로부터의 수발비중(21.9%)이 적고 그 대신에 딸(25.6%)이나 장남(18.0%)의 비중이 높다. 이는 남자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주수발자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의 유무나 가구형태(노인독거)에 따른 수발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수발자인 전체 비율이 37.7%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있어 수발주체 및 자원은 전적으로 배우자라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86.9%).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비중이 적는데(65~69세 65.6%, 85세 이상 16.8%), 이 역시 연령증가에 따른 배우자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외의 가족 수발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이는 배우자 등의 부재와 함께 기능상태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한 수발 도움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비중이 낮고(무학(글자모름) 18.0%, 전문대학 이상 68.2%), 장남 및 차남 등의 직계자녀에 의한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9-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기타	계 (명)
전체 ¹⁾	37.7	14.3	9.7	10.9	2.7	20.6	4.1	100.0(1,430)
지역								
동부	36.4	14.0	9.4	10.6	2.8	22.5	4.3	100.0(1,064)
읍·면·부	41.8	15.4	10.4	11.5	2.2	15.4	3.3	100.0(364)
성								
남자	76.5	5.3	3.4	3.9	0.7	8.5	1.7	100.0(413)
여자	21.9	18.0	12.2	13.7	3.4	25.6	5.1	100.0(1,016)
연령								
65~69세	65.6	8.6	1.6	0.8	0.8	16.4	6.3	100.0(128)
70~74세	54.4	13.0	5.6	9.3	1.5	13.7	2.6	100.0(270)
75~79세	47.6	11.7	7.1	9.4	1.0	20.7	2.6	100.0(309)
80~84세	28.7	14.9	12.5	14.0	4.8	20.3	4.8	100.0(335)
85세 이상	16.8	18.6	14.7	13.9	3.6	27.3	5.2	100.0(38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1.2	4.5	2.0	3.3	0.6	7.8	0.6	100.0(664)
배우자 없음	0.0	22.8	16.3	17.4	4.6	31.7	7.2	100.0(766)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25.9	3.8	12.5	3.4	48.7	5.7	100.0(263)
노인부부	86.9	3.5	1.6	1.4	0.2	6.1	0.2	100.0(488)
자녀동거	16.8	18.8	18.8	17.6	4.2	21.3	2.5	100.0(638)
기타	19.0	0.0	0.0	9.5	0.0	4.8	66.7	100.0(4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8.0	19.9	14.9	14.0	2.2	24.5	6.5	100.0(322)
무학(글자해독)	29.2	18.2	10.5	11.5	3.6	23.0	4.1	100.0(418)
초등학교	43.4	11.6	8.0	10.0	2.7	19.6	4.6	100.0(438)
중학교	64.4	8.7	2.9	7.7	1.9	14.4	0.0	100.0(104)
고등학교	68.6	4.8	8.6	5.7	1.9	10.5	0.0	100.0(105)
전문대학 이상	68.2	0.0	2.3	9.1	0.0	18.2	2.3	100.0(44)
현취업상태								
취업중	50.9	14.7	6.0	7.8	0.9	18.1	1.7	100.0(116)
미취업	36.6	14.3	10.0	11.2	2.8	20.8	4.3	100.0(1,3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7	20.0	1.7	13.3	1.0	30.0	4.3	100.0(300)
제2오분위	54.6	10.9	4.6	6.3	1.7	16.6	5.3	100.0(302)
제3오분위	48.5	11.9	3.4	10.9	0.3	20.1	4.8	100.0(293)
제4오분위	32.8	18.4	12.9	17.2	2.0	14.5	2.3	100.0(256)
제5오분위	21.6	10.8	27.3	7.2	8.6	20.9	3.6	100.0(278)
2011년도	53.0	8.2	12.3	6.7	3.8	10.3	5.7	100.0(1,037)

주: 1)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557명 중 가족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430명을 대상으로 함.

가족수발자의 도움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도움을 주는 경우가 10.7%, 거의 매일 반일 미만이 39.0%, 일주일에 3~4일 정도가 8.6%, 일주일에 1~2일 정도가 14.2%, 일주일에 1회 미만이 27.5%로 나타나, 약 절반정도가 거의 매일 도움을 주고 있고, 일주일에 여러 번 도움을 주는 경우가 22.8%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9-14〉 참조).

지역별로는 거의 매일 (하루 종일+반일 미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동부의 경우 51.2%로 읍면부의 44.9%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 차이는 지역별 차이보다 훨씬 커 남자노인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반일 미만) 도움을 받는 경우가 70.3%, 여자노인은 41.4%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양상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유배우 노인은 거의 매일 도움정도가 61.5%인 반면에 무배우 노인은 39.5%로 나타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유배우의 경우, 주수발자가 배우자로 나타났기 때문에(〈표 9-13〉 참조) 거의 매일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거의 매일 도움정도가 12.6%에 불과한 반면에 노인부부가구는 60.8%,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56.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를 기점으로 거의 매일 도움 정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초등학교 이하 40%대, 중학교 이상 70% 이상). 가구소득수준을 보면 제1오분위(33.5%)와 제5오분위(65.1%)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도움 정도는 크게 차이는 없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으로 타인으로부터 수발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비자발적인 이유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혼자서 견딜만해서가 58.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없어서 38.1%, 비용이 부담돼서가 3.1%, 도움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라서가 0.8%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혼자서 견딜만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없거나(62.1%), 독거노인(64.7%)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9-15〉 참조).

〈표 9-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족 수발자의 도움정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거의 매일 반일 미만	일주일에 3~4일 정도	일주일에 1~2일 정도	일주일 1회 미만	계 (명)
전체 ¹⁾	10.7	39.0	8.6	14.2	27.5	100.0(1,430)
지역						
동부	11.1	40.1	8.6	15.2	24.9	100.0(1,064)
읍·면부	9.3	35.6	8.5	11.5	35.1	100.0(365)
성						
남자	18.2	52.1	7.5	10.9	11.4	100.0(413)
여자	7.7	33.7	8.9	15.5	34.1	100.0(1,017)
연령						
65~69세	12.3	40.0	8.5	14.6	24.6	100.0(130)
70~74세	10.0	40.7	7.4	11.1	30.7	100.0(270)
75~79세	11.0	34.8	9.0	15.5	29.7	100.0(310)
80~84세	10.2	34.1	10.2	15.0	30.5	100.0(334)
85세 이상	10.9	45.0	7.8	14.5	22.0	100.0(38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8	45.7	7.5	11.5	19.5	100.0(663)
배우자 없음	6.3	33.2	9.5	16.6	34.5	100.0(76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11.5	11.5	24.8	51.1	100.0(262)
노인부부	13.7	47.1	6.4	12.3	20.5	100.0(488)
자녀동거	12.2	44.6	8.5	11.6	23.2	100.0(639)
기타	9.5	31.0	19.0	11.9	28.6	100.0(4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3	40.2	7.2	10.6	36.8	100.0(321)
무학(글자해독)	8.6	33.4	8.4	10.7	38.9	100.0(419)
초등학교	11.0	36.1	8.7	22.6	21.7	100.0(438)
중학교	21.9	50.5	13.3	7.6	6.7	100.0(105)
고등학교	18.3	50.0	9.6	13.5	8.7	100.0(104)
전문대학 이상	20.5	61.4	6.8	6.8	4.5	100.0(44)
현취업상태						
취업중	2.6	24.1	6.0	11.2	56.0	100.0(116)
미취업	11.4	40.3	8.8	14.5	25.0	100.0(1,31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	25.1	8.7	13.0	44.8	100.0(299)
제2오분위	10.6	38.4	8.9	18.9	23.2	100.0(302)
제3오분위	12.8	39.2	7.8	16.6	23.6	100.0(296)
제4오분위	11.0	38.8	8.2	12.5	29.4	100.0(255)
제5오분위	10.8	54.3	9.0	9.7	16.2	100.0(278)

주: 1)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557명 중 가족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430명을 대상으로 함.

〈표 9-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수발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도움이 필요없어서	혼자서 견딜만해서	도움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라서	비용이 부담돼서	계 (명)
전체 ¹⁾	38.1	58.0	0.8	3.1	100.0(349)
지역					
동부	38.8	57.9	0.0	3.3	100.0(214)
읍면부	36.8	58.1	2.2	2.9	100.0(136)
성					
남자	38.7	58.1	0.0	3.2	100.0(31)
여자	37.9	58.0	0.9	3.1	100.0(319)
연령					
65~69세	36.4	57.6	3.0	3.0	100.0(33)
70~74세	44.1	54.8	0.0	1.1	100.0(93)
75~79세	38.4	58.6	0.0	3.0	100.0(99)
80~84세	37.5	57.5	2.5	2.5	100.0(80)
85세 이상	26.7	64.4	0.0	8.9	100.0(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7.0	49.6	0.0	3.4	100.0(117)
배우자 없음	33.6	62.1	1.3	3.0	100.0(232)
가구형태					
노인독거	30.6	64.7	1.8	2.9	100.0(170)
노인부부	45.2	53.8	0.0	1.1	100.0(93)
자녀동거	44.2	49.4	0.0	6.5	100.0(77)
기타	45.5	54.5	0.0	0.0	100.0(1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5	61.2	1.4	2.9	100.0(139)
무학(글자해독)	40.4	55.3	0.0	4.3	100.0(141)
초등학교	37.0	63.0	0.0	0.0	100.0(54)
중학교	54.5	45.5	0.0	0.0	100.0(11)
고등학교	0.0	0.0	0.0	100.0	100.0(1) ²⁾
전문대학 이상	100.0	0.0	0.0	0.0	100.0(1) ²⁾
현취업상태					
취업중	38.9	58.9	1.1	1.1	100.0(95)
미취업	37.6	57.6	0.8	3.9	100.0(25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3	58.5	2.2	5.9	100.0(135)
제2오분위	38.6	60.2	0.0	1.1	100.0(88)
제3오분위	38.6	61.4	0.0	0.0	100.0(57)
제4오분위	33.3	59.0	0.0	7.7	100.0(39)
제5오분위	60.0	40.0	0.0	0.0	100.0(30)

주: 1)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1개 이상 받은 응답자 1,906명 중 수발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34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전체노인의 4.4%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전체노인의 6.9%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기능제한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능제한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률을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는 없지만(동부 4.3%, 읍면부 4.3%),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여자노인(5.5%), 무배우 노인(6.6%), 기타가구노인(5.6%), 미취업노인(5.9%),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20.5%)이다.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1.3%, 85세 이상 16.7%)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기능상태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낮거나(무학(글자모름) 8.5%) 가구소득수준이 낮은(제1오분위 5.9%) 계층에서도 발견되는데, 연령과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신청자의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분포를 보면, 1등급 4.6%, 2등급 12.6%, 3등급 48.5%, 4등급 6.9%, 치매특별등급(5등급) 2.8%, 등급외 20.8%, 기타 3.8%로 나타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을 중등도이상의 기능제한상태로 보면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자는 전체의 10%미만으로 보인다(〈표 9-16〉 참조).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노인이 전체노인의 6.9%인 반면에 신청률은 전체노인의 4.4%이라는 것은 나머지의 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기능상 제한이 없어서가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13.2%,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11.3%, 가족 외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3.4%,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가 3.1%,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가 1.0%로 각각 나타났다(〈표 9-17〉 참조).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이를 언급한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학(글자모름) 7.9%, 전문대학 이상 0.8%), 미취업노인(3.6%), 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6.9%, 제5오분위 1.1%) 비용부담의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계층 제도 이용가능성 제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 외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의 경우 읍면부 노인(3.6%)이 동부 노인(3.3%)보다, 여자노인(3.6%)이 남자노인(3.0%)보다,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1.2%, 85세 이상 10.1%), 무배우 노인(4.4%), 자녀동거가구(5.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무학(글자모름) 6.9%, 전문대학 이상 1.9%), 미취업노인(4.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제1오분위 2.6%, 제5오분위: 3.8%), 기능상태제한노인(16.3%)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단위: %, 명)

특성	신청률	최근에 받은 등급 ²⁾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 특별등급	등급외	기타	
전체 ¹⁾	4.4	4.6	12.6	48.5	6.9	2.8	20.8	3.8	100.0(455)
지역									
동부	4.3	4.9	10.4	49.4	7.5	2.9	21.1	3.8	100.0(346)
읍면부	4.5	3.6	19.1	45.5	5.5	2.7	20.0	3.6	100.0(110)
성									
남자	2.8	8.1	17.7	41.9	9.7	1.6	16.9	4.0	100.0(124)
여자	5.5	3.3	10.8	51.1	6.0	3.0	22.2	3.6	100.0(333)
연령									
65~69세	1.3	11.4	6.8	36.4	4.5	9.1	31.8	0.0	100.0(44)
70~74세	2.2	1.6	6.5	45.2	8.1	6.5	21.0	11.3	100.0(62)
75~79세	4.8	1.9	17.3	50.0	6.7	1.9	18.3	3.8	100.0(104)
80~84세	8.1	4.7	11.2	53.3	5.6	2.8	19.6	2.8	100.0(107)
85세 이상	16.7	6.5	14.4	48.9	7.9	0.0	20.1	2.2	100.0(13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	6.8	19.8	43.8	5.7	1.6	19.3	3.1	100.0(192)
배우자 없음	6.6	3.0	7.6	52.1	7.6	3.4	21.7	4.6	100.0(263)
가구형태									
노인독거	5.0	4.1	1.7	54.5	5.8	5.0	27.3	1.7	100.0(121)
노인부부	3.2	4.8	21.8	43.5	4.8	2.0	20.4	2.7	100.0(147)
자녀동거	5.5	6.1	12.3	51.5	8.0	1.8	14.1	6.1	100.0(163)
기타	5.6	0.0	8.7	30.4	17.4	0.0	39.1	4.3	100.0(2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5	3.5	8.2	38.8	11.8	0.0	36.5	1.2	100.0(85)
무학(글자해독)	4.9	1.9	11.4	63.8	6.7	1.0	11.4	3.8	100.0(105)
초등학교	4.4	7.5	11.0	52.1	5.5	4.1	15.8	4.1	100.0(146)
중학교	3.0	2.5	25.0	45.0	7.5	0.0	15.0	5.0	100.0(40)
고등학교	2.5	4.5	9.1	40.9	4.5	4.5	27.3	9.1	100.0(44)
전문대학 이상	4.3	5.6	22.2	27.8	5.6	8.3	27.8	2.8	100.0(36)
현취업상태									
취업중	0.5	6.7	20.0	20.0	6.7	13.3	33.3	0.0	100.0(15)
미취업	5.9	4.7	12.4	49.3	7.0	2.5	20.3	3.8	100.0(44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	4.1	7.3	48.8	5.7	3.3	26.0	4.9	100.0(123)
제2오분위	4.6	2.1	10.3	52.6	7.2	3.1	23.7	1.0	100.0(97)
제3오분위	3.8	1.3	11.3	58.8	10.0	1.3	15.0	2.5	100.0(80)
제4오분위	2.8	6.8	23.7	40.7	3.4	1.7	22.0	1.7	100.0(59)
제5오분위	4.7	9.4	15.6	41.7	7.3	3.1	15.6	7.3	100.0(96)
기능상태 ³⁾									
제한 없음	0.8	0.0	0.0	24.2	6.1	6.1	56.1	7.6	100.0(66)
제한 있음	20.5	5.4	14.7	52.8	7.0	2.1	14.9	3.1	100.0(38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기능상태 제한 여부는 조사기간(조사 시점 지난 일주일 동안) 내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등급을 받은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9-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특성	기능상 제한이 없어서	제도를 알지 못해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족 외에는 도움 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체 ¹⁾	67.9	13.2	11.3	3.1	1.0	3.4	0.2	100.0(9,995)
지역								
동부	70.6	11.0	11.0	3.0	1.0	3.3	0.2	100.0(7,660)
읍면부	59.3	20.3	12.2	3.7	0.9	3.6	0.0	100.0(2,334)
성								
남자	75.4	10.5	8.1	2.1	0.6	3.0	0.2	100.0(4,231)
여자	62.4	15.1	13.6	3.9	1.2	3.6	0.1	100.0(5,764)
연령								
65~69세	81.3	8.6	6.9	1.5	0.5	1.2	0.2	100.0(3,271)
70~74세	72.0	10.8	10.5	2.1	1.1	3.5	0.1	100.0(2,768)
75~79세	61.3	16.7	13.2	4.7	0.8	3.1	0.2	100.0(2,047)
80~84세	50.9	18.7	16.6	5.8	2.2	5.6	0.1	100.0(1,211)
85세 이상	38.1	24.3	20.1	5.8	1.0	10.1	0.6	100.0(69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7	10.6	9.5	2.5	0.7	2.7	0.2	100.0(6,226)
배우자 없음	58.3	17.4	14.2	4.1	1.4	4.4	0.2	100.0(3,769)
가구형태								
노인독거	59.2	18.9	13.6	4.4	1.7	2.0	0.3	100.0(2,285)
노인부부	73.0	10.4	10.5	2.4	0.8	2.8	0.2	100.0(4,509)
자녀동거	65.8	13.3	11.3	3.2	0.8	5.5	0.1	100.0(2,808)
기타	76.1	10.7	6.1	3.8	0.5	2.8	0.0	100.0(39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0.7	26.8	16.2	7.9	1.4	6.9	0.0	100.0(921)
무학(글자해독)	57.0	16.8	15.2	4.8	0.9	5.4	0.0	100.0(2,076)
초등학교	67.9	12.7	12.7	2.5	1.3	2.8	0.2	100.0(3,199)
중학교	77.0	9.2	8.2	2.6	1.0	1.8	0.2	100.0(1,335)
고등학교	82.1	8.2	5.9	1.1	0.4	1.9	0.4	100.0(1,687)
전문대학 이상	83.1	7.2	6.1	0.8	0.9	1.9	0.0	100.0(776)
현취업상태								
취업중	77.3	10.6	7.8	2.0	0.5	1.6	0.2	100.0(2,960)
미취업	64.0	14.3	12.7	3.6	1.2	4.1	0.2	100.0(7,0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4	21.9	12.8	6.9	1.1	2.6	0.2	100.0(1,963)
제2오분위	62.1	14.4	15.9	3.3	1.3	2.8	0.3	100.0(1,989)
제3오분위	71.6	10.9	11.6	2.1	0.5	3.1	0.1	100.0(2,004)
제4오분위	73.9	9.5	8.7	2.4	1.1	4.2	0.1	100.0(2,023)
제5오분위	77.5	9.2	7.5	1.1	0.8	3.8	0.2	100.0(1,986)
기능상태 ²⁾								
제한 없음	77.6	11.2	6.9	2.2	0.9	1.0	0.1	100.0(8,481)
제한 있음	13.5	24.1	35.5	8.6	1.5	16.3	0.6	100.0(1,51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는 응답자 9,995명을 대상으로 함.

2) 기능상태 제한 여부는 조사기간(조사 시점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나타난 결과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





제10장

노인의 경제 활동

제1절 경제 활동 참여 실태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본 장에서는 노인의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와 더불어 최장기 종사 직종 및 최장기 직종 퇴직 후 최근 그만둔 일자리, 즉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노후의 안정을 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향후 경제활동 의사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은 소득창출과 자신의 능력발휘의 기회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소속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활동실태만으로는 노인이 경험한 일생동안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와 더불어 최장기 및 가교일 자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파악하였다.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본 조사에서 일이란 조사시점으로부터 일주일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28.9%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0.4%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10.7%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1> 참조)7).

거주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23.8%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45.5%가 일을 하고 있어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부 노인의 12.6%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반면,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읍면부 노인은 4.4%에 불과하였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경험을 보면, 남자노인의 37.5%, 여자노인의 22.7%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으며,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남자노인은 0.4%인 반면 여자노인은 18.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제활동 특성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비율은

7) 대리응답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28.5%임(<표 3-1> 참조).

65~69세 연령군 39.1%, 70~74세 연령군 31.5%, 75~79세 연령군 25.3%, 80~84세 연령군 16.4%, 85세 이상 연령군 6.3%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4.2%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20.3%)보다 높았으며, 과거 일을 한 적이 있는 유배우 노인은 55.6%, 무배우 노인은 68.2%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과거에 일을 했으나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34.7%로 높으며, 다음으로 기타가구 4%, 자녀동거가구 24.3%, 노인독거가구 22.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32.4%, 중학교 33.9%가 현재까지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7.3%,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23.5%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중학교 14.4%, 고등학교 12.8%, 초등학교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실태를 보면, 가구소득이 제3오분위에 있는 노인의 34.3%, 제4오분위에 있는 노인의 33.1%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오분위에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8.5%로 가장 낮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32.2%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12.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체 ¹⁾	28.9	60.4	10.7	100.0 (10,279)
지역				
동부	23.8	63.6	12.6	100.0 (7,870)
읍면부	45.5	50.1	4.4	100.0 (2,409)
성				
남자	37.5	62.1	0.4	100.0 (4,290)
여자	22.7	59.3	18.0	100.0 (5,988)
연령				
65~69세	39.1	50.6	10.3	100.0 (3,303)
70~74세	31.5	60.1	8.4	100.0 (2,810)
75~79세	25.3	64.3	10.4	100.0 (2,120)
80~84세	16.4	70.6	13.0	100.0 (1,285)
85세 이상	6.3	76.2	17.5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2	55.6	10.1	100.0 (6,338)
배우자 없음	20.3	68.2	11.5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2.7	66.8	10.5	100.0 (2,390)
노인부부	34.7	55.2	10.2	100.0 (4,594)
자녀동거	24.3	63.7	12.0	100.0 (2,881)
기타	32.4	59.4	8.2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5	70.2	7.3	100.0 (970)
무학(글자해독)	26.6	64.9	8.5	100.0 (2,136)
초등학교	32.4	55.7	11.9	100.0 (3,303)
중학교	33.9	51.7	14.4	100.0 (1,347)
고등학교	27.3	60.0	12.8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3.5	71.8	4.7	100.0 (8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5	72.6	8.9	100.0 (2,075)
제2오분위	28.7	63.3	8.0	100.0 (2,051)
제3오분위	34.3	54.0	11.8	100.0 (2,040)
제4오분위	33.1	54.2	12.8	100.0 (2,047)
제5오분위	30.0	58.0	12.0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2	57.7	10.1	100.0 (8,544)
제한 있음	12.5	74.0	13.5	100.0 (1,735)
2011년도	34.0	56.7	9.3	100.0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을 살펴본 〈표 10-2〉에 의하면 단순노무가 전체의 36.6%,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전체의 36.4%로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현재 경제활동참여 노인의 73.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매종사자

6.3%, 서비스종사자 5.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8%, 관리자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동부 노인의 절반 가량은 단순노무종사자(49.1%)이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 판매종사자 7.7%, 서비스종사자 7.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에 노인의 72.7%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직종이 단순노무직으로 15.2%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농림어업과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노인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서비스종사자 7.4%, 판매종사자 7.3%로 남자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은 65~69세 연령군 27.0%, 70~74세 연령군 38.5%, 75~79세 연령군 47.8%, 80~84세 연령군 51.0%, 85세 이상 연령군은 5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원 및 관련 직종, 그리고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75세 이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노인의 39.7%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30.4%는 단순노무종사자, 6.6%는 판매종사자이다. 한편, 무배우 노인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27.2%, 서비스종사자 7.1% 등이다. 노인 독거가구의 51.5%는 단순노무종사자이며,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28.4%, 서비스종사자 8.3% 등이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43.2%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29.6%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은 무학(글자모름) 54.1%, 무학(글자해독) 45.3%, 초등학교 42.2%, 중학교 30.2%, 고등학교 19.7%, 전문대학 이상 12.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으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관리자(27.1%) 및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9.7%)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55.7%는 단순노무종사자, 34.1%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인 반면,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25.8%는 단순노무종사자, 24.7%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9%는 관리자 등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55.0%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33.5%는 단순노무종사자로

나타났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하여 농림어업숙련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비율이 더 높다.

〈표 10-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사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명)
전체 ¹⁾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2,970)
지역										
동부	5.4	3.4	2.0	7.1	7.7	15.3	3.5	6.6	49.1	100.0 (1,875)
읍면부	0.7	1.6	0.5	2.6	3.9	72.7	1.1	1.7	15.2	100.0 (1,094)
성										
남자	5.6	3.4	2.0	3.8	5.5	35.2	4.3	8.4	31.8	100.0 (1,610)
여자	1.4	1.9	0.7	7.4	7.3	37.8	0.6	0.5	42.3	100.0 (1,358)
연령										
65~69세	4.8	3.9	2.3	7.1	7.4	27.0	4.1	8.6	34.7	100.0 (1,293)
70~74세	3.1	2.5	0.9	5.3	5.8	38.5	2.3	2.9	38.8	100.0 (885)
75~79세	2.2	0.7	0.6	3.4	5.0	47.8	0.7	0.9	38.6	100.0 (536)
80~84세	2.9	1.0	1.4	2.4	5.7	51.0	0.5	0.0	35.2	100.0 (210)
85세 이상	2.1	4.3	0.0	2.1	2.1	59.6	0.0	0.0	29.8	100.0 (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	3.0	1.9	4.9	6.6	39.7	2.9	6.2	30.4	100.0 (2,172)
배우자 없음	1.7	1.9	0.4	7.1	5.4	27.2	2.0	1.0	53.3	100.0 (801)
가구형태										
노인독거	1.3	1.3	0.4	8.3	5.4	28.4	1.8	1.7	51.5	100.0 (542)
노인부부	4.5	2.6	1.8	4.6	5.8	43.2	2.6	5.3	29.6	100.0 (1,592)
자녀동거	4.3	3.8	1.7	5.0	8.7	28.2	2.7	5.8	39.7	100.0 (702)
기타	0.7	4.4	0.7	5.9	3.0	31.1	5.9	5.9	42.2	100.0 (13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0.5	4.1	54.1	0.5	0.9	39.9	100.0 (218)
무학(글자해독)	0.2	0.5	0.0	3.9	5.6	45.3	1.1	0.5	42.9	100.0 (569)
초등학교	1.6	0.3	0.0	7.1	5.4	42.2	2.8	4.1	36.5	100.0 (1,067)
중학교	3.1	1.3	2.2	5.9	7.9	30.2	7.2	7.7	34.6	100.0 (457)
고등학교	5.4	6.6	4.3	4.9	9.0	19.7	1.5	9.0	39.6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27.1	19.7	6.4	6.9	5.3	12.8	0.5	9.0	12.2	100.0 (18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3	0.3	0.0	3.6	4.2	34.1	0.8	1.0	55.7	100.0 (384)
제2오분위	0.2	1.2	0.2	5.8	3.6	46.3	1.7	0.9	40.3	100.0 (588)
제3오분위	0.9	2.4	1.0	4.9	5.6	42.8	2.0	4.7	35.8	100.0 (699)
제4오분위	1.5	3.4	2.5	5.2	9.7	33.2	4.4	6.8	33.3	100.0 (678)
제5오분위	14.9	5.2	2.6	7.5	7.0	24.7	3.4	8.8	25.8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	2.9	1.5	5.6	6.4	34.9	2.8	5.2	36.8	100.0 (2,752)
제한 있음	1.8	0.0	0.5	4.1	4.6	55.0	0.5	0.0	33.5	100.0 (218)
2011년도	1.0	2.0	0.3	4.3	7.4	52.9	3.2	2.8	26.1	100.0 (3,58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3〉에 의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38.3%로 가장 높으며, 경비·수위·청소 관련 일이 19.3%, 운송·건설 관련이 10.8% 등으로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의 3/4(75.1%)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비·수위·청소 관련(7.3%)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4%에 미치지 않았다. 동부 노인은 경비·수위·청소 관련 일에 종사하는 비율(26.3%)이 가장 높으며, 농림어업 종사자도 16.8%, 운송, 건설 관련 14.8% 등이다. 도시 지역 노인의 종사하는 업종이 농어촌 지역의 노인에 비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녀가 공통적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남자 35.7%, 여자 41.4%)이 가장 많았으며, 경비·수위·청소 업종에 종사하는 남자노인은 19.9%, 여자노인은 18.6%로 남자노인은 경비와 수위 업종에, 여자노인은 청소 관련 업종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운송 및 건설 관련 업종(17.1%)과 기타(11.2%)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가사·조리·음식 관련 일이(14.9%) 남자노인(2.6%)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농림어업 및 공공 및 환경 관련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경비·수위·청소, 판매영업, 운송·건설 관련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농림어업(40.8%)과 운송 및 건설 관련(12.6%)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경비·수위·청소(25.2%), 가사·조리·음식(14.8%), 공공 및 환경(10.6%)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다. 노인독거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 가사·조리·음식(13.7%)가 공공 및 환경(12.4%)의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구는 농림어업(44.5%)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무학인 노인은 공공 및 환경 관련 일에,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은 운송 및 건설 관련 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은 경비·수위·청소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의 내용은 제2오분위와 제3오분위에 속한 노인 중 농림어업 관련일을 하는 비중은 각각 49.1%와 44.8%로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제5오분위는 공공 및 환경 관련 일을 제외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의 내용

(단위: %, 명)

특성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판매 영업 ²⁾	운송,건설 관련 ³⁾	공공 환경 관련 ⁴⁾	기타 ⁵⁾	계 (명)
전체 ¹⁾	38.3	19.3	8.2	6.8	10.8	7.6	8.9	100.0 (2,970)
지역								
동부	16.8	26.3	10.9	8.5	14.8	10.6	12.1	100.0 (1,876)
읍·면부	75.1	7.3	3.6	3.8	3.9	2.7	3.6	100.0 (1,095)
성								
남자	35.7	19.9	2.6	6.1	17.1	7.3	11.2	100.0 (1,610)
여자	41.4	18.6	14.9	7.5	3.4	8.0	6.3	100.0 (1,359)
연령								
65~69세	28.6	21.3	9.1	8.3	16.4	4.2	12.1	100.0 (1,293)
70~74세	41.2	19.0	8.5	5.9	8.9	8.8	7.6	100.0 (883)
75~79세	48.5	17.2	8.8	5.4	3.5	12.7	3.9	100.0 (536)
80~84세	54.1	17.2	1.0	5.3	4.3	10.5	7.7	100.0 (209)
85세 이상	63.8	6.4	4.3	2.1	4.3	12.8	6.4	100.0 (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8	17.1	5.8	7.2	12.6	6.6	9.9	100.0 (2,173)
배우자 없음	31.7	25.2	14.8	5.5	6.0	10.6	6.3	100.0 (799)
가구형태								
노인독거	33.4	22.7	13.7	5.4	6.8	12.4	5.7	100.0 (542)
노인부부	44.5	16.9	6.3	5.8	10.5	6.3	9.7	100.0 (1,595)
자녀동거	29.3	21.7	8.5	10.7	13.2	6.4	10.1	100.0 (702)
기타	32.1	21.6	7.5	3.0	17.2	11.2	7.5	100.0 (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9.4	16.4	2.3	4.1	4.6	12.8	0.5	100.0 (219)
무학(글자해독)	49.0	17.9	9.8	5.4	5.6	10.7	1.6	100.0 (568)
초등학교	44.0	17.7	10.8	5.6	10.1	7.2	4.6	100.0 (1,070)
중학교	30.4	21.0	8.8	9.0	17.1	5.0	8.8	100.0 (457)
고등학교	19.7	28.4	5.8	10.7	14.1	7.5	13.9	100.0 (468)
전문대학 이상	14.3	9.4	0.5	5.3	14.3	2.1	54.0	100.0 (1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3	22.4	10.2	3.6	6.8	17.2	1.6	100.0 (384)
제2오분위	49.1	15.4	10.7	3.7	4.9	12.7	3.4	100.0 (589)
제3오분위	44.8	20.0	8.2	5.6	9.2	5.9	6.4	100.0 (699)
제4오분위	34.1	22.6	5.6	9.9	13.4	4.6	9.9	100.0 (678)
제5오분위	25.1	17.0	7.5	9.5	18.3	2.4	20.2	100.0 (61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7	19.8	8.5	6.9	11.3	7.6	9.2	100.0 (2,753)
제한 있음	58.7	12.4	4.6	5.5	5.0	8.7	5.0	100.0 (2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에 '판매영업'은 없었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성이 발견되어 문항을 신설함.

3) 운전운송(4.4%), 택배배달(0.4%), 건설·기계(2.6%), 생산작업(2.8%), 현장관리(0.6%)가 해당됨.

4) 환경조경(1.1%), 공공질서유지(2.1%), 폐휴지줍기(4.4%)가 포함됨.

5) 전문직(3.5%), 행정사무직(1.2%), 문화예술(0.5%), 기타(3.7%)가 해당됨.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전체 노인의 38.7%가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일용근로자 8.6%, 상용근로자 6.1%, 기타 5.1%, 고용주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은 자영업자가 56.2%, 무급가족종사자가 23.4%로 높은 반면, 동부 노인은 임시근로자가 34.8%, 자영업자 28.5%, 일용근로자 10.7%로 동부와 읍면부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4〉 참조).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두 배가량 높으며(남자 51.0%, 여자 24.2%), 임시근로자 비중은 남자노인 23.2%, 여자노인 29.8%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노인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27.0%에 이르러 남자노인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인 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연령대에 따르면, 65~69세 연령층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8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54.2%로 85세 이상 경제활동참여자 중 농림어업종사자 비율이 63.8%(〈표 10-3〉 참조)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임시근로자(34.2%)와 일용근로자(14.4%) 비중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17.7%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독거가구는 임시근로자(35.0%)와 일용근로자(14.5%) 비율이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각각 18.4%와 13.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가구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주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제5오분위 계층에 속한 노인 중 11.1%는 상용근로자, 6.9%는 고용주 등이었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0-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6.1	26.2	8.6	1.6	38.7	13.7	5.1	100.0 (2,970)
지역								
동부	8.5	34.8	10.7	2.1	28.5	8.0	7.4	100.0 (1,876)
읍·면·부	1.9	11.4	5.0	0.9	56.2	23.4	1.2	100.0 (1,095)
성								
남자	8.8	23.2	7.4	2.7	51.0	2.5	4.5	100.0 (1,610)
여자	2.9	29.8	10.0	0.4	24.2	27.0	5.7	100.0 (1,360)
연령								
65~69세	10.5	26.2	9.5	2.6	35.6	12.4	3.2	100.0 (1,292)
70~74세	4.1	27.0	9.2	1.0	38.4	15.1	5.3	100.0 (883)
75~79세	1.3	28.7	5.8	0.4	41.7	14.5	7.6	100.0 (537)
80~84세	0.5	20.8	8.0	0.5	47.2	15.6	7.5	100.0 (212)
85세 이상	2.1	6.3	10.4	6.3	54.2	8.3	12.5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7	23.2	6.4	1.7	40.2	17.7	4.0	100.0 (2,169)
배우자 없음	4.2	34.2	14.4	1.4	34.7	3.0	8.1	100.0 (801)
가구형태								
노인독거	2.4	35.0	14.5	1.3	37.4	0.6	8.8	100.0 (543)
노인부부	6.4	23.5	5.9	1.5	40.6	18.4	3.6	100.0 (1,591)
자녀동거	8.0	25.8	8.8	2.0	36.7	13.9	4.7	100.0 (701)
기타	6.7	24.6	15.7	2.2	32.8	9.7	8.2	100.0 (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19.6	11.9	0.0	37.0	21.9	9.6	100.0 (219)
무학(글자해독)	2.3	24.3	11.2	0.2	34.6	19.0	8.4	100.0 (569)
초등학교	3.9	26.1	9.5	0.7	38.1	18.0	3.6	100.0 (1,070)
중학교	5.5	27.5	8.3	1.7	44.3	9.0	3.7	100.0 (458)
고등학교	13.0	32.3	4.9	2.8	38.9	3.0	5.1	100.0 (468)
전문대학 이상	21.1	22.1	1.6	10.5	41.1	2.1	1.6	100.0 (19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3	35.8	11.7	0.0	32.9	8.1	11.2	100.0 (383)
제2오분위	0.2	28.4	11.7	0.0	39.1	14.1	6.5	100.0 (588)
제3오분위	6.4	22.9	8.5	0.0	41.3	17.3	3.6	100.0 (698)
제4오분위	9.6	26.3	6.2	1.0	38.9	13.6	4.4	100.0 (678)
제5오분위	11.1	21.7	6.5	6.9	38.7	12.7	2.3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5	26.7	8.6	1.7	39.0	12.5	4.9	100.0 (2,753)
제한 있음	0.5	19.6	8.2	0.0	34.2	29.7	7.8	100.0 (219)
2011년도	3.3	8.5	10.2	1.3	47.0	19.5	10.2 ²⁾	100.0 (3,58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폐휴지 3.5%를 포함한 수치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38.0%는 정부지원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노인은 37.4%, 읍면부 노인은 41.1%로 나타났다. 남자노인(23.5%)보다는 여자노인(53.7%)이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80~84세 연령군 노인 중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은 74.2%, 75~79세 연령군 노인은 73.8%로 75세 이상 84세 미만 경제활동 노인이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도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표 10-5〉 참조).

〈표 10-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특성	(단위: %,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38.0	62.0	100.0	(1,213)
지역				
동부	37.4	62.6	100.0	(1,012)
읍·면·부	41.1	58.9	100.0	(202)
성				
남자	23.5	76.5	100.0	(633)
여자	53.7	46.3	100.0	(581)
연령				
65~69세	18.1	81.9	100.0	(598)
70~74세	45.9	54.1	100.0	(355)
75~79세	73.8	26.2	100.0	(191)
80~84세	74.2	25.8	100.0	(62)
85세 이상	33.3	66.7	100.0	(9)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6	69.4	100.0	(790)
배우자 없음	51.5	48.5	100.0	(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54.6	45.4	100.0	(282)
노인부부	34.0	66.0	100.0	(570)
자녀동거	31.1	68.9	100.0	(299)
기타	30.6	69.4	100.0	(6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1	44.9	100.0	(69)
무학(글자해독)	50.0	50.0	100.0	(214)
초등학교	43.3	56.7	100.0	(423)
중학교	31.4	68.6	100.0	(188)
고등학교	28.1	71.9	100.0	(235)
전문대학 이상	9.4	90.6	100.0	(8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6	23.4	100.0	(184)
제2오분위	64.1	35.9	100.0	(237)
제3오분위	29.4	70.6	100.0	(265)
제4오분위	22.5	77.5	100.0	(285)
제5오분위	10.0	90.0	100.0	(2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3	63.7	100.0	(1,152)
제한 있음	68.9	31.1	100.0	(6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임금근로자 1,213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현재 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장소 유형을 보면, 농림어업과 같이 특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에서 자영업자로 일하는 개인사업체 23.3%, 공공기관 14.5%, 민간회사 12.4%, 폐휴지 줍기, 프리랜서, 개인택시 등과 같이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간병인, 파출부 등이 7.0% 등으로 나타났다(〈표 10-6〉 참조). 동부 노인의 31.5%는 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18.5%는 공공기관, 16.4%는 특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와 읍·면부 노인에 따라 근무하는 사업장 유형이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65~69세 연령군의 경우,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75~79세 연령군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3.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체 및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으며, 무학 노인의 경우 농림어업과 같이 특정 사업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이 낮은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으며, 농림어업은 제2오분위와 제3오분위에서 높고, 제5오분위의 경우 개인사업체(41.9%)와 민간회사(21.2%)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속성상 일반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일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노인의 49.3%는 1년 내내 지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11개월 정도 지속가능하다는 노인은 40.9%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약 90%는 8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7〉 참조).

1년 내내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노인(55.9%)이 여자노인(41.4%)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1년 내내 근무가 가능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8~11개월 정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인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년 내내 근무가능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8~11개월 정도 근무가능한 일자리는 55.7%로 가장 높고, 1년 내내 근무가능한 일자리는 3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는 1년 내내 근무가능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78.9%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8~11개월 정도 근무가능한 일자리는 16.3%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상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경우, 1년 내내 근무가능한 일에 종사하는 비율은 50.9%로 가장 높으며,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은 주로 8~11개월 정도 근무가능한 일(60.1%)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7〉 참조).

〈표 10-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단위: %, 명)

특성	사업체아님 (농림어업)	개인사업체	민간회사	공공기관	특정사업 미소속	기타 ²⁾	계 (명)
전체 ¹⁾	37.9	23.3	12.4	14.5	7.0	4.9	100.0 (2,970)
지역							
동부	16.4	31.5	17.3	18.5	9.9	6.4	100.0 (1,877)
읍면부	74.7	9.3	4.0	7.7	2.2	2.1	100.0 (1,097)
성							
남자	35.4	26.8	17.5	10.2	6.5	3.7	100.0 (1,610)
여자	40.8	19.2	6.4	19.6	7.7	6.3	100.0 (1,359)
연령							
65~69세	28.0	32.5	20.2	9.1	5.7	4.4	100.0 (1,291)
70~74세	41.2	20.6	9.4	16.6	6.9	5.3	100.0 (884)
75~79세	48.0	11.2	3.2	23.6	9.5	4.5	100.0 (535)
80~84세	52.9	11.9	1.9	17.1	8.6	7.6	100.0 (210)
85세 이상	62.5	14.6	4.2	6.3	12.5	0.0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6	24.6	13.5	11.3	6.0	4.0	100.0 (2,171)
배우자 없음	30.4	19.9	9.4	23.3	9.8	7.4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32.3	18.1	8.1	23.4	10.5	7.6	100.0 (542)
노인부부	44.2	21.3	12.2	12.0	6.0	4.2	100.0 (1,592)
자녀동거	29.1	32.3	14.7	13.1	6.4	4.4	100.0 (702)
기타	32.3	20.3	18.8	15.8	8.3	4.5	100.0 (1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7.7	9.6	3.7	15.1	10.0	4.1	100.0 (219)
무학(글자해독)	48.7	13.5	6.3	16.3	9.7	5.3	100.0 (569)
초등학교	43.5	19.8	10.4	14.5	6.8	5.0	100.0 (1,071)
중학교	30.3	30.7	14.7	13.6	6.4	4.4	100.0 (456)
고등학교	20.1	35.5	20.9	15.0	6.0	2.6	100.0 (468)
전문대학 이상	12.6	41.1	25.3	9.5	1.1	10.5	100.0 (19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3	7.3	1.6	31.9	14.9	7.0	100.0 (383)
제2오분위	48.7	12.3	3.9	20.6	7.0	7.5	100.0 (587)
제3오분위	44.5	20.0	13.4	11.4	6.7	3.9	100.0 (699)
제4오분위	33.5	28.5	16.5	11.4	6.2	4.0	100.0 (678)
제5오분위	25.3	41.9	21.2	4.9	3.4	3.3	100.0 (61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3	24.2	13.1	14.3	7.1	5.0	100.0 (2,753)
제한 있음	57.8	11.9	3.2	17.4	6.0	3.7	100.0 (2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비영리/시민단체/종교단체 3.5%,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 1.4%를 합한 값임.

〈표 10-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일의 단속성

(단위: %, 명)

특성	반년(5~7개월) 미만 근무 가능	1년(8~11개월)정도 근무 가능	1년 내내 근무 가능	계 (명)
전체 ¹⁾	9.8	40.9	49.3	100.0 (2,970)
지역				
동부	10.4	29.9	59.7	100.0 (1,876)
읍면부	8.8	59.9	31.3	100.0 (1,095)
성				
남자	9.1	35.0	55.9	100.0 (1,610)
여자	10.6	48.0	41.4	100.0 (1,360)
연령				
65~69세	8.8	27.9	63.2	100.0 (1,292)
70~74세	10.7	44.2	45.0	100.0 (884)
75~79세	11.9	58.0	30.0	100.0 (536)
80~84세	6.6	59.7	33.6	100.0 (211)
85세 이상	10.4	56.3	33.3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3	38.8	52.9	100.0 (2,170)
배우자 없음	14.0	46.8	39.3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4.5	48.6	36.8	100.0 (543)
노인부부	7.8	42.9	49.2	100.0 (1,593)
자녀동거	10.4	31.1	58.5	100.0 (701)
기타	11.2	38.1	50.7	100.0 (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4.2	55.7	30.1	100.0 (219)
무학(글자해독)	12.7	54.0	33.3	100.0 (568)
초등학교	9.7	45.4	44.9	100.0 (1,070)
중학교	10.3	33.5	56.2	100.0 (457)
고등학교	6.2	24.8	69.0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4.7	16.3	78.9	100.0 (19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2	58.5	24.3	100.0 (383)
제2오분위	13.4	57.0	29.6	100.0 (588)
제3오분위	9.6	43.3	47.1	100.0 (699)
제4오분위	9.4	29.9	60.6	100.0 (678)
제5오분위	2.6	23.9	73.5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9.7	39.4	50.9	100.0 (2,753)
제한 있음	11.0	60.1	28.9	100.0 (2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6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주 7일간 근무하는 노인은 25.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 5일 근무한다는 노인은 24.0%, 주 3일 18.6%, 주 6일 18.3%, 6.7% 등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 중 주 3일 근무하는 비율이 22.0%로 주 3일 근무하는 읍면부 노인(12.7%)에 비해 높은 반면, 주 7일 근무하는 노인 비율은 읍면부 노인이 37.1%로 동부 노인 1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69세 연령군은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약 70%인 반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 3일, 주 5일, 주 7일 근무가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 7일 근무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에서 주 5일 근무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제1오분위(32.3%) 및 제2오분위(24.5%) 계층에서 주 3일 근무 노인 비율이 높으며, 제4오분위(27.1%) 및 제5오분위(26.0%) 계층은 주 5일 근무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중 주 5일(24.6%)과 주 7일(24.5%)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31.7%는 주 7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기능제한 노인 비율이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일수

(단위: %, 명)

특성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체 ¹⁾	6.7	18.6	7.4	24.0	18.3	25.0	100.0 (2,970)
지역							
동부	8.5	22.0	8.2	25.4	18.0	18.0	100.0 (1,875)
읍·면부	3.6	12.7	6.2	21.7	18.7	37.1	100.0 (1,094)
성							
남자	5.8	16.6	9.3	25.0	18.2	25.2	100.0 (1,610)
여자	7.7	21.0	5.1	22.9	18.4	24.9	100.0 (1,360)
연령							
65~69세	6.6	14.7	9.4	27.2	21.8	20.4	100.0 (1,292)
70~74세	6.9	21.4	6.2	21.6	16.9	27.0	100.0 (883)
75~79세	5.6	22.4	5.6	22.4	12.3	31.7	100.0 (536)
80~84세	9.1	22.0	4.3	19.6	18.2	26.8	100.0 (209)
85세 이상	8.2	14.3	8.2	22.4	16.3	30.6	100.0 (4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	15.8	8.2	25.0	18.9	25.9	100.0 (2,168)
배우자 없음	8.2	26.2	5.1	21.3	16.6	22.5	100.0 (801)
가구형태							
노인독거	8.9	26.6	6.1	21.8	12.2	24.5	100.0 (542)
노인부부	6.8	16.0	7.5	25.6	18.1	26.0	100.0 (1,592)
자녀동거	5.0	17.9	8.9	23.3	21.6	23.4	100.0 (700)
기타	5.9	22.2	3.7	17.8	27.4	23.0	100.0 (13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9	20.3	7.8	20.7	13.4	30.9	100.0 (217)
무학(글자해독)	5.1	21.7	3.9	22.5	16.5	30.3	100.0 (568)
초등학교	5.8	18.1	6.1	21.9	21.4	26.7	100.0 (1,070)
중학교	7.0	16.2	11.2	23.4	17.9	24.3	100.0 (457)
고등학교	6.2	18.2	11.6	29.6	18.4	16.1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17.6	17.0	5.9	32.4	11.2	16.0	100.0 (18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1	32.3	5.7	19.5	7.0	26.3	100.0 (384)
제2오분위	7.2	24.5	4.8	22.7	15.2	25.7	100.0 (587)
제3오분위	5.3	15.0	7.7	23.3	22.5	26.2	100.0 (699)
제4오분위	4.9	13.3	8.5	27.1	21.4	24.9	100.0 (679)
제5오분위	8.7	13.6	9.5	26.0	20.3	21.9	100.0 (611)
기능상태							
제한 없음	6.7	18.5	7.6	24.6	18.2	24.5	100.0 (2,752)
제한 있음	6.4	20.2	5.0	17.4	19.3	31.7	100.0 (2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로 가장 높으며, 40~49시간 19.2%, 9시간 이하 16.6%, 10~19시간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9〉 참조).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9시간 이하 근무 비율(18.8%)과 50시간 이상 근무 비율(22.3%)이 높다. 동부 노인의 22.3%는 주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40~49시간 근무자도 23.0%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 노인의 20.6%는 40~49시간, 18.3%는 20~2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자노인은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근무시간이 29시간 이하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주당 9시간 이하 근무자 비율이 25.4%로 가장 높으며, 10~19시간 20.8%, 20~29시간 16.0%로 일주일에 29시간 이하 근무자 비율이 높다. 반면,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주당 50시간 이상 비율이 각각 21.3%와 23.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일주일에 9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율이 33.6%로 가장 높으며, 10~19시간 22.9%, 20~29시간 15.9%, 30~39시간 10.7%로 주당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경향은 제2오분위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3오분위 이상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주5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적은 반면, 제3오분위 이상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특성	9시간 이하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49 시간	5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16.6	15.8	14.1	14.3	19.2	20.0	100.0 (2,970)
지역							
동부	18.8	15.9	11.7	12.9	18.5	22.3	100.0 (1,875)
읍·면·부	12.8	15.4	18.3	16.8	20.6	16.1	100.0 (1,094)
성							
남자	11.8	13.5	12.6	14.0	23.0	25.0	100.0 (1,611)
여자	22.3	18.4	16.0	14.6	14.7	14.0	100.0 (1,360)
연령							
65~69세	11.2	11.1	11.2	15.6	25.1	26.0	100.0 (1,291)
70~74세	18.9	16.3	15.5	13.0	15.9	20.4	100.0 (883)
75~79세	22.9	20.3	16.2	14.5	15.3	10.8	100.0 (537)
80~84세	23.7	28.0	19.9	10.0	10.0	8.5	100.0 (211)
85세 이상	19.1	29.8	19.1	21.3	6.4	4.3	100.0 (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2	14.3	13.8	14.4	21.5	22.8	100.0 (2,170)
배우자 없음	25.8	19.8	15.0	14.1	13.0	12.4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5.4	20.8	16.0	15.5	13.4	8.8	100.0 (543)
노인부부	14.7	14.9	14.2	14.3	20.6	21.3	100.0 (1,594)
자녀동거	14.8	13.7	13.4	14.1	20.3	23.7	100.0 (701)
기타	11.9	16.4	9.0	10.4	20.9	31.3	100.0 (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2	23.3	19.6	10.5	15.5	11.9	100.0 (219)
무학(글자해독)	17.6	19.2	17.6	17.6	14.4	13.6	100.0 (568)
초등학교	16.7	15.2	14.8	14.5	18.1	20.7	100.0 (1,071)
중학교	12.7	16.8	12.5	15.1	19.0	23.9	100.0 (457)
고등학교	15.4	10.7	9.2	10.7	26.3	27.6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22.2	10.1	10.1	14.8	27.0	15.9	100.0 (1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6	22.9	15.9	10.7	10.2	6.8	100.0 (384)
제2오분위	24.3	22.6	17.3	13.6	12.1	10.2	100.0 (589)
제3오분위	11.2	14.6	14.7	16.0	21.3	22.2	100.0 (699)
제4오분위	9.2	12.0	12.1	16.1	22.0	28.7	100.0 (677)
제5오분위	12.7	10.0	11.8	13.6	26.3	25.7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2	15.3	13.4	14.4	19.7	21.0	100.0 (2,753)
제한 있음	21.2	20.7	23.5	12.9	13.8	7.8	100.0 (21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현 직종 종사기간을 분석해 보면, 응답자의 28.6%는 5년 미만의 짧은 근로경력을 갖고 있는 반면 41.4%는 30년 이상의 장기 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10〉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37.7%가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종사한 반면 읍면부 노인의 경우 69.7%가 30년 이상의 장기 근로 경력을 갖고 있다. 성별에서는 여자노인의 경우 5년 미만 종사경력을 가진 비율(34.1%)이 남자노인(2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30년 이상 근무한 비중이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5년 미만 근로 비율이 39.8%로 높으며,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4.9%가 30년 이상의 장기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5년 미만 단기 근로 경력자가 39.1%로 높은 반면 30년 이상 장기 근로 경력자는 34.1%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30년 이상 근로자가 각각 46.4%와 36.4%로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 노인 중 50% 이상이 현재 직종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의 34.5%는 현재 직종에서 근무한지 5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았을 때,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5년 이하의 단기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제1오분위 46.6%, 제5오분위 20.3%), 30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제3오분위(46.5%)와 제2오분위(43.8%)에서 높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79.3%로 월등히 높으며, 다음으로 용돈마련 8.6%, 시간보내기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11〉 참조).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동부 76.5%, 읍면부 84.1%), 용돈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노인은 동부(11.1%)가 읍면부(4.3%)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노인(80.5%)은 여자노인(77.9%)보다 생활비 목적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반면, 용돈마련은 여자노인(11.7%)이 남자노인(6.0%)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나타났다.

〈표 10-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28.6	11.6	12.0	6.5	41.4	100.0 (2,970)
지역						
동부	37.7	15.1	14.3	8.0	24.8	100.0 (1,876)
읍면부	13.0	5.4	8.0	3.8	69.7	100.0 (1,094)
성						
남자	24.1	12.9	13.2	7.6	42.4	100.0 (1,610)
여자	34.1	9.9	10.6	5.2	40.2	100.0 (1,359)
연령						
65~69세	28.0	14.5	13.9	8.7	34.9	100.0 (1,291)
70~74세	27.7	11.2	12.0	5.7	43.4	100.0 (884)
75~79세	32.5	7.5	7.6	4.1	48.3	100.0 (536)
80~84세	29.0	7.1	11.0	2.4	50.5	100.0 (210)
85세 이상	18.8	6.3	10.4	6.3	58.3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5	11.2	12.4	7.0	44.9	100.0 (2,169)
배우자 없음	39.8	12.4	10.9	5.1	31.9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39.1	12.2	9.8	4.8	34.1	100.0 (542)
노인부부	24.5	10.7	12.1	6.3	46.4	100.0 (1,592)
자녀동거	29.1	12.8	13.4	8.3	36.4	100.0 (701)
기타	33.1	12.8	12.8	4.5	36.8	100.0 (13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3	6.9	6.4	1.4	55.0	100.0 (218)
무학(글자해독)	28.8	8.4	8.6	4.0	50.1	100.0 (569)
초등학교	26.1	10.7	10.5	7.0	45.8	100.0 (1,070)
중학교	29.8	10.9	15.1	7.0	37.2	100.0 (457)
고등학교	34.5	15.8	15.0	10.3	24.4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23.8	21.7	22.2	6.3	25.9	100.0 (1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6	8.3	8.1	1.8	35.2	100.0 (384)
제2오분위	35.4	9.7	6.5	4.6	43.8	100.0 (587)
제3오분위	26.0	9.0	12.3	6.2	46.5	100.0 (699)
제4오분위	22.9	15.0	13.9	6.8	41.4	100.0 (678)
제5오분위	20.3	14.7	16.7	11.3	37.1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6	12.0	12.2	6.8	40.4	100.0 (2,752)
제한 있음	28.9	6.0	9.2	2.8	53.2	100.0 (218)
2011년도	24.7	8.9	8.3	8.0	50.1	100.0 (3,57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활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 (명)
전체 ¹⁾	79.3	8.6	3.1	0.4	3.6	3.0	1.8	0.2	100.0 (2,970)
지역									
동부	76.5	11.1	3.2	0.5	3.3	3.6	1.7	0.2	100.0 (1,875)
읍면부	84.1	4.3	3.0	0.2	4.2	1.9	2.0	0.3	100.0 (1,096)
성									
남자	80.5	6.0	3.5	0.6	3.4	3.8	2.2	0.1	100.0 (1,612)
여자	77.9	11.7	2.7	0.2	3.8	2.0	1.3	0.4	100.0 (1,360)
연령									
65~69세	83.1	5.2	2.1	0.4	3.0	3.7	2.3	0.2	100.0 (1,293)
70~74세	79.5	9.9	3.5	0.3	2.5	2.8	1.4	0.1	100.0 (883)
75~79세	74.8	12.9	3.2	0.6	5.2	1.3	2.1	0.0	100.0 (535)
80~84세	71.4	12.4	6.2	1.0	5.7	2.9	0.0	0.5	100.0 (210)
85세 이상	61.7	10.6	12.8	0.0	12.8	2.1	0.0	0.0	100.0 (4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0.6	6.5	2.9	0.4	3.8	3.3	2.3	0.2	100.0 (2,171)
배우자 없음	75.8	14.1	3.8	0.5	3.0	2.1	0.6	0.1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80.2	11.6	3.1	0.7	3.0	0.9	0.4	0.0	100.0 (541)
노인부부	79.8	7.0	3.0	0.2	4.0	3.2	2.7	0.1	100.0 (1,593)
자녀동거	77.2	10.1	3.7	0.7	3.3	3.6	1.0	0.4	100.0 (702)
기타	79.9	7.5	2.2	0.0	3.7	4.5	1.5	0.7	100.0 (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1.6	12.0	1.8	0.0	2.3	1.4	0.9	0.0	100.0 (217)
무학(글자해독)	81.7	9.0	2.3	0.2	4.4	1.2	1.1	0.2	100.0 (569)
초등학교	82.0	9.3	2.3	0.1	3.0	1.7	1.5	0.1	100.0 (1,070)
중학교	77.5	9.2	3.9	0.9	4.6	2.0	1.5	0.4	100.0 (457)
고등학교	79.7	6.2	4.5	0.6	3.6	3.2	2.1	0.0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58.2	3.7	6.9	1.6	3.7	19.0	6.3	0.5	100.0 (1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3.8	10.4	2.1	0.3	2.6	0.8	0.0	0.0	100.0 (383)
제2오분위	79.6	11.1	3.4	0.0	3.9	1.4	0.5	0.2	100.0 (587)
제3오분위	82.2	8.5	1.7	0.3	2.4	2.3	2.6	0.0	100.0 (698)
제4오분위	77.4	7.8	3.4	0.6	5.0	3.1	2.4	0.3	100.0 (678)
제5오분위	75.7	5.9	4.9	0.8	3.4	6.0	2.6	0.7	100.0 (61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8	8.5	3.0	0.4	3.2	3.2	1.8	0.1	100.0 (2,752)
제한 있음	72.9	9.6	5.0	0.5	8.7	0.5	1.8	0.9	100.0 (219)
2011년도	79.4	6.8	5.6	0.2	4.4	1.3	1.6	0.9	100.0 (3,56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65~69세 83.1%에서 85세 이상 61.7%), 연령대가 높을수록 용돈마련, 건강유지, 그리고 시간보내기 등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초등학교 등 저학력층에서 생활비 목적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생활비 목적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58.2%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능력발휘(19.0%), 건강유지(6.9%) 등을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서도 제1오분위 계층과 제3오분위 계층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83.8%와 82.2%로 가장 높고, 제5오분위 계층은 능력발휘 6.0%, 용돈 마련 5.9%, 건강유지 4.9%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7.0%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51.8%는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해 노인의 약 60%가 현재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12〉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54.7%는 만족하는 편이며, 8.8%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63.5%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읍면부 노인 중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8%와 3.9%로 약 5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동부 노인에 비해 만족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연령군 노인에게서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와 기타가구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60% 이상)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 만족도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7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 만족도는 경향성을 띄고 있으며, 제5오분위 계층의 만족 수준(매우 만족 및 만족하는 편)은 72.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집단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 중 약 25.0%는 경제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만족하지 않는 편 24.3%, 전혀 만족하지 않음 0.9%) 나타났다.

<표 10-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7.0	51.8	27.0	13.0	1.1	100.0 (2,970)
지역						
동부	8.8	54.7	24.5	11.4	0.6	100.0 (1,876)
읍면부	3.9	46.8	31.4	16.0	1.9	100.0 (1,094)
성						
남자	8.6	53.2	25.7	11.4	1.1	100.0 (1,610)
여자	5.2	50.1	28.6	15.0	1.1	100.0 (1,359)
연령						
65~69세	8.4	55.4	22.9	12.5	0.7	100.0 (1,291)
70~74세	6.9	50.1	28.1	13.8	1.1	100.0 (884)
75~79세	5.8	48.7	31.5	12.1	1.9	100.0 (536)
80~84세	2.9	45.7	35.2	14.3	1.9	100.0 (210)
85세 이상	2.1	45.8	33.3	18.8	0.0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3	51.5	26.9	13.1	1.2	100.0 (2,170)
배우자 없음	6.3	52.5	27.5	13.0	0.8	100.0 (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5	51.8	29.2	12.7	0.7	100.0 (542)
노인부부	6.8	51.1	29.0	11.7	1.4	100.0 (1,594)
자녀동거	8.8	52.5	22.0	16.3	0.4	100.0 (701)
기타	6.7	56.3	20.7	14.1	2.2	100.0 (13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7	44.0	28.4	21.6	2.3	100.0 (218)
무학(글자해독)	3.3	46.5	31.9	17.6	0.7	100.0 (568)
초등학교	4.9	49.9	31.9	12.0	1.4	100.0 (1,070)
중학교	6.8	57.8	21.9	12.3	1.3	100.0 (457)
고등학교	13.1	58.2	18.4	9.6	0.6	100.0 (467)
전문대학 이상	20.2	56.9	17.6	5.3	0.0	100.0 (18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	45.8	33.2	15.7	1.3	100.0 (382)
제2오분위	4.1	46.8	32.7	15.6	0.9	100.0 (588)
제3오분위	6.0	49.5	28.6	14.2	1.7	100.0 (699)
제4오분위	7.2	53.8	25.0	12.7	1.3	100.0 (677)
제5오분위	12.4	60.3	19.0	8.2	0.2	100.0 (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7.1	53.0	26.6	12.2	1.1	100.0 (2,752)
제한 있음	5.5	36.2	33.0	24.3	0.9	100.0 (218)
2011년도	9.4	42.3	27.4	17.7	3.1	100.0 (3,56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표 10-13>에 의하면, 낮은 급여수준이 51.0%, 본인의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이 30.4%, 일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음이 9.2%, 기타가 9.4% 등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의 경우, 불만족 사유로 낮은 급여수준이 62.7%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이유가 47.2%로 가장 높아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5~69세 연령군과 75~79세 연령군은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족이 56.7%와 55.4%로 높으며, 80~84세 연령군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군은 건강상태로 인한 불만족이 67.6%와 66.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학 이상인 노인의 경우 낮은 급여로 인한 불만족 사유가 80.0%에 이르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제2오분위는 낮은 급여수준 45.4%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이 42.3%로 유사한 수준이며, 제4오분위에서 급여에 대한 불만족 사유가 59.4%로 가장 높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집단은 현재 일에 대한 불만족 사유가 급여수준(54.2%)이 가장 높은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집단은 건강상태와 일의 수준이 맞지 않음(5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56.4%는 현업이 최장기 종사 직종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종사 직종이 아닌 새로운 일인 사람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14>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현재 직종과 최장기 직종이 같은 비율이 76.7%로 높은데, 이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생애근로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동부 노인은 이직을 통해 현재 일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현업이 최장기 직종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기 직업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현재일자리와 최장기 일자리 일치 비율은 노인부부가구(59.1%)가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51.5%)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일이 최장기 직종이 아닌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현재의 일이 최장기 직종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인 노인의 53.1%는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종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제3오분위의 노인은 60.8%가 현재 직종과 최장기 직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일의 내용	기타 ²⁾	계 (명)
전체 ¹⁾	51.0	30.4	9.2	9.4	100.0 (421)
지역					
동부	62.7	15.6	10.2	11.6	100.0 (225)
읍면부	37.4	47.2	8.2	7.2	100.0 (195)
성					
남자	55.7	19.9	8.0	16.4	100.0 (201)
여자	46.8	39.5	10.5	3.2	100.0 (220)
연령					
65~69세	56.7	17.0	11.1	15.2	100.0 (171)
70~74세	50.8	34.1	9.8	5.3	100.0 (132)
75~79세	55.4	32.4	6.8	5.4	100.0 (74)
80~84세	23.5	67.6	5.9	2.9	100.0 (34)
85세 이상	22.2	66.7	0.0	11.1	100.0 (9) ³⁾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0.6	29.5	8.4	11.4	100.0 (308)
배우자 없음	51.8	33.0	11.6	3.6	100.0 (112)
가구형태					
노인독거	53.4	31.5	12.3	2.7	100.0 (73)
노인부부	46.7	32.9	11.0	9.5	100.0 (210)
자녀동거	57.3	25.6	5.1	12.0	100.0 (117)
기타	52.4	28.6	4.8	14.3	100.0 (2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2.1	52.8	13.2	1.9	100.0 (53)
무학(글자해독)	40.4	45.2	9.6	4.8	100.0 (104)
초등학교	53.1	29.4	5.6	11.9	100.0 (143)
중학교	60.3	9.5	9.5	20.6	100.0 (63)
고등학교	70.2	8.5	17.0	4.3	100.0 (47)
전문대학 이상	80.0	0.0	0.0	20.0	100.0 (10)
연가소득					
제1오분위	52.2	32.8	10.4	4.5	100.0 (67)
제2오분위	45.4	42.3	8.2	4.1	100.0 (97)
제3오분위	50.9	25.9	11.6	11.6	100.0 (112)
제4오분위	59.4	21.9	9.4	9.4	100.0 (96)
제5오분위	46.2	28.8	3.8	21.2	100.0 (52)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2	26.3	9.6	9.9	100.0 (365)
제한 있음	29.1	58.2	7.3	5.5	100.0 (55)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421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인간관계 등을 합한 값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0-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56.4	43.6	100.0(2,970)
지역			
동부	44.6	55.4	100.0(1,876)
읍·면부	76.7	23.3	100.0(1,095)
성			
남자	52.2	47.8	100.0(1,610)
여자	61.4	38.6	100.0(1,359)
연령			
65~69세	54.8	45.2	100.0(1,292)
70~74세	56.1	43.9	100.0(884)
75~79세	58.0	42.0	100.0(536)
80~84세	60.5	39.5	100.0(210)
85세 이상	68.8	31.3	100.0(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2	41.8	100.0(2,170)
배우자 없음	51.5	48.5	100.0(8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1.5	48.5	100.0(542)
노인부부	59.1	40.9	100.0(1,593)
자녀동거	54.1	45.9	100.0(701)
기타	56.7	43.3	100.0(13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4.7	35.3	100.0(218)
무학(글자해독)	62.9	37.1	100.0(568)
초등학교	61.8	38.2	100.0(1,070)
중학교	54.9	45.1	100.0(457)
고등학교	42.1	57.9	100.0(468)
전문대학 이상	36.0	64.0	100.0(1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9	53.1	100.0(384)
제2오분위	57.1	42.9	100.0(588)
제3오분위	60.8	39.2	100.0(699)
제4오분위	57.1	42.9	100.0(678)
제5오분위	56.4	43.6	100.0(6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55.7	44.3	100.0(2,753)
제한 있음	65.6	34.6	100.0(217)
2011년도	67.8	32.2	100.0(3,58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근로생애에서 노인들이 가장 오래 종사했던 직종을 살펴본 <표 10-15>에 의하면, 전체의 4.7%는 관리직에 종사했으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1%, 사무종사자 4.8%, 서비스 종사자 7.8%, 판매종사자 12.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7%, 기능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9.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7%, 단순노무종사자 19.2% 등이다. 최장기 종사 직종에 있어서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읍·면부 노인의 경우 61.5%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동부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가 21.5%로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직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남자노인의 최장기 종사 직종은 여자노인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최장기 종사 직종이 농림어업숙련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리자, 기능원·관련 직종,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의 비율은 낮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종 분포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낮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비중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의 최장기 종사 직종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가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상용근로자 28.1%, 무급가족종사자 19.1%, 일용근로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16> 참조). 읍·면부 노인의 경우 동부 노인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동부 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33.5%로 가장 높았다. 남자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42.5%)와 자영업자(37.3%)의 비율이 높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34.7%)와 자영업자(23.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초등학교(36.0%)와 중학교(36.8%)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가구소득이 높고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비중에게서 높고, 일용근로자는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의 노인에게서 높다. 그리고 기능상태 제한이 있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다.

〈표 10-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군인	계 (명)
전체 ¹⁾	4.7	6.1	4.8	7.8	12.7	27.7	9.6	6.7	19.2	0.7	100.0 (9,181)
지역											
동부	5.5	7.4	5.8	9.1	14.4	16.3	11.4	7.9	21.5	0.8	100.0 (6,880)
읍면부	2.6	2.5	1.8	3.8	7.6	61.5	4.5	3.1	12.3	0.2	100.0 (2,303)
성											
남자	9.0	8.7	7.3	4.6	9.3	20.7	15.0	12.1	11.7	1.5	100.0 (4,270)
여자	1.0	3.9	2.6	10.5	15.6	33.7	5.0	1.9	25.7	0.0	100.0 (4,909)
연령											
65~69세	6.8	6.0	7.0	10.8	12.7	16.8	11.8	9.2	18.2	0.6	100.0 (2,962)
70~74세	4.4	6.3	4.2	8.2	11.9	24.1	10.9	7.1	22.6	0.4	100.0 (2,572)
75~79세	3.8	6.6	4.1	4.6	12.3	33.9	7.8	5.8	20.6	0.6	100.0 (1,899)
80~84세	3.5	6.5	3.0	5.7	14.0	41.5	6.4	3.0	14.9	1.4	100.0 (1,117)
85세 이상	1.4	4.1	2.4	4.3	15.4	50.4	5.4	2.9	13.2	0.6	100.0 (6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1	7.9	6.1	6.5	11.5	25.7	11.3	9.3	14.6	0.9	100.0 (5,693)
배우자 없음	2.6	3.2	2.7	9.8	14.6	30.9	6.9	2.5	26.6	0.2	100.0 (3,487)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3.8	2.7	9.8	13.6	30.2	7.4	3.0	26.7	0.3	100.0 (2,137)
노인부부	5.7	7.7	6.1	6.5	11.4	27.6	11.1	8.4	14.5	0.9	100.0 (4,129)
자녀동거	4.7	5.9	4.2	7.8	14.2	26.3	9.2	7.0	20.1	0.6	100.0 (2,536)
기타	6.1	4.5	6.1	9.2	12.6	23.7	8.7	7.9	21.3	0.0	100.0 (38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2	0.2	0.0	3.7	11.8	50.8	3.0	1.1	29.2	0.0	100.0 (900)
무학(글자해독)	0.5	0.4	0.3	7.4	10.7	42.8	7.4	3.6	27.1	0.0	100.0 (1,953)
초등학교	1.2	0.6	1.1	9.2	14.5	31.8	11.0	7.4	23.0	0.3	100.0 (2,910)
중학교	3.5	2.7	4.6	10.7	15.9	16.4	15.9	13.5	16.1	0.8	100.0 (1,152)
고등학교	12.0	10.0	17.6	8.1	13.8	8.1	12.4	9.9	6.6	1.5	100.0 (1,498)
전문대학 이상	22.2	46.4	11.0	2.9	5.6	1.7	3.4	2.2	2.1	2.6	100.0 (767)
연가소득											
제1오분위	1.6	2.4	2.5	7.5	12.8	32.6	7.8	3.6	29.1	0.1	100.0 (1,892)
제2오분위	3.4	3.2	2.6	6.8	13.8	33.1	8.7	6.6	21.6	0.2	100.0 (1,890)
제3오분위	3.4	4.2	4.2	7.9	12.1	29.0	12.0	8.4	18.1	0.7	100.0 (1,810)
제4오분위	6.3	7.3	7.2	8.8	12.3	23.3	11.0	7.7	15.3	0.7	100.0 (1,792)
제5오분위	9.2	13.9	7.6	7.9	12.5	19.7	8.9	7.5	11.1	1.6	100.0 (1,801)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	6.6	5.4	8.1	12.6	24.6	10.6	7.4	18.7	0.7	100.0 (7,681)
제한 있음	1.3	3.7	1.9	5.8	13.5	43.6	4.9	3.5	21.7	0.3	100.0 (1,501)
2011년도	3.4	3.8	4.8	6.2	11.9	38.1	9.5	4.2	17.3	0.7	100.0 (9,55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28.1	6.8	11.1	3.6	30.1	19.1	1.2	100.0 (9,181)
지역								
동부	33.5	8.1	11.9	4.1	27.2	13.8	1.4	100.0 (6,878)
읍면부	12.0	3.3	8.5	2.0	38.6	34.6	0.7	100.0 (2,303)
성								
남자	42.5	3.4	9.0	6.1	37.3	1.2	0.4	100.0 (4,272)
여자	15.6	9.8	12.8	1.4	23.8	34.7	1.9	100.0 (4,908)
연령								
65~69세	34.7	7.5	10.8	5.6	26.7	13.0	1.7	100.0 (2,963)
70~74세	30.3	8.2	12.0	2.4	28.6	17.0	1.5	100.0 (2,573)
75~79세	24.1	6.6	11.9	3.2	31.5	21.9	0.7	100.0 (1,898)
80~84세	19.9	4.7	8.8	2.3	36.5	27.4	0.4	100.0 (1,117)
85세 이상	14.8	3.0	9.7	1.4	36.8	33.7	0.6	100.0 (6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5	5.4	8.7	4.4	30.8	15.2	1.0	100.0 (5,696)
배우자 없음	17.8	9.3	14.9	2.2	28.9	25.5	1.5	100.0 (3,487)
가구형태								
노인독거	17.5	10.0	15.3	2.6	29.2	24.0	1.4	100.0 (2,137)
노인부부	33.2	5.3	8.8	4.2	31.0	16.6	0.9	100.0 (4,125)
자녀동거	28.6	6.5	10.8	3.5	29.6	19.6	1.4	100.0 (2,537)
기타	29.0	8.4	12.9	2.9	28.8	16.1	1.8	100.0 (37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8	6.9	20.5	0.1	24.2	39.9	0.6	100.0 (899)
무학(글자해독)	12.3	7.6	17.4	0.6	29.8	31.2	1.1	100.0 (1,955)
초등학교	19.2	8.7	11.3	2.4	36.0	21.3	1.1	100.0 (2,910)
중학교	30.2	7.9	8.7	5.6	36.8	8.9	1.9	100.0 (1,153)
고등학교	51.7	4.1	3.8	7.5	27.6	3.7	1.7	100.0 (1,497)
전문대학 이상	77.0	1.6	0.7	8.7	9.9	1.3	0.8	100.0 (76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0	9.4	18.4	1.6	29.5	23.9	1.2	100.0 (1,892)
제2오분위	21.4	6.9	13.2	2.9	33.0	21.4	1.3	100.0 (1,887)
제3오분위	27.7	6.5	9.6	3.7	33.3	18.4	0.8	100.0 (1,800)
제4오분위	35.5	6.2	7.3	4.0	29.3	16.5	1.3	100.0 (1,787)
제5오분위	41.3	5.0	6.4	5.7	25.2	15.0	1.4	100.0 (1,79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9	7.2	10.5	4.0	30.0	16.2	1.3	100.0 (7,681)
제한 있음	13.8	5.3	14.1	1.4	30.4	34.2	0.9	100.0 (1,501)
2011년도	21.5	5.3	12.6	3.5	34.9	21.3	0.8	100.0 (9,56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의 근로생애에서 최장기 종사 직종이 정부지원일자리인 비율은 2.2%로 남자노인(0.5%)보다는 여자노인(4.5%)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5세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최장기 종사 직종이 정부지원일자리 비율이 2.8~3.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장

기 종사 직종이 정부지원일자리인 비율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노인독거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무학(글자모름)과 중학교가 각각 4.4%와 3.2%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서는 제1오분위 노인 중 4.6%가 최장기 종사 직종이 정부지원일자리로 분석되었으며, 기능상태 제한 여부와는 큰 차이가 없다(〈표 10-17〉 참조).

〈표 10-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2.2	97.8	100.0 (4,226)
지역			
동부	2.4	97.6	100.0 (3,679)
읍면부	1.5	98.5	100.0 (548)
성			
남자	0.5	99.5	100.0 (2,347)
여자	4.5	95.5	100.0 (1,879)
연령			
65~69세	1.5	98.5	100.0 (1,570)
70~74세	2.4	97.6	100.0 (1,300)
75~79세	2.8	97.2	100.0 (810)
80~84세	3.5	96.5	100.0 (374)
85세 이상	2.9	97.1	100.0 (17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	98.3	100.0 (2,764)
배우자 없음	3.4	96.6	100.0 (1,462)
가구형태			
노인독거	3.9	96.1	100.0 (916)
노인부부	1.7	98.3	100.0 (1,952)
자녀동거	1.7	98.3	100.0 (1,167)
기타	2.6	97.4	100.0 (19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4	95.6	100.0 (315)
무학(글자해독)	3.0	97.0	100.0 (730)
초등학교	2.7	97.3	100.0 (1,142)
중학교	3.2	96.8	100.0 (538)
고등학교	0.9	99.1	100.0 (892)
전문대학 이상	0.3	99.7	100.0 (6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	95.4	100.0 (826)
제2오분위	2.6	97.4	100.0 (782)
제3오분위	1.8	98.2	100.0 (789)
제4오분위	1.1	98.9	100.0 (875)
제5오분위	1.3	98.7	100.0 (94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	97.8	100.0 (3,729)
제한 있음	2.4	97.6	100.0 (49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4,226명을 대상으로 함.

최장기 종사 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본 <표 10-18>에 의하면 40년 이상 종사한 비율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0~40년 미만은 22.3%, 20~30년 미만 20.6% 등이었으며, 5년 미만 종사자는 4.3%로 가장 낮다. 40년 이상 종사한 비율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훨씬 높다. 남자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종에서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비율이 80% 이상인 반면, 여자노인은 20년 이상인 비율이 약 57%에 불과하며, 10~20년 미만이 23.6%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근로활동은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근로지속의 한계가 있으며, 한 직장에서 장기근로한 여자의 상당수는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노인의 경우, 최장기 종사 직종에서 종사한 기간이 40년 이상 비율이 높은 편이며, 중학교 학력의 노인에게서는 10년~20년 미만(21.5%),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22.6%) 비중이 높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에게서는 최장기 직종 종사기간이 30~40년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40년 이상 장기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30~40년 미만 종사자는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높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36.3%는 최장기 직종 종사기간이 50년 이상인 반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24.6%로 나타났다.

최장기 종사 직종을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 등이 24.1%, 정년퇴직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19> 참조). 읍면부 노인은 건강으로 인한 최장기 직종을 그만두는 비율이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부 노인은 건강 32.0%,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이 25.7%, 정년퇴직 15.9%로 상대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노인은 정년퇴직(28.5%),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27.9%), 건강문제(26.2%)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건강문제(44.3%),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21.0%) 비중이 높다.

한편, 연령대에 따라 퇴직 사유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년퇴직,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으로 인한 퇴직과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정년퇴직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에서는 건강으로 인한 최장기 종사 직종에서의 퇴직이 높게 나타난다. 건

강문제로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은 노인독거가구(45.3%)에서 높았으며, 정년퇴직은 노인부부가구(21.5%)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4.3	7.3	19.1	20.6	22.3	26.5	100.0 (9,181)
지역							
동부	5.1	8.7	21.9	23.0	24.0	17.2	100.0 (6,879)
읍면부	1.7	2.9	10.7	13.2	17.2	54.3	100.0 (2,302)
성							
남자	0.6	2.6	13.9	24.5	30.8	27.5	100.0 (4,273)
여자	7.5	11.4	23.6	17.1	14.9	25.6	100.0 (4,908)
연령							
65~69세	4.7	8.1	23.4	22.7	23.9	17.1	100.0 (2,963)
70~74세	4.9	8.1	19.9	21.2	21.3	24.5	100.0 (2,571)
75~79세	4.3	6.2	17.1	19.1	23.2	30.2	100.0 (1,899)
80~84세	3.0	5.6	13.6	18.3	21.6	38.0	100.0 (1,117)
85세 이상	1.6	6.5	11.7	16.0	17.3	46.8	100.0 (63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	5.7	16.9	21.5	25.6	27.0	100.0 (5,693)
배우자 없음	5.6	9.8	22.8	19.1	17.0	25.7	100.0 (3,487)
가구형태							
노인독거	5.8	9.2	21.7	19.3	16.7	27.3	100.0 (2,136)
노인부부	3.5	5.5	16.5	20.8	25.5	28.2	100.0 (4,126)
자녀동거	4.3	8.7	20.4	21.6	21.5	23.5	100.0 (2,536)
기타	3.7	7.1	24.4	17.8	24.4	22.6	100.0 (38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7.4	13.2	13.0	15.7	46.6	100.0 (900)
무학(글자해독)	3.3	7.3	18.1	18.7	17.6	35.1	100.0 (1,955)
초등학교	4.1	8.1	21.0	20.8	19.2	26.8	100.0 (2,911)
중학교	6.2	8.8	21.5	22.6	20.6	20.1	100.0 (1,153)
고등학교	5.2	6.3	21.2	24.6	30.6	12.1	100.0 (1,498)
전문대학 이상	2.6	3.7	14.3	22.3	40.2	16.9	100.0 (7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9	8.2	21.9	18.7	16.3	29.9	100.0 (1,881)
제2오분위	4.5	8.3	17.9	21.2	19.1	29.1	100.0 (1,887)
제3오분위	3.4	6.0	21.3	19.6	21.9	27.8	100.0 (1,801)
제4오분위	4.6	5.7	17.6	23.1	26.0	23.0	100.0 (1,787)
제5오분위	3.9	8.0	16.9	20.1	28.9	22.2	100.0 (1,7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7.4	19.7	21.3	23.0	24.6	100.0 (7,680)
제한 있음	4.6	6.8	16.4	17.0	18.9	36.3	100.0 (1,502)
2011년도	6.5	10.4	19.9	20.1		43.1	100.0 (9,55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특성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 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¹⁾²⁾	14.5	36.0	24.1	8.7	7.8	4.4	2.9	1.6	100.0 (7,502)
지역									
동부	15.9	32.0	25.7	9.6	7.8	4.6	3.0	1.6	100.0 (6,041)
읍면부	8.8	52.4	17.8	5.1	7.9	3.6	2.9	1.5	100.0 (1,462)
성									
남자	28.5	26.2	27.9	1.8	7.3	6.3	1.1	1.0	100.0 (3,432)
여자	2.7	44.3	21.0	14.5	8.3	2.8	4.5	2.0	100.0 (4,069)
연령									
65~69세	17.1	26.0	30.9	9.3	8.3	5.2	2.0	1.2	100.0 (2,254)
70~74세	15.2	34.9	25.0	9.5	7.1	4.4	2.6	1.4	100.0 (2,074)
75~79세	14.5	39.5	20.2	7.6	8.4	4.5	3.3	2.0	100.0 (1,588)
80~84세	11.7	46.3	18.7	8.3	7.3	2.9	2.9	1.8	100.0 (989)
85세 이상	6.5	51.2	14.9	7.4	8.2	3.0	6.9	2.0	100.0 (59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2	29.4	26.6	6.5	7.5	5.2	2.1	1.5	100.0 (4,429)
배우자 없음	4.9	45.5	20.6	11.9	8.3	3.1	4.1	1.6	100.0 (3,071)
가구형태									
노인독거	5.4	45.3	21.9	10.5	8.4	3.5	3.7	1.3	100.0 (1,856)
노인부부	21.5	30.1	26.2	6.5	7.1	5.0	2.4	1.2	100.0 (3,186)
자녀동거	12.2	35.9	23.8	9.9	8.9	4.0	3.4	2.0	100.0 (2,156)
기타	12.9	41.3	18.5	11.9	5.6	6.3	1.0	2.6	100.0 (30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	59.3	16.0	8.3	7.8	1.9	4.0	1.7	100.0 (756)
무학(글자해독)	3.7	50.9	18.8	8.5	9.3	4.1	2.8	1.8	100.0 (1,596)
초등학교	6.7	41.2	26.4	9.4	8.0	4.0	3.2	1.2	100.0 (2,248)
중학교	13.2	28.3	29.8	9.6	8.4	6.8	2.8	1.1	100.0 (903)
고등학교	29.1	16.4	29.4	8.4	7.5	5.0	2.8	1.3	100.0 (1,301)
전문대학 이상	53.3	5.9	20.8	6.4	3.9	5.0	1.7	3.0	100.0 (69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	48.9	20.1	8.3	9.5	3.4	3.4	1.2	100.0 (1,708)
제2오분위	8.4	41.5	24.6	9.0	7.9	5.6	1.9	1.2	100.0 (1,552)
제3오분위	14.3	34.3	29.7	7.0	6.3	4.5	2.6	1.4	100.0 (1,375)
제4오분위	20.9	26.9	25.6	8.5	8.7	4.4	3.4	1.6	100.0 (1,400)
제5오분위	26.1	25.0	21.8	10.6	6.6	4.2	3.5	2.2	100.0 (1,4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6	31.8	26.2	8.8	8.0	4.5	2.7	1.5	100.0 (6,141)
제한 있음	4.8	55.1	14.9	8.3	7.1	3.9	4.0	1.8	100.0 (1,35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장기 직종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아닌 과거에 일했던 직종인 7,507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2011년도의 설문문항은 동일하나 응답범주와 달라 비교 불가함.

최장기 종사 직종을 그만둔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만둔 직업이 있는지, 즉 가교일자리를 거쳐 그만둔 직업이 있는지를 살펴본 <표 10-20>에 의하면, 최장기 종사 직종에서 퇴직한 이후 24.1%는 가교일자리에 종사하였다. 읍면부에 비해 동부 노인이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가교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이 26.0%로 높았으며, 여자노인(21.0%)보다는 남자노인(27.8%)이 가교일자리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교일자리 참여비율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8.3%이지만 65~69세 연령군은 26.5%로 분석되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독거가구가 최장기 직종 이후 가교일자리를 통해 은퇴에 이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무학(글자해독수준) 노인과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에게서 가교일자리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제2오분위(27.8%)와 제3오분위(26.1%)에서 최장기 직종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비중이 높다.

최장기 직종 퇴직 후 참여한 직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표 10-21>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가 61.0%로 월등히 높았으며, 판매종사자 9.0%, 서비스종사자 8.4% 등이다. 단순노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읍면부 노인은 판매종사자 비율이 10.8%로 동부 노인의 판매종사자 8.7%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순노무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의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노인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중이 높고, 여자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배우 노인보다 무배우 노인의 단순노무종사자(71.2%)와 판매종사자(10.8%)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교일자리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이상인 노인의 종사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여러 직종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70%는 최장기 직종 퇴직 후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했으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역시 71.0%가 최장기 직종 퇴직 후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24.1	75.9	100.0 (7,502)
지역			
동부	26.0	74.0	100.0 (6,041)
읍면부	16.5	83.5	100.0 (1,461)
성			
남자	27.8	72.2	100.0 (3,433)
여자	21.0	79.0	100.0 (4,069)
연령			
65~69세	26.5	73.5	100.0 (2,255)
70~74세	25.9	74.1	100.0 (2,074)
75~79세	22.8	77.2	100.0 (1,588)
80~84세	20.8	79.2	100.0 (987)
85세 이상	18.3	81.7	100.0 (59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1	75.9	100.0 (4,430)
배우자 없음	24.2	75.8	100.0 (3,072)
가구형태			
노인독거	26.4	73.6	100.0 (1,855)
노인부부	23.4	76.6	100.0 (3,185)
자녀동거	23.6	76.4	100.0 (2,157)
기타	21.7	78.3	100.0 (30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4	80.6	100.0 (754)
무학(글자해독)	26.2	73.8	100.0 (1,597)
초등학교	23.6	76.4	100.0 (2,248)
중학교	24.3	75.7	100.0 (901)
고등학교	27.8	72.2	100.0 (1,301)
전문대학 이상	19.3	80.7	100.0 (69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5	74.5	100.0 (1,708)
제2오분위	27.8	72.2	100.0 (1,551)
제3오분위	26.1	73.9	100.0 (1,375)
제4오분위	21.3	78.7	100.0 (1,399)
제5오분위	19.5	80.5	100.0 (1,44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9	75.1	100.0 (6,142)
제한 있음	20.6	79.4	100.0 (1,36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장기 직종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아닌 과거에 일했던 직종인 7,507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10-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명)
전체 ¹⁾	4.1	4.0	2.1	8.4	9.0	2.9	4.5	4.0	61.0	100.0 (1,811)
지역										
동부	4.1	4.3	2.2	8.7	8.7	2.4	4.9	4.0	60.7	100.0 (1,570)
읍·면·부	4.2	2.5	1.7	6.3	10.8	5.8	2.1	3.8	62.9	100.0 (240)
성										
남자	7.1	5.4	3.9	6.1	6.7	4.1	6.4	6.8	53.6	100.0 (956)
여자	0.8	2.3	0.1	11.0	11.5	1.5	2.3	0.9	69.4	100.0 (855)
연령										
65~69세	7.2	4.2	3.2	9.2	8.0	2.5	6.9	5.0	53.8	100.0 (597)
70~74세	2.4	3.9	1.7	9.0	6.3	2.4	3.2	4.1	67.0	100.0 (538)
75~79세	3.6	3.9	1.4	7.7	10.7	1.9	2.5	3.3	65.0	100.0 (363)
80~84세	1.9	4.4	1.9	9.2	9.7	4.4	3.9	1.9	62.6	100.0 (206)
85세 이상	1.8	2.7	2.7	2.7	19.1	6.4	6.4	4.5	53.6	100.0 (1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0	5.4	3.0	8.7	7.8	3.6	5.9	5.6	53.9	100.0 (1,068)
배우자 없음	1.5	1.9	0.8	8.0	10.8	1.8	2.4	1.8	71.2	100.0 (7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1.9	1.2	8.2	11.2	1.9	1.9	2.2	69.7	100.0 (489)
노인부부	5.1	5.4	3.5	9.4	7.2	3.9	5.0	6.8	53.7	100.0 (745)
자녀동거	4.5	3.7	1.2	7.3	9.4	2.4	6.9	1.8	62.8	100.0 (510)
기타	6.1	6.1	0.0	9.1	7.6	1.5	1.5	3.0	65.2	100.0 (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2.7	7.5	1.4	2.7	2.7	83.0	100.0 (147)
무학(글자해독)	0.2	1.0	0.0	8.4	10.3	1.9	2.6	0.2	75.4	100.0 (418)
초등학교	0.8	1.7	0.6	9.5	8.5	2.3	4.9	3.8	68.1	100.0 (530)
중학교	0.5	3.6	1.4	11.8	8.6	2.7	9.1	4.1	58.2	100.0 (220)
고등학교	8.6	5.8	7.2	7.2	10.2	3.9	5.5	6.9	44.8	100.0 (362)
전문대학 이상	28.1	22.2	5.2	8.9	5.2	6.7	0.7	9.6	13.3	100.0 (135)
연가소득										
제1오분위	0.7	2.5	1.6	8.0	10.1	1.4	2.1	3.2	70.5	100.0 (437)
제2오분위	3.0	1.9	2.1	7.4	11.4	3.7	4.2	3.7	62.6	100.0 (430)
제3오분위	5.0	5.0	3.3	7.2	7.5	3.3	4.2	4.5	59.9	100.0 (360)
제4오분위	5.4	5.0	1.7	10.7	4.7	2.3	6.7	6.4	57.0	100.0 (298)
제5오분위	7.8	7.1	1.8	9.6	9.9	3.5	7.1	2.8	50.4	100.0 (2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	4.4	2.4	8.0	9.1	2.7	4.8	4.7	59.2	100.0 (1,531)
제한 있음	1.4	1.8	0.4	10.4	8.2	3.9	2.9	0.0	71.0	100.0 (27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최장기 종사 직종을 퇴직한 이후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의 내용은 경비·수위·청소 종사자가 29.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운송 및 건설 관련 종사자가 21.7%, 가사·조리·음식 종사자가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 및 읍면부 노인 모두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동부 30.7%, 읍면부 24.0%). 읍면부는 농림어업(18.2%)과 운송·건설 관련(17.4%)이 높은 반면, 동부는 운송·건설 관련(22.3%) 종사자 비율과 가사·조리·음식 종사자(14.3%)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서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에서는 전문직/행정사무직/문화예술 등과 같은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52.6%)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22〉 참조).

최장기 종사 직종을 그만두고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근로자 21.0%, 자영업자 17.5%, 상용근로자 14.5% 등으로 노인들이 경험한 가교일자리는 임시 혹은 일용근로자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23〉 참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주 등은 읍면부 노인보다는 동부 노인이 높았으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읍면부 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65~69세 연령군은 최근 그만둔 직종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80세 이상 연령군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노인독거가구에서는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과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인 비중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용근로자와 기타 직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집단에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주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집단은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의 내용

(단위: %, 명)

특성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판매 영업 ²⁾	운송,건설 관련 ³⁾	공공 환경 관련 ⁴⁾	기타 ⁵⁾	계 (명)
전체 ¹⁾	6.9	29.8	14.4	9.5	21.7	5.9	11.8	100.0 (1,811)
지역								
동부	5.2	30.7	14.3	9.3	22.3	5.9	12.2	100.0 (1,570)
읍·면부	18.2	24.0	14.9	10.7	17.4	5.8	9.1	100.0 (242)
성								
남자	4.4	32.4	4.9	7.6	27.4	6.1	17.2	100.0 (956)
여자	9.7	26.8	25.1	11.6	15.2	5.7	5.8	100.0 (856)
연령								
65~69세	3.5	27.8	15.6	9.2	23.9	6.2	13.9	100.0 (598)
70~74세	7.3	30.6	15.9	7.3	22.6	5.6	10.8	100.0 (538)
75~79세	8.0	31.7	14.0	10.2	17.6	6.9	11.6	100.0 (363)
80~84세	9.3	35.1	11.2	9.3	17.6	5.4	12.2	100.0 (205)
85세 이상	15.6	20.2	9.2	19.3	25.7	3.7	6.4	100.0 (1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8	29.5	10.9	9.1	24.3	5.6	15.9	100.0 (1,068)
배우자 없음	10.0	30.3	19.5	10.0	17.9	6.3	6.1	100.0 (743)
가구형태								
노인독거	11.4	28.6	19.6	10.6	16.3	6.7	6.7	100.0 (490)
노인부부	5.6	29.4	10.7	8.3	24.7	5.8	15.4	100.0 (745)
자녀동거	4.9	31.4	14.9	10.2	22.4	4.9	11.2	100.0 (511)
기타	3.0	31.8	13.6	7.6	21.2	9.1	13.6	100.0 (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0	32.7	12.9	7.5	21.1	10.2	0.7	100.0 (147)
무학(글자해독)	8.8	31.3	19.8	10.5	18.9	6.4	4.3	100.0 (419)
초등학교	7.2	31.3	18.1	9.0	23.2	5.5	5.8	100.0 (531)
중학교	4.1	31.1	14.2	8.2	25.6	4.6	12.3	100.0 (219)
고등학교	2.8	30.6	7.4	12.4	22.9	5.8	18.2	100.0 (363)
전문대학 이상	5.9	11.1	5.9	5.2	15.6	3.7	52.6	100.0 (1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1	28.6	19.2	10.3	19.0	6.6	6.2	100.0 (437)
제2오분위	8.4	35.3	10.9	11.1	19.0	7.4	7.9	100.0 (431)
제3오분위	5.0	26.3	12.8	8.9	26.8	4.7	15.4	100.0 (360)
제4오분위	5.7	29.8	14.7	5.4	23.1	6.7	14.7	100.0 (299)
제5오분위	3.5	27.8	14.1	10.9	21.8	3.5	18.3	100.0 (284)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	29.5	14.3	9.5	22.5	5.9	12.5	100.0 (1,531)
제한 있음	13.2	30.7	15.4	8.9	17.1	6.1	8.6	100.0 (28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에 '판매영업'은 없었으나, 조사과정 중에 필요성이 발견되어 신규 문항으로 신설함.

3) 운전·운송, 택배·배달, 건설·기계, 생산·작업, 현장관리가 해당됨.

4) 환경조경, 공공질서유지, 폐휴지 줍기 항목이 포함됨.

5) 전문직 행정사무직, 문화예술, 기타가 해당됨.

〈표 10-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14.5	37.9	21.0	3.5	17.5	2.7	2.8	100.0 (1,811)
지역								
동부	15.2	38.8	19.6	3.9	17.1	2.4	2.9	100.0 (1,571)
읍면부	9.5	32.8	29.5	1.2	19.9	4.6	2.5	100.0 (241)
성								
남자	21.9	36.3	15.4	5.9	18.5	0.7	1.3	100.0 (955)
여자	6.2	39.7	27.2	0.9	16.4	5.0	4.6	100.0 (856)
연령								
65~69세	21.9	39.2	16.9	3.5	13.4	2.0	3.2	100.0 (599)
70~74세	11.6	40.7	22.6	3.2	17.5	2.1	2.4	100.0 (537)
75~79세	9.4	38.1	24.3	5.0	18.2	3.3	1.7	100.0 (362)
80~84세	13.1	35.9	17.5	2.9	23.3	4.4	2.9	100.0 (206)
85세 이상	8.3	19.3	32.1	1.8	26.6	4.6	7.3	100.0 (1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6	38.4	15.3	5.1	17.6	2.7	2.3	100.0 (1,068)
배우자 없음	8.6	37.2	29.2	1.3	17.3	2.8	3.5	100.0 (744)
가구형태								
노인독거	8.0	36.1	30.0	1.4	16.7	2.9	4.9	100.0 (490)
노인부부	16.4	39.3	14.8	5.2	18.2	3.0	3.1	100.0 (743)
자녀동거	18.3	36.7	21.2	2.9	17.5	2.6	0.8	100.0 (510)
기타	12.1	45.5	22.7	3.0	16.7	0.0	0.0	100.0 (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2	45.2	32.9	0.0	9.6	2.1	4.1	100.0 (146)
무학(글자해독)	7.6	35.8	31.0	0.5	18.1	3.3	3.6	100.0 (419)
초등학교	10.5	41.4	23.8	1.1	17.1	2.9	3.2	100.0 (528)
중학교	23.8	38.4	9.1	5.5	20.2	1.1	1.9	100.0 (221)
고등학교	35.6	22.2	2.2	20.7	17.0	2.2	0.0	100.0 (362)
전문대학 이상	36.0	22.1	2.2	20.6	16.9	2.2	0.0	100.0 (1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	37.4	29.6	1.8	15.8	2.5	4.4	100.0 (436)
제2오분위	12.1	40.4	19.0	3.2	17.4	3.2	4.6	100.0 (431)
제3오분위	12.8	37.7	21.5	5.3	17.3	2.8	2.5	100.0 (360)
제4오분위	18.3	37.0	19.0	3.0	19.3	2.3	1.0	100.0 (300)
제5오분위	25.8	36.0	12.4	4.2	18.4	3.2	0.0	100.0 (2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9	39.0	19.2	3.9	17.3	2.0	2.6	100.0 (1,530)
제한 있음	6.8	31.9	30.8	1.1	18.6	6.5	4.3	100.0 (27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최장기 종사 직종을 그만둔 이후 취업하여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가 정부지원일자리인 노인은 24.6%로 정부지원일자리가 노인들의 가교일자리 역할을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24〉 참조). 동부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이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동부 23.4%, 읍면부 32.4%), 남자노인(19.6%)보다는 여자노인(30.2%)이 가교일자리로 정부지원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을 제외하고 무학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학(글자모름 35.8%, 글자해독 가능 27.3%) 및 초등학교(26.3%)와 제1오분위(26.7%) 및 제2오분위(31.1%) 노인에게서는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비율이 높아 저학력집단과 저소득 노인집단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장기 종사 직종을 그만둔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기간은 3년 미만인 28.4%, 5~10년 미만이 26.6%, 10~15년 미만 19.6%, 3~5년 미만 18.4%, 15년 이상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25〉 참조). 가교일자리 종사기간의 지역 간, 그리고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교일자리 종사기간 역시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가교일자리 종사기간이 짧아 무학(글자모름) 36.1%, 무학(글자해독) 33.5%, 초등학교 졸업 30.5%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제3오분위 이하 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종 그만둔 이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지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중이 높은 반면,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 노인은 5~10년 미만인 비율이 높아 가구소득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제한에 따른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기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10-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24.6	75.4	100.0 (1,330)
지역			
동부	23.4	76.6	100.0 (1,156)
읍면부	32.4	67.6	100.0 (173)
성			
남자	19.6	80.4	100.0 (703)
여자	30.1	69.9	100.0 (627)
연령			
65~69세	20.6	79.4	100.0 (465)
70~74세	26.1	73.9	100.0 (403)
75~79세	27.4	72.6	100.0 (259)
80~84세	29.9	70.1	100.0 (137)
85세 이상	18.8	81.3	100.0 (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3	77.7	100.0 (772)
배우자 없음	27.8	72.2	100.0 (558)
가구형태			
노인독거	27.0	73.0	100.0 (363)
노인부부	23.7	76.3	100.0 (524)
자녀동거	21.8	78.2	100.0 (390)
기타	37.7	62.3	100.0 (5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8	64.2	100.0 (123)
무학(글자해독)	27.3	72.7	100.0 (311)
초등학교	26.2	73.8	100.0 (401)
중학교	21.3	78.7	100.0 (155)
고등학교	15.9	84.1	100.0 (258)
전문대학 이상	23.5	76.5	100.0 (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7	73.3	100.0 (329)
제2오분위	31.1	68.9	100.0 (309)
제3오분위	22.9	77.1	100.0 (260)
제4오분위	20.6	79.4	100.0 (223)
제5오분위	18.1	81.9	100.0 (2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1	75.9	100.0 (1,135)
제한 있음	26.8	73.2	100.0 (19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330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명)
전체 ¹⁾	28.4	18.4	26.6	19.6	7.0	100.0 (1,811)
지역						
동부	28.2	18.6	26.4	19.7	7.0	100.0 (1,571)
읍면부	29.6	17.5	27.5	18.8	6.7	100.0 (240)
성						
남자	22.4	18.2	27.7	22.6	9.1	100.0 (956)
여자	35.0	18.7	25.4	16.4	4.6	100.0 (855)
연령						
65~69세	29.6	21.1	26.4	19.4	3.5	100.0 (598)
70~74세	29.9	19.8	27.1	16.0	7.3	100.0 (538)
75~79세	29.6	14.1	27.3	21.8	7.2	100.0 (362)
80~84세	26.2	18.0	21.8	22.8	11.2	100.0 (206)
85세 이상	14.7	12.8	32.1	24.8	15.6	100.0 (1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4	19.2	27.7	21.1	7.6	100.0 (1,068)
배우자 없음	34.2	17.2	25.2	17.4	6.1	100.0 (743)
가구형태						
노인독거	32.5	19.0	26.6	17.8	4.1	100.0 (489)
노인부부	24.1	20.0	26.8	20.9	8.2	100.0 (746)
자녀동거	29.7	16.9	25.0	20.4	8.1	100.0 (511)
기타	36.8	10.3	35.3	10.3	7.4	100.0 (6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6.1	17.7	25.2	15.6	5.4	100.0 (147)
무학(글자해독)	33.5	14.4	29.2	16.3	6.7	100.0 (418)
초등학교	30.5	18.8	21.0	20.5	9.3	100.0 (530)
중학교	19.1	24.1	30.9	21.8	4.1	100.0 (220)
고등학교	26.0	20.7	27.6	19.3	6.4	100.0 (362)
전문대학 이상	17.5	15.3	32.1	27.7	7.3	100.0 (1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4	21.3	24.7	18.8	4.8	100.0 (437)
제2오분위	31.2	17.2	25.3	20.0	6.3	100.0 (430)
제3오분위	31.3	16.2	24.0	18.2	10.3	100.0 (360)
제4오분위	21.8	18.1	31.9	21.5	6.7	100.0 (298)
제5오분위	24.1	19.1	29.1	20.2	7.4	100.0 (2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1	19.2	26.6	19.5	6.6	100.0 (1,531)
제한 있음	29.9	14.2	26.7	20.3	8.9	100.0 (28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가장 최근에 종사한 가교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1.9%로 가장 높으며,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 37.4%,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서 8.7% 등으로 나타났다(〈표 10-26〉 참조).

동부 노인의 최근 종사한 직종을 그만둔 이유 중 41.2%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장 높고, 읍면부 거주 노인 역시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둔 비중이 46.7%로 높았다. 남자노인의 45.3%는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으로 인한 퇴직이 가장 많은 반면, 여자노인은 건강으로 인한 퇴직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 이직이나 창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중이 43.9%로 가장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건강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비중이 51.9%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의 절반가량이 건강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의 이유가 43.0%로 가장 높았다.

무학인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가교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이 각각 62.8%(글자모름)과 56.5%(글자해독)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년퇴직, 그리고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둔 비중이 고등학교 5.8%, 전문대학 이상 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 비중이 55.5%와 44.1%로 높은 반면, 제5오분위의 경우는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나빠 그만둔 비중이 타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5.1% 수준이다.

〈표 10-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최근 종사한 직종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특성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하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¹⁾	2.2	41.9	37.4	5.0	8.7	1.2	2.9	0.6	100.0 (1,811)
지역									
동부	2.1	41.1	37.9	5.0	8.7	1.2	3.2	0.8	100.0 (1,570)
읍·면부	2.5	46.7	34.3	4.5	9.5	1.2	0.8	0.4	100.0 (242)
성									
남자	3.5	33.1	45.3	1.6	11.1	1.3	3.5	0.8	100.0 (956)
여자	0.8	51.6	28.6	8.8	6.2	1.2	2.3	0.6	100.0 (858)
연령									
65~69세	3.7	33.3	42.0	5.3	9.2	2.8	3.2	0.5	100.0 (600)
70~74세	1.7	45.0	35.9	4.1	8.8	0.7	2.8	0.9	100.0 (537)
75~79세	1.7	41.6	36.4	6.9	9.9	0.3	2.5	0.8	100.0 (363)
80~84세	1.0	50.5	36.3	3.9	5.4	0.0	2.5	0.5	100.0 (204)
85세 이상	0.9	58.7	25.7	2.8	8.3	0.0	3.7	0.0	100.0 (10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9	34.9	43.9	3.6	9.7	1.1	3.4	0.5	100.0 (1,067)
배우자 없음	1.2	51.9	28.1	7.0	7.4	1.3	2.1	0.9	100.0 (745)
가구형태									
노인독거	1.8	50.8	29.6	6.3	6.7	1.4	2.2	1.0	100.0 (490)
노인부부	3.1	35.5	43.0	4.2	9.0	1.1	3.9	0.3	100.0 (744)
자녀동거	1.2	42.3	38.0	4.5	10.0	0.8	2.5	0.8	100.0 (513)
기타	3.0	43.9	28.8	9.1	12.1	3.0	0.0	0.0	100.0 (6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7	62.8	23.0	6.8	3.4	0.7	0.7	2.0	100.0 (148)
무학(글자해독)	0.2	56.5	28.5	7.2	6.2	0.5	1.0	0.0	100.0 (418)
초등학교	1.3	44.3	39.8	4.2	6.6	0.8	2.3	0.8	100.0 (530)
중학교	2.3	35.2	39.7	5.5	10.0	4.1	2.3	0.9	100.0 (219)
고등학교	4.4	26.0	43.5	2.5	15.8	1.4	5.8	0.6	100.0 (361)
전문대학 이상	7.4	17.6	51.5	5.9	9.6	0.7	7.4	0.0	100.0 (1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	55.5	27.3	4.6	8.0	0.5	2.1	0.9	100.0 (436)
제2오분위	2.8	44.1	38.5	4.4	6.7	0.5	2.1	0.9	100.0 (431)
제3오분위	2.0	35.4	42.7	5.9	7.6	2.0	3.9	0.6	100.0 (357)
제4오분위	2.7	40.9	38.6	4.4	8.1	2.0	3.4	0.0	100.0 (298)
제5오분위	3.2	27.1	43.3	6.0	15.1	1.4	3.5	0.4	100.0 (28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	37.3	40.5	4.8	9.6	1.4	3.3	0.6	100.0 (1,531)
제한 있음	0.4	66.9	20.6	6.4	3.9	0.4	0.7	0.7	100.0 (28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를 질문한 결과,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5.3%로 높으며,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비율은 23.7%,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9.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표 10-27〉 참조).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는 동부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이 높았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비중은 읍면부(3.9%) 노인보다는 동부 노인(11.4%)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보았을 때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 없는 노인에 비해 근로활동 의향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71.6%와 자녀동거가구의 67.4%는 경제활동 참여의지가 없었으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비율(28.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학(글자모름) 집단에서 향후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비중이 79.8%로 월등히 높았으며, 고등학교(14.0%) 및 전문대학 이상(13.0%)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향후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 중 근로활동 의향 비율이 76.0%로 매우 높았으며, 제3오분위 노인의 근로활동 의향 비중이 60.9%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88.0%는 향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특성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계 (명)
전체 ¹⁾	65.3	23.7	1.3	9.7	100.0 (10,279)
지역					
동부	67.1	20.0	1.5	11.4	100.0 (7,870)
읍면부	59.4	35.9	0.8	3.9	100.0 (2,403)
성					
남자	53.7	31.6	2.0	12.7	100.0 (4,290)
여자	73.6	18.1	0.9	7.4	100.0 (5,989)
연령					
65~69세	51.3	32.8	2.1	13.6	100.0 (3,303)
70~74세	60.8	26.2	1.5	11.6	100.0 (2,809)
75~79세	71.2	20.6	0.8	7.5	100.0 (2,120)
80~84세	84.1	12.0	0.2	3.7	100.0 (1,285)
85세 이상	94.4	4.2	0.0	1.4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9.8	27.9	1.6	10.7	100.0 (6,338)
배우자 없음	74.1	17.0	0.9	8.0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71.6	19.0	1.1	8.3	100.0 (2,391)
노인부부	61.0	28.5	1.3	9.1	100.0 (4,594)
자녀동거	67.4	19.5	1.5	11.5	100.0 (2,881)
기타	61.3	27.1	0.7	10.9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9.8	16.1	0.4	3.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69.9	20.8	1.0	8.2	100.0 (2,137)
초등학교	63.2	27.0	1.2	8.6	100.0 (3,303)
중학교	57.9	29.4	1.4	11.3	100.0 (1,347)
고등학교	60.2	24.1	1.7	14.0	100.0 (1,716)
전문대학 이상	67.2	17.0	2.7	13.0	100.0 (8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0	14.7	0.9	8.4	100.0 (2,075)
제2오분위	65.7	23.2	1.0	10.0	100.0 (2,050)
제3오분위	60.9	28.2	1.4	9.6	100.0 (2,041)
제4오분위	61.3	27.2	1.6	9.9	100.0 (2,047)
제5오분위	62.6	25.5	1.7	10.3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7	26.8	1.5	11.0	100.0 (8,544)
제한 있음	88.0	8.9	0.3	2.8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과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일의 종류, 희망 근로시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10-28〉~〈표 10-30〉 참조).

향후 하고 싶은 일의 종류는 취업이 65.5%로 가장 많으며, 여가형 일자리 15.2%, 사회기여형 일자리 14.3%, 그리고 창업이 4.3% 등으로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보다는 동부 노인이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동부 4.5%, 읍면부 1.8%), 남자노인의 취업에 대한 선호가 70.4%로 월등히 높으나 여자노인은 사회기여형 일자리(18.5%)와 여가형 일자리(19.4%)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전 연령군에서는 취업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크며, 75~84세 연령군에서는 사회기여형 일자리를, 80세~84세 연령군에서는 여가형 일자리와 사회기여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학 이상 노인(24.4%)과 무학(글자해독, 21.7%) 노인에서는 사회기여형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중학교(19.2%) 및 고등학교(15.9%) 학력의 노인은 여가형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선호는 전문대학 이상 노인(7.1%)과 제5오분위(6.6%)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과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20~30시간 미만인 27.3%, 40시간 이상 27.1%, 10시간 미만 17.2%, 30~40시간 미만 10.3%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이상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노인의 경우, 40시간 이상이 40.5%, 20~30시간 미만 26.5%, 30~40시간 미만 12.5% 등으로 전반적으로 2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10시간 미만과 20~30시간 미만이 28.4%, 10~20시간 미만이 25.8% 등으로 전반적으로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후기고령자도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희망하였으며,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75세 미만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20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40시간 이상을 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제한 노인의 33.3%는 10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선호한 반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28.1%는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였다.

〈표 10-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하고 싶은 일의 종류

(단위: %, 명)

특성	취업	창업	사회기여형 일자리	여가형 일자리	기타	계 (명)
전체 ¹⁾²⁾	65.5	4.3	14.3	15.2	0.7	100.0 (1,128)
지역						
동부	65.3	4.5	14.1	15.6	0.5	100.0 (1,015)
읍면부	67.3	1.8	15.9	12.4	2.7	100.0 (113)
성						
남자	70.4	6.3	10.9	12.0	0.3	100.0 (632)
여자	59.3	1.6	18.5	19.4	1.2	100.0 (496)
연령						
65~69세	71.5	5.9	8.6	13.1	1.0	100.0 (526)
70~74세	61.3	3.8	16.6	17.4	0.8	100.0 (367)
75~79세	64.4	1.7	20.7	13.2	0.0	100.0 (174)
80~84세	35.4	0.0	35.4	29.2	0.0	100.0 (48)
85세 이상	72.7	0.0	9.1	18.2	0.0	100.0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5.5	4.6	13.9	15.2	0.8	100.0 (776)
배우자 없음	65.8	3.4	15.1	15.1	0.6	100.0 (351)
가구형태						
노인독거	68.8	5.4	11.2	14.7	0.0	100.0 (224)
노인부부	62.7	4.0	15.8	16.5	1.0	100.0 (480)
자녀동거	66.8	4.8	14.6	13.0	0.8	100.0 (377)
기타	65.3	0.0	12.2	22.4	0.0	100.0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7.5	7.5	17.5	17.5	0.0	100.0 (40)
무학(글자해독)	62.1	2.5	21.7	12.6	1.0	100.0 (198)
초등학교	69.3	3.4	11.8	14.9	0.6	100.0 (323)
중학교	65.1	2.3	11.0	19.2	2.3	100.0 (172)
고등학교	69.6	5.9	8.1	15.9	0.4	100.0 (270)
전문대학 이상	55.1	7.1	24.4	13.4	0.0	100.0 (1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5	4.1	13.9	13.4	1.0	100.0 (194)
제2오분위	66.1	3.5	13.7	15.9	0.9	100.0 (227)
제3오분위	73.1	3.6	7.6	14.8	0.9	100.0 (223)
제4오분위	62.7	3.8	15.3	17.4	0.8	100.0 (236)
제5오분위	59.0	6.6	20.1	14.3	0.0	100.0 (244)
기능상태						
제한 없음	66.5	4.2	14.4	14.2	0.7	100.0 (1,075)
제한 있음	44.4	5.6	11.1	35.2	3.7	100.0 (5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로 응답한 1,128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응답범주와 2014년도 응답범주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표 10-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시간

(단위: %,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²⁾	17.2	18.1	27.3	10.3	27.1	100.0 (1,128)
지역						
동부	17.0	18.3	26.4	10.5	27.8	100.0 (1,014)
읍면부	19.3	15.8	35.1	8.8	21.1	100.0 (114)
성						
남자	8.4	12.1	26.5	12.5	40.5	100.0 (630)
여자	28.4	25.8	28.4	7.4	10.1	100.0 (497)
연령						
65~69세	9.9	15.2	26.4	12.0	36.6	100.0 (527)
70~74세	21.0	17.4	31.3	8.4	21.8	100.0 (367)
75~79세	26.3	24.6	21.7	11.4	16.0	100.0 (175)
80~84세	34.0	26.0	26.0	4.0	10.0	100.0 (50)
85세 이상	18.2	45.5	36.4	0.0	0.0	100.0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3	14.9	27.9	10.8	31.0	100.0 (777)
배우자 없음	21.6	25.0	26.1	9.1	18.2	100.0 (352)
가구형태						
노인독거	18.2	24.4	26.7	10.7	20.0	100.0 (225)
노인부부	17.3	16.0	27.5	9.2	30.0	100.0 (480)
자녀동거	17.0	17.6	26.1	11.7	27.7	100.0 (376)
기타	12.2	12.2	38.8	10.2	26.5	100.0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5	20.0	25.0	15.0	17.5	100.0 (40)
무학(글자해독)	29.3	20.2	25.8	5.6	19.2	100.0 (198)
초등학교	16.8	21.7	27.3	6.8	27.3	100.0 (322)
중학교	15.8	17.0	28.7	13.5	25.1	100.0 (171)
고등학교	12.3	13.0	27.1	17.8	29.7	100.0 (269)
전문대학 이상	10.3	16.7	28.6	4.8	39.7	100.0 (1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0	25.8	26.8	8.2	21.1	100.0 (194)
제2오분위	22.4	16.2	24.6	8.3	28.5	100.0 (228)
제3오분위	12.6	17.9	31.4	12.1	26.0	100.0 (223)
제4오분위	18.1	16.5	27.8	11.4	26.2	100.0 (237)
제5오분위	15.2	16.0	25.4	10.7	32.8	100.0 (24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4	17.8	27.2	10.5	28.1	100.0 (1,073)
제한 있음	33.3	24.1	29.6	5.6	7.4	100.0 (5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1,128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응답대상과 2014년도 응답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32.4%, 20만원 이하 16.9%로 전반적으로 100만원 이하가 약 8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의 36.5%는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2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비중이 37.7%로 가장 높다.

남자노인의 경우,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20만원 초과부터 200만원 이하가 약 90%를 차지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50만원 이하가 약 75%로 성별에 따른 희망 근로소득 수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노인은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희망자가 47.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여자노인은 2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이하 희망자가 48.1%로 가장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선호하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은 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희망하는 근로소득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의 목적도 생활비 마련부터 능력 발휘까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0-3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특성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계 (명)
전체 ¹⁾	16.9	32.4	36.0	13.0	1.6	100.0 (1,128)
지역						
동부	17.0	31.8	36.5	12.9	1.8	100.0 (1,015)
읍면부	15.8	37.7	32.5	14.0	0.0	100.0 (114)
성						
남자	9.2	20.1	47.8	20.1	2.8	100.0 (632)
여자	26.8	48.1	21.1	4.0	0.0	100.0 (497)
연령						
65~69세	5.3	27.3	44.0	20.7	2.7	100.0 (527)
70~74세	22.7	34.7	33.9	7.7	1.1	100.0 (366)
75~79세	31.6	40.8	23.0	4.6	0.0	100.0 (174)
80~84세	46.0	34.0	14.0	6.0	0.0	100.0 (50)
85세 이상	18.2	45.5	36.4	0.0	0.0	100.0 (1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9	28.6	40.2	15.6	1.8	100.0 (777)
배우자 없음	23.6	41.0	26.8	7.4	1.1	100.0 (351)
가구형태						
노인독거	20.5	41.5	29.0	7.1	1.8	100.0 (224)
노인부부	17.3	29.9	36.7	15.0	1.0	100.0 (479)
자녀동거	15.4	29.3	39.1	13.8	2.4	100.0 (376)
기타	8.2	40.8	36.7	14.3	0.0	100.0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7.5	32.5	30.0	0.0	0.0	100.0 (40)
무학(글자해독)	35.5	37.1	21.8	4.6	1.0	100.0 (197)
초등학교	15.4	37.3	36.1	10.5	0.6	100.0 (324)
중학교	12.8	32.0	45.3	9.9	0.0	100.0 (172)
고등학교	11.2	25.7	43.1	16.7	3.3	100.0 (269)
전문대학 이상	3.1	27.6	32.3	33.1	3.9	100.0 (1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7	39.7	27.8	7.2	2.6	100.0 (194)
제2오분위	25.6	31.7	36.6	6.2	0.0	100.0 (227)
제3오분위	16.1	28.6	42.9	12.1	0.4	100.0 (224)
제4오분위	9.3	34.2	36.7	19.4	0.4	100.0 (237)
제5오분위	12.4	28.9	35.1	19.0	4.5	100.0 (242)
가능상태						
제한 없음	15.5	32.3	36.8	13.7	1.7	100.0 (1,074)
제한 있음	43.6	34.5	21.8	0.0	0.0	100.0 (5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1,128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응답대상과 2014년도 응답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과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 1,128명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은 777명으로 약 68.9%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31〉 참조). 일반특성별로 구직활동 비중이 높은 인구집단은 동부 노인은 69.6%, 남자노인은 76.2%, 75세~79세 연령군 71.6%, 노인독거가구 71.4%, 노인부부가구 70.5%, 무학(글자모름) 70.3%, 중학교 71.8%, 제2오분위 73.9%, 기능제한 없는 노인 69.6% 등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1순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취업지원 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경험노인의 63.0%가 해당되며, 개인적인 인맥을 통한 구직활동은 30.4%, 그리고 신문잡지·컴퓨터 등 검색은 2.7%,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읍면부 노인의 구직활동은 취업지원센터 의뢰 60.6%와 개인인맥 의뢰 39.4%로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부 노인은 취업지원센터 의뢰 63.3%, 개인인맥 의뢰 29.6%, 기타 4.1%, 신문잡지 등 검색 3.0%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비중은 남자노인(59.2%)에 비해 여자노인(69.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연령군의 경우 취업지원센터 의뢰(55.6%)보다 개인 인맥을 활용(34.9%)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등의 구직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지원센터 의뢰 비중이 높고, 개인적 인맥 활용 비중은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일수록 취업지원센터 이용률이 높다(〈표 10-31〉 참조).

구직활동을 2순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인맥 의뢰 59.3%, 기타(자기소개서, 직업상담 등) 19.9%, 신문잡지·컴퓨터 등 검색 16.3%, 취업지원센터 의뢰 4.6% 등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취업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인 인맥 의뢰가 구직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31〉과 〈표 10-32〉 참조).

〈표 10-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1순위)

(단위: %, 명)

특성	구직활동 비율 ¹⁾	구직활동 (1순위) ²⁾				계 (명)
		취업지원 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기타 ³⁾	
전체	68.9	63.0	30.4	2.7	3.8	100.0 (777)
지역						
동부	69.6	63.3	29.6	3.0	4.1	100.0 (706)
읍면부	62.6	60.6	39.4	0.0	0.0	100.0 (71)
성						
남자	76.2	59.2	32.3	3.1	5.4	100.0 (480)
여자	59.6	69.5	27.5	2.0	1.0	100.0 (295)
연령						
65-69세	69.6	55.6	34.9	4.6	4.9	100.0 (367)
70-74세	69.0	66.8	27.7	1.6	4.0	100.0 (253)
75-79세	71.6	75.2	23.2	0.0	1.6	100.0 (125)
80-84세	56.5	71.4	28.6	0.0	0.0	100.0 (28)
85세 이상	44.1	75.0	25.0	0.0	0.0	100.0 (4) ⁴⁾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8	61.0	31.6	3.0	4.3	100.0 (534)
배우자 없음	69.1	67.5	28.0	2.1	2.5	100.0 (243)
가구형태						
노인독거	71.4	65.8	28.0	2.5	3.7	100.0 (161)
노인부부	70.5	61.1	33.8	2.1	3.0	100.0 (337)
자녀동거	64.1	62.2	29.0	3.3	5.4	100.0 (241)
기타	76.0	76.3	18.4	5.3	0.0	100.0 (3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0.3	57.1	39.3	3.6	0.0	100.0 (28)
무학(글자해독)	65.2	81.4	17.1	1.6	0.0	100.0 (129)
초등학교	69.3	64.4	29.8	2.2	3.6	100.0 (225)
중학교	71.8	60.2	30.9	1.6	7.3	100.0 (123)
고등학교	69.4	55.1	36.9	3.7	4.3	100.0 (187)
전문대학 이상	68.7	54.0	34.5	5.7	5.7	100.0 (8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6	74.1	18.5	3.0	4.4	100.0 (135)
제2오분위	73.9	68.3	28.1	2.4	1.2	100.0 (167)
제3오분위	69.4	63.9	31.6	0.6	3.9	100.0 (155)
제4오분위	67.6	56.9	38.1	3.1	1.9	100.0 (160)
제5오분위	65.8	53.5	34.6	4.4	7.5	100.0 (159)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6	62.3	31.1	2.7	3.9	100.0 (746)
제한 있음	55.3	82.8	13.8	3.4	0.0	100.0 (29)

주: 1)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과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의 비율임.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777명을 대상으로 함.

3) 기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일자리박람회,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2011년의 응답범주 및 응답대상과 2014년의 응답범주 및 응답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표 10-3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2순위)

(단위: %, 명)

특성	취업지원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기타	계 (명)
전체 ¹⁾	4.6	59.3	16.3	19.9	100.0 (385)
지역					
동부	4.5	58.7	15.9	20.9	100.0 (358)
읍면부	3.8	69.2	19.2	7.7	100.0 (26)
성					
남자	4.6	51.9	18.3	25.2	100.0 (262)
여자	4.1	74.8	12.2	8.9	100.0 (123)
연령					
65~69세	4.7	45.6	19.7	30.1	100.0 (193)
70~74세	2.5	71.7	14.2	11.7	100.0 (120)
75~79세	9.4	76.6	6.3	7.8	100.0 (64)
80~84세	0.0	55.6	44.4	0.0	100.0 (9) ³⁾
85세 이상	-	-	-	-	-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6	55.7	18.1	21.6	100.0 (282)
배우자 없음	3.9	69.6	10.8	15.7	100.0 (102)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73.2	15.5	9.9	100.0 (71)
노인부부	5.1	57.4	21.6	15.9	100.0 (176)
자녀동거	3.9	52.8	11.0	32.3	100.0 (127)
기타	20.0	80.0	0.0	0.0	100.0 (1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1	66.7	11.1	11.1	100.0 (9) ³⁾
무학(글자해독)	3.6	85.5	0.0	10.9	100.0 (55)
초등학교	1.9	74.8	10.7	12.6	100.0 (103)
중학교	7.5	61.2	14.9	16.4	100.0 (67)
고등학교	5.7	43.8	28.6	21.9	100.0 (105)
전문대학 이상	6.4	23.4	23.4	46.8	100.0 (47)
연가소득					
제1오분위	3.5	64.9	10.5	21.1	100.0 (57)
제2오분위	4.0	68.0	17.0	11.0	100.0 (100)
제3오분위	7.0	64.8	19.7	8.5	100.0 (71)
제4오분위	6.8	45.9	14.9	32.4	100.0 (74)
제5오분위	2.4	51.8	18.1	27.7	100.0 (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4.8	59.0	16.7	19.6	100.0 (378)
제한 있음	0.0	71.4	0.0	28.6	100.0 (7)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내용 중 두 번째 우선순위 항목에 응답한 385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일자리박람회,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2011년의 응답범주 및 응답대상과 2014년의 응답범주 및 응답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향후에 일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71.9%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용돈 마련 13.2%, 능력발휘 5.1%, 건강유지 4.8%, 시간활용 3.8%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집단은 동부 노인(69.2%)에 비해 읍면부 노인(79.0%)이, 여자노인(69.7%)보다는 남자노인(73.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생활비 마련 목적이 78.0%, 기타는 78.6%이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능력발휘 목적이 7.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활비 마련 목적이 컸으며,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건강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1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생활비 마련(46.6%)보다는 능력발휘 28.8%, 건강유지 8.7%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 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능력발휘, 친교, 건강유지를 위해 근로를 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다.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72.2%와 제한이 없는 노인의 66.7%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였다(〈표 10-33〉 참조).

〈표 10-34〉에 의하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4.3%이며, 과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4.3%,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던 응답자는 4.6%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노인의 86.7%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특성은 동부(4.5%)에 비해 읍면부(3.7%) 노인이 높으며, 주로 남자노인(3.2%)보다는 여자노인(5.2%)이 많으며, 70~74세 연령군(5.8%)과 75~79세 연령군(6.8%)에서 참여율이 높다. 무배우 노인의 5.4%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6.4%으로 전체 참여율보다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7.0%)와 제2오분위(7.4%)에서는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참여율은 4.7%인데 반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참여율은 2.5%로 나타났다.

〈표 10-3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활비 마련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 (명)
전체 ¹⁾	71.9	13.2	4.8	1.2	5.1	3.8	100.0 (3,554)
지역							
동부	69.2	15.9	5.0	1.2	5.4	3.4	100.0 (2,581)
읍·면부	79.0	6.2	4.4	1.1	4.4	4.8	100.0 (973)
성							
남자	73.6	10.0	5.2	1.2	6.8	3.3	100.0 (1,985)
여자	69.7	17.3	4.3	1.2	3.1	4.4	100.0 (1,570)
연령							
65~69세	76.7	9.0	3.8	1.0	5.9	3.7	100.0 (1,607)
70~74세	68.9	15.6	5.0	1.5	5.5	3.5	100.0 (1,093)
75~79세	70.0	17.2	4.8	0.8	2.8	4.4	100.0 (609)
80~84세	59.6	21.2	8.9	2.0	5.4	3.0	100.0 (203)
85세 이상	55.8	16.3	16.3	2.3	0.0	9.3	100.0 (4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4	11.3	4.8	1.1	6.6	3.8	100.0 (2,544)
배우자 없음	70.7	18.0	4.7	1.4	1.5	3.8	100.0 (1,012)
가구형태							
노인독거	78.0	12.6	4.2	1.3	1.0	2.8	100.0 (672)
노인부부	71.7	11.6	5.0	0.7	7.1	3.9	100.0 (1,788)
자녀동거	66.8	17.0	5.2	2.1	4.6	4.3	100.0 (936)
기타	78.6	11.9	2.5	0.0	3.8	3.1	100.0 (15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3.0	19.4	3.6	0.5	2.6	1.0	100.0 (196)
무학(글자해독)	75.5	14.7	3.6	0.3	2.0	3.9	100.0 (641)
초등학교	77.2	13.2	2.9	0.7	2.8	3.2	100.0 (1,209)
중학교	73.5	11.5	6.4	1.8	3.4	3.4	100.0 (563)
고등학교	67.5	13.7	6.6	1.9	5.1	5.1	100.0 (680)
전문대학 이상	46.6	7.6	8.7	3.0	28.8	5.3	100.0 (26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3.5	10.7	1.8	0.6	1.0	2.4	100.0 (497)
제2오분위	76.2	16.0	3.6	0.3	1.4	2.4	100.0 (698)
제3오분위	74.8	13.0	4.5	0.5	4.1	3.0	100.0 (798)
제4오분위	67.6	13.1	5.6	1.6	6.6	5.5	100.0 (788)
제5오분위	62.5	12.4	7.3	2.5	10.6	4.8	100.0 (7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2	13.0	4.7	1.2	5.3	3.6	100.0 (3,347)
제한 있음	66.7	16.9	7.2	0.5	1.9	6.8	100.0 (20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향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3,554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도 응답대상과 2014년도 응답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표 10-3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 중	참여 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계 (명)
전체 ¹⁾	4.3	4.3	4.6	86.7	100.0 (10,279)
지역					
동부	4.5	4.5	5.0	86.0	100.0 (7,872)
읍면부	3.7	4.0	3.2	89.1	100.0 (2,410)
성					
남자	3.2	4.3	5.9	86.6	100.0 (4,291)
여자	5.2	4.4	3.7	86.8	100.0 (5,983)
연령					
65~69세	2.7	3.5	4.7	89.1	100.0 (3,304)
70~74세	5.8	5.2	5.6	83.4	100.0 (2,809)
75~79세	6.8	4.5	5.0	83.7	100.0 (2,120)
80~84세	3.7	5.3	3.6	87.4	100.0 (1,285)
85세 이상	0.4	2.7	1.6	95.3	100.0 (76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7	3.9	4.6	87.9	100.0 (6,338)
배우자 없음	5.4	5.1	4.6	84.9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6.4	5.5	5.1	83.0	100.0 (2,389)
노인부부	4.1	3.8	4.0	88.0	100.0 (4,595)
자녀동거	3.0	4.0	4.8	88.2	100.0 (2,881)
기타	3.9	5.6	7.0	83.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6.0	3.9	86.0	100.0 (970)
무학(글자해독)	5.2	5.9	5.0	83.8	100.0 (2,136)
초등학교	5.3	3.8	4.8	86.1	100.0 (3,303)
중학교	3.9	3.6	5.3	87.2	100.0 (1,347)
고등학교	3.4	3.9	4.8	87.8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0.7	2.5	2.2	94.5	100.0 (8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0	6.0	5.6	81.4	100.0 (2,074)
제2오분위	7.4	5.7	6.5	80.4	100.0 (2,051)
제3오분위	3.2	3.9	4.4	88.5	100.0 (2,041)
제4오분위	2.6	3.3	3.1	91.0	100.0 (2,046)
제5오분위	1.4	2.8	3.4	92.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	4.4	5.0	85.9	100.0 (8,544)
제한 있음	2.5	3.9	2.8	90.8	100.0 (1,736)
2011년도	4.1	6.8	7.8	81.2	100.0 (7,25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35〉는 현재 또는 과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업 유형을 나타낸 것인데, 공익형이 71.9%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지형 15.1%, 교육형 5.8%, 인력파견형 4.0%, 시장형 3.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간 차이에서는 동부 노인이 시장형 참여비율(3.5%)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력파견형은 읍면부(5.4%)에서 높게 나타났다.

65~69세 연령군은 공익형이 66.7%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인력파견형이 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부터 84세 이하인 경우는 연령군 간의 참여 사업유형 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교육형(8.8%) 참여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공익형(75.9%)과 복지형(16.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공익형 비중이 높고,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의 경우 교육형(17.5%)과 인력파견형(9.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76.4%는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시장형 참여율도 5.5%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시장형 참여율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 18.2%로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12.7%)보다는 동부 노인(19.9%)의 참여의향이 높았으며, 여자노인(16.9%)보다는 남자노인(20.1%)이, 그리고 70~74세 연령군(22.4%)과 65~69세 연령군(21.7%)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이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노인부부가구는 17.2%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21.7%, 무학(글자해독) 19.4%, 중학교 19.2%, 초등학교 18.6% 등에서 참여욕구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20.5%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에 따른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98.0%, 과거 참여자의 50.8%,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던 노인의 63.6%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10.2%만이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36〉 참조).

〈표 10-3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계 (명)
전체 ¹⁾	71.9	5.8	15.1	3.2	4.0	100.0 (894)
지역						
동부	72.2	5.6	15.0	3.5	3.7	100.0 (709)
읍면부	71.2	6.0	15.8	1.6	5.4	100.0 (184)
성						
남자	73.2	9.3	12.1	1.9	3.4	100.0 (321)
여자	71.1	3.8	16.7	3.8	4.5	100.0 (574)
연령						
65~69세	66.7	10.3	14.7	1.0	7.4	100.0 (204)
70~74세	71.0	4.8	15.5	4.8	3.9	100.0 (310)
75~79세	75.8	2.1	16.7	2.1	3.3	100.0 (240)
80~84세	78.3	6.1	13.0	2.6	0.0	100.0 (115)
85세 이상	65.2	13.0	8.7	13.0	0.0	100.0 (2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5	8.8	13.8	3.3	5.6	100.0 (480)
배우자 없음	75.9	2.2	16.8	3.1	2.2	100.0 (415)
가구형태						
노인독거	74.9	1.4	17.8	3.1	2.8	100.0 (287)
노인부부	67.4	7.7	14.8	3.8	6.3	100.0 (365)
자녀동거	75.4	7.2	12.3	3.0	2.0	100.0 (203)
기타	74.4	10.3	12.8	0.0	2.6	100.0 (3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6.5	2.0	15.3	4.1	2.0	100.0 (98)
무학(글자해독)	77.5	2.9	12.1	5.8	1.7	100.0 (240)
초등학교	74.2	2.3	17.2	2.3	4.0	100.0 (302)
중학교	66.0	3.0	26.0	1.0	4.0	100.0 (100)
고등학교	62.7	17.5	7.9	2.4	9.5	100.0 (126)
전문대학 이상	53.8	34.6	7.7	0.0	3.8	100.0 (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6	1.8	16.5	3.3	3.7	100.0 (272)
제2오분위	77.2	2.6	14.6	2.6	3.0	100.0 (267)
제3오분위	62.8	9.7	17.2	2.8	7.6	100.0 (145)
제4오분위	68.6	7.4	15.7	4.1	4.1	100.0 (121)
제5오분위	66.3	18.6	7.0	4.7	3.5	100.0 (86)
기능상태						
제한 없음	71.3	6.0	15.3	2.9	4.5	100.0 (784)
제한 있음	76.4	3.6	13.6	5.5	0.9	100.0 (110)
2011년도	82.2	2.7	7.3	1.0	6.8	100.0 (79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은 과거 노인일자리 참여자 894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3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욕구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18.2	81.8	100.0 (10,279)
지역			
동부	19.9	80.1	100.0 (7,870)
읍·면·부	12.7	87.3	100.0 (2,408)
성			
남자	20.1	79.9	100.0 (4,291)
여자	16.9	83.1	100.0 (5,989)
연령			
65~69세	21.7	78.3	100.0 (3,303)
70~74세	22.4	77.6	100.0 (2,809)
75~79세	17.5	82.5	100.0 (2,120)
80~84세	10.7	89.3	100.0 (1,284)
85세 이상	2.5	97.5	100.0 (76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4	81.6	100.0 (6,338)
배우자 없음	18.0	82.0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9.3	80.7	100.0 (2,389)
노인부부	17.2	82.8	100.0 (4,595)
자녀동거	18.5	81.5	100.0 (2,881)
기타	22.0	78.0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9	88.1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9.4	80.6	100.0 (2,136)
초등학교	18.6	81.4	100.0 (3,303)
중학교	19.2	80.8	100.0 (1,347)
고등학교	21.7	78.3	100.0 (1,718)
전문대학 이상	12.3	87.7	100.0 (8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1	79.9	100.0 (2,075)
제2오분위	22.1	77.9	100.0 (2,051)
제3오분위	17.7	82.3	100.0 (2,041)
제4오분위	16.2	83.8	100.0 (2,047)
제5오분위	15.1	84.9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5	79.5	100.0 (8,544)
제한 있음	7.3	92.7	100.0 (1,735)
노인일자리참여경험			
현재참여 중	98.0	2.0	100.0 (446)
과거 참여경험 있음	50.8	49.2	100.0 (447)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음	63.6	36.4	100.0 (473)
비신청	10.2	89.8	100.0 (8,9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11장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 제1절 여가 활동과 사회단체 활동
- 제2절 평생교육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 제3절 정보화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이용
- 제4절 종교와 향후 노후생활



본 장에서는 다각적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형태, 여행 빈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한 노후생활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활동 및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인터넷 및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노후에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내고 싶은지를 분석하였다.

제1절 여가 활동과 사회단체 활동

1. 여가 활동

가. 여가문화 활동

〈표 11-1〉에서는 지난 1년간 취미활동, 여행, TV시청, 영화관람 등의 여가문화활동을 하였는가와 그 주된 활동은 무엇인지 3순위까지 파악하였다. 전체노인 중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99.0%이고,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한편, 주로 하는 여가문화활동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활동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여가문화활동은 중분류 기준으로 조사되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분류에 의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문화활동의 대분류는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이다. 이 중 스포츠관람활동과 스포츠참여활동을 제외하고 특성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대분류 활동에 대해 중분류로 세분화하였다. 대분류 기준으로 주된 여가활동에서 휴식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9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미오락활동 42.5%, 사회 및 기타활동 40.1%, 스포츠참여활동 10.2%, 문화예술참여활동 5.8%, 관광활동 4.0%, 스포츠관람활동 1.2%, 문화예술관람활동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식활동에는 TV시청과 산책, 음악감상, 기타로 구분되는데, TV시청의 참여 비율이 82.4%로 가장 높고, 산책 17.8%, 음악감상 4.5%, 기타 27.0%이다. 취미오락활동에는 화투·고스톱 등, 등산, 화초·텃밭가꾸기,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낚시, 바둑·장기·윷놀이 등, 기타로 구분된다. 이 중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가 11.3%로 비율이 가장 높고, 화초·텃밭가꾸기 10.1%, 화투·고스톱 등 9.3%, 등산 5.7%, 바둑·장기·윷놀이 등 4.8%, 낚시 1.0%, 기타 7.9% 이다. 사회 및 기타활동은 종교활동, 그 외 사회활동(봉사활동, 잡담·통화문자, 단체활동 모임 등), 기타로 세분되며, 각각 8.3%, 31.8%, 2.6% 이다. 관광활동에는 자동차 드라이브와 기타(여행, 문화유적 및 자연명승방문, 소풍 등)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0.7%와 3.3%이다.

협회의 개념에서 여가문화활동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관람활동과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전체 노인의 6.7%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악기연주·노래교실과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춤·무용, 기타로 구분된다. 악기연주·노래교실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은 3.6%이며,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4%, 춤·무용 0.5%, 기타 0.7% 이다. 문화예술관람활동은 영화보기와 기타(전시회, 박물관, 연극, 음악연주회 등)로 구분되며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각각 0.7%와 0.3%이다.

지역 및 성, 연령별로 관계없이 휴식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⁸⁾. 그 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동부지역 노인은 취미오락활동이 43.0%, 사회 및 기타활동 38.1%, 스포츠참여활동 11.0%, 문화예술참여활동 6.3%, 관광활동 3.5% 순인데 반해, 읍·면지역 노인은 사회 및 기타활동 46.3%, 취미오락활동 40.8%, 스포츠참여활동 7.6%, 관광활동 5.5%, 문화예술참여활동 4.3% 순으로 지역 간에 주로 참여하는 여가문화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노인은 취미오락활동이 45.7%로 두 번째로 참여 비율이 높고, 사회 및 기타활동 33.1%, 스포츠참여활동 12.3%, 문화예술참여활동과 관광활동 각각 5.1% 순인 반면, 여자노인은 사회 및 기타활동이 45.0%로 두 번째로 높고, 취미오락활동 40.2%, 스포츠참여활동 8.7%, 문화예술참여활동 6.3%, 관광활동 3.1% 순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휴식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오락활동과 스포츠참여 및 관람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참여 및 관람활동에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기타활동과 연령 간에는 별다른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 참조).

8) 본문에는 1~3순위 중복응답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1순위만의 분석결과는 〈부표 I-11-1〉과 〈부표 I-11-2〉에 제시하였음.

〈표 11-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99.0	99.0	98.7	99.1	98.8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영화보기	0.9	1.0	0.4	1.0	0.8
기타 ³⁾	0.7	0.8	0.3	0.8	0.5
기타 ³⁾	0.3	0.3	0.1	0.3	0.3
문화예술참여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5.8	6.3	4.3	5.1	6.3
악기연주노래교실	3.6	3.9	2.8	2.1	4.7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4	1.6	0.9	2.0	1.0
춤무용	0.5	0.6	0.1	0.2	0.7
기타 ⁴⁾	0.7	0.8	0.6	1.2	0.4
스포츠관람활동	1.2	1.3	0.7	2.8	0.1
스포츠참여활동	10.2	11.0	7.6	12.3	8.7
관광활동					
자동차 드라이브	4.0	3.5	5.5	5.1	3.1
자동차 드라이브	0.7	0.7	0.7	1.2	0.3
기타 ⁵⁾	3.3	2.8	4.9	4.0	2.8
취미오락활동	42.5	43.0	40.8	45.7	40.2
화투고스톱 등	9.3	7.3	15.8	6.0	11.7
등산	5.7	6.3	3.4	10.6	2.1
화초텃밭가꾸기	10.1	10.6	8.3	7.3	12.1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1.3	13.0	5.9	10.5	11.9
낚시	1.0	1.0	0.9	2.2	0.1
바둑장기윷놀이 등	4.8	4.3	6.2	9.0	1.7
기타 ⁶⁾	7.9	8.4	6.1	9.3	6.9
휴식활동	90.2	89.6	92.4	89.2	91.0
TV시청	82.4	80.7	88.0	79.5	84.5
산책	17.8	20.0	10.7	20.1	16.2
음악감상	4.5	5.1	2.5	3.8	5.1
기타 ⁷⁾	27.0	27.1	26.8	28.7	25.8
사회 및 기타활동	40.1	38.1	46.3	33.1	45.0
종교활동	8.3	9.1	5.8	4.7	11.0
그 외 사회활동 ⁸⁾	31.8	29.3	39.9	27.1	35.1
기타활동 ⁹⁾	2.6	2.3	3.4	2.8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72)	(7,794)	(2,378)	(4,254)	(5,9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표 11-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99.0	98.9	99.4	98.9	99.1	97.7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0.9	1.8	0.6	0.4	0.3	0.2
영화보기	0.7	1.5	0.4	0.1	0.3	0.2
기타 ³⁾	0.3	0.5	0.2	0.3	0.0	0.0
문화예술참여활동	5.8	7.2	5.7	5.9	4.1	3.3
악기연주노래교실	3.6	4.2	3.7	3.6	2.8	2.0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4	1.8	1.3	1.6	0.9	1.0
춤무용	0.5	0.5	0.6	0.5	0.3	0.3
기타 ⁴⁾	0.7	1.1	0.6	0.7	0.3	0.2
스포츠관람활동	1.2	1.9	1.3	0.7	0.3	0.7
스포츠참여활동	10.2	13.7	10.8	8.9	5.4	5.2
관광활동	4.0	5.7	3.9	2.9	2.6	2.0
자동차 드라이브	0.7	1.3	0.6	0.5	0.4	0.0
기타 ⁵⁾	3.3	4.5	3.3	2.5	2.2	2.0
취미오락활동	42.5	48.0	42.0	41.0	38.0	32.2
화투·고스톱 등	9.3	5.8	9.4	12.6	11.7	10.8
등산	5.7	10.3	5.6	3.1	1.3	0.0
화초·텃밭가꾸기	10.1	11.7	10.7	10.3	6.8	5.7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1.3	12.8	9.8	10.3	12.0	11.9
낚시	1.0	1.8	1.0	0.4	0.1	0.2
바둑·장가웃놀이 등	4.8	5.5	4.4	4.9	4.1	3.7
기타 ⁶⁾	7.9	9.5	8.0	6.7	7.0	5.2
휴식활동	90.2	86.4	90.9	92.2	93.7	93.4
TV시청	82.4	77.5	81.5	86.0	87.4	88.5
산책	17.8	17.4	19.6	15.9	18.2	17.7
음악감상	4.5	4.9	4.7	3.7	5.1	3.7
기타 ⁷⁾	27.0	23.5	27.0	27.4	31.1	34.5
사회 및 기타활동	40.0	39.2	41.3	41.0	40.4	35.8
종교활동	8.3	8.4	7.8	8.7	8.3	9.1
그 외 사회활동 ⁸⁾	31.8	31.0	33.1	32.3	32.8	27.1
기타활동 ⁹⁾	2.6	2.7	2.8	2.8	2.2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72)	(3,265)	(2,791)	(2,097)	(1,273)	(74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crap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나. 여행

〈표 11-3〉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여행 유무와 여행을 한 경우 여행횟수를 분석하였다. 본인응답자 중 29.7%가 여행을 하였고,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1회가 56.8%로 가장 많고, 2회 23.2%, 3회 7.8%, 4회 이상 12.2%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 지난 1년간 여행경험률을 비교하면, 읍면부 노인이 33.6%로 동부 노인의 28.6%보다 5.0%p 더 높고, 성별로는 남자노인(32.0%)이 여자노인(28.1%)보다 약간 더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이 37.2%로 가장 높고 70~74세 연령군 31.7%, 75~79세 연령군 25.9%, 80~84세 연령군 21.2%, 85세 이상 연령군 15.0%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이 낮고, 유배우 노인(32.5%)이 무배우 노인(25.3%)에 비하여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32.4%)의 여행경험률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29.6%), 기타가구(25.8%), 노인독거가구(25.3%) 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49.7%)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39.2%), 중학교(32.2%), 초등학교(27.0%), 무학(글자해독 22.7%, 글자모름 17.6%) 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취업자(36.8%)가 미취업자(26.9%)보다 여행경험률이 9.9%p 더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32.5%)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16.0%)보다 약 두 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여행경험이 있는 경우 여행 빈도를 2회 이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여행횟수가 더 많고,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자녀동거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여행횟수가 더 많은 편이다.

<표 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률 및 여행 횟수

(단위: %, 명)

특성	여행 경험률 ¹⁾	국내외 여행 횟수 ²⁾					계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29.7	56.8	23.2	7.8	12.2	100.0 (3,023)	
지역							
동부	28.6	53.8	23.2	8.4	14.6	100.0 (2,225)	
읍면부	33.6	65.1	23.2	6.3	5.4	100.0 (798)	
성							
남자	32.0	48.8	26.6	9.5	15.1	100.0 (1,360)	
여자	28.1	63.2	20.4	6.5	9.9	100.0 (1,663)	
연령							
65~69세	37.2	48.0	25.2	10.6	16.2	100.0 (1,214)	
70~74세	31.7	60.0	22.3	7.2	10.5	100.0 (884)	
75~79세	25.9	66.0	21.4	4.6	8.0	100.0 (543)	
80~84세	21.2	63.0	22.7	4.9	9.4	100.0 (270)	
85세 이상	15.0	65.9	19.5	5.8	8.8	100.0 (11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2.5	53.2	24.4	8.8	13.6	100.0 (2,038)	
배우자 없음	25.3	64.3	20.8	5.9	9.0	100.0 (985)	
가구형태							
노인독거	25.3	63.7	19.6	5.9	10.8	100.0 (600)	
노인부부	32.4	55.2	25.1	8.2	11.5	100.0 (1,475)	
자녀동거	29.6	53.7	23.1	8.8	14.4	100.0 (842)	
기타	25.8	64.0	18.3	5.8	11.9	100.0 (10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6	78.5	16.9	1.6	3.0	100.0 (169)	
무학(글자해독)	22.7	70.2	17.5	6.5	5.8	100.0 (479)	
초등학교	27.0	63.3	23.6	6.7	6.4	100.0 (882)	
중학교	32.2	53.6	24.8	6.2	15.4	100.0 (428)	
고등학교	39.2	44.0	27.3	12.0	16.7	100.0 (669)	
전문대학 이상	49.7	41.7	23.6	9.4	25.3	100.0 (396)	
현취업상태							
취업중	36.8	58.0	23.6	8.4	10.0	100.0 (1,080)	
미취업	26.9	56.1	23.0	7.5	13.4	100.0 (1,9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0	75.1	16.0	3.8	5.1	100.0 (386)	
제2오분위	22.9	65.2	23.0	5.2	6.6	100.0 (465)	
제3오분위	30.6	56.5	25.1	8.4	10.0	100.0 (616)	
제4오분위	34.0	55.7	24.7	8.4	11.2	100.0 (688)	
제5오분위	42.4	45.0	23.9	10.4	20.7	100.0 (860)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5	55.0	23.9	8.3	12.8	100.0 (2,753)	
제한 있음	16.0	75.2	16.4	3.1	5.3	100.0 (270)	
2011년도	33.7	51.8	26.1	8.6	13.5	100.0 (3,54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행경험이 있는 3,023명을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활동

〈표 11-4〉에서 사회단체종류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친목단체활동에는 전체응답자의 43.3%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호회(클럽)활동에 4.9%, 정치사회단체 0.5%로 친목단체를 제외한 단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종류별 활동참여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더 활발하며, 남자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노인 및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더 높다.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단체종류별 활동참여 빈도를 보면, 동호회(클럽)활동은 월 1회가 43.8%로 가장 많고, 2주 1회는 13.7%, 주 1회 13.3%, 월 1회 미만 11.5%, 주 4회 이상 8.9%, 주 2~3회 8.8% 등이다. 주 4회 이상 비율은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11.3%p 높지만, 주 1회 미만 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하여 참여빈도가 약간 높은 편이며,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참여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11-5〉 참조). 친목단체활동은 월 1회가 51.1%이고, 2주 1회는 18.7%, 월 1회 미만 16.0%, 주 1회 8.7%, 주 4회 이상 3.0%, 주 2~3회가 2.5% 등으로 절반 이상이 월 1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참여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 노인 및 여자노인이 더 높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가 56.6%로 가장 많고, 월 1회 미만이 23.2%, 2주 1회 11.9%, 주4회 이상 8.3%이며, 주2~3회와 주 1회는 없다. 월 1회 이상 참여 비율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 제특성별 비교를 하면 동부 노인 및 남자노인이 더 높고, 사회단체활동 참여와 동일하게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3종류의 단체활동의 참여 빈도를 요약하면,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약 절반은 월1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참여 빈도가 월 1회인 비율이 동호회(클럽) 활동 43.8%로 가장 낮고, 친목단체 51.1%, 정치사회단체 56.6% 순으로 높다.

〈표 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명)

특성	참여율			대상자수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전체	4.9	43.3	0.5	(10,279)
지역				
동부	5.3	45.6	0.6	(7,870)
읍면부	3.7	35.8	0.4	(2,409)
성				
남자	8.4	51.7	0.9	(4,291)
여자	2.4	37.2	0.2	(5,989)
연령				
65~69세	8.5	60.4	0.9	(3,303)
70~74세	4.7	48.6	0.4	(2,809)
75~79세	2.9	33.0	0.2	(2,120)
80~84세	2.2	23.9	0.6	(1,284)
85세 이상	0.8	10.7	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8	52.2	0.7	(6,338)
배우자 없음	2.0	29.0	0.2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2	31.5	0.3	(2,390)
노인부부	6.8	51.1	0.8	(4,595)
자녀동거	4.4	40.4	0.4	(2,881)
기타	4.2	44.9	0.2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6	12.9	0.0	(971)
무학(글자해독)	0.7	25.7	0.1	(2,136)
초등학교	2.0	42.5	0.3	(3,303)
중학교	6.2	55.7	0.5	(1,347)
고등학교	9.3	62.6	0.9	(1,717)
전문대학 이상	22.2	67.8	2.6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6.2	51.3	0.9	(2,970)
미취업	4.4	40.0	0.4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23.3	0.1	(2,075)
제2오분위	2.3	35.7	0.5	(2,051)
제3오분위	4.1	47.0	0.3	(2,041)
제4오분위	6.5	51.5	0.6	(2,047)
제5오분위	10.7	59.2	1.1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	49.2	0.6	(8,544)
제한 있음	0.6	14.2	0.0	(1,735)
2011년	3.8	37.4	0.7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동호회(클럽)							
전체 ¹⁾	8.9	8.8	13.3	13.7	43.8	11.5	100.0 (508)
지역							
동부	6.9	8.7	15.1	13.8	43.7	11.8	100.0 (418)
읍면부	18.2	9.5	4.5	13.1	44.4	10.3	100.0 (89)
성							
남자	9.4	9.3	10.7	15.0	42.6	13.0	100.0 (362)
여자	7.8	7.5	19.6	10.4	47.0	7.7	100.0 (146)
연령							
65~69세	8.2	7.2	15.4	15.2	40.4	13.6	100.0 (279)
70~74세	5.7	9.1	5.9	13.9	55.0	10.4	100.0 (133)
75~79세	12.1	10.9	21.9	11.2	33.5	10.3	100.0 (61)
80~84세	17.4	20.5	11.1	5.0	44.6	1.4	100.0 (28)
85세 이상	40.1	0.0	0.0	0.0	59.9	0.0	100.0 (6) ²⁾
2011년도	17.0	17.0	18.5	8.4	26.4	12.7	100.0 (396)
친목 단체							
전체 ¹⁾	3.0	2.5	8.7	18.7	51.1	16.0	100.0 (4,449)
지역							
동부	2.8	2.8	9.2	19.8	51.7	13.7	100.0 (3,586)
읍면부	4.1	1.0	6.4	14.1	48.8	25.6	100.0 (863)
성							
남자	2.5	2.6	8.9	18.2	48.7	19.1	100.0 (2,218)
여자	3.5	2.3	8.5	19.2	53.6	12.9	100.0 (2,230)
연령							
65~69세	3.1	2.7	9.1	20.6	48.9	15.6	100.0 (1,996)
70~74세	1.9	2.2	7.8	18.6	53.7	15.8	100.0 (1,365)
75~79세	4.3	2.5	8.2	14.8	52.8	17.4	100.0 (698)
80~84세	4.3	2.6	10.5	16.7	49.9	16.0	100.0 (307)
85세 이상	2.0	0.4	13.0	15.3	53.7	15.6	100.0 (82)
2011년도	2.5	2.4	5.6	9.6	57.7	22.2	100.0 (3,932)
정치사회 단체							
전체 ¹⁾	8.3	0.0	0.0	11.9	56.6	23.2	100.0 (53)
지역							
동부	10.1	0.0	0.0	11.7	56.3	21.9	100.0 (44)
읍면부	0.0	0.0	0.0	12.8	57.7	29.5	100.0 (9) ²⁾
성							
남자	8.7	0.0	0.0	14.5	58.5	18.3	100.0 (39)
여자	7.2	0.0	0.0	4.6	51.3	36.9	100.0 (14)
연령							
65~69세	3.6	0.0	0.0	16.8	46.5	33.1	100.0 (28)
70~74세	16.1	0.0	0.0	0.0	83.9	0.0	100.0 (12)
75~79세	0.0	0.0	0.0	34.6	35.4	30.1	100.0 (5) ²⁾
80~84세	17.6	0.0	0.0	0.0	62.3	20.1	100.0 (8) ²⁾
85세 이상	-	-	-	-	-	-	-
2011년도	4.3	4.3	2.9	0.0	27.1	61.4	100.0 (7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호회(클럽)에 가입한 508명, 친목단체에 가입한 4,449명,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한 53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2절 평생교육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1. 평생교육

〈표 11-6〉의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13.7%가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비율이 동부 노인(14.4%)이 읍면부 노인(11.4%) 보다 더 높으며, 여자노인(17.3%)의 경우 남자노인(8.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율이 증가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노인부부가구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교육에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주 2~3회가 48.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주 1회 36.4%, 주 4회 이상 11.1%, 2주 1회 1.8%, 월 1회 1.7% 등의 순이다. 주 2~3회 또는 주 4회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61.7%)이 읍면부 노인(49.1%) 보다 높으며, 남자노인(65.3%)의 경우 여자노인(57.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주 1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주 4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또한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주 2회 이상 교육 참여율이 높다. 연령 및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상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한편, 노인이 참여한 적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문화(댄스·가요·음악) 관련 교육이 41.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건강관리(증진)·운동 관련 교육이 36.0%, 어학 교육 10.4%, 정보화 교육 6.9%, 인문학 2.9% 등의 순이다(〈표 11-7〉 참조).

지역별로 동부 노인은 정보화, 어학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읍면부 노인은 건강관리·운동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한다.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 예술문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남자노인은 정보화, 인문학, 취업·직업 프로그램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7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정보화 교육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정보화 또는 인문학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예술문화 또는 어학 관련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예술문화 또는 어학 교육, 인문학 교육 등에, 노인부부가구는 정보화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참석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문학 교육 또는 정보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및 취업중인 경우는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이, 제한이 없는 경우 및 미취업중인 경우는 예술문화 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 인문학 교육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을 통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면,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가 24.3%와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24.2%로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공공 문화센터(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14.4%, 경로당 12.6%, 종교기관 9.3%,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또는 사설학원 8.2%, 대한노인회 2.4%, 학교 2.2%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문화예술회관, 사설 문화센터 등이 상대적으로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사설 문화센터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노인은 경로당과 종교기관이 높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경우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비율이 35.1%로 타 연령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42.2%)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70~74세 연령군, 75~79세 연령군, 80~84세 연령군은 노인복지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각각 28.2%, 25.9%, 31.4%).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경로당과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노인부부가구는 시·군·구민 회

관/동·읍·면 주민센터, 자녀동거가구는 종교기관, 기타가구는 노인복지관과 사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회관 또는 사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로당 또는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취업중인 노인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미취업노인은 노인복지관 또는 종교기관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 회관 등과 사설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참여율 ¹⁾	교육 참여 빈도 ²⁾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13.7	11.1	48.1	36.4	1.8	1.7	0.9	100.0 (1,403)
지역								
동부	14.4	12.3	49.4	34.0	1.9	1.7	0.7	100.0 (1,129)
읍면부	11.4	6.2	42.9	46.5	1.2	1.6	1.6	100.0 (274)
성								
남자	8.5	17.8	47.5	29.5	2.4	1.6	1.2	100.0 (367)
여자	17.3	8.8	48.3	38.9	1.5	1.7	0.8	100.0 (1,037)
연령								
65~69세	14.7	12.6	50.0	31.7	1.6	2.2	1.9	100.0 (486)
70~74세	14.5	12.5	51.8	31.6	2.4	1.6	0.1	100.0 (407)
75~79세	14.6	10.6	42.4	43.8	1.0	1.3	0.9	100.0 (309)
80~84세	12.0	7.0	40.1	49.4	1.9	1.6	0.0	100.0 (154)
85세 이상	6.3	2.4	59.5	36.0	2.1	0.0	0.0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8	13.1	49.2	33.1	1.8	1.9	0.9	100.0 (811)
배우자 없음	15.0	8.4	46.6	41.0	1.7	1.5	0.8	100.0 (592)
가구형태								
노인독거	16.2	9.5	42.7	43.1	1.5	2.5	0.7	100.0 (387)
노인부부	13.5	15.1	48.0	33.0	1.7	1.4	0.8	100.0 (621)
자녀동거	12.1	6.7	53.2	35.2	2.3	1.2	1.4	100.0 (349)
기타	11.2	5.1	55.2	36.8	1.6	1.3	0.0	100.0 (4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2	8.4	52.4	35.3	0.0	2.2	1.7	100.0 (60)
무학(글자해독)	11.8	10.8	48.7	38.6	0.6	1.1	0.2	100.0 (252)
초등학교	13.6	9.6	47.2	38.8	1.5	1.4	1.5	100.0 (450)
중학교	16.2	9.6	47.1	39.1	1.7	2.5	0.0	100.0 (218)
고등학교	15.3	13.1	52.8	30.3	2.5	1.2	0.1	100.0 (263)
전문대학 이상	19.9	16.0	41.9	33.0	3.8	3.0	2.3	100.0 (160)
현취업상태								
취업중	10.4	6.1	52.5	36.0	1.2	1.7	2.5	100.0 (307)
미취업	15.0	12.5	46.9	36.6	1.9	1.7	0.4	100.0 (1,09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2	8.6	39.5	47.8	0.4	2.3	1.4	100.0 (253)
제2오분위	12.4	12.6	48.6	34.7	1.4	2.4	0.3	100.0 (255)
제3오분위	12.7	9.4	50.9	36.5	2.1	1.1	0.0	100.0 (259)
제4오분위	14.2	11.4	49.3	32.2	3.3	2.3	1.5	100.0 (291)
제5오분위	16.8	13.1	51.1	33.2	1.5	0.5	0.6	100.0 (34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8	11.5	49.4	34.7	1.6	1.8	1.0	100.0 (1,267)
제한 있음	7.9	7.5	36.1	52.7	2.9	0.8	0.0	100.0 (136)
2011년도 ³⁾	6.7	13.8	45.0	36.8	2.0	2.1	0.3	100.0 (70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3) 2014년은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데 반해, 2011년은 현재 참여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조사함.

〈표 1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 /운동	예술문화	어학	인문학	정보화	취업/직업	기타	계 (명)
전체 ¹⁾	36.0	41.5	10.4	2.9	6.9	1.1	1.2	100.0 (1,403)
지역								
동부	34.4	41.4	10.9	2.9	7.8	1.2	1.4	100.0 (1,129)
읍면부	42.6	42.0	8.3	3.0	3.4	0.4	0.3	100.0 (274)
성								
남자	29.2	34.3	9.2	4.5	19.1	2.1	1.6	100.0 (367)
여자	38.4	44.1	10.8	2.3	2.6	0.7	1.1	100.0 (1,037)
연령								
65~69세	32.4	41.1	9.2	3.8	8.8	2.8	1.9	100.0 (486)
70~74세	39.9	38.4	12.4	1.5	7.3	0.1	0.4	100.0 (407)
75~79세	35.8	45.1	10.3	2.8	4.6	0.2	1.2	100.0 (309)
80~84세	32.7	46.7	11.8	3.1	5.4	0.0	0.3	100.0 (154)
85세 이상	50.8	32.9	2.4	6.7	3.7	0.0	3.5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9	39.8	9.7	3.2	9.6	1.2	0.6	100.0 (811)
배우자 없음	36.2	44.0	11.4	2.4	3.2	0.9	1.9	100.0 (592)
가구형태								
노인독거	33.4	44.7	13.0	3.6	4.2	0.4	0.7	100.0 (387)
노인부부	35.2	41.4	9.7	3.2	9.2	0.8	0.5	100.0 (621)
자녀동거	39.2	39.7	8.8	1.7	5.1	2.2	3.3	100.0 (349)
기타	44.8	30.2	10.3	2.3	11.1	1.3	0.0	100.0 (4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1	32.7	24.1	0.0	0.0	0.0	2.1	100.0 (60)
무학(글자해독)	45.7	35.1	15.3	0.7	2.8	0.2	0.2	100.0 (252)
초등학교	42.1	43.7	5.9	2.2	3.3	1.0	1.8	100.0 (450)
중학교	23.7	52.7	8.1	3.7	11.7	0.1	0.0	100.0 (218)
고등학교	32.2	39.1	11.3	4.7	11.4	0.5	0.8	100.0 (263)
전문대학 이상	24.8	37.5	11.7	5.5	12.2	5.2	3.1	100.0 (160)
현취업상태								
취업중	39.7	39.5	11.3	2.3	5.5	1.2	0.5	100.0 (307)
미취업	35.0	42.1	10.1	3.1	7.3	1.0	1.4	100.0 (1,09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2	40.9	10.5	4.6	6.1	0.0	0.7	100.0 (253)
제2오분위	44.1	39.8	9.6	1.5	3.3	1.2	0.5	100.0 (255)
제3오분위	34.5	44.2	12.1	1.2	6.0	1.5	0.5	100.0 (259)
제4오분위	29.8	44.8	11.1	3.5	9.1	0.8	0.9	100.0 (291)
제5오분위	35.5	38.8	8.6	3.5	9.0	1.7	2.9	100.0 (34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6	42.1	10.4	3.2	7.2	1.2	1.3	100.0 (1,267)
제한 있음	49.5	36.4	9.9	0.0	3.8	0.0	0.4	100.0 (136)
2011년도 ²⁾	20.1	-	-	-	12.8	-	-	100.0 (70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은 건강관리/운동 20.1%, 여가 및 취미 43.3%, 일반교양 20.6%, 정보화 12.8%, 기타 3.2%임. 기타에는 자원봉사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표 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사군구/ 읍면동	학교	문화예술 회관 등	사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계 (명)
전체 ¹⁾	24.2	12.6	2.4	9.3	24.3	2.2	14.4	8.2	2.4	100.0 (1,403)
지역										
동부	24.9	10.1	2.0	10.0	24.5	2.5	14.8	8.8	2.4	100.0 (1,129)
읍면부	21.2	23.0	3.9	6.4	23.5	1.3	12.5	5.8	2.4	100.0 (274)
성										
남자	25.3	6.9	3.7	6.5	26.5	2.8	14.0	11.5	2.8	100.0 (367)
여자	23.8	14.7	1.9	10.3	23.6	2.0	14.5	7.0	2.2	100.0 (1,037)
연령										
65~69세	17.5	6.4	1.8	3.3	35.1	3.4	16.1	12.6	3.8	100.0 (486)
70~74세	28.2	9.6	2.8	6.9	24.9	1.8	15.8	7.6	2.4	100.0 (407)
75~79세	25.9	15.9	3.0	16.4	17.1	2.0	12.4	5.6	1.7	100.0 (309)
80~84세	31.4	24.6	2.8	19.3	7.8	1.0	10.7	2.4	0.0	100.0 (154)
85세 이상	23.1	42.2	0.0	12.8	8.9	0.0	9.5	3.5	0.0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4.4	8.8	2.8	6.6	28.0	2.7	14.4	9.8	2.5	100.0 (811)
배우자 없음	23.8	17.9	1.9	13.0	19.2	1.6	14.4	6.0	2.2	100.0 (592)
가구형태										
노인독거	25.9	17.1	1.4	10.4	17.9	1.8	17.1	6.9	1.5	100.0 (387)
노인부부	26.5	9.1	3.3	6.4	27.3	2.1	14.2	8.5	2.6	100.0 (621)
자녀동거	16.8	13.5	1.9	14.4	26.2	2.9	12.4	8.5	3.4	100.0 (349)
기타	33.6	16.4	1.8	0.8	23.4	2.5	9.2	12.3	0.0	100.0 (4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3	28.1	0.0	16.3	13.7	2.0	4.6	5.0	0.0	100.0 (60)
무학(글자해독)	22.5	27.0	2.8	12.5	16.7	1.2	12.3	4.2	0.8	100.0 (252)
초등학교	25.2	15.1	1.9	9.4	24.9	2.6	11.8	6.4	2.7	100.0 (450)
중학교	27.6	5.7	1.5	8.2	32.4	1.6	12.6	8.0	2.4	100.0 (218)
고등학교	25.5	3.8	3.4	7.8	23.9	1.5	21.0	10.5	2.6	100.0 (263)
전문대학 이상	14.7	1.1	3.5	5.2	28.7	5.0	20.3	17.1	4.4	100.0 (160)
현취업상태										
취업중	20.3	20.1	3.9	6.1	25.4	2.1	13.4	6.5	2.2	100.0 (307)
미취업	25.3	10.5	2.0	10.2	24.0	2.3	14.6	8.7	2.4	100.0 (1,09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7	21.4	2.3	13.5	12.5	1.3	11.5	1.8	0.0	100.0 (253)
제2오분위	26.4	13.0	2.5	9.5	24.1	2.8	14.0	5.1	2.6	100.0 (255)
제3오분위	24.3	12.1	3.1	7.9	26.5	3.2	14.1	6.2	2.6	100.0 (259)
제4오분위	22.9	10.4	2.2	7.2	27.5	1.4	14.5	10.4	3.5	100.0 (291)
제5오분위	15.2	8.4	2.1	8.9	29.1	2.4	16.1	14.9	2.9	100.0 (343)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7	10.5	2.4	9.1	24.7	2.3	15.1	8.7	2.5	100.0 (1,267)
제한 있음	19.3	33.0	2.7	10.8	20.5	1.6	7.6	3.3	1.2	100.0 (136)
2011년도	45.8	-	2.3	15.7	17.9	2.9 ²⁾	3.0	5.0	7.4	100.0 (70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2) 2011년에는 대학(교)부설을 의미함.

2. 자원봉사 활동

노인의 직업경력과 인생연륜 등을 통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사회 통합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개월간 기부 또는 다른 사람 돕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1-9〉 참조).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난 1개월 간 기부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은 3.5%로 절대적인 소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조사기간과 조사시점에 따른 특성일 수 있다. 만일 조사기간이 지난 1년이거나 조사시점이 연말이었다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십자 회비 등으로 기부 참여 비율이 더 높았을 수 있다. 한편,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을 제외하고 금전적 대가없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돕기(이하, 다른 사람 돕기)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은 9.5%이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4.0%이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과 남자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취업중인 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기부 참여가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가 가장 낮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사람 돕기와 자원봉사활동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표 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나눔활동 참여율

(단위: %, 명)

특성	참여율			대상자수
	기부 ²⁾	다른 사람 돕기 ³⁾	자원봉사활동 ⁴⁾	
전체 ¹⁾	3.5	9.5	4.0	(10,279)
지역				
동부	3.9	9.8	4.2	(7,870)
읍면부	2.4	8.3	3.4	(2,409)
성				
남자	4.1	10.8	4.5	(4,291)
여자	3.1	8.5	3.6	(5,989)
연령				
65~69세	5.3	11.7	6.3	(3,303)
70~74세	3.6	10.3	4.3	(2,809)
75~79세	2.5	8.8	2.1	(2,120)
80~84세	2.2	5.8	2.6	(1,284)
85세 이상	0.8	4.8	0.7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	10.4	4.9	(6,338)
배우자 없음	2.3	8.0	2.5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9	8.4	2.5	(2,390)
노인부부	4.0	10.3	5.0	(4,595)
자녀동거	3.2	9.1	3.4	(2,881)
기타	4.5	9.5	5.6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3.1	0.2	(971)
무학(글자해독)	1.3	8.6	1.4	(2,136)
초등학교	2.6	9.0	3.0	(3,303)
중학교	4.6	11.6	7.1	(1,347)
고등학교	6.1	11.5	6.7	(1,717)
전문대학 이상	10.5	13.3	8.7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4.3	13.8	4.8	(2,970)
미취업	3.2	7.7	3.7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6.8	1.6	(2,075)
제2오분위	1.9	7.6	3.5	(2,051)
제3오분위	3.1	11.1	3.8	(2,041)
제4오분위	4.1	10.5	5.1	(2,047)
제5오분위	7.4	11.5	6.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10.1	4.7	(8,544)
제한 있음	1.0	6.3	0.6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금전적 대가없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함.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은 제외 됨.

4) 시간 및 노력 제공 모두 포함됨.

〈표 11-10〉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은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14.5%, 나머지 81.0%는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4.7%)이 읍면부 노인(3.9%)보다 더 많으며, 여자노인(4.0%)보다는 남자노인(5.2%)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조금 더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기타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교육수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학력의 노인은 3.2%, 중학교 학력의 노인은 7.8%,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은 7.6%,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은 9.6%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제특성은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게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중인 노인에 비해 미취업상태 노인의 과거 자원봉사활동경험이 더 높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지 살펴보면, 월 1회가 25.6%로 가장 많고, 주 1회 22.6%, 월 1회 미만 16.7%, 주 2~3회 13.5%, 2주 1회 11.4%, 주 4회 이상 10.2% 등의 순이다(〈표 11-11 참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빈도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동부 노인, 여자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두드러진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종교기관이 2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자체 20.6%, 경로당 16.2%, 복지기관 15.4%, 민간단체 10.6%, 개인적으로 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1-12〉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종교기관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읍면부 노인은 경로당을 통하여 활동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읍면부 지역에서 경로당은 여가활동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부 노인에게서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의 연계도 각각 21.5%와 16.8%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도 지자체를 통한 자원봉사 연계가 17.0%로 높게 파악되었지만, 동부 노인과 달리 개인

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6.7%로 높게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노인은 종교기관을 통한 활동이 33.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남자노인은 종교기관에 의한 자원봉사 연계가 16.6%로 여자노인에 비해 낮을 수준이며, 지자체(24.8%), 경로당(20.4%), 민간단체(14.3%) 등의 응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에 따른 특성에서는 85세 이상 연령군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결혼상태에 상관없이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지자체를 통한 활동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복지기관을 통한 활동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지자체를 통한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가구에서는 종교기관을 통한 활동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무학(글자모름) 노인은 지자체를 통한 활동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교육수준에서는 종교기관 또는 경로당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상대적으로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종교기관과 지자체를 통한 활동 비율이 각각 24.8%와 21.3%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한이 있는 경우는 종교기관을 통한 활동 비율이 42.3%로 높은 수준이며 지자체를 통하여 활동한 경우는 없다. 대신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도 25.1%로 높은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가 56.8%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분야(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18.2%, 교통질서분야(안전 지킴이, 기초 질서 캠페인 등) 8.9%, 보건의료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5.3%, 교육활동분야(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4.3%, 문화체육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3.6% 등의 순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1-13〉 참조).

노인제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하고, 동부는 교통질서분야에서의 활동이, 읍면부는 환경보호분야의 활동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자노인의 대부분인 69.3%가 사회복지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남자노인은 사회복지 43.5%, 환경보호 24.7%, 교통질서 15.7% 등으로 성별 간 활동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호분야는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취업중인 노인은 상대적으로 환경보호분야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이 65.1%로 가장 높은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48.6%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환경보호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11-14〉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종류에 참여하는지 살펴보면, 단순 노력 봉사활동이 7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 14.9%, 직업경력·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8.0%이다. 따라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3/4 이상이 지식이나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보다는 단순한 노력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제특성별로 보면, 동부 노인과 남자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미취업 노인에게서 지식·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의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과 지식·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의 정(positive)의 관계가 확인되며, 소득수준 및 기능상태별 차이는 거의 없다.

〈표 11-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4.5	14.5	81.0	100.0 (10,279)
지역				
동부	4.7	15.6	79.7	100.0 (7,870)
읍면부	3.9	10.7	85.4	100.0 (2,409)
성				
남자	5.2	15.6	79.2	100.0 (4,291)
여자	4.0	13.7	82.3	100.0 (5,989)
연령				
65~69세	7.3	16.8	75.9	100.0 (3,303)
70~74세	4.7	14.7	80.6	100.0 (2,809)
75~79세	2.4	12.6	85.0	100.0 (2,120)
80~84세	2.6	13.8	83.6	100.0 (1,284)
85세 이상	0.5	9.6	89.9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6	15.5	78.9	100.0 (6,338)
배우자 없음	2.7	12.8	84.5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8	13.5	83.7	100.0 (2,390)
노인부부	5.7	15.4	78.9	100.0 (4,595)
자녀동거	3.7	14.2	82.1	100.0 (2,881)
기타	6.0	11.0	83.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4	4.6	95.0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8	7.7	90.5	100.0 (2,136)
초등학교	3.2	13.5	83.3	100.0 (3,303)
중학교	7.8	16.8	75.4	100.0 (1,347)
고등학교	7.6	22.0	70.4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9.6	28.0	62.4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5.7	13.4	80.9	100.0 (2,970)
미취업	4.0	14.9	81.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10.9	87.3	100.0 (2,075)
제2오분위	4.0	12.0	84.0	100.0 (2,051)
제3오분위	4.0	14.5	81.5	100.0 (2,041)
제4오분위	5.7	16.0	78.3	100.0 (2,047)
제5오분위	6.7	18.9	74.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2	15.3	79.5	100.0 (8,544)
제한 있음	0.9	10.1	89.0	100.0 (1,735)
2011년도	3.9	9.2	86.9	100.0 (10,54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¹⁾	10.2	13.5	22.6	11.4	25.6	16.7	100.0 (461)
지역							
동부	9.3	15.1	24.3	9.8	25.7	15.8	100.0 (368)
읍면부	13.5	7.2	15.7	18.0	25.3	20.3	100.0 (93)
성							
남자	14.0	13.1	17.1	10.9	26.5	18.4	100.0 (224)
여자	6.6	13.9	27.7	11.9	24.7	15.2	100.0 (237)
연령							
65~69세	8.3	11.1	26.4	7.8	25.8	20.6	100.0 (241)
70~74세	11.1	14.9	17.0	16.5	26.2	14.3	100.0 (132)
75~79세	5.8	18.9	25.1	16.8	25.0	8.4	100.0 (50)
80~84세	27.5	16.5	10.2	10.3	25.8	9.7	100.0 (33)
85세 이상	0.0	22.9	44.2	0.0	0.0	32.9	100.0 (4)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4	11.3	21.6	11.3	26.1	18.3	100.0 (355)
배우자 없음	6.2	20.8	25.6	11.8	24.1	11.5	100.0 (107)
가구형태							
노인독거	9.1	33.0	15.3	11.3	21.4	9.9	100.0 (66)
노인부부	12.2	10.8	21.1	10.4	26.9	18.6	100.0 (263)
자녀동거	7.7	8.4	26.0	15.7	30.8	11.4	100.0 (108)
기타	2.5	12.9	41.8	4.1	0.0	38.7	100.0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9	22.4	49.7	0.0	0.0	23.0	100.0 (4) ²⁾
무학(글자해독)	10.6	7.9	8.4	17.8	35.9	19.4	100.0 (39)
초등학교	13.6	13.8	16.7	9.2	29.4	17.3	100.0 (103)
중학교	6.4	12.8	29.2	9.4	23.9	18.3	100.0 (107)
고등학교	12.4	15.5	23.0	10.0	21.6	17.5	100.0 (130)
전문대학 이상	6.9	13.1	26.5	16.8	25.8	10.9	100.0 (77)
현취업상태							
취업중	12.1	10.9	18.0	12.4	24.5	22.1	100.0 (168)
미취업	9.0	15.0	25.2	10.8	26.3	13.7	100.0 (2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6	25.6	9.4	12.4	24.9	12.1	100.0 (37)
제2오분위	11.2	18.4	27.4	11.0	13.5	18.5	100.0 (82)
제3오분위	17.3	13.7	10.2	12.7	28.9	17.2	100.0 (82)
제4오분위	3.9	12.5	23.0	10.2	27.9	22.5	100.0 (117)
제5오분위	9.3	8.4	29.0	11.8	29.5	12.0	100.0 (1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0	14.0	23.3	11.8	25.4	15.5	100.0 (446)
제한 있음	14.3	0.0	1.7	0.0	32.0	52.0	100.0 (15)
2011년도	12.2	18.3	24.3	6.8	23.5	15.0	100.0 (40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특성	개인적으로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타	계 (명)
전체 ¹⁾	8.8	25.4	16.2	15.4	20.6	10.6	3.0	100.0 (461)
지역								
동부	6.8	29.4	11.6	16.8	21.5	11.1	2.8	100.0 (368)
읍면부	16.7	9.5	34.6	9.7	17.0	8.7	3.8	100.0 (93)
성								
남자	12.0	16.6	20.4	9.0	24.8	14.3	2.9	100.0 (224)
여자	5.8	33.7	12.3	21.4	16.7	7.1	3.0	100.0 (237)
연령								
65~69세	9.7	28.5	12.9	11.9	19.0	14.2	3.8	100.0 (241)
70~74세	6.4	22.9	18.1	28.1	17.1	6.0	1.4	100.0 (132)
75~79세	3.4	22.1	21.0	6.9	34.3	8.9	3.4	100.0 (50)
80~84세	16.9	13.0	27.6	4.5	28.4	6.7	2.9	100.0 (33)
85세 이상	32.9	67.1	0.0	0.0	0.0	0.0	0.0	100.0 (4)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0	24.3	16.0	12.2	21.2	13.1	3.2	100.0 (355)
배우자 없음	4.7	29.2	17.1	25.9	18.7	2.2	2.2	100.0 (107)
가구형태								
노인독거	7.9	27.0	22.1	23.0	18.1	0.4	1.5	100.0 (66)
노인부부	9.9	16.4	18.3	14.1	22.0	15.9	3.4	100.0 (263)
자녀동거	8.0	41.8	9.5	16.5	17.7	6.5	0.0	100.0 (108)
기타	2.6	45.6	7.8	3.5	25.1	0.0	15.4	100.0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20.7	25.3	4.9	49.1	0.0	0.0	100.0 (4) ²⁾
무학(글자해독)	4.1	26.6	28.5	14.9	20.3	3.3	2.3	100.0 (39)
초등학교	12.3	18.8	21.8	17.8	21.4	5.0	2.9	100.0 (103)
중학교	6.6	30.0	9.0	19.8	23.9	6.3	4.4	100.0 (107)
고등학교	11.7	26.2	19.0	11.5	16.0	13.4	2.2	100.0 (130)
전문대학 이상	5.0	26.5	6.8	13.3	21.5	23.8	3.1	100.0 (77)
현취업상태								
취업중	11.8	25.8	15.1	14.5	19.1	13.1	0.6	100.0 (168)
미취업	7.1	25.2	16.9	15.8	21.5	9.2	4.3	100.0 (2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8	21.3	25.7	17.4	20.9	3.9	0.0	100.0 (37)
제2오분위	5.4	13.3	20.1	23.1	29.3	8.0	0.8	100.0 (82)
제3오분위	13.8	20.8	17.7	11.5	18.2	14.2	3.8	100.0 (82)
제4오분위	7.9	34.4	13.7	12.4	17.6	7.0	7.0	100.0 (117)
제5오분위	8.2	27.9	12.9	15.2	19.7	14.9	1.2	100.0 (1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8.3	24.8	16.1	15.5	21.3	10.9	3.1	100.0 (446)
제한 있음	25.1	42.3	18.9	12.0	0.0	1.7	0.0	100.0 (15)
2011년도	10.2	30.7	12.8	16.4	16.3	11.8	1.7	100.0 (40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기타	계 (명)
전체 ¹⁾	56.8	3.6	8.9	18.2	5.3	4.3	2.9	100.0 (461)
지역								
동부	57.7	3.5	10.5	14.6	6.0	4.0	3.7	100.0 (368)
읍면부	53.4	4.2	2.4	31.9	2.5	5.6	0.0	100.0 (93)
성								
남자	43.5	3.8	15.7	24.7	4.6	5.2	2.5	100.0 (224)
여자	69.3	3.5	2.5	11.9	6.0	3.5	3.3	100.0 (237)
연령								
65~69세	60.7	4.6	10.1	12.7	6.9	2.8	2.2	100.0 (241)
70~74세	62.1	3.3	3.8	17.8	4.7	5.6	2.7	100.0 (132)
75~79세	34.5	0.7	12.9	40.9	2.5	2.8	5.7	100.0 (50)
80~84세	45.4	2.3	15.4	26.2	1.5	9.2	0.0	100.0 (33)
85세 이상	22.9	0.0	0.0	0.0	0.0	32.9	44.2	100.0 (4)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5.5	3.8	10.4	17.3	5.1	4.6	3.3	100.0 (355)
배우자 없음	61.1	3.0	3.8	20.9	6.3	3.3	1.6	100.0 (107)
가구형태								
노인독거	65.1	1.7	3.9	21.9	4.2	3.2	0.0	100.0 (66)
노인부부	58.5	4.0	10.1	15.1	5.0	4.6	2.7	100.0 (263)
자녀동거	48.6	2.6	9.7	22.8	8.2	4.5	3.6	100.0 (108)
기타	53.4	8.3	6.1	19.5	0.0	3.0	9.7	100.0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0.2	26.7	0.0	23.1	0.0	0.0	0.0	100.0 (4) ²⁾
무학(글자해독)	60.5	0.0	10.0	25.7	1.2	0.0	2.6	100.0 (39)
초등학교	55.4	0.7	15.8	19.8	5.6	1.1	1.6	100.0 (103)
중학교	65.1	2.4	5.6	16.6	6.9	1.1	2.3	100.0 (107)
고등학교	59.0	4.1	10.1	15.7	2.1	4.1	4.9	100.0 (130)
전문대학 이상	42.0	9.1	1.8	18.0	10.7	15.8	2.6	100.0 (77)
현취업상태								
취업중	54.3	1.9	6.9	26.3	4.6	3.3	2.7	100.0 (168)
미취업	58.2	4.6	10.0	13.5	5.8	4.9	3.0	100.0 (2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0	3.1	0.9	30.5	3.0	4.4	1.1	100.0 (37)
제2오분위	56.5	2.5	12.9	19.3	7.3	1.5	0.0	100.0 (82)
제3오분위	56.3	1.3	16.1	16.5	1.4	3.4	5.0	100.0 (82)
제4오분위	69.0	4.3	3.9	11.0	5.2	1.8	4.8	100.0 (117)
제5오분위	47.8	5.2	8.7	21.3	6.0	8.7	2.3	100.0 (1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4	3.7	8.9	18.3	5.5	4.2	3.0	100.0 (446)
제한 있음	68.3	0.0	9.2	14.4	0.0	8.1	0.0	100.0 (15)
2011년도	49.6	5.3	6.0	21.9	6.0	3.6	7.5	100.0 (40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1-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특성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기타	계 (명)
전체 ¹⁾	77.0	14.9	8.0	0.1	100.0 (461)
지역					
동부	74.6	16.8	8.5	0.1	100.0 (368)
읍면부	86.6	7.3	5.9	0.2	100.0 (93)
성					
남자	71.2	16.9	11.6	0.3	100.0 (224)
여자	82.5	12.9	4.6	0.0	100.0 (237)
연령					
65~69세	80.2	12.4	7.2	0.2	100.0 (241)
70~74세	74.9	17.9	7.0	0.2	100.0 (132)
75~79세	75.6	11.5	12.9	0.0	100.0 (50)
80~84세	65.4	23.9	10.7	0.0	100.0 (33)
85세 이상	67.1	32.9	0.0	0.0	100.0 (4)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5.6	15.2	9.0	0.2	100.0 (355)
배우자 없음	81.8	13.7	4.5	0.0	100.0 (107)
가구형태					
노인독거	81.3	16.1	2.6	0.0	100.0 (66)
노인부부	74.3	15.3	10.2	0.2	100.0 (263)
자녀동거	80.3	12.5	7.2	0.0	100.0 (108)
기타	80.0	17.4	2.6	0.0	100.0 (2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0.0	0.0	0.0	0.0	100.0 (4) ²⁾
무학(글자해독)	95.3	4.7	0.0	0.0	100.0 (39)
초등학교	86.5	5.4	8.1	0.0	100.0 (103)
중학교	84.7	13.2	1.5	0.6	100.0 (107)
고등학교	73.7	18.9	7.4	0.0	100.0 (130)
전문대학 이상	48.7	29.2	22.1	0.0	100.0 (77)
현취업상태					
취업중	84.7	7.9	7.3	0.1	100.0 (168)
미취업	72.6	18.9	8.4	0.1	100.0 (2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6.3	8.5	5.2	0.0	100.0 (37)
제2오분위	75.1	19.4	5.5	0.0	100.0 (82)
제3오분위	76.5	14.5	9.0	0.0	100.0 (82)
제4오분위	80.6	12.0	7.1	0.3	100.0 (117)
제5오분위	72.8	16.6	10.5	0.1	100.0 (1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77.1	14.5	8.3	0.1	100.0 (446)
제한 있음	74.8	25.2	0.0	0.0	100.0 (1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3절 정보화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이용

1. 정보화 현황

컴퓨터·인터넷 사용 실태를 보면,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노인의 17.0%이고, 이들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2.9%,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가 7.0%,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7.1% 등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은 약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5〉 참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비율을 비교하면, 동부 노인이 19.6%로 읍면부 노인의 8.7%보다 높으며, 남자노인은 28.2%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9.0%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을 보면 65~69세 연령군 30.2%, 70~74세 연령군 16.0%, 75~79세 연령군 9.6%, 80~84세 연령군 6.3%, 85세 이상 연령군 2.4%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22.5%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8.1%보다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사용률은 21.9%, 기타가구 21.2%, 자녀동거가구 14.9% 등이며, 노인독거가구는 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매우 증가하며, 특히 초등학교는 7.0% 이하인데 반하여, 중학교 18.9%, 고등학교 39.9%, 전문대학 이상은 65.6%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다. 그리고 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제2오분위 8.9%, 제3오분위 16.6%, 제4오분위 22.4%, 제5오분위 32.0%로 경제수준과 컴퓨터·인터넷 사용률은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 한편, 취업상태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20.0%인데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는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핸드폰 소유 실태를 보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7%이고, 일반 핸드폰 소유는 66.8%로 전체 응답자의 80.5%, 즉 4/5 이상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다. (〈표 11-16〉 참조).

노인특성별로 핸드폰 소유율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이 83.0%로 읍면부 노인의

72.3%보다 높으며, 남자노인은 87.6%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75.5%이다. 연령별 핸드폰 소유율을 보면 65~69세 연령군 93.4%, 70~74세 연령군 86.0%, 75~79세 연령군 76.7%, 80~84세 연령군 63.9%, 85세 이상 연령군 43.3% 등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핸드폰 소유율이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핸드폰 소유율은 83.4%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75.9%보다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소유율이 83.5%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소유율이 75.4%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핸드폰 소유율도 증가하며, 취업노인과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핸드폰 소유율도 더 높다. 결과적으로 동부 노인, 남자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인터넷 사용 뿐 아니라 핸드폰의 사용도 증가하여 정보화 수준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소유한 노인의 핸드폰 기능 및 서비스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면, 절반의 경우(59.7%) 전화 받기와 걸기만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문자받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18.6%, 문자받기와 보내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13.4%, 검색 및 뉴스보기까지 모두 사용하는 노인은 8.3%에 불과하다.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동부 노인과 남자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핸드폰 사용 수준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 및 기타가구의 핸드폰 사용 수준이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가 가장 낮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핸드폰 사용 수준과 뚜렷한 정비례 관계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핸드폰 사용 수준이 높다. 또한 취업노인과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핸드폰 사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11-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전혀 사용 불가능	계 (명)
전체 ¹⁾	2.9	7.0	7.1	83.0	100.0 (10,279)
지역					
동부	3.4	8.0	8.2	80.4	100.0 (7,870)
읍면부	1.3	4.0	3.4	91.3	100.0 (2,409)
성					
남자	5.3	12.1	10.8	71.8	100.0 (4,291)
여자	1.2	3.4	4.4	91.0	100.0 (5,989)
연령					
65~69세	5.6	12.9	11.7	69.8	100.0 (3,303)
70~74세	2.8	6.2	7.0	84.0	100.0 (2,809)
75~79세	1.1	3.6	4.9	90.4	100.0 (2,120)
80~84세	0.8	3.0	2.5	93.7	100.0 (1,284)
85세 이상	0.4	0.9	1.1	97.6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1	9.2	9.2	77.5	100.0 (6,338)
배우자 없음	0.9	3.5	3.7	91.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0	4.6	3.9	90.5	100.0 (2,390)
노인부부	3.9	9.7	8.3	78.1	100.0 (4,595)
자녀동거	3.0	5.1	6.8	85.1	100.0 (2,881)
기타	1.9	6.0	13.3	78.8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2	0.0	0.1	99.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1	0.7	1.5	97.7	100.0 (2,136)
초등학교	0.3	2.7	4.0	93.0	100.0 (3,303)
중학교	2.4	6.6	9.9	81.1	100.0 (1,347)
고등학교	6.0	18.5	15.4	60.1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8.5	26.9	20.2	34.4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3.3	8.1	8.0	80.6	100.0 (2,970)
미취업	2.7	6.6	6.7	84.0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2.0	2.9	94.5	100.0 (2,075)
제2오분위	0.7	4.1	4.1	91.1	100.0 (2,051)
제3오분위	1.7	7.2	7.7	83.4	100.0 (2,041)
제4오분위	4.1	9.6	8.7	77.6	100.0 (2,047)
제5오분위	7.4	12.4	12.2	68.0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	8.4	8.2	80.0	100.0 (8,544)
제한 있음	0.3	0.5	1.7	97.5	100.0 (1,735)
2011년도	1.5	5.0	6.3	87.2	100.0 (10,49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핸드폰 소유 여부 및 기능사용 수준

(단위: %, 명)

특성	스마트폰 소유	일반 핸드폰 소유	갖고 있지 않음	기능사용 수준 ²⁾				계 (명)
				전화 받기/걸기	문자 받기	문자받기 /보내기	검색/뉴스 보기	
전체 ¹⁾	13.7	66.8	19.5	59.7	18.6	13.4	8.3	100.0 (8,277)
지역								
동부	15.7	67.3	17.0	55.7	19.9	15.2	9.2	100.0 (6,536)
읍면부	7.2	65.1	27.7	74.5	13.8	6.9	4.8	100.0 (1,741)
성								
남자	20.3	67.3	12.4	49.7	20.1	17.5	12.7	100.0 (3,759)
여자	9.0	66.5	24.5	68.0	17.3	10.1	4.6	100.0 (4,518)
연령								
65~69세	28.1	65.3	6.6	41.6	21.2	21.6	15.6	100.0 (3,084)
70~74세	11.4	74.6	14.0	62.1	20.2	12.0	5.7	100.0 (2,416)
75~79세	5.2	71.5	23.3	74.4	14.9	7.4	3.3	100.0 (1,625)
80~84세	3.4	60.5	36.1	79.8	14.5	4.0	1.7	100.0 (821)
85세 이상	1.0	42.3	56.7	87.6	10.8	1.1	0.5	100.0 (33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2	66.2	16.6	52.4	20.3	16.7	10.6	100.0 (5,285)
배우자 없음	8.1	67.8	24.1	72.5	15.6	7.6	4.3	100.0 (2,992)
가구형태								
노인독거	8.4	72.1	19.5	72.8	14.7	8.1	4.4	100.0 (1,925)
노인부부	15.9	67.6	16.5	54.8	19.6	15.5	10.1	100.0 (3,836)
자녀동거	14.1	61.3	24.6	57.9	20.0	14.0	8.1	100.0 (2,172)
기타	17.9	65.6	16.5	51.8	20.7	16.5	11.0	100.0 (34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55.9	43.6	97.0	2.3	0.1	0.6	100.0 (547)
무학(글자해독)	3.0	66.6	30.4	83.5	13.3	2.3	0.9	100.0 (1,488)
초등학교	7.6	73.8	18.6	66.4	23.0	8.7	1.9	100.0 (2,689)
중학교	16.2	74.2	9.6	51.4	21.8	20.4	6.4	100.0 (1,218)
고등학교	29.3	62.8	7.9	36.7	20.9	24.5	17.9	100.0 (1,582)
전문대학 이상	46.0	47.6	6.4	22.7	15.4	27.3	34.6	100.0 (754)
현취업상태								
취업중	16.5	69.3	14.2	56.6	19.3	14.5	9.6	100.0 (2,546)
미취업	12.6	65.8	21.6	61.0	18.3	13.0	7.7	100.0 (5,73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	67.8	27.4	78.8	13.7	5.4	2.1	100.0 (1,505)
제2오분위	7.0	70.4	22.6	70.8	16.9	9.3	3.0	100.0 (1,587)
제3오분위	12.4	71.7	15.9	59.6	19.8	13.1	7.5	100.0 (1,716)
제4오분위	18.1	64.7	17.2	50.8	20.6	17.9	10.7	100.0 (1,694)
제5오분위	26.8	59.3	13.9	41.7	21.4	20.1	16.8	100.0 (1,7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1	69.4	14.5	55.8	20.0	14.9	9.3	100.0 (7,305)
제한 있음	2.1	53.9	44.0	88.6	8.5	2.2	0.7	100.0 (972)
2011년도	0.4	71.3	28.3	-	-	-	-	-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스마트폰 또는 일반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8,278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하위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지를 의미하며 2014년부터 조사 문항으로 포함되었음.

2.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 경로당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시설이며, 2013년 전국의 경로당 수는 63,251개소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경로당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약 1/4인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34.2%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4.2일이다(〈표 11-17〉 참조).

이러한 이용실태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이용률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커 동부 노인이 17.2%에 불과한데 비하여 읍면부 노인은 54.3%에 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 또한 26.6%와 58.9%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읍면부 지역에서 경로당의 의미가 동부 지역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행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약 주 4일을 이용하고 있다. 성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여자노인의 이용률은 남자노인의 20.7%보다 높은 29.6%이다. 향후 이용희망률도 각각 29.2%와 37.7%로 여자노인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서는 무배우 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노인독거가구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는 이용률과 이용 시 이용일수가 반비례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이 낮고, 이용하는 경우 이용일수도 적다. 또한 가구소득수준과 이용률도 대체로 반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수준과 이용일수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한편, 취업중인 경우는 오히려 미취업 노인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일수는 미취업 노인에게서 높다. 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은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일수가 높다. 이러한 제특성별 경향성은 향후 이용희망률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표 11-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이용률 ¹⁾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1주간 평균 이용 일수 ³⁾	이용만족도 ³⁾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체	25.9	34.2	4.2	8.5	67.7	20.6	2.9	0.3	100.0 (2,663)
지역									
동부	17.2	26.6	4.0	8.1	65.3	22.5	3.8	0.3	100.0 (1,355)
읍면부	54.3	58.9	4.3	8.9	70.2	18.7	2.0	0.2	100.0 (1,308)
성									
남자	20.7	29.2	3.8	8.4	64.1	23.9	3.3	0.3	100.0 (889)
여자	29.6	37.7	4.3	8.6	69.5	18.9	2.7	0.3	100.0 (1,774)
연령									
65~69세	13.5	26.5	3.8	7.2	70.2	20.2	2.1	0.3	100.0 (447)
70~74세	24.4	33.6	4.0	9.2	68.2	19.7	2.7	0.2	100.0 (686)
75~79세	35.1	40.4	4.2	8.0	69.8	18.3	3.6	0.3	100.0 (744)
80~84세	38.6	42.0	4.4	10.7	63.1	22.5	3.3	0.4	100.0 (496)
85세 이상	38.0	39.0	4.6	6.3	65.3	25.8	2.3	0.3	100.0 (2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5	31.4	3.9	7.8	68.2	21.5	2.2	0.3	100.0 (1,428)
배우자 없음	31.3	38.6	4.5	9.3	67.1	19.6	3.8	0.2	100.0 (1,235)
가구형태									
노인독거	33.6	40.4	4.5	10.4	67.7	18.3	3.5	0.1	100.0 (803)
노인부부	25.1	33.7	3.9	7.9	69.3	20.7	1.7	0.4	100.0 (1,154)
자녀동거	21.4	29.9	4.2	7.0	65.5	22.6	4.5	0.4	100.0 (616)
기타	21.9	32.6	4.1	9.1	62.9	26.2	1.8	0.0	100.0 (9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0	47.2	4.4	7.3	73.1	17.7	1.9	0.0	100.0 (398)
무학(글자해독)	38.3	46.5	4.4	9.1	66.4	21.0	3.2	0.3	100.0 (818)
초등학교	28.5	37.5	4.1	7.6	68.1	21.7	2.6	0.0	100.0 (943)
중학교	17.9	28.1	3.8	9.7	64.0	21.0	5.0	0.3	100.0 (241)
고등학교	11.7	19.5	3.7	11.1	68.1	15.9	3.4	1.5	100.0 (201)
전문대학 이상	7.8	13.5	3.7	9.0	57.6	31.6	0.5	1.3	100.0 (62)
현취업상태									
취업중	34.7	44.9	4.0	9.2	68.8	20.2	1.8	0.0	100.0 (1,030)
미취업	22.3	29.8	4.3	8.0	67.1	20.9	3.6	0.4	100.0 (1,6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4	40.0	4.5	11.1	67.0	17.9	4.0	0.0	100.0 (714)
제2오분위	31.2	40.8	4.0	7.5	68.5	21.8	2.0	0.2	100.0 (639)
제3오분위	25.4	35.1	4.1	6.7	69.5	21.4	1.8	0.6	100.0 (519)
제4오분위	22.1	31.2	3.8	7.4	67.9	22.2	2.0	0.5	100.0 (452)
제5오분위	16.1	23.6	4.1	9.0	65.0	20.7	5.0	0.3	100.0 (3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6	33.6	4.1	9.0	68.9	19.0	2.9	0.3	100.0 (2,104)
제한 있음	32.2	37.0	4.5	6.6	63.5	26.8	2.9	0.3	100.0 (559)
2011년도	34.2	47.8	3.8	10.5	63.5	22.6	3.1	0.4	100.0 (3,60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3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8.5%,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7.7%로 76.2%, 즉 이용자의 3/4이 경로당 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를 포함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다.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만족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별 차이는 적은 편인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소득이 가장 낮은 층(제1오분위)에서,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특히 만족도가 높다.

경로당 이용자의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친목도모 85.5%로 압도적이다. 다음이 식사서비스 이용(6.6%)과 여가프로그램 이용(4.4%)이다(〈표 11-18〉 참조). 이는 경로당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다. 경로당 이용이유를 노인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식사서비스를 응답한 노인에게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읍면부 노인보다는 동부 노인에게서,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노인에게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가 식사서비스라는 비율이 높다. 또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높다. 가구소득수준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제1오분위에서 식사서비스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

경로당 이용에 불만족하는 노인의 경우 그 이유로는 이용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있는데, 특히 여자노인과 80대 이전 노인에게서(65~69세 69.9%, 70~74세 69.1%, 75~79세 70.2%) 그러한 응답률이 높다. 그 다음으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불만(14.3%)이 지적되고 있는데, 동부 노인에게서와 남자노인, 자녀동거가구, 미취업 노인에게서 특히 높다. 그 외의 경로당 불만족 이유로는 프로그램 미비가 7.8%, 경제적 부담 5.6%, 교통불편 4.5%, 기타 1.4%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을 불만으로 지적한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지만 동부 노인에게서와 남자노인, 노인독거가구, 미취업 노인,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높다. 교통불편을 불만족 이유로 응답한 노인의 제특성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 남자노인, 85세 이상의 노인, 혼자 생활하는 노인, 취업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서 높다(〈표 11-19〉 참조).

〈표 11-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참여	건강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체 ¹⁾	4.4	1.9	0.5	0.5	6.6	85.5	0.6	100.0 (2,663)
지역								
동부	5.2	2.1	0.9	0.7	8.2	82.4	0.5	100.0 (1,355)
읍·면부	3.5	1.6	0.1	0.4	4.9	88.7	0.8	100.0 (1,308)
성								
남자	3.1	2.7	0.4	0.7	5.3	86.3	1.5	100.0 (889)
여자	5.1	1.5	0.5	0.3	7.2	85.2	0.2	100.0 (1,774)
연령								
65~69세	5.2	6.7	1.7	0.5	2.9	81.8	1.2	100.0 (447)
70~74세	3.9	2.1	0.4	0.8	5.5	87.0	0.3	100.0 (686)
75~79세	4.2	0.4	0.1	0.4	6.6	87.6	0.7	100.0 (744)
80~84세	3.7	0.5	0.3	0.5	9.8	84.3	0.9	100.0 (496)
85세 이상	6.1	0.0	0.0	0.2	9.0	84.6	0.1	100.0 (2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	2.7	0.6	0.6	5.7	85.5	1.0	100.0 (1,428)
배우자 없음	5.0	1.0	0.4	0.3	7.6	85.5	0.2	100.0 (1,235)
가구형태								
노인독거	4.7	1.4	0.2	0.3	8.0	85.2	0.2	100.0 (803)
노인부부	4.4	2.8	0.5	0.7	6.1	84.3	1.2	100.0 (1,154)
자녀동거	3.9	0.9	0.8	0.2	5.8	88.1	0.3	100.0 (616)
기타	5.6	1.2	0.5	2.4	4.7	85.6	0.0	100.0 (9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7	0.0	0.1	0.4	10.5	86.3	0.0	100.0 (398)
무학(글자해독)	5.7	0.8	0.5	0.4	8.2	84.2	0.2	100.0 (818)
초등학교	4.7	1.0	0.6	0.6	4.8	87.9	0.4	100.0 (943)
중학교	3.6	6.2	1.1	0.3	5.1	80.9	2.8	100.0 (241)
고등학교	3.3	7.7	0.0	0.9	4.0	82.9	1.2	100.0 (201)
전문대학 이상	0.9	5.7	0.0	0.7	0.0	88.9	3.8	100.0 (62)
현취업상태								
취업중	4.0	1.8	1.3	0.6	5.9	85.5	0.9	100.0 (1,030)
미취업	4.7	1.9	0.0	0.4	7.0	85.5	0.5	100.0 (1,6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	0.7	0.2	0.6	10.2	83.0	0.3	100.0 (714)
제2오분위	4.0	1.9	0.6	0.7	5.6	86.5	0.7	100.0 (639)
제3오분위	4.3	1.4	0.2	0.6	6.1	86.1	1.3	100.0 (519)
제4오분위	4.6	3.4	0.8	0.3	3.4	87.2	0.3	100.0 (452)
제5오분위	4.0	3.3	0.8	0.2	5.4	85.7	0.6	100.0 (3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	2.4	0.6	0.5	6.1	85.1	0.7	100.0 (2,104)
제한 있음	3.8	0.0	0.1	0.3	8.4	87.2	0.2	100.0 (559)
2011년도	3.6	0.7	0.7	1.2	3.7	89.7	0.2	100.0 (3,60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3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기타	계 (명)
전체 ¹⁾	14.3	7.8	4.5	66.4	5.6	1.4	100.0 (85)
지역							
동부	20.0	1.6	0.0	69.8	8.6	0.0	100.0 (56)
읍면부	3.3	19.6	13.2	59.9	0.0	4.0	100.0 (29)
성							
남자	17.2	6.1	6.5	60.3	8.7	1.2	100.0 (32)
여자	12.6	8.8	3.3	70.1	3.8	1.4	100.0 (53)
연령							
65~69세	19.6	10.5	0.0	69.9	0.0	0.0	100.0 (11)
70~74세	9.5	13.6	6.4	69.1	0.0	1.4	100.0 (20)
75~79세	12.0	0.0	2.8	70.2	11.9	3.1	100.0 (29)
80~84세	15.9	10.2	2.9	63.6	7.4	0.0	100.0 (18)
85세 이상	24.8	12.0	16.6	46.6	0.0	0.0	100.0 (7)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2.4	12.8	5.9	67.8	0.0	1.1	100.0 (35)
배우자 없음	15.7	4.2	3.6	65.4	9.6	1.5	100.0 (50)
가구형태							
노인독거	11.1	3.1	6.1	62.1	16.6	1.0	100.0 (29)
노인부부	9.3	15.8	4.6	68.7	0.0	1.6	100.0 (24)
자녀동거	22.1	6.2	3.2	66.9	0.0	1.6	100.0 (30)
기타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2.6	0.0	0.0	87.4	0.0	0.0	100.0 (8) ²⁾
무학(글자해독)	1.9	11.2	6.1	62.5	16.6	1.7	100.0 (29)
초등학교	23.3	4.5	8.4	61.0	0.0	2.8	100.0 (24)
중학교	14.4	17.9	0.0	67.7	0.0	0.0	100.0 (13)
고등학교	30.8	0.0	0.0	69.2	0.0	0.0	100.0 (10)
전문대학 이상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현취업상태							
취업중	5.1	8.2	17.5	65.1	0.0	4.1	100.0 (19)
미취업	17.0	7.7	0.8	66.7	7.2	0.6	100.0 (6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	8.7	0.0	67.4	16.7	2.7	100.0 (29)
제2오분위	17.3	5.1	3.8	70.9	0.0	2.9	100.0 (14)
제3오분위	6.7	17.5	17.0	58.8	0.0	0.0	100.0 (12)
제4오분위	41.8	5.1	0.0	53.1	0.0	0.0	100.0 (11)
제5오분위	16.4	3.9	0.0	79.7	0.0	0.0	100.0 (1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9	8.8	5.8	66.0	3.7	1.8	100.0 (67)
제한 있음	15.8	3.8	0.0	67.7	12.7	0.0	100.0 (18)
2011년도	14.4	8.8	9.6	64.0	3.2 ³⁾		100.0 (12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85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11년 조사결과에서는 경제적 부담 및 기타를 합쳐서 보고하고 있음.

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2013년 기준 319개가 있어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9%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19.5%로 현재 미이용자 중 향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노인이 현재 이용자 규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6일이며 만족도는 84.4%로 매우 높다(〈표 11-20〉 참조). 또한 이용자의 이용이유를 살펴본 〈표 11-21〉에 의하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3.2%이며 다음이 식사서비스로 17.6%, 친목도모 14.9%, 일자리 사업 참여 4.8% 등이다. 경로당 이용 이유의 대부분이 친목도모인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

한편,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노인은 21명으로 아주 소수이며, 불만의 이유로 노인의 절반 정도(59.1%)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다(〈부표 I-11-3〉 참조). 그리고 시설 열악과 교통 불편이 각각 21.3%, 13.5%로 불만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 열악이 14.3%, 교통 불편이 4.5%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교통 불편이 제기되는 것은, 노인복지관의 수가 적어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 노인 제특성별 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분석대상의 수가 작아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보다 동부 노인에게서 이용률이 높지만, 이용자의 이용일수는 2.4일과 2.7일로 차이가 거의 없다. 현재 이용률과 동일하게 향후 이용희망률도 동부 노인이 21.7%로 읍·면부 노인의 12.3%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1-2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이용률 ¹⁾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1주간 평균 이용 일수 ³⁾	이용만족도 ³⁾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체	8.9	19.5	2.6	12.6	71.8	13.3	2.3	0.0	100.0 (916)
지역									
동부	9.3	21.7	2.7	11.7	70.9	14.8	2.6	0.0	100.0 (733)
읍면부	7.6	12.3	2.4	16.1	75.6	7.4	0.9	0.0	100.0 (183)
성									
남자	8.4	19.3	2.7	9.3	69.9	18.9	1.9	0.0	100.0 (361)
여자	9.3	19.6	2.6	14.7	73.1	9.7	2.5	0.0	100.0 (555)
연령									
65~69세	6.2	22.8	2.2	8.8	78.8	9.6	2.8	0.0	100.0 (203)
70~74세	10.3	21.9	2.5	14.4	72.2	12.0	1.4	0.0	100.0 (290)
75~79세	11.3	18.0	2.7	12.7	67.3	18.6	1.4	0.0	100.0 (239)
80~84세	10.6	13.9	2.8	12.5	69.1	13.4	5.0	0.0	100.0 (136)
85세 이상	6.3	9.7	4.1	17.7	69.7	10.7	1.9	0.0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3	19.9	2.5	11.7	72.4	14.6	1.3	0.0	100.0 (527)
배우자 없음	9.7	18.7	2.8	13.9	70.9	11.7	3.5	0.0	100.0 (389)
가구형태									
노인독거	11.6	20.4	3.0	14.8	70.4	10.8	4.0	0.0	100.0 (277)
노인부부	9.2	20.4	2.6	11.2	73.5	14.2	1.1	0.0	100.0 (422)
자녀동거	6.5	16.8	2.2	12.8	69.9	15.6	1.7	0.0	100.0 (187)
기타	7.4	21.8	1.9	10.1	72.2	11.2	6.5	0.0	100.0 (3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7.8	12.7	3.4	15.9	69.8	10.9	3.4	0.0	100.0 (76)
무학(글자해독)	7.8	16.3	2.7	13.2	70.6	11.8	4.4	0.0	100.0 (167)
초등학교	9.2	20.8	2.5	11.4	71.3	16.1	1.2	0.0	100.0 (303)
중학교	10.9	23.0	2.5	11.9	75.7	10.6	1.8	0.0	100.0 (147)
고등학교	9.5	23.3	2.6	13.7	68.7	14.9	2.7	0.0	100.0 (164)
전문대학 이상	7.3	16.5	2.3	11.8	79.2	9.0	0.0	0.0	100.0 (59)
현취업상태									
취업중	7.6	19.0	2.3	14.8	67.0	17.0	1.2	0.0	100.0 (225)
미취업	9.5	19.7	2.7	11.9	73.4	12.1	2.6	0.0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7	19.3	2.9	18.1	64.0	14.8	3.1	0.0	100.0 (242)
제2오분위	10.1	19.6	3.0	9.7	75.0	15.0	0.3	0.0	100.0 (208)
제3오분위	8.1	20.5	2.4	10.2	76.0	8.9	4.9	0.0	100.0 (166)
제4오분위	8.2	20.3	2.3	11.6	72.1	14.7	1.6	0.0	100.0 (167)
제5오분위	6.5	17.6	2.1	11.4	75.4	11.9	1.3	0.0	100.0 (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9.6	21.2	2.5	11.9	72.0	14.3	1.8	0.0	100.0 (817)
제한 있음	5.7	10.9	3.5	18.8	70.3	4.8	6.1	0.0	100.0 (99)
2011년도	8.8	24.4	2.5	18.9	63.9	14.4	2.3	0.5	100.0 (92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체 ¹⁾	53.2	3.9	4.8	3.8	17.6	14.9	1.8	100.0 (916)
지역								
동부	52.6	4.2	4.7	3.8	17.7	15.0	2.0	100.0 (733)
읍·면부	55.6	2.8	5.0	4.0	17.3	14.4	0.9	100.0 (183)
성								
남자	39.2	3.9	4.9	4.4	19.6	25.0	3.0	100.0 (361)
여자	62.2	3.9	4.7	3.5	16.3	8.4	1.0	100.0 (555)
연령								
65~69세	62.3	5.1	5.0	3.3	9.0	14.8	0.5	100.0 (203)
70~74세	56.2	6.9	4.1	2.7	11.4	15.2	3.5	100.0 (290)
75~79세	48.2	1.5	6.8	5.1	24.2	12.4	1.8	100.0 (239)
80~84세	45.6	1.5	4.0	5.0	24.4	19.1	0.4	100.0 (136)
85세 이상	42.7	0.0	0.0	3.8	39.1	13.7	0.7	100.0 (4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3.7	4.7	4.9	4.5	12.6	17.7	1.9	100.0 (527)
배우자 없음	52.4	3.0	4.6	3.0	24.3	11.0	1.7	100.0 (389)
가구형태								
노인독거	49.9	2.9	4.7	3.3	26.4	11.2	1.6	100.0 (277)
노인부부	54.4	4.5	5.7	4.9	13.4	16.2	0.9	100.0 (422)
자녀동거	55.8	4.0	3.6	2.1	14.1	17.8	2.6	100.0 (187)
기타	49.2	5.0	1.1	6.0	16.2	12.1	10.4	100.0 (3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9	0.0	3.5	7.9	47.7	3.1	1.9	100.0 (76)
무학(글자해독)	49.1	0.8	5.8	2.9	21.0	19.9	0.5	100.0 (167)
초등학교	51.0	4.5	5.6	4.7	17.9	14.3	2.0	100.0 (303)
중학교	55.9	4.4	6.6	1.7	11.3	17.0	3.1	100.0 (147)
고등학교	62.3	5.2	2.4	3.2	8.8	16.8	1.3	100.0 (164)
전문대학 이상	65.8	10.5	1.1	4.6	7.2	8.1	2.7	100.0 (59)
현취업상태								
취업중	41.7	5.6	17.0	2.9	16.0	13.7	3.1	100.0 (225)
미취업	56.9	3.4	0.8	4.2	18.1	15.3	1.3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8	3.0	3.3	4.3	30.1	10.0	1.5	100.0 (242)
제2오분위	40.9	4.3	11.2	5.0	19.4	18.2	1.0	100.0 (208)
제3오분위	57.0	1.9	3.4	2.6	15.0	18.2	1.9	100.0 (166)
제4오분위	62.8	4.5	3.0	4.0	8.6	14.9	2.2	100.0 (167)
제5오분위	64.8	7.0	1.5	2.8	6.4	14.6	2.9	100.0 (13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5.9	4.4	5.3	3.1	15.9	13.5	1.9	100.0 (817)
제한 있음	30.7	0.0	0.5	9.9	31.4	26.1	1.4	100.0 (99)
2011년도	57.9	2.7	1.8	5.4	12.8	16.9	2.5	100.0 (9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을 대상으로 함.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은 여자노인이 약간 높지만 이용자의 이용일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로는 75~79세 연령군이 가장 활발하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이용희망률은 65~69세 연령군에서 더 높다. 또한 이용일수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4.1일로 가장 높은 등 구체적인 이용행태에 있어서는 연령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률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지만, 향후 이용희망률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다소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이 더 높지만(노인독거 11.6%, 노인부부 9.2%), 향후 이용 희망률은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동일하다(20.4%).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이용률도 높고 향후 이용희망률도 높은 경향이 보인다. 따라서 비록 전문대학 이상에서 현재이용률이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가장 낮지만 향후 이용희망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교육수준과 노인복지관 이용은 정비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지만, 향후 이용희망률과 이용일수는 분명한 경향이 없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우 현재 이용률 및 향후 이용 희망률, 이용 시 이용일수 모두 취업노인보다 높다. 또한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이용률 및 향후 이용희망률이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이며 노인제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연령이 낮은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미취업 중인 노인,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식사서비스라는 응답은 남자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독거노인에게서 월등히 높다. 더불어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도 식사서비스 이용이라는 응답이 31.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에게 있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서비스가 매우 큰 유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과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도 식사서비스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다. 친목도모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남자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11-21〉 참조).

제4절 종교와 향후 노후생활

1. 종교

노인의 종교는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2>에 의하면 불교가 30.2%, 개신교(기독교)가 23.7%, 천주교가 10.5%, 유교 1.2%, 원불교 0.3%, 기타 1.0%의 순이다. 종교가 없다는 노인도 33.1%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읍·면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노인이 37.5%로 동부 노인의 31.8% 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에게서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 남자노인이 42.7%이며, 여자노인이 26.3%이다. 이는 노년기에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활발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유교를 제외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를 믿는다는 응답률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서 높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과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에는 정비례 관계가 발견된다. 글자를 모르는 무학의 노인에게서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42.4%이며, 그 다음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무학의 노인 34.7%, 초등학교 학력의 노인 33.8%, 중학교 학력의 노인 31.0%, 고등학교 학력의 노인 29.9%,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 25.4%이다. 교육수준과 종교의 종류와는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가구소득수준과 종교도 경향성이 나타난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낮아진다. 제1오분위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36.2%, 제2오분위 노인은 34.7%, 제3오분위 노인은 35.1%, 제4오분위 31.3%, 제5오분위 28.7%이다.

〈표 1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특성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없음	계 (명)
전체 ¹⁾	30.2	23.7	10.5	1.2	0.3	1.0	33.1	100.0 (10,278)
지역								
동부	30.3	24.2	11.3	0.9	0.3	1.2	31.8	100.0 (7,869)
읍면부	29.8	22.0	7.7	2.0	0.3	0.7	37.5	100.0 (2,409)
성								
남자	26.7	19.0	8.8	2.1	0.1	0.6	42.7	100.0 (4,290)
여자	32.7	27.0	11.7	0.5	0.4	1.4	26.3	100.0 (5,988)
연령								
65~69세	31.1	23.5	10.3	1.0	0.1	1.0	33.0	100.0 (3,302)
70~74세	32.4	22.8	9.3	1.6	0.4	0.9	32.6	100.0 (2,809)
75~79세	28.3	23.7	10.2	1.1	0.2	1.1	35.4	100.0 (2,119)
80~84세	30.1	25.6	11.8	1.0	0.7	1.2	29.6	100.0 (1,284)
85세 이상	23.7	23.9	13.9	1.5	0.2	1.4	35.4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5	21.8	9.4	1.6	0.2	0.9	35.6	100.0 (6,336)
배우자 없음	29.8	26.6	12.1	0.5	0.5	1.3	29.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9.2	25.0	12.0	0.5	0.4	1.4	31.5	100.0 (2,390)
노인부부	29.8	21.6	9.3	1.8	0.2	1.0	36.3	100.0 (4,593)
자녀동거	32.2	25.3	11.0	0.8	0.3	0.9	29.5	100.0 (2,881)
기타	26.7	28.0	10.2	1.3	0.2	0.9	32.7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7.9	21.9	5.6	0.2	0.4	1.6	42.4	100.0 (971)
무학(글자해독)	31.9	23.1	8.2	0.8	0.3	1.0	34.7	100.0 (2,136)
초등학교	33.7	20.8	9.4	1.0	0.2	1.1	33.8	100.0 (3,302)
중학교	31.0	24.0	10.0	2.2	0.3	1.5	31.0	100.0 (1,347)
고등학교	26.2	26.5	15.0	1.5	0.4	0.5	29.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1.7	32.5	17.8	1.6	0.1	0.9	25.4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32.7	20.7	7.4	1.5	0.2	0.6	36.9	100.0 (2,969)
미취업	29.2	24.9	11.7	1.1	0.3	1.2	31.6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3	24.6	10.9	0.9	0.2	1.9	36.2	100.0 (2,075)
제2오분위	32.1	22.3	8.0	1.2	0.4	1.3	34.7	100.0 (2,051)
제3오분위	31.2	21.9	9.5	1.6	0.4	0.3	35.1	100.0 (2,041)
제4오분위	32.6	23.7	9.6	1.6	0.2	1.0	31.3	100.0 (2,046)
제5오분위	29.6	25.9	14.4	0.6	0.2	0.6	28.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6	23.4	10.6	1.2	0.3	1.0	32.9	100.0 (8,543)
제한 있음	28.1	24.9	9.8	1.1	0.5	1.1	34.5	100.0 (1,735)
2011년도	31.3	21.8	9.7	1.8	0.2	0.6	34.7	100.0 (10,54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향후 노후생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본인의 노후에 어떤 활동을 희망하는지 활동별로 5지 선다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희망활동은 소득활동과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사회 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의 7가지이다.

먼저 <표 11-23>에서 향후 노후생활에서 소득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45.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19.3%, 전혀 할 생각이 없다 16.2%, 반드시 하고 싶다 9.8%,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9.0%이다. 노인 제특성별로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반드시 하고 싶다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⁹⁾)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36.7%)이 동부 노인(26.8%)에 비해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39.2%)이 여자노인(21.9%)에 비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활동 희망률이 높다.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은 41.8%이며, 70~74세 연령군 32.6%, 75~79세 연령군 23.0%, 80~84세 연령군 13.3%, 85세 이상 연령군 4.6%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33.0%)와 기타가구(34.6%)에서 소득활동 희망률이 높고, 노인독거가구(23.0%)에서 가장 낮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33.9%)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21.4%) 보다 높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노인(79.2%)이 미취업인 노인(8.7%)에 비해 소득활동 희망률이 높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32.8%)이 제한이 있는 노인(11.0%) 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은 소득활동 희망률과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표 11-24>에서 향후 노후생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전혀 할 생각이 없다 21.0%,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14.3%,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4.7%, 반드시 하고 싶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제특성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과 남자노인,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노인에게서 자원봉사활동 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수준 및 가구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중인 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희망률이 높다.

9) 이하 후술하는 노인 제특성별 노후 활동의 희망비율은 모두 '반드시 하고 싶다'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를 합산하여 제시함.

〈표 1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소득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9.8	19.3	9.0	45.7	16.2	100.0 (10,279)
지역						
동부	9.4	17.4	9.7	46.5	17.0	100.0 (7,870)
읍면부	11.0	25.7	6.8	43.0	13.5	100.0 (2,409)
성						
남자	14.3	24.9	10.6	38.6	11.6	100.0 (4,291)
여자	6.5	15.4	7.8	50.8	19.5	100.0 (5,989)
연령						
65~69세	16.1	25.7	11.0	39.9	7.3	100.0 (3,303)
70~74세	9.8	22.8	11.1	44.3	12.0	100.0 (2,809)
75~79세	6.6	16.4	8.1	50.8	18.1	100.0 (2,120)
80~84세	3.7	9.6	4.8	53.7	28.2	100.0 (1,284)
85세 이상	1.0	3.6	2.6	47.8	45.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4	22.5	9.9	43.7	12.5	100.0 (6,338)
배우자 없음	7.2	14.2	7.6	48.8	22.2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7.5	15.5	8.4	49.1	19.5	100.0 (2,390)
노인부부	10.7	22.3	9.7	43.8	13.5	100.0 (4,595)
자녀동거	9.8	17.3	8.7	45.6	18.6	100.0 (2,881)
기타	12.0	22.6	7.3	47.6	10.5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	13.3	6.6	50.2	25.2	100.0 (971)
무학(글자해독)	7.7	17.5	7.2	47.0	20.6	100.0 (2,136)
초등학교	9.7	21.6	9.1	44.9	14.7	100.0 (3,303)
중학교	11.4	24.1	9.4	43.2	11.9	100.0 (1,347)
고등학교	12.9	20.2	11.2	42.3	13.4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2.3	12.6	10.9	50.8	13.4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28.9	50.3	7.5	11.5	1.8	100.0 (2,970)
미취업	2.0	6.7	9.6	59.6	22.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	13.6	9.5	50.6	20.6	100.0 (2,075)
제2오분위	6.3	21.5	9.6	46.1	16.5	100.0 (2,051)
제3오분위	10.5	22.6	9.7	43.5	13.7	100.0 (2,041)
제4오분위	13.4	19.4	8.3	44.2	14.7	100.0 (2,047)
제5오분위	13.1	19.7	7.9	43.6	15.7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3	21.5	10.2	44.7	12.3	100.0 (8,544)
제한 있음	2.1	8.9	3.1	50.6	35.3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	4.7	14.3	58.3	21.0	100.0 (10,279)
지역						
동부	1.9	4.8	15.5	57.2	20.6	100.0 (7,870)
읍·면·부	0.9	4.5	10.1	62.1	22.4	100.0 (2,409)
성						
남자	2.2	5.2	16.4	58.0	18.2	100.0 (4,291)
여자	1.3	4.3	12.8	58.5	23.1	100.0 (5,989)
연령						
65~69세	2.6	7.2	21.5	55.8	12.9	100.0 (3,303)
70~74세	1.5	5.6	14.9	59.3	18.7	100.0 (2,809)
75~79세	1.2	2.5	10.6	61.3	24.4	100.0 (2,120)
80~84세	1.0	2.3	6.7	61.8	28.2	100.0 (1,284)
85세 이상	0.4	0.5	3.5	51.8	43.8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1	5.7	16.5	57.8	17.9	100.0 (6,338)
배우자 없음	0.9	3.1	10.7	59.2	26.1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3.1	11.3	60.4	24.4	100.0 (2,390)
노인부부	2.0	5.7	16.0	57.4	18.9	100.0 (4,595)
자녀동거	1.9	3.8	14.5	57.9	21.9	100.0 (2,881)
기타	1.2	8.8	10.7	60.1	19.2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9	4.7	58.9	35.5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5	2.2	9.1	60.5	27.7	100.0 (2,136)
초등학교	1.1	4.1	13.3	61.6	19.9	100.0 (3,303)
중학교	2.2	7.2	18.9	55.6	16.1	100.0 (1,347)
고등학교	3.5	6.9	21.5	53.1	15.0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4.0	9.5	20.4	54.4	11.7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2.5	5.7	16.5	59.4	15.9	100.0 (2,970)
미취업	1.3	4.3	13.4	57.9	23.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4	2.2	9.2	59.2	29.0	100.0 (2,075)
제2오분위	0.8	3.6	13.2	60.2	22.2	100.0 (2,051)
제3오분위	1.5	4.7	14.1	60.7	19.0	100.0 (2,041)
제4오분위	2.0	6.3	18.3	54.8	18.6	100.0 (2,047)
제5오분위	3.7	6.7	16.8	56.5	16.3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	5.4	16.0	58.8	17.9	100.0 (8,544)
제한 있음	0.2	1.2	6.1	56.1	36.4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25〉에서 향후 노후생활에서 학습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이 5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혀 할 생각이 없다 22.6%,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12.2%,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10.6%, 반드시 하고 싶다 2.4% 순이다. 노인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동부 노인과 여자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학습활동 희망률이 높다. 또한 교육수준 및 가구수준이 높을수록 희망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혼상태별 및 가구형태별, 취업상태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향후 노후생활에서 취미여가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5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20.2%, 별로 할 생각이 없다 14.9%, 반드시 하고 싶다 9.0%, 전혀 할 생각이 없다 3.3%로 나타났다. 노인 제특성별로 취미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62.3%)이 읍면부 노인(59.1%)에 비해 높다. 성별로는 남자노인(65.1%)이 여자노인(59.1%)에 비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이 높다.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은 69.8%이며, 70~74세 연령군 62.7%, 75~79세 연령군 57.8%, 80~84세 연령군 54.2%, 85세 이상 연령군 44.2%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64.0%)에서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이 높고, 자녀동거가구(58.8%)에서 가장 낮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64.0%)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57.5%) 보다 높고,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65.8%)이 미취업인 노인(59.8%)에 비해 높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64.0%)이 제한이 있는 노인(49.3%) 보다 높다(〈표 11-26〉 참조).

〈표 11-27〉에서 향후 노후생활에서 종교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이 29.0%로 가장 높고, 작은 차이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가 27.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하고 싶다가 17.9%, 전혀 할 생각이 없다 12.9%,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12.5% 순이다. 앞에서 살펴본 노후생활 희망률에 비해 종교활동 희망률은 노인 제특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자노인(52.3%)이 남자노인(36.4%)에 비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47.0%)이 제한이 있는 노인(39.0%)에 비해, 현재 미취업중인 노인(47.0%)이 취업중인 노인(42.5%)에 비해 향후 종교활동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다. 또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종교활동 희망률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

〈표 1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2.4	10.6	12.2	52.2	22.6	100.0 (10,279)
지역						
동부	2.7	11.0	13.1	50.7	22.5	100.0 (7,870)
읍면부	1.6	9.3	9.1	56.9	23.1	100.0 (2,409)
성						
남자	2.1	8.5	12.6	56.3	20.5	100.0 (4,291)
여자	2.7	12.1	11.9	49.2	24.1	100.0 (5,989)
연령						
65~69세	3.4	13.8	16.5	50.1	16.2	100.0 (3,303)
70~74세	2.5	10.4	12.9	55.0	19.2	100.0 (2,809)
75~79세	2.3	9.1	11.1	51.9	25.6	100.0 (2,120)
80~84세	1.2	8.8	6.4	54.8	28.8	100.0 (1,284)
85세 이상	0.6	4.7	3.8	46.7	44.2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	10.5	13.4	53.5	20.0	100.0 (6,338)
배우자 없음	2.2	10.9	10.2	49.9	26.8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11.5	10.8	50.6	25.0	100.0 (2,390)
노인부부	2.5	10.6	13.8	52.9	20.2	100.0 (4,595)
자녀동거	2.5	9.9	10.6	52.3	24.7	100.0 (2,881)
기타	3.1	10.9	13.5	50.8	21.7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6	4.2	4.2	54.1	36.9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2	9.3	8.4	52.9	28.2	100.0 (2,136)
초등학교	1.8	9.9	11.6	54.5	22.2	100.0 (3,303)
중학교	2.3	12.1	13.9	54.3	17.4	100.0 (1,347)
고등학교	4.3	14.1	17.7	46.7	17.2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6.6	15.2	19.5	46.1	12.6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2.3	10.7	12.6	55.8	18.6	100.0 (2,970)
미취업	2.5	10.6	12.0	50.7	24.2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8.5	8.6	52.4	29.5	100.0 (2,075)
제2오분위	1.4	8.4	13.5	53.2	23.5	100.0 (2,051)
제3오분위	2.5	10.6	11.5	54.1	21.3	100.0 (2,041)
제4오분위	3.0	12.2	12.4	51.1	21.3	100.0 (2,047)
제5오분위	4.3	13.4	15.1	49.8	17.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	11.6	13.5	52.5	19.6	100.0 (8,544)
제한 있음	0.7	5.7	5.6	50.6	37.4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2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9.0	52.6	20.2	14.9	3.3	100.0 (10,278)
지역						
동부	9.3	53.0	19.7	14.5	3.5	100.0 (7,870)
읍면부	8.1	51.0	22.0	16.1	2.8	100.0 (2,409)
성						
남자	10.4	54.7	19.6	13.2	2.1	100.0 (4,290)
여자	8.0	51.1	20.6	16.1	4.2	100.0 (5,988)
연령						
65~69세	10.7	59.1	19.0	9.9	1.3	100.0 (3,303)
70~74세	10.1	52.6	21.2	13.4	2.7	100.0 (2,809)
75~79세	8.2	49.6	21.7	16.1	4.4	100.0 (2,120)
80~84세	5.9	48.3	20.4	21.4	4.0	100.0 (1,284)
85세 이상	4.8	39.4	17.2	27.6	11.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5	54.5	20.7	12.9	2.4	100.0 (6,337)
배우자 없음	8.1	49.4	19.4	18.1	5.0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8.5	52.0	19.9	16.1	3.5	100.0 (2,390)
노인부부	9.5	54.5	20.7	13.2	2.1	100.0 (4,594)
자녀동거	8.6	50.2	19.9	16.4	4.9	100.0 (2,881)
기타	9.2	50.8	18.1	15.9	6.0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1	38.3	23.8	27.1	8.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7.4	51.8	20.5	16.8	3.5	100.0 (2,136)
초등학교	7.7	51.2	21.3	16.5	3.3	100.0 (3,303)
중학교	9.1	57.4	21.1	10.3	2.1	100.0 (1,347)
고등학교	13.1	57.0	18.6	9.5	1.8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8.2	59.8	12.5	7.7	1.8	100.0 (804)
현취업상태						
취업중	11.2	54.6	21.1	11.5	1.6	100.0 (2,969)
미취업	8.1	51.7	19.8	16.3	4.1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	45.3	22.1	21.1	5.4	100.0 (2,075)
제2오분위	6.1	53.2	22.4	15.0	3.3	100.0 (2,051)
제3오분위	9.3	54.9	19.3	13.4	3.1	100.0 (2,041)
제4오분위	9.0	56.4	20.5	11.6	2.5	100.0 (2,047)
제5오분위	14.6	53.4	16.4	13.2	2.4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6	54.4	20.8	13.1	2.1	100.0 (8,543)
제한 있음	5.9	43.4	17.5	23.5	9.7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11-2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9	27.7	12.5	29.0	12.9	100.0 (10,278)
지역						
동부	18.9	28.3	12.3	28.3	12.2	100.0 (7,870)
읍·면부	14.7	25.8	13.2	31.3	15.0	100.0 (2,409)
성						
남자	13.9	22.5	11.3	36.1	16.2	100.0 (4,290)
여자	20.8	31.5	13.3	23.9	10.5	100.0 (5,988)
연령						
65~69세	18.9	28.1	13.0	28.9	11.1	100.0 (3,303)
70~74세	17.9	28.6	12.5	29.6	11.4	100.0 (2,809)
75~79세	17.5	26.6	11.7	30.1	14.1	100.0 (2,120)
80~84세	17.2	29.8	12.8	26.5	13.7	100.0 (1,284)
85세 이상	16.5	22.6	11.6	27.7	21.6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1	26.5	12.3	31.1	13.0	100.0 (6,337)
배우자 없음	19.3	29.7	12.8	25.5	12.7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19.5	28.4	12.9	26.2	13.0	100.0 (2,390)
노인부부	16.8	26.6	12.1	31.2	13.3	100.0 (4,594)
자녀동거	17.9	29.0	13.2	28.1	11.8	100.0 (2,881)
기타	20.8	28.3	9.4	26.3	15.2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2.2	22.9	12.1	34.1	18.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3.6	28.3	13.6	31.3	13.2	100.0 (2,136)
초등학교	16.8	27.9	13.3	29.7	12.3	100.0 (3,303)
중학교	18.0	29.5	13.2	27.5	11.8	100.0 (1,347)
고등학교	23.8	27.7	11.0	25.9	11.6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8.4	28.4	8.5	22.8	11.9	100.0 (804)
현취업상태						
취업중	16.9	25.6	12.4	32.0	13.1	100.0 (2,969)
미취업	18.4	28.6	12.5	27.7	12.8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8	25.4	12.4	29.3	17.1	100.0 (2,075)
제2오분위	16.8	27.6	13.7	30.2	11.7	100.0 (2,051)
제3오분위	16.5	28.7	12.2	30.2	12.4	100.0 (2,041)
제4오분위	18.6	28.4	12.6	28.1	12.3	100.0 (2,047)
제5오분위	21.8	28.6	11.4	27.2	11.0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3	27.7	12.2	29.0	11.8	100.0 (8,543)
제한 있음	11.2	27.8	14.0	29.0	18.0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향후 노후생활에서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70.7%가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28.0%가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노인의 98.7%가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표 11-28〉 참조). 이러한 경향성은 노인의 제 특성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표 11-29〉에서 향후 노후생활에서 친목단체활동의 희망정도에 대해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노인의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33.2%,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 13.5%, 전혀 할 생각이 없다 10.0%, 반드시 하고 싶다 6.9% 순이다. 노인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동부 노인(42.3%)이 읍면부 노인(33.0%)에 비해, 남자노인(47.8%)가 여자노인(34.7%)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친목단체활동 희망률이 높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부부가구(46.0%)가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30.7%)가 가장 낮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47.3%)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28.6%)에 비해, 현재 취업중인 노인(47.7%)이 미취업중인 노인(37.1%)에 비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45.5%)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4.1%)에 비해 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목단체활동 희망률도 높다.

향후 노후생활에서 희망활동을 정리하면, 노인이 노후생활에서 희망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으로 전체 노인의 2/3인 61.6%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종교활동과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은 각각 45.6%와 40.1% 순이다. 노후생활에서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은 약 1/3 수준(29.1%)이며, 학습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은 13.0%에 지나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 및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하고 싶은 노인은 각각 전체 노인의 6.4%와 0.7%로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노인 제특성에서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향후 대체적으로 노후생활에서 희망하는 활동률과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었다.

〈표 11-2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0.1	0.6	0.6	28.0	70.7	100.0 (10,278)
지역						
동부	0.1	0.6	0.6	26.6	72.1	100.0 (7,869)
읍·면·부	0.1	0.4	0.5	32.9	66.1	100.0 (2,409)
성						
남자	0.2	0.8	0.9	30.7	67.4	100.0 (4,290)
여자	0.1	0.4	0.4	26.1	73.0	100.0 (5,988)
연령						
65~69세	0.3	0.8	0.8	29.9	68.2	100.0 (3,302)
70~74세	0.1	0.5	0.9	29.4	69.1	100.0 (2,809)
75~79세	0.1	0.3	0.3	27.2	72.1	100.0 (2,120)
80~84세	0.0	0.6	0.2	25.3	73.9	100.0 (1,284)
85세 이상	0.0	0.0	0.0	22.0	78.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2	0.6	0.8	29.7	68.7	100.0 (6,336)
배우자 없음	0.1	0.5	0.2	25.3	73.9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0.1	0.4	0.1	25.4	74.0	100.0 (2,390)
노인부부	0.2	0.6	0.9	29.3	69.0	100.0 (4,594)
자녀동거	0.1	0.5	0.4	28.3	70.7	100.0 (2,881)
기타	0.0	1.2	0.7	27.5	70.6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1	0.1	27.0	72.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0.0	0.3	0.2	25.5	74.0	100.0 (2,136)
초등학교	0.1	0.3	0.4	28.6	70.6	100.0 (3,302)
중학교	0.2	0.6	0.9	27.7	70.6	100.0 (1,347)
고등학교	0.0	1.2	1.1	27.8	69.9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1	1.3	1.4	34.5	61.7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0.2	0.8	0.7	32.9	65.4	100.0 (2,969)
미취업	0.1	0.4	0.5	26.1	72.9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0.2	0.2	25.7	73.9	100.0 (2,075)
제2오분위	0.0	0.4	0.7	27.9	71.0	100.0 (2,051)
제3오분위	0.2	0.3	0.7	28.7	70.1	100.0 (2,041)
제4오분위	0.1	0.9	0.7	26.9	71.4	100.0 (2,047)
제5오분위	0.4	1.0	0.6	31.0	67.0	100.0 (2,037)
기능상태						
제한 없음	0.2	0.6	0.7	29.0	69.5	100.0 (8,543)
제한 있음	0.0	0.1	0.1	23.3	76.5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1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6.9	33.2	13.5	36.4	10.0	100.0 (10,279)
지역						
동부	7.7	34.6	13.6	34.3	9.8	100.0 (7,870)
읍면부	4.3	28.7	13.1	43.0	10.9	100.0 (2,409)
성						
남자	9.3	38.5	13.7	30.9	7.6	100.0 (4,291)
여자	5.2	29.5	13.3	40.3	11.7	100.0 (5,989)
연령						
65~69세	10.2	46.1	13.6	25.6	4.5	100.0 (3,303)
70~74세	7.8	36.2	14.4	34.0	7.6	100.0 (2,809)
75~79세	5.1	25.2	14.6	43.0	12.1	100.0 (2,120)
80~84세	2.6	21.6	12.6	47.9	15.3	100.0 (1,284)
85세 이상	1.8	8.5	8.1	53.5	28.1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8.2	39.1	14.3	30.8	7.6	100.0 (6,338)
배우자 없음	4.8	23.8	12.2	45.2	14.0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4.9	25.8	12.9	44.2	12.2	100.0 (2,390)
노인부부	7.8	38.2	14.6	31.6	7.8	100.0 (4,595)
자녀동거	6.9	31.3	12.5	37.6	11.7	100.0 (2,881)
기타	9.3	35.0	10.7	34.8	10.2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	13.9	13.5	51.8	19.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2.5	22.0	12.3	48.5	14.7	100.0 (2,136)
초등학교	5.1	32.5	15.3	37.5	9.6	100.0 (3,303)
중학교	8.2	42.9	15.1	27.9	5.9	100.0 (1,347)
고등학교	13.0	45.3	12.2	24.3	5.2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7.8	47.5	9.5	20.5	4.7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8.8	38.9	15.0	31.1	6.2	100.0 (2,970)
미취업	6.2	30.9	12.9	38.4	11.6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19.4	14.2	48.6	15.3	100.0 (2,075)
제2오분위	4.3	28.7	14.5	41.6	10.9	100.0 (2,051)
제3오분위	5.8	36.4	13.7	35.2	8.9	100.0 (2,041)
제4오분위	8.0	40.7	14.0	29.3	8.0	100.0 (2,047)
제5오분위	14.1	41.2	10.9	26.8	7.0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0	37.5	14.3	32.6	7.6	100.0 (8,544)
제한 있음	1.6	12.5	9.4	54.6	21.9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제12장

노인의 생활 환경

제1절 주거 실태와 지역 환경

제2절 외출과 교통수단

제3절 안전 실태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은 지역사회거주(ageing in place)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장에서는 주거실태 및 지역 환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인의 이동성과 관련된 외출 및 교통수단, 일상생활 속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환경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주거 실태와 지역 환경

1. 거주 환경

응답자의 거주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의 51.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34.7%, 연립·다세대주택 11.8% 순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독주택 거주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2008년 60.5%, 2011년 55.7%), 단독주택은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2-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각각 44.2%와 40.3%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대등한 수준인 반면, 읍·면부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76.5%로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이 59.0%로 높고 아파트는 27.6%로 전체 34.7%보다도 낮지만,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43.3%로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낮은 경향(무학(글자모름) 69.1%, 전문대학 이상 26.2%)과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무학(글자모름) 17.4%, 전문대학 이상 63.3%).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중인 경우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은 반면(취업중 63.7%, 미취업 46.9%), 미취업인 경우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취업중 24.4%, 미취업 38.7%).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낮고(제1오분위 63.6%, 제5오분위 38.5%),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제1오분위 21.7%, 제

5오분위 49.6%). 이처럼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소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거위치를 살펴보면 전체의 96.8%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지하 2.5%, 지하 0.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위치에 있어 노인의 제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역, 가구형태, 가구소득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 지상이 95.9%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99.8%보다 낮고, 반지하는 3.2%로 읍·면부 노인의 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지상이라는 응답이 94.8%로 전체의 96.8%보다 낮고, 반지하가 4.2%로 전체의 2.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상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제1오분위 93.6%, 제5오분위 98.7%) (<표 12-2> 참조).

〈표 12-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전체 ¹⁾	51.7	34.7	11.8	1.9	100.0 (10,451)
지역					
동부	44.2	40.3	13.9	1.7	100.0 (8,008)
읍·면·부	76.5	16.3	4.8	2.5	100.0 (2,443)
성					
남자	50.7	35.6	11.6	2.1	100.0 (4,354)
여자	52.5	34.0	11.9	1.7	100.0 (6,097)
연령					
65~69세	46.5	39.2	12.0	2.2	100.0 (3,316)
70~74세	53.1	32.9	12.1	1.9	100.0 (2,830)
75~79세	54.8	30.9	12.6	1.6	100.0 (2,151)
80~84세	53.4	34.5	10.7	1.4	100.0 (1,319)
85세 이상	56.8	32.3	9.2	1.6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1.0	35.5	11.3	2.2	100.0 (6,418)
배우자 없음	52.8	33.3	12.5	1.3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59.0	27.6	12.1	1.3	100.0 (2,407)
노인부부	54.1	32.7	10.7	2.4	100.0 (4,655)
자녀동거	42.4	43.3	12.9	1.4	100.0 (2,973)
기타	49.6	35.5	13.4	1.6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9.1	17.4	12.6	0.9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61.7	24.6	12.5	1.2	100.0 (2,181)
초등학교	55.0	31.1	11.8	2.2	100.0 (3,345)
중학교	47.3	37.5	13.0	2.2	100.0 (1,376)
고등학교	38.2	48.6	11.3	1.8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26.2	63.3	7.7	2.8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63.7	24.4	9.1	2.7	100.0 (2,974)
미취업	46.9	38.7	12.8	1.5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6	21.7	13.9	0.8	100.0 (2,088)
제2오분위	57.6	28.0	13.4	1.1	100.0 (2,085)
제3오분위	53.0	34.1	10.8	2.1	100.0 (2,085)
제4오분위	46.0	39.7	12.1	2.2	100.0 (2,082)
제5오분위	38.5	49.6	8.8	3.2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4	35.9	11.7	2.0	100.0 (8,545)
제한 있음	57.6	28.9	12.0	1.4	100.0 (1,906)
2011년도	55.7	26.3	15.3	2.6	100.0 (10,67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표 12-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단위: %, 명)

특성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명)
전체 ¹⁾	0.6	2.5	96.8	0.0	100.0 (10,450)
지역					
동부	0.8	3.2	95.9	0.1	100.0 (8,007)
읍면부	0.1	0.1	99.8	0.0	100.0 (2,443)
성					
남자	0.7	2.4	96.8	0.0	100.0 (4,354)
여자	0.6	2.5	96.8	0.0	100.0 (6,096)
연령					
65~69세	0.7	2.4	96.8	0.0	100.0 (3,316)
70~74세	0.5	2.5	97.0	0.1	100.0 (2,829)
75~79세	0.6	2.3	97.0	0.0	100.0 (2,151)
80~84세	0.8	2.5	96.7	0.0	100.0 (1,319)
85세 이상	0.5	3.0	96.5	0.0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5	2.0	97.5	0.0	100.0 (6,418)
배우자 없음	0.9	3.3	95.7	0.1	100.0 (4,032)
가구형태					
노인독거	1.0	4.2	94.8	0.1	100.0 (2,407)
노인부부	0.5	2.0	97.5	0.0	100.0 (4,655)
자녀동거	0.6	1.9	97.4	0.0	100.0 (2,972)
기타	0.7	2.0	97.3	0.0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	2.8	96.2	0.0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0.9	3.1	96.0	0.1	100.0 (2,180)
초등학교	0.5	2.6	96.9	0.0	100.0 (3,345)
중학교	0.7	1.7	97.7	0.0	100.0 (1,376)
고등학교	0.4	2.8	96.7	0.1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0.8	0.9	98.3	0.0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0.5	2.2	97.3	0.0	100.0 (2,974)
미취업	0.7	2.6	96.7	0.1	100.0 (7,4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5.1	93.6	0.1	100.0 (2,088)
제2오분위	0.3	1.9	97.7	0.0	100.0 (2,085)
제3오분위	0.6	2.5	97.0	0.0	100.0 (2,085)
제4오분위	0.6	2.1	97.2	0.1	100.0 (2,082)
제5오분위	0.5	0.8	98.7	0.0	100.0 (2,0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0.6	2.5	96.9	0.0	100.0 (8,545)
제한 있음	1.0	2.5	96.5	0.0	100.0 (1,905)
2011년도	0.4	2.1	97.4	0.1	100.0 (10,67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응답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9.2%가 자가에 살고 있으며, 무상 11.0% 보증금 있는 월세 9.8%, 전세 8.4%, 보증금 없는 월세 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자가가 66.8%로 읍면부 노인의 77.0%보다 낮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12.3%로 읍면부 노인의 1.6%보다 훨씬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낮고(65~69세 74.0%, 85세 이상 56.7%), 무상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65~69세 6.0%, 85세 이상 23.9%).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가비율이 78.0%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55.2%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자가비율이 46.8%로 가장 낮은 반면, 무상비율은 23.6%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고(무학(글자모름) 55.9%, 전문대학 이상 77.4%, 고등학교 제외) 무상비율이 낮은 경향(무학(글자모름) 22.3%, 전문대학 이상 6.4%, 중학교 제외)이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중인 경우 자가비율이 75.0%로 미취업 66.8%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아지고(제1오분위 48.2%, 제5오분위 84.8%), 그 외 주거형태는 대체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표 12-3〉 참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령별 자가·무상 거주 비율 변화이다. 전·월세 유형은 연령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반해, 자가, 무상 비율은 연령별로 뚜렷하게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가, 무상을 합산한 비율은 연령군별 차이가 거의 없는데(80.0% 79.6%, 80.8%, 80.9%, 80.6%),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가 비율 감소분이 그대로 무상 비율 증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가비율이 낮아지고, 그 외 주거형태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감소하는 자가비율만큼 전세, 월세, 무상 등 다른 거주형태로 골고루 전환되어야 하지만, 무상비율만 증가하고 전·월세 비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만약 노후자금 부족 등 경제사정을 이유로 자가를 처분하는 경우라면,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자가에서 무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후 무상거주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2-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계 (명)
전체 ¹⁾	69.2	8.4	9.8	1.7	11.0	100.0 (10,451)
지역						
동부	66.8	9.8	12.3	1.7	9.4	100.0 (8,008)
읍면부	77.0	3.6	1.6	1.6	16.2	100.0 (2,443)
성						
남자	75.3	7.5	8.5	1.4	7.2	100.0 (4,354)
여자	64.7	9.0	10.7	1.8	13.7	100.0 (6,097)
연령						
65~69세	74.0	8.0	10.4	1.6	6.0	100.0 (3,316)
70~74세	71.1	8.4	10.4	1.6	8.5	100.0 (2,830)
75~79세	68.1	9.2	8.6	1.5	12.7	100.0 (2,151)
80~84세	62.7	9.3	8.0	1.9	18.2	100.0 (1,319)
85세 이상	56.7	6.4	11.1	2.0	23.9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8.0	6.9	7.0	0.8	7.3	100.0 (6,418)
배우자 없음	55.2	10.7	14.3	3.0	16.9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46.8	11.2	14.1	4.3	23.6	100.0 (2,407)
노인부부	77.6	6.5	6.5	0.9	8.5	100.0 (4,655)
자녀동거	75.0	9.0	10.5	0.8	4.7	100.0 (2,973)
기타	62.5	8.0	16.7	1.4	11.4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9	9.0	9.3	3.5	22.3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64.7	8.6	10.8	2.2	13.7	100.0 (2,181)
초등학교	70.5	7.9	9.2	1.6	10.8	100.0 (3,345)
중학교	75.6	9.5	8.4	1.1	5.4	100.0 (1,376)
고등학교	71.1	8.5	11.5	0.8	8.1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77.4	6.5	8.9	0.8	6.4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75.0	6.5	8.2	1.7	8.7	100.0 (2,974)
미취업	66.8	9.1	10.4	1.7	11.9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2	12.5	13.1	4.5	21.8	100.0 (2,088)
제2오분위	64.7	8.2	11.3	1.6	14.2	100.0 (2,085)
제3오분위	71.2	7.5	10.6	1.2	9.4	100.0 (2,085)
제4오분위	77.0	6.7	9.1	0.6	6.6	100.0 (2,082)
제5오분위	84.8	6.9	4.8	0.4	3.1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71.1	8.3	9.4	1.5	9.7	100.0 (8,545)
제한 있음	60.4	8.9	11.5	2.5	16.7	100.0 (1,90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주거 편리성

노인이 살고 있는 주거의 편리성을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의 제3자적 판단과 노인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조사원의 제3자적 판단을 개입시킨 이유는 노인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주거의 편리도가 객관적 편리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사원이 본 주거의 생활편리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며,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78.1%이고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17.3%로 나타났다.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5.4%로 현재 주거구조는 고령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12-4〉 참조).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 기능상태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동부 노인의 경우는 15.3%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24.1%로 전체의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65~69세 11.9%, 85세 이상 28.1%).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노인독거가구는 26.7%로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는 전체(17.3%)보다 낮은 비율(각각 15.2%, 13.1%)을 보여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한 비율이 낮으며(무학(글자모름) 34.6%, 전문대학 이상 3.6%),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무학(글자모름) 2.5%, 전문대학 이상 9.3%).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낮고(제1오분위 32.3%, 제5오분위 7.4%),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높다(제1오분위 2.9%, 제5오분위 7.6%). 기능상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15.8%인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24.1%로 나타났다.

〈표 12-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지도원 의견)

(단위: %, 명)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체 ¹⁾	17.3	78.1	4.6	100.0 (10,450)
지역				
동부	15.3	79.7	5.0	100.0 (8,007)
읍면부	24.1	72.7	3.2	100.0 (2,443)
성				
남자	15.2	80.0	4.7	100.0 (4,354)
여자	18.8	76.7	4.5	100.0 (6,095)
연령				
65~69세	11.9	82.8	5.3	100.0 (3,316)
70~74세	17.0	78.7	4.3	100.0 (2,829)
75~79세	18.6	77.0	4.5	100.0 (2,151)
80~84세	22.9	72.9	4.3	100.0 (1,319)
85세 이상	28.1	68.5	3.4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4	80.4	5.1	100.0 (6,418)
배우자 없음	21.9	74.3	3.7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26.7	70.5	2.8	100.0 (2,407)
노인부부	15.2	80.6	4.2	100.0 (4,655)
자녀동거	13.1	80.1	6.8	100.0 (2,972)
기타	16.3	79.6	4.1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6	62.9	2.5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23.6	73.9	2.5	100.0 (2,180)
초등학교	17.1	78.8	4.1	100.0 (3,345)
중학교	12.2	82.5	5.3	100.0 (1,376)
고등학교	10.4	83.1	6.5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3.6	87.1	9.3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18.7	78.1	3.3	100.0 (2,973)
미취업	16.8	78.1	5.1	100.0 (7,4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3	64.8	2.9	100.0 (2,088)
제2오분위	20.3	76.3	3.3	100.0 (2,085)
제3오분위	15.9	80.0	4.1	100.0 (2,085)
제4오분위	10.9	84.5	4.6	100.0 (2,082)
제5오분위	7.4	85.0	7.6	100.0 (2,08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8	79.6	4.6	100.0 (8,545)
제한 있음	24.1	71.4	4.5	100.0 (1,905)
2011년도	18.8	78.5	2.7	100.0 (10,54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한편, 노인 응답자에게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55.0%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15.3%), 화장실 및 욕실(12.5%), 문턱(9.1%) 등의 순으로 생활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형태별, 취업상태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외에는 노인의 특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남자 61.0%, 여자 50.7%), 남녀 모두 계단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지목하였다(남자 12.9%, 여자 17.0%).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는 계단(16.7%), 읍면부 노인의 경우 화장실 및 욕실(17.0%)이 가장 불편한 생활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으며(65~69세 62.1%, 85세 이상 39.6%),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실 및 욕실(65~69세 9.2%, 85세 이상 20.1%), 계단(65~69세 13.9%, 85세 이상 19.1%), 문턱(65~69세 6.2%, 85세 이상 15.0%)이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제1오분위 41.8%, 제5오분위 67.6%), 제1오분위는 가장 불편한 곳으로 화장실 및 욕실이 1순위로 뽑힌 반면(21.1%), 제2오분위부터는 화장실 및 욕실이라는 응답은 줄어들고 계단이 높아져, 모두 1순위로 뽑혔다(각각 15.7%, 15.2%, 15.2%, 14.2%).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58.5%인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37.4%로 나타났으며, 화장실·욕실(20.4%), 계단(19.1%)을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지목하고 있다(〈표 12-5〉 참조).

〈표 12-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특성	없음	현관 및 복도	계단	화장실 및 욕실	침실 및 거실	문턱	부엌 및 식당	기타	계 (명)
전체 ¹⁾	55.0	2.8	15.3	12.5	1.5	9.1	3.7	0.2	100.0 (10,278)
지역									
동부	56.2	2.8	16.7	11.1	1.5	8.1	3.5	0.2	100.0 (7,869)
읍면부	51.0	2.8	10.7	17.0	1.5	12.5	4.4	0.1	100.0 (2,409)
성									
남자	61.0	2.5	12.9	10.9	1.6	7.9	2.9	0.3	100.0 (4,291)
여자	50.7	3.0	17.0	13.7	1.5	10.0	4.2	0.1	100.0 (5,988)
연령									
65~69세	62.1	2.5	13.9	9.2	2.0	6.2	3.9	0.3	100.0 (3,303)
70~74세	55.7	3.1	15.1	12.2	1.6	8.5	3.7	0.1	100.0 (2,808)
75~79세	51.2	2.8	16.3	13.9	1.1	11.5	3.2	0.1	100.0 (2,120)
80~84세	50.5	2.7	15.3	14.9	1.3	10.5	4.6	0.3	100.0 (1,284)
85세 이상	39.6	3.0	19.1	20.1	0.7	15.0	2.6	0.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58.5	2.6	14.6	10.5	1.6	8.2	3.7	0.1	100.0 (6,338)
배우자 없음	49.2	3.0	16.3	15.6	1.5	10.6	3.6	0.2	100.0 (3,941)
가구형태									
노인독거	46.5	3.4	15.6	17.4	1.5	11.3	4.1	0.2	100.0 (2,390)
노인부부	56.7	2.9	15.1	11.4	1.2	8.9	3.6	0.1	100.0 (4,595)
자녀동거	58.7	1.8	15.5	10.0	2.2	8.0	3.5	0.3	100.0 (2,880)
기타	58.5	4.8	13.6	13.2	0.9	6.3	2.8	0.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7.1	2.9	17.6	19.9	0.8	17.1	4.4	0.2	100.0 (971)
무학(글자해독)	43.3	3.3	18.2	17.6	1.5	11.5	4.4	0.2	100.0 (2,135)
초등학교	53.1	3.2	15.4	12.8	1.6	9.6	4.2	0.0	100.0 (3,303)
중학교	60.6	2.2	15.9	9.8	1.0	7.5	2.7	0.2	100.0 (1,347)
고등학교	68.5	2.3	12.6	6.3	2.0	4.9	3.1	0.2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76.7	1.4	8.8	6.3	2.2	2.8	1.4	0.3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55.2	3.3	12.4	13.3	2.0	9.6	3.9	0.3	100.0 (2,970)
미취업	54.9	2.6	16.4	12.1	1.4	8.9	3.6	0.1	100.0 (7,3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8	3.3	16.1	21.1	1.5	11.9	4.1	0.1	100.0 (2,075)
제2오분위	49.0	3.0	15.7	14.7	1.0	11.7	4.9	0.1	100.0 (2,051)
제3오분위	55.1	3.4	15.2	12.1	1.7	8.6	3.7	0.2	100.0 (2,041)
제4오분위	61.1	2.4	15.2	9.1	1.1	7.6	3.4	0.0	100.0 (2,047)
제5오분위	67.6	1.8	14.2	5.3	2.5	5.8	2.3	0.4	100.0 (2,03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5	2.7	14.5	10.9	1.6	8.0	3.6	0.2	100.0 (8,544)
제한 있음	37.4	3.1	19.1	20.4	1.4	14.7	3.9	0.1	100.0 (1,734)
2011년도	56.7	1.3	15.2	13.0	1.6	4.6	3.3	4.3	100.0 (10,54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지역 환경

노인은 하루일과의 상당부분을 가정 밖에서 보내게 되며,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고령친화적인지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의 활력이 증진 또는 저하된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동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있어 주된 생활편의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는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5분 미만 30.0%, 걸어서 10분~30분 미만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걸어서 5분~10분 미만 28.8%, 걸어서 30분 이상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사무소는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걸어서 30분 이상 28.4%, 5분~10분 미만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은 걸어서 30분 이상이 6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걸어서 30분 이상이 7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지하철역은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 48.8%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걸어서 5분 미만 26.5%, 걸어서 10분~30분 미만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시설은 보편적으로 도보로 30분 이내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6〉 참조).

〈표 12-6〉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¹⁾	(명)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30.0	40.3	16.9	12.7	100.0	(10,451)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6.3	28.8	36.3	28.6	100.0	(10,451)
읍면동 사무소	6.9	23.2	41.6	28.4	100.0	(10,451)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2.1	7.8	25.0	65.1	100.0	(10,451)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1.8	5.8	22.0	70.4	100.0	(10,451)
버스타기지역	26.6	48.8	20.0	4.6	100.0	(10,45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도보 이동시간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의 경우 동부는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 45.6%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걸어서 30분 이상이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경우 동부는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39.6%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걸어서 30분 이상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면동 사무소는 지역과 무관하게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가장 높고(동부 41.6%, 읍·면부 47.2%),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모두 걸어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종합)복지관 등 동부 64.1%, 읍·면부 60.1%, (종합)사회복지관 등 동부 81.4%, 읍·면부 65.6%)(〈표 12-7〉 참조).

〈표 12-7〉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¹⁾ (명)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동부	34.6	45.6	16.1	3.7	100.0 (8,008)
	읍면부	15.2	23.1	19.6	42.1	100.0 (2,443)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동부	7.5	33.4	39.6	19.5	100.0 (8,008)
	읍면부	2.5	13.5	25.5	58.5	100.0 (2,443)
읍면동 사무소	동부	6.9	23.2	41.6	28.4	100.0 (8,008)
	읍면부	8.4	27.0	47.2	17.5	100.0 (2,443)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동부	1.9	10.8	23.2	64.1	100.0 (8,008)
	읍면부	1.9	8.7	29.2	60.1	100.0 (2,44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동부	2.6	4.6	11.4	81.4	100.0 (8,008)
	읍면부	2.0	6.8	25.6	65.6	100.0 (2,443)
버스타하철역	동부	0.9	2.6	10.2	86.3	100.0 (8,008)
	읍면부	27.4	51.2	18.4	3.0	100.0 (2,44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94.9%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5%, 일주일에 2~3회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98.5%로 가장 높았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93.4%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2~3회 2.8%, 일주일에 1회 1.6%,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4%순으로 나타났다.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95.5%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2~3회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는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98.6%로 가장 높다(〈표 12-8〉 참조).

〈표 12-8〉 노인(65세 이상)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빈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¹⁾ (명)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94.9	1.5	1.5	0.8	0.7	0.1	0.6	100.0 (10,451)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98.5	0.3	0.5	0.4	0.1	0.1	0.2	100.0 (10,451)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93.4	1.4	2.8	1.6	0.4	0.1	0.3	100.0 (10,451)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95.5	0.8	2.2	1.0	0.3	0.0	0.2	100.0 (10,451)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 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98.6	0.2	0.5	0.4	0.1	0.1	0.1	100.0 (10,45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살펴보면,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20.2%로 가장 높지만,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 17.5%,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7.4%,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6.5%,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5.4%,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 11.6% 등 대부분 항목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인 응답자의 79.8%가 거주지역 생활환경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항목이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 생활환경에 불편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2-9〉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22.0%로 읍면부 노인의 14.6% 보다 높다. 동부 노인에게서는 읍면부 노인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17.5%),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14.2%)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27.6%),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25.2%),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20.6%)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응답률(65~69세 13.3%, 85세 이상 23.1%)과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응답률(65~69세 15.8%, 85세 이상 20.1%)이 높고,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응답률(65~69세 17.2%, 85세 이상 12.3%)과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응답률(65~69세 12.8%, 85세 이상 8.3%)은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무학(글자모름) 15.3%, 전문대학 이상 29.6%). 불편한 점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이 높아지는 반면(무학(글자모름) 11.2%, 전문대학 이상 18.6%),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무학(글자모름) 25.5%, 전문대학 이상 10.6%)과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무학(글자모름) 22.1%, 전문대학 이상 12.9%)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제1오분위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오분위 15.5%, 제5오분위 26.0%).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과 대중교통 또는 이용불편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오분위 20.4%, 제5오분위 13.7%).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15.9%로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의 21.1%에 비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점과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16.3%)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27.2%),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20.3%)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특성	없음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사회복지 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기타	계 (명)
전체 ¹⁾	20.2	16.5	17.5	11.6	17.4	15.4	1.4	100.0 (10,274)
지역								
동부	22.0	15.3	14.4	14.2	15.0	17.5	1.7	100.0 (7,865)
읍면부	14.6	20.6	27.6	3.2	25.2	8.3	0.5	100.0 (2,409)
성								
남자	21.9	14.9	16.7	12.7	15.9	16.3	1.6	100.0 (4,291)
여자	19.0	17.7	18.0	10.8	18.5	14.7	1.2	100.0 (5,984)
연령								
65~69세	21.4	17.7	15.8	12.8	13.3	17.2	1.8	100.0 (3,302)
70~74세	21.5	16.0	16.8	12.0	16.3	15.8	1.5	100.0 (2,809)
75~79세	19.1	15.8	18.8	11.4	19.9	13.7	1.3	100.0 (2,119)
80~84세	16.8	16.1	19.5	9.9	22.8	14.2	0.8	100.0 (1,283)
85세 이상	19.4	16.2	20.1	8.3	23.1	12.3	0.6	100.0 (76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2	16.9	16.7	12.3	16.6	15.6	1.6	100.0 (6,338)
배우자 없음	20.3	15.9	18.7	10.4	18.6	15.0	1.0	100.0 (3,937)
가구형태								
노인독거	18.3	16.7	20.2	10.3	18.6	14.8	1.1	100.0 (2,390)
노인부부	19.0	17.4	17.3	12.5	16.8	15.5	1.5	100.0 (4,595)
자녀동거	23.4	15.2	15.7	11.3	17.4	15.7	1.4	100.0 (2,877)
기타	23.6	15.0	16.5	11.2	17.2	14.9	1.7	100.0 (41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5.3	18.0	22.1	6.9	25.5	11.2	1.0	100.0 (969)
무학(글자해독)	16.4	15.4	21.6	10.1	22.8	12.0	1.7	100.0 (2,134)
초등학교	18.7	18.3	17.3	11.2	16.9	16.6	1.0	100.0 (3,302)
중학교	22.2	15.9	15.3	14.1	14.5	16.7	1.4	100.0 (1,347)
고등학교	24.9	15.9	14.0	14.1	12.5	17.0	1.6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9.6	13.1	12.9	13.3	10.6	18.6	1.9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16.9	19.6	21.2	9.5	17.4	14.1	1.4	100.0 (2,970)
미취업	21.6	15.3	16.0	12.5	17.4	15.9	1.4	100.0 (7,3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5	15.8	21.2	9.5	20.4	13.3	1.5	100.0 (2,074)
제2오분위	15.5	18.3	19.4	11.5	19.1	15.3	0.8	100.0 (2,049)
제3오분위	19.6	16.6	17.6	12.7	17.2	15.1	1.2	100.0 (2,041)
제4오분위	21.4	16.6	16.1	11.8	16.8	15.1	2.2	100.0 (2,047)
제5오분위	26.0	15.4	12.8	12.6	13.7	18.3	1.3	100.0 (2,03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1	16.8	16.9	11.9	15.4	16.3	1.5	100.0 (8,544)
제한 있음	15.9	15.1	20.3	9.8	27.2	11.0	0.8	100.0 (1,73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2절 외출과 교통수단

1. 외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48.2%), 지하철(21.2%), 자가용(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버스(44.3%), 지하철(27.1%) 순이며, 읍면부는 버스(60.9%), 자가용(24.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표 12-10〉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버스라는 응답이 각각 39.4%, 54.5%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노인의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26.1%로서 여자노인 1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택시 응답률이 급격하게 높은(65~69세 2.2%, 85세 이상 19.4%)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운임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교통수단보다 택시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자가용이라는 응답이 10.6%인데 반해 노인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는 22%를 넘는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독거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가용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버스나 택시 응답률이 낮고(버스-무학(글자해독) 60.0%, 전문대학 이상 24.5%, 택시-무학(글자해독) 12.7%, 전문대학 이상 4.0%), 지하철이나 자가용이라는 응답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지하철-무학(글자해독) 7.8%, 전문대학 이상 32.0%, 자가용-무학(글자해독) 13.2%, 전문대학 이상 37.9%). 한편,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버스나 택시라는 응답률이 낮고(버스-제1오분위 60.8%, 제5오분위 34.9%, 택시-제1오분위 8.7%, 제5오분위 4.5%), 지하철이나 자가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지하철-제1오분위 18.2%, 제5오분위 24.3%, 자가용-제1오분위 8.0%, 제5오분위 33.7%).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고 동부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경향과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어 자가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택시, 자가용이 각각 3.3%, 18.1%인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택시 19.9%, 자가용 28.5%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2-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특성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체 ¹⁾	48.2	21.2	6.3	20.0	1.7	2.0	0.6	100.0 (10,451)
지역								
동부	44.3	27.1	6.6	18.6	1.9	0.8	0.6	100.0 (8,008)
읍면부	60.9	1.8	5.6	24.3	1.1	5.8	0.5	100.0 (2,443)
성								
남자	39.4	22.9	3.8	26.1	3.6	3.8	0.4	100.0 (4,354)
여자	54.5	20.0	8.2	15.6	0.4	0.7	0.7	100.0 (6,097)
연령								
65~69세	43.8	23.7	2.2	25.8	2.3	2.0	0.3	100.0 (3,316)
70~74세	49.9	25.1	3.9	16.5	2.0	2.1	0.4	100.0 (2,830)
75~79세	55.6	20.5	7.2	12.2	1.4	2.4	0.7	100.0 (2,151)
80~84세	50.6	15.7	12.5	18.0	1.0	1.6	0.6	100.0 (1,319)
85세 이상	36.9	8.0	19.4	32.0	0.5	1.2	1.9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4.5	22.8	4.4	22.9	2.2	2.8	0.4	100.0 (6,418)
배우자 없음	54.1	18.6	9.4	15.3	1.0	0.7	0.9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59.4	18.3	8.8	10.6	1.2	0.9	0.8	100.0 (2,407)
노인부부	45.7	20.9	4.8	22.6	2.2	3.3	0.5	100.0 (4,655)
자녀동거	42.5	23.9	6.9	23.8	1.5	0.8	0.6	100.0 (2,973)
기타	50.9	21.8	6.1	17.7	1.0	2.1	0.4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0.0	7.8	12.7	16.5	0.3	1.8	1.0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58.4	16.9	7.7	13.2	1.2	1.3	1.3	100.0 (2,181)
초등학교	51.6	20.5	6.2	16.4	2.0	2.9	0.4	100.0 (3,345)
중학교	43.5	25.0	4.8	20.5	3.3	2.8	0.2	100.0 (1,376)
고등학교	36.6	27.8	3.6	28.4	1.9	1.3	0.4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24.5	32.0	4.0	37.9	1.0	0.4	0.2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51.8	15.3	1.9	23.6	2.5	4.6	0.3	100.0 (2,974)
미취업	46.8	23.5	8.1	18.5	1.4	0.9	0.7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0.8	18.2	8.7	8.0	1.5	1.5	1.4	100.0 (2,088)
제2오분위	56.9	18.9	6.7	11.8	2.0	3.1	0.6	100.0 (2,085)
제3오분위	46.3	22.2	6.4	20.1	2.0	2.6	0.5	100.0 (2,085)
제4오분위	41.8	22.5	5.6	26.3	1.7	2.0	0.2	100.0 (2,082)
제5오분위	34.9	24.3	4.5	33.7	1.5	0.8	0.4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4	23.7	3.3	18.1	2.0	2.2	0.3	100.0 (8,545)
제한 있음	38.1	9.7	19.9	28.5	0.6	1.1	2.0	100.0 (1,906)
2011년도	48.9	19.3	6.7	18.4	2.0	3.1	1.7	100.0 (10,54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이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의 29.3%가 외출 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34.1%),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1%) 순으로 나타났다(〈표 12-1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가 37.6%인 반면 읍면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22.6%만 응답했으며, 21.4%가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동부의 4.8%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보행·교통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는 지하철, 건물 등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편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21.6%로 남자노인의 40.1%보다 훨씬 낮다. 즉, 남자노인의 59.9%만 이동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78.4%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 40.5%,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 16.7%를 응답해 남자의 25.1%, 5.8%와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버스이용률이 15.1%p 낮은 반면,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은 각각 10.5%p, 3.2%p, 3.1%p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12-10〉 참조).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률이 줄어들어(65~69세 41.5%, 85세 이상 20.8%), 고연령일수록 외출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65~69세 27.2%, 85세 이상 43.0%), 이 항목이 노인들의 외출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라 할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18.6%에 불과해, 타가구의 약 32% 수준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 독거노인들이 외출 시 불편함을 더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제1오분위 15.3%, 제5오분위 43.6%)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외출 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이 13.4%로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의 32.5%와 큰 차이를 보여, 기능제한을 갖고 있는 노인이 외출 시 불편함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43.0%), 버

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9.8%)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특성	없음	버스 (전철)타고 오르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 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 편의시설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계 (명)
전체 ¹⁾	29.3	12.1	34.1	8.7	4.4	5.5	5.8	0.0	100.0 (10,279)
지역									
동부	30.4	10.9	37.6	4.8	4.2	5.7	6.3	0.0	100.0 (7,870)
읍면부	25.9	16.0	22.6	21.4	5.0	5.0	4.1	0.0	100.0 (2,409)
성									
남자	40.1	5.8	25.1	8.8	5.7	6.3	8.1	0.1	100.0 (4,291)
여자	21.6	16.7	40.5	8.6	3.5	4.9	4.1	0.0	100.0 (5,989)
연령									
65~69세	41.5	6.8	27.2	7.8	4.3	5.7	6.7	0.0	100.0 (3,303)
70~74세	29.4	12.0	33.7	9.0	4.7	5.4	5.7	0.1	100.0 (2,809)
75~79세	20.9	15.5	38.3	9.8	4.3	5.6	5.6	0.0	100.0 (2,120)
80~84세	16.6	19.3	40.6	9.3	4.3	5.4	4.6	0.0	100.0 (1,284)
85세 이상	20.8	14.1	43.0	7.3	4.2	5.2	5.3	0.0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4.4	9.1	29.6	9.4	5.0	5.8	6.7	0.0	100.0 (6,338)
배우자 없음	21.1	17.1	41.3	7.6	3.5	5.0	4.4	0.0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18.6	18.4	40.6	9.1	3.7	4.8	4.8	0.0	100.0 (2,390)
노인부부	32.4	9.8	29.8	9.5	5.0	6.4	7.1	0.1	100.0 (4,595)
자녀동거	32.8	10.8	36.4	7.0	4.0	4.5	4.5	0.0	100.0 (2,881)
기타	32.9	11.2	28.9	8.8	5.6	6.3	6.2	0.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1	22.0	44.3	9.8	3.5	5.1	4.2	0.0	100.0 (971)
무학(글자해독)	17.8	18.6	39.3	10.7	4.4	5.2	4.1	0.0	100.0 (2,136)
초등학교	25.7	12.3	36.3	9.7	4.5	5.7	5.7	0.0	100.0 (3,303)
중학교	36.7	7.5	31.0	6.6	4.8	6.7	6.6	0.0	100.0 (1,347)
고등학교	44.7	6.2	25.5	6.1	4.2	5.4	7.7	0.1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51.4	2.8	22.5	7.0	4.9	4.2	7.1	0.1	100.0 (805)
현취업상태									
취업중	34.7	10.1	23.7	13.2	5.5	5.2	7.6	0.0	100.0 (2,970)
미취업	27.1	13.0	38.3	6.9	4.0	5.6	5.1	0.0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3	18.7	42.5	9.2	3.2	6.1	5.0	0.0	100.0 (2,075)
제2오분위	21.4	16.6	36.0	10.2	4.9	5.7	5.2	0.0	100.0 (2,051)
제3오분위	30.8	9.1	33.1	10.9	4.6	5.3	6.2	0.0	100.0 (2,041)
제4오분위	35.5	8.8	30.7	7.1	5.3	6.0	6.5	0.1	100.0 (2,047)
제5오분위	43.6	7.4	28.2	6.1	4.1	4.4	6.2	0.0	100.0 (2,038)
가능상태									
제한 없음	32.5	10.6	32.3	8.8	4.3	5.3	6.2	0.0	100.0 (8,544)
제한 있음	13.4	19.8	43.0	8.4	4.9	6.6	3.9	0.0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운전

노인의 운전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6.1%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9%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 75.0%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실태에는 특성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평생 한적 없다는 응답이 47.6%인 반면, 여자노인은 94.6%로 대부분이 운전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65~69세 59.8%, 85세 이상 96.3%), 이는 자동차 대중화 시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7%로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3.9%에 불과하고, 평생 한 적 없다는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평생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8.7%로 높다. 이에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2.4%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높지만 자녀 또는 기타 가족으로부터의 이동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어려운 가구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운전을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평생 한적 없다는 응답은 낮은(무학(글자모름) 98.4%, 전문대학 이상 31.2%)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생 운전을 해 본적 없다는 응답이 낮아, 교육수준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제1오분위 92.0%, 제5오분위 60.9%).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중인 노인의 경우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7.1%로 미취업노인의 1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전을 그만둔 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59.7세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60.5세, 여자노인이 55.5세로 남자가 더 늦게 운전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0.6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6.4세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늦은 나이에 운전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2> 참조).

<표 12-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만둔 나이(세) ²⁾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¹⁾	16.1	8.9	59.7	75.0	100.0 (10,451)
지역					
동부	16.7	10.2	59.6	73.1	100.0 (8,008)
읍면부	14.1	4.7	60.5	81.2	100.0 (2,443)
성					
남자	34.4	18.0	60.5	47.6	100.0 (4,354)
여자	3.0	2.5	55.5	94.6	100.0 (6,097)
연령					
65~69세	30.0	10.2	55.5	59.8	100.0 (3,316)
70~74세	17.1	9.8	61.0	73.1	100.0 (2,830)
75~79세	7.4	9.4	62.5	83.2	100.0 (2,151)
80~84세	2.8	6.9	62.2	90.3	100.0 (1,319)
85세 이상	0.4	3.3	69.1	96.3	100.0 (83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3.7	11.4	60.6	64.9	100.0 (6,418)
배우자 없음	3.9	5.0	56.4	91.1	100.0 (4,033)
가구형태					
노인독거	5.3	6.0	56.1	88.7	100.0 (2,407)
노인부부	22.4	11.4	61.2	66.2	100.0 (4,655)
자녀동거	14.2	7.9	59.1	77.9	100.0 (2,973)
기타	21.1	5.6	54.8	73.3	100.0 (41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5	1.1	50.9	98.4	100.0 (1,006)
무학(글자해독)	2.9	2.4	61.1	94.7	100.0 (2,181)
초등학교	9.9	6.1	57.9	84.1	100.0 (3,345)
중학교	22.7	11.7	58.5	65.7	100.0 (1,376)
고등학교	33.4	19.7	59.8	46.9	100.0 (1,732)
전문대학 이상	48.2	20.7	62.9	31.2	100.0 (811)
현취업상태					
취업중	27.1	7.5	58.0	65.4	100.0 (2,974)
미취업	11.7	9.5	60.2	78.8	100.0 (7,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5.0	56.8	92.0	100.0 (2,088)
제2오분위	8.2	8.4	60.9	83.4	100.0 (2,085)
제3오분위	17.4	10.2	60.9	72.3	100.0 (2,085)
제4오분위	22.7	10.9	58.3	66.3	100.0 (2,082)
제5오분위	29.1	10.0	60.6	60.9	100.0 (2,0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4	9.6	59.5	71.0	100.0 (8,545)
제한 있음	1.3	6.0	61.2	92.7	100.0 (1,906)
2011년도	12.2	8.4	57.7	79.4	100.0 (10,54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935명 중 무응답 1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 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12.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15.7%, 그렇지 않다 72.1%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제특성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11.9%(매우 그렇다 0.9%, 그런 편이다 11.0%)인 반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36.5%(매우 그렇다 4.9%, 그런 편이다 31.6%)를 차지하고 있다(〈표 12-13〉 참조).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영업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67.3%가 차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2.7%만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차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60.3%, 여자 72.3%). 연령이 높을수록 차가 없는 비율은 높았고(65세~69세 53.4%, 85세 이상 74.3%), 배우자가 없는 경우 차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배우자 있음 61.0%, 배우자 없음 77.2%).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차가 없다는 응답이 95.2%로 비소유율이 매우 높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43.1%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차 소유율이 높다(제1오분위 4.4%, 제5오분위 71.9%). 또한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차 소유율이 낮다(제한 없음 34.8%, 제한 있음 23.5%).

차를 소유한 경우 차를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평균 755.7만원으로 나왔으며, 동부 노인의 경우 763.2만원, 읍면부 노인의 경우 729.6만원으로 약 3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80~84세 연령군과 자녀동거가구, 전문대학 이상, 가구소득 제5오분위에서 특히 판매가가 높게 나타났다(〈표 12-14〉 참조).

〈표 12-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9	11.3	15.7	30.2	41.9	100.0 (1,672)
지역						
동부	1.2	11.8	15.1	31.2	40.7	100.0 (1,328)
읍면부	0.0	9.3	18.1	26.3	46.3	100.0 (344)
성						
남자	0.4	11.6	15.6	30.3	42.0	100.0 (1,491)
여자	5.1	8.4	16.7	29.5	40.4	100.0 (181)
연령						
65~69세	1.0	9.6	14.1	28.7	46.5	100.0 (991)
70~74세	0.8	11.6	17.0	33.5	37.2	100.0 (480)
75~79세	0.5	15.0	21.9	30.5	32.1	100.0 (160)
80~84세	0.0	35.8	14.2	26.0	24.0	100.0 (37)
85세 이상	24.3	11.7	33.2	30.7	0.0	100.0 (4)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0.9	10.8	15.8	30.6	41.8	100.0 (1,512)
배우자 없음	1.1	15.6	15.2	25.9	42.2	100.0 (159)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13.1	16.4	22.2	46.8	100.0 (127)
노인부부	1.0	11.8	16.9	30.3	39.9	100.0 (1,037)
자녀동거	0.3	9.9	14.1	30.2	45.4	100.0 (420)
기타	2.3	8.7	8.1	40.3	40.5	100.0 (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79.6	20.4	100.0 (5) ²⁾
무학(글자해독)	4.0	15.8	10.9	38.6	30.7	100.0 (62)
초등학교	2.6	11.8	15.4	33.0	37.2	100.0 (330)
중학교	0.0	10.8	21.4	28.3	39.5	100.0 (310)
고등학교	0.3	11.7	14.8	31.4	41.7	100.0 (574)
전문대학 이상	0.6	10.1	13.9	25.5	49.9	100.0 (391)
현취업상태						
취업중	0.2	10.5	15.2	31.2	42.8	100.0 (803)
미취업	1.6	12.0	16.2	29.3	41.0	100.0 (869)
연가소득						
제1오분위	1.7	10.8	15.6	23.4	48.5	100.0 (63)
제2오분위	0.0	12.9	16.7	31.7	38.7	100.0 (171)
제3오분위	2.6	14.9	19.7	28.9	33.9	100.0 (357)
제4오분위	0.3	10.8	16.5	31.3	41.1	100.0 (473)
제5오분위	0.6	9.2	12.6	30.5	47.2	100.0 (605)
기능상태						
제한 없음	0.9	11.0	15.6	30.3	42.2	100.0 (1,646)
제한 있음	4.9	31.6	21.6	20.9	21.0	100.0 (25)
2011년도	0.8	20.5	12.7	36.3	29.6	100.0 (1,28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679명 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2-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 여부

(단위: %, 명, 만원)

특성	소유	비소유	계 (명)	예상하는 차 판매가 ²⁾
전체 ¹⁾	32.7	67.3	100.0 (10,451)	755.7
지역				
동부	33.1	66.9	100.0 (8,008)	763.2
읍·면부	31.4	68.6	100.0 (2,443)	729.6
성				
남자	39.7	60.3	100.0 (4,354)	746.7
여자	27.7	72.3	100.0 (6,097)	764.9
연령				
65~69세	46.6	53.4	100.0 (3,316)	770.7
70~74세	32.2	67.8	100.0 (2,830)	717.6
75~79세	22.3	77.7	100.0 (2,151)	728.7
80~84세	20.1	79.9	100.0 (1,319)	882.4
85세 이상	25.7	74.3	100.0 (835)	711.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9.0	61.0	100.0 (6,418)	734.7
배우자 없음	22.8	77.2	100.0 (4,033)	813.5
가구형태				
노인독거	4.8	95.2	100.0 (2,407)	610.6
노인부부	31.8	68.2	100.0 (4,655)	673.8
자녀동거	56.9	43.1	100.0 (2,973)	857.6
기타	32.3	67.7	100.0 (416)	508.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7	82.3	100.0 (1,006)	682.1
무학(글자해독)	19.6	80.4	100.0 (2,181)	647.3
초등학교	28.1	71.9	100.0 (3,345)	734.7
중학교	41.0	59.0	100.0 (1,376)	642.7
고등학교	47.6	52.4	100.0 (1,732)	778.0
전문대학 이상	59.7	40.3	100.0 (811)	1010.7
현취업상태				
취업중	36.5	63.5	100.0 (2,974)	798.9
미취업	31.2	68.8	100.0 (7,477)	73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95.6	100.0 (2,088)	420.4
제2오분위	13.3	86.7	100.0 (2,085)	410.8
제3오분위	27.9	72.1	100.0 (2,085)	519.3
제4오분위	45.5	54.5	100.0 (2,082)	628.9
제5오분위	71.9	28.1	100.0 (2,083)	1014.1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8	65.2	100.0 (8,545)	770.5
제한 있음	23.5	76.5	100.0 (1,906)	656.5
2011년도	30.6	69.4	100.0 (10,544)	753.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418명 중 무응답 1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3절 안전 실태

1.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노인의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3.0%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사고 경험률에 있어 제특성별 큰 차이는 없으나, 성별, 결혼상태별, 기능상태별, 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2.2%)보다는 여자노인(3.6%)에게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2.5%)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3.9%)에게서, 기능제한 없는 노인(2.7%)보다 기능제한 있는 노인(4.4%)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기타가구의 안전사고 경험률이 4.5%로 노인부부가구 2.2%, 자녀동거가구 2.9%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은 높게 나타났다(무학(글자모름) 4.2%, 전문대학 이상 1.9%).

다음으로 지난 1년간 범죄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0.6%, 사기성 물건구매 0.3%, 보이스포싱 0.2%, 폭력 및 강력범죄 0.1%의 순으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참조).

〈표 12-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특성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¹⁾	범죄피해 ²⁾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전체	3.0	0.6	0.1	0.3	0.2
지역					
동부	3.1	0.7	0.1	0.3	0.2
읍면부	2.8	0.4	0.0	0.3	0.1
성					
남자	2.2	0.6	0.1	0.2	0.3
여자	3.6	0.6	0.1	0.4	0.1
연령					
65~69세	2.6	0.6	0.0	0.3	0.3
70~74세	3.6	0.6	0.1	0.2	0.2
75~79세	2.8	0.6	0.0	0.3	0.1
80~84세	3.4	0.6	0.2	0.4	0.1
85세 이상	2.8	0.5	0.0	0.4	0.2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5	0.5	0.1	0.3	0.2
배우자 없음	3.9	0.7	0.1	0.4	0.1
가구형태					
노인독거	4.5	0.9	0.1	0.4	0.0
노인부부	2.2	0.5	0.0	0.2	0.3
자녀동거	2.9	0.5	0.1	0.4	0.2
기타	4.5	0.4	0.0	0.2	0.1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2	0.5	0.0	0.5	0.0
무학(글자해독)	3.6	0.5	0.2	0.2	0.0
초등학교	3.1	0.7	0.0	0.2	0.1
중학교	2.7	0.7	0.1	0.5	0.1
고등학교	2.1	0.7	0.0	0.5	0.1
전문대학 이상	1.9	0.2	0.0	0.4	1.4
현취업상태					
취업중	2.8	1.0	0.1	0.4	0.0
미취업	3.1	0.5	0.0	0.3	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	1.0	0.1	0.3	0.0
제2오분위	2.9	0.3	0.0	0.2	0.0
제3오분위	3.3	0.6	0.0	0.3	0.2
제4오분위	2.0	0.8	0.2	0.4	0.1
제5오분위	2.2	0.4	0.0	0.4	0.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7	0.6	0.1	0.3	0.2
제한 있음	4.4	0.5	0.0	0.5	0.1
2011년도	4.9	1.2	0.1	1.2	0.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낙상

낙상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다. 낙상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로 나타났다(〈표 12-16〉 참조).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낙상률이 30.5%로 남자노인의 17.5%보다 높고, 병원이용률도 65.3%로 남자노인의 5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65~69세 19.6%, 85세 이상 35.1%), 병원이용률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 없는 노인의 낙상률이 32.3%로 배우자 있는 노인의 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낙상률이 31.2%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무학(글자모름) 35.8%, 전문대학 이상 15.0%), 병원이용률은 전문대학 이상이 67.9%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낙상률이 27.2%로 취업중인 노인의 19.8%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낙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제1오분위 31.7%, 제5오분위 21.4%).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낙상률이 40.0%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21.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1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단위: %, 명)

특성	낙상률 ¹⁾	낙상횟수 및 치료	
		1년간 낙상횟수 ²⁾	병원이용률 ³⁾
전체	25.1	2.3	63.4
지역			
동부	24.8	2.3	62.9
읍면부	26.2	2.4	65.1
성			
남자	17.5	2.2	58.8
여자	30.5	2.4	65.3
연령			
65~69세	19.6	2.3	61.1
70~74세	24.5	2.1	66.8
75~79세	28.0	2.2	65.2
80~84세	29.0	2.5	61.3
85세 이상	35.1	3.1	59.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0.6	2.2	62.4
배우자 없음	32.3	2.4	64.5
가구형태			
노인독거	31.2	2.3	61.5
노인부부	20.9	2.2	63.5
자녀동거	27.4	2.5	64.6
기타	20.0	2.5	69.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8	2.7	63.0
무학(글자해독)	31.3	2.3	63.1
초등학교	25.7	2.3	64.1
중학교	19.3	2.0	63.6
고등학교	19.1	2.2	61.3
전문대학 이상	15.0	1.9	67.9
현취업상태			
취업중	19.8	1.9	61.8
미취업	27.2	2.4	63.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7	2.5	60.1
제2오분위	26.5	2.1	62.8
제3오분위	24.0	2.4	59.9
제4오분위	21.7	2.1	68.5
제5오분위	21.4	2.4	68.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8	2.1	63.7
제한 있음	40.0	2.8	62.8
2011년도	21.0	-	72.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을 대상으로 함.

낙상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가 29.5%로 가장 높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서) 13.8%,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17〉 참조).

〈표 12-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¹⁾	(명)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703)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5.8	(151)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서	8.8	(231)
경사가 급해서	1.6	(41)
조명이 어두워서	0.4	(11)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서)	13.8	(363)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320)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	29.5	(773)
기타	1.1	(28)
계	100.0	(2,621)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78.8%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6%나 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90.2%로 남자노인의 62.7%보다 훨씬 높고, 많이 두려워한다는 응답도 53.3%나 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65~69세 65.5%, 85세 이상 94.3%). 85세 이상 연령군의 대다수가 낙상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73.9%나 되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없는 노인이 배우자 있는 노인에 비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없음 89.7%, 배우자 있음 72.0%).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90.1%), 노인독거가구의 55.1%는 낙상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무학(글자모름) 96.4%, 전문대학 이상 52.4%),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69.9%가 낙상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이 취업중인 노인에 비해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취업중 70.1%, 미취업 82.3%),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이 낮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제1오분위 91.2%, 제5오분위 65.2%).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95.9%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75.3%보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74.5%나 되었다(〈표 12-18〉 참조).

〈표 12-1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단위: %, 명)

특성	많이 두려워함	약간 두려워함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40.6	38.2	21.2	100.0 (10,271)
지역				
동부	39.4	38.3	22.3	100.0 (7,864)
읍면부	44.6	37.8	17.6	100.0 (2,407)
성				
남자	22.8	39.9	37.2	100.0 (4,289)
여자	53.3	36.9	9.7	100.0 (5,983)
연령				
65~69세	23.7	41.8	34.4	100.0 (3,298)
70~74세	37.0	40.8	22.1	100.0 (2,808)
75~79세	48.6	38.5	12.8	100.0 (2,120)
80~84세	58.6	33.0	8.4	100.0 (1,282)
85세 이상	73.9	20.4	5.7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2	40.8	28.0	100.0 (6,331)
배우자 없음	55.6	34.1	10.3	100.0 (3,940)
가구형태				
노인독거	55.1	35.0	9.9	100.0 (2,388)
노인부부	32.5	41.6	25.9	100.0 (4,590)
자녀동거	42.9	35.7	21.4	100.0 (2,880)
기타	30.0	36.0	34.0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9.9	26.5	3.7	100.0 (971)
무학(글자해독)	55.2	35.7	9.1	100.0 (2,136)
초등학교	42.2	40.3	17.5	100.0 (3,300)
중학교	27.4	44.9	27.7	100.0 (1,345)
고등학교	23.4	40.6	36.0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18.5	33.9	47.6	100.0 (803)
현취업상태				
취업중	28.6	41.5	30.0	100.0 (2,968)
미취업	45.5	36.8	17.7	100.0 (7,303)
연가소득				
제1오분위	58.3	32.9	8.8	100.0 (2,073)
제2오분위	44.5	41.4	14.1	100.0 (2,050)
제3오분위	38.3	40.9	20.9	100.0 (2,039)
제4오분위	31.2	40.9	27.9	100.0 (2,047)
제5오분위	30.1	35.1	34.8	100.0 (2,0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7	41.6	24.7	100.0 (8,536)
제한 있음	74.5	21.4	4.1	100.0 (1,735)
2011년도	32.4	43.3	24.3	100.0 (10,52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13장

요약과 시사점

제1절 조사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가 1994년 처음으로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20년 후의 노인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지난 20년 간 노인의 특성변화를 정리한 후, 영역별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노인의 일반특성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특성변화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 내부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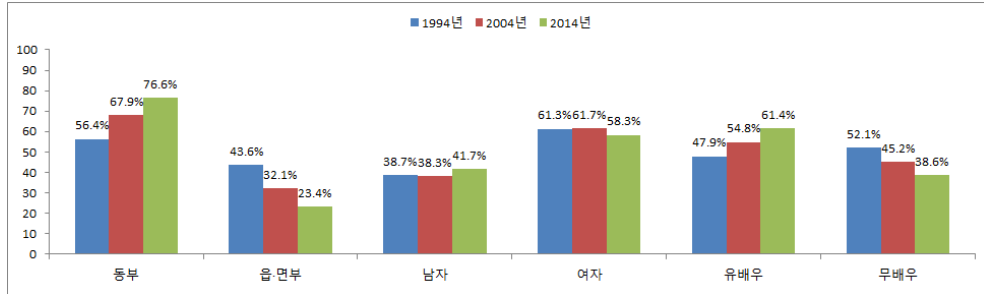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노인의 특성 변화

65세 이상 노인의 제특성을 비교해보면 지난 20년간 노인의 특성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노인 중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76.6%인데 이는 1994년의 56.4%, 2004년의 67.9%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거주지역 구성의 변화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의 기회나 거주형태의 변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성별 구성은 남자노인의 비중이 약간 증대하여 2014년 현재 남자노인이 41.7%이다([그림 13-1] 참조).

한편, 노인복지정책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노인의 연령구성의 변화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80세 이상의 비중이다. 2014년 현재 노인 중 20.6%가 80세 이상인데 이는 20년 전에 비하여 8.2%p, 10년 전에 비하여 4.4%p 증가한 것으로 후기노인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표 13-1〉 참조). 또한 80세 이상의 비중이 읍면부에서 월등히 높아 25.5%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 변화(199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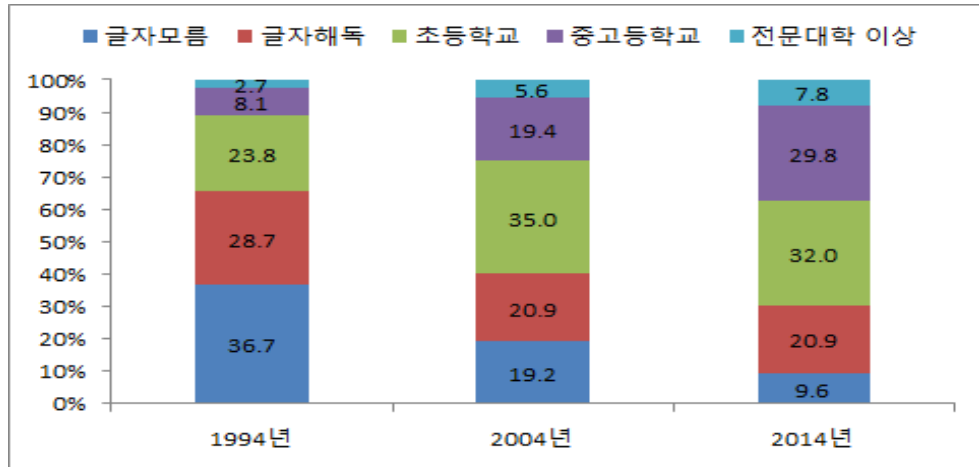
<표 13-1>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구성 및 평균 자녀수의 변화(1994~2014)

(단위: %, 명)

구분	1994년	2004년	2014년
연령			
65~69세	41.5	37.8	31.7
70~74세	29.7	28.5	27.1
75~79세	16.5	17.5	20.6
80세 이상	12.4	16.2	20.6
평균자녀수	4.7	4.2	3.4
전체	100.0 (1,371)	100.0 (3,278)	100.0 (10,451)

노인의 교육수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문맹노인의 비중이 9.6%인데 이는 20년 전의 36.7%에 비하여 급감한 것이며, 10년 전에 비해서도 약 10%p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중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인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욕구변화와 기대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그림 13-2] 참조).

[그림 13-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의 변화(1994~2014)



한편,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율이 61.4%인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균수명의 증대가 한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평균자녀수도 1994년의 4.7명에서 2004년 4.2명으로 감소한 추세가 이어져 2014년 현재 3.4명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해온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영역별 주요 결과

가. 노인의 거주 현황

가구형태의 경우 2014년 현재 노인독거의 비중이 23.0%인데 이는 20년 전의 13.6%, 10년 전의 20.6%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노인부부의 비중 또한 증대하여 2014년 현재 44.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동거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1994년의 54.7%, 2004년의 38.6%에서 2014년 28.4%로 급감하였다([그림 13-3] 참조). 즉 더 이상 자녀동거가 노년기의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아닌 것이다.

노년기의 가구형태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형태 구성 이유 또한 다양하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독거+부부가구) 약 1/3인 32.7%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20.6%는 자녀의 타 지역 거주로, 15.5%는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11.1%는 기존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이다.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으로는 경제

적 불안감(25.8%)과 아플 때 간호문제(25.6%)가 가장 높고 다음이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적 능력부족(24.4%)과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21.8%),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16.0%),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15.6%), 노인의 수발을 위해(15.4%)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보다는 노인이 의존적인 존재로 기혼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 등 실용적 이유로 인한 동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 시의 경제생활 분담방식을 살펴보면, 64.6%가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25.4%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상생활 분담 방식의 경우에는 45.6%가 공동으로, 자녀가 전적으로 31.1%, 부모가 전적으로 20.7%, 각자 따로 2.6%이다. 즉, 일상생활 분담의 경우 경제생활에 비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율과 부모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13-3]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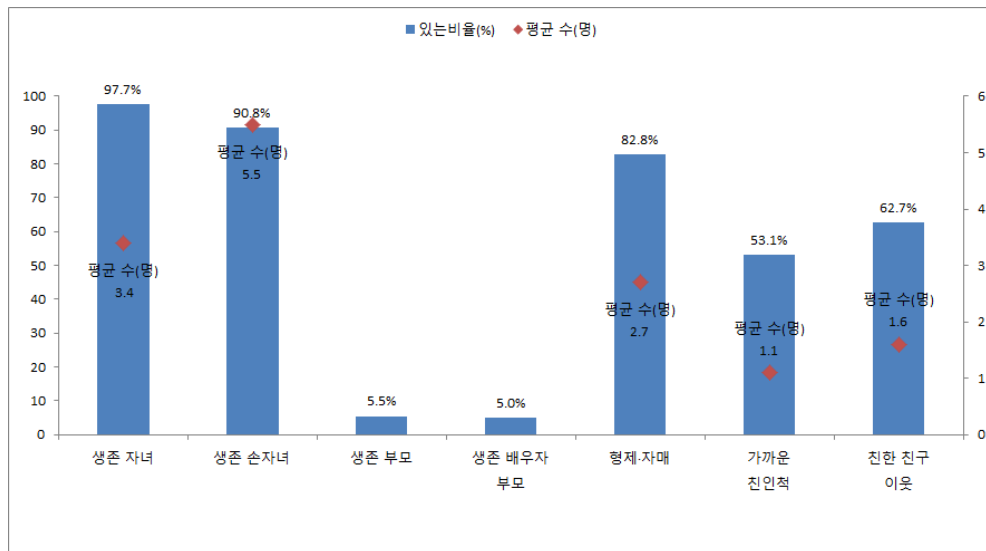


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부양의 교환

노인의 대부분인 97.7%가 자녀가 있고 평균 자녀수는 3.4명이고, 90.8%가 손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균 손자녀는 5.5명이다. 이에 비하여 부모 세대가 생존해있는 가능

성은 낮다. 노인의 5.5%가 본인의 부모 중 한명이 생존해 있고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5.0%이다. 또한 82.8%는 형제자매가 있으며, 평균 형제·자매수는 2.7명이다. 한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약 절반(53.1%)에 불과하며 평균 1.1명이다. 한편, 친한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노인은 친인척에 비하여 많아 62.7%이며 평균 1.6명이다([그림 13-4] 참조).

[그림 13-4]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친구·이웃 규모



이러한 가족의 작동 실태를 주요 관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94.3%에 달하고 있으며, 46.5%가 월 1회 이상의 동반 외출을, 73.0%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 한편, 유배우 노인의 43.8%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16.8%가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배우자와는 활발히 정서적 도움(수혜율 75.0% 제공률 76.6%)과 도구적 도움(수혜율 76.7% 제공률 73.5%), 수발 도움(수혜율 64.6% 제공률 66.0%)을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지표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환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도출되었다.

한편, 60.8%의 노인들이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55.9%는 정서적 지원을 동거자녀들에게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준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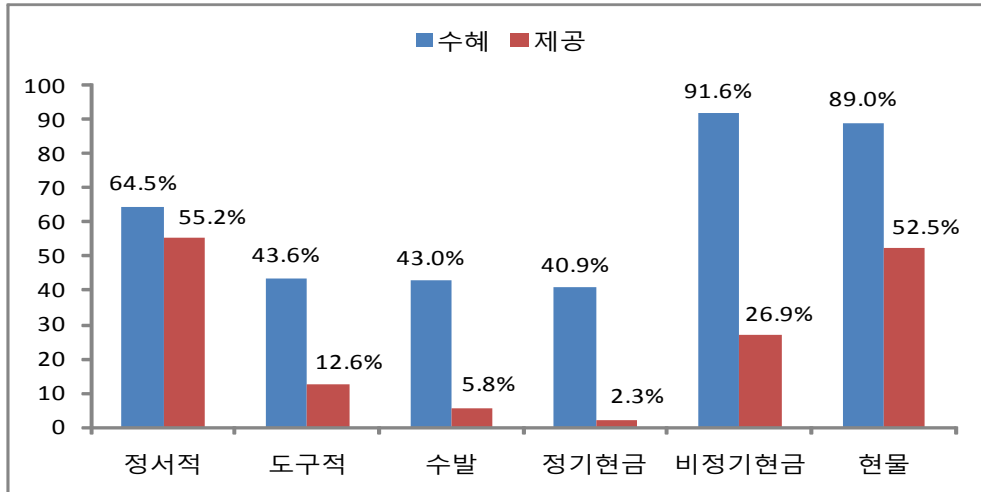
응답에 비해 5%p 가량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노인들의 50~60%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수혜율은 63.6%, 제공률은 68.2%이며, 수발의 경우 수혜율은 59.4%, 제공률은 22.7%로 수혜율이 월등히 높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45.1%, 제공률이 9.0%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73.3%, 제공률이 32.9%, 현물지원은 수혜율이 80.3%, 제공률이 52.7% 인 등 수혜의 비율이 제공의 비율보다는 높으며, 현물 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주고받고 있다.

자녀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다. 노인의 약 1/3인 37.7%는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72.9%로 일반적인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은 일주일의 1회 정도의 연락과 월 1회 정도의 왕래로 보여진다. 이러한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85세 이상에서 빈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이 64.5%, 제공률이 55.2%이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의 경우, 수혜율 43.6%, 제공률 12.6%로 정서적 지원과는 달리 제공률보다는 수혜율이 더 높다. 수발의 경우는 수혜율이 43.0%, 제공률이 5.8%이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40.9%, 주는 편이라는 응답은 2.3%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의 경우는 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91.6%,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26.9%, 현물지원은 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89.0%,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52.5%이다. 즉 경제적 도움의 경우 수혜의 비율이 제공의 비율보다 높으며, 비정기적 현금지원-현물지원-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받고 있고, 현물지원-비정기적 현금지원-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5] 참조).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갈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3%로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자녀와의 갈등의 주 이유로는 자녀의 장래문제가 가장 높아 29.4%이며, 다음이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로 20.9%, 노인의 생활비 보조 20.6%,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11.9%이다.

[그림 13-5] 노인(65세 이상)의 노인의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부양의 종류별 교환 실태



한편, 손자녀와의 접촉 및 왕래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16.6%로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으며,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도 18.3%에 불과하다. 노인의 6.4%가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손자녀 돌봄을 한 경험이 있다. 또한 노인의 22.2%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전혀 왕래가 없고, 약 절반인 45.2%는 연 1,2회의 왕래만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의 방문을 하는 노인은 15.4%에 불과하다. 연락의 경우에는 43.4%가 한 달에 1회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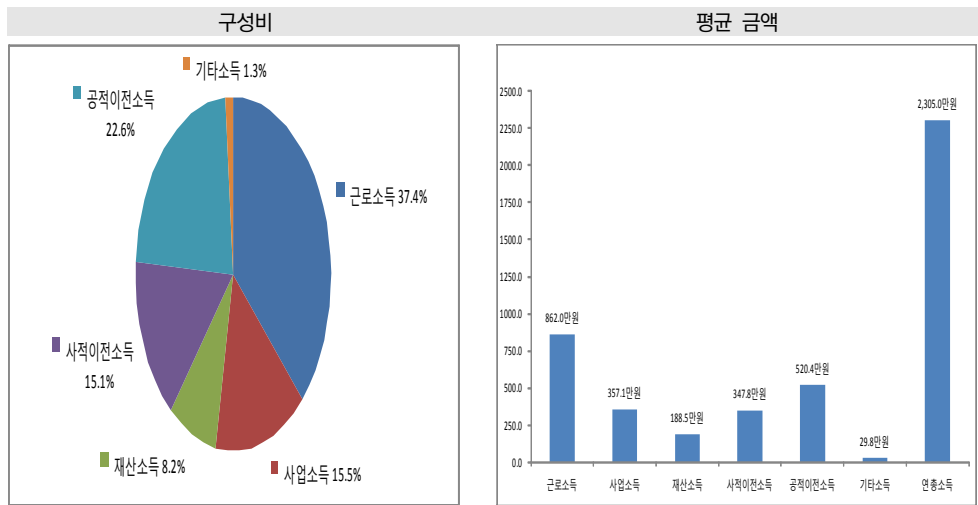
가족 이외에도 친구·이웃·지인은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노인의 79.1%가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6.3%가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빈도의 경우는 노인의 60.2%가 주 1회 이상의 연락을 하고 있고 15.6%가 전혀 연락이 없다. 왕래보다는 연락의 빈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가족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다.

다. 경제 상태

노인의 경제상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축적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생애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비를 충족하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노후의 핵심지표로 본 장에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를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가구의 총소득(2013년 기준)은 2,305.0만원으로 월 192.1만원이었으며,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862.0만원(37.4%)으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520.4만원(22.6%), 사업소득 357.1만원(15.5%), 사적이전소득 347.8만원(15.1%)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3-6] 참조).

[그림 13-6] 노인(65세 이상)의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노인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노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92.9%이며, 다음이 기초노령연금 66.4%, 공적연금이 31.9%이다. 이 외에도 기타공적급여가 14.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5.4% 등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2011년의 25.3%에서 31.9%로 약 6.6%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표 13-2> 참조).

한편, 노인 개인의 연간 총소득은 959.3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35.5만원(35.0%)으로 가장 많으며, 사적이전소득 228.7만원(23.8%), 사업소득 145.0만원(15.1%), 근로소득 122.3만원(12.7%), 재산소득 110.6만원(11.5%) 순이고, 기타소득은 12.9만원(1.3%),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은 4.3만원(0.4%)으로 가장 낮았다. 노인의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6.0%이다.

〈표 13-2〉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원별 소지 비율의 변화(개인소득)

(단위: %)

구분	1994년	2004년	2014년
근로소득		14.1	14.3
사업소득	31.9	14.4	13.8
자산소득	10.5	12.5	27.6
사적이전소득	74.4	76.9	92.9
공적연금소득	2.9	14.1	31.9

조사대상 응답노인의 89.1%가 가구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노인의 59.1%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약 12,072.0만원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구단위로는 85.2%, 노인 개인 소유 기준으로는 74.8%가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개인의 금융자산의 평균 규모는 1,667.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의 경우 가구단위의 보유율이 47.5%, 노인 개인의 보유율은 26.7%로 평균 규모는 224.4만원이다. 부채와 관련하여 가구부채가 있는 비율이 33.5%이며, 노인 개인의 부채율은 19.9%이고, 평균 규모는 1,415.6만원이다.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2013년 기준)은 143.9만원으로, 노인가구의 35.4%가 주거 관련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월세 5.1%를 더하면 40.5%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인독거가구에서 강하다. 주택관리비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23.1%, 식비 16.2%, 경조사비 15.2%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본인을 위한 지출항목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비율이 93.6%, 63.8%, 60.5%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개인 지출의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은 5.6%이며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는 1.6%이며 그 외는 92.8%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3.2%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9.7%는 낮은 편, 47.2%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제5분위의 노인도 높다는 응답이 9.3%에 불과하여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하여 하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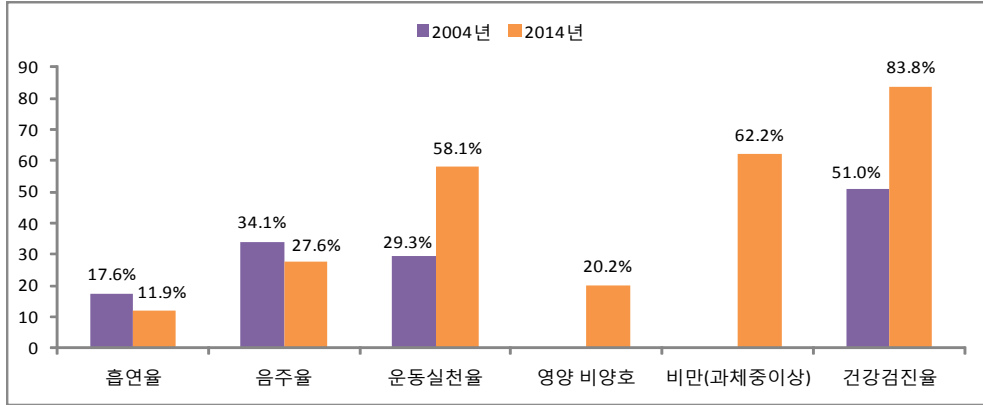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32.4%이고, 부정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노인이 43.7%이다. 또한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유병률 90.4%이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2.2%이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비율은 각각 89.2%와 69.7%이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여자노인에게서 만성질환유병률이 높고 복합이환율도 높다. 의사진단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이 5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33.4%), 당뇨병(22.6%), 요통 및 좌골신경통(21.1%), 고지혈증(19.6%), 골다공증(14.0%) 등의 순이다. 한편, 전체노인의 33.1%는 우울증상(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 기반)을 갖고 있다.

의사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노인의 82.0%이며,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노인의 78.2%이고, 평균 방문횟수는 2.4회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8.4%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 11.9%, 음주율 27.6%, 운동실천율 58.1%이며, 이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43.9%이다. 운동실천율은 동부, 전기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으며, 주로 하는 운동 종류는 걷기가 68.2%, 체조(맨손체조 및 생활체조) 7.2%, 등산 6.3%, (실내)자전거 5.6%, 보디빌딩(헬스) 3.7% 등이다.

노인의 영양관리상태를 살펴보면 51.0%는 양호한 수준이고, 28.8%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며,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비율은 여자노인에게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3.8%이다([그림 13-7] 참조). 비만지수(BMI)에 기초할 때 노인의 4.7%는 저체중이며, 33.1%는 정상, 27.3%는 과체중, 31.1%가 경도비만, 3.8%가 중증도 비만이다. 한편, 노인의 의료미충족과 관련해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 미치료율은 8.8%, 지난 1년간 치과 미치료율은 18.0%이다.

[그림 13-7]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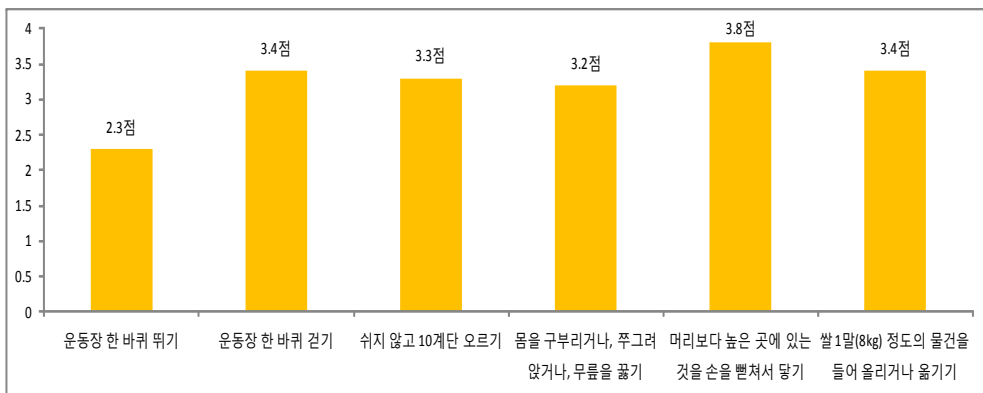


마. 기능 상태와 수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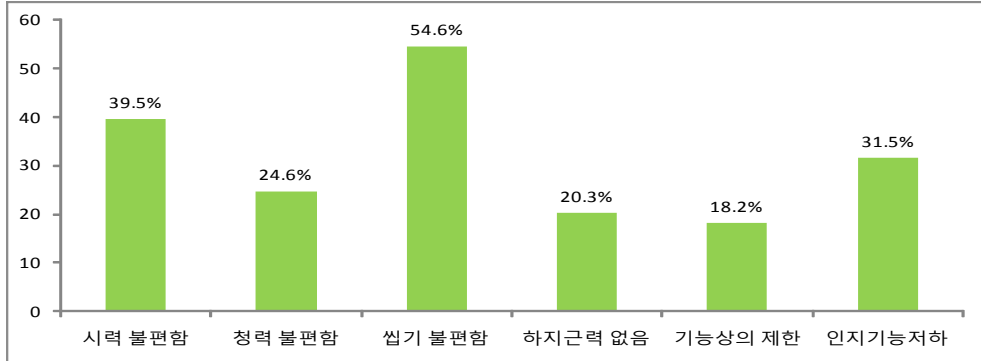
노인의 61.2%가 시력 보조기를, 4.0%가 청력 보조기를, 51.2%가 씹기 보조기(의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39.5%가 시력에 불편함을, 24.6%가 청력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씹기 기능의 경우 54.6%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 근력상태를 보면 79.7%가 수행이 가능했고, 각 신체 근력상태를 비교해보면(1~4점, 점수가 낮을수록 수행이 어려움), 운동장 한 바퀴 뛰기가 가장 점수가 낮아 2.3점이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기가 3.8점으로 6개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다([그림 13-8] 참조).

[그림 13-8] 노인(65세 이상)의 신체적 수행 능력



[그림 13-9] 노인(65세 이상)의 기능 및 신체상태



한편, 7개의 ADL 항목과 10개의 IADL에 기초하여 파악한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81.8%가 기능제한이 전혀 없지만, 11.3%는 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6.9%는 ADL의 제한까지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율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ADL도 제한이 있는 비율이 25.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30점 만점에 23.7점이며 성 및 연령, 교육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고려해볼 때 31.5%가 인지저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동 비율이 52.5%에 달하고 있다([그림 13-9] 참조).

이러한 신체적 기능상태와 인지기능상태를 비교해본 <표 13-3>에 의하면 ADL까지의 제한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은 3.1%이다.

<표 13-3> 노인(65세 이상)의 신체적 기능 제한과 인지기능 저하 상태

(단위: %, 명)

인지	신체	신체적 기능 제한과 인지기능 저하 상태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저하 없음		60.0	6.0	2.5
저하 있음		23.2	5.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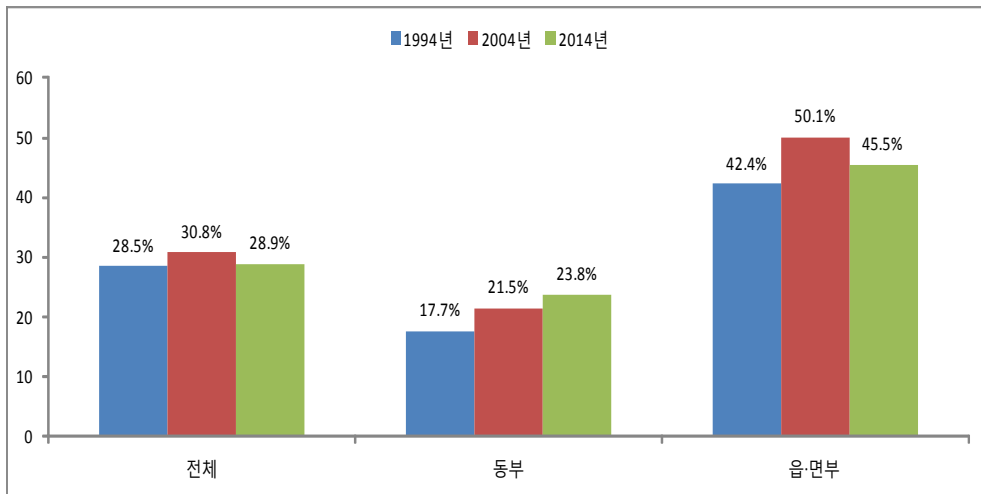
주: 신체기능(IADL 10개, ADL 7개 항목, MMSE-DS가 모두 조사된 10,248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시설입소 노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과임.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81.7%가 수발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가 91.9%이며 이 중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는 15.4%로 나타났다.

바. 경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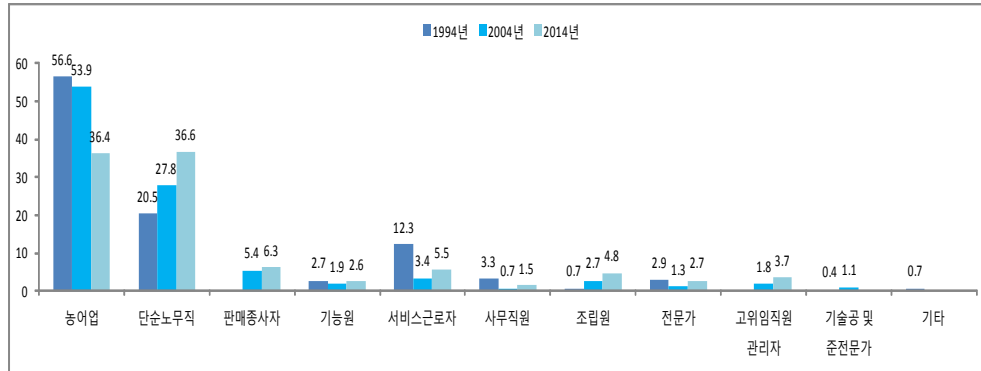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8.9%로 지난 20년간 30% 내외의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그림 13-10] 참조).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1년 34.0%에 비해 조금 낮아진 것인데, 이는 주로 농어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것(2011년: 55.5% → 2014년: 45.5%)에 기인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참여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저하되어 농림어업(36.4%)과 단순노무직의 비중(36.6%)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3-11] 참조). 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은 종사 직종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비·수위·청소, 운송·건설 관련, 가사·조리·음식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0]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1994~2014)



[그림 13-11] 노인(65세 이상)의 근로직종 변화(1994~2014)

(단위: %)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38.7%)와 임시근로자(26.2%) 비율이 높으며, 현재 정부지원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3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당 근무일수는 5일 이상이 67.3%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인 비율도 40%에 근접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의 종사기간은 30년 이상인 노인이 41.4%인 반면 5년 미만인 노인은 28.6%로 양분화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노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79.3%가 생활비 마련이 가장 강력한 근로동기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약 60%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생애에서 노인들이 가장 오래 근무했던 최장기 종사 직종은 농림어업숙련 종사가 27.7%, 단순노무종사자 19.2% 등으로 높았으며,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30.1%, 상용근로자 28.1%, 무급가족종사자 19.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장기 직종 종사기간은 40년 이상이 26.5%에 이르며,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는 건강(36.0%)이나 정리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24.1%)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후 다시 재취업하여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24.1%로 노인의 4명당 1명은 가교일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은퇴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의사가 있는 노인은 약 35%이며, 이를 현재의 취업상태별로 비교해보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9.7%로 경제활동관련 미충족 욕구를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노인도 5.1%에 달하고 있다(〈표 13-4〉 참조).

〈표 13-4〉 노인(65세 이상)의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희망 실태

특성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전체	65.3	23.7	1.3	9.7
취업중	3.8	23.7	1.3	0.0
미취업	61.5	0.0	0.0	9.7

주: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현재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은 노인의 65.5%는 취업을 희망하였으며, 사회기여형 일자리와 여가형 일자리도 각각 15% 안팎을 차지하였다. 희망근로시간은 20~30시간(27.3%)과 40시간 이상(27.1%)이 높았으며,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구직활동 내용은 주로 취업지원센터 의뢰나 개인적 인맥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4.3%이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 참여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8.2%로 실제 참여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향은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다.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의 4.3%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며, 4.3%는 과거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4.6%는 신청했지만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노인의 13.2%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참여한 일자리는 공익형이 가장 많아 71.9%이며, 다음이 복지형으로 15.1%, 교육형 5.8%, 인력파견형, 4.0%, 시장형 3.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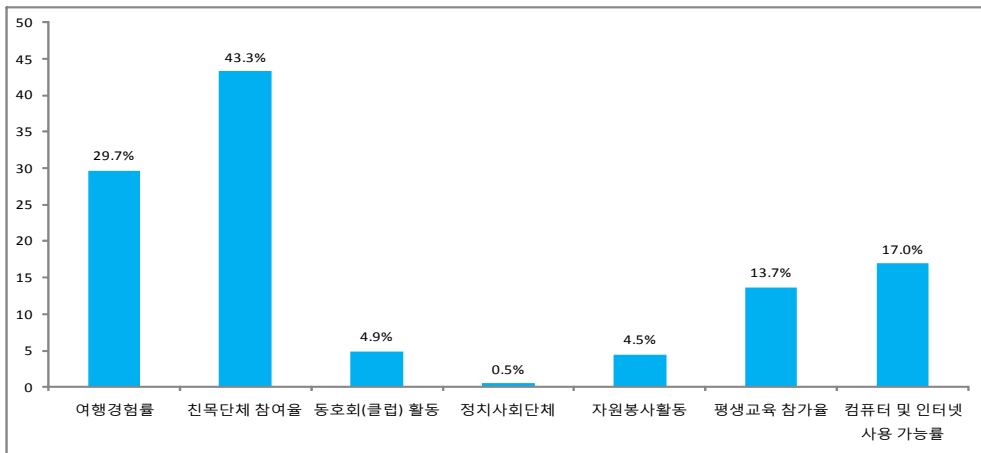
사.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노인의 대부분이 TV를 보고 있으나 여행경험률은 29.7%에 불과하며, 학습활동 참가율도 13.7%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13-12〉 참조). 그러나 이는 2004년에 4.8%였던 것에 비하여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다(〈표 13-5〉 참조). 단체활동참가율의 경우 친목단체가 43.3%로 참여율이 가장 높고, 동호회는 4.9%, 정치사회단체는 0.5%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체활동참가율은 정치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10년 전에 비하여 높아진 수준이다.

지난 1개월간 기부를 한 비율은 3.5%,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한 노인은 9.5%이고, 평

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5%,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경험이 있는 노인이 14.5%이다. 즉, 노인의 약 20%만이 자원봉사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자원봉사경험이 전혀 없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4.5%로 2004년의 4.0%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평생교육참가율의 증대폭('04 4.8% → '14 13.7%)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그림 13-12] 노인(65세 이상)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



한편, 노인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83.0%가 전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는 9.9%에 불과하다. 또한 약 80%의 노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 보급률이 높은 편이나, 스마트 폰을 갖고 있는 노인은 1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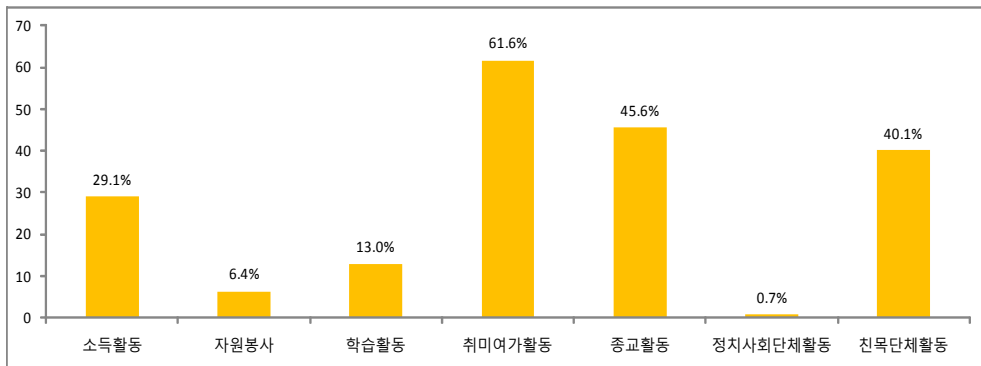
<표 13-5> 노인(65세 이상)의 사회활동 참여비율 및 정보화 능력

(단위: %)

구분	1994년	2004년	2014년
친목(사교단체)	21.6	33.5	43.3
정치단체	0.8	2.1	0.5
동호회(문화활동)	-	0.9	4.9
평생교육참여율	-	4.8	13.7
자원봉사참여율	-	4.0	4.5
컴퓨터·인터넷 이용가능률	-	5.4	17.0

노인의 각 활동에 대한 참여 희망 정도를 살펴보면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 비율(반드시 하고 싶음 +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이 소득활동이 29.1%, 자원봉사 6.4%, 학습활동 13.0%, 취미여가활동이 61.6%, 종교활동 45.6%, 정치사회단체 활동이 0.7%, 친목단체활동이 40.1%이다. 이는 노인이 선호하는 활동이 취미여가활동 → 종교활동 → 친목단체활동의 순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치사회단체 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13] 노인(65세 이상)의 각 활동별 참여 희망 정도



아. 생활 환경

노인의 51.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그 다음으로 34.7%이다. 또한 노인의 3.1%가 (반)지하에 살고 있고, 17.3%가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이 생활하기 어려워하는 공간으로는 계단, 화장실 및 욕실 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55.0%는 불편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 69.2%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무상 11.0%, 보증금 있는 월세 9.8%, 전세 8.4%, 보증금 없는 월세 1.7%의 순서이다.

교통과 관련하여 노인이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버스로 48.2%이며, 그 다음 지하철 21.2%, 자가용 20.0%이다. 노인의 16.1%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고, 이는 2011년의 12.2%보다 늘어난 수치로 전기 노인을 중심으로 자가용 운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12.2%는 운전 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노인이 외출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점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34.1%),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1%)가 가장 많다.

노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환경을 살펴보면 버스·지하철역은 도보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4.6%이며,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는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이 12.7%로 비교적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시설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읍면동 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이 각각 28.6%와 28.4%이며, 걸어서 10~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은 걸어서 30분 이상이 65.1%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70.4%로 매우 높다. 즉 여가생활과 관련한 인프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 빈도도 낮은 편이다.

자.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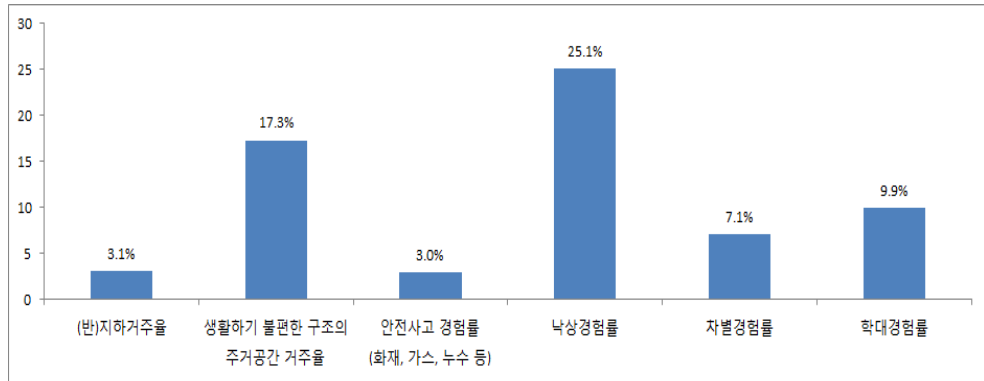
노인의 3.0%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를 경험하였으며, 재산범죄의 경우 0.6%, 사기성 물건구매 0.3%, 보이스피싱 0.2%, 폭력 및 강력범죄 0.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낙상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며 이 중 63.4%는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낙상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가 29.5%로 가장 높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다) 13.8%,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등의 순이다. 또한 노인의 78.8%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6%나 되어 낙상이 노년기의 주요 관심사임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7.1%가 연령차별경험이 있고 차별을 경험한 상황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37.7%이며, 다음이 판매시설 이용 시 17.7%, 의료시설 이용 시 14.4%의 순이다. 또한 9.9%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 가장 빈번한 학대는 타인의 말과 행동(정서적 학대)로 7.3%이며, 다음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방임) 2.8%,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음(방임) 1.5%,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 0.3%,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0.2%의 순서이다.

가장 극단적인 노인의 불안전 상태는 자살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2.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아 40.4%이며, 다음이 건강문제로 24.4%이다.

[그림 13-14] 노인(65세 이상)의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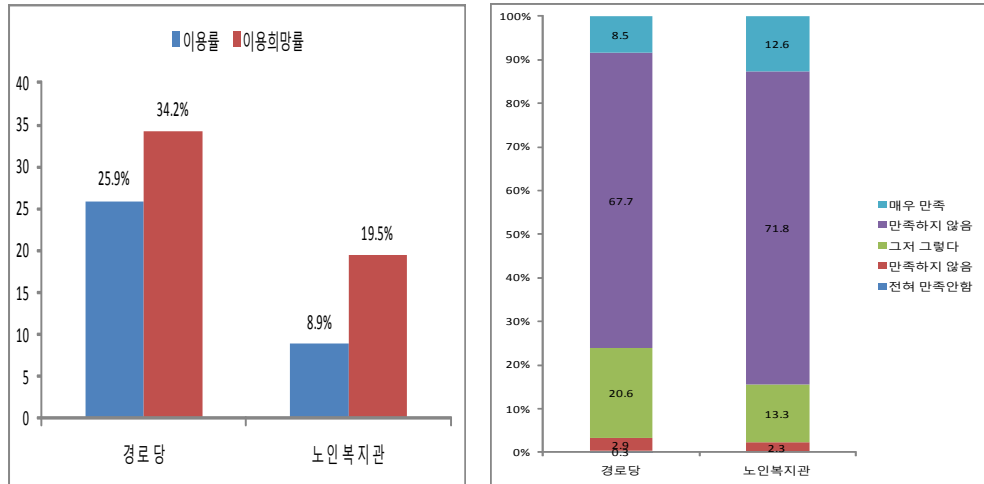


차. 시설 및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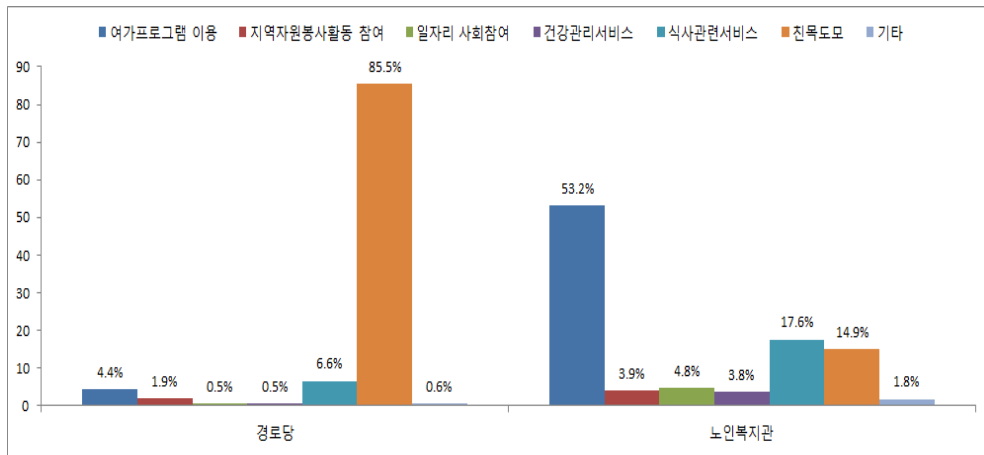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경로식당(복지관 식당)은 5.2%,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는 1.6%이며,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는 1.4%의 이용률로 매우 낮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6.6%,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은 4.5%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노인의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34.2%이다. 이에 비하여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은 8.9%로 낮으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이 19.5%에 달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용 만족도는 경로당에 비하여 노인복지관이 높은 편으로, 각각 76.2%와 84.4%이다. 경로당의 경우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제일 많다(66.4%).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목도모로 85.5%이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53.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식사 서비스와 친목도모이다.

[그림 13-15] 노인(65세 이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률, 이용희망률



[그림 13-16] 노인(65세 이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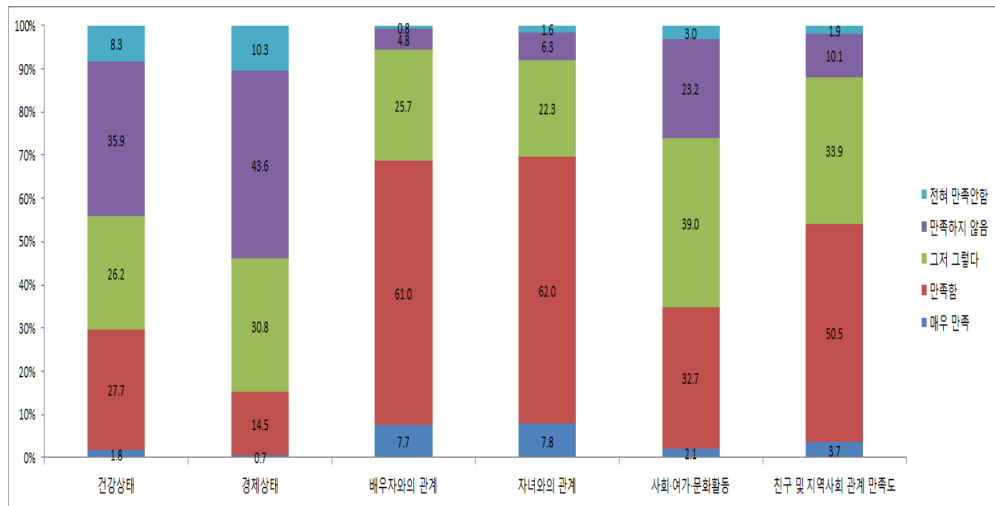
한편, 죽음과 관련한 준비 실태를 보면 묘지를 준비했다는 노인이 29.1%, 수의가 11.2%이고, 상조회 가입률이 6.7%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유서작성이나 죽음준비 교육수강 등과 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카. 인식과 태도

1) 영역별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현황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것이 삶의 만족도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로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외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건강상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9.5%, 그저 그렇다가 26.2%, 만족하지 않는다가 44.2%이며, 경제상태의 경우 각 응답률이 15.2%, 30.8%, 53.9%로 건강상태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다. 사회·여가문화활동의 경우는 만족도가 34.8%로 건강이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양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친구 및 지역사회의 경우는 만족도가 54.2%이며, 그저 그렇다가 33.9%, 만족하지 않는다가 12.0%이다. 이는 건강, 경제, 참여활동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만족률인 68.7%과 자녀의 69.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림 13-17] 노인(65세 이상)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2)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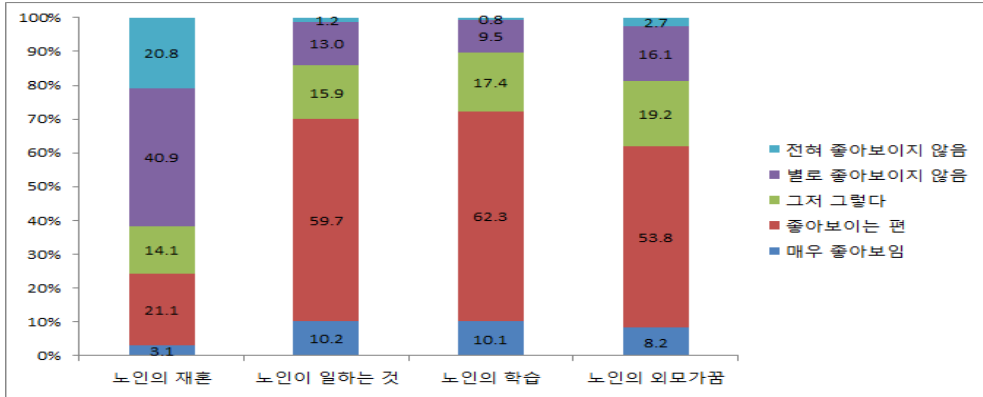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 및 연령구범을 살펴보면, 60대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21.7%이며,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5.3%에 달하고 있다. 가장 응답이 높은 것은 70~74세라는 응답으로 약 절반 수준인 46.7%이다. 75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31.6%에 달하고 있다. 종합하면,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78.3%로 이는 1994년의 30.0%, 2004년의 55.8%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3-18] 노인(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연령구범을 살펴보면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24.2%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61.7%에 달하고 있다. 반면 노인이 일하는 것은 69.9%, 노인의 학습 72.4%, 노인의 외모 가꿈이 62.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과 학습, 외모 가꿈 등 자신을 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임을 볼 수 있다.

[그림 13-19]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규범



노년기의 부양과 관련해서는 자녀동거와 생활비 마련 방법을 파악하였는데, 노년기의 자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19.1%에 불과하다. 이는 2004년의 26.6%에 비하여 낮아진 것으로 노년기의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4.3%, 본인 스스로가 3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사회보장제도)이 18.6%인 것을 고려해보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노인이 52.9%이다.

〈표 13-6〉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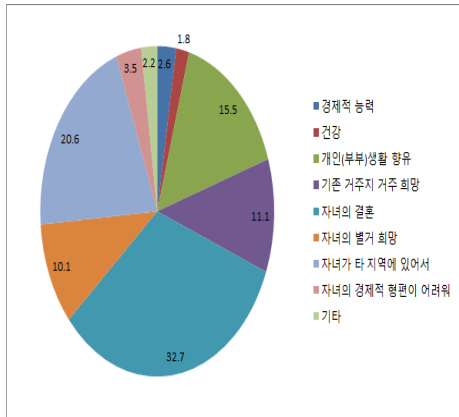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14년
노년기 자녀 동거 필요	26.6	19.1
선호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스스로	40.2	31.9
가족 및 자녀	18.7	7.9
본인과 자녀	-	6.9
국가(사회보장제도)	40.9	18.6
본인과 국가(사회보장제도)	-	34.3
기타	0.2	0.5

주: 1994년에는 관련 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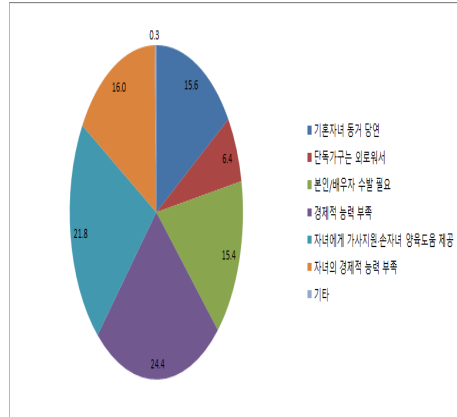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외에도 가구형태의 형성이유도 변화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독거+부부가구) 약 1/3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20.6%는 자녀의 타 지

역 거주로, 15.5%는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11.1%는 기존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로 그 이유가 다양하다.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그 이유가 다양하여, 노인의 경제적 능력부족(24.4%)과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21.8%), 자녀의 경제적 능력부족(16.0%),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15.6%), 노인의 수발을 위해(15.4%)이다. 이는 더 이상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보다는 노인이 의존적인 존재로 기혼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 등 실용적 이유로 인한 동거가 많다.

[그림 13-20] 노인(65세 이상)의 단독거주 이유



[그림 13-21] 노인(65세 이상)의 기혼자녀 동거 이유



한편 죽음으로 삶을 정리하는 내용 중,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재산처리방식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52.3%이며, 다음으로는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한다가 15.2%이며, 전통적인 방식인 장남에게 더 많이(11.4%), 장남에게만(6.3%)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3.9%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88.9%가 반대하고 있다.

3. 노인의 특성별 생활상

가. 지역별 특징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노년기의 확대에 따라 노인 내부의 다양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석재은 외, 2005; 정경희,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노인의 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한 <표 13-7>과 <표 13-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도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의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21.9%,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노인이 43.5%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65.4%인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은 동 비율이 74.8%로 9.4%p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의 삶의 영역별 생활실태를 비교해보면 경제상태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만족률 또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질병상태나 우울증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능상태는 농어촌 지역이 조금 더 나쁜 편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상태 만족률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 노인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활동 및 사회·여가문화활동 참여 실태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시지역이 23.8%인 반면 농어촌은 45.5%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여가문화활동 참여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지역 노인에게서 평생교육참가율이나 자원봉사 참가율이 높은 반면 연간 여행경험률은 농어촌 지역이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역주민 간의 여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기찬 노후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참가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농어촌 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노인의 24.1%가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노인의 15.3%에 비하여 약 9%p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74.1%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경험률이나 차별경험률, 학대경험률과 같은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는 도시 노인이 좀 더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현황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소득			건강			
	독거	부부가구	공적이전소득 보유율 (가구)	공적연금 보유율 (본인)	만족률 ¹⁾	(본인인지) 복합 이환율 ²⁾	우울 증상 ³⁾	기능 제한율 ⁴⁾	만족률 ¹⁾
전체	23.0	44.5	92.7	31.9	15.2	72.2	33.1	18.2	29.5
지역									
동부	21.9	43.5	92.1	32.3	15.2	72.2	33.2	17.1	30.2
읍면부	26.8	48.0	94.6	30.7	15.5	72.3	32.9	21.9	27.5
성									
남자	10.0	61.4	92.1	51.0	18.2	63.4	26.1	10.6	39.3
여자	32.3	32.5	93.1	18.3	13.0	78.6	38.1	23.7	22.6
연령									
65~69세	14.5	51.7	92.9	49.0	18.5	63.6	23.9	5.4	37.2
70~74세	20.9	48.0	92.4	37.7	15.2	74.2	31.5	13.5	30.3
75~79세	27.7	44.3	90.8	20.4	13.2	78.5	38.5	19.7	23.2
80~84세	35.5	33.9	93.9	13.2	12.5	78.7	41.9	34.3	21.7
85세 이상	32.2	21.8	95.4	4.0	11.6	74.0	49.0	56.0	2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3.1	19.5	97.2	13.8	7.2	81.3	58.1	49.3	16.6
무학(글자해독)	33.4	32.5	95.0	19.3	8.3	80.9	44.3	27.1	20.1
초등학교	21.8	47.3	92.5	29.3	12.0	74.2	33.2	15.9	25.4
중학교	14.8	53.3	91.1	39.8	16.9	67.0	25.0	8.8	35.1
고등학교	13.6	54.0	91.4	46.6	22.3	63.3	20.7	6.5	41.5
전문대학 이상	9.6	61.4	86.8	54.8	38.4	58.4	12.9	6.7	53.0

주: 1)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

2) 노인 중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노인의 비율

3)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상의 점수가 8~15점인 노인의 비율

4) 10개의 ADL 항목과 7개의 IADL 항목 중 하나라도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

〈표 13-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사회참여, 생활환경 및 안전 실태

특성	사회참여					생활환경 및 안전					
	경제 활동 참가율	연간 여행 경험률	평생교육 참가율	자원봉사 참가율	만족률	주택에 생활하기에 불편한 공간 있음	외출 시 점 불편한 있음	낙상률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경험률	차별 경험률	학대 경험률
전체	28.9	29.7	13.7	4.5	34.8	17.3	70.6	25.1	3.0	7.1	9.9
지역											
동부	23.8	28.6	14.4	4.7	35.1	15.3	69.5	24.8	3.1	7.7	10.8
읍면부	45.5	33.6	11.4	3.9	33.8	24.1	74.1	26.2	2.8	5.1	6.9
성											
남자	37.5	32.0	8.5	5.2	39.1	15.2	59.9	17.5	2.2	6.1	8.9
여자	22.7	28.1	17.3	4.0	31.8	18.8	78.3	30.5	3.6	7.8	10.6
연령											
65~69세	39.1	37.2	14.7	7.3	41.5	11.9	58.5	19.6	2.6	6.0	8.9
70~74세	31.5	31.7	14.5	4.7	34.9	17.0	70.6	24.5	3.6	8.0	10.8
75~79세	25.3	25.9	14.6	2.4	32.4	18.6	79.1	28.0	2.8	6.9	10.6
80~84세	16.4	21.2	12.0	2.6	30.5	22.9	83.5	29.0	3.4	7.8	10.1
85세 이상	6.3	15.0	6.3	0.5	19.4	28.1	79.1	35.1	2.8	7.8	8.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2.5	17.6	6.2	0.4	19.4	34.6	88.9	35.8	4.2	7.0	11.6
무학(글자해독)	26.6	22.7	11.8	1.8	23.4	23.6	82.3	31.3	3.6	7.8	12.4
초등학교	32.4	27.0	13.6	3.2	32.6	17.1	74.2	25.7	3.1	6.7	9.4
중학교	33.9	32.2	16.2	7.8	41.4	12.2	63.2	19.3	2.7	6.8	9.2
고등학교	27.3	39.2	15.3	7.6	45.9	10.4	55.2	19.1	2.1	7.6	9.1
전문대학 이상	23.5	49.7	19.9	9.6	57.5	3.6	48.6	15.0	1.9	6.1	6.3

나. 성별 특징

성별 차이는 매우 분명하여 여자노인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남자노인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구형태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노인의 61.4%가 배우자와만 생활하고 있는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동 비율은 32.5%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2.3%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즉 여자노인 3명 중 1명이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부양을 교환할 수 있는 배우자나 타가구원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소득에 있어서도 여자노인이 공적연금 가입을 통한 안정적이며 독자적인 준비가 이

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노인의 51.0%가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반면 여자노인은 동 비율이 18.3%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자에게 기대된 보살핌을 제공하는 성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여자노인의 낮은 객관적인 경제 상태는 그대로 낮은 경제 상태 만족률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의 다양한 지표에 있어서도 여자노인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이환율이 78.6%로 남자에 비하여 약 15%p 높고, 기능제한율도 23.7%로 남자노인보다 약 13%p 높다. 이는 우울증상의 경우도 유사하여 남자노인보다 12%p 높은 38.1%의 여자노인이 우울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연령이 많은데도 일부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족률에도 이어져 22.6%의 여자노인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노인 약 2/3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참여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22.7%의 수준이다. 더불어 연간 여행경험률도 남자보다 낮다. 반면 평생교육참가는 여자노인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률은 남자가 높다.

한편,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외출 시 불편함을 경험하는 비중이 여자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으며, 이는 낙상률로도 이어져 여자노인의 30.5%가 지난 1년간 낙상의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자노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안전사고 경험이나 차별경험 및 학대경험률도 여자노인이 높다. 즉,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자노인의 상황이 나쁜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자노인을 위한 특화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연령군별 특징

노인의 다양성은 연령군별 차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연령이 80세를 넘으면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이들 연령군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의존성의 증대가 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군별로 가구형태를 비교해보면 85세 이전까지는 독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지만 85세 이후 좀 낮은 수

준을 보이는 반면, 부부가구의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성이 분명하다.

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에 있어 연령군별 차이가 커, 75세 이전의 경우는 40% 내외인데 비하여, 75~79세 연령군 20.4%, 80~84세 연령군 13.2%,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동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즉 노인 중에서도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성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률이 낮다.

건강수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나쁜 경향성이 분명하며 특히 80세를 전후로 하여 기능상태가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낮은 건강수준은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도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경우도 유사하여 생물학적 노화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는 거의 모든 활동참가율이 매우 낮고 이는 낮은 만족률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외출 시 불편한 점, 낙상률이 모두 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나 차별 및 학대경험률은 타 항목에 비하여 연령군별 차이가 적고 연령과 \cap 형의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85세를 전후로 하여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지 때문에 다양한 접촉의 기회가 적어지는데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는 일부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일부는 연령군별 교육수준의 차이나 청장년기를 보낸 사회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기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마련과 더불어 새로이 노년기로 진입할 예비노인층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다.

라. 교육수준별 특징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발견되어 교육수준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비중이 높다.

건강상태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쁜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중 고연령층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공적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과 \cap 의 관계를 보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그리 높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여행경험률이나 평생교육참가, 자원봉사활동참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하고 주관적인 만족도도 높다. 더불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들의 경제적·신체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등의 시민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예비노인에게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시사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노인의 생활상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의 규모가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였다. 노인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후기노인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의 4명 중 1명이 80대라는 점은 정책적 함의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후기 노인을 특화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신체적 기능도 저하되고 따라서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이들 80대 이후 노인들이 무위와 고독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여 비인간적

인 삶을 영위하지 않도록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저하된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년기의 거주형태가 변화해왔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녀동거가 일반적이므로, 그렇지 않은 가구, 즉 독거나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인단독가구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책적 대응을 해가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정경희 외, 2014). 자녀독거 노인중 약 절반 정도는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기혼자녀와의 동거라는 전통적인 형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엇보다 먼저 기존의 독거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부가구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아 보호부담이 크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강한 부부가구를 위한 활기차고 생산적 노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공식적 지지체계와의 협력과 상호보완 관계를 더욱 강조해갈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도 상향조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었다. 이젠 노인의 90%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홍보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노인도 24.4%로 노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예비노인층인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높다는 점(정경희 외, 2010)을 고려해볼 때 좀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일단 다양한 사회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현되지 않은 욕구를 활동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황남희, 2014).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취약한 노인의 경우는 공적인 개입의 최우선 집단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인구의 증대 및 다양화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후생활비를 노인스스로나 국가(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등 가치관에서 자신과 국가의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경로당 이용률이 2011년의 34.2%에서 2014년 25.9%로 하락하였고 전기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이 후기 노인에 비하여 낮아 향후도 경로당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이용도 정체상태일 뿐만 아니라 향후 희망률은 감소하여,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있어 공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편, 가족사회관계는 아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는 많이 약화되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등 내적인 다양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사회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 등의 일차적 비공식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친구·이웃·지인의 접촉 빈도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후기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구·이웃·지인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듯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가족, 지역사회가 강점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갈 때 증대하며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3. 영역별 주요 과제

삶의 주요 영역별로 도출된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노년기

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연금의 비중은 취약한 상황이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급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주택연금의 확대를 통해 현재의 노인들의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연금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당장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 세대 노인에게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인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모색과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 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경우 현재 참여율은 4.3%이지만 향후 희망하는 노인은 18.2%로 미충족 욕구가 큰 상황이다.

둘째,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적 접근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약 90%이고, 복합 질환자가 약 70%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69세와 70~74세 연령간의 만성질환 유병률 및 복합이환율이 약 10%p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체계적 질환관리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증상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진입 이전부터의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예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양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운동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운동실천율이나 건강검진율은 높아졌지만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28.8%가 영양관리주의가 필요하고,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양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

건강행태에서 남자의 경우 흡연율(23.3%)과 과음주율(33.4%)로 높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 권장수준 운동실천율(37.5%)은 낮고, 영양관리 개선 요구(23.4%)가 남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균형 등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일차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건강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참여 실태와 서비스 기반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의 경우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에 대한 미충족 욕구 또한 일정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는 좀 더 다각화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학습활동참여에 비하여 자원봉사참여율의 증가폭이 적다. 소극적인 노후생활에서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사회참여의 폭이 확대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자원봉사와 같이 타인을 위한 활동까지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양한 활동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봉사는 단순노력봉사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수준과 같은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복지, 교육활동, 문화체육 분야 등의 전문 분야 또는 전문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습활동의 경우도 현재는 노인복지관, 시군구민회관, 경로당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교 및 사설문화센터는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들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넷째,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다수(78.8%)가 낙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실제 4명 중 1명은 낙상의 경험이 있다. 낙상은 전반적인 기능상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80대 이상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서,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구분 또한 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건강상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증대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연령집단에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정기혜 외, 2011).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과 노인과의

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을 통한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노년상을 정립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1%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서비스 제공 현장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질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마감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의학적 도움을 얻어 생명을 연장하기도 한다. 다양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죽음준비교육이나 유성 작성 등은 소수만이 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에 대하여 다수의 노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노인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통합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권중돈 외(2010). 노인돌봄기본사업의 발전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권중돈 외(2007).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방안. 보건복지부.
- 권중돈 외(2004). 대전서남부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욕구. 한밭제일교회성애원.
- 국민연금연구원(200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국토개발원(2007).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 김경혜 외(2010). 통계로 본 서울노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남진(2000). 예비노인 집단과 노인집단의 건강관심도 및 건강행위, 주관적인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pp.99-110.
- 김두섭 외(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미혜 외(2000).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 (1), pp.241-261
- 임완섭 외(2013). 201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봉 외(2010). 신노년층의 소비실태와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봉 외(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영범(2009). 서울, 춘천지역 중 고령자의 부양책임감 변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 (4), pp.1413-1425.
- 김영원 외(2000).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pp.1-11.
- 김정석(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pp.1-27.
- 김종호(1991). 표본조사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태준 외(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
- 대한민국정부(20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 마강래 외(2009). 고령자의 교통수단 선택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0(4), pp.159-171.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사.
- 박명화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
- 박상우 외(2011). 2011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해양부.
- 박장근 외(2007). 현재노인과 예비노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여가의식 차이. 한국여가학회지, 8(1), pp.1229-6325.

- 박상철(2010). 노화혁명. 하서출판사.
- 박홍래(1993). 통계조사론. 서울: 영지문화사.
-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제2차(2012~2015)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2 치매유병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공청회 자료집. 2010. 11. 29.
- 보건복지부(2008).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계명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암등록본부(2009). 2007년 암유병률 통계. 2006 ~ 2007년 암발생률, 1993~2007년 암발생자의 암생존율.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석재은 외(2005).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선우덕 외(201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외(2009).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외(2008).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창균 외(2007). 자체통계 품질진단 매뉴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창균 외(2007). 응답을 고려한 직접질문방법과 확률화응답기법의 효율성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외(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외(201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 외(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pp.729-742.
- 윤석명 외(201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종률(2011). '100세 시대 건강관리 방안'. 인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연구.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7.
- 윤현숙 외(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pp.197-217.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원 외(2009).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 이삼식 외(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6).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2009).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식 외(2010). 정책수단 분류모형과 생활체육 정책에의 적용. 체육과학연구.
- 이윤경 외(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외(20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환 외(2009).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상태. 아주대학교 노인보건연구소.
- 이윤환 외(2004). 노인의 신체기능 장애에 관한 종적연구. 보건복지부.
- 이현주 외(2013). 2013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 장숙량(2006). 노인의 기능장애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한림노녀연구 2003~2005. 한국심리학회 2006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장영식 외(2008). 인구패널 및 DB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해숙 외(2009).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노년학, 29(4), pp.1611-1628.
- 정경희 외(2014).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예정).
- 정경희 외(2013a). 미래 고령사회 대응 베이비 붐 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3b).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3c).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개요와 주요 결과. 한림고령사회연구. 제1권 제1호. pp. 1-24.
- 정경희(2013).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개요와 주요 결과. 한림고령사회연구. 제1권 제1호. pp. 1-24.
- 정경희 외(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행실태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9).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9).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7).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68, pp.102-112.
- 정경희(1999). 노인과 재산상속.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pp.52-68.
- 정영호(2012).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93, pp.5-18.
- 정기혜 외(2011). 건강한 100세를 위한 부문별 대응정책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남 외(2009). 노인실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 조성남(1998). 고령화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천현숙 외(2012).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국토연구원.
- 황남희(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pp.52-68.
- 질병관리본부(2007). 우리나라 주요 건강 이슈.
- 통계청 외(2012). 2012년 가계금융조사. 2012년 가계금융조사 보도자료. 2012. 12. 21.
- 통계청(2013). 2013년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2012).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 통계청(2011). 2012년 사회조사.
- 통계청(2011). 2011년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 II). 통계청.
- 통계청(2010). KOSIS, 인구·가구.
-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pp.46~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13). (2010)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2000). 무응답 오차. 서울: 자유아카데미.
- 한준 외(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 Atchley(2004). *Social Forces and Aging (10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 Bath, P. A.(2003). "Differences between older men and women in the self-rated health-mortality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43, pp.387-395.
- Binstock, B. and George, L.(Eds) (2010).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7th ed.)*. Academic press.
- Campbell, K. Marsden, P., and Herber, J.(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8.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12). *Older Americans 2012: 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U.S.
- Ferraro, K. F., & Kelley-Moore, J. A.(2001).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mong black and white adults: examining the dynamic evaluation thesi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6B, S195-S205.
- Jagan, A., Pillai, ., Joe, V. (2009) Social networks and their role in preventing dementia. *Indian J Psychiatry*, 51, pp.22~28.
- Lee, H. Y., Jeon, G. S. (2009). The Influence of Positive Thoughts about Social Capital o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Korean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3), pp.789~803.
- Liang, J.(1986). "Self-reported physical health among aged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2), pp.248-260.
- Lin, N. (2008). "Social capital and civic action: A network-based approach". *Department of Sociology*, Duke University, Durham, USA. (김동윤·오소현 역) 2008. 5. 16. 사회자본. 커뮤니케이션북스
- Moren-Cross and Lin(2006).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Binstock, R.H. and George, L.(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6th Edition)*, NY. pp.111-126.
- Nunley, B. L., Hall, L. A., & Rowles, G. D.(2000). "Effects of the quality of dyadic relationship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care recipie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6, pp.23-31.
- OECD(2013). *Society at a Glance*. OECD.
- Settersten, R. A. Jr. and Angel, J. L. (Eds)(2011). *Handbook of Sociology of Aging*.

Springer.

UN-ECE(2011) *Indicators for the 2nd cycle of review and appraisal of RIS/MIPAA*.

UN-ECE.

Waller, AI(1985). "From welfare State to Caring Society?: The Promise of Informal Support Networks", in Yonder J. A. (Ed.), *Support Networks in a Caring Community: Research and Policy, Fact and Fiction*, Pordrecht; M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Ward, R. A.,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er", *The Gerontologist*, Vol.25, No.1, pp. 55~61. 1985.

부록 1. 부표: 일반특성별 분석표

<부표 1-4-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까운 친인척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전체 ¹⁾	46.9	25.2	15.2	12.6	100.0 (10,279)
지역					
동부	47.0	25.3	15.3	12.4	100.0 (7,870)
읍·면부	46.8	25.1	15.0	13.1	100.0 (2,409)
성					
남자	49.1	21.9	15.7	13.3	100.0 (4,290)
여자	45.4	27.6	14.9	12.1	100.0 (5,989)
연령					
65~69세	38.7	26.2	17.9	17.2	100.0 (3,303)
70~74세	44.7	24.3	16.8	14.3	100.0 (2,809)
75~79세	48.6	26.5	14.2	10.8	100.0 (2,120)
80~84세	57.6	24.3	12.5	5.7	100.0 (1,284)
85세 이상	68.5	23.1	5.5	2.9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3.9	24.1	17.2	14.8	100.0 (6,338)
배우자 없음	51.9	27.1	12.1	9.0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50.8	27.4	12.8	8.9	100.0 (2,390)
노인부부	43.6	24.4	17.5	14.5	100.0 (4,595)
자녀동거	49.4	23.9	13.9	12.8	100.0 (2,881)
기타	44.1	31.2	13.1	11.7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1.9	23.8	7.9	6.4	100.0 (971)
무학(글자해독)	54.3	25.2	12.7	7.9	100.0 (2,136)
초등학교	44.8	26.6	15.7	13.0	100.0 (3,303)
중학교	40.5	24.8	18.1	16.6	(1,347)
고등학교	41.2	24.3	18.3	16.2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41.4	24.4	17.8	16.5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6	24.3	17.3	16.8	100.0 (2,970)
미취업	49.1	25.6	14.4	10.9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0	25.4	10.7	8.9	100.0 (2,075)
제2오분위	50.0	25.9	13.7	10.3	100.0 (2,051)
제3오분위	47.2	22.7	17.5	12.7	100.0 (2,041)
제4오분위	43.0	25.0	16.9	15.1	100.0 (2,047)
제5오분위	39.2	27.4	17.4	16.1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4.1	25.7	16.5	13.8	100.0 (8,550)
제한 있음	61.2	23.1	9.1	6.7	100.0 (1,72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1-4-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까운 친구·이웃·지인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전체 ¹⁾	37.3	18.6	21.1	10.6	12.4	100.0	(10,279)
지역							
동부	37.4	19.1	21.3	10.0	12.2	100.0	(7,870)
읍면부	36.9	16.8	20.7	12.5	13.1	100.0	(2,409)
성							
남자	36.9	16.3	21.9	10.5	14.4	100.0	(4,291)
여자	37.7	20.2	20.5	10.7	10.9	100.0	(5,989)
연령							
65~69세	31.1	16.6	23.7	12.4	16.2	100.0	(3,303)
70~74세	36.0	18.0	21.9	11.3	12.9	100.0	(2,809)
75~79세	38.5	19.9	21.6	9.6	10.5	100.0	(2,120)
80~84세	44.7	21.1	17.5	8.4	8.4	100.0	(1,284)
85세 이상	53.7	21.4	11.9	6.9	6.1	100.0	(76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5.8	16.6	22.2	11.4	14.0	100.0	(6,338)
배우자 없음	39.8	21.7	19.3	9.4	9.8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37.5	21.4	21.3	9.0	10.8	100.0	(2,390)
노인부부	36.0	16.9	22.0	11.4	13.7	100.0	(4,595)
자녀동거	38.9	18.9	20.2	10.7	11.3	100.0	(2,881)
기타	39.7	18.5	16.6	10.6	14.6	100.0	(41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8.0	20.2	16.1	9.9	5.8	100.0	(971)
무학(글자해독)	45.3	20.1	19.3	7.5	7.9	100.0	(2,136)
초등학교	38.0	19.7	20.3	10.9	11.1	100.0	(3,303)
중학교	34.2	17.7	22.6	12.5	13.2	100.0	(1,347)
고등학교	29.7	15.8	25.0	11.0	18.5	100.0	(1,717)
전문대학 이상	21.9	15.7	24.6	14.8	23.2	100.0	(80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6	17.2	23.3	11.7	15.3	100.0	(2,670)
미취업	39.2	19.1	20.3	10.2	11.2	100.0	(7,3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2	21.4	20.7	8.0	8.7	100.0	(2,075)
제2오분위	42.8	19.6	20.1	8.6	9.0	100.0	(2,051)
제3오분위	38.3	17.2	19.9	11.3	13.3	100.0	(2,041)
제4오분위	35.9	17.9	21.2	11.8	13.3	100.0	(2,047)
제5오분위	28.2	16.9	23.9	13.5	17.5	100.0	(2,0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6	18.6	22.5	11.5	13.9	100.0	(8,544)
제한 있음	55.7	18.5	14.5	6.2	5.1	100.0	(1,7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 -11-1〉 노인(65세 이상)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99.0	99.0	98.7	99.1	98.8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0.2	0.3	0.0	0.2	0.2
영화보기	0.1	0.1	0.0	0.1	0.1
기타 ³⁾	0.1	0.2	0.0	0.2	0.1
문화예술참여활동	2.5	2.7	1.7	2.3	2.6
악기연주/노래교실	1.1	1.2	1.1	0.6	1.5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8	0.9	0.5	1.1	0.6
춤/무용	0.2	0.3	0.0	0.1	0.3
기타 ⁴⁾	0.3	0.4	0.1	0.5	0.2
스포츠관람활동	0.4	0.4	0.3	1.0	0.0
스포츠참여활동	4.7	5.3	2.8	5.4	4.2
관광활동	0.6	0.6	0.7	0.9	0.4
자동차 드라이브	0.3	0.3	0.2	0.4	0.1
기타 ⁵⁾	0.4	0.3	0.5	0.5	0.3
취미오락활동	16.4	17.3	13.5	19.2	14.5
화투·고스톱 등	3.1	2.6	4.9	1.9	4.0
등산	2.4	2.8	1.3	4.8	0.7
화초/텃밭 가꾸기	2.7	2.8	2.4	2.1	3.1
독서, 만화책/종교서적 보기	4.0	4.8	1.3	3.9	4.1
낚시	0.4	0.4	0.4	0.9	0.1
바둑, 장기, 윗놀이 등	1.5	1.5	1.3	3.1	0.3
기타 ⁶⁾	2.3	2.4	2.1	2.6	2.2
휴식활동	63.7	62.2	68.9	62.6	64.5
TV시청	54.3	51.6	63.2	51.3	56.4
산책	4.6	5.4	1.9	5.4	4.0
음악감상	0.8	0.9	0.2	0.8	0.7
기타 ⁷⁾	4.1	4.2	3.6	5.1	3.3
사회 및 기타활동	11.4	11.2	12.1	8.4	13.6
종교활동	3.6	4.1	2.1	1.8	4.9
그 외 사회활동 ⁸⁾	7.1	6.6	8.8	5.6	8.2
기타활동 ⁹⁾	0.7	0.6	1.2	1.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72)	(7,794)	(2,378)	(4,254)	(5,91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1-11-2〉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99.0	98.9	99.4	98.9	99.1	97.7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0.2	0.6	0.1	0.0	0.0	0.0
영화보기	0.1	0.2	0.1	0.0	0.0	0.0
기타 ³⁾	0.1	0.3	0.0	0.0	0.0	0.0
문화예술참여활동	2.5	3.1	2.7	2.3	1.2	1.3
악기연주/노래교실	1.1	1.5	1.3	1.0	0.6	0.4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8	0.9	0.7	1.1	0.5	0.6
춤/무용	0.2	0.3	0.3	0.1	0.0	0.3
기타 ⁴⁾	0.3	0.5	0.4	0.2	0.1	0.0
스포츠관람활동	0.4	0.5	0.6	0.3	0.2	0.1
스포츠참여활동	4.7	6.7	5.0	3.8	1.7	2.5
관광활동	0.6	0.7	0.8	0.6	0.3	0.2
자동차 드라이브	0.3	0.4	0.2	0.3	0.2	0.0
기타 ⁵⁾	0.4	0.3	0.6	0.3	0.1	0.2
취미오락활동	16.4	19.2	15.9	15.3	14.3	13.1
화투·고스톱 등	3.1	1.8	3.1	3.8	4.6	4.3
등산	2.4	4.5	2.4	1.1	0.4	0.0
화초/텃밭 가꾸기	2.7	2.5	3.7	2.9	1.1	2.1
독서, 만화책/종교서적 보기	4.0	4.5	3.0	3.8	5.0	4.8
낚시	0.4	0.8	0.3	0.3	0.0	0.2
바둑, 장기, 윗놀이 등	1.5	2.0	1.2	1.5	1.2	0.7
기타 ⁶⁾	2.3	3.1	2.2	2.1	2.1	0.9
휴식활동	63.7	57.8	64.0	65.7	69.8	73.1
TV시청	54.3	49.2	53.4	56.9	60.9	61.3
산책	4.6	4.0	5.2	4.4	4.7	5.5
음악감상	0.8	0.6	1.0	0.7	0.7	1.0
기타 ⁷⁾	4.1	3.9	4.4	3.7	3.5	5.3
사회 및 기타활동	11.4	11.4	11.0	12.0	12.5	9.8
종교활동	3.6	4.1	3.4	3.5	3.4	3.1
그 외 사회활동 ⁸⁾	7.1	6.6	6.8	7.7	8.6	5.8
기타활동 ⁹⁾	0.7	0.7	0.8	0.7	0.5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72)	(3,265)	(2,791)	(2,097)	(1,273)	(74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I -1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기타	계 (명)
전체 ¹⁾	21.3	3.2	13.5	59.1	2.9	0.0	100.0 (21)
지역							
동부	23.0	0.0	9.7	64.1	3.2	0.0	100.0 (19)
읍면부	0.0	41.7	58.3	0.0	0.0	0.0	100.0 (2) ²⁾
성							
남자	0.0	9.7	4.6	77.0	8.7	0.0	100.0 (7) ²⁾
여자	32.0	0.0	18.0	50.0	0.0	0.0	100.0 (14)
연령							
65~69세	31.8	0.0	8.4	49.3	10.5	0.0	100.0 (6) ²⁾
70~74세	0.0	0.0	23.2	76.8	0.0	0.0	100.0 (4) ²⁾
75~79세	0.0	0.0	22.4	77.6	0.0	0.0	100.0 (3) ²⁾
80~84세	38.0	9.9	9.6	42.5	0.0	0.0	100.0 (7) ²⁾
85세 이상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6.0	9.6	20.8	35.0	8.6	0.0	100.0 (7) ²⁾
배우자 없음	18.8	0.0	9.8	71.4	0.0	0.0	100.0 (14)
가구형태							
노인독거	23.5	0.0	5.6	70.9	0.0	0.0	100.0 (11)
노인부부	39.7	0.0	31.7	28.6	0.0	0.0	100.0 (5) ²⁾
자녀동거	0.0	21.4	23.2	36.1	19.3	0.0	100.0 (3) ²⁾
기타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0.0	0.0	0.0	100.0	0.0	0.0	100.0 (3) ²⁾
무학(글자해독)	24.6	0.0	8.8	66.6	0.0	0.0	100.0 (7) ²⁾
초등학교	0.0	0.0	57.6	42.4	0.0	0.0	100.0 (4) ²⁾
중학교	0.0	26.2	0.0	73.8	0.0	0.0	100.0 (3) ²⁾
고등학교	58.3	0.0	0.0	28.0	13.7	0.0	100.0 (4) ²⁾
전문대학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0) ²⁾
현취업상태							
취업중	0.0	0.0	37.7	38.9	23.4	0.0	100.0 (3) ²⁾
미취업	24.3	3.7	10.1	61.9	0.0	0.0	100.0 (1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0.0	8.2	91.8	0.0	0.0	100.0 (7) ²⁾
제2오분위	0.0	0.0	100.0	0.0	0.0	0.0	100.0 (1) ²⁾
제3오분위	54.3	0.0	8.9	36.8	0.0	0.0	100.0 (8) ²⁾
제4오분위	0.0	0.0	12.0	88.0	0.0	0.0	100.0 (3) ²⁾
제5오분위	0.0	38.2	27.4	0.0	34.4	0.0	100.0 (2) ²⁾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0	0.0	15.8	50.1	4.1	0.0	100.0 (15)
제한 있음	0.0	11.1	8.0	80.9	0.0	0.0	100.0 (6) ²⁾
2011년도	15.4	7.7	15.4	53.8	7.7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2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록 II. 부표: 시도별 분석표

<부표 II-3-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역 및 성별 분포

(단위: %, 명)

지역	지역		성		계 (명)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전국 ¹⁾	76.6	23.4	41.7	58.3	100.0 (10,451)
서울	100.0	0.0	44.1	55.9	100.0 (1,862)
부산	100.0	0.0	42.4	57.6	100.0 (780)
대구	100.0	0.0	41.7	58.3	100.0 (485)
인천	100.0	0.0	41.8	58.3	100.0 (471)
광주	100.0	0.0	42.1	57.9	100.0 (261)
대전	100.0	0.0	42.7	57.3	100.0 (255)
울산	100.0	0.0	42.8	57.2	100.0 (152)
경기	66.8	33.2	42.2	57.8	100.0 (2,009)
강원	67.1	32.9	41.6	58.4	100.0 (414)
충북	59.9	40.1	40.7	59.4	100.0 (382)
충남	47.7	52.3	41.6	58.4	100.0 (578)
전북	60.7	39.3	39.7	60.3	100.0 (532)
전남	53.9	46.1	38.8	61.2	100.0 (627)
경북	60.1	39.9	39.7	60.3	100.0 (776)
경남	56.5	43.5	39.1	60.9	100.0 (734)
제주	57.3	42.7	39.7	60.3	100.0 (132)

주: 1) 전제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3-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령 및 결혼상태

(단위: %, 명)

지역	연령					결혼상태		계 (명)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국 ¹⁾	31.7	27.1	20.6	12.6	8.0	61.4	38.6	100.0 (10,451)
서울	36.9	28.0	18.2	10.3	6.7	63.1	36.9	100.0 (1,862)
부산	35.3	28.4	19.0	10.9	6.4	58.8	41.3	100.0 (780)
대구	33.3	28.3	20.3	11.7	6.4	64.5	35.5	100.0 (485)
인천	33.6	26.5	19.6	12.1	8.1	57.6	42.4	100.0 (471)
광주	34.1	27.0	19.5	12.2	7.2	64.7	35.3	100.0 (261)
대전	33.3	26.7	20.1	12.3	7.8	63.0	37.0	100.0 (255)
울산	36.6	27.1	18.3	11.0	7.0	56.0	44.0	100.0 (152)
경기	32.7	27.1	20.2	12.1	7.9	61.4	38.6	100.0 (2,009)
강원	28.4	28.0	22.3	13.0	8.3	59.5	40.5	100.0 (414)
충북	27.3	26.6	22.7	14.1	9.2	60.9	39.1	100.0 (382)
충남	26.4	25.5	23.3	15.2	9.6	61.2	38.8	100.0 (578)
전북	27.5	25.7	22.4	14.8	9.6	61.5	38.6	100.0 (532)
전남	26.0	26.1	22.8	15.4	9.7	60.8	39.3	100.0 (627)
경북	26.7	26.6	22.8	14.6	9.3	64.3	35.7	100.0 (776)
경남	29.6	26.6	21.4	14.0	8.4	58.2	41.8	100.0 (734)
제주	29.4	26.1	20.2	14.0	10.3	65.6	34.4	100.0 (132)

주: 1) 전제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3-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구형태 및 교육수준

(단위: %, 명)

지역	가구형태				교육수준						계 (명)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이상	
전국 ¹⁾	23.0	44.5	28.4	4.0	9.6	20.9	32.0	13.2	16.6	7.8	100.0 (10,451)
서울	19.4	38.1	37.5	5.0	5.5	14.8	29.2	14.6	21.2	14.7	100.0 (1,862)
부산	22.8	38.9	34.6	3.7	7.8	19.7	35.9	15.5	16.0	5.1	100.0 (780)
대구	19.9	46.0	30.9	3.2	7.2	18.0	36.3	13.1	18.8	6.6	100.0 (485)
인천	23.9	43.5	30.7	1.9	9.1	28.3	31.3	14.0	14.4	2.9	100.0 (471)
광주	24.7	49.3	22.9	3.1	6.7	11.9	32.4	16.2	20.0	12.9	100.0 (261)
대전	24.0	49.1	22.9	4.1	4.4	23.2	30.7	15.4	17.3	9.0	100.0 (255)
울산	25.4	38.9	33.3	2.5	12.7	20.2	34.4	15.8	13.6	3.4	100.0 (152)
경기	20.0	41.4	34.1	4.5	7.9	19.3	28.5	15.0	19.9	9.5	100.0 (2,009)
강원	23.2	48.8	25.4	2.6	10.1	19.5	38.7	10.1	16.9	4.7	100.0 (414)
충북	25.2	49.0	23.5	2.3	5.6	32.6	36.3	8.9	12.2	4.4	100.0 (382)
충남	25.0	47.2	21.4	6.4	8.8	30.5	36.4	9.6	11.4	3.3	100.0 (578)
전북	25.5	48.7	21.1	4.7	17.2	18.5	28.9	14.0	16.5	4.9	100.0 (532)
전남	28.9	53.7	14.0	3.4	23.4	20.5	32.4	11.8	10.1	1.7	100.0 (627)
경북	27.3	52.7	17.5	2.5	12.7	21.5	33.7	9.8	13.6	8.7	100.0 (776)
경남	26.9	45.8	23.5	3.8	12.5	28.3	33.4	10.2	11.1	4.6	100.0 (734)
제주	23.8	50.6	22.4	3.2	12.5	29.2	28.1	12.2	12.4	5.7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3-2-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취업여부 및 경제상태, 기능상태 제한여부

(단위: %, 명)

지역	취업함	경제상태					기능상태 제한있음	계 (명)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전국 ¹⁾	28.5	20.0	20.0	20.0	20.0	20.0	81.8	100.0 (10,451)
서울	21.5	17.8	13.3	16.9	23.5	28.5	84.0	100.0 (1,862)
부산	20.7	16.7	20.3	23.0	19.9	20.2	83.0	100.0 (780)
대구	21.4	11.5	23.0	21.2	23.2	21.0	77.4	100.0 (485)
인천	21.0	19.5	28.8	21.1	16.9	13.7	81.9	100.0 (471)
광주	14.3	18.8	25.9	16.1	17.1	22.1	87.8	100.0 (261)
대전	24.2	19.3	23.3	17.9	17.6	21.8	81.1	100.0 (255)
울산	31.5	17.8	20.4	19.7	18.4	23.7	97.0	100.0 (152)
경기	27.1	16.3	15.8	20.6	21.9	25.4	84.8	100.0 (2,009)
강원	32.1	18.3	23.2	27.6	15.7	15.2	80.5	100.0 (414)
충북	40.8	18.4	16.5	24.8	21.2	19.2	61.6	100.0 (382)
충남	37.1	22.6	20.7	21.7	22.8	12.2	70.5	100.0 (578)
전북	30.9	28.1	22.0	14.2	20.5	15.2	82.6	100.0 (532)
전남	38.9	33.5	28.8	20.0	10.2	7.6	91.1	100.0 (627)
경북	40.5	21.1	22.8	20.2	19.7	16.2	83.3	100.0 (776)
경남	31.1	26.9	25.9	19.2	15.0	13.0	75.4	100.0 (734)
제주	47.5	26.5	14.1	21.5	23.2	14.7	75.4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3-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 단독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명)

지역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국 ¹⁾	19.0	18.5	20.3	16.2	19.1	6.9	100.0 (6,956)
서울	24.9	22.6	17.8	14.2	13.8	6.7	100.0 (1,052)
부산	24.6	19.9	24.6	16.2	9.6	5.0	100.0 (458)
대구	20.3	20.7	22.7	12.9	20.0	3.5	100.0 (317)
인천	19.6	18.5	14.5	20.2	20.3	7.0	100.0 (313)
광주	17.7	16.3	27.4	15.5	15.7	7.5	100.0 (188)
대전	18.2	14.6	23.3	21.7	16.7	5.4	100.0 (185)
울산	23.2	20.7	22.8	14.6	15.2	3.6	100.0 (98)
경기	19.1	18.4	20.8	16.7	19.2	5.9	100.0(1,225)
강원	19.0	13.8	13.4	16.9	26.8	10.1	100.0 (289)
충북	18.3	21.1	20.8	15.2	18.0	6.6	100.0 (281)
충남	17.1	18.2	19.2	20.4	17.9	7.3	100.0 (415)
전북	19.8	19.7	22.4	12.9	19.1	6.1	100.0 (388)
전남	14.8	12.0	20.1	19.1	20.3	13.7	100.0 (511)
경북	14.3	16.2	20.1	14.2	29.5	5.7	100.0 (616)
경남	12.9	19.6	21.8	16.3	22.3	7.1	100.0 (523)
제주	11.4	18.0	22.3	15.6	21.8	10.9	100.0 (9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3-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지역	경제적 능력	건강	개인(부부) 생활 향유	기존거주지 거주 희망	자녀의 결혼	자녀의 별거희망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타	계 (명)
전국 ¹⁾	2.6	1.8	15.5	11.1	32.7	10.1	20.6	3.5	2.2	100.0 (6,983)
서울	4.3	1.3	14.9	4.5	43.1	10.4	11.1	5.7	4.8	100.0 (1,060)
부산	2.3	0.8	34.9	5.7	18.4	20.6	11.2	3.2	2.9	100.0 (458)
대구	1.5	1.5	7.5	6.1	43.7	12.9	24.0	1.1	1.7	100.0 (317)
인천	1.0	1.8	13.9	6.2	48.5	6.5	16.5	4.6	1.0	100.0 (313)
광주	6.8	6.2	11.8	13.8	34.7	7.1	15.1	2.8	1.7	100.0 (192)
대전	1.7	0.0	43.4	2.9	20.2	7.5	15.9	6.1	2.4	100.0 (185)
울산	0.1	1.0	6.3	10.1	50.7	12.0	17.0	2.5	0.4	100.0 (98)
경기	1.8	0.7	15.0	3.8	42.5	9.9	21.3	2.7	2.5	100.0(1,226)
강원	0.8	1.1	19.9	7.7	38.4	5.0	24.9	1.5	0.7	100.0 (291)
충북	7.1	2.5	18.1	35.2	13.6	3.5	18.6	1.0	0.3	100.0 (281)
충남	4.6	0.5	17.9	29.1	14.6	7.2	22.7	2.7	0.6	100.0 (415)
전북	5.5	3.5	4.4	15.5	30.8	12.2	19.2	6.5	2.7	100.0 (392)
전남	2.4	6.3	5.1	21.1	18.4	7.6	28.4	7.4	3.4	100.0 (518)
경북	0.4	1.6	8.5	14.0	28.1	9.2	37.0	1.1	0.3	100.0 (616)
경남	0.2	1.0	21.2	10.3	27.1	14.2	22.9	1.8	1.5	100.0 (523)
제주	2.7	1.4	12.3	21.4	39.9	4.3	14.5	1.6	1.9	100.0 (9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3-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지역	없음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 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기타	계 (명)
전국 ¹⁾	12.7	25.6	10.4	25.8	3.7	21.7	0.2	100.0 (6,984)
서울	18.4	24.3	6.7	25.6	5.7	18.2	1.1	100.0 (1,060)
부산	23.4	21.0	5.3	35.2	0.8	14.4	0.0	100.0 (458)
대구	6.9	29.8	8.3	31.8	0.8	22.4	0.0	100.0 (317)
인천	11.6	18.6	5.7	34.1	4.0	26.0	0.0	100.0 (313)
광주	1.6	39.2	26.1	12.6	1.8	18.7	0.0	100.0 (192)
대전	2.7	13.8	7.7	29.6	8.5	37.7	0.0	100.0 (185)
울산	4.7	25.3	7.5	24.4	6.1	31.5	0.5	100.0 (98)
경기	19.8	20.7	10.6	31.4	3.5	14.0	0.0	100.0 (1,226)
강원	20.1	22.8	8.0	25.9	2.9	20.1	0.2	100.0 (293)
충북	1.6	16.6	8.6	20.9	8.5	43.8	0.0	100.0 (281)
충남	0.7	22.6	4.9	29.8	4.9	36.8	0.3	100.0 (415)
전북	7.9	39.0	18.4	11.6	2.3	20.4	0.5	100.0 (392)
전남	4.1	36.4	23.0	20.0	1.2	15.2	0.0	100.0 (518)
경북	4.5	23.7	9.9	18.4	6.0	37.5	0.2	100.0 (616)
경남	18.8	34.5	9.7	26.3	1.0	9.7	0.0	100.0 (523)
제주	23.9	26.0	11.4	17.3	2.2	19.2	0.0	100.0 (9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단독가구 거주자 6,98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3-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지역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경제적 능력 부족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기타	계 (명)
전국 ¹⁾	15.6	6.4	15.4	24.4	21.8	16.0	0.3	100.0 (1,460)
서울	9.5	7.5	13.4	26.9	24.7	17.3	0.8	100.0 (316)
부산	16.0	3.6	11.6	18.2	21.3	29.4	0.0	100.0 (106)
대구	13.5	3.7	8.8	36.0	20.8	17.3	0.0	100.0 (55)
인천	11.0	18.5	13.9	17.7	19.5	19.3	0.0	100.0 (74)
광주	14.0	8.3	31.5	9.4	26.8	7.2	2.9	100.0 (32)
대전	5.2	20.2	35.8	15.8	13.0	10.0	0.0	100.0 (23)
울산	28.7	10.4	10.0	21.4	20.0	9.6	0.0	100.0 (20)
경기	13.8	4.7	16.7	27.0	21.6	16.1	0.3	100.0 (391)
강원	5.2	10.9	11.2	32.8	23.3	16.4	0.3	100.0 (56)
충북	42.3	5.2	19.0	15.3	16.8	1.0	0.4	100.0 (55)
충남	24.9	2.2	25.3	32.0	8.7	6.8	0.0	100.0 (56)
전북	23.5	3.2	13.0	20.3	21.4	18.6	0.0	100.0 (52)
전남	21.6	1.8	25.0	22.3	20.9	8.6	0.0	100.0 (54)
경북	23.8	8.2	9.6	20.1	21.1	17.2	0.0	100.0 (85)
경남	19.6	3.5	12.7	22.5	27.0	14.8	0.0	100.0 (80)
제주	8.6	2.7	12.4	15.2	49.0	12.2	0.0	100.0 (7)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3-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지역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국 ¹⁾	7.3	64.6	25.4	2.7	100.0 (1,454)
서울	9.5	59.2	28.3	3.0	100.0 (316)
부산	8.5	65.8	19.4	6.3	100.0 (106)
대구	6.6	56.0	25.7	11.8	100.0 (55)
인천	3.2	50.8	42.3	3.8	100.0 (70)
광주	5.0	56.0	36.2	2.9	100.0 (32)
대전	0.0	44.0	56.0	0.0	100.0 (23)
울산	7.0	78.6	14.4	0.0	100.0 (20)
경기	4.6	69.9	24.2	1.3	100.0 (391)
강원	6.7	58.4	32.1	2.8	100.0 (56)
충북	2.1	82.5	13.7	1.8	100.0 (55)
충남	3.4	81.5	15.1	0.0	100.0 (56)
전북	14.1	69.5	16.3	0.0	100.0 (50)
전남	12.4	70.2	13.4	4.1	100.0 (54)
경북	11.9	60.1	27.2	0.8	100.0 (85)
경남	11.2	62.8	23.2	2.8	100.0 (79)
제주	14.4	36.6	44.4	4.7	100.0 (7)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3-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지역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국 ¹⁾	20.7	31.1	45.6	2.6	100.0 (1,454)
서울	30.5	28.2	40.3	1.0	100.0 (316)
부산	19.7	24.2	41.4	14.7	100.0 (106)
대구	21.0	23.5	53.9	1.6	100.0 (55)
인천	22.7	25.0	51.9	0.5	100.0 (70)
광주	21.1	39.0	37.3	2.6	100.0 (32)
대전	9.8	24.1	66.0	0.0	100.0 (23)
울산	24.6	34.5	40.9	0.0	100.0 (20)
경기	16.6	29.0	53.6	0.8	100.0 (391)
강원	11.6	19.4	63.0	6.0	100.0 (56)
충북	16.0	43.5	40.5	0.0	100.0 (55)
충남	7.0	51.7	39.5	1.8	100.0 (56)
전북	16.0	53.4	27.1	3.5	100.0 (50)
전남	17.5	46.4	35.6	0.6	100.0 (54)
경북	27.1	29.4	40.0	3.6	100.0 (85)
경남	19.2	35.0	40.7	5.1	100.0 (79)
제주	27.4	16.3	46.2	10.1	100.0 (7)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기혼자녀 동거자 1,460명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4-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유무(율)

(단위: %)

지역	생존자녀 ¹⁾	생존 손자녀 ²⁾	생존 부모 ¹⁾	생존 배우자부모 ¹⁾	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³⁾	친한 친구 이웃 ³⁾
전국 ¹⁾	97.7	90.8	5.5	5.0	82.8	53.1	62.7
서울	97.2	85.0	8.5	7.4	85.1	60.2	65.7
부산	97.7	88.5	6.8	6.1	84.1	31.4	37.6
대구	97.1	91.5	4.7	5.2	85.4	46.3	50.0
인천	96.4	86.3	4.1	3.8	77.0	48.1	69.9
광주	97.3	94.1	5.6	4.6	84.0	72.3	78.8
대전	96.2	90.7	7.0	4.2	87.2	53.1	60.2
울산	98.6	93.4	4.4	2.9	81.9	71.5	95.2
경기	97.8	88.0	4.7	4.2	82.2	48.3	59.7
강원	99.1	91.6	2.4	4.6	79.4	51.6	73.5
충북	99.2	95.4	3.0	3.4	83.9	63.6	67.9
충남	98.4	96.3	5.6	4.0	86.3	64.3	67.6
전북	97.9	94.4	5.7	5.7	84.2	61.6	71.1
전남	97.6	96.1	4.5	3.0	79.2	58.4	71.4
경북	99.2	97.2	4.0	3.5	81.2	61.4	77.3
경남	97.8	94.3	4.6	5.5	81.7	34.7	41.2
제주	97.6	93.2	5.9	5.1	75.1	46.3	50.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4-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단위: 명)

지역	생존자녀	생존 손자녀수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전국 ¹⁾	3.4	5.5	2.7	1.1	1.6
서울	2.9	4.0	2.8	1.2	1.8
부산	3.1	4.6	2.8	0.6	0.9
대구	3.2	5.2	2.8	0.9	1.1
인천	3.2	4.9	2.3	0.9	1.5
광주	3.7	6.1	2.8	1.3	1.9
대전	3.3	5.4	4.9	1.2	2.2
울산	3.1	4.8	2.6	1.4	2.4
경기	3.1	4.9	2.6	1.0	1.6
강원	3.6	5.4	2.3	1.0	1.6
충북	3.8	6.7	2.5	1.6	2.2
충남	3.8	6.5	2.9	1.4	2.2
전북	4.0	6.7	2.9	1.2	1.8
전남	4.3	7.8	2.6	1.0	1.8
경북	3.7	6.3	2.7	1.1	1.9
경남	3.6	6.3	2.7	0.7	1.0
제주	3.9	7.3	2.2	1.2	1.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중 무응답 3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지역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국 ¹⁾	1.2	33.6	21.4	35.9	7.9	100.0 (6,338)
서울	1.7	32.7	21.4	36.5	7.7	100.0 (1,162)
부산	0.8	28.3	19.6	36.2	15.1	100.0 (440)
대구	3.2	34.9	26.6	30.2	5.2	100.0 (308)
인천	0.5	29.4	27.9	36.9	5.2	100.0 (264)
광주	0.9	34.2	24.6	32.9	7.6	100.0 (169)
대전	1.5	49.9	16.6	29.2	2.8	100.0 (158)
울산	0.5	31.8	20.1	37.6	10.1	100.0 (85)
경기	0.8	36.7	20.7	34.5	7.3	100.0 (1,224)
강원	1.0	27.3	30.6	37.1	4.0	100.0 (241)
충북	0.4	39.2	21.7	34.1	4.6	100.0 (230)
충남	2.2	37.9	16.6	36.7	6.6	100.0 (352)
전북	0.4	26.4	20.3	38.4	14.6	100.0 (325)
전남	0.7	37.0	15.3	33.3	13.7	100.0 (380)
경북	1.1	34.5	21.9	36.9	5.7	100.0 (497)
경남	1.8	27.5	23.0	42.9	4.8	100.0 (418)
제주	1.6	31.2	16.7	41.6	8.9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4-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실태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 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전국 ¹⁾	14.7	6.8	8.3	16.7	28.5	12.3	12.8	100.0 (6,338)
서울	19.6	5.4	8.0	15.6	29.7	8.2	13.5	100.0 (1,162)
부산	21.4	8.1	7.9	18.6	27.7	7.1	9.0	100.0 (440)
대구	6.9	10.1	6.1	25.8	31.1	11.3	8.8	100.0 (308)
인천	7.4	2.3	7.6	21.7	26.8	14.0	20.2	100.0 (264)
광주	7.9	8.1	8.5	11.6	27.5	25.0	11.6	100.0 (169)
대전	8.5	9.0	13.4	15.7	34.8	10.9	7.6	100.0 (158)
울산	12.8	2.8	10.2	11.3	40.8	11.5	10.7	100.0 (85)
경기	17.9	5.2	8.3	22.0	21.3	13.1	12.3	100.0 (1,224)
강원	18.9	6.5	2.2	8.5	30.2	8.6	25.2	100.0 (241)
충북	2.7	6.8	7.9	21.9	40.9	14.2	5.7	100.0 (230)
충남	4.7	18.2	7.8	12.6	34.4	14.0	8.3	100.0 (352)
전북	17.0	4.9	9.9	12.2	34.4	10.8	10.9	100.0 (325)
전남	20.4	2.8	6.4	13.1	24.6	16.0	16.8	100.0 (380)
경북	11.4	10.1	11.3	13.1	27.8	13.8	12.4	100.0 (497)
경남	10.1	6.6	9.7	11.8	29.3	16.4	16.0	100.0 (418)
제주	13.3	3.2	8.1	18.6	26.7	18.0	12.0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Ⅱ-4-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8.7	54.3	24.1	2.8	100.0 (6,338)
서울	19.5	51.0	24.2	5.4	100.0 (1,162)
부산	11.9	53.3	31.9	3.0	100.0 (440)
대구	21.0	56.0	19.3	3.7	100.0 (308)
인천	7.9	56.1	35.2	0.8	100.0 (264)
광주	19.4	57.8	21.6	1.2	100.0 (169)
대전	29.5	52.2	16.8	1.5	100.0 (158)
울산	14.1	62.2	21.5	2.2	100.0 (85)
경기	26.3	49.4	21.0	3.4	100.0 (1,224)
강원	12.1	55.0	30.9	2.1	100.0 (241)
충북	29.8	60.3	8.9	0.9	100.0 (230)
충남	30.7	55.5	13.0	0.9	100.0 (352)
전북	11.9	60.6	25.5	1.9	100.0 (325)
전남	16.9	54.9	28.2	0.0	100.0 (380)
경북	8.4	64.5	25.4	1.6	100.0 (497)
경남	11.1	50.4	34.1	4.4	100.0 (418)
제주	16.4	60.3	21.8	1.5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Ⅱ-4-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에 대한 신뢰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1.6	62.7	5.2	0.6	100.0 (6,338)
서울	32.1	60.2	6.2	1.5	100.0 (1,162)
부산	28.6	64.3	6.9	0.3	100.0 (440)
대구	33.5	61.5	4.0	1.0	100.0 (308)
인천	14.1	81.4	4.5	0.0	100.0 (264)
광주	26.2	65.6	8.2	0.0	100.0 (169)
대전	48.5	50.6	1.0	0.0	100.0 (158)
울산	23.6	69.4	6.8	0.2	100.0 (85)
경기	41.3	52.9	5.3	0.6	100.0 (1,224)
강원	20.8	75.2	4.0	0.0	100.0 (241)
충북	47.1	50.9	2.0	0.0	100.0 (230)
충남	46.4	52.5	1.1	0.0	100.0 (352)
전북	21.5	71.5	6.8	0.2	100.0 (325)
전남	22.4	70.4	7.2	0.0	100.0 (380)
경북	23.1	71.2	5.7	0.0	100.0 (497)
경남	24.4	70.5	3.7	1.4	100.0 (418)
제주	24.2	70.0	5.4	0.4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4-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지역	갈등 경험률 ¹⁾	이유							계 (명)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부양	가사 분담	이해 부족	생활 습관	기타	
전국	16.8	23.2	3.9	0.2	5.2	6.1	58.1	3.4	100.0 (1,064) ²⁾
서울	20.3	38.4	0.8	0.0	3.4	5.8	50.0	1.6	100.0 (236)
부산	14.2	28.4	2.1	0.0	3.5	4.5	47.7	13.8	100.0 (62)
대구	17.8	16.6	13.8	0.0	5.2	3.7	60.8	0.0	100.0 (55)
인천	15.5	15.5	11.2	0.0	6.4	4.3	55.8	6.8	100.0 (41)
광주	7.0	0.0	0.0	0.0	14.6	19.9	65.5	0.0	100.0 (12)
대전	11.2	5.5	0.0	0.0	27.4	0.0	55.3	11.9	100.0 (18)
울산	15.8	25.5	5.2	0.0	4.6	0.0	64.6	0.0	100.0 (13)
경기	18.4	16.4	1.7	0.0	5.1	2.6	71.1	3.1	100.0 (225)
강원	9.9	46.3	0.0	0.0	3.1	14.2	26.2	10.3	100.0 (24)
충북	10.5	41.1	21.9	0.0	9.1	0.9	25.8	1.3	100.0 (24)
충남	10.0	31.8	7.4	1.4	10.1	15.0	29.0	5.3	100.0 (35)
전북	20.3	10.5	5.8	0.0	7.6	23.6	46.8	5.7	100.0 (66)
전남	8.3	1.5	9.4	0.0	0.0	10.0	78.3	0.8	100.0 (32)
경북	25.2	18.1	3.9	0.0	6.5	2.8	68.3	0.5	100.0 (130)
경남	21.0	20.6	2.1	2.0	1.4	4.5	65.8	3.6	100.0 (88)
제주	10.6	15.4	0.0	0.0	0.0	10.8	73.9	0.0	100.0 (9)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1,0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4-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10.8	9.2	17.7	31.5	20.2	8.8	1.8	100.0 (9,745)
서울	11.9	9.9	19.9	29.8	17.6	8.6	2.3	100.0 (1,682)
부산	14.8	9.0	19.4	28.6	17.9	7.2	3.2	100.0 (701)
대구	17.8	8.5	20.1	33.9	16.2	2.6	0.7	100.0 (445)
인천	9.3	5.9	17.1	44.0	16.6	5.6	1.7	100.0 (428)
광주	6.5	5.5	9.7	34.6	29.4	13.4	0.9	100.0 (248)
대전	10.7	9.4	20.7	24.9	30.7	2.1	1.6	100.0 (236)
울산	20.2	11.8	18.5	28.5	12.7	5.8	2.6	100.0 (148)
경기	10.3	8.3	19.0	32.9	16.1	11.0	2.4	100.0 (1,861)
강원	6.5	5.2	12.7	27.8	31.0	16.2	0.6	100.0 (396)
충북	9.5	12.5	22.9	37.0	14.8	2.4	0.9	100.0 (367)
충남	8.0	8.2	16.3	31.9	29.8	4.7	1.3	100.0 (555)
전북	4.2	11.1	13.9	28.9	27.8	12.4	1.8	100.0 (510)
전남	6.7	6.3	11.7	29.6	30.2	15.2	0.3	100.0 (610)
경북	10.7	13.2	17.5	32.4	20.9	4.2	1.1	100.0 (755)
경남	13.6	11.2	15.9	31.2	15.9	10.5	1.7	100.0 (682)
제주	26.1	10.1	21.1	21.3	6.9	10.0	4.8	100.0 (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4-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²⁾	계 (명)
전국 ¹⁾	25.9	24.9	22.1	19.3	4.2	1.5	2.0	100.0 (9,745)
서울	23.3	23.8	23.1	20.1	5.6	1.8	2.3	100.0 (1,682)
부산	24.0	26.2	20.9	21.0	3.3	1.5	3.1	100.0 (701)
대구	29.8	35.8	17.8	13.9	0.9	0.0	1.8	100.0 (445)
인천	18.2	28.3	28.2	20.3	3.0	0.7	1.1	100.0 (428)
광주	27.3	22.0	19.4	17.8	11.1	1.1	1.4	100.0 (248)
대전	22.5	22.5	25.5	24.0	1.9	1.0	2.6	100.0 (236)
울산	32.2	22.9	24.1	17.3	0.9	0.3	2.3	100.0 (148)
경기	23.0	19.0	24.4	23.9	4.8	2.7	2.2	100.0 (1,861)
강원	12.9	19.4	27.2	32.4	5.7	0.8	1.5	100.0 (396)
충북	39.0	38.2	13.1	6.6	1.1	0.6	1.4	100.0 (367)
충남	31.4	25.1	23.2	15.8	0.7	1.4	2.5	100.0 (555)
전북	24.1	24.3	18.7	18.3	9.4	2.5	2.7	100.0 (510)
전남	27.2	26.9	14.5	23.1	5.1	2.0	1.3	100.0 (610)
경북	32.4	29.0	21.9	13.0	2.2	0.5	1.0	100.0 (755)
경남	33.4	25.5	23.4	12.1	3.7	0.3	1.6	100.0 (682)
제주	24.9	28.0	23.9	18.2	2.2	1.1	1.7	100.0 (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포함

〈부표Ⅱ-4-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9.5	6.7	16.9	32.4	22.2	10.3	2.0	100.0 (9,745)
서울	11.1	9.0	18.8	29.4	19.9	9.5	2.4	100.0 (1,682)
부산	13.4	6.5	16.1	31.1	19.4	10.0	3.6	100.0 (701)
대구	13.6	8.9	15.7	40.4	18.1	2.6	0.7	100.0 (445)
인천	8.3	4.6	16.3	45.1	18.2	5.9	1.7	100.0 (428)
광주	3.6	3.5	11.6	35.2	30.4	14.8	0.9	100.0 (248)
대전	10.2	9.6	17.8	26.4	28.9	5.6	1.6	100.0 (236)
울산	14.6	8.3	18.5	29.0	18.9	8.2	2.6	100.0 (148)
경기	9.2	6.2	18.8	33.1	18.7	11.1	2.9	100.0 (1,861)
강원	6.5	4.8	12.7	27.6	31.5	16.3	0.6	100.0 (396)
충북	8.8	6.1	22.4	41.5	16.8	3.5	0.9	100.0 (367)
충남	6.6	6.1	15.4	31.8	30.4	8.4	1.3	100.0 (555)
전북	3.3	7.9	12.7	27.7	29.7	16.9	1.8	100.0 (510)
전남	5.3	4.6	11.3	29.8	29.0	19.7	0.4	100.0 (610)
경북	8.5	5.7	18.5	35.0	25.2	6.2	1.0	100.0 (755)
경남	12.2	6.8	16.7	30.6	19.9	12.0	1.9	100.0 (682)
제주	24.9	7.5	21.2	23.2	7.2	10.9	5.1	100.0 (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전혀 접촉이 없는 116명 포함)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17.9	20.3	28.5	24.4	5.0	1.7	2.3	100.0 (9,745)
서울	20.5	21.9	24.2	22.3	6.3	2.2	2.5	100.0 (1,682)
부산	17.4	19.1	27.6	26.0	4.5	1.3	4.1	100.0 (701)
대구	17.2	28.6	27.8	20.1	3.3	1.2	1.8	100.0 (445)
인천	13.3	20.7	37.0	23.6	3.4	0.7	1.4	100.0 (428)
광주	20.3	20.7	24.8	20.3	11.2	1.2	1.5	100.0 (248)
대전	20.7	19.8	24.2	29.8	1.9	1.0	2.6	100.0 (236)
울산	20.3	17.7	36.1	21.8	1.6	0.3	2.2	100.0 (148)
경기	18.0	16.3	28.2	27.2	5.0	2.7	2.5	100.0 (1,861)
강원	12.7	19.0	27.3	32.9	5.0	1.7	1.5	100.0 (396)
충북	16.1	23.0	38.2	19.3	0.6	1.0	1.9	100.0 (367)
충남	18.5	22.1	30.3	22.8	1.8	1.7	2.9	100.0 (555)
전북	17.0	19.7	23.2	22.8	10.8	2.9	3.7	100.0 (510)
전남	13.8	24.5	21.5	29.8	7.2	2.0	1.3	100.0 (610)
경북	20.3	19.9	35.1	20.3	3.1	0.5	0.9	100.0 (755)
경남	18.7	18.2	32.4	23.3	5.1	0.4	1.9	100.0 (682)
제주	13.7	18.5	36.1	24.0	2.5	1.5	3.7	100.0 (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745명(전혀 접촉이 없는 116명 포함)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지역	갈등 경험률 ¹⁾	이유							계 (명)
		동거 여부	수발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편애	자녀 장래 문제	기타	
전국	9.3	11.9	7.7	20.9	20.6	1.6	29.4	8.0	100.0 (929) ²⁾
서울	12.4	17.2	7.8	24.1	19.2	0.7	19.7	11.4	100.0 (222)
부산	10.5	11.2	3.6	11.1	18.3	0.0	40.7	15.0	100.0 (76)
대구	10.7	15.2	1.7	31.1	8.5	0.0	40.8	2.7	100.0 (49)
인천	12.0	18.8	4.0	20.4	39.6	1.0	14.1	2.1	100.0 (53)
광주	7.5	12.9	18.6	7.6	17.2	0.0	43.7	0.0	100.0 (19)
대전	3.4	0.0	7.9	12.4	23.8	0.0	17.3	38.6	100.0 (8)
울산	15.2	9.8	15.7	18.3	8.4	5.3	29.0	13.6	100.0 (23)
경기	9.7	7.9	7.9	22.7	18.6	1.6	34.6	6.7	100.0 (188)
강원	8.3	10.0	25.5	14.9	30.8	3.1	8.1	7.6	100.0 (33)
충북	3.7	0.0	1.4	25.9	14.4	0.0	53.7	4.6	100.0 (14)
충남	3.5	18.6	7.3	35.3	17.8	0.0	17.1	4.0	100.0 (20)
전북	9.2	13.4	14.4	14.2	23.1	0.0	31.5	3.5	100.0 (48)
전남	6.6	15.1	12.5	26.7	24.9	3.9	14.3	2.7	100.0 (40)
경북	6.8	2.2	6.3	26.5	12.1	3.9	44.1	4.9	100.0 (52)
경남	10.9	8.3	0.7	10.9	30.2	5.2	37.7	7.0	100.0 (76)
제주	6.8	0.0	0.0	22.7	15.2	0.0	46.0	16.2	100.0 (8)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생존자녀가 있는 10,055명을 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929명을 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4-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양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양래 없음	계 (명)
전국 ¹⁾	6.4	2.9	7.3	19.1	25.3	35.0	4.1	100.0 (9,292)
서울	10.8	4.9	10.6	20.8	22.8	25.3	5.0	100.0 (1,564)
부산	8.4	3.6	10.7	16.3	25.8	31.1	4.1	100.0 (650)
대구	9.2	3.3	4.5	24.0	33.1	25.6	0.4	100.0 (430)
인천	4.8	3.2	7.8	27.3	20.1	34.8	2.0	100.0 (398)
광주	3.3	1.6	3.5	15.8	32.3	41.2	2.3	100.0 (242)
대전	8.4	4.2	10.3	17.3	36.0	22.6	1.4	100.0 (227)
울산	8.7	5.7	10.6	21.9	24.7	25.9	2.5	100.0 (141)
경기	6.9	2.8	8.9	23.1	23.5	30.3	4.5	100.0 (1,739)
강원	5.0	2.3	3.6	16.1	17.7	52.4	2.8	100.0 (370)
충북	4.5	1.0	6.0	27.6	31.0	28.1	1.8	100.0 (357)
충남	2.6	2.1	7.8	18.0	36.0	31.3	2.1	100.0 (544)
전북	1.4	3.5	3.1	10.9	20.6	56.6	4.0	100.0 (498)
전남	1.8	1.3	2.0	6.3	21.8	60.6	6.3	100.0 (602)
경북	4.7	1.5	6.7	17.9	29.6	36.9	2.8	100.0 (747)
경남	5.6	1.4	4.4	17.1	23.7	39.8	8.2	100.0 (667)
제주	11.2	2.1	10.3	18.3	11.8	36.7	9.7	100.0 (11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9,29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4-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4.0	4.5	9.8	20.7	14.5	19.6	0.0	26.9	100.0 (9,292)
서울	9.4	8.2	11.1	19.4	8.6	9.8	0.0	33.5	100.0 (1,564)
부산	2.7	3.4	11.8	15.0	12.1	30.7	0.0	24.5	100.0 (650)
대구	3.4	5.6	13.5	26.0	17.2	13.2	0.0	21.0	100.0 (430)
인천	3.4	8.9	13.3	18.9	14.9	12.9	0.0	27.7	100.0 (398)
광주	0.8	2.8	8.2	24.8	29.3	21.9	0.0	12.1	100.0 (242)
대전	2.7	3.0	8.8	34.6	13.7	14.0	0.0	23.1	100.0 (227)
울산	7.0	5.1	11.1	18.8	16.5	22.7	0.0	18.7	100.0 (141)
경기	3.6	4.2	10.1	16.9	10.5	19.6	0.0	35.2	100.0 (1,739)
강원	2.5	4.7	12.4	16.7	11.8	20.5	0.0	31.4	100.0 (370)
충북	1.8	3.2	9.7	36.9	14.4	25.5	0.0	8.6	100.0 (357)
충남	1.7	3.4	7.6	29.4	17.3	21.9	0.0	18.8	100.0 (544)
전북	3.3	2.9	5.1	16.2	18.2	30.4	0.1	23.8	100.0 (498)
전남	0.9	1.5	5.9	19.4	19.5	30.9	0.0	21.9	100.0 (602)
경북	5.3	3.4	9.5	24.9	21.6	19.6	0.0	15.7	100.0 (747)
경남	2.4	2.8	8.1	16.2	17.8	17.4	0.0	35.4	100.0 (667)
제주	1.6	2.8	8.8	27.2	9.5	15.7	0.0	34.4	100.0 (117)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9,29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2.4	1.3	1.9	9.8	17.1	45.2	0.2	22.2	100.0 (10,236)
서울	1.2	0.9	2.1	10.9	18.1	44.2	0.1	22.4	100.0 (1,838)
부산	2.8	0.8	2.4	10.2	18.9	39.5	0.3	25.1	100.0 (742)
대구	2.1	0.3	1.9	9.0	21.7	47.8	0.0	17.2	100.0 (472)
인천	0.7	0.0	1.0	8.0	19.1	43.6	1.1	26.6	100.0 (454)
광주	0.4	0.0	0.4	8.2	18.5	56.7	0.0	15.9	100.0 (257)
대전	1.8	0.8	1.2	9.1	19.5	42.6	0.0	25.0	100.0 (252)
울산	2.4	1.4	2.9	9.4	16.2	45.6	0.0	22.0	100.0 (152)
경기	2.2	1.7	1.9	9.5	15.9	42.1	0.4	26.3	100.0 (1,984)
강원	1.5	0.8	2.2	10.1	17.9	47.0	0.8	19.6	100.0 (386)
충북	4.7	3.0	1.4	10.6	15.1	56.7	0.0	8.5	100.0 (374)
충남	2.2	2.5	1.8	7.2	19.8	49.5	0.0	17.1	100.0 (569)
전북	2.1	0.7	2.0	7.8	11.4	50.8	0.3	24.9	100.0 (525)
전남	2.7	0.9	0.7	8.1	14.2	46.6	0.2	26.7	100.0 (626)
경북	5.2	2.5	3.0	10.1	15.0	45.9	0.0	18.4	100.0 (769)
경남	3.1	1.0	1.7	11.9	17.9	44.1	0.1	20.2	100.0 (710)
제주	3.9	4.2	4.5	18.3	19.7	29.7	0.0	19.7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4-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2.8	3.4	8.0	29.2	21.5	19.5	0.0	15.6	100.0 (10,236)
서울	3.4	5.6	8.8	32.3	18.4	15.9	0.0	15.8	100.0 (1,838)
부산	2.7	3.0	9.1	26.5	21.2	19.2	0.0	18.3	100.0 (743)
대구	2.5	4.7	8.0	30.6	21.3	21.8	0.0	11.1	100.0 (472)
인천	2.2	2.2	9.6	31.5	20.1	15.1	0.3	19.2	100.0 (454)
광주	2.0	1.3	6.1	25.6	27.9	28.2	0.0	8.8	100.0 (257)
대전	1.5	2.7	4.9	30.9	31.1	18.0	0.0	11.0	100.0 (252)
울산	2.8	2.9	10.7	31.6	17.0	17.0	0.0	18.0	100.0 (152)
경기	3.4	2.8	6.9	29.3	21.1	18.1	0.1	18.4	100.0 (1,982)
강원	1.5	2.2	9.7	26.2	30.3	16.5	0.5	13.1	100.0 (387)
충북	2.4	3.9	10.0	28.3	20.2	27.1	0.0	8.1	100.0 (374)
충남	2.6	3.3	7.7	34.4	18.2	21.6	0.0	12.3	100.0 (569)
전북	2.9	2.2	5.6	20.9	21.1	28.1	0.0	19.2	100.0 (524)
전남	2.2	1.5	4.7	22.7	21.2	27.7	0.0	20.1	100.0 (626)
경북	3.4	3.9	10.9	30.7	22.6	17.5	0.0	11.0	100.0 (769)
경남	2.2	3.0	8.3	28.7	25.1	17.2	0.1	15.5	100.0 (710)
제주	2.4	1.6	6.8	34.2	25.9	15.0	0.0	14.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5명을 제외함.

〈부표 II-4-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기타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52.2	15.2	11.7	11.6	1.7	1.3	0.0	6.3	100.0 (10,279)
서울	31.9	16.5	15.8	18.1	4.0	2.0	0.0	11.6	100.0 (1,844)
부산	64.7	15.0	8.0	9.4	1.5	0.3	0.0	1.1	100.0 (745)
대구	59.7	14.4	8.1	9.8	0.8	0.0	0.0	7.2	100.0 (472)
인천	42.2	19.7	16.3	13.9	0.9	2.3	0.0	4.8	100.0 (463)
광주	46.5	23.1	14.0	13.2	0.3	0.2	0.0	2.7	100.0 (257)
대전	66.2	14.7	10.1	8.1	0.3	0.0	0.0	0.7	100.0 (252)
울산	33.3	17.1	18.5	23.4	1.3	2.4	0.0	4.2	100.0 (152)
경기	44.8	12.0	12.4	14.8	2.5	1.8	0.1	11.7	100.0 (1,989)
강원	51.9	11.5	13.6	10.2	0.5	4.4	0.0	8.1	100.0 (404)
충북	66.9	14.7	10.6	6.1	0.6	0.8	0.0	0.2	100.0 (374)
충남	65.8	16.8	10.3	5.4	0.3	0.4	0.0	0.9	100.0 (569)
전북	55.6	19.5	9.7	9.9	0.9	0.0	0.0	4.4	100.0 (528)
전남	73.2	11.4	6.9	3.7	0.2	0.9	0.0	3.7	100.0 (626)
경북	55.0	17.1	11.5	10.8	1.5	1.0	0.0	3.2	100.0 (769)
경남	72.9	12.9	6.8	5.0	0.6	0.6	0.0	1.3	100.0 (710)
제주	46.8	22.4	16.0	8.1	3.2	1.2	0.0	2.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19.8	18.7	21.7	19.1	3.3	1.8	15.6	100.0 (10,279)
서울	18.7	19.6	20.0	17.3	4.1	2.4	17.9	100.0 (1,844)
부산	15.9	19.5	19.7	23.3	8.0	3.6	10.0	100.0 (745)
대구	18.6	25.0	21.1	16.3	2.4	1.5	15.1	100.0 (472)
인천	16.2	26.3	25.4	13.6	2.2	2.2	14.0	100.0 (463)
광주	25.3	16.4	18.4	26.9	3.6	0.5	9.0	100.0 (257)
대전	8.6	17.2	38.5	20.6	2.3	0.8	11.9	100.0 (252)
울산	23.0	19.4	27.1	16.9	2.9	2.9	7.9	100.0 (152)
경기	21.1	14.0	18.4	18.8	2.5	2.3	23.0	100.0 (1,989)
강원	19.7	16.4	24.7	18.0	3.2	1.2	16.8	100.0 (404)
충북	18.4	22.4	26.3	23.9	1.4	0.2	7.4	100.0 (374)
충남	19.6	24.7	26.5	16.5	0.4	0.7	11.6	100.0 (569)
전북	21.3	13.8	20.2	20.2	4.0	0.9	19.7	100.0 (528)
전남	24.0	15.0	20.7	22.4	2.1	1.0	14.8	100.0 (626)
경북	26.2	20.2	23.8	16.7	3.1	1.5	8.5	100.0 (769)
경남	20.0	21.6	20.2	19.2	3.7	1.4	13.9	100.0 (710)
제주	4.4	11.8	24.8	31.9	8.8	2.0	16.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4-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원 외의 방문 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2회	한 달 1회 미만	없음	계 (명)
전국 ¹⁾	21.2	20.3	19.7	19.2	10.5	9.0	100.0 (10,279)
서울	14.4	19.3	16.0	22.0	13.6	14.7	100.0 (1,844)
부산	20.8	20.4	23.2	19.8	13.5	2.3	100.0 (745)
대구	29.3	24.3	18.6	16.1	11.7	0.0	100.0 (472)
인천	23.3	15.9	20.3	18.9	10.7	10.8	100.0 (463)
광주	17.1	16.8	11.1	15.7	27.9	11.5	100.0 (257)
대전	15.1	18.2	33.1	25.5	2.7	5.5	100.0 (252)
울산	19.2	21.3	16.0	27.1	13.7	2.7	100.0 (152)
경기	15.9	14.5	18.8	19.2	11.8	19.9	100.0 (1,989)
강원	18.2	13.9	25.3	21.9	7.7	13.0	100.0 (404)
충북	21.2	32.0	22.6	20.8	2.6	0.9	100.0 (374)
충남	17.2	27.6	27.9	21.3	4.8	1.1	100.0 (569)
전북	29.2	31.2	13.6	10.3	10.7	5.1	100.0 (528)
전남	35.2	23.7	18.6	13.4	5.5	3.6	100.0 (626)
경북	26.5	21.9	17.3	20.7	10.6	3.0	100.0 (769)
경남	31.3	20.2	24.1	17.1	5.5	1.8	100.0 (710)
제주	29.1	20.9	23.6	18.3	6.9	1.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3.8	61.2	19.0	6.0	100.0 (6,338)
서울	14.8	51.7	20.5	12.9	100.0 (1,162)
부산	6.5	56.8	32.0	4.7	100.0 (440)
대구	18.7	66.4	10.9	4.1	100.0 (308)
인천	7.6	68.5	22.3	1.6	100.0 (264)
광주	14.8	64.7	17.1	3.4	100.0 (169)
대전	29.4	55.1	11.8	3.8	100.0 (158)
울산	7.8	76.7	12.9	2.6	100.0 (85)
경기	17.1	58.1	14.9	9.9	100.0 (1,224)
강원	11.8	55.4	31.6	1.3	100.0 (241)
충북	22.0	69.7	5.6	2.8	100.0 (230)
충남	19.3	68.9	10.2	1.7	100.0 (352)
전북	12.2	64.4	21.0	2.5	100.0 (325)
전남	12.3	65.1	20.3	2.3	100.0 (380)
경북	6.2	75.8	16.1	1.9	100.0 (497)
경남	8.7	57.9	29.8	3.6	100.0 (418)
제주	10.7	68.0	19.2	2.2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5-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3.7	62.9	18.2	5.3	100.0 (6,338)
서울	16.2	52.6	19.2	12.0	100.0 (1,162)
부산	6.9	56.9	33.7	2.6	100.0 (440)
대구	16.4	69.7	9.2	4.7	100.0 (308)
인천	8.5	69.9	21.6	0.0	100.0 (264)
광주	13.5	69.9	14.5	2.2	100.0 (169)
대전	27.5	56.9	12.4	3.3	100.0 (158)
울산	8.3	77.8	11.5	2.4	100.0 (85)
경기	16.6	58.8	15.0	9.6	100.0 (1,224)
강원	10.6	61.3	26.9	1.3	100.0 (241)
충북	23.8	69.5	5.4	1.3	100.0 (230)
충남	19.6	69.6	9.8	1.1	100.0 (352)
전북	11.6	67.7	18.5	2.2	100.0 (325)
전남	11.8	69.2	18.4	0.7	100.0 (380)
경북	6.2	77.9	15.2	0.7	100.0 (497)
경남	6.6	59.0	29.7	4.7	100.0 (418)
제주	10.2	70.4	18.0	1.4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5-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9.2	47.5	13.9	9.3	100.0 (6,338)
서울	31.7	45.2	11.1	12.0	100.0 (1,162)
부산	24.1	53.4	15.0	7.5	100.0 (440)
대구	23.5	53.6	10.8	12.1	100.0 (308)
인천	24.0	56.9	13.5	5.7	100.0 (264)
광주	32.4	37.3	23.5	6.9	100.0 (169)
대전	40.8	42.5	10.0	6.7	100.0 (158)
울산	23.7	57.3	14.5	4.6	100.0 (85)
경기	30.6	46.4	13.6	9.3	100.0 (1,224)
강원	25.2	52.4	14.9	7.4	100.0 (241)
충북	46.6	28.5	10.4	14.5	100.0 (230)
충남	34.5	51.9	9.2	4.5	100.0 (352)
전북	33.6	37.7	19.9	8.9	100.0 (325)
전남	27.0	42.5	22.1	8.4	100.0 (380)
경북	19.2	57.7	14.6	8.5	100.0 (497)
경남	24.7	50.6	13.5	11.2	100.0 (418)
제주	33.0	40.7	15.8	10.5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5-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5.2	48.3	17.3	9.2	100.0 (6,338)
서울	30.5	44.7	15.6	9.2	100.0 (1,162)
부산	20.2	52.9	20.6	6.4	100.0 (440)
대구	19.9	51.3	15.8	13.1	100.0 (308)
인천	19.5	56.1	17.8	6.7	100.0 (264)
광주	24.2	38.4	30.5	7.0	100.0 (169)
대전	35.0	47.8	11.8	5.5	100.0 (158)
울산	22.2	60.2	11.1	6.6	100.0 (85)
경기	26.7	47.3	14.7	11.3	100.0 (1,224)
강원	26.4	50.0	16.1	7.5	100.0 (241)
충북	33.8	38.6	10.8	16.9	100.0 (230)
충남	24.1	58.8	11.2	5.9	100.0 (352)
전북	27.5	39.3	24.3	8.9	100.0 (325)
전남	21.9	46.9	26.5	4.7	100.0 (380)
경북	18.5	56.6	17.2	7.8	100.0 (497)
경남	20.1	46.1	20.5	13.4	100.0 (418)
제주	28.2	45.4	17.7	8.8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5-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4.5	50.1	20.4	15.0	100.0 (6,338)
서울	18.4	44.2	17.5	20.0	100.0 (1,162)
부산	4.7	35.9	32.2	27.3	100.0 (440)
대구	10.0	54.8	16.9	18.3	100.0 (308)
인천	9.6	65.5	17.5	7.4	100.0 (264)
광주	14.9	62.1	19.3	3.8	100.0 (169)
대전	36.1	45.5	3.3	15.2	100.0 (158)
울산	17.4	60.3	16.4	6.0	100.0 (85)
경기	12.8	41.5	22.6	23.1	100.0 (1,224)
강원	12.4	67.7	15.6	4.4	100.0 (241)
충북	13.3	52.8	27.5	6.4	100.0 (230)
충남	23.3	57.8	13.8	5.1	100.0 (352)
전북	19.0	51.6	21.5	8.0	100.0 (325)
전남	15.1	59.7	20.0	5.2	100.0 (380)
경북	13.2	61.7	16.9	8.2	100.0 (497)
경남	8.9	43.5	30.3	17.3	100.0 (418)
제주	15.1	63.9	15.6	5.4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Ⅱ-5-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4.1	51.9	19.9	14.1	100.0 (6,338)
서울	17.8	46.3	17.7	18.2	100.0 (1,162)
부산	6.7	37.2	29.7	26.5	100.0 (440)
대구	8.5	50.8	20.8	19.9	100.0 (308)
인천	7.4	69.3	17.6	5.6	100.0 (264)
광주	15.3	63.2	16.8	4.8	100.0 (169)
대전	34.4	47.6	3.7	14.3	100.0 (158)
울산	16.3	65.1	13.7	4.9	100.0 (85)
경기	13.1	43.5	20.4	23.0	100.0 (1,224)
강원	14.5	68.0	14.5	3.1	100.0 (241)
충북	13.0	53.8	27.4	5.8	100.0 (230)
충남	21.7	59.3	14.7	4.3	100.0 (352)
전북	16.0	56.1	22.8	5.2	100.0 (325)
전남	14.7	63.3	20.0	2.0	100.0 (380)
경북	13.3	62.7	16.9	7.1	100.0 (497)
경남	8.2	44.7	28.9	18.2	100.0 (418)
제주	12.1	69.6	12.9	5.4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배우자가 있는 6,338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부표Ⅱ-5-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7.4	53.4	27.6	11.5	100.0 (2,924)
서울	5.2	45.7	27.2	22.0	100.0 (711)
부산	1.5	45.6	48.8	4.1	100.0 (258)
대구	12.1	70.3	16.9	0.7	100.0 (139)
인천	1.6	70.5	25.0	2.9	100.0 (140)
광주	7.7	69.3	21.1	2.0	100.0 (58)
대전	15.3	55.3	27.5	2.0	100.0 (57)
울산	3.9	71.1	17.0	8.0	100.0 (53)
경기	5.3	51.0	26.3	17.3	100.0 (681)
강원	10.1	60.1	24.6	5.3	100.0 (103)
충북	32.0	56.0	11.0	1.0	100.0 (83)
충남	21.3	51.6	26.0	1.2	100.0 (117)
전북	13.1	55.6	26.4	4.9	100.0 (111)
전남	10.5	71.8	16.9	0.8	100.0 (88)
경북	6.6	60.2	25.9	7.4	100.0 (141)
경남	6.5	47.1	37.9	8.5	100.0 (158)
제주	3.1	52.4	33.2	11.4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5.3	50.6	32.1	12.0	100.0 (2,924)
서울	4.4	45.9	27.2	22.5	100.0 (711)
부산	2.7	47.5	48.1	1.7	100.0 (258)
대구	8.6	67.7	19.0	4.7	100.0 (139)
인천	2.5	66.3	28.9	2.3	100.0 (140)
광주	4.3	72.4	20.4	2.9	100.0 (58)
대전	17.6	53.1	28.1	1.2	100.0 (57)
울산	3.4	70.6	18.0	8.0	100.0 (53)
경기	3.7	48.2	29.6	18.5	100.0 (681)
강원	9.2	49.1	35.2	6.5	100.0 (103)
충북	19.5	49.0	28.8	2.7	100.0 (83)
충남	10.7	42.4	45.9	1.1	100.0 (117)
전북	9.1	44.4	42.8	3.7	100.0 (111)
전남	0.7	56.4	36.7	6.2	100.0 (88)
경북	6.7	56.1	31.5	5.7	100.0 (141)
경남	1.7	45.5	44.2	8.6	100.0 (158)
제주	6.8	54.7	32.7	5.8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7.8	45.8	26.4	10.1	100.0 (2,924)
서울	17.1	42.7	25.5	14.8	100.0 (711)
부산	8.6	44.9	40.5	6.0	100.0 (258)
대구	9.1	40.7	35.2	15.1	100.0 (139)
인천	10.2	54.5	28.0	7.4	100.0 (140)
광주	14.8	39.4	38.7	7.0	100.0 (58)
대전	22.1	62.5	13.5	2.0	100.0 (57)
울산	9.5	49.7	29.9	10.9	100.0 (53)
경기	20.2	44.9	23.4	11.5	100.0 (681)
강원	18.2	51.9	20.5	9.4	100.0 (103)
충북	17.4	46.1	35.5	1.0	100.0 (83)
충남	31.1	52.4	11.6	4.9	100.0 (117)
전북	31.6	41.1	23.4	3.9	100.0 (111)
전남	29.1	43.8	24.4	2.7	100.0 (88)
경북	21.9	52.2	16.7	9.3	100.0 (141)
경남	14.6	47.0	30.7	7.6	100.0 (158)
제주	9.2	44.1	29.4	17.3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3.2	45.0	17.5	14.3	100.0 (2,924)
서울	29.2	38.4	13.1	19.4	100.0 (711)
부산	25.9	39.6	27.5	7.1	100.0 (258)
대구	18.8	54.1	12.7	14.4	100.0 (139)
인천	13.7	56.7	19.0	10.6	100.0 (140)
광주	19.7	40.7	27.5	12.2	100.0 (58)
대전	22.3	62.0	11.2	4.5	100.0 (57)
울산	19.2	60.2	14.8	5.7	100.0 (53)
경기	22.7	45.5	13.8	18.0	100.0 (681)
강원	31.0	48.9	14.6	5.5	100.0 (103)
충북	22.4	39.6	29.0	9.0	100.0 (83)
충남	16.4	50.0	24.2	9.5	100.0 (117)
전북	24.9	37.1	26.5	11.6	100.0 (111)
전남	8.3	56.1	21.9	13.7	100.0 (88)
경북	21.2	48.1	19.0	11.7	100.0 (141)
경남	16.1	50.0	21.3	12.6	100.0 (158)
제주	36.5	28.9	14.6	20.1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4.6	44.8	23.2	17.4	100.0(2,924)
서울	12.5	39.8	21.4	26.3	100.0(711)
부산	7.3	26.2	35.6	30.9	100.0(258)
대구	11.7	46.8	25.8	15.8	100.0(139)
인천	9.2	64.9	20.5	5.4	100.0(140)
광주	12.3	56.8	24.3	6.6	100.0(58)
대전	18.9	59.8	13.5	7.9	100.0(57)
울산	7.0	54.5	25.7	12.9	100.0(53)
경기	15.0	41.2	26.3	17.5	100.0(681)
강원	17.3	68.2	7.7	6.7	100.0(103)
충북	19.3	55.4	17.3	8.1	100.0(83)
충남	36.8	45.1	14.3	3.8	100.0(117)
전북	27.4	50.3	14.8	7.6	100.0(111)
전남	14.2	64.6	17.6	3.7	100.0(88)
경북	18.3	50.2	20.0	11.5	100.0(141)
경남	11.6	40.3	31.7	16.5	100.0(158)
제주	8.1	44.6	29.3	18.0	100.0(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4.8	17.9	31.3	46.0	100.0 (2,924)
서울	5.5	20.5	24.7	49.4	100.0 (711)
부산	3.6	4.4	27.5	64.5	100.0 (258)
대구	0.8	10.9	25.1	63.3	100.0 (139)
인천	7.3	21.7	43.8	27.2	100.0 (140)
광주	5.8	25.3	39.7	29.1	100.0 (58)
대전	14.5	25.7	40.0	19.8	100.0 (57)
울산	2.7	32.2	40.2	25.0	100.0 (53)
경기	4.9	13.9	29.1	52.0	100.0 (681)
강원	9.3	31.1	41.4	18.3	100.0 (103)
충북	0.9	7.6	35.3	56.2	100.0 (83)
충남	7.1	13.6	41.5	37.8	100.0 (117)
전북	2.8	26.3	42.3	28.7	100.0 (111)
전남	0.6	29.0	41.2	29.1	100.0 (88)
경북	3.6	30.8	28.0	37.7	100.0 (141)
경남	2.1	13.0	35.4	49.5	100.0 (158)
제주	10.5	23.1	32.6	33.8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45.1	73.3	80.3	9.0	32.9	52.7	100.0 (2,924)
서울	51.8	73.4	76.0	10.5	43.6	53.4	100.0 (711)
부산	29.5	48.8	67.3	5.3	12.3	31.7	100.0 (258)
대구	57.6	84.7	86.8	17.1	55.2	79.6	100.0 (139)
인천	75.5	90.6	88.0	10.3	49.6	63.9	100.0 (140)
광주	43.6	80.8	87.6	15.4	29.8	64.3	100.0 (58)
대전	54.0	84.0	85.9	3.9	27.7	49.5	100.0 (57)
울산	52.7	80.8	83.0	10.5	30.3	61.2	100.0 (53)
경기	43.1	67.0	78.3	7.9	25.0	49.8	100.0 (681)
강원	71.4	85.8	89.9	14.7	33.8	64.0	100.0 (103)
충북	14.0	86.0	88.5	3.8	29.5	51.2	100.0 (83)
충남	29.8	86.9	88.5	3.0	30.2	43.0	100.0 (117)
전북	47.8	82.7	87.0	12.4	29.7	51.0	100.0 (111)
전남	33.8	66.0	91.7	7.2	21.2	57.9	100.0 (88)
경북	50.0	76.7	87.8	11.0	52.0	68.9	100.0 (141)
경남	21.8	73.3	75.5	5.1	17.8	40.6	100.0 (158)
제주	14.3	84.4	91.5	1.0	23.2	60.6	100.0 (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9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7.5	57.0	22.9	12.6	100.0(9,745)
서울	7.9	44.8	19.2	28.1	100.0(1,682)
부산	3.2	48.1	43.3	5.4	100.0(700)
대구	10.0	70.2	17.8	1.9	100.0(445)
인천	5.1	73.3	18.5	3.2	100.0(428)
광주	6.6	69.7	20.3	3.4	100.0(248)
대전	14.8	61.8	19.8	3.6	100.0(236)
울산	4.8	76.5	10.4	8.3	100.0(148)
경기	5.3	43.9	24.7	26.1	100.0(1,861)
강원	6.0	70.9	18.0	5.1	100.0(396)
충북	23.4	68.3	7.3	1.1	100.0(367)
충남	13.9	65.7	17.7	2.8	100.0(555)
전북	10.3	59.1	27.1	3.6	100.0(510)
전남	6.6	70.8	19.7	2.9	100.0(610)
경북	4.8	72.0	17.6	5.6	100.0(755)
경남	3.9	51.6	37.4	7.1	100.0(682)
제주	10.9	50.2	30.3	8.6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4.9	50.3	29.5	15.3	100.0(9,745)
서울	6.8	42.6	20.8	29.9	100.0(1,682)
부산	1.6	41.8	48.3	8.4	100.0(700)
대구	7.1	61.0	26.3	5.6	100.0(445)
인천	4.4	66.4	24.6	4.5	100.0(428)
광주	1.8	57.9	34.3	6.0	100.0(248)
대전	14.3	61.1	21.3	3.3	100.0(236)
울산	3.6	74.9	12.3	9.3	100.0(148)
경기	3.0	40.1	28.1	28.8	100.0(1,861)
강원	5.1	59.0	24.6	11.4	100.0(396)
충북	13.2	56.5	26.2	4.2	100.0(367)
충남	9.7	55.2	30.2	4.9	100.0(555)
전북	5.0	49.1	37.5	8.4	100.0(510)
전남	1.7	55.4	34.9	8.0	100.0(610)
경북	3.8	68.6	21.2	6.4	100.0(755)
경남	2.0	41.4	46.3	10.3	100.0(682)
제주	5.8	48.5	34.7	11.0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4.3	39.3	30.8	25.7	100.0(9,745)
서울	4.0	29.5	25.6	41.0	100.0(1,682)
부산	3.5	26.8	57.3	12.4	100.0(700)
대구	4.2	38.5	30.0	27.3	100.0(445)
인천	8.7	51.4	29.6	10.3	100.0(428)
광주	2.0	46.5	34.7	16.9	100.0(248)
대전	4.4	69.7	22.2	3.8	100.0(236)
울산	7.4	42.1	27.5	23.0	100.0(148)
경기	3.6	26.6	22.8	46.9	100.0(1,861)
강원	5.2	46.8	34.9	13.1	100.0(396)
충북	2.9	42.1	39.1	15.9	100.0(367)
충남	3.1	48.6	39.6	8.7	100.0(555)
전북	4.9	54.4	31.4	9.4	100.0(510)
전남	0.9	57.9	23.6	17.7	100.0(610)
경북	7.9	51.5	23.3	17.3	100.0(755)
경남	4.2	36.0	41.9	18.0	100.0(682)
제주	7.7	35.1	29.3	28.0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2	11.4	27.8	59.6	100.0(9,745)
서울	1.8	12.2	21.1	64.9	100.0(1,682)
부산	2.6	14.8	31.8	50.8	100.0(700)
대구	0.4	4.4	31.2	63.9	100.0(445)
인천	2.0	10.0	30.7	57.3	100.0(428)
광주	0.3	18.8	36.3	44.6	100.0(248)
대전	0.6	7.2	49.9	42.3	100.0(236)
울산	0.5	27.9	32.2	39.2	100.0(148)
경기	1.0	6.9	20.1	72.1	100.0(1,861)
강원	1.5	10.8	23.1	64.6	100.0(396)
충북	0.0	0.7	7.9	91.5	100.0(367)
충남	0.2	1.9	34.6	63.4	100.0(555)
전북	2.3	15.8	45.1	36.8	100.0(510)
전남	0.5	19.1	35.4	44.9	100.0(610)
경북	1.1	19.8	31.5	47.7	100.0(755)
경남	0.8	14.5	29.4	55.3	100.0(682)
제주	0.5	3.9	30.0	65.5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6.0	37.0	29.3	27.8	100.0(9,745)
서울	6.8	30.8	22.2	40.2	100.0(1,682)
부산	2.9	16.6	41.6	38.9	100.0(700)
대구	3.8	41.7	31.7	22.9	100.0(445)
인천	9.0	54.1	26.2	10.7	100.0(428)
광주	5.6	49.1	34.1	11.3	100.0(248)
대전	4.9	55.1	33.8	6.2	100.0(236)
울산	9.1	38.3	24.3	28.3	100.0(148)
경기	5.4	30.0	21.5	43.1	100.0(1,861)
강원	7.2	56.6	23.5	12.7	100.0(396)
충북	7.0	22.5	40.2	30.3	100.0(367)
충남	10.5	35.5	41.5	12.5	100.0(555)
전북	7.6	41.8	38.0	12.7	100.0(510)
전남	4.2	48.8	32.2	14.8	100.0(610)
경북	6.5	55.9	20.8	16.8	100.0(755)
경남	3.4	29.6	39.8	27.2	100.0(682)
제주	6.4	39.1	34.0	20.5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0.5	5.3	25.5	68.8	100.0(9,745)
서울	1.0	8.5	21.7	68.9	100.0(1,682)
부산	0.3	2.0	10.9	86.7	100.0(700)
대구	0.2	1.6	19.6	78.6	100.0(445)
인천	0.8	4.2	27.1	67.9	100.0(428)
광주	0.2	3.8	38.7	57.2	100.0(248)
대전	1.1	3.7	35.1	60.1	100.0(236)
울산	1.0	19.3	34.6	45.1	100.0(148)
경기	0.2	4.1	22.3	73.4	100.0(1,861)
강원	2.0	8.6	25.0	64.5	100.0(396)
충북	0.0	0.1	5.4	94.5	100.0(367)
충남	0.2	1.9	20.3	77.7	100.0(555)
전북	0.2	8.0	42.7	49.1	100.0(510)
전남	0.0	1.4	44.1	54.5	100.0(610)
경북	0.5	11.8	35.3	52.4	100.0(755)
경남	0.2	3.0	24.3	72.4	100.0(682)
제주	0.4	3.3	33.1	63.2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40.9	91.6	89.0	2.3	26.9	52.5	100.0(9,745)
서울	38.2	86.6	80.2	4.4	35.9	45.8	100.0(1,682)
부산	43.7	82.3	85.4	0.3	5.4	39.3	100.0(700)
대구	51.4	97.9	98.9	1.6	45.5	57.9	100.0(445)
인천	48.0	96.5	94.6	3.0	43.8	54.2	100.0(428)
광주	38.9	92.8	97.3	1.9	21.4	54.8	100.0(248)
대전	52.1	97.7	97.4	1.0	16.7	47.2	100.0(236)
울산	35.0	93.7	91.5	2.6	32.9	57.0	100.0(148)
경기	37.5	89.1	80.1	2.1	23.4	46.5	100.0(1,861)
강원	37.5	97.7	95.9	1.9	24.7	61.0	100.0(396)
충북	32.1	97.0	95.0	1.0	21.7	57.3	100.0(367)
충남	44.5	96.1	95.0	0.7	27.9	52.3	100.0(555)
전북	40.4	95.4	95.5	3.5	17.6	58.0	100.0(510)
전남	44.2	95.7	97.0	2.7	17.1	65.7	100.0(610)
경북	47.9	96.8	97.1	3.3	50.8	67.0	100.0(755)
경남	39.0	87.3	88.4	0.8	10.5	51.8	100.0(682)
제주	12.2	92.8	94.6	1.0	25.5	68.5	100.0(12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74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6	12.4	43.1	43.0	100.0(1,010)
서울	0.0	14.2	33.2	52.6	100.0(270)
부산	3.0	4.5	31.6	60.8	100.0(94)
대구	0.0	6.8	65.0	28.1	100.0(42)
인천	0.0	24.6	53.4	21.9	100.0(35)
광주	0.0	18.2	46.0	35.8	100.0(24)
대전	23.0	9.7	57.1	10.2	100.0(27)
울산	0.0	34.9	47.5	17.6	100.0(11)
경기	1.7	16.8	41.9	39.6	100.0(163)
강원	0.9	4.6	52.8	41.8	100.0(27)
충북	3.8	8.6	23.1	64.5	100.0(22)
충남	2.7	15.9	46.8	34.6	100.0(53)
전북	0.0	8.3	50.7	41.0	100.0(59)
전남	0.0	10.5	69.6	19.9	100.0(46)
경북	2.8	11.3	49.6	36.3	100.0(54)
경남	0.0	7.3	45.1	47.6	100.0(69)
제주	0.0	4.6	41.9	53.5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2	25.8	38.9	32.0	100.0(1,010)
서울	2.0	21.6	27.8	48.6	100.0(270)
부산	1.8	11.3	33.1	53.8	100.0(94)
대구	0.0	33.1	45.7	21.2	100.0(42)
인천	0.0	9.1	82.2	8.8	100.0(35)
광주	8.0	37.3	38.1	16.6	100.0(24)
대전	20.7	42.4	26.8	10.2	100.0(27)
울산	0.0	32.5	46.5	21.0	100.0(11)
경기	1.6	25.6	45.1	27.7	100.0(163)
강원	0.9	9.5	60.2	29.5	100.0(27)
충북	7.0	41.2	33.4	18.5	100.0(22)
충남	11.0	28.6	43.6	16.8	100.0(53)
전북	6.4	39.2	32.8	21.6	100.0(59)
전남	5.1	48.3	42.6	4.0	100.0(46)
경북	0.0	40.5	33.2	26.4	100.0(54)
경남	1.8	16.6	50.3	31.3	100.0(69)
제주	4.1	28.8	39.8	27.4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5-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0.6	5.1	18.7	75.6	100.0(1,010)
서울	1.3	4.7	14.4	79.6	100.0(270)
부산	0.0	6.3	6.4	87.2	100.0(94)
대구	0.0	0.0	13.9	86.2	100.0(42)
인천	2.6	4.5	20.0	72.9	100.0(35)
광주	0.0	0.0	37.0	63.0	100.0(24)
대전	0.0	3.7	29.9	66.4	100.0(27)
울산	0.0	4.2	38.7	57.1	100.0(11)
경기	0.0	7.7	18.1	74.2	100.0(163)
강원	5.9	0.0	4.5	89.7	100.0(27)
충북	0.0	7.6	6.5	86.0	100.0(22)
충남	0.0	7.0	22.1	71.0	100.0(53)
전북	0.0	11.0	24.2	64.8	100.0(59)
전남	0.0	6.7	40.4	52.9	100.0(46)
경북	0.0	2.2	23.8	74.0	100.0(54)
경남	0.0	2.0	26.9	71.1	100.0(69)
제주	0.0	0.0	14.9	85.1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6.9	20.6	24.5	48.0	100.0(1,010)
서울	8.8	14.5	17.3	59.5	100.0(270)
부산	4.8	17.5	18.1	59.6	100.0(94)
대구	4.0	13.3	35.6	47.1	100.0(42)
인천	6.4	9.1	21.9	62.6	100.0(35)
광주	9.3	17.1	38.2	35.4	100.0(24)
대전	6.3	27.7	53.9	12.2	100.0(27)
울산	18.6	27.3	25.3	28.9	100.0(11)
경기	3.9	17.4	29.9	48.7	100.0(163)
강원	2.0	8.5	10.2	79.3	100.0(27)
충북	4.0	10.0	17.3	68.7	100.0(22)
충남	25.7	19.7	25.5	29.1	100.0(53)
전북	7.6	41.8	15.9	34.7	100.0(59)
전남	2.5	47.0	28.9	21.5	100.0(46)
경북	4.0	35.4	29.7	30.9	100.0(54)
경남	3.2	24.8	34.3	37.8	100.0(69)
제주	4.7	22.4	27.0	45.9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0.5	3.2	18.0	78.3	100.0(1,010)
서울	0.0	2.0	17.6	80.3	100.0(270)
부산	1.7	1.4	6.3	90.6	100.0(94)
대구	0.0	0.0	9.1	90.9	100.0(42)
인천	0.0	2.2	18.4	79.4	100.0(35)
광주	3.4	0.0	35.9	60.6	100.0(24)
대전	0.0	0.0	29.9	70.1	100.0(27)
울산	0.0	3.3	39.6	57.1	100.0(11)
경기	1.7	3.6	21.0	73.7	100.0(163)
강원	0.0	11.8	14.1	74.1	100.0(27)
충북	0.0	9.4	0.0	90.6	100.0(22)
충남	0.0	0.0	15.0	85.0	100.0(53)
전북	0.0	6.9	19.2	73.8	100.0(59)
전남	0.0	9.7	33.0	57.4	100.0(46)
경북	0.0	2.2	12.2	85.6	100.0(54)
경남	0.0	4.2	22.3	73.5	100.0(69)
제주	0.0	6.1	19.1	74.9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수발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7.8	25.7	26.5	39.9	100.0(1,010)
서울	10.8	13.4	21.4	54.4	100.0(270)
부산	3.1	22.7	26.2	48.0	100.0(94)
대구	4.0	30.2	35.7	30.1	100.0(42)
인천	3.8	14.9	22.0	59.3	100.0(35)
광주	2.5	24.3	39.7	33.5	100.0(24)
대전	18.6	31.9	47.1	2.4	100.0(27)
울산	18.6	19.7	41.6	20.2	100.0(11)
경기	2.3	29.0	30.1	38.7	100.0(163)
강원	2.9	19.3	48.0	29.8	100.0(27)
충북	10.1	20.2	19.2	50.4	100.0(22)
충남	24.4	26.3	23.1	26.2	100.0(53)
전북	11.5	45.3	19.2	24.1	100.0(59)
전남	4.8	61.3	16.5	17.5	100.0(46)
경북	8.1	38.7	24.8	28.5	100.0(54)
경남	2.5	25.0	31.4	41.1	100.0(69)
제주	7.5	33.1	26.6	32.9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1.1	5.5	9.2	16.7	69.8	73.3	100.0(1,010)
서울	1.8	3.2	3.9	17.7	66.3	62.4	100.0(270)
부산	2.1	0.0	12.2	9.4	50.6	53.9	100.0(94)
대구	0.0	0.0	2.4	20.8	83.4	81.4	100.0(42)
인천	0.0	11.2	13.8	9.6	82.2	89.6	100.0(35)
광주	0.0	0.0	16.1	22.0	83.7	82.4	100.0(24)
대전	0.0	6.6	7.3	39.0	90.3	94.0	100.0(27)
울산	0.0	3.3	3.3	9.0	82.3	77.3	100.0(11)
경기	0.6	13.4	11.4	25.4	61.8	72.7	100.0(163)
강원	0.0	6.8	2.0	3.0	61.2	84.0	100.0(27)
충북	0.0	0.0	1.4	4.7	76.2	93.7	100.0(22)
충남	0.0	4.5	6.2	4.4	80.2	79.5	100.0(53)
전북	0.0	5.4	11.4	31.2	77.3	88.3	100.0(59)
전남	1.2	8.1	35.8	7.9	86.3	93.4	100.0(46)
경북	2.2	4.7	13.5	18.1	94.6	89.3	100.0(54)
경남	2.6	7.6	7.7	5.9	58.5	65.9	100.0(69)
제주	0.0	0.0	0.0	11.4	57.4	70.3	100.0(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01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5-2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본 손자녀 수

(단위: %, 명)

지역	손자녀 돌봄률	돌봄 손자녀 수			평균 돌봄 손자녀 수	계 (명)
		1명	2명	3명 이상		
전국 ¹⁾	6.4	62.6	32.2	5.1	1.5	100.0(661)
서울	9.0	71.3	25.3	3.6	1.4	100.0(165)
부산	6.2	65.9	29.3	4.8	1.4	100.0(46)
대구	3.9	50.1	40.9	9.1	1.6	100.0(19)
인천	6.8	69.5	30.5	0.0	1.3	100.0(31)
광주	4.2	63.7	36.3	0.0	1.4	100.0(11)
대전	10.0	79.5	19.2	1.3	1.2	100.0(25)
울산	5.0	35.6	58.0	6.4	1.7	100.0(8) ²⁾
경기	8.0	54.7	35.8	9.6	1.6	100.0(160)
강원	7.2	49.8	48.4	1.9	1.5	100.0(29)
충북	5.5	64.5	26.8	8.8	1.6	100.0(21)
충남	3.9	61.3	30.8	8.0	1.5	100.0(22)
전북	5.6	48.6	42.3	9.1	1.7	100.0(29)
전남	3.2	75.8	24.2	0.0	1.2	100.0(20)
경북	5.3	67.6	32.4	0.0	1.3	100.0(41)
경남	3.8	62.6	34.1	3.3	1.4	100.0(27)
제주	5.6	27.5	64.1	8.5	1.8	100.0(7)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손자녀 수는 돌보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6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6-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1.8	27.7	26.2	35.9	8.3	100.0 (10,279)
서울	3.3	29.4	29.0	30.4	7.9	100.0 (1,844)
부산	0.5	19.6	24.3	41.5	14.1	100.0 (745)
대구	1.6	31.1	25.2	32.7	9.5	100.0 (472)
인천	0.8	24.8	29.6	40.3	4.5	100.0 (463)
광주	1.9	31.5	24.6	35.2	6.8	100.0 (257)
대전	0.4	37.4	23.0	34.1	5.1	100.0 (252)
울산	1.3	28.8	30.3	35.9	3.8	100.0 (152)
경기	1.9	28.0	25.8	35.6	8.7	100.0 (1,989)
강원	1.1	25.9	34.6	37.0	1.5	100.0 (404)
충북	2.6	40.5	19.6	30.9	6.4	100.0 (374)
충남	2.4	31.1	25.5	34.0	7.0	100.0 (569)
전북	1.7	24.6	24.0	34.8	14.9	100.0 (528)
전남	0.3	31.1	22.5	34.7	11.4	100.0 (626)
경북	1.5	23.5	29.0	41.8	4.3	100.0 (769)
경남	1.9	21.1	24.0	44.2	8.8	100.0 (710)
제주	2.4	30.0	21.6	36.9	9.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제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0.7	14.5	30.8	43.6	10.3	100.0 (10,279)
서울	1.2	14.3	27.8	44.8	11.8	100.0 (1,844)
부산	0.3	11.2	21.1	50.8	16.6	100.0 (745)
대구	0.3	17.6	27.1	44.2	10.8	100.0 (472)
인천	0.1	8.3	28.3	53.5	9.8	100.0 (463)
광주	0.8	20.6	40.8	33.6	4.2	100.0 (257)
대전	3.4	23.1	30.8	37.2	5.5	100.0 (252)
울산	0.4	13.3	31.7	42.5	12.1	100.0 (152)
경기	0.1	14.6	29.4	43.8	12.1	100.0 (1,989)
강원	0.1	9.9	40.3	41.6	8.1	100.0 (404)
충북	1.9	20.8	40.9	31.2	5.3	100.0 (374)
충남	1.5	20.8	30.4	42.9	4.4	100.0 (569)
전북	0.2	14.4	36.6	37.9	10.9	100.0 (528)
전남	0.2	13.0	35.8	44.0	7.0	100.0 (626)
경북	1.0	14.3	36.5	40.5	7.7	100.0 (769)
경남	0.2	10.4	27.5	49.6	12.3	100.0 (710)
제주	2.2	21.9	32.4	32.5	11.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7.7	61.0	25.7	4.8	0.8	100.0 (6,338)
서울	10.0	51.8	30.1	6.2	1.9	100.0 (1,162)
부산	3.6	54.9	30.3	9.7	1.6	100.0 (440)
대구	13.6	61.7	19.9	3.8	1.0	100.0 (308)
인천	2.0	66.7	26.1	5.0	0.1	100.0 (264)
광주	12.0	59.0	25.2	3.7	0.0	100.0 (169)
대전	20.3	70.6	8.3	0.9	0.0	100.0 (158)
울산	6.6	66.1	23.5	3.4	0.4	100.0 (85)
경기	6.7	66.2	22.7	3.8	0.6	100.0 (1,224)
강원	5.2	55.6	35.6	3.1	0.6	100.0 (241)
충북	5.2	80.2	12.7	1.9	0.0	100.0 (230)
충남	9.1	78.8	10.9	1.1	0.2	100.0 (352)
전북	4.6	54.2	38.4	1.9	0.9	100.0 (325)
전남	8.0	63.1	25.4	3.5	0.0	100.0 (380)
경북	9.4	57.0	24.6	8.8	0.2	100.0 (497)
경남	3.3	55.8	34.7	5.4	0.8	100.0 (418)
제주	5.6	61.7	24.7	7.2	0.8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유배우자 6,33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7.8	62.0	22.3	6.3	1.6	100.0 (10,039)
서울	9.9	56.4	24.4	6.7	2.6	100.0 (1,791)
부산	2.3	46.6	36.2	11.9	3.0	100.0 (725)
대구	15.1	61.1	19.6	3.9	0.2	100.0 (458)
인천	1.7	64.2	26.7	6.7	0.8	100.0 (446)
광주	14.6	65.6	16.7	3.0	0.2	100.0 (250)
대전	14.0	73.5	10.2	0.9	1.4	100.0 (242)
울산	6.2	58.7	24.3	9.8	0.9	100.0 (150)
경기	6.1	59.6	23.2	9.1	2.0	100.0 (1,944)
강원	2.5	67.1	25.9	3.3	1.3	100.0 (400)
충북	5.7	81.6	9.1	2.3	1.4	100.0 (371)
충남	9.6	74.6	11.4	2.8	1.7	100.0 (559)
전북	7.2	60.7	26.4	4.8	1.0	100.0 (517)
전남	13.5	69.6	13.4	3.0	0.6	100.0 (607)
경북	6.3	67.9	21.6	3.8	0.4	100.0 (763)
경남	5.1	59.7	25.4	8.6	1.2	100.0 (694)
제주	21.7	54.6	16.5	5.4	1.8	100.0 (12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생존자녀가 있는 10,041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2.1	32.7	39.0	23.2	3.0	100.0 (10,278)
서울	3.0	33.6	37.4	20.9	5.1	100.0 (1,844)
부산	0.1	21.4	35.2	39.6	3.7	100.0 (745)
대구	0.8	39.7	43.0	15.2	1.4	100.0 (472)
인천	0.7	32.7	48.4	16.8	1.4	100.0 (463)
광주	1.7	41.3	36.1	20.6	0.4	100.0 (257)
대전	5.6	33.5	47.9	13.0	0.0	100.0 (252)
울산	2.5	33.9	30.5	30.6	2.5	100.0 (152)
경기	2.1	36.9	31.7	24.5	4.8	100.0 (1,989)
강원	0.9	26.1	41.4	27.7	3.8	100.0 (404)
충북	1.8	33.9	38.6	23.8	2.0	100.0 (374)
충남	2.3	28.2	49.4	19.9	0.3	100.0 (569)
전북	2.3	26.7	43.3	23.8	3.9	100.0 (528)
전남	1.4	36.0	35.8	25.4	1.4	100.0 (626)
경북	3.4	34.1	40.4	21.0	1.1	100.0 (769)
경남	1.9	30.0	47.8	18.8	1.6	100.0 (709)
제주	3.8	25.4	34.8	34.0	2.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3.7	50.5	33.9	10.1	1.9	100.0 (10,278)
서울	4.5	47.8	33.3	9.8	4.6	100.0 (1,844)
부산	0.3	33.5	43.5	20.8	1.9	100.0 (745)
대구	1.8	50.0	38.9	7.3	2.0	100.0 (472)
인천	0.5	42.8	45.0	10.6	1.0	100.0 (463)
광주	2.6	49.4	41.1	6.4	0.5	100.0 (257)
대전	12.4	49.0	34.3	4.4	0.0	100.0 (252)
울산	5.1	55.6	22.7	14.8	1.8	100.0 (152)
경기	2.6	55.0	27.0	13.0	2.5	100.0 (1,989)
강원	1.7	55.3	33.6	8.3	1.2	100.0 (404)
충북	3.7	51.7	37.9	5.7	1.1	100.0 (374)
충남	6.3	57.3	31.4	5.0	0.1	100.0 (569)
전북	3.3	48.9	40.7	6.6	0.5	100.0 (528)
전남	4.1	61.0	27.0	7.4	0.5	100.0 (626)
경북	5.6	58.8	28.1	7.5	0.0	100.0 (769)
경남	4.3	42.6	42.2	9.9	1.1	100.0 (709)
제주	10.9	49.8	26.7	11.2	1.5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지역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평균 (세)
전국 ¹⁾	0.3	3.4	18.0	46.7	16.3	15.3	100.0 (10,275)	71.7
서울	0.4	3.7	15.3	45.8	18.6	16.3	100.0 (1,842)	72.1
부산	0.0	3.0	9.5	59.5	11.8	16.2	100.0 (745)	71.5
대구	0.2	3.2	19.2	45.3	18.7	13.5	100.0 (472)	71.4
인천	0.1	0.8	8.7	55.7	21.4	13.4	100.0 (463)	72.0
광주	0.6	12.2	41.3	24.2	14.0	7.6	100.0 (257)	70.7
대전	0.3	2.9	35.1	46.6	13.3	1.8	100.0 (252)	70.8
울산	0.0	1.4	5.8	50.2	15.2	27.5	100.0 (152)	73.2
경기	0.1	3.2	15.3	49.4	14.5	17.6	100.0 (1,987)	71.9
강원	0.0	0.9	13.3	66.2	13.0	6.6	100.0 (404)	70.6
충북	0.0	2.8	8.6	44.2	21.1	23.3	100.0 (373)	72.7
충남	1.5	3.4	28.0	37.9	19.4	9.8	100.0 (569)	71.3
전북	1.6	5.0	31.0	32.8	17.2	12.4	100.0 (528)	71.4
전남	0.8	6.8	34.9	29.6	11.6	16.3	100.0 (626)	71.3
경북	0.0	1.9	7.8	46.8	19.3	24.1	100.0 (769)	72.9
경남	0.0	2.6	20.0	51.1	14.6	11.7	100.0 (710)	71.2
제주	0.0	3.2	19.1	58.3	12.3	7.1	100.0 (125)	70.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국 ¹⁾	3.1	21.1	14.1	40.9	20.8	100.0 (10,278)
서울	4.4	23.4	15.0	36.0	21.2	100.0 (1,844)
부산	1.0	24.6	16.4	37.7	20.4	100.0 (745)
대구	1.6	23.8	16.1	39.6	18.9	100.0 (472)
인천	2.4	25.3	11.1	49.5	11.8	100.0 (463)
광주	1.3	16.8	16.6	41.6	23.8	100.0 (257)
대전	1.6	21.9	10.4	58.7	7.3	100.0 (252)
울산	6.4	17.1	17.8	44.1	14.6	100.0 (152)
경기	4.2	22.3	14.3	33.8	25.5	100.0 (1,989)
강원	1.2	19.8	9.2	44.8	25.0	100.0 (404)
충북	6.2	18.1	12.4	40.9	22.3	100.0 (374)
충남	3.2	20.8	16.0	43.8	16.3	100.0 (569)
전북	3.4	18.0	14.6	36.3	27.7	100.0 (528)
전남	0.7	21.1	14.0	41.9	22.3	100.0 (626)
경북	3.0	17.3	11.0	51.3	17.5	100.0 (769)
경남	1.4	15.5	15.3	50.3	17.6	100.0 (709)
제주	3.8	18.8	10.1	49.6	17.8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국 ¹⁾	10.2	59.7	15.9	13.0	1.2	100.0 (10,279)
서울	14.9	60.0	12.6	10.8	1.6	100.0 (1,844)
부산	5.7	69.9	14.6	9.1	0.6	100.0 (745)
대구	12.9	61.1	18.1	7.0	0.9	100.0 (472)
인천	12.6	66.8	11.1	8.7	0.9	100.0 (463)
광주	1.2	51.5	34.8	12.0	0.5	100.0 (257)
대전	9.9	67.5	13.0	9.3	0.3	100.0 (252)
울산	25.9	52.4	12.1	8.4	1.1	100.0 (152)
경기	14.6	59.4	11.0	13.9	1.1	100.0 (1,989)
강원	10.5	71.0	11.5	6.7	0.2	100.0 (404)
충북	4.4	59.6	21.8	14.0	0.2	100.0 (374)
충남	4.9	63.7	20.7	10.5	0.2	100.0 (569)
전북	4.5	54.0	20.6	17.6	3.4	100.0 (528)
전남	1.6	51.9	31.1	14.0	1.4	100.0 (626)
경북	12.5	56.8	11.3	17.8	1.7	100.0 (769)
경남	3.7	51.1	19.5	24.0	1.7	100.0 (710)
제주	7.5	51.5	20.0	20.6	0.4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6-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학습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국 ¹⁾	10.1	62.3	17.4	9.5	0.8	100.0 (10,279)
서울	14.1	63.5	12.9	8.5	0.9	100.0 (1,844)
부산	6.7	72.5	13.9	6.9	0.0	100.0 (745)
대구	14.4	53.9	27.4	3.5	0.8	100.0 (472)
인천	8.1	65.3	16.5	9.9	0.2	100.0 (463)
광주	3.6	60.5	26.4	7.9	1.6	100.0 (257)
대전	6.2	60.5	26.8	6.5	0.0	100.0 (252)
울산	21.4	56.3	12.2	8.8	1.4	100.0 (152)
경기	14.4	62.2	13.2	9.5	0.6	100.0 (1,989)
강원	9.2	74.2	8.9	6.7	1.0	100.0 (404)
충북	6.3	66.7	18.3	8.7	0.0	100.0 (374)
충남	4.0	62.0	27.4	6.5	0.2	100.0 (569)
전북	7.2	57.8	19.4	12.9	2.7	100.0 (528)
전남	2.3	57.8	26.0	13.0	0.9	100.0 (626)
경북	13.7	56.7	16.2	12.8	0.7	100.0 (769)
경남	4.4	61.2	20.1	13.8	0.6	100.0 (710)
제주	6.9	49.0	24.2	18.5	1.4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6-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의 외모 가꿈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좋아보임	좋아 보이는 편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음	계 (명)
전국 ¹⁾	8.2	53.8	19.2	16.1	2.7	100.0 (10,279)
서울	13.0	50.0	14.7	18.5	3.8	100.0 (1,844)
부산	2.2	62.2	15.8	17.5	2.3	100.0 (745)
대구	13.3	49.1	23.0	12.2	2.4	100.0 (472)
인천	4.6	59.4	18.5	16.8	0.8	100.0 (463)
광주	1.9	52.9	36.6	7.2	1.4	100.0 (257)
대전	8.0	70.1	18.4	3.6	0.0	100.0 (252)
울산	22.5	49.6	14.0	12.0	2.0	100.0 (152)
경기	11.7	56.6	14.0	15.0	2.7	100.0 (1,989)
강원	2.1	62.9	14.8	16.3	3.8	100.0 (404)
충북	6.3	52.3	28.4	12.3	0.7	100.0 (374)
충남	3.5	60.3	26.6	9.2	0.4	100.0 (569)
전북	4.3	42.6	26.8	21.3	5.2	100.0 (528)
전남	1.3	49.7	33.7	14.7	0.7	100.0 (626)
경북	13.5	50.7	16.9	17.7	1.3	100.0 (769)
경남	3.0	50.1	19.2	21.4	6.4	100.0 (710)
제주	4.9	37.9	14.8	40.1	2.3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 희망자녀

(단위: %, 명)

지역	자녀동거 희망률 ¹⁾	노후 동거 희망 자녀 ²⁾							계 (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기타	
전국	19.1	51.6	9.9	5.0	1.8	14.7	16.8	0.2	100.0 (1,961)
서울	21.7	50.0	5.4	11.8	2.3	11.7	18.4	0.6	100.0 (400)
부산	18.1	57.7	1.1	1.1	0.7	18.2	21.3	0.0	100.0 (135)
대구	10.7	39.0	19.9	3.8	2.0	22.9	12.4	0.0	100.0 (51)
인천	15.8	47.6	15.2	0.9	9.8	9.2	17.3	0.0	100.0 (73)
광주	16.3	42.3	10.3	1.7	2.2	10.7	32.8	0.0	100.0 (42)
대전	14.5	23.0	16.4	0.0	0.0	26.3	34.3	0.0	100.0 (37)
울산	18.4	60.5	9.5	5.6	0.0	12.8	11.8	0.0	100.0 (28)
경기	20.7	55.1	8.0	7.3	1.4	14.0	13.8	0.5	100.0 (412)
강원	19.4	50.7	7.5	0.2	0.0	36.6	5.0	0.0	100.0 (78)
충북	23.8	53.6	15.4	2.1	2.2	12.4	14.3	0.0	100.0 (89)
충남	22.1	47.0	22.8	0.0	1.5	18.0	10.7	0.0	100.0 (126)
전북	20.7	42.9	13.4	5.7	1.8	10.9	25.4	0.0	100.0 (109)
전남	18.0	55.9	13.4	0.0	0.0	16.9	13.8	0.0	100.0 (122)
경북	15.4	60.5	7.3	3.7	3.5	12.3	12.7	0.0	100.0 (118)
경남	17.8	58.1	9.8	1.3	0.0	9.5	21.4	0.0	100.0 (126)
제주	20.2	37.0	21.3	2.0	1.5	11.9	26.4	0.0	100.0 (2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동거희망자 1,96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지역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기타	계 (명)
전국 ¹⁾	31.9	7.9	18.6	6.9	34.3	0.5	100.0 (10,277)
서울	39.9	7.7	18.5	5.2	28.3	0.4	100.0 (1,844)
부산	27.4	2.5	7.2	10.4	51.4	1.1	100.0 (743)
대구	24.7	4.1	13.7	8.1	49.2	0.2	100.0 (472)
인천	35.5	3.1	20.5	4.3	36.6	0.0	100.0 (463)
광주	23.9	7.5	25.5	10.7	32.4	0.0	100.0 (257)
대전	14.2	2.0	20.3	9.6	49.3	4.8	100.0 (252)
울산	28.1	7.2	21.9	2.6	40.3	0.0	100.0 (152)
경기	38.0	11.5	18.4	3.8	27.9	0.4	100.0 (1,989)
강원	47.9	4.2	13.3	14.8	19.8	0.0	100.0 (404)
충북	42.3	13.6	16.2	5.7	20.5	1.7	100.0 (374)
충남	25.1	8.4	20.8	9.5	34.9	1.4	100.0 (569)
전북	16.3	7.8	33.4	6.4	35.9	0.2	100.0 (528)
전남	16.1	13.8	30.7	9.6	29.9	0.0	100.0 (626)
경북	28.9	9.2	17.3	5.5	38.9	0.2	100.0 (769)
경남	27.8	4.3	12.5	9.7	45.5	0.2	100.0 (710)
제주	47.2	2.2	14.1	4.2	32.1	0.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6-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령차별 경험 여부 및 차별 경험 상황

(단위: %, 명)

지역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 상황 ¹⁾						대상자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식당, 커피숍 이용 시	판매 시설 이용 시	공공기관 이용 시	의료시설 이용 시	기타	
전국	7.1	37.7	9.6	17.7	11.0	14.4	9.8	(729)
서울	11.4	40.8	11.2	14.0	13.4	11.2	9.4	(210)
부산	10.8	37.7	11.2	25.0	5.4	16.3	4.5	(80)
대구	5.3	34.0	10.2	30.6	13.6	7.5	4.2	(25)
인천	6.3	32.3	9.2	20.7	7.7	9.2	21.0	(29)
광주	1.1	31.6	0.0	0.0	47.4	21.0	0.0	(3) ²⁾
대전	3.6	22.2	8.8	24.8	11.0	7.1	26.0	(9) ²⁾
울산	10.1	49.3	1.5	4.0	19.5	25.8	0.0	(16)
경기	5.8	32.6	11.7	17.3	9.7	15.7	13.0	(116)
강원	3.4	21.0	12.7	24.5	0.0	0.0	41.9	(14)
충북	3.4	55.3	4.9	2.7	9.9	21.8	5.4	(13)
충남	2.3	25.7	8.2	8.5	23.4	29.5	4.8	(13)
전북	12.8	24.7	8.0	22.2	12.4	27.2	5.6	(68)
전남	1.7	25.3	0.0	25.0	13.5	5.1	31.1	(11)
경북	8.8	48.2	2.2	14.4	13.2	10.3	11.7	(67)
경남	7.3	49.5	12.9	20.2	2.7	12.6	2.1	(52)
제주	2.9	39.4	9.6	0.0	12.2	24.6	14.2	(4)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차별경험이 있는 72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6-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학대경험

(단위: %, 명)

지역	학대 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¹⁾					노인보호 전문기관 인지도	대상자수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국	9.9	0.2	7.3	0.3	1.5	2.8	12.6	(10,279)
서울	13.4	0.0	10.6	0.1	2.0	3.6	14.5	(1,844)
부산	20.4	0.4	17.6	1.6	0.7	3.2	11.4	(745)
대구	4.8	0.1	4.4	0.3	0.0	0.3	10.0	(472)
인천	10.9	0.1	4.2	0.1	5.1	5.2	16.9	(463)
광주	2.9	0.0	2.3	0.0	0.3	0.6	19.7	(257)
대전	4.8	0.8	3.6	0.0	1.0	1.0	13.0	(252)
울산	4.0	0.0	3.2	0.4	0.4	0.7	15.6	(152)
경기	7.6	0.1	5.1	0.1	1.5	2.8	12.2	(1,989)
강원	15.9	0.0	12.5	0.1	5.0	4.5	16.0	(404)
충북	7.7	0.2	4.7	0.4	0.5	2.9	12.3	(374)
충남	8.1	0.1	5.3	0.0	1.6	3.2	12.4	(569)
전북	14.8	0.5	12.5	0.5	0.6	2.0	14.2	(528)
전남	4.3	0.2	1.8	0.0	0.0	2.8	10.9	(626)
경북	5.7	0.1	3.9	0.9	1.0	1.2	9.9	(769)
경남	10.2	0.2	7.1	0.3	1.7	2.9	7.2	(710)
제주	7.8	0.2	4.9	0.3	1.8	3.1	15.2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6-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지역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 에게	사회환원/ 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배우자) 을 위해	기타	계 (명)
전국 ¹⁾	52.3	11.4	6.3	3.3	7.0	4.2	15.2	0.4	100.0 (10,263)
서울	50.5	7.0	5.4	2.6	6.5	5.9	21.6	0.6	100.0 (1,838)
부산	52.0	12.7	7.0	2.4	8.0	5.2	12.8	0.0	100.0 (745)
대구	48.5	15.4	2.1	3.5	7.8	3.0	19.6	0.0	100.0 (472)
인천	61.2	11.8	2.2	3.6	5.3	3.6	12.0	0.3	100.0 (463)
광주	57.7	13.8	5.3	3.6	5.0	0.6	14.0	0.0	100.0 (257)
대전	49.0	10.4	7.7	3.6	5.7	2.2	21.3	0.1	100.0 (252)
울산	45.3	15.5	6.9	3.9	4.9	6.0	17.3	0.3	100.0 (152)
경기	50.4	7.2	5.6	3.7	6.5	7.0	19.0	0.6	100.0 (1,985)
강원	61.7	13.5	3.3	2.1	3.8	3.4	11.7	0.6	100.0 (404)
충북	54.8	11.2	12.8	2.3	8.9	0.6	8.9	0.6	100.0 (373)
충남	58.6	9.6	6.6	3.5	11.4	1.0	9.1	0.2	100.0 (569)
전북	54.9	10.3	7.6	5.7	9.7	1.5	10.1	0.2	100.0 (527)
전남	56.2	14.8	8.4	2.0	7.8	0.6	10.3	0.0	100.0 (625)
경북	47.4	19.9	7.7	3.8	4.8	4.7	11.8	0.1	100.0 (767)
경남	47.7	17.5	8.8	4.3	9.0	3.6	9.0	0.1	100.0 (708)
제주	57.0	11.7	7.3	1.5	2.5	1.0	14.8	4.2	100.0 (12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죽음 준비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익 ²⁾	묘지 ²⁾	상조회 가입 ²⁾	유서 작성 ²⁾	죽음준비 교육 수강 ²⁾	(명)
전국 ¹⁾	11.2	29.1	6.7	0.5	0.6	(10,279)
서울	6.9	25.0	9.1	0.7	1.9	(1,844)
부산	8.0	19.8	11.0	0.1	0.4	(745)
대구	10.6	35.9	3.2	1.8	0.8	(472)
인천	7.4	19.8	7.2	0.2	0.1	(463)
광주	18.7	25.3	1.0	0.1	0.0	(257)
대전	10.2	31.6	8.4	0.7	0.0	(252)
울산	8.1	18.6	5.7	1.0	1.0	(152)
경기	7.8	30.8	9.3	0.8	0.8	(1,989)
강원	10.2	25.5	5.5	0.0	0.0	(404)
충북	17.9	47.0	5.9	0.0	0.0	(374)
충남	15.5	28.8	7.7	0.1	0.0	(569)
전북	22.7	28.0	2.7	0.4	0.3	(528)
전남	16.2	28.0	1.1	0.0	0.0	(626)
경북	14.6	33.9	3.3	0.7	0.2	(769)
경남	10.8	33.7	4.6	0.0	0.0	(710)
제주	28.4	54.3	6.2	0.0	0.7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각 항목별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부표Ⅱ-6-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지역	화장	자연장	산골	매장	시신기증	기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계	(명)
전국 ¹⁾	19.7	9.6	34.4	22.9	2.2	0.0	11.3	100.0	(10,279)
서울	21.0	10.2	34.8	17.3	4.7	0.0	12.0	100.0	(1,844)
부산	14.3	5.5	44.9	17.0	1.8	0.0	16.6	100.0	(745)
대구	28.6	12.9	24.1	28.1	1.7	0.0	4.6	100.0	(472)
인천	21.9	5.8	54.4	11.6	1.7	0.0	4.6	100.0	(463)
광주	23.0	10.3	25.5	23.7	0.5	0.0	17.0	100.0	(257)
대전	17.9	5.4	39.9	17.6	0.0	0.0	19.3	100.0	(252)
울산	11.5	13.7	47.2	15.4	0.4	0.0	11.9	100.0	(152)
경기	19.3	12.6	37.0	15.9	4.1	0.0	11.1	100.0	(1,989)
강원	28.0	4.9	32.3	23.5	0.4	0.0	10.8	100.0	(404)
충북	29.1	4.2	13.1	48.1	1.2	0.0	4.3	100.0	(374)
충남	17.6	6.8	26.5	31.1	0.9	0.0	17.1	100.0	(569)
전북	23.6	11.2	31.6	22.2	1.3	0.1	10.1	100.0	(528)
전남	19.7	5.3	28.5	33.5	0.6	0.0	12.5	100.0	(626)
경북	11.3	12.3	32.6	38.5	0.2	0.0	5.0	100.0	(769)
경남	14.4	12.7	39.6	18.9	0.9	0.0	13.5	100.0	(710)
제주	22.7	5.8	6.5	49.6	0.0	0.0	15.5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6-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명)
전국 ¹⁾	0.5	3.4	7.3	36.7	52.2	100.0 (10,271)
서울	1.3	2.7	8.8	33.3	54.0	100.0 (1,844)
부산	0.3	2.2	4.0	37.3	56.3	100.0 (739)
대구	0.2	1.4	7.4	35.7	55.3	100.0 (472)
인천	0.1	1.2	3.5	60.8	34.4	100.0 (463)
광주	0.0	4.9	11.2	26.7	57.3	100.0 (257)
대전	0.0	0.5	3.9	51.4	44.1	100.0 (252)
울산	0.0	7.8	10.8	45.2	36.2	100.0 (152)
경기	0.1	3.4	7.5	31.3	57.7	100.0 (1,989)
강원	0.8	1.2	3.6	51.2	43.2	100.0 (404)
충북	0.3	6.3	3.8	23.1	66.4	100.0 (374)
충남	0.5	2.3	7.6	38.4	51.2	100.0 (569)
전북	0.3	4.1	6.4	31.5	57.8	100.0 (528)
전남	0.5	5.0	11.3	26.5	56.8	100.0 (626)
경북	0.2	5.2	9.3	41.7	43.6	100.0 (769)
경남	0.2	4.4	6.3	44.5	44.7	100.0 (706)
제주	2.9	8.4	10.9	47.8	30.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6-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단위: %, 명)

지역	자살 생각률 ¹⁾	자살 시도율 ²⁾	자살생각 이유 ²⁾							계 (명)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배우자 가족,친구)	부부자녀 친구갈등 및 단절	배우자 가족 건강	기타	
전국	10.9	12.5	24.4	40.4	13.3	5.4	11.5	4.8	0.2	100.0 (1,121)
서울	13.5	18.3	17.4	43.1	20.8	2.9	10.9	4.9	0.0	100.0 (248)
부산	15.5	16.2	29.6	39.4	6.7	8.8	13.1	2.4	0.0	100.0 (116)
대구	9.0	8.6	29.6	42.1	5.3	6.8	11.2	5.0	0.0	100.0 (42)
인천	12.7	3.4	28.7	42.8	12.6	0.0	9.7	6.3	0.0	100.0 (59)
광주	6.1	16.6	15.1	54.5	8.9	3.8	11.8	5.9	0.0	100.0 (16)
대전	5.5	7.2	39.5	26.5	12.7	7.0	2.4	12.0	0.0	100.0 (14)
울산	10.4	9.1	29.1	49.0	3.0	9.8	4.2	4.8	0.0	100.0 (16)
경기	15.9	9.3	24.7	41.1	10.3	5.7	13.7	4.2	0.4	100.0 (314)
강원	6.0	18.8	19.7	39.7	21.1	1.3	16.3	1.9	0.0	100.0 (24)
충북	7.3	18.1	16.6	35.3	20.6	9.9	14.0	2.4	1.3	100.0 (27)
충남	4.1	3.8	31.8	40.8	8.1	6.1	5.8	6.1	1.3	100.0 (23)
전북	9.4	16.2	28.1	33.1	10.7	1.7	18.9	7.5	0.0	100.0 (50)
전남	6.2	8.2	20.5	27.2	28.7	11.9	3.6	8.1	0.0	100.0 (39)
경북	8.8	12.8	30.2	39.8	17.1	7.1	0.7	5.1	0.0	100.0 (68)
경남	8.2	7.7	24.5	39.2	6.7	8.5	14.6	6.5	0.0	100.0 (58)
제주	6.5	10.2	41.8	34.6	2.2	0.0	16.2	5.2	0.0	100.0 (8)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 1,12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단위: %, 명)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명)
전국 ¹⁾	39.4	25.1	38.2	93.9	92.7	4.8	(10,451)
서울	49.4	14.6	38.2	88.7	85.6	5.2	(1,862)
부산	44.8	16.2	40.5	93.7	96.3	3.2	(780)
대구	39.6	18.0	29.7	95.7	94.8	2.1	(485)
인천	46.4	10.2	27.7	96.4	96.0	10.7	(471)
광주	30.5	10.3	63.3	94.3	97.2	2.2	(261)
대전	37.5	13.5	55.0	96.5	95.2	2.8	(255)
울산	51.6	18.0	49.0	93.4	91.4	8.5	(152)
경기	44.8	25.7	26.5	90.6	90.0	5.0	(2,009)
강원	37.2	28.9	30.5	99.7	95.2	12.1	(414)
충북	29.9	42.7	50.6	97.7	94.1	3.3	(382)
충남	33.0	35.2	54.1	96.5	93.1	4.5	(578)
전북	30.3	30.4	40.8	96.1	97.0	5.6	(532)
전남	24.9	36.2	49.8	96.3	98.6	4.0	(627)
경북	24.1	41.6	35.7	98.3	93.9	4.5	(776)
경남	36.3	31.2	37.7	96.3	96.1	1.6	(734)
제주	41.1	43.5	44.1	96.2	93.4	2.1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단위: %, 만원)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국 ¹⁾	862.0	357.1	188.5	347.8	520.4	29.8	2,305.0
서울	1,480.7	383.6	335.0	329.4	540.2	60.6	3,128.8
부산	888.9	255.1	143.4	386.7	473.6	41.8	2,189.4
대구	848.1	317.2	154.6	406.3	614.8	11.0	2,352.0
인천	832.5	111.9	195.9	294.0	378.3	21.8	1,834.3
광주	668.6	174.8	156.6	376.8	827.0	6.3	2,210.1
대전	581.6	266.5	250.0	407.7	756.7	7.5	2,270.0
울산	1,089.9	238.1	233.1	272.6	471.4	19.5	2,324.8
경기	1,112.0	438.1	214.9	344.2	484.8	30.9	2,623.6
강원	622.8	322.5	75.6	324.3	529.8	17.8	1,892.1
충북	630.1	519.4	158.9	385.6	471.9	59.6	2,225.5
충남	522.2	338.5	165.0	363.6	439.7	7.7	1,836.6
전북	453.8	404.0	92.4	335.1	555.6	39.5	1,879.9
전남	276.3	276.6	78.5	347.8	416.3	18.6	1,414.1
경북	421.2	575.7	140.4	392.2	638.5	13.0	2,181.0
경남	592.5	205.4	111.9	311.4	478.8	3.7	1,704.4
제주	458.1	520.9	141.1	211.2	571.2	13.8	1,916.4
〈구성비〉							
전국 ¹⁾	37.4	15.5	8.2	15.1	22.6	1.3	100.0 (10,423)
서울	47.3	12.3	10.7	10.5	17.3	1.9	100.0 (1,858)
부산	40.6	11.7	6.6	17.7	21.6	1.9	100.0 (780)
대구	36.1	13.5	6.6	17.3	26.1	0.5	100.0 (485)
인천	45.4	6.1	10.7	16.0	20.6	1.2	100.0 (471)
광주	30.2	7.9	7.1	17.1	37.4	0.3	100.0 (261)
대전	25.6	11.7	11.0	18.0	33.3	0.3	100.0 (255)
울산	46.9	10.2	10.0	11.7	20.3	0.8	100.0 (152)
경기	42.4	16.7	8.2	13.1	18.5	1.2	100.0 (1,989)
강원	32.9	17.0	4.0	17.1	28.0	0.9	100.0 (411)
충북	28.3	23.3	7.1	17.3	21.2	2.7	100.0 (382)
충남	28.4	18.4	9.0	19.8	23.9	0.4	100.0 (578)
전북	24.1	21.5	4.9	17.8	29.6	2.1	100.0 (532)
전남	19.5	19.6	5.6	24.6	29.4	1.3	100.0 (627)
경북	19.3	26.4	6.4	18.0	29.3	0.6	100.0 (776)
경남	34.8	12.1	6.6	18.3	28.1	0.2	100.0 (734)
제주	23.9	27.2	7.4	11.0	29.8	0.7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단위: %, 명)

지역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기타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기타 공적 급여			
전국 ¹⁾	14.3	13.8	27.6	92.9	31.9	66.4	5.4	14.6	0.8	2.5	(10,451)
서울	15.0	8.0	27.0	87.0	31.4	53.1	5.8	8.3	1.2	2.9	(1,862)
부산	16.2	9.2	29.7	92.3	33.7	74.8	5.0	10.6	1.3	0.9	(780)
대구	12.4	9.3	20.4	94.7	36.7	65.3	3.1	9.2	0.0	1.6	(485)
인천	18.7	6.0	18.7	95.7	28.2	77.7	11.0	10.7	0.5	8.1	(471)
광주	11.8	4.3	48.4	93.1	39.3	63.4	6.6	5.0	0.1	1.0	(261)
대전	19.1	5.8	46.9	96.3	33.7	65.3	10.3	7.2	0.1	2.2	(255)
울산	22.1	11.7	39.3	93.4	32.1	60.9	6.3	8.9	0.4	6.9	(152)
경기	14.2	12.6	19.1	89.6	28.7	59.5	4.8	14.4	1.3	1.9	(2,009)
강원	14.3	14.4	21.6	99.1	31.1	77.4	4.1	11.1	0.6	8.5	(414)
충북	10.4	22.3	34.4	97.7	30.6	68.0	3.9	19.3	0.1	2.3	(382)
충남	12.2	21.6	37.5	95.6	27.9	66.1	4.6	21.3	0.4	2.6	(578)
전북	13.0	15.6	31.4	94.7	33.3	76.4	6.2	13.9	1.4	1.5	(532)
전남	11.6	22.5	35.6	95.5	35.0	86.2	6.9	40.8	0.1	1.7	(627)
경북	11.7	23.6	25.5	98.1	34.4	68.8	3.1	16.1	0.2	3.0	(776)
경남	14.8	18.7	26.7	94.9	32.9	74.2	5.9	17.2	0.7	0.1	(734)
제주	23.0	27.2	36.2	95.0	40.5	57.8	2.4	25.0	0.6	0.5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단위: 만원, %)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국 ¹⁾	122.3	145.0	110.6	228.7	335.5	4.3	12.9	959.3
서울	207.5	203.7	193.2	215.1	359.7	6.3	35.2	1220.6
부산	148.2	89.1	94.7	256.5	319.8	2.9	16.6	927.8
대구	95.7	119.5	84.7	269.7	370.3	0.0	4.7	944.5
인천	137.3	40.6	107.5	201.9	246.7	1.9	14.7	750.6
광주	88.6	40.7	99.0	244.8	523.0	0.5	2.2	998.8
대전	114.1	83.7	154.9	260.8	473.5	0.5	6.7	1094.1
울산	184.4	121.0	147.1	190.8	336.1	0.4	12.4	992.2
경기	126.6	137.5	126.6	227.9	306.1	10.3	6.8	941.9
강원	82.4	113.5	46.8	216.8	354.6	3.0	10.4	827.5
충북	74.4	217.8	94.4	248.7	316.6	0.7	27.2	979.9
충남	86.2	169.0	97.2	233.8	273.0	0.9	3.9	864.0
전북	72.0	155.2	51.6	217.6	329.3	8.5	1.5	835.8
전남	58.6	126.4	47.9	224.8	281.4	0.1	7.4	746.6
경북	91.5	220.7	74.9	257.2	398.1	1.1	8.1	1051.6
경남	80.1	89.3	67.8	207.1	317.9	2.0	0.5	764.6
제주	98.1	277.7	85.5	132.8	367.4	2.6	0.3	964.4
〈구성비〉								
전국 ¹⁾	12.7	15.1	11.5	23.8	35.0	0.4	1.3	100.0 (10,451)
서울	17.0	16.7	15.8	17.6	29.5	0.5	2.9	100.0 (1,862)
부산	16.0	9.6	10.2	27.7	34.5	0.3	1.8	100.0 (780)
대구	10.1	12.6	9.0	28.6	39.2	0.0	0.5	100.0 (485)
인천	18.3	5.4	14.3	26.9	32.9	0.3	2.0	100.0 (471)
광주	8.9	4.1	9.9	24.5	52.4	0.1	0.2	100.0 (261)
대전	10.4	7.6	14.2	23.8	43.3	0.0	0.6	100.0 (255)
울산	18.6	12.2	14.8	19.2	33.9	0.0	1.3	100.0 (152)
경기	13.4	14.6	13.4	24.2	32.5	1.1	0.7	100.0 (2,009)
강원	10.0	13.7	5.7	26.2	42.8	0.4	1.3	100.0 (414)
충북	7.6	22.2	9.6	25.4	32.3	0.1	2.8	100.0 (382)
충남	10.0	19.6	11.2	27.1	31.6	0.1	0.4	100.0 (578)
전북	8.6	18.6	6.2	26.0	39.4	1.0	0.2	100.0 (532)
전남	7.8	16.9	6.4	30.1	37.7	0.0	1.0	100.0 (627)
경북	8.7	21.0	7.1	24.5	37.9	0.1	0.8	100.0 (776)
경남	10.5	11.7	8.9	27.1	41.6	0.3	0.1	100.0 (734)
제주	10.2	28.8	8.9	13.8	38.1	0.3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지역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 비중
전국 ¹⁾²⁾	25.1	13.7	14.3	10.7	36.3	100.0 (10,423)	56.0
서울	29.3	14.9	13.8	10.7	31.4	100.0 (1,858)	51.4
부산	26.5	13.8	12.8	9.5	37.4	100.0 (780)	55.9
대구	28.5	14.7	11.6	11.7	33.5	100.0 (485)	53.2
인천	21.4	18.1	16.9	9.8	33.8	100.0 (471)	55.7
광주	21.8	15.0	16.2	10.8	36.2	100.0 (261)	57.5
대전	18.6	14.7	16.4	12.4	37.8	100.0 (255)	59.6
울산	25.9	12.9	11.5	8.8	40.9	100.0 (152)	57.7
경기	31.9	11.5	14.3	8.5	33.9	100.0 (1,989)	51.8
강원	23.3	14.8	13.7	13.6	34.7	100.0 (411)	56.5
충북	25.2	12.0	13.4	8.9	40.5	100.0 (382)	57.6
충남	23.4	12.1	13.9	11.2	39.4	100.0 (578)	58.8
전북	21.9	12.4	16.1	9.4	40.2	100.0 (532)	59.3
전남	12.9	12.8	19.9	14.3	40.1	100.0 (627)	64.2
경북	19.0	15.2	12.7	12.1	41.0	100.0 (776)	60.8
경남	20.2	13.8	13.9	12.6	39.6	100.0 (734)	60.1
제주	22.0	14.4	10.8	10.1	42.7	100.0 (132)	59.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원 작년 한해(2013.1.1.~2013.12.31.)를 기준으로 했으며, 가구형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함.

〈부표 II-7-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부부소득)

(단위: %, 명)

지역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기타 공적 급여			
전국 ¹⁾	21.4	21.1	36.1	93.5	43.7	67.0	5.5	20.1	1.2	2.5	(10,451)
서울	24.0	12.0	36.4	88.1	42.1	53.8	5.8	11.5	1.7	2.9	(1,862)
부산	23.1	13.6	38.2	93.3	43.0	75.4	5.1	15.0	1.7	0.9	(780)
대구	19.3	14.0	27.8	94.9	50.8	66.1	3.1	12.5	0.0	1.6	(485)
인천	29.7	9.0	26.0	96.3	38.0	78.6	11.0	14.7	1.0	8.1	(471)
광주	19.6	7.8	61.1	94.3	55.5	63.9	6.6	7.9	0.4	1.0	(261)
대전	25.4	10.0	53.8	96.3	48.1	66.1	10.3	10.6	0.1	2.2	(255)
울산	31.9	15.6	46.3	93.4	43.8	61.8	6.3	12.6	0.8	6.9	(152)
경기	20.6	19.7	24.6	90.6	39.2	59.9	4.8	20.5	2.1	1.9	(2,009)
강원	22.8	22.2	29.5	99.3	42.9	77.5	4.4	15.8	0.7	8.5	(414)
충북	16.5	35.6	46.8	97.7	42.9	68.4	3.9	27.4	0.1	2.3	(382)
충남	17.6	31.5	49.9	95.6	38.7	67.1	4.6	28.7	0.4	2.6	(578)
전북	19.0	25.4	38.5	95.5	46.2	77.3	6.3	20.1	2.5	1.5	(532)
전남	17.6	33.3	47.6	96.1	48.9	86.6	6.9	46.9	0.1	1.7	(627)
경북	16.1	36.8	33.8	98.1	49.3	69.8	3.3	26.8	0.3	3.0	(776)
경남	22.4	27.5	36.2	95.9	44.3	74.3	6.0	24.7	1.0	0.1	(734)
제주	32.5	40.8	43.1	95.7	59.3	58.0	2.4	30.2	0.6	0.5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부부소득)

(단위: %, 만원)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국 ¹⁾	204.0	232.3	176.2	340.8	499.0	7.7	18.1	1,478.1
서울	332.5	307.4	313.9	323.2	513.9	10.2	46.7	1,847.8
부산	219.9	149.1	138.7	374.0	454.3	3.5	25.5	1,364.9
대구	189.0	180.7	140.6	402.3	587.7	0.0	8.2	1,508.5
인천	262.9	60.6	156.6	286.2	349.2	6.1	15.6	1,137.3
광주	152.4	91.3	154.0	365.3	801.7	1.5	4.8	1,571.1
대전	179.6	149.4	239.1	397.3	724.9	0.5	6.7	1,697.5
울산	289.9	171.0	222.1	270.6	461.2	0.8	18.7	1,434.3
경기	204.4	234.2	205.2	340.9	469.3	20.3	8.9	1,483.2
강원	159.6	179.5	70.8	319.5	507.3	3.2	13.6	1,253.6
충북	132.7	342.5	145.2	380.9	461.7	0.7	45.0	1,508.7
충남	146.7	258.0	153.0	349.7	400.6	1.2	5.3	1,314.5
전북	109.7	267.6	82.5	323.1	517.5	14.6	3.7	1,318.7
전남	101.1	201.8	77.1	336.3	398.9	0.1	17.6	1,132.9
경북	165.1	360.1	124.6	389.6	628.6	2.1	10.9	1,680.9
경남	150.1	133.7	107.0	303.4	465.5	2.7	0.5	1,162.9
제주	181.5	480.2	139.1	207.6	560.8	5.0	0.4	1,574.5
〈구성비〉								
전국 ¹⁾	13.8	15.7	11.9	23.1	33.8	0.5	1.2	100.0 (10,451)
서울	18.0	16.6	17.0	17.5	27.8	0.6	2.5	100.0 (1,862)
부산	16.1	10.9	10.2	27.4	33.3	0.3	1.9	100.0 (780)
대구	12.5	12.0	9.3	26.7	39.0	0.0	0.5	100.0 (485)
인천	23.1	5.3	13.8	25.2	30.7	0.5	1.4	100.0 (471)
광주	9.7	5.8	9.8	23.3	51.0	0.1	0.3	100.0 (261)
대전	10.6	8.8	14.1	23.4	42.7	0.0	0.4	100.0 (255)
울산	20.2	11.9	15.5	18.9	32.2	0.1	1.3	100.0 (152)
경기	13.8	15.8	13.8	23.0	31.6	1.4	0.6	100.0 (2,009)
강원	12.7	14.3	5.7	25.5	40.5	0.3	1.1	100.0 (414)
충북	8.8	22.7	9.6	25.2	30.6	0.0	3.0	100.0 (382)
충남	11.2	19.6	11.6	26.6	30.5	0.1	0.4	100.0 (578)
전북	8.3	20.3	6.3	24.5	39.2	1.1	0.3	100.0 (532)
전남	8.9	17.8	6.8	29.7	35.2	0.0	1.6	100.0 (627)
경북	9.8	21.4	7.4	23.2	37.4	0.1	0.6	100.0 (776)
경남	12.9	11.5	9.2	26.1	40.0	0.2	0.0	100.0 (734)
제주	11.5	30.5	8.8	13.2	35.6	0.3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가구소득 중 부부소득의 비중

(단위: %, 명)

지역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국 ¹⁾²⁾³⁾	12.1	6.6	5.2	2.6	73.6	100.0 (10,423)	80.9
서울	14.5	8.5	7.2	5.2	64.7	100.0 (1,858)	75.4
부산	13.9	7.5	6.2	3.6	68.7	100.0 (780)	77.9
대구	11.8	9.4	4.7	3.2	70.9	100.0 (485)	79.2
인천	10.0	8.9	8.4	0.6	72.1	100.0 (471)	80.4
광주	8.2	5.5	6.4	1.5	78.4	100.0 (261)	85.2
대전	6.8	7.9	4.0	2.0	79.4	100.0 (255)	85.7
울산	12.4	9.2	7.0	2.6	68.9	100.0 (152)	78.1
경기	17.4	6.9	5.8	2.4	67.5	100.0 (1,989)	75.4
강원	11.6	7.2	3.9	2.9	74.4	100.0 (411)	81.6
충북	11.7	5.2	3.3	1.2	78.5	100.0 (382)	83.5
충남	11.1	3.2	4.8	1.8	79.2	100.0 (578)	84.5
전북	11.0	4.0	2.7	1.2	81.1	100.0 (532)	85.5
전남	5.5	3.1	2.4	2.1	87.0	100.0 (627)	90.8
경북	5.4	5.1	3.9	1.2	84.4	100.0 (776)	88.9
경남	10.5	5.4	2.7	1.5	79.9	100.0 (734)	84.8
제주	3.7	7.0	5.4	1.8	82.2	100.0 (132)	88.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배우자가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3) 소득원은 작년 한해(2013.1.1.~2013.12.31.)를 기준으로 했으며, 가구형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함.

〈부표 II-7-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부동산 규모
전국 ¹⁾	10.9	89.1	100.0 (10,441)	21,342.3
서울	5.3	94.7	100.0 (1,855)	39,777.8
부산	7.4	92.6	100.0 (780)	12,866.4
대구	11.1	89.0	100.0 (485)	17,394.8
인천	9.9	90.1	100.0 (471)	12,850.1
광주	11.2	88.8	100.0 (261)	12,234.7
대전	6.7	93.3	100.0 (255)	13,987.4
울산	7.6	92.4	100.0 (152)	17,988.7
경기	7.6	92.4	100.0 (2,008)	28,238.9
강원	21.8	78.2	100.0 (413)	16,410.0
충북	15.1	84.9	100.0 (382)	16,258.8
충남	9.7	90.3	100.0 (578)	18,009.1
전북	11.4	88.6	100.0 (532)	10,016.9
전남	19.4	80.6	100.0 (627)	6,030.0
경북	18.5	81.5	100.0 (776)	16,843.1
경남	15.5	84.5	100.0 (733)	13,733.5
제주	23.7	76.3	100.0 (131)	20,163.6

주: 1) 부동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동산 규모는 무응답 10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7-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개인)

(단위: %, 명, 만원)

지역	없음	있음	부동산 규모	계 (명)
전국 ¹⁾	40.9	59.1	12,072.0	100.0 (10,444)
서울	37.3	62.7	22,798.7	100.0 (1,857)
부산	35.9	64.1	7,444.3	100.0 (780)
대구	43.7	56.3	9,419.3	100.0 (485)
인천	38.8	61.2	7,496.1	100.0 (471)
광주	46.0	54.0	6,668.7	100.0 (261)
대전	33.6	66.4	8,873.3	100.0 (255)
울산	35.3	64.7	11,809.4	100.0 (152)
경기	40.2	59.8	15,265.3	100.0 (2,008)
강원	49.7	50.3	9,960.4	100.0 (414)
충북	45.6	54.4	8,851.7	100.0 (382)
충남	40.9	59.1	10,189.5	100.0 (578)
전북	40.5	59.5	5,660.1	100.0 (532)
전남	45.5	54.5	3,380.0	100.0 (627)
경북	45.0	55.1	9,700.9	100.0 (776)
경남	42.5	57.5	7,831.8	100.0 (734)
제주	46.8	53.2	12,008.7	100.0 (131)

주: 1) 부동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동산 규모는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7-12〉 노인(65세 이상)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부부)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부동산 규모	계 (명)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국 ¹⁾	19.7	73.4	6.9	18,659.4	100.0 (10,451)
서울	14.5	79.1	6.4	34,885.3	100.0 (1,862)
부산	16.1	77.8	6.1	11,161.6	100.0 (780)
대구	20.3	71.3	8.4	15,156.8	100.0 (485)
인천	17.5	80.6	1.9	11,015.2	100.0 (471)
광주	20.7	73.3	6.0	10,981.1	100.0 (261)
대전	11.8	82.1	6.1	12,989.6	100.0 (255)
울산	16.4	78.3	5.3	16,745.2	100.0 (152)
경기	20.4	69.1	10.5	24,156.8	100.0 (2,009)
강원	30.7	64.8	4.4	14,421.0	100.0 (414)
충북	24.1	72.0	3.8	13,940.2	100.0 (382)
충남	18.5	77.6	3.9	14,870.9	100.0 (578)
전북	19.1	71.5	9.4	8,808.1	100.0 (532)
전남	24.7	71.1	4.3	5,455.6	100.0 (627)
경북	23.5	67.4	9.2	15,554.3	100.0 (776)
경남	22.9	71.8	5.3	12,127.1	100.0 (734)
제주	26.8	64.2	9.0	19,510.1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부 중 1인이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조사되었으면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7-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전국 ¹⁾	14.8	85.2	100.0 (10,406)	3,142.2
서울	20.8	79.2	100.0 (1,850)	5,088.7
부산	0.0	100.0	100.0 (780)	2,797.2
대구	8.9	91.1	100.0 (485)	2,604.7
인천	17.7	82.3	100.0 (468)	1,453.6
광주	21.6	78.4	100.0 (261)	3,385.6
대전	1.3	98.7	100.0 (255)	7,008.7
울산	5.4	94.7	100.0 (152)	3,344.6
경기	12.8	87.2	100.0 (1,986)	3,017.4
강원	24.1	75.9	100.0 (414)	1,565.1
충북	0.5	99.5	100.0 (382)	2,357.9
충남	0.3	99.8	100.0 (578)	3,198.1
전북	56.6	43.4	100.0 (532)	1,523.2
전남	24.6	75.4	100.0 (627)	1,941.5
경북	4.9	95.1	100.0 (776)	3,636.0
경남	13.3	86.8	100.0 (729)	1,835.7
제주	12.1	87.9	100.0 (131)	3,057.4

주: 1) 금융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 금융자산 규모는 무응답 4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개인)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전국 ¹⁾	25.2	74.8	100.0 (10,439)	1,667.0
서울	32.0	68.0	100.0 (1,855)	2,628.0
부산	0.0	100.0	100.0 (780)	1,430.7
대구	21.8	78.2	100.0 (485)	1,489.1
인천	29.1	70.9	100.0 (471)	732.0
광주	44.3	55.8	100.0 (261)	2,044.2
대전	7.9	92.1	100.0 (255)	3,915.2
울산	11.2	88.8	100.0 (152)	1,789.9
경기	25.1	74.9	100.0 (2,006)	1,599.9
강원	39.6	60.4	100.0 (414)	982.8
충북	3.9	96.1	100.0 (382)	1,255.7
충남	10.9	89.1	100.0 (578)	1,797.2
전북	66.8	33.2	100.0 (532)	818.2
전남	44.6	55.4	100.0 (627)	1,227.3
경북	12.1	87.9	100.0 (776)	1,647.4
경남	19.1	80.9	100.0 (732)	927.7
제주	20.6	79.4	100.0 (131)	1,819.5

주: 1) 금융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금융자산 규모는 무응답 1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부부)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금융자산 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국 ¹⁾	17.6	47.5	34.9	100.0 (10,451)	2,670.4
서울	24.4	42.8	32.8	100.0 (1,862)	4,312.6
부산	0.0	42.4	57.7	100.0 (780)	2,326.7
대구	12.3	51.6	36.1	100.0 (485)	2,220.3
인천	20.6	52.8	26.6	100.0 (471)	1,098.1
광주	27.9	54.4	17.7	100.0 (261)	3,173.3
대전	3.0	46.0	51.1	100.0 (255)	6,255.2
울산	6.6	51.1	42.4	100.0 (152)	2,909.1
경기	16.8	47.8	35.4	100.0 (2,009)	2,496.7
강원	26.8	58.0	15.2	100.0 (414)	1,421.1
충북	1.0	46.5	52.5	100.0 (382)	2,074.8
충남	2.8	56.5	40.8	100.0 (578)	2,803.7
전북	60.1	28.5	11.4	100.0 (532)	1,388.2
전남	28.6	60.5	10.9	100.0 (627)	1,847.3
경북	5.4	47.7	46.9	100.0 (776)	2,802.1
경남	14.6	45.9	39.4	100.0 (734)	1,533.9
제주	13.8	44.5	41.7	100.0 (132)	2,926.9

주: 1) 전채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전국 ¹⁾	52.5	47.5	100.0 (10,446)	513.2
서울	59.1	40.9	100.0 (1,860)	517.9
부산	67.0	33.0	100.0 (780)	280.1
대구	40.7	59.3	100.0 (485)	418.2
인천	58.0	42.0	100.0 (471)	327.0
광주	61.1	38.9	100.0 (261)	380.7
대전	61.4	38.6	100.0 (255)	377.7
울산	44.6	55.4	100.0 (152)	445.5
경기	47.6	52.4	100.0 (2,006)	651.9
강원	49.0	51.0	100.0 (414)	584.6
충북	42.6	57.4	100.0 (382)	843.6
충남	55.1	44.9	100.0 (578)	467.5
전북	48.5	51.5	100.0 (532)	590.6
전남	62.6	37.4	100.0 (627)	293.5
경북	33.6	66.4	100.0 (776)	671.7
경남	54.7	45.3	100.0 (734)	471.9
제주	41.1	58.9	100.0 (132)	379.3

주: 1) 기타자산의 유무는 전채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7-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기타자산 규모(개인)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전국 ¹⁾	73.3	26.7	100.0 (10,449)	224.4
서울	76.2	23.8	100.0 (1,860)	260.3
부산	85.0	15.1	100.0 (780)	94.9
대구	65.4	34.6	100.0 (485)	173.6
인천	78.3	21.7	100.0 (471)	116.8
광주	80.3	19.7	100.0 (261)	151.0
대전	80.4	19.6	100.0 (255)	186.6
울산	63.3	36.7	100.0 (152)	178.9
경기	72.1	27.9	100.0 (2,009)	306.8
강원	75.1	24.9	100.0 (414)	175.0
충북	65.6	34.4	100.0 (382)	358.5
충남	77.2	22.8	100.0 (578)	182.1
전북	71.4	28.6	100.0 (532)	237.4
전남	79.4	20.6	100.0 (627)	138.1
경북	53.4	46.6	100.0 (776)	304.0
경남	75.3	24.8	100.0 (734)	175.1
제주	63.7	36.3	100.0 (132)	186.8

주: 1) 기타자산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7-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부부)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기타자산 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국 ¹⁾	62.7	31.9	5.4	100.0 (10,451)	351.8
서울	68.7	25.9	5.5	100.0 (1,862)	381.7
부산	77.9	21.5	0.6	100.0 (780)	160.7
대구	50.8	38.5	10.7	100.0 (485)	279.3
인천	69.0	27.3	3.7	100.0 (471)	189.8
광주	70.4	27.4	2.2	100.0 (261)	271.6
대전	72.3	24.8	2.8	100.0 (255)	308.9
울산	53.8	32.8	13.5	100.0 (152)	267.1
경기	60.9	33.6	5.6	100.0 (2,009)	476.2
강원	62.5	34.7	2.7	100.0 (414)	271.9
충북	50.2	41.8	8.0	100.0 (382)	599.3
충남	65.5	32.6	1.9	100.0 (578)	266.8
전북	59.3	34.5	6.2	100.0 (532)	427.8
전남	68.4	30.5	1.1	100.0 (627)	196.9
경북	40.3	43.9	15.8	100.0 (776)	477.6
경남	64.7	32.7	2.6	100.0 (734)	283.5
제주	46.1	49.0	4.9	100.0 (132)	321.7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부 중 1인이라도 기타자산이 조사되었으면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부표 II-7-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가구)

(단위: %, 명, 만원)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전체 ¹⁾	66.6	33.5	100.0 (10,403)	2,630.8
서울	58.7	41.3	100.0 (1,852)	4,962.2
부산	53.3	46.7	100.0 (780)	2,074.9
대구	67.3	32.7	100.0 (485)	1,769.9
인천	66.3	33.8	100.0 (469)	1,612.9
광주	87.6	12.4	100.0 (261)	837.8
대전	75.2	24.8	100.0 (255)	1,612.2
울산	45.2	54.8	100.0 (152)	2,408.4
경기	52.9	47.1	100.0 (1,973)	4,290.6
강원	88.1	11.9	100.0 (414)	734.0
충북	73.3	26.7	100.0 (382)	1,182.9
충남	75.9	24.1	100.0 (578)	1,378.0
전북	85.8	14.2	100.0 (532)	745.9
전남	87.1	12.9	100.0 (627)	575.7
경북	73.6	26.4	100.0 (776)	2,469.7
경남	68.3	31.7	100.0 (734)	1,393.2
제주	74.0	26.0	100.0 (131)	1,763.1

주: 1) 부채의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채 규모는 무응답 4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개인)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전국 ¹⁾	80.1	19.9	100.0 (10,439)	1,415.6
서울	74.7	25.3	100.0 (1,858)	2,716.8
부산	72.7	27.3	100.0 (780)	989.8
대구	82.7	17.3	100.0 (485)	1,042.1
인천	79.2	20.8	100.0 (471)	851.1
광주	92.5	7.5	100.0 (261)	417.9
대전	83.3	16.7	100.0 (255)	903.4
울산	62.0	38.0	100.0 (152)	1,434.8
경기	72.5	27.5	100.0 (2,001)	2,217.3
강원	93.2	6.8	100.0 (414)	362.7
충북	85.2	14.8	100.0 (382)	614.8
충남	86.2	13.8	100.0 (578)	706.4
전북	91.6	8.4	100.0 (532)	338.9
전남	92.0	8.0	100.0 (627)	294.1
경북	84.1	15.9	100.0 (776)	1,620.3
경남	81.4	18.6	100.0 (734)	709.9
제주	85.3	14.7	100.0 (131)	899.0

주: 1) 부채 유무는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채 규모는 무응답 1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7-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부부)

(단위: %, 만원, 명)

지역	없음	있음		계 (명)	부채 규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전국 ¹⁾	71.5	26.6	1.9	100.0 (10,451)	2,171.0
서울	63.8	34.5	1.7	100.0 (1,862)	4,246.3
부산	62.4	35.8	1.9	100.0 (780)	1,401.9
대구	71.0	27.6	1.4	100.0 (485)	1,603.0
인천	69.2	30.7	0.2	100.0 (471)	1,263.1
광주	88.9	10.3	0.8	100.0 (261)	745.6
대전	77.9	21.8	0.4	100.0 (255)	1,492.2
울산	51.0	45.5	3.5	100.0 (152)	2,043.5
경기	61.5	33.7	4.8	100.0 (2,009)	3,525.7
강원	91.3	8.8	0.0	100.0 (414)	577.2
충북	76.6	22.9	0.5	100.0 (382)	999.2
충남	79.6	20.4	0.1	100.0 (578)	990.2
전북	88.1	11.3	0.6	100.0 (532)	554.0
전남	88.8	10.6	0.6	100.0 (627)	505.5
경북	76.4	21.3	2.3	100.0 (776)	2,022.6
경남	73.2	25.7	1.1	100.0 (734)	1,032.2
제주	76.6	22.3	1.1	100.0 (132)	1,629.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만원, 명)

지역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전국 ¹⁾	143.9	(10,447)
서울	185.9	(1,862)
부산	140.8	(780)
대구	150.9	(485)
인천	115.9	(471)
광주	131.1	(261)
대전	139.7	(255)
울산	160.0	(152)
경기	164.2	(2,006)
강원	120.0	(414)
충북	129.6	(382)
충남	114.3	(578)
전북	117.9	(532)
전남	94.3	(627)
경북	145.2	(776)
경남	110.4	(734)
제주	114.7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부표 II-7-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지역	식비	월세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계 (명)
전국 ¹⁾	16.2	5.1	35.4	23.1	15.2	5.1	100.0 (10,451)
서울	20.4	6.9	30.7	21.7	15.8	4.5	100.0 (1,862)
부산	27.2	6.3	18.6	25.6	17.0	5.4	100.0 (780)
대구	13.6	6.2	39.0	23.6	13.0	4.7	100.0 (485)
인천	11.9	7.3	44.7	24.4	7.6	4.2	100.0 (471)
광주	9.5	2.4	29.4	28.5	26.7	3.5	100.0 (261)
대전	8.5	4.1	52.6	17.0	10.7	7.2	100.0 (255)
울산	15.8	11.5	29.7	22.1	15.4	5.6	100.0 (152)
경기	15.8	5.6	37.8	16.9	18.7	5.2	100.0 (2,009)
강원	14.2	2.3	49.3	18.4	14.7	1.1	100.0 (414)
충북	17.4	4.0	33.8	23.8	17.9	3.1	100.0 (382)
충남	9.6	3.7	41.9	30.3	10.6	4.0	100.0 (578)
전북	17.6	2.9	34.0	24.1	12.2	9.3	100.0 (532)
전남	6.8	2.2	39.4	37.6	11.3	2.8	100.0 (627)
경북	12.3	2.3	37.2	23.1	15.2	10.0	100.0 (776)
경남	18.3	5.5	34.5	24.4	14.3	3.1	100.0 (734)
제주	30.2	6.0	17.1	23.6	10.0	13.1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기타에는 부담없음, 교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부채상황 등이 포함됨.

〈부표 II-7-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만원, 명)

지역	지출유무			지출액			(명)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국 ¹⁾	93.6	63.8	60.5	7.1	4.4	3.2	(10,451)
서울	91.2	67.3	62.2	7.9	7.1	4.6	(1,862)
부산	91.6	51.9	48.2	7.6	3.4	2.8	(780)
대구	98.3	71.7	63.4	6.8	5.9	2.8	(485)
인천	92.8	60.4	56.5	5.2	2.1	1.9	(471)
광주	94.7	85.1	59.0	7.5	6.5	3.6	(261)
대전	99.2	74.6	63.3	5.5	4.6	2.8	(255)
울산	93.9	74.7	74.1	6.9	2.9	3.4	(152)
경기	90.2	60.2	58.5	7.7	5.1	3.1	(2,009)
강원	95.8	38.8	58.5	6.8	2.7	2.0	(414)
충북	90.8	65.7	65.5	6.0	2.2	1.6	(382)
충남	97.7	65.4	69.4	7.4	2.6	2.5	(578)
전북	96.7	63.8	68.2	6.8	4.2	4.1	(532)
전남	95.5	65.8	48.1	5.9	3.1	2.2	(627)
경북	97.4	80.4	67.8	6.5	3.7	3.2	(776)
경남	95.1	56.5	57.3	7.3	2.5	2.6	(734)
제주	97.2	46.7	81.4	7.8	1.9	5.3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 (명)
전국 ¹⁾	5.6	1.6	92.8	100.0 (10,451)
서울	5.8	1.4	92.8	100.0 (1,862)
부산	5.2	1.6	93.2	100.0 (780)
대구	3.8	2.7	93.4	100.0 (485)
인천	11.7	1.8	86.5	100.0 (471)
광주	6.8	0.9	92.3	100.0 (261)
대전	10.3	0.3	89.4	100.0 (255)
울산	6.3	1.2	92.5	100.0 (152)
경기	4.9	1.9	93.2	100.0 (2,009)
강원	4.3	1.7	94.0	100.0 (414)
충북	4.0	0.4	95.6	100.0 (382)
충남	4.6	1.0	94.5	100.0 (578)
전북	5.9	2.4	91.7	100.0 (532)
전남	7.0	1.9	91.1	100.0 (627)
경북	3.2	1.6	95.2	100.0 (776)
경남	5.9	1.5	92.6	100.0 (734)
제주	2.4	3.6	94.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7-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지역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계 (명)
전국 ¹⁾	11.8	37.9	47.2	3.1	0.1	100.0 (10,451)
서울	16.0	34.7	47.0	2.3	0.0	100.0 (1,862)
부산	17.9	46.2	35.1	0.8	0.0	100.0 (780)
대구	8.4	34.1	53.3	4.3	0.0	100.0 (485)
인천	8.6	52.9	38.0	0.6	0.0	100.0 (471)
광주	4.8	32.2	57.9	5.2	0.0	100.0 (261)
대전	8.9	39.5	43.2	8.4	0.0	100.0 (255)
울산	14.5	39.7	45.5	0.3	0.0	100.0 (152)
경기	13.6	33.9	49.6	2.9	0.0	100.0 (2,009)
강원	7.3	45.7	46.4	0.6	0.0	100.0 (414)
충북	4.9	26.7	62.2	6.3	0.0	100.0 (382)
충남	5.0	37.6	49.2	8.0	0.3	100.0 (578)
전북	11.6	33.8	52.0	2.7	0.0	100.0 (532)
전남	7.2	47.7	40.6	4.4	0.1	100.0 (627)
경북	8.6	38.5	49.5	3.3	0.0	100.0 (776)
경남	15.2	39.0	43.3	1.9	0.7	100.0 (734)
제주	14.1	29.9	51.5	4.1	0.4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부표Ⅱ-8-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평소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지역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¹⁾	1.3	31.1	23.9	36.4	7.3	100.0 (10,279)
서울	2.1	36.0	23.5	30.9	7.4	100.0 (1,844)
부산	0.5	22.3	24.5	39.1	13.6	100.0 (745)
대구	0.6	28.7	23.8	40.6	6.4	100.0 (472)
인천	1.1	25.5	32.2	37.4	3.9	100.0 (463)
광주	1.9	35.8	17.9	35.4	8.9	100.0 (257)
대전	1.2	45.2	17.5	33.3	2.8	100.0 (252)
울산	1.3	30.9	30.3	36.2	1.3	100.0 (152)
경기	1.4	33.5	22.8	35.9	6.4	100.0 (1,989)
강원	1.2	28.7	34.4	35.1	0.5	100.0 (404)
충북	0.5	40.1	20.3	31.3	7.8	100.0 (374)
충남	1.9	33.3	21.4	36.3	7.0	100.0 (569)
전북	0.8	25.8	21.4	37.5	14.6	100.0 (528)
전남	1.0	32.6	19.8	36.3	10.4	100.0 (626)
경북	0.5	26.5	26.8	43.0	3.2	100.0 (769)
경남	1.1	22.8	26.2	42.5	7.3	100.0 (710)
제주	2.4	28.0	19.2	43.2	7.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8-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단위: %, 명)

지역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¹⁾	2.7	34.2	24.8	31.6	6.7	100.0 (10,279)
서울	3.3	38.1	27.7	24.9	6.0	100.0 (1,844)
부산	1.2	25.8	25.8	33.4	13.8	100.0 (745)
대구	1.1	33.1	26.7	33.7	5.5	100.0 (472)
인천	1.3	29.4	30.9	33.9	4.5	100.0 (463)
광주	4.3	35.9	18.4	32.4	9.0	100.0 (257)
대전	1.6	47.2	17.1	31.3	2.8	100.0 (252)
울산	3.9	35.5	26.3	32.9	1.3	100.0 (152)
경기	3.4	36.6	24.4	30.3	5.3	100.0 (1,989)
강원	2.7	31.8	30.3	34.7	0.5	100.0 (404)
충북	2.1	44.9	17.4	29.1	6.4	100.0 (374)
충남	3.2	36.4	17.8	34.2	8.5	100.0 (569)
전북	0.9	30.2	21.2	31.6	16.1	100.0 (528)
전남	5.9	37.4	19.3	28.0	9.4	100.0 (626)
경북	1.4	29.0	28.8	38.2	2.6	100.0 (769)
경남	1.6	25.7	26.9	39.8	6.1	100.0 (710)
제주	3.2	27.8	23.0	39.7	6.3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8-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명, 개)

지역	본인인지 만성질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계 (명)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개)	
전국 ¹⁾	9.6	18.2	22.8	49.4	10.8	19.5	23.5	46.2	2.6	100.0 (10,279)
서울	10.7	18.4	22.1	48.7	11.8	19.7	23.6	44.8	2.5	100.0 (1,844)
부산	10.1	16.1	17.5	56.3	10.7	15.7	17.4	56.1	3.3	100.0 (745)
대구	6.6	12.5	23.7	57.2	10.4	14.6	23.9	51.1	2.6	100.0 (472)
인천	4.8	12.1	21.0	62.2	7.3	14.0	24.8	53.8	2.9	100.0 (463)
광주	12.1	22.2	27.6	38.1	14.0	26.1	28.0	31.9	2.0	100.0 (257)
대전	4.8	7.9	23.8	63.5	6.4	13.5	25.5	54.6	3.2	100.0 (252)
울산	12.4	14.4	22.2	51.0	12.4	14.4	22.2	51.0	2.7	100.0 (152)
경기	12.4	20.5	25.0	42.1	12.9	21.3	24.6	41.2	2.3	100.0 (1,989)
강원	7.9	17.3	22.8	52.0	10.1	19.3	21.3	49.3	2.6	100.0 (404)
충북	14.4	27.8	29.4	28.3	14.4	27.8	29.7	28.1	1.9	100.0 (374)
충남	7.6	17.0	21.4	54.0	9.0	18.1	23.8	49.1	2.6	100.0 (569)
전북	8.3	18.4	24.4	48.9	9.1	19.5	25.0	46.4	2.5	100.0 (528)
전남	11.5	24.3	24.9	39.3	13.3	25.9	25.4	35.5	2.0	100.0 (626)
경북	5.2	16.6	20.9	57.3	6.9	18.9	22.1	52.1	2.8	100.0 (769)
경남	8.0	17.8	19.5	54.7	9.7	17.4	20.1	52.7	2.8	100.0 (710)
제주	4.0	13.5	20.6	61.9	5.6	18.4	19.2	56.8	3.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8-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우울증상

(단위: %, 명)

지역	정상	우울증상	계 (명)	평균(점)
전국 ¹⁾	66.9	33.1	100.0 (10,261)	5.4
서울	66.8	33.2	100.0 (1,837)	5.4
부산	63.0	37.0	100.0 (743)	5.9
대구	71.8	28.2	100.0 (472)	4.5
인천	57.9	42.1	100.0 (463)	6.2
광주	78.2	21.8	100.0 (257)	4.0
대전	69.3	30.7	100.0 (251)	4.6
울산	67.1	32.9	100.0 (152)	5.3
경기	64.5	35.5	100.0 (1,983)	5.6
강원	63.6	36.4	100.0 (404)	6.0
충북	72.5	27.5	100.0 (374)	4.9
충남	68.5	31.5	100.0 (569)	4.9
전북	67.0	33.0	100.0 (527)	5.7
전남	77.0	23.0	100.0 (626)	4.5
경북	65.0	35.0	100.0 (768)	5.5
경남	65.3	34.7	100.0 (708)	5.8
제주	69.8	30.2	100.0 (126)	5.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자 1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였으며,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함.

〈부표Ⅱ-8-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단위: %, 명, 개)

지역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국 ¹⁾	18.0	11.0	10.7	60.3	100.0 (10,279)	5.3
서울	17.7	13.0	13.4	55.9	100.0 (1,844)	4.5
부산	19.7	8.9	7.2	64.2	100.0 (745)	6.4
대구	19.3	10.4	8.7	61.7	100.0 (472)	5.5
인천	17.9	9.9	9.3	62.9	100.0 (463)	5.7
광주	18.2	15.9	8.5	57.4	100.0 (257)	5.3
대전	14.7	9.9	10.3	65.1	100.0 (252)	5.2
울산	19.0	9.8	10.5	60.8	100.0 (152)	5.8
경기	18.1	13.4	12.1	56.4	100.0 (1,989)	4.7
강원	17.3	9.9	10.4	62.4	100.0 (404)	5.4
충북	22.1	9.6	10.1	58.1	100.0 (374)	4.7
충남	14.6	7.9	10.4	67.2	100.0 (569)	5.4
전북	15.7	9.5	8.0	66.9	100.0 (528)	6.4
전남	18.2	9.1	9.3	63.4	100.0 (626)	6.5
경북	16.5	7.9	11.4	64.2	100.0 (769)	5.7
경남	20.2	10.3	8.7	60.8	100.0 (710)	5.4
제주	21.4	17.5	12.7	48.4	100.0 (126)	4.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약의 개(알)수임.

〈부표Ⅱ-8-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개월간 의원기관 방문 횟수

(단위: %, 명, 회)

지역	없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국 ¹⁾	21.8	38.0	19.3	10.3	10.7	100.0 (10,279)	2.4
서울	31.1	37.2	14.9	7.9	8.9	100.0 (1,844)	2.1
부산	15.6	30.1	24.0	9.9	20.4	100.0 (745)	3.9
대구	20.8	44.4	19.5	9.8	5.5	100.0 (472)	1.8
인천	18.8	41.8	17.7	10.0	11.7	100.0 (463)	2.6
광주	19.8	37.4	24.1	8.9	9.7	100.0 (257)	2.3
대전	16.7	25.4	29.4	13.1	15.5	100.0 (252)	3.1
울산	19.7	36.2	25.0	9.2	9.9	100.0 (152)	2.5
경기	25.3	45.3	14.6	7.3	7.4	100.0 (1,989)	1.9
강원	20.0	52.0	13.6	8.2	6.2	100.0 (404)	1.9
충북	14.4	38.5	26.5	12.0	8.6	100.0 (374)	2.3
충남	17.2	33.7	27.5	10.9	10.7	100.0 (569)	2.6
전북	17.8	36.9	21.6	14.0	9.8	100.0 (528)	2.5
전남	18.7	29.7	19.0	17.6	15.0	100.0 (626)	3.1
경북	17.1	37.5	18.8	14.4	12.1	100.0 (769)	2.6
경남	19.6	32.5	23.9	10.8	13.1	100.0 (710)	2.8
제주	15.9	21.4	23.8	15.9	23.0	100.0 (126)	0.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보건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를 포함함.

〈부표 II-8-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지역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국 ¹⁾	81.6	14.9	2.3	1.1	100.0 (10,279)	0.2
서울	83.7	13.6	1.6	1.1	100.0 (1,844)	0.2
부산	80.3	15.3	3.2	1.2	100.0 (745)	0.3
대구	82.8	15.5	1.7	0.0	100.0 (472)	0.2
인천	83.8	13.2	1.9	1.1	100.0 (463)	0.2
광주	79.8	15.1	2.7	2.3	100.0 (257)	0.3
대전	84.2	14.2	1.2	0.4	100.0 (252)	0.2
울산	78.3	17.1	2.6	2.0	100.0 (152)	0.3
경기	81.2	15.1	2.5	1.1	100.0 (1,989)	0.3
강원	84.9	11.6	2.7	0.7	100.0 (404)	0.2
충북	81.0	15.0	2.9	1.1	100.0 (374)	0.3
충남	77.9	17.9	3.7	0.5	100.0 (569)	0.3
전북	78.4	19.0	1.7	0.9	100.0 (528)	0.3
전남	81.5	16.1	1.1	1.3	100.0 (626)	0.3
경북	80.9	14.7	3.3	1.2	100.0 (769)	0.3
경남	82.3	12.9	2.7	2.1	100.0 (710)	0.3
제주	80.0	16.8	2.4	0.8	100.0 (126)	0.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8-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흡연상태

(단위: %, 명)

지역	현재 흡연	비흡연	계 (명)
전국 ¹⁾	11.9	88.1	100.0 (10,279)
서울	9.7	90.3	100.0 (1,844)
부산	12.9	87.1	100.0 (745)
대구	13.4	86.6	100.0 (472)
인천	14.5	85.5	100.0 (463)
광주	8.9	91.1	100.0 (257)
대전	12.4	87.6	100.0 (252)
울산	17.1	82.9	100.0 (152)
경기	13.2	86.8	100.0 (1,989)
강원	11.7	88.3	100.0 (404)
충북	14.4	85.6	100.0 (374)
충남	9.8	90.2	100.0 (569)
전북	10.8	89.2	100.0 (528)
전남	8.5	91.5	100.0 (626)
경북	12.5	87.5	100.0 (769)
경남	13.1	86.9	100.0 (710)
제주	11.9	88.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8-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음주 정도

(단위: %, 명)

지역	비음주	적정 음주 ²⁾	과음주 ³⁾	계 (명)
전국 ¹⁾	72.4	11.2	16.4	100.0 (10,279)
서울	69.4	12.3	18.4	100.0 (1,844)
부산	59.4	19.8	20.8	100.0 (745)
대구	76.6	9.1	14.2	100.0 (472)
인천	78.1	10.2	11.7	100.0 (463)
광주	78.6	5.4	16.0	100.0 (257)
대전	73.7	10.8	15.5	100.0 (252)
울산	64.5	14.5	21.1	100.0 (152)
경기	76.7	8.3	15.0	100.0 (1,989)
강원	75.2	14.9	9.9	100.0 (404)
충북	72.2	11.8	16.0	100.0 (374)
충남	75.4	9.0	15.6	100.0 (569)
전북	74.1	11.3	14.6	100.0 (528)
전남	77.3	4.8	17.9	100.0 (626)
경북	70.9	11.8	17.3	100.0 (769)
경남	65.9	15.8	18.3	100.0 (710)
제주	73.0	11.1	15.9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임.

3) 과음주는 일주일에 8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임.

〈부표Ⅱ-8-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동 정도

(단위: %, 명)

지역	운동실천율 ²⁾	운동 정도			계 (명)
		비활동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³⁾	
전국 ¹⁾	58.1	41.9	14.2	43.9	100.0 (10,279)
서울	69.0	31.0	15.5	53.5	100.0 (1,844)
부산	59.9	40.1	12.5	47.4	100.0 (745)
대구	64.3	35.7	16.1	48.3	100.0 (472)
인천	66.1	33.9	13.2	52.9	100.0 (463)
광주	68.1	31.9	15.6	52.5	100.0 (257)
대전	54.6	45.4	11.5	43.3	100.0 (252)
울산	59.9	40.1	13.8	46.1	100.0 (152)
경기	56.0	44.0	13.2	42.8	100.0 (1,989)
강원	51.7	48.3	16.1	35.6	100.0 (404)
충북	42.9	57.1	9.6	33.2	100.0 (374)
충남	45.3	54.7	10.9	34.4	100.0 (569)
전북	56.8	43.2	17.2	39.7	100.0 (528)
전남	49.8	50.2	15.0	34.8	100.0 (626)
경북	58.4	41.6	17.7	40.7	100.0 (769)
경남	53.6	46.4	12.0	41.6	100.0 (710)
제주	46.4	53.6	18.4	28.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운동실천율= 권장수준 미달+권장수준 3)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부표 II-8-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지역	양호 (0~2점)	영양관리주의 (3~5점)	영양관리개선 (6점 이상)	계 (명)	평균 (점수)
전국 ¹⁾	51.0	28.8	20.2	100.0 (10,279)	3.7
서울	46.0	24.6	29.4	100.0 (1,844)	4.7
부산	77.6	15.3	7.1	100.0 (745)	1.8
대구	39.7	32.7	27.6	100.0 (472)	4.5
인천	43.6	30.0	26.3	100.0 (463)	4.3
광주	55.3	33.5	11.3	100.0 (257)	2.9
대전	43.8	36.7	19.5	100.0 (252)	3.9
울산	66.4	21.7	11.8	100.0 (152)	2.5
경기	55.8	22.1	22.1	100.0 (1,989)	3.8
강원	48.3	37.4	14.4	100.0 (404)	3.1
충북	39.7	48.8	11.5	100.0 (374)	3.6
충남	40.0	39.6	20.4	100.0 (569)	4.0
전북	36.4	37.1	26.5	100.0 (528)	4.4
전남	36.8	47.4	15.8	100.0 (626)	3.6
경북	58.6	26.0	15.3	100.0 (769)	3.1
경남	63.7	21.5	14.8	100.0 (710)	3.0
제주	49.2	35.7	15.1	100.0 (126)	3.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NSI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부표 II-8-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단위: %, 명)

지역	비만지수(BMI)					계 (명)
	저체중	정상	과체중	경도비만	중증도비만	
전국 ¹⁾	4.7	33.1	27.3	31.1	3.8	100.0 (10,279)
서울	3.2	32.0	27.2	32.5	5.0	100.0 (1,844)
부산	3.4	32.4	30.4	31.1	2.7	100.0 (745)
대구	5.7	32.8	27.3	31.8	2.3	100.0 (472)
인천	5.4	32.0	30.3	28.8	3.5	100.0 (463)
광주	3.5	38.7	26.2	28.1	3.5	100.0 (257)
대전	4.4	31.1	31.5	30.7	2.4	100.0 (252)
울산	5.9	32.2	25.0	32.9	3.9	100.0 (152)
경기	4.4	27.4	28.1	35.1	5.0	100.0 (1,989)
강원	6.0	36.0	22.8	32.0	3.2	100.0 (404)
충북	5.1	38.5	27.3	23.3	5.9	100.0 (374)
충남	4.6	42.1	21.8	29.1	2.5	100.0 (569)
전북	5.1	32.6	26.5	32.6	3.2	100.0 (528)
전남	6.2	35.1	25.7	29.9	3.0	100.0 (626)
경북	5.8	36.1	29.0	25.7	3.4	100.0 (769)
경남	6.2	36.2	27.0	28.2	2.4	100.0 (710)
제주	4.0	34.4	27.2	32.0	2.4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m)

〈부표 II-8-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단위: %, 명)

지역	건강검진수진율	미치료율		(대상자수)
		병원진료	치과진료	
전국 ¹⁾	83.8	8.8	18.0	(10,279)
서울	83.1	12.0	24.1	(1,844)
부산	76.9	12.1	22.8	(745)
대구	90.5	11.0	20.3	(472)
인천	89.6	7.6	26.4	(463)
광주	88.3	0.8	3.1	(257)
대전	84.1	9.1	20.7	(252)
울산	73.7	4.6	17.1	(152)
경기	84.2	8.9	16.0	(1,989)
강원	85.6	5.2	26.5	(404)
충북	86.9	10.7	11.0	(374)
충남	87.9	5.6	10.7	(569)
전북	83.0	2.8	7.8	(528)
전남	85.1	1.1	4.6	(626)
경북	86.2	8.2	17.7	(769)
경남	74.3	16.1	24.5	(710)
제주	82.5	7.9	23.2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미치료율은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한 비율임.

〈부표 II-9-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국 ¹⁾	61.2	100.0 (10,451)	60.6	34.3	5.2	100.0 (10,279)
서울	63.7	100.0 (1,862)	67.2	28.1	4.7	100.0 (1,844)
부산	66.8	100.0 (780)	55.4	41.9	2.7	100.0 (745)
대구	69.9	100.0 (485)	50.4	39.8	9.7	100.0 (472)
인천	65.6	100.0 (471)	53.7	43.1	3.2	100.0 (463)
광주	60.2	100.0 (261)	52.3	40.6	7.0	100.0 (257)
대전	71.1	100.0 (255)	74.6	23.8	1.6	100.0 (252)
울산	56.6	100.0 (152)	69.3	27.5	3.3	100.0 (152)
경기	63.5	100.0 (2,009)	66.4	27.0	6.6	100.0 (1,989)
강원	67.4	100.0 (414)	69.5	28.8	1.7	100.0 (404)
충북	65.4	100.0 (382)	64.2	34.0	1.9	100.0 (374)
충남	59.3	100.0 (578)	62.1	33.7	4.2	100.0 (569)
전북	41.5	100.0 (532)	55.1	38.1	6.8	100.0 (528)
전남	45.5	100.0 (627)	43.9	45.7	10.4	100.0 (626)
경북	57.6	100.0 (776)	60.6	37.2	2.2	100.0 (769)
경남	61.2	100.0 (734)	50.1	43.9	6.1	100.0 (710)
제주	48.5	100.0 (132)	61.1	34.1	4.8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국 ¹⁾	4.0	100.0 (10,451)	75.4	20.5	4.1	100.0 (10,279)
서울	3.3	100.0 (1,862)	76.0	20.3	3.7	100.0 (1,844)
부산	4.0	100.0 (780)	80.1	16.1	3.8	100.0 (745)
대구	2.5	100.0 (485)	71.6	23.3	5.1	100.0 (472)
인천	3.0	100.0 (471)	74.7	21.6	3.7	100.0 (463)
광주	5.0	100.0 (261)	78.2	16.0	5.8	100.0 (257)
대전	5.9	100.0 (255)	81.7	16.3	2.0	100.0 (252)
울산	4.6	100.0 (152)	75.5	22.5	2.0	100.0 (152)
경기	2.9	100.0 (2,009)	74.5	20.6	4.9	100.0 (1,989)
강원	3.6	100.0 (414)	79.3	16.8	4.0	100.0 (404)
충북	4.7	100.0 (382)	80.2	17.1	2.7	100.0 (374)
충남	4.8	100.0 (578)	76.8	19.3	3.9	100.0 (569)
전북	7.3	100.0 (532)	71.4	23.7	4.9	100.0 (528)
전남	5.6	100.0 (627)	66.1	26.8	7.0	100.0 (626)
경북	3.5	100.0 (776)	74.5	23.1	2.3	100.0 (769)
경남	4.9	100.0 (734)	76.3	20.4	3.2	100.0 (710)
제주	5.3	100.0 (132)	79.2	17.6	3.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국 ¹⁾	51.2	100.0 (10,451)	45.3	39.3	15.3	100.0 (10,279)
서울	44.6	100.0 (1,862)	52.7	33.5	13.8	100.0 (1,844)
부산	52.2	100.0 (780)	40.8	43.5	15.7	100.0 (745)
대구	48.5	100.0 (485)	42.4	39.6	18.0	100.0 (472)
인천	49.0	100.0 (471)	36.7	47.9	15.3	100.0 (463)
광주	46.4	100.0 (261)	45.5	31.9	22.6	100.0 (257)
대전	55.5	100.0 (255)	62.3	31.7	6.0	100.0 (252)
울산	53.3	100.0 (152)	50.7	42.1	7.2	100.0 (152)
경기	44.9	100.0 (2,009)	51.9	35.1	13.0	100.0 (1,989)
강원	59.7	100.0 (414)	39.0	45.4	15.6	100.0 (404)
충북	58.6	100.0 (382)	35.5	51.2	13.3	100.0 (374)
충남	58.3	100.0 (578)	41.1	47.1	11.8	100.0 (569)
전북	45.0	100.0 (532)	48.9	31.1	20.1	100.0 (528)
전남	58.9	100.0 (627)	29.2	42.1	28.7	100.0 (626)
경북	59.8	100.0 (776)	47.2	38.4	14.4	100.0 (769)
경남	62.4	100.0 (734)	35.6	49.7	14.6	100.0 (710)
제주	50.0	100.0 (132)	38.9	41.3	19.8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지역	수행함	시도했으나 수행 못함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	계 (명)
전국 ¹⁾	79.7	18.4	1.9	100.0 (10,451)
서울	86.8	11.0	2.3	100.0 (1,862)
부산	76.7	21.6	1.7	100.0 (780)
대구	88.0	9.9	2.1	100.0 (485)
인천	85.7	13.0	1.3	100.0 (471)
광주	77.4	20.7	1.9	100.0 (261)
대전	48.6	47.8	3.5	100.0 (255)
울산	90.8	9.2	0.0	100.0 (152)
경기	85.6	12.9	1.4	100.0 (2,009)
강원	76.8	22.0	1.2	100.0 (414)
충북	74.9	23.0	2.1	100.0 (382)
충남	52.3	46.3	1.4	100.0 (578)
전북	63.9	31.6	4.5	100.0 (532)
전남	74.8	24.0	1.3	100.0 (627)
경북	84.0	15.1	0.9	100.0 (776)
경남	84.7	12.1	3.1	100.0 (734)
제주	84.8	12.9	2.3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¹⁾²⁾

(단위: 점, 명)

지역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운동장 한바퀴 걸기(400m)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쭈그러 앉기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달기	쌀 1말(8kg)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국	2.3	3.4	3.3	3.2	3.8	3.4
서울	2.4	3.4	3.3	3.3	3.8	3.4
부산	2.3	3.8	3.5	3.5	3.9	3.5
대구	2.3	3.4	3.2	3.3	3.8	3.4
인천	2.3	3.3	3.2	3.1	3.8	3.4
광주	2.1	3.5	3.1	3.2	3.8	3.4
대전	2.1	3.6	3.2	3.0	3.8	3.3
울산	2.3	3.3	3.2	3.3	3.8	3.5
경기	2.5	3.4	3.4	3.3	3.8	3.5
강원	2.3	3.5	3.4	3.2	3.7	3.5
충북	2.3	3.5	3.4	3.3	3.9	3.6
충남	1.9	3.4	3.25	3.1	3.8	3.4
전북	2.1	3.3	3.0	3.0	3.5	3.3
전남	2.1	3.3	3.0	3.2	3.7	3.4
경북	2.1	3.2	3.1	3.2	3.8	3.4
경남	2.2	3.4	3.3	3.5	3.8	3.5
제주	1.7	2.9	3.0	3.3	3.8	3.5

주: 1) 평균점수는 전혀 할 수 없다=1, 매우 어렵다=2, 약간 어렵다=3, 전혀 어렵지 않다=4로 계산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함. '모르겠다' 응답자 수는 아래와 같음.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75명, 운동장 한바퀴 걸기(400m): 3명, 쉬지않고 10계단 오르기: 20명, 쌀 1말(8kg)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3명)

〈부표 II-9-6-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옷 입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7.4	2.1	0.5	100.0(10,451)
서울	96.5	2.6	1.0	100.0(1,862)
부산	96.8	2.8	0.4	100.0(780)
대구	96.1	3.5	0.4	100.0(485)
인천	97.5	1.5	1.1	100.0(471)
광주	98.9	0.4	0.8	100.0(261)
대전	94.9	3.5	1.6	100.0(255)
울산	99.3	0.7	0.0	100.0(152)
경기	98.0	1.7	0.2	100.0(2,009)
강원	98.6	1.0	0.5	100.0(414)
충북	97.6	1.8	0.5	100.0(382)
충남	96.7	3.3	0.0	100.0(578)
전북	97.4	2.3	0.4	100.0(532)
전남	98.6	1.1	0.3	100.0(627)
경북	98.2	1.7	0.1	100.0(776)
경남	97.4	1.8	0.8	100.0(734)
제주	95.5	2.3	2.3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6.6	2.7	0.7	100.0(10,451)
서울	96.1	3.0	0.9	100.0(1,862)
부산	96.2	3.3	0.5	100.0(780)
대구	95.7	2.9	1.4	100.0(485)
인천	96.4	2.3	1.3	100.0(471)
광주	98.5	0.8	0.8	100.0(261)
대전	93.7	5.1	1.2	100.0(255)
울산	98.7	1.3	0.0	100.0(152)
경기	96.4	3.1	0.5	100.0(2,009)
강원	98.1	1.2	0.7	100.0(414)
충북	97.9	2.1	0.0	100.0(382)
충남	97.2	2.6	0.2	100.0(578)
전북	97.0	2.3	0.8	100.0(532)
전남	98.1	1.9	0.0	100.0(627)
경북	96.9	2.8	0.3	100.0(776)
경남	96.3	2.7	1.0	100.0(734)
제주	95.5	3.0	1.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목욕 또는 샤워하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4.2	4.4	1.4	100.0(10,451)
서울	93.7	4.2	2.0	100.0(1,862)
부산	92.7	5.1	2.2	100.0(780)
대구	93.2	4.5	2.3	100.0(485)
인천	94.5	4.5	1.1	100.0(471)
광주	95.4	3.5	1.2	100.0(261)
대전	92.9	5.5	1.6	100.0(255)
울산	98.7	1.3	0.0	100.0(152)
경기	95.3	3.7	1.0	100.0(2,009)
강원	94.2	5.1	0.7	100.0(414)
충북	95.8	3.7	0.5	100.0(382)
충남	94.6	5.0	0.3	100.0(578)
전북	91.2	6.6	2.3	100.0(532)
전남	95.9	3.0	1.1	100.0(627)
경북	95.1	4.5	0.4	100.0(776)
경남	92.9	5.3	1.8	100.0(734)
제주	95.4	1.5	3.1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9.1	0.7	0.3	100.0(10,451)
서울	99.0	0.6	0.4	100.0(1,862)
부산	99.4	0.5	0.1	100.0(780)
대구	98.4	1.0	0.6	100.0(485)
인천	99.1	0.0	0.9	100.0(471)
광주	99.2	0.0	0.8	100.0(261)
대전	95.7	4.3	0.0	100.0(255)
울산	100.0	0.0	0.0	100.0(152)
경기	99.3	0.6	0.0	100.0(2,009)
강원	99.3	0.5	0.2	100.0(414)
충북	99.7	0.3	0.0	100.0(382)
충남	99.0	1.0	0.0	100.0(578)
전북	99.4	0.4	0.2	100.0(532)
전남	99.5	0.5	0.0	100.0(627)
경북	99.4	0.5	0.1	100.0(776)
경남	99.0	0.5	0.4	100.0(734)
제주	97.0	2.3	0.8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8.7	0.8	0.5	100.0(10,451)
서울	98.0	1.2	0.8	100.0(1,862)
부산	99.1	0.3	0.6	100.0(780)
대구	97.7	2.1	0.2	100.0(485)
인천	98.1	1.1	0.8	100.0(471)
광주	98.1	1.1	0.8	100.0(261)
대전	98.0	1.2	0.8	100.0(255)
울산	100.0	0.0	0.0	100.0(152)
경기	99.2	0.5	0.3	100.0(2,009)
강원	98.8	0.5	0.7	100.0(414)
충북	99.5	0.5	0.0	100.0(382)
충남	99.5	0.3	0.2	100.0(578)
전북	98.3	1.3	0.4	100.0(532)
전남	98.7	1.0	0.3	100.0(627)
경북	99.4	0.4	0.3	100.0(776)
경남	98.5	1.0	0.5	100.0(734)
제주	96.2	2.3	1.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8.2	1.2	0.6	100.0(10,451)
서울	98.1	1.1	0.8	100.0(1,862)
부산	97.6	1.7	0.8	100.0(780)
대구	96.1	2.9	1.0	100.0(485)
인천	98.3	0.8	0.8	100.0(471)
광주	98.5	0.8	0.8	100.0(261)
대전	95.3	3.5	1.2	100.0(255)
울산	99.3	0.7	0.0	100.0(152)
경기	98.5	1.2	0.3	100.0(2,009)
강원	98.6	1.0	0.5	100.0(414)
충북	98.7	0.8	0.5	100.0(382)
충남	99.1	0.7	0.2	100.0(578)
전북	97.9	1.7	0.4	100.0(532)
전남	98.4	1.3	0.3	100.0(627)
경북	99.4	0.4	0.3	100.0(776)
경남	98.0	1.2	0.8	100.0(734)
제주	96.2	2.3	1.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6-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대소변 조절하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7.8	1.8	0.4	100.0(10,451)
서울	98.0	1.4	0.6	100.0(1,862)
부산	98.6	1.0	0.4	100.0(780)
대구	95.7	3.9	0.4	100.0(485)
인천	96.2	3.0	0.8	100.0(471)
광주	98.9	0.4	0.8	100.0(261)
대전	97.3	1.2	1.6	100.0(255)
울산	99.3	0.7	0.0	100.0(152)
경기	98.2	1.7	0.1	100.0(2,009)
강원	94.9	4.8	0.2	100.0(414)
충북	98.2	1.3	0.5	100.0(382)
충남	98.3	1.7	0.0	100.0(578)
전북	96.6	3.0	0.4	100.0(532)
전남	98.2	1.3	0.5	100.0(627)
경북	98.7	1.0	0.3	100.0(776)
경남	98.1	1.2	0.7	100.0(734)
제주	96.2	3.1	0.8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단위: %, 점, 명)

지역	완전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계(명)	평균 점수 ²⁾
전국 ¹⁾	93.1	2.9	1.4	0.8	0.4	0.4	0.4	0.5	100.0(10,451)	7.2
서울	92.8	2.5	1.8	0.9	0.5	0.2	0.5	0.9	100.0(1,862)	7.3
부산	92.2	3.1	1.8	1.2	0.6	0.3	0.8	0.1	100.0(780)	7.2
대구	91.4	3.3	1.6	0.2	0.4	0.8	1.2	1.0	100.0(485)	7.3
인천	92.1	3.6	1.5	0.8	0.4	0.6	0.0	0.8	100.0(471)	7.3
광주	94.6	3.1	1.2	0.0	0.4	0.0	0.0	0.8	100.0(261)	7.2
대전	91.8	1.2	2.0	0.4	1.2	1.6	0.8	1.2	100.0(255)	7.4
울산	98.0	0.7	0.7	0.0	0.0	0.7	0.0	0.0	100.0(152)	7.0
경기	94.3	2.1	1.1	0.9	0.3	0.6	0.3	0.2	100.0(2,009)	7.2
강원	90.1	7.0	1.2	0.5	0.2	0.2	0.5	0.2	100.0(414)	7.2
충북	94.3	2.3	1.3	0.5	0.3	0.8	0.3	0.3	100.0(382)	7.2
충남	92.7	3.6	0.9	1.6	0.5	0.2	0.3	0.2	100.0(578)	7.2
전북	89.8	5.8	1.5	0.8	0.8	0.6	0.2	0.6	100.0(532)	7.3
전남	95.4	2.6	0.0	1.0	0.3	0.0	0.3	0.5	100.0(627)	7.1
경북	94.2	2.2	2.1	0.6	0.3	0.3	0.1	0.3	100.0(776)	7.1
경남	92.2	3.3	1.9	0.7	0.4	0.5	0.0	1.0	100.0(734)	7.3
제주	92.5	1.5	0.8	0.8	0.8	0.8	0.8	2.3	100.0(132)	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점수는 완전자립=1, 부분도움=2, 완전도움=3을 부여하여 7개 항목을 합하여 계산함.

〈부표 II-9-8-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몸단장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5.6	3.6	0.8	100.0(10,451)
서울	94.6	4.0	1.4	100.0(1,862)
부산	94.4	5.5	0.1	100.0(780)
대구	92.8	5.4	1.9	100.0(485)
인천	95.7	3.2	1.1	100.0(471)
광주	96.9	2.3	0.8	100.0(261)
대전	93.4	5.5	1.2	100.0(255)
울산	98.7	1.3	0.0	100.0(152)
경기	96.6	2.9	0.5	100.0(2,009)
강원	97.6	1.4	1.0	100.0(414)
충북	97.9	1.6	0.5	100.0(382)
충남	95.2	4.8	0.0	100.0(578)
전북	94.7	4.7	0.6	100.0(532)
전남	97.3	1.9	0.8	100.0(627)
경북	95.9	3.9	0.3	100.0(776)
경남	95.6	3.7	0.7	100.0(734)
제주	94.7	2.3	3.0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집안일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0.5	7.1	2.4	100.0(10,451)
서울	89.2	7.4	3.4	100.0(1,862)
부산	90.1	7.2	2.7	100.0(780)
대구	87.6	7.4	4.9	100.0(485)
인천	90.2	8.3	1.5	100.0(471)
광주	91.2	6.5	2.3	100.0(261)
대전	84.3	12.5	3.1	100.0(255)
울산	98.0	2.0	0.0	100.0(152)
경기	91.2	6.5	2.3	100.0(2,009)
강원	86.7	11.6	1.7	100.0(414)
충북	95.0	3.7	1.3	100.0(382)
충남	89.5	9.2	1.4	100.0(578)
전북	89.5	8.4	2.1	100.0(532)
전남	94.1	4.0	1.9	100.0(627)
경북	92.7	6.4	0.9	100.0(776)
경남	90.2	7.4	2.5	100.0(734)
제주	91.7	3.8	4.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9-8-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식사준비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1.0	6.7	2.2	100.0(10,451)
서울	90.1	6.9	3.0	100.0(1,862)
부산	92.2	5.0	2.8	100.0(780)
대구	88.0	7.4	4.5	100.0(485)
인천	91.7	6.8	1.5	100.0(471)
광주	90.0	6.9	3.1	100.0(261)
대전	83.1	13.7	3.1	100.0(255)
울산	98.0	2.0	0.0	100.0(152)
경기	91.7	6.2	2.1	100.0(2,009)
강원	90.6	8.0	1.5	100.0(414)
충북	94.3	4.4	1.3	100.0(382)
충남	87.9	11.2	0.9	100.0(578)
전북	89.7	7.9	2.4	100.0(532)
전남	94.4	4.1	1.4	100.0(627)
경북	92.4	6.7	0.9	100.0(776)
경남	90.9	6.8	2.3	100.0(734)
제주	93.2	2.3	4.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9-8-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빨래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2.0	5.7	2.3	100.0(10,451)
서울	90.8	5.7	3.4	100.0(1,862)
부산	92.3	5.1	2.6	100.0(780)
대구	89.5	6.4	4.1	100.0(485)
인천	92.8	5.5	1.7	100.0(471)
광주	91.2	6.5	2.3	100.0(261)
대전	89.0	7.8	3.1	100.0(255)
울산	97.4	2.6	0.0	100.0(152)
경기	92.3	5.4	2.2	100.0(2,009)
강원	87.5	10.8	1.7	100.0(414)
충북	95.0	3.9	1.0	100.0(382)
충남	93.1	5.5	1.4	100.0(578)
전북	90.6	7.1	2.3	100.0(532)
전남	94.9	3.2	1.9	100.0(627)
경북	93.9	5.3	0.8	100.0(776)
경남	91.7	6.1	2.2	100.0(734)
제주	92.4	3.8	3.7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7.3	1.9	0.7	100.0(10,451)
서울	96.2	2.7	1.0	100.0(1,862)
부산	96.5	1.9	1.5	100.0(780)
대구	95.9	3.3	0.8	100.0(485)
인천	97.9	0.8	1.3	100.0(471)
광주	98.9	0.4	0.8	100.0(261)
대전	95.7	3.1	1.2	100.0(255)
울산	100.0	0.0	0.0	100.0(152)
경기	97.8	1.7	0.5	100.0(2,009)
강원	98.6	0.5	1.0	100.0(414)
충북	97.6	1.8	0.5	100.0(382)
충남	97.4	2.2	0.3	100.0(578)
전북	97.9	1.3	0.8	100.0(532)
전남	98.4	1.6	0.0	100.0(627)
경북	98.7	1.2	0.1	100.0(776)
경남	97.0	2.2	0.8	100.0(734)
제주	93.9	4.5	1.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금전 관리 도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88.6	9.0	2.5	100.0(10,451)
서울	90.3	6.6	3.1	100.0(1,862)
부산	95.5	2.7	1.8	100.0(780)
대구	81.9	13.4	4.7	100.0(485)
인천	87.7	10.2	2.1	100.0(471)
광주	95.8	2.7	1.5	100.0(261)
대전	90.2	7.1	2.7	100.0(255)
울산	98.0	2.0	0.0	100.0(152)
경기	89.9	6.7	3.4	100.0(2,009)
강원	92.0	5.6	2.4	100.0(414)
충북	64.0	33.9	2.1	100.0(382)
충남	76.9	21.9	1.2	100.0(578)
전북	93.0	4.7	2.3	100.0(532)
전남	97.8	1.6	0.6	100.0(627)
경북	87.8	10.2	2.1	100.0(776)
경남	84.6	13.9	1.5	100.0(734)
제주	78.6	16.8	4.6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근거리 외출하기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5.1	3.4	1.5	100.0(10,451)
서울	93.9	4.4	1.7	100.0(1,862)
부산	95.3	3.2	1.5	100.0(780)
대구	92.6	4.7	2.7	100.0(485)
인천	95.7	3.2	1.1	100.0(471)
광주	94.3	3.4	2.3	100.0(261)
대전	95.3	4.3	0.4	100.0(255)
울산	98.7	1.3	0.0	100.0(152)
경기	95.4	3.4	1.2	100.0(2,009)
강원	95.9	2.4	1.7	100.0(414)
충북	97.4	2.1	0.5	100.0(382)
충남	96.4	3.6	0.0	100.0(578)
전북	93.6	4.3	2.1	100.0(532)
전남	96.0	2.7	1.3	100.0(627)
경북	97.2	1.5	1.3	100.0(776)
경남	94.3	3.5	2.2	100.0(734)
제주	91.7	3.8	4.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4.6	3.0	1.8	0.6	100.0(10,451)
서울	94.1	2.7	2.3	1.0	100.0(1,862)
부산	96.9	1.3	1.2	0.6	100.0(780)
대구	90.9	4.7	3.7	0.6	100.0(485)
인천	96.0	2.3	0.9	0.9	100.0(471)
광주	95.8	3.1	0.8	0.4	100.0(261)
대전	85.5	11.8	1.2	1.6	100.0(255)
울산	99.3	0.7	0.0	0.0	100.0(152)
경기	95.0	1.9	2.7	0.4	100.0(2,009)
강원	98.1	1.0	0.5	0.5	100.0(414)
충북	92.7	6.0	0.8	0.5	100.0(382)
충남	87.7	10.0	1.9	0.3	100.0(578)
전북	94.6	3.0	1.7	0.8	100.0(532)
전남	97.6	1.6	0.5	0.3	100.0(627)
경북	97.2	1.3	1.2	0.4	100.0(776)
경남	95.4	2.9	1.4	0.4	100.0(734)
제주	91.7	2.3	3.8	2.3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전화 걸고 받기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2.6	5.0	1.8	0.6	100.0(10,451)
서울	95.2	2.4	1.6	0.8	100.0(1,862)
부산	88.5	9.4	1.5	0.6	100.0(780)
대구	92.0	3.1	2.9	2.1	100.0(485)
인천	94.3	3.8	1.3	0.6	100.0(471)
광주	97.7	0.8	1.1	0.4	100.0(261)
대전	92.9	4.3	2.0	0.8	100.0(255)
울산	99.3	0.7	0.0	0.0	100.0(152)
경기	95.4	2.1	2.2	0.2	100.0(2,009)
강원	96.6	1.7	1.2	0.5	100.0(414)
충북	76.0	21.9	1.6	0.5	100.0(382)
충남	85.5	11.9	1.9	0.7	100.0(578)
전북	95.1	2.6	1.7	0.6	100.0(532)
전남	98.9	0.6	0.3	0.2	100.0(627)
경북	93.3	4.5	1.8	0.4	100.0(776)
경남	84.3	11.7	3.5	0.4	100.0(734)
제주	81.1	15.2	2.3	1.5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8-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교통수단 이용하기 정도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전국 ¹⁾	91.0	4.6	3.8	0.6	100.0(10,451)
서울	90.7	4.1	4.3	1.0	100.0(1,862)
부산	91.4	3.7	4.9	0.0	100.0(780)
대구	85.8	6.8	6.8	0.6	100.0(485)
인천	93.4	3.8	1.9	0.8	100.0(471)
광주	93.5	3.4	2.3	0.8	100.0(261)
대전	89.8	5.1	5.1	0.0	100.0(255)
울산	96.7	3.3	0.0	0.0	100.0(152)
경기	90.9	4.2	4.6	0.3	100.0(2,009)
강원	92.5	4.3	1.7	1.4	100.0(414)
충북	93.2	2.9	3.9	0.0	100.0(382)
충남	87.9	8.3	3.8	0.0	100.0(578)
전북	90.1	4.7	4.1	1.1	100.0(532)
전남	94.4	3.7	1.6	0.3	100.0(627)
경북	92.5	5.0	1.4	1.0	100.0(776)
경남	88.8	6.3	4.5	0.4	100.0(734)
제주	89.4	3.8	4.5	2.3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9-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단위: %, 점, 명)

지역	완전 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평균 점수 ²⁾
전국 ¹⁾	82.2	7.9	3.5	2.3	1.9	2.2	100.0 (10,451)	0.7
서울	84.2	5.3	3.0	2.1	2.4	3.0	100.0 (1,862)	0.7
부산	83.3	7.6	2.9	2.1	1.8	2.3	100.0 (780)	0.7
대구	77.4	9.1	3.5	3.1	2.7	4.3	100.0 (485)	1.0
인천	82.6	9.8	2.3	1.3	1.7	2.3	100.0 (471)	0.6
광주	87.8	3.4	3.4	1.9	1.9	1.5	100.0 (261)	0.5
대전	81.6	3.1	3.9	5.1	3.1	3.1	100.0 (255)	1.0
울산	96.7	0.0	1.3	1.3	0.7	0.0	100.0 (152)	0.2
경기	85.2	6.3	2.3	1.8	2.3	2.0	100.0 (2,009)	0.6
강원	81.7	8.0	5.5	2.2	1.7	1.0	100.0 (414)	0.6
충북	61.9	27.8	6.3	1.3	1.0	1.6	100.0 (382)	1.0
충남	71.1	12.3	8.8	3.6	1.9	2.2	100.0 (578)	1.0
전북	83.8	6.0	3.4	2.8	1.5	2.4	100.0 (532)	0.7
전남	91.5	2.2	3.2	1.0	1.1	1.0	100.0 (627)	0.4
경북	83.5	8.6	2.3	2.4	1.5	1.5	100.0 (776)	0.6
경남	75.5	13.2	3.8	3.7	1.6	2.2	100.0 (734)	0.9
제주	75.6	13.7	3.1	1.5	1.5	4.6	100.0 (132)	1.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IADL 10개 항목 중 제한이 있는 수의 평균값

〈부표Ⅱ-9-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지역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²⁾	계(명)
전국 ¹⁾	81.8	11.3	6.9	100.0(10,451)
서울	84.0	8.8	7.1	100.0(1,862)
부산	82.9	9.2	7.8	100.0(780)
대구	77.5	14.0	8.5	100.0(485)
인천	81.9	10.2	7.9	100.0(471)
광주	88.1	6.5	5.4	100.0(261)
대전	81.2	11.0	7.8	100.0(255)
울산	97.4	0.7	2.0	100.0(152)
경기	84.8	9.5	5.7	100.0(2,009)
강원	80.4	9.7	9.9	100.0(414)
충북	61.5	33.2	5.2	100.0(382)
충남	70.5	22.3	7.3	100.0(578)
전북	82.6	7.1	10.3	100.0(532)
전남	91.1	4.1	4.8	100.0(627)
경북	83.4	11.0	5.7	100.0(776)
경남	75.3	17.0	7.6	100.0(734)
제주	75.6	18.3	6.1	100.0(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동 항목에는 IADL에는 제한이 없고 ADL만 제한이 있는 사람 42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조사 기간 내(조사표 문항 상 조사 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임.

〈부표 II-9-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단위: 점, %, 명)

지역	평균점수	인지저하자비율	계(명)
전국 ¹⁾	23.7	31.5	100.0(10,248)
서울	24.7	28.8	100.0(1,838)
부산	24.5	23.1	100.0(745)
대구	24.9	23.9	100.0(472)
인천	24.3	21.4	100.0(463)
광주	22.9	52.5	100.0(257)
대전	19.3	73.7	100.0(251)
울산	24.8	20.5	100.0(152)
경기	24.2	29.1	100.0(1,968)
강원	24.5	21.1	100.0(403)
충북	23.8	24.6	100.0(374)
충남	21.3	45.3	100.0(569)
전북	22.7	40.0	100.0(527)
전남	21.1	49.4	100.0(626)
경북	24.6	23.0	100.0(769)
경남	23.2	29.9	100.0(708)
제주	23.1	34.1	100.0(126)

주: 1) 본인응답자(대리응답자 제외) 10,279명 중 무응답 및 시각장애인 등 3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9-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발여부 및 수발자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수발률	수발자 ²⁾					계 (명)
		가족원 (동거/비동거)	친척, 이웃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전국 ¹⁾	81.7	91.9	7.3	1.3	15.4	6.4	100.0(1,557)
서울	91.2	91.9	7.4	1.8	16.2	5.1	100.0(271)
부산	82.6	95.4	10.1	0.9	14.7	4.6	100.0(109)
대구	80.9	96.6	3.4	1.1	12.4	2.2	100.0(89)
인천	92.9	94.9	1.3	0.0	19.0	6.3	100.0(79)
광주	96.8	83.3	0.0	3.3	26.7	10.0	100.0(30)
대전	83.3	92.5	4.9	5.0	15.0	7.3	100.0(40)
울산	100.0	100.0	0.0	0.0	25.0	0.0	100.0(5) ²⁾
경기	87.9	92.2	6.0	1.5	17.1	4.8	100.0(269)
강원	75.3	86.9	1.6	0.0	19.7	1.6	100.0(61)
충북	57.1	92.9	4.8	1.2	10.7	7.1	100.0(84)
충남	75.4	94.6	9.3	0.8	7.0	8.5	100.0(129)
전북	93.5	93.1	10.3	3.4	5.7	8.0	100.0(87)
전남	98.2	72.7	7.3	0.0	11.1	27.3	100.0(54)
경북	83.7	89.8	19.4	0.0	22.0	9.2	100.0(108)
경남	67.4	92.6	5.0	0.0	18.0	4.9	100.0(122)
제주	54.5	94.4	16.7	0.0	23.5	5.6	100.0(1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906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수발자 주체 모두에 관하여 중복체크가 가능한 문항으로, 현재 수발도움을 받고 있는 1,557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9-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

지역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이하 배우자	딸	기타	계 (명)
전국 ¹⁾	37.7	14.3	9.7	10.9	2.7	20.6	4.1	100.0(1,430)
서울	41.2	12.8	10.8	10.0	0.4	21.6	3.2	100.0(250)
부산	36.5	11.5	5.8	10.6	2.9	27.9	4.8	100.0(104)
대구	40.0	10.6	11.8	11.8	2.4	20.0	3.5	100.0(85)
인천	28.4	18.9	2.7	9.5	1.4	36.5	2.7	100.0(74)
광주	48.0	12.0	8.0	4.0	4.0	20.0	4.0	100.0(25)
대전	40.5	13.5	10.8	13.5	0.0	16.2	5.4	100.0(37)
울산	50.0	0.0	0.0	0.0	0.0	25.0	25.0	100.0(4) ²⁾
경기	31.9	10.9	8.1	8.5	4.8	27.0	8.9	100.0(248)
강원	32.1	9.4	17.0	24.5	0.0	17.0	0.0	100.0(53)
충북	31.2	28.6	11.7	13.0	0.0	13.0	2.6	100.0(77)
충남	35.2	24.6	10.7	13.9	1.6	12.3	1.6	100.0(122)
전북	55.6	6.2	6.2	6.2	3.7	21.0	1.2	100.0(81)
전남	53.8	2.6	17.9	15.4	2.6	7.7	0.0	100.0(39)
경북	43.8	15.6	6.3	9.4	3.1	17.7	4.2	100.0(96)
경남	33.6	17.7	14.2	10.6	6.2	13.3	4.4	100.0(113)
제주	29.4	23.5	11.8	5.9	5.9	17.6	5.9	100.0(17)

주: 1)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557명 중 가족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430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9-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가족 수발자의 도움정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거의 매일 반일 미만	일주일에 3~4일 정도	일주일에 1~2일 정도	일주일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10.7	39.0	8.6	14.2	27.5	100.0(1,430)
서울	19.2	38.4	8.4	17.6	16.4	100.0(250)
부산	9.6	44.2	3.8	10.6	31.7	100.0(104)
대구	16.7	31.0	9.5	20.2	22.6	100.0(84)
인천	6.7	33.3	5.3	12.0	42.7	100.0(75)
광주	0.0	79.2	8.3	12.5	0.0	100.0(24)
대전	13.5	48.6	10.8	18.9	8.1	100.0(37)
울산	0.0	75.0	0.0	0.0	25.0	100.0(4) ²⁾
경기	10.1	43.3	7.7	11.7	27.1	100.0(247)
강원	9.4	43.4	7.5	24.5	15.1	100.0(53)
충북	1.3	16.7	2.6	9.0	70.5	100.0(78)
충남	4.1	30.6	14.9	11.6	38.8	100.0(121)
전북	7.3	47.6	19.5	18.3	7.3	100.0(82)
전남	14.6	48.8	17.1	19.5	0.0	100.0(41)
경북	2.1	32.0	2.1	15.5	48.5	100.0(97)
경남	14.0	41.2	8.8	7.9	28.1	100.0(114)
제주	29.4	41.2	5.9	11.8	11.8	100.0(17)

주: 1) 수발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557명 중 가족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430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9-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수발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지역	도움이 필요없어서	혼자서 견딜만해서	신청방법을 몰라서	비용이 부담돼서	계 (명)
전국 ¹⁾	38.1	58.0	0.8	3.1	100.0(349)
서울	11.5	69.2	0.0	19.2	100.0(26)
부산	56.5	43.5	0.0	0.0	100.0(23)
대구	33.3	61.9	0.0	4.8	100.0(21)
인천	33.3	66.7	0.0	0.0	100.0(6) ²⁾
광주	100.0	0.0	0.0	0.0	100.0(1) ²⁾
대전	0.0	100.0	0.0	0.0	100.0(8) ²⁾
울산	0.0	0.0	0.0	0.0	0.0
경기	36.8	60.5	0.0	2.6	100.0(38)
강원	42.1	57.9	0.0	0.0	100.0(19)
충북	38.1	61.9	0.0	0.0	100.0(63)
충남	38.1	61.9	0.0	0.0	100.0(42)
전북	0.0	83.3	0.0	16.7	100.0(6) ²⁾
전남	100.0	0.0	0.0	0.0	100.0(1) ²⁾
경북	28.6	66.7	0.0	4.8	100.0(21)
경남	49.2	44.1	3.4	3.4	100.0(59)
제주	50.0	42.9	0.0	7.1	100.0(14)

주: 1)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1개 이상 받은 응답자 1,906명 중 수발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349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9-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단위: %, 명)

지역	신청률	최근에 받은 등급 ²⁾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특별등급	등급외	기타	
전국 ¹⁾	4.4	4.6	12.6	48.5	6.9	2.8	20.8	3.8	100.0(455)
서울	4.4	7.3	12.2	54.9	4.9	0.0	15.9	4.9	100.0(82)
부산	4.9	7.9	10.5	34.2	0.0	0.0	44.7	2.6	100.0(38)
대구	4.7	0.0	30.4	43.5	0.0	0.0	17.4	8.7	100.0(23)
인천	6.6	3.2	0.0	54.8	0.0	9.7	22.6	9.7	100.0(31)
광주	4.2	10.0	20.0	50.0	20.0	0.0	0.0	0.0	100.0(10)
대전	4.7	8.3	16.7	66.7	8.3	0.0	0.0	0.0	100.0(12)
울산	2.6	0.0	20.0	60.0	0.0	0.0	20.0	0.0	100.0(5) ³⁾
경기	4.3	4.5	12.5	37.5	12.5	4.5	26.1	2.3	100.0(88)
강원	4.3	0.0	11.1	72.2	5.6	0.0	11.1	0.0	100.0(18)
충북	2.9	0.0	9.1	81.8	0.0	0.0	9.1	0.0	100.0(11)
충남	2.8	0.0	6.7	60.0	26.7	0.0	6.7	0.0	100.0(15)
전북	3.6	5.0	5.0	30.0	15.0	5.0	30.0	10.0	100.0(20)
전남	2.4	0.0	40.0	13.3	6.7	0.0	40.0	0.0	100.0(15)
경북	6.2	6.3	10.4	60.4	0.0	6.3	16.7	0.0	100.0(48)
경남	4.8	2.9	17.6	44.1	8.8	2.9	17.6	5.9	100.0(34)
제주	5.3	0.0	14.3	71.4	0.0	0.0	14.3	0.0	100.0(7) ³⁾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9-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지역	기능상 제한이 없어서	제도를 알지 못해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족외에는 도움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국 ¹⁾	67.9	13.2	11.3	3.1	1.0	3.4	0.2	100.0(9,995)
서울	68.1	15.5	7.6	4.6	0.6	3.1	0.5	100.0(1,782)
부산	91.1	0.4	2.6	0.7	0.1	5.0	0.1	100.0(743)
대구	59.3	6.1	30.7	1.5	0.9	1.5	0.0	100.0(462)
인천	70.2	6.4	19.3	3.0	0.5	0.7	0.0	100.0(440)
광주	53.2	17.6	20.8	1.6	4.0	2.8	0.0	100.0(250)
대전	74.0	15.3	5.8	1.2	1.2	2.1	0.4	100.0(242)
울산	87.8	8.2	1.4	2.0	0.0	0.7	0.0	100.0(147)
경기	72.0	12.9	8.4	2.5	0.7	3.5	0.0	100.0(1,923)
강원	72.2	10.4	13.1	2.8	0.3	1.3	0.0	100.0(396)
충북	57.0	5.1	20.2	6.2	0.5	11.0	0.0	100.0(372)
충남	55.5	21.7	11.4	4.4	0.5	6.4	0.0	100.0(562)
전북	43.2	31.8	13.3	5.1	3.3	3.1	0.2	100.0(512)
전남	53.3	25.2	11.4	3.8	3.4	2.3	0.7	100.0(612)
경북	75.9	8.8	13.2	1.2	0.1	0.8	0.0	100.0(729)
경남	75.0	5.6	11.6	3.4	1.1	3.1	0.1	100.0(699)
제주	44.8	32.0	8.0	6.4	0.8	8.0	0.0	100.0(12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는 응답자 9,995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지역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국 ¹⁾	28.9	60.4	10.7	100.0 (10,279)
서울	21.8	64.4	13.8	100.0 (1,844)
부산	21.6	69.8	8.6	100.0 (745)
대구	22.0	63.1	14.8	100.0 (472)
인천	21.2	71.9	6.9	100.0 (463)
광주	14.4	62.6	23.0	100.0 (257)
대전	24.6	57.1	18.3	100.0 (252)
울산	31.6	61.2	7.2	100.0 (152)
경기	27.4	60.5	12.1	100.0 (1,989)
강원	32.7	58.9	8.4	100.0 (404)
충북	41.6	49.6	8.8	100.0 (374)
충남	37.7	54.7	7.5	100.0 (569)
전북	31.2	56.5	12.3	100.0 (528)
전남	39.0	53.8	7.2	100.0 (626)
경북	40.8	50.8	8.3	100.0 (769)
경남	32.1	63.2	4.6	100.0 (710)
제주	49.6	47.2	3.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종사 직종

(단위: %, 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명)
전국 ¹⁾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100.0 (2,970)
서울	11.2	3.5	2.5	6.5	8.2	1.5	6.5	5.5	54.7	100.0 (401)
부산	5.6	3.1	0.0	13.7	12.4	1.2	1.2	10.6	52.2	100.0 (161)
대구	1.0	3.8	0.0	8.7	8.7	7.7	3.8	13.5	52.9	100.0 (104)
인천	0.0	5.2	0.0	4.1	10.3	1.0	0.0	7.2	72.2	100.0 (97)
광주	2.6	15.8	5.3	0.0	7.9	13.2	2.6	7.9	44.7	100.0 (37)
대전	3.2	3.2	3.2	6.5	9.7	6.5	3.2	3.2	61.3	100.0 (62)
울산	4.1	2.0	0.0	4.1	6.1	10.2	8.2	6.1	59.2	100.0 (47)
경기	4.0	3.1	3.9	5.1	4.8	30.1	3.5	6.4	39.0	100.0 (544)
강원	1.5	0.8	0.0	6.9	5.3	48.1	1.5	3.8	32.1	100.0 (132)
충북	0.6	0.0	0.0	7.8	2.6	66.2	0.0	3.2	19.5	100.0 (156)
충남	1.4	3.7	0.5	7.0	5.1	55.8	1.9	0.9	23.7	100.0 (215)
전북	1.8	1.8	0.6	3.0	4.8	54.5	2.4	4.8	26.1	100.0 (164)
전남	0.0	0.8	0.8	1.2	5.3	66.3	1.6	1.6	22.2	100.0 (245)
경북	4.5	1.9	0.6	2.9	4.8	61.5	0.6	4.1	19.1	100.0 (314)
경남	1.3	2.2	0.9	6.2	7.5	49.3	1.8	1.8	29.1	100.0 (229)
제주	0.0	0.0	0.0	1.6	3.2	71.0	0.0	0.0	24.2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의 내용

(단위: %, 명)

지역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판매 영업	운송,건설 관련	공공 환경 관련	기타	계 (명)
전국 ¹⁾	38.3	19.3	8.2	6.8	10.8	7.6	8.9	100.0 (2,970)
서울	1.5	31.8	12.5	8.8	15.8	13.0	16.8	100.0 (401)
부산	3.8	23.1	13.1	15.0	19.4	14.4	11.3	100.0 (161)
대구	12.6	19.4	17.5	8.7	22.3	8.7	10.7	100.0 (104)
인천	1.0	46.9	13.5	10.4	11.5	12.5	4.2	100.0 (97)
광주	15.8	23.7	15.8	7.9	10.5	7.9	18.4	100.0 (37)
대전	6.5	37.1	11.3	9.7	8.1	11.3	16.1	100.0 (62)
울산	10.2	30.6	14.3	6.1	16.3	14.3	8.2	100.0 (47)
경기	31.1	21.0	7.9	6.2	15.4	6.4	11.9	100.0 (544)
강원	51.5	16.7	7.6	4.5	11.4	5.3	3.0	100.0 (132)
충북	67.7	11.6	6.5	2.6	4.5	3.9	3.2	100.0 (156)
충남	57.9	12.6	4.2	5.1	3.7	7.9	8.4	100.0 (215)
전북	57.9	14.0	4.9	4.9	9.8	3.0	5.5	100.0 (164)
전남	68.6	9.1	4.1	5.4	5.8	4.5	2.5	100.0 (245)
경북	64.6	8.0	5.1	4.8	6.7	4.8	6.1	100.0 (314)
경남	51.8	16.2	6.1	7.5	3.5	7.0	7.9	100.0 (229)
제주	76.2	12.7	1.6	3.2	1.6	3.2	1.6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지역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국 ¹⁾	6.1	26.2	8.6	1.6	38.7	13.7	5.1	100.0 (2,970)
서울	15.4	37.1	10.7	6.0	19.9	3.0	8.0	100.0 (401)
부산	13.0	28.4	12.3	0.0	25.9	3.1	17.3	100.0 (161)
대구	4.9	31.1	19.4	0.0	32.0	8.7	3.9	100.0 (104)
인천	1.0	56.7	14.4	0.0	18.6	5.2	4.1	100.0 (97)
광주	10.5	50.0	5.3	0.0	23.7	2.6	7.9	100.0 (37)
대전	8.2	57.4	4.9	3.3	16.4	4.9	4.9	100.0 (62)
울산	2.1	50.0	10.4	2.1	20.8	4.2	10.4	100.0 (47)
경기	9.2	26.8	7.7	2.0	36.6	13.1	4.6	100.0 (544)
강원	2.3	25.6	10.5	0.0	42.1	18.0	1.5	100.0 (132)
충북	0.6	15.9	3.8	1.3	50.3	25.5	2.5	100.0 (156)
충남	1.9	20.9	4.7	0.9	52.1	15.8	3.7	100.0 (215)
전북	4.3	22.0	7.3	1.2	43.9	18.9	2.4	100.0 (164)
전남	0.8	16.4	8.2	0.0	54.5	18.0	2.0	100.0 (245)
경북	1.3	11.1	8.0	1.6	51.3	23.9	2.9	100.0 (314)
경남	4.0	20.7	6.6	0.4	45.8	15.4	7.0	100.0 (229)
제주	0.0	14.5	8.1	0.0	51.6	24.2	1.6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38.0	62.0	100.0 (1,213)
서울	26.1	73.9	100.0 (253)
부산	32.6	67.4	100.0 (86)
대구	50.9	49.1	100.0 (57)
인천	50.7	49.3	100.0 (71)
광주	33.3	66.7	100.0 (24)
대전	61.4	38.6	100.0 (44)
울산	43.3	56.7	100.0 (30)
경기	21.8	78.2	100.0 (239)
강원	51.0	49.0	100.0 (51)
충북	41.9	58.1	100.0 (31)
충남	55.0	45.0	100.0 (60)
전북	50.0	50.0	100.0 (54)
전남	53.2	46.8	100.0 (62)
경북	43.8	56.2	100.0 (64)
경남	46.5	53.5	100.0 (71)
제주	53.3	46.7	100.0 (1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임금근로자 1,21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단위: %, 명)

지역	사업체어업 (농림어업)	개인사업체	민간회사	공공기관	특정사업 미소속	기타 ²⁾	계 (명)
전국 ¹⁾	37.9	23.3	12.4	14.5	7.0	4.9	100.0 (2,970)
서울	1.5	43.9	23.7	16.5	11.2	3.2	100.0 (401)
부산	2.5	26.7	29.8	9.9	14.9	16.1	100.0 (161)
대구	12.5	31.7	16.3	26.0	6.7	6.7	100.0 (104)
인천	1.0	44.3	9.3	33.0	5.2	7.2	100.0 (97)
광주	16.2	27.0	24.3	21.6	2.7	8.1	100.0 (37)
대전	6.5	29.0	4.8	40.3	11.3	8.1	100.0 (62)
울산	8.5	21.3	21.3	27.7	19.1	2.1	100.0 (47)
경기	30.7	29.8	17.6	12.3	5.7	3.9	100.0 (544)
강원	51.5	25.8	0.8	19.7	1.5	0.8	100.0 (132)
충북	67.3	10.9	7.7	7.7	5.1	1.3	100.0 (156)
충남	57.7	13.0	7.4	13.0	5.1	3.7	100.0 (215)
전북	54.9	12.8	6.7	14.6	5.5	5.5	100.0 (164)
전남	66.9	9.8	2.9	11.8	3.7	4.9	100.0 (245)
경북	64.3	14.6	3.8	8.9	7.0	1.3	100.0 (314)
경남	51.5	10.5	9.6	10.0	7.9	10.5	100.0 (229)
제주	77.4	6.5	1.6	11.3	1.6	1.6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2) 비영리/시민단체/중고단체 3.5%,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 1.4%를 합한 값임.

〈부표 II-10-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일의 단속성

(단위: %, 명)

지역	반년(5-7개월) 미만 근무가능	1년(8-11개월)정도 근무가능	1년 내내 근무가능	계 (명)
전국 ¹⁾	9.8	40.9	49.3	100.0 (2,970)
서울	11.2	18.4	70.4	100.0 (401)
부산	14.3	18.0	67.7	100.0 (161)
대구	17.5	23.3	59.2	100.0 (104)
인천	10.3	29.9	59.8	100.0 (97)
광주	2.7	35.1	62.2	100.0 (37)
대전	1.6	50.0	48.4	100.0 (62)
울산	8.3	31.2	60.4	100.0 (47)
경기	9.4	31.8	58.8	100.0 (544)
강원	15.2	57.6	27.3	100.0 (132)
충북	1.9	67.9	30.1	100.0 (156)
충남	2.8	64.5	32.7	100.0 (215)
전북	13.4	55.5	31.1	100.0 (164)
전남	11.5	61.7	26.7	100.0 (245)
경북	8.3	47.3	44.4	100.0 (314)
경남	11.8	41.2	46.9	100.0 (229)
제주	9.5	34.9	55.6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주당 근무일수

(단위: %, 명)

지역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국 ¹⁾	6.7	18.6	7.4	24.0	18.3	25.0	100.0 (2,970)
서울	10.0	20.0	6.7	33.2	19.2	11.0	100.0 (401)
부산	16.2	17.5	5.0	24.4	23.1	13.8	100.0 (161)
대구	7.8	23.3	19.4	25.2	18.4	5.8	100.0 (104)
인천	1.0	45.4	4.1	25.8	11.3	12.4	100.0 (97)
광주	7.9	36.8	13.2	21.1	18.4	2.6	100.0 (37)
대전	6.5	41.9	3.2	25.8	12.9	9.7	100.0 (62)
울산	6.1	28.6	8.2	24.5	16.3	16.3	100.0 (47)
경기	5.3	10.8	8.6	21.3	21.7	32.3	100.0 (544)
강원	11.4	30.3	14.4	12.1	12.9	18.9	100.0 (132)
충북	1.9	5.8	6.4	11.5	13.5	60.9	100.0 (156)
충남	1.4	13.1	6.1	37.4	13.6	28.5	100.0 (215)
전북	9.1	20.1	7.9	28.0	12.2	22.6	100.0 (164)
전남	6.2	20.6	7.0	26.3	14.4	25.5	100.0 (245)
경북	5.1	11.8	2.9	21.0	27.4	31.8	100.0 (314)
경남	5.2	21.8	5.2	17.0	16.2	34.5	100.0 (229)
제주	4.8	27.4	16.1	17.7	21.0	12.9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지역	9시간 이하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49 시간	50시간 이상	계 (명)
전국 ¹⁾	16.6	15.8	14.1	14.3	19.2	20.0	100.0 (2,970)
서울	17.7	11.5	10.2	10.5	19.7	30.4	100.0 (401)
부산	21.7	14.3	9.3	9.3	21.1	24.2	100.0 (161)
대구	21.2	19.2	13.5	6.7	16.3	23.1	100.0 (104)
인천	26.8	16.5	10.3	20.6	12.4	13.4	100.0 (97)
광주	28.9	7.9	7.9	10.5	34.2	10.5	100.0 (37)
대전	41.9	14.5	4.8	9.7	22.6	6.5	100.0 (62)
울산	22.9	14.6	14.6	14.6	16.7	16.7	100.0 (47)
경기	6.4	16.9	14.0	16.9	23.5	22.2	100.0 (544)
강원	28.2	23.7	24.4	11.5	4.6	7.6	100.0 (132)
충북	3.2	6.4	25.0	16.0	25.6	23.7	100.0 (156)
충남	12.1	6.1	11.2	10.3	33.6	26.6	100.0 (215)
전북	34.1	15.2	8.5	14.0	12.8	15.2	100.0 (164)
전남	24.6	13.9	9.8	16.8	19.3	15.6	100.0 (245)
경북	8.9	24.8	17.5	19.1	15.6	14.0	100.0 (314)
경남	16.7	22.8	19.7	15.4	11.0	14.5	100.0 (229)
제주	9.5	12.7	27.0	19.0	9.5	22.2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지역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국 ¹⁾	28.6	11.6	12.0	6.5	41.4	100.0 (2,970)
서울	40.1	14.7	17.5	7.0	20.7	100.0 (401)
부산	32.7	16.7	16.0	11.7	22.8	100.0 (161)
대구	42.9	18.1	4.8	8.6	25.7	100.0 (104)
인천	46.4	18.6	17.5	3.1	14.4	100.0 (97)
광주	43.2	21.6	21.6	2.7	10.8	100.0 (37)
대전	65.6	9.8	3.3	6.6	14.8	100.0 (62)
울산	47.9	10.4	16.7	8.3	16.7	100.0 (47)
경기	29.7	13.2	13.6	7.7	35.8	100.0 (544)
강원	23.7	14.5	13.0	6.1	42.7	100.0 (132)
충북	13.5	11.5	10.9	3.8	60.3	100.0 (156)
충남	24.2	10.7	9.3	5.1	50.7	100.0 (215)
전북	24.1	12.7	8.4	3.0	51.8	100.0 (164)
전남	17.6	3.3	6.6	5.7	66.8	100.0 (245)
경북	17.2	6.7	10.8	7.0	58.3	100.0 (314)
경남	24.9	6.6	10.9	6.1	51.5	100.0 (229)
제주	14.3	7.9	6.3	4.8	66.7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지역	생계비 마련	응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 (명)
전국 ¹⁾	79.3	8.6	3.1	0.4	3.6	3.0	1.8	0.2	100.0 (2,970)
서울	80.5	8.5	2.0	1.2	2.5	4.0	1.0	0.2	100.0 (401)
부산	76.4	9.3	4.3	0.0	3.1	3.7	3.1	0.0	100.0 (161)
대구	76.0	13.5	1.9	0.0	5.8	1.9	1.0	0.0	100.0 (104)
인천	72.9	19.8	1.0	0.0	3.1	3.1	0.0	0.0	100.0 (97)
광주	52.6	13.2	13.2	2.6	2.6	13.2	2.6	0.0	100.0 (37)
대전	75.8	14.5	1.6	0.0	3.2	3.2	0.0	1.6	100.0 (62)
울산	77.1	18.8	2.1	0.0	0.0	2.1	0.0	0.0	100.0 (47)
경기	87.3	6.2	1.8	0.2	0.7	2.2	1.1	0.4	100.0 (544)
강원	84.1	9.8	3.0	0.0	3.0	0.0	0.0	0.0	100.0 (132)
충북	64.9	5.8	5.8	0.0	12.3	3.2	7.8	0.0	100.0 (156)
충남	79.6	3.7	5.1	0.0	6.0	1.4	3.7	0.5	100.0 (215)
전북	61.7	14.4	7.2	1.8	6.0	4.8	3.6	0.6	100.0 (164)
전남	78.4	8.6	4.5	0.8	2.4	4.1	1.2	0.0	100.0 (245)
경북	84.7	6.1	1.6	0.0	4.2	2.2	1.3	0.0	100.0 (314)
경남	81.6	7.0	2.2	0.4	3.9	3.5	1.3	0.0	100.0 (229)
제주	87.1	9.7	1.6	0.0	0.0	0.0	1.6	0.0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Ⅱ-10-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국 ¹⁾	7.0	51.8	27.0	13.0	1.1	100.0 (2,970)
서울	11.4	50.0	24.9	13.7	0.0	100.0 (401)
부산	6.2	51.6	23.0	16.8	2.5	100.0 (161)
대구	9.8	61.8	20.6	7.8	0.0	100.0 (104)
인천	11.3	60.8	17.5	10.3	0.0	100.0 (97)
광주	18.4	44.7	31.6	5.3	0.0	100.0 (37)
대전	4.8	54.8	30.6	8.1	1.6	100.0 (62)
울산	6.4	57.4	25.5	10.6	0.0	100.0 (47)
경기	6.1	55.3	26.8	11.0	0.7	100.0 (544)
강원	9.8	62.1	22.7	4.5	0.8	100.0 (132)
충북	4.5	52.9	29.7	12.9	0.0	100.0 (156)
충남	4.7	54.9	35.3	3.7	1.4	100.0 (215)
전북	10.3	44.2	24.2	18.8	2.4	100.0 (164)
전남	3.3	45.7	29.8	18.8	2.4	100.0 (245)
경북	3.2	51.9	26.1	16.2	2.5	100.0 (314)
경남	6.6	39.5	32.5	20.6	0.9	100.0 (229)
제주	9.7	53.2	29.0	8.1	0.0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지역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일의 내용	기타	계 (명)
전국 ¹⁾	51.0	30.4	9.2	9.4	100.0 (421)
서울	68.5	5.6	13.0	12.9	100.0 (54)
부산	67.7	16.1	0.0	16.2	100.0 (31)
대구	66.7	11.1	11.1	11.1	100.0 (9) ³⁾
인천	60.0	40.0	0.0	0.0	100.0 (10)
광주	50.0	0.0	50.0	0.0	100.0 (2) ³⁾
대전	66.7	0.0	0.0	33.3	100.0 (6) ³⁾
울산	66.7	16.7	0.0	16.6	100.0 (6) ³⁾
경기	53.1	21.9	9.4	15.6	100.0 (64)
강원	66.7	33.3	0.0	0.0	100.0 (6) ³⁾
충북	38.1	38.1	9.5	14.3	100.0 (21)
충남	81.8	9.1	0.0	9.1	100.0 (11)
전북	34.3	42.9	17.1	5.7	100.0 (35)
전남	51.9	28.8	13.5	5.8	100.0 (52)
경북	23.7	69.5	3.4	3.4	100.0 (59)
경남	50.0	33.3	14.6	2.1	100.0 (48)
제주	60.0	20.0	0.0	20.0	100.0 (5)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 중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은 42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값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0-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현재일이 최장기 직업 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56.4	43.6	100.0 (2,970)
서울	43.6	56.4	100.0 (401)
부산	43.2	56.8	100.0 (161)
대구	44.2	55.8	100.0 (104)
인천	31.6	68.4	100.0 (97)
광주	35.1	64.9	100.0 (37)
대전	33.9	66.1	100.0 (62)
울산	41.7	58.3	100.0 (47)
경기	53.5	46.5	100.0 (544)
강원	54.5	45.5	100.0 (132)
충북	71.6	28.4	100.0 (156)
충남	63.3	36.7	100.0 (215)
전북	67.7	32.3	100.0 (164)
전남	73.8	26.2	100.0 (245)
경북	68.5	31.5	100.0 (314)
경남	60.5	39.5	100.0 (229)
제주	73.0	27.0	100.0 (62)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일하고 있는 2,970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단위: %, 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군인	계 (명)
전국 ¹⁾	4.7	6.1	4.8	7.8	12.7	27.7	9.6	6.7	19.2	0.7	100.0 (9,181)
서울	9.7	8.5	6.5	9.9	15.5	6.4	14.7	7.3	20.9	0.6	100.0 (1,589)
부산	2.6	5.9	3.7	9.1	16.5	13.0	11.0	11.1	26.2	0.9	100.0 (681)
대구	3.2	7.2	5.2	10.7	18.2	11.9	13.4	10.2	19.2	0.7	100.0 (403)
인천	3.5	2.8	4.6	11.6	14.8	16.2	10.0	9.7	26.5	0.2	100.0 (431)
광주	4.0	16.2	9.1	5.1	12.6	14.6	12.1	7.6	17.7	1.0	100.0 (197)
대전	4.4	7.3	12.7	6.3	12.2	11.2	5.9	7.3	31.2	1.5	100.0 (206)
울산	1.4	2.8	4.9	8.5	14.8	16.2	18.3	12.7	20.4	0.0	100.0 (143)
경기	7.3	7.1	4.8	7.5	13.3	22.8	10.7	7.2	18.1	1.1	100.0 (1,747)
강원	1.9	5.9	3.2	8.6	11.1	32.2	6.5	3.0	26.5	1.1	100.0 (370)
충북	1.5	4.1	2.9	9.1	8.2	50.1	6.2	5.6	12.0	0.3	100.0 (341)
충남	1.5	3.8	2.7	6.5	12.4	47.6	6.3	3.8	15.0	0.4	100.0 (526)
전북	5.0	4.1	5.4	5.4	8.6	40.1	5.0	6.5	19.6	0.4	100.0 (464)
전남	1.0	2.2	3.8	4.1	7.4	55.0	6.2	3.1	17.1	0.0	100.0 (581)
경북	2.8	7.8	4.0	6.8	8.6	49.3	6.1	4.1	10.3	0.1	100.0 (705)
경남	2.7	3.7	2.7	5.6	12.3	42.4	6.6	5.6	17.4	1.0	100.0 (676)
제주	0.8	4.1	2.5	2.5	4.9	64.8	4.1	2.5	13.1	0.8	100.0 (12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지역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국 ¹⁾	28.1	6.8	11.1	3.6	30.1	19.1	1.2	100.0 (9,181)
서울	34.5	10.3	10.6	7.6	26.9	8.2	1.9	100.0 (1,589)
부산	40.4	2.3	14.0	2.6	25.4	13.2	2.1	100.0 (681)
대구	31.3	8.7	12.2	3.0	28.0	15.9	1.0	100.0 (403)
인천	26.9	9.7	19.3	2.6	26.9	13.9	0.7	100.0 (431)
광주	38.1	10.7	10.2	2.0	24.9	13.7	0.5	100.0 (197)
대전	37.9	12.6	13.1	3.9	21.4	11.2	0.0	100.0 (206)
울산	32.9	16.8	7.7	2.8	25.2	11.9	2.8	100.0 (143)
경기	32.3	7.6	8.8	3.5	30.9	15.0	1.8	100.0 (1,747)
강원	21.9	7.8	16.5	5.1	26.2	21.6	0.8	100.0 (370)
충북	20.5	5.3	5.6	2.6	30.8	34.6	0.6	100.0 (341)
충남	17.9	4.4	7.2	2.5	40.5	27.2	0.4	100.0 (526)
전북	21.3	6.7	14.9	2.4	30.4	23.7	0.6	100.0 (464)
전남	13.4	4.6	14.5	0.2	35.3	31.0	1.0	100.0 (581)
경북	21.4	3.5	7.1	2.0	34.3	31.1	0.6	100.0 (705)
경남	24.4	1.5	10.4	2.7	32.0	28.6	0.6	100.0 (676)
제주	11.7	3.3	12.5	0.8	38.3	33.3	0.0	100.0 (12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2.2	97.8	100.0 (4,226)
서울	3.1	96.9	100.0 (880)
부산	0.0	100.0	100.0 (386)
대구	3.3	96.7	100.0 (210)
인천	2.9	97.1	100.0 (242)
광주	0.9	99.1	100.0 (116)
대전	4.6	95.4	100.0 (131)
울산	6.1	93.9	100.0 (82)
경기	1.4	98.6	100.0 (852)
강원	2.3	97.7	100.0 (171)
충북	1.9	98.1	100.0 (107)
충남	1.9	98.1	100.0 (155)
전북	4.5	95.5	100.0 (199)
전남	3.7	96.3	100.0 (190)
경북	1.8	98.2	100.0 (226)
경남	0.8	99.2	100.0 (246)
제주	0.0	100.0	100.0 (34)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4,226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지역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50년 이상	계 (명)
전국 ¹⁾	4.3	7.3	19.1	20.6	22.3	26.5	100.0 (9,181)
서울	5.6	11.6	24.4	23.7	22.0	12.7	100.0 (1,589)
부산	4.3	10.9	21.9	22.9	24.7	15.3	100.0 (681)
대구	4.7	10.2	20.1	21.6	27.5	15.9	100.0 (403)
인천	4.9	13.3	23.0	24.2	23.0	11.6	100.0 (431)
광주	4.1	8.1	16.2	26.4	27.4	17.8	100.0 (197)
대전	5.3	7.3	15.0	24.8	29.6	18.0	100.0 (206)
울산	7.0	9.9	21.1	24.6	23.2	14.1	100.0 (143)
경기	5.5	7.4	23.0	20.6	20.3	23.2	100.0 (1,747)
강원	3.2	8.6	22.2	20.0	21.6	24.3	100.0 (370)
충북	4.7	1.5	11.4	19.1	18.2	45.2	100.0 (341)
충남	2.7	1.9	18.3	19.6	22.2	35.4	100.0 (526)
전북	4.3	7.6	13.0	16.6	22.2	36.3	100.0 (464)
전남	2.1	1.6	10.9	16.7	15.9	52.9	100.0 (581)
경북	2.4	3.1	14.0	15.7	24.5	40.1	100.0 (705)
경남	1.8	3.8	14.8	18.5	23.5	37.7	100.0 (676)
제주	1.6	0.8	4.1	12.3	24.6	56.6	100.0 (12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장기 직종이 있는 9,18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지역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하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¹⁾	14.5	36.0	24.1	8.7	7.8	4.4	2.9	1.6	100.0 (7,502)
서울	15.2	27.6	26.9	10.4	10.0	4.6	2.7	2.7	100.0 (1,415)
부산	10.1	29.0	31.8	6.2	10.0	6.1	6.2	0.7	100.0 (611)
대구	16.3	39.9	15.2	12.6	7.0	6.5	0.6	2.0	100.0 (356)
인천	7.8	36.5	29.5	15.2	7.5	1.2	2.2	0.0	100.0 (400)
광주	27.7	28.8	29.9	4.3	6.0	1.6	1.6	0.0	100.0 (184)
대전	24.3	24.3	33.5	5.9	5.9	2.7	2.7	0.5	100.0 (185)
울산	17.5	35.8	24.2	8.3	8.3	1.7	4.2	0.0	100.0 (120)
경기	16.7	34.4	20.5	9.3	9.4	5.0	2.5	2.2	100.0 (1,457)
강원	13.5	35.4	25.3	17.5	4.0	2.7	0.7	1.0	100.0 (297)
충북	13.0	34.8	18.7	7.8	10.0	7.8	3.0	4.8	100.0 (230)
충남	9.7	36.8	28.9	4.1	7.4	7.4	2.6	3.1	100.0 (391)
전북	16.2	46.6	22.2	4.3	6.5	2.3	1.4	0.6	100.0 (352)
전남	10.1	55.8	22.4	3.0	4.5	2.5	0.8	1.0	100.0 (398)
경북	17.8	48.7	14.9	7.0	4.3	2.5	4.9	0.0	100.0 (489)
경남	11.1	37.8	25.4	8.5	5.8	5.2	5.6	0.6	100.0 (539)
제주	10.7	57.3	16.0	4.0	8.0	1.3	2.7	0.0	100.0 (7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장기 직종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아닌 과거에 일했던 직종인 7,507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0-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업 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24.1	75.9	100.0 (7,502)
서울	24.8	75.2	100.0 (1,415)
부산	34.2	65.8	100.0 (611)
대구	23.6	76.4	100.0 (356)
인천	29.3	70.7	100.0 (400)
광주	13.0	87.0	100.0 (184)
대전	24.3	75.7	100.0 (185)
울산	22.1	77.9	100.0 (120)
경기	25.0	75.0	100.0 (1,457)
강원	23.5	76.5	100.0 (297)
충북	23.0	77.0	100.0 (230)
충남	25.3	74.7	100.0 (391)
전북	17.1	82.9	100.0 (352)
전남	15.6	84.4	100.0 (398)
경북	18.4	81.6	100.0 (489)
경남	26.5	73.5	100.0 (539)
제주	17.1	82.9	100.0 (7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장기 직종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아닌 과거에 일했던 직종인 7,507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0-2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그만둔 직종

(단위: %, 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계 (명)
전국 ¹⁾	4.1	4.0	2.1	8.4	9.0	2.9	4.5	4.0	61.0	100.0 (1,811)
서울	6.6	3.7	2.3	11.1	13.7	1.1	8.0	4.8	48.7	100.0 (350)
부산	2.9	2.9	1.0	8.6	5.7	0.5	3.3	2.4	72.7	100.0 (210)
대구	2.4	6.0	2.4	7.1	10.7	2.4	2.4	6.0	60.7	100.0 (84)
인천	1.7	7.7	0.0	7.7	10.3	1.7	5.1	2.6	63.2	100.0 (118)
광주	4.2	0.0	0.0	12.5	16.7	4.2	0.0	12.5	50.0	100.0 (25)
대전	8.9	2.2	6.7	2.2	6.7	0.0	0.0	0.0	73.3	100.0 (44)
울산	3.7	0.0	0.0	3.7	11.1	0.0	11.1	3.7	66.7	100.0 (26)
경기	5.5	5.2	2.5	9.0	8.5	2.5	4.4	4.4	58.2	100.0 (363)
강원	1.4	2.9	1.4	14.3	4.3	4.3	2.9	4.3	64.3	100.0 (70)
충북	5.8	1.9	0.0	3.8	5.8	9.6	3.8	1.9	67.3	100.0 (54)
충남	1.0	5.1	1.0	9.2	12.2	4.1	2.0	1.0	64.3	100.0 (99)
전북	6.6	1.6	4.9	6.6	3.3	1.6	1.6	9.8	63.9	100.0 (59)
전남	1.6	0.0	0.0	3.2	6.5	4.8	3.2	0.0	80.6	100.0 (61)
경북	2.2	6.7	6.7	7.8	5.6	7.8	5.6	10.0	47.8	100.0 (90)
경남	2.8	1.4	2.1	6.2	8.3	5.6	4.2	2.1	67.4	100.0 (143)
제주	7.1	7.1	0.0	7.1	7.1	7.1	0.0	0.0	64.3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2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의 내용

(단위: %, 명)

지역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판매 영업 ²⁾	운송,건설 관련 ³⁾	공공 환경 관련 ⁴⁾	기타 ⁵⁾	계 (명)
전국 ¹⁾	6.9	29.8	14.4	9.5	21.7	5.9	11.8	100.0 (1,811)
서울	0.6	28.9	19.1	12.6	20.0	6.3	12.6	100.0 (350)
부산	5.2	33.8	17.1	8.1	23.3	4.3	8.1	100.0 (210)
대구	3.6	31.0	9.5	10.7	21.4	7.1	16.7	100.0 (84)
인천	2.5	30.5	11.0	10.2	30.5	4.2	11.0	100.0 (118)
광주	12.0	20.0	20.0	16.0	20.0	8.0	4.0	100.0 (25)
대전	0.0	40.9	18.2	6.8	13.6	4.5	15.9	100.0 (44)
울산	7.7	42.3	11.5	11.5	15.4	3.8	7.7	100.0 (26)
경기	4.7	28.7	14.6	10.7	19.3	7.2	14.9	100.0 (363)
강원	15.7	31.4	12.9	4.3	25.7	2.9	7.1	100.0 (70)
충북	25.9	14.8	13.0	5.6	25.9	3.7	11.1	100.0 (54)
충남	7.1	20.2	18.2	12.1	25.3	7.1	10.1	100.0 (99)
전북	18.6	23.7	8.5	1.7	25.4	5.1	16.9	100.0 (59)
전남	14.8	36.1	6.6	6.6	23.0	9.8	3.3	100.0 (61)
경북	11.1	26.7	10.0	5.6	20.0	5.6	21.1	100.0 (90)
경남	11.9	37.8	10.5	9.1	20.3	3.5	7.0	100.0 (143)
제주	38.5	15.4	7.7	7.7	15.4	7.7	7.7	100.0 (13)

-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 2) 선택지에 '판매영업'은 없었으나, 조사과정 중에 필요성이 발견되어 신규 문항으로 신설함.
- 3) 운전운송, 택배배달, 건설기계, 생산작업, 현장관리가 해당됨.
- 4) 환경조경, 공공질서유지, 폐휴지 줍기 항목이 포함됨.
- 5) 전문직 행정사무직, 문화예술, 기타가 해당됨.

<부표 II-10-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지역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국 ¹⁾	14.5	37.9	21.0	3.5	17.5	2.7	2.8	100.0 (1,811)
서울	17.1	36.2	13.4	6.0	21.7	2.0	3.7	100.0 (350)
부산	14.4	43.8	24.5	1.9	11.1	1.4	2.9	100.0 (210)
대구	22.4	35.3	9.4	4.7	20.0	7.1	1.2	100.0 (84)
인천	13.6	36.4	22.9	0.8	22.0	0.8	3.4	100.0 (118)
광주	4.3	47.8	17.4	4.3	26.1	0.0	0.0	100.0 (25)
대전	22.2	55.6	8.9	2.2	6.7	2.2	2.2	100.0 (44)
울산	11.5	50.0	15.4	3.8	15.4	0.0	3.8	100.0 (26)
경기	16.4	39.2	14.2	3.6	18.9	4.1	3.6	100.0 (363)
강원	14.3	27.1	28.6	2.9	17.1	8.6	1.4	100.0 (70)
충북	7.7	28.8	40.4	3.8	11.5	5.8	1.9	100.0 (54)
충남	6.2	33.0	32.0	2.1	19.6	1.0	6.2	100.0 (99)
전북	15.0	31.7	43.3	0.0	10.0	0.0	0.0	100.0 (59)
전남	6.5	51.6	21.0	0.0	16.1	1.6	3.2	100.0 (61)
경북	13.5	30.3	29.2	7.9	14.6	3.4	1.1	100.0 (90)
경남	11.9	38.5	26.6	3.5	16.8	1.4	1.4	100.0 (143)
제주	15.4	15.4	46.2	0.0	23.1	0.0	0.0	100.0 (13)

-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24.6	75.4	100.0 (1,330)
서울	24.0	76.0	100.0 (233)
부산	25.4	74.6	100.0 (173)
대구	24.1	75.9	100.0 (58)
인천	9.3	90.7	100.0 (86)
광주	23.5	76.5	100.0 (17)
대전	30.8	69.2	100.0 (39)
울산	19.0	81.0	100.0 (21)
경기	28.2	71.8	100.0 (255)
강원	10.2	89.8	100.0 (49)
충북	19.5	80.5	100.0 (41)
충남	15.7	84.3	100.0 (70)
전북	13.0	87.0	100.0 (54)
전남	46.0	54.0	100.0 (50)
경북	30.8	69.2	100.0 (65)
경남	33.6	66.4	100.0 (110)
제주	11.1	88.9	100.0 (9)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내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33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0-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최근 그만둔 일자리 종사기간

(단위: %, 명)

지역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명)
전국 ¹⁾	28.4	18.4	26.6	19.6	7.0	100.0 (1,811)
서울	28.2	19.7	24.5	22.5	5.1	100.0 (350)
부산	38.0	17.3	16.8	21.6	6.2	100.0 (210)
대구	27.4	11.9	29.8	21.4	9.5	100.0 (84)
인천	17.2	17.2	23.3	27.6	14.7	100.0 (118)
광주	30.8	11.5	26.9	15.4	15.4	100.0 (25)
대전	26.7	24.4	33.3	8.9	6.7	100.0 (44)
울산	33.3	22.2	29.6	14.8	0.0	100.0 (26)
경기	27.4	20.8	31.8	15.6	4.4	100.0 (363)
강원	16.9	18.3	28.2	26.8	9.9	100.0 (70)
충북	29.6	13.0	31.5	18.5	7.4	100.0 (54)
충남	20.2	21.2	30.3	19.2	9.1	100.0 (99)
전북	26.7	21.7	30.0	16.7	5.0	100.0 (59)
전남	46.8	12.9	27.4	8.1	4.8	100.0 (61)
경북	30.0	16.7	25.6	21.1	6.7	100.0 (90)
경남	28.0	18.2	24.5	20.3	9.1	100.0 (143)
제주	23.1	15.4	30.8	15.4	15.4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2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최근 종사한 직종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지역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¹⁾	2.2	41.9	37.4	5.0	8.7	1.2	2.9	0.6	100.0 (1,811)
서울	3.4	38.3	35.1	4.3	13.4	0.9	3.1	1.4	100.0 (350)
부산	0.0	32.5	46.4	9.6	9.1	0.5	1.9	0.0	100.0 (210)
대구	1.2	46.4	32.1	3.6	10.7	3.6	2.4	0.0	100.0 (84)
인천	3.4	50.0	36.4	5.1	1.7	1.7	1.7	0.0	100.0 (118)
광주	0.0	66.7	20.8	4.2	8.3	0.0	0.0	0.0	100.0 (25)
대전	0.0	37.8	40.0	2.2	2.2	0.0	17.8	0.0	100.0 (44)
울산	0.0	46.2	38.5	3.8	7.7	3.8	0.0	0.0	100.0 (26)
경기	2.2	39.8	38.5	5.5	11.3	0.8	1.6	0.3	100.0 (363)
강원	4.2	45.1	36.6	5.6	2.8	0.0	2.8	2.8	100.0 (70)
충북	1.9	58.5	22.6	1.9	7.5	1.9	3.8	1.9	100.0 (54)
충남	1.0	50.0	35.7	6.1	1.0	2.0	3.1	1.0	100.0 (99)
전북	6.6	41.0	24.6	3.3	18.0	1.6	1.6	3.3	100.0 (59)
전남	1.7	53.3	36.7	1.7	3.3	3.3	0.0	0.0	100.0 (61)
경북	1.1	48.4	35.2	2.2	7.7	1.1	4.4	0.0	100.0 (90)
경남	2.1	33.8	49.3	4.9	4.9	0.7	3.5	0.7	100.0 (143)
제주	0.0	58.3	25.0	0.0	8.3	0.0	8.3	0.0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최근 그만둔 일자리가 있는 1,81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2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지역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계 (명)
전국 ¹⁾	65.3	23.7	1.3	9.7	100.0 (10,279)
서울	65.5	17.0	2.2	15.3	100.0 (1,844)
부산	59.6	16.6	2.0	21.7	100.0 (745)
대구	72.9	18.4	1.5	7.2	100.0 (472)
인천	73.4	17.3	1.3	8.0	100.0 (463)
광주	78.5	13.7	0.4	7.4	100.0 (257)
대전	69.0	23.4	0.8	6.7	100.0 (252)
울산	61.4	28.8	1.3	8.5	100.0 (152)
경기	66.8	22.6	1.6	9.0	100.0 (1,989)
강원	63.4	30.4	0.5	5.7	100.0 (404)
충북	59.1	35.8	0.3	4.8	100.0 (374)
충남	61.6	34.6	0.7	3.2	100.0 (569)
전북	71.2	20.8	1.3	6.6	100.0 (528)
전남	63.7	32.1	0.2	4.0	100.0 (626)
경북	60.1	32.9	1.2	5.8	100.0 (769)
경남	63.7	24.2	1.1	11.0	100.0 (710)
제주	48.8	44.8	0.8	5.6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2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하고 싶은 일의 종류

(단위: %, 명)

지역	취업	창업	사회기여형 일자리	여가형 일자리	기타	계 (명)
전국 ¹⁾	65.5	4.3	14.3	15.2	0.7	100.0 (1,128)
서울	64.6	6.2	10.9	17.7	0.6	100.0 (322)
부산	55.1	3.4	22.2	18.2	1.1	100.0 (176)
대구	62.5	5.0	15.0	17.5	0.0	100.0 (40)
인천	90.7	0.0	4.7	4.7	0.0	100.0 (43)
광주	84.2	0.0	5.3	10.5	0.0	100.0 (19)
대전	68.4	0.0	5.3	26.3	0.0	100.0 (19)
울산	73.3	6.7	20.0	0.0	0.0	100.0 (15)
경기	70.3	2.4	14.2	12.3	0.9	100.0 (212)
강원	70.8	8.3	12.5	4.2	4.2	100.0 (24)
충북	57.9	0.0	21.1	21.1	0.0	100.0 (19)
충남	81.8	0.0	9.1	9.1	0.0	100.0 (22)
전북	61.9	4.8	7.1	23.8	2.4	100.0 (42)
전남	84.6	0.0	7.7	7.7	0.0	100.0 (26)
경북	56.6	13.2	22.6	7.5	0.0	100.0 (53)
경남	58.8	3.5	17.6	20.0	0.0	100.0 (85)
제주	75.0	0.0	12.5	12.5	0.0	100.0 (8)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1,12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0-2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 근로시간

(단위: %, 명)

지역	10시간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 (명)
전국 ¹⁾	17.2	18.1	27.3	10.3	27.1	100.0 (1,128)
서울	11.5	19.5	31.6	11.5	26.0	100.0 (322)
부산	13.6	22.6	24.9	7.3	31.6	100.0 (176)
대구	34.1	14.6	14.6	4.9	31.7	100.0 (40)
인천	20.9	20.9	18.6	9.3	30.2	100.0 (43)
광주	26.3	15.8	26.3	10.5	21.1	100.0 (19)
대전	10.5	21.1	36.8	15.8	15.8	100.0 (19)
울산	13.3	0.0	33.3	13.3	40.0	100.0 (15)
경기	15.6	18.4	27.4	10.8	27.8	100.0 (212)
강원	23.1	7.7	19.2	19.2	30.8	100.0 (24)
충북	26.3	10.5	42.1	5.3	15.8	100.0 (19)
충남	22.7	18.2	22.7	22.7	13.6	100.0 (22)
전북	25.6	16.3	23.3	11.6	23.3	100.0 (42)
전남	51.9	7.4	3.7	11.1	25.9	100.0 (26)
경북	37.7	13.2	13.2	13.2	22.6	100.0 (53)
경남	10.6	16.5	44.7	3.5	24.7	100.0 (85)
제주	25.0	12.5	12.5	12.5	37.5	100.0 (8)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1,12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0-3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지역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계 (명)
전국 ¹⁾	16.9	32.4	36.0	13.0	1.6	100.0 (1,128)
서울	12.4	30.0	40.6	13.9	3.1	100.0 (322)
부산	15.2	39.9	32.6	10.1	2.2	100.0 (176)
대구	31.0	26.2	28.6	14.3	0.0	100.0 (40)
인천	25.6	27.9	37.2	9.3	0.0	100.0 (43)
광주	25.0	30.0	35.0	10.0	0.0	100.0 (19)
대전	26.3	36.8	36.8	0.0	0.0	100.0 (19)
울산	6.7	40.0	26.7	20.0	6.7	100.0 (15)
경기	12.8	31.3	39.3	15.2	1.4	100.0 (212)
강원	16.0	20.0	36.0	28.0	0.0	100.0 (24)
충북	31.6	47.4	10.5	5.3	5.3	100.0 (19)
충남	40.9	31.8	18.2	9.1	0.0	100.0 (22)
전북	9.5	38.1	33.3	19.0	0.0	100.0 (42)
전남	50.0	19.2	30.8	0.0	0.0	100.0 (26)
경북	25.9	35.2	13.0	25.9	0.0	100.0 (53)
경남	14.1	32.9	48.2	4.7	0.0	100.0 (85)
제주	11.1	33.3	44.4	11.1	0.0	100.0 (8)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1,1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0-3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구직활동 (1순위)

(단위: %, 명)

지역	취업지원 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등 검색	컴퓨터	기타 ²⁾	계 (명)
전국 ¹⁾	63.0	30.4	2.7		3.8	100.0 (777)
서울	64.3	26.4	3.8		5.5	100.0 (235)
부산	74.7	22.7	2.7		0.0	100.0 (75)
대구	50.0	50.0	0.0		0.0	100.0 (38)
인천	64.3	35.7	0.0		0.0	100.0 (42)
광주	76.5	17.6	0.0		5.9	100.0 (17)
대전	68.8	18.8	12.5		0.0	100.0 (16)
울산	61.5	38.5	0.0		0.0	100.0 (13)
경기	57.7	36.2	0.0		6.2	100.0 (130)
강원	52.4	42.9	0.0		4.8	100.0 (21)
충북	76.5	11.8	11.8		0.0	100.0 (17)
충남	75.0	25.0	0.0		0.0	100.0 (16)
전북	58.1	35.5	6.5		0.0	100.0 (31)
전남	66.7	16.7	0.0		16.7	100.0 (24)
경북	63.3	26.5	6.1		4.1	100.0 (49)
경남	55.1	40.8	4.1		0.0	100.0 (49)
제주	25.0	75.0	0.0		0.0	100.0 (4)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777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일자리박람회,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0-3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구직활동 (2순위)

(단위: %, 명)

지역	취업지원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기타 ²⁾	계 (명)
전국 ¹⁾	4.6	59.3	16.3	19.9	100.0 (385)
서울	7.0	51.6	14.8	26.6	100.0 (128)
부산	5.6	72.2	16.7	5.6	100.0 (18)
대구	13.0	60.9	26.1	0.0	100.0 (23)
인천	4.0	80.0	16.0	0.0	100.0 (25)
광주	9.1	36.4	0.0	54.5	100.0 (11)
대전	0.0	60.0	20.0	20.0	100.0 (10)
울산	0.0	42.9	42.9	14.3	100.0 (7) ³⁾
경기	2.0	46.9	16.3	34.7	100.0 (49)
강원	0.0	66.7	0.0	33.3	100.0 (9) ³⁾
충북	0.0	71.4	28.6	0.0	100.0 (7) ³⁾
충남	0.0	70.0	30.0	0.0	100.0 (10)
전북	4.8	52.4	19.0	23.8	100.0 (21)
전남	0.0	70.6	5.9	23.5	100.0 (17)
경북	0.0	89.7	3.4	6.9	100.0 (29)
경남	0.0	55.0	30.0	15.0	100.0 (20)
제주	0.0	50.0	50.0	0.0	100.0 (2) ³⁾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내용 중 두 번째 우선순위 항목에 응답한 38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기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일자리박람회,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0-3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지역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귌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 (명)
전국 ¹⁾	71.9	13.2	4.8	1.2	5.1	3.8	100.0 (3,554)
서울	67.0	18.8	3.8	1.9	6.3	2.2	100.0 (634)
부산	64.0	17.3	7.3	0.0	6.3	5.0	100.0 (300)
대구	73.4	14.1	6.2	0.8	3.1	2.3	100.0 (128)
인천	66.9	22.6	3.2	1.6	3.2	2.4	100.0 (124)
광주	54.5	18.2	10.9	3.6	10.9	1.8	100.0 (55)
대전	76.6	14.3	2.6	0.0	3.9	2.6	100.0 (77)
울산	77.6	17.2	1.7	0.0	1.7	1.7	100.0 (58)
경기	79.1	10.4	2.1	1.2	3.8	3.4	100.0 (655)
강원	80.4	10.1	3.4	2.7	0.7	2.7	100.0 (148)
충북	56.9	7.2	9.8	0.0	9.8	16.3	100.0 (153)
충남	79.8	3.7	5.5	0.9	5.0	5.0	100.0 (218)
전북	57.0	15.4	6.7	4.0	9.4	7.4	100.0 (149)
전남	74.3	8.8	8.4	0.9	5.3	2.2	100.0 (226)
경북	76.1	10.1	4.2	0.7	5.9	2.9	100.0 (306)
경남	74.4	14.7	4.7	0.8	3.1	2.3	100.0 (258)
제주	80.0	12.3	4.6	0.0	1.5	1.5	100.0 (6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향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3,55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0-3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단위: %, 명)

지역	현재 참여 중	참여 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계 (명)
전국 ¹⁾	4.3	4.3	4.6	86.7	100.0 (10,279)
서울	3.3	5.1	6.5	85.1	100.0 (1,844)
부산	3.4	4.6	7.0	85.1	100.0 (745)
대구	5.5	3.6	5.1	85.8	100.0 (472)
인천	7.1	2.6	6.7	83.6	100.0 (463)
광주	3.5	6.2	3.1	87.2	100.0 (257)
대전	10.4	4.0	3.6	82.1	100.0 (252)
울산	8.6	3.3	6.6	81.5	100.0 (152)
경기	2.2	4.4	4.5	88.9	100.0 (1,989)
강원	6.4	4.2	2.7	86.6	100.0 (404)
충북	3.7	2.7	0.3	93.3	100.0 (374)
충남	5.8	2.5	1.1	90.7	100.0 (569)
전북	5.1	3.4	4.3	87.1	100.0 (528)
전남	5.3	7.0	5.4	82.3	100.0 (626)
경북	4.4	3.8	3.3	88.6	100.0 (769)
경남	4.6	4.6	4.2	86.5	100.0 (710)
제주	7.9	4.0	1.6	86.5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II-10-3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단위: %, 명)

지역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계 (명)
전국 ¹⁾	71.9	5.8	15.1	3.2	4.0	100.0 (894)
서울	69.5	4.5	20.1	3.9	1.9	100.0 (154)
부산	57.6	8.5	18.6	5.1	10.2	100.0 (59)
대구	86.4	4.5	6.8	2.3	0.0	100.0 (44)
인천	68.2	4.5	20.5	4.5	2.3	100.0 (44)
광주	84.0	4.0	4.0	4.0	4.0	100.0 (25)
대전	75.0	5.6	11.1	2.8	5.6	100.0 (36)
울산	83.3	5.6	5.6	0.0	5.6	100.0 (18)
경기	80.5	7.5	6.8	3.0	2.3	100.0 (133)
강원	11.4	6.8	61.4	11.4	9.1	100.0 (44)
충북	70.8	8.3	16.7	0.0	4.2	100.0 (24)
충남	65.2	6.5	2.2	2.2	23.9	100.0 (46)
전북	59.1	9.1	27.3	0.0	4.5	100.0 (44)
전남	81.8	2.6	14.3	1.3	0.0	100.0 (77)
경북	89.1	6.2	1.6	1.6	1.6	100.0 (64)
경남	78.5	3.1	13.8	3.1	1.5	100.0 (65)
제주	93.3	6.7	0.0	0.0	0.0	100.0 (15)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은 과거 노인일자리 참여자 89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0-3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욕구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18.2	81.8	100.0 (10,279)
서울	24.7	75.3	100.0 (1,844)
부산	26.3	73.7	100.0 (745)
대구	14.8	85.2	100.0 (472)
인천	17.5	82.5	100.0 (463)
광주	12.8	87.2	100.0 (257)
대전	17.9	82.1	100.0 (252)
울산	22.2	77.8	100.0 (152)
경기	17.1	82.9	100.0 (1,989)
강원	13.9	86.1	100.0 (404)
충북	8.0	92.0	100.0 (374)
충남	9.8	90.2	100.0 (569)
전북	19.3	80.7	100.0 (528)
전남	16.5	83.5	100.0 (626)
경북	14.4	85.6	100.0 (769)
경남	19.2	80.8	100.0 (710)
제주	21.6	78.4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3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¹⁾	주된 여가활동 ²⁾								계 (명)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전국	99.0	0.9	5.8	1.2	10.2	4.0	42.5	90.2	40.1	100.0 (10,172)
서울	98.7	1.9	7.5	1.5	15.9	5.8	42.5	87.1	35.7	100.0 (1,819)
부산	99.9	1.3	2.5	1.3	7.8	1.5	41.4	95.7	34.7	100.0 (744)
대구	99.8	1.4	8.8	1.9	12.3	6.5	44.4	86.5	46.4	100.0 (471)
인천	98.9	0.3	7.4	3.4	10.7	1.4	47.5	88.8	29.3	100.0 (458)
광주	99.7	0.9	6.9	0.1	9.3	1.2	41.3	95.7	39.7	100.0 (256)
대전	98.0	0.8	5.4	0.7	6.5	1.2	37.9	89.2	43.3	100.0 (247)
울산	97.9	0.3	11.2	0.4	18.2	4.4	47.6	85.6	26.5	100.0 (149)
경기	99.4	0.5	5.7	1.4	12.0	4.5	44.3	86.8	44.6	100.0 (1,977)
강원	95.2	0.9	6.5	0.4	7.2	0.4	41.4	87.1	30.1	100.0 (384)
충북	100.0	0.0	3.3	1.4	8.4	0.8	37.8	95.1	48.1	100.0 (374)
충남	95.0	0.4	2.5	0.4	3.9	1.4	44.7	90.0	45.6	100.0 (541)
전북	99.0	0.6	5.7	0.3	9.4	5.0	29.6	96.2	35.2	100.0 (523)
전남	99.9	0.1	3.7	0.8	4.8	0.7	39.0	97.6	49.0	100.0 (626)
경북	99.8	0.6	8.1	1.8	9.3	8.2	57.2	85.6	31.7	100.0 (768)
경남	100.0	0.9	4.0	0.1	6.3	5.9	35.5	96.7	48.1	100.0 (710)
제주	100.0	0.6	6.0	0.3	3.8	0.0	29.4	98.9	51.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 1순위

(단위: %, 명)

지역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계 (명)
전국 ¹⁾	0.2	2.5	0.4	4.7	0.6	16.4	63.7	11.4	100.0 (10,172)
서울	0.8	2.7	0.4	8.9	1.1	16.6	56.8	12.8	100.0 (1,819)
부산	0.5	0.7	0.5	2.2	0.8	17.9	66.8	10.7	100.0 (744)
대구	0.4	5.6	1.6	5.8	0.0	15.5	62.5	8.5	100.0 (471)
인천	0.3	4.0	2.1	5.2	0.1	19.2	58.8	10.3	100.0 (458)
광주	0.3	2.4	0.0	4.7	0.0	12.4	67.6	12.6	100.0 (256)
대전	0.1	4.2	0.6	3.0	0.7	20.9	63.3	7.2	100.0 (247)
울산	0.0	5.1	0.4	9.3	1.8	24.8	55.1	3.5	100.0 (149)
경기	0.0	1.9	0.1	5.6	0.4	16.0	60.5	15.4	100.0 (1,977)
강원	0.0	4.3	0.0	3.5	0.1	22.6	60.5	9.1	100.0 (384)
충북	0.0	1.5	0.0	1.9	0.2	7.5	83.1	5.7	100.0 (374)
충남	0.0	0.8	0.0	1.4	0.6	19.3	69.4	8.5	100.0 (541)
전북	0.0	2.9	0.0	2.9	0.5	8.3	77.0	8.4	100.0 (523)
전남	0.0	1.7	0.2	1.1	0.6	10.3	69.1	17.1	100.0 (626)
경북	0.0	3.3	1.2	4.8	1.8	28.7	52.1	8.1	100.0 (768)
경남	0.0	1.7	0.0	2.4	0.1	12.0	71.8	12.1	100.0 (710)
제주	0.0	1.0	0.0	0.9	0.0	4.1	93.4	0.7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률 및 여행횟수

(단위: %, 명)

지역	여행 경험률 ¹⁾	국내외 여행 횟수 ²⁾				계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국	29.7	56.8	23.2	7.8	12.2	100.0 (3,023)
서울	32.3	48.8	23.1	9.3	18.8	100.0 (588)
부산	29.3	41.6	27.9	10.1	20.4	100.0 (218)
대구	25.6	45.1	26.8	15.5	12.6	100.0 (121)
인천	25.3	68.7	22.4	3.7	5.2	100.0 (116)
광주	22.0	47.1	21.2	6.9	24.8	100.0 (56)
대전	33.3	64.6	23.3	2.4	9.7	100.0 (82)
울산	24.2	66.8	21.4	6.9	4.9	100.0 (36)
경기	28.9	56.0	23.6	7.4	13.0	100.0 (571)
강원	23.8	55.3	30.4	5.4	8.9	100.0 (92)
충북	32.0	77.1	11.4	5.7	5.8	100.0 (120)
충남	31.0	73.4	21.2	3.8	1.6	100.0 (167)
전북	32.7	51.2	26.1	8.8	13.9	100.0 (171)
전남	25.1	59.3	29.3	6.5	4.9	100.0 (157)
경북	36.3	67.1	16.6	8.8	7.5	100.0 (279)
경남	30.8	57.3	24.2	8.1	10.4	100.0 (219)
제주	25.1	70.3	23.4	3.7	2.6	100.0 (3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여행경험이 있는 3,02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명)

지역	참여율			(명)
	동호회(클럽)	친목 단체	정치사회 단체	
전국 ¹⁾	4.9	43.3	0.5	(10,279)
서울	8.7	44.2	0.6	(1,844)
부산	4.8	52.2	2.0	(745)
대구	4.7	50.6	0.2	(472)
인천	2.4	36.9	0.4	(463)
광주	5.4	49.0	0.9	(257)
대전	3.6	51.3	0.2	(252)
울산	3.1	46.8	0.0	(152)
경기	3.9	40.1	0.3	(1,989)
강원	4.0	41.0	0.4	(404)
충북	3.5	41.7	0.3	(374)
충남	2.6	44.3	0.3	(569)
전북	6.6	45.5	0.4	(528)
전남	2.2	31.4	0.0	(626)
경북	4.5	48.1	0.9	(769)
경남	4.8	40.0	0.3	(710)
제주	8.8	39.3	1.1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5-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동호회(클럽)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8.9	8.8	13.3	13.7	43.8	11.5	100.0 (508)
서울	8.2	5.3	19.5	10.6	45.2	11.2	100.0 (160)
부산	8.8	12.8	10.2	10.8	47.1	10.3	100.0 (36)
대구	0.0	11.3	15.3	28.6	28.2	16.6	100.0 (22)
인천	2.4	6.7	5.8	3.8	66.2	15.1	100.0 (11)
광주	10.2	19.4	14.8	14.1	41.5	0.0	100.0 (14)
대전	4.3	5.4	0.0	22.0	49.1	19.2	100.0 (9) ²⁾
울산	0.0	0.0	21.4	23.7	46.9	8.0	100.0 (5) ²⁾
경기	10.2	7.2	8.6	16.8	43.0	14.2	100.0 (78)
강원	9.6	7.6	1.8	12.3	66.6	2.1	100.0 (16)
충북	7.9	19.8	0.0	23.2	44.3	4.8	100.0 (13)
충남	9.4	14.3	12.0	10.9	44.3	9.1	100.0 (15)
전북	6.0	16.3	5.6	14.1	52.2	5.8	100.0 (35)
전남	16.5	5.3	16.4	33.8	19.2	8.8	100.0 (14)
경북	7.3	11.2	31.4	11.9	27.0	11.2	100.0 (34)
경남	21.1	4.6	3.9	5.6	47.1	17.7	100.0 (34)
제주	7.4	15.7	1.9	12.0	37.9	25.1	100.0 (11)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동호회(클럽)에 가입한 50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1-5-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친목 단체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3.0	2.5	8.7	18.7	51.1	16.0	100.0 (4,449)
서울	5.1	3.5	8.6	11.8	48.6	22.4	100.0 (814)
부산	0.8	3.3	12.7	28.7	43.2	11.3	100.0 (389)
대구	0.5	4.7	6.2	26.4	51.9	10.3	100.0 (239)
인천	0.0	1.3	3.2	18.2	64.2	13.1	100.0 (171)
광주	4.3	4.2	7.6	35.4	45.5	3.0	100.0 (126)
대전	1.9	2.1	15.0	23.3	52.2	5.5	100.0 (129)
울산	1.5	1.1	13.3	12.3	62.7	9.1	100.0 (71)
경기	5.1	1.3	7.0	12.4	55.1	19.1	100.0 (797)
강원	1.8	0.3	2.2	11.8	73.3	10.6	100.0 (165)
충북	0.0	1.1	12.6	37.8	35.1	13.4	100.0 (156)
충남	1.4	1.5	11.5	21.9	54.4	9.3	100.0 (252)
전북	1.0	5.3	10.2	17.9	55.0	10.6	100.0 (240)
전남	1.4	2.4	9.1	18.6	54.0	14.5	100.0 (197)
경북	0.3	2.1	11.7	19.3	45.6	21.0	100.0 (370)
경남	8.2	1.4	5.2	21.9	42.4	20.9	100.0 (284)
제주	5.2	0.0	1.7	2.9	59.4	30.8	100.0 (4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친목단체에 가입한 4,44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5-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단체활동 참여 빈도 : 정치사회 단체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8.3	0.0	0.0	11.9	56.6	23.2	100.0 (53)
서울	17.8	0.0	0.0	22.1	31.4	28.7	100.0 (11)
부산	9.5	0.0	0.0	6.9	71.1	12.5	100.0 (15)
대구	0.0	0.0	0.0	0.0	0.0	100.0	100.0 (1) ²⁾
인천	0.0	0.0	0.0	0.0	100.0	0.0	100.0 (2) ²⁾
광주	0.0	0.0	0.0	0.0	69.2	30.8	100.0 (2) ²⁾
대전	0.0	0.0	0.0	0.0	0.0	100.0	100.0 (1) ²⁾
울산	0.0	0.0	0.0	0.0	0.0	0.0	0.0 (0)
경기	0.0	0.0	0.0	11.6	62.4	26.0	100.0 (6) ²⁾
강원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충북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충남	0.0	0.0	0.0	0.0	55.9	44.1	100.0 (2) ²⁾
전북	50.1	0.0	0.0	0.0	49.9	0.0	100.0 (2) ²⁾
전남	0.0	0.0	0.0	0.0	0.0	0.0	0.0 (0)
경북	0.0	0.0	0.0	24.7	47.0	28.3	100.0 (7) ²⁾
경남	0.0	0.0	0.0	28.7	71.3	0.0	100.0 (2) ²⁾
제주	0.0	0.0	0.0	0.0	16.6	83.4	100.0 (1)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한 53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참여율 ¹⁾	교육 참여 빈도 ²⁾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국	13.7	11.1	48.1	36.4	1.8	1.7	0.9	100.0 (1,403)
서울	15.2	19.0	46.7	29.4	2.0	1.5	1.4	100.0 (281)
부산	11.6	16.8	36.4	37.6	5.4	3.8	0.0	100.0 (86)
대구	17.2	9.3	45.7	38.0	2.5	0.0	4.5	100.0 (81)
인천	16.3	13.0	71.9	13.4	1.7	0.0	0.0	100.0 (75)
광주	12.2	10.6	62.9	24.1	2.4	0.0	0.0	100.0 (31)
대전	13.9	10.1	38.4	40.1	8.3	3.1	0.0	100.0 (35)
울산	14.8	23.7	44.0	32.3	0.0	0.0	0.0	100.0 (22)
경기	13.0	7.6	52.7	35.7	1.2	1.8	1.0	100.0 (258)
강원	12.0	5.4	54.4	40.2	0.0	0.0	0.0	100.0 (49)
충북	21.1	2.1	23.9	72.9	1.1	0.0	0.0	100.0 (79)
충남	10.1	2.2	59.4	35.0	1.1	0.0	2.3	100.0 (57)
전북	16.5	9.3	59.9	25.5	1.2	4.1	0.0	100.0 (87)
전남	9.3	17.9	38.6	38.7	1.6	2.3	0.9	100.0 (58)
경북	13.4	5.0	41.9	48.6	0.0	4.5	0.0	100.0 (103)
경남	12.2	9.9	47.4	40.7	1.0	1.0	0.0	100.0 (87)
제주	10.2	11.1	31.3	54.7	0.0	0.0	2.9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단위: %, 명)

지역	건강관리/운동	예술문화	어학	인문학	정보화	취업/직업	기타	계 (명)
전국 ¹⁾	36.0	41.5	10.4	2.9	6.9	1.1	1.2	100.0 (1,403)
서울	33.1	35.8	11.3	0.5	14.2	2.0	3.1	100.0 (281)
부산	31.6	42.4	13.1	4.0	8.9	0.0	0.0	100.0 (86)
대구	31.6	50.0	10.5	2.7	4.6	0.0	0.6	100.0 (81)
인천	37.8	46.5	10.3	1.7	3.7	0.0	0.0	100.0 (75)
광주	23.5	47.8	5.4	9.6	7.8	4.2	1.7	100.0 (31)
대전	32.0	32.7	6.9	18.6	4.1	2.8	2.9	100.0 (35)
울산	40.1	46.3	9.2	0.0	4.4	0.0	0.0	100.0 (22)
경기	37.5	43.7	12.8	1.5	4.1	0.0	0.4	100.0 (258)
강원	38.5	52.8	1.4	1.5	1.6	2.9	1.3	100.0 (49)
충북	70.1	23.4	2.3	0.0	3.8	0.4	0.0	100.0 (79)
충남	41.0	38.5	9.7	3.7	5.7	1.4	0.0	100.0 (57)
전북	34.3	41.8	12.6	2.7	4.9	1.4	2.3	100.0 (87)
전남	33.4	41.4	13.7	1.1	8.2	0.0	2.2	100.0 (58)
경북	23.2	48.5	13.7	6.5	5.0	3.1	0.0	100.0 (103)
경남	35.1	46.0	6.4	6.1	5.8	0.0	0.6	100.0 (87)
제주	42.1	31.3	7.5	9.2	6.0	0.0	3.9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지역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사군구/ 읍면동	학교	문화예술 회관 등	사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계 (명)
전국 ¹⁾	24.2	12.6	2.4	9.3	24.3	2.2	14.4	8.2	2.4	100.0 (1,403)
서울	23.0	6.9	1.9	9.2	30.3	2.4	16.8	6.6	2.9	100.0 (281)
부산	6.4	0.0	3.2	14.8	25.4	2.4	20.7	27.1	0.0	100.0 (86)
대구	27.1	7.4	2.0	7.7	23.8	5.6	12.2	14.2	0.0	100.0 (81)
인천	46.6	9.7	0.0	9.5	14.7	0.0	14.5	5.0	0.0	100.0 (75)
광주	20.2	25.5	3.8	4.3	12.0	8.5	11.3	14.4	0.0	100.0 (31)
대전	28.9	5.7	2.1	4.6	16.2	0.0	24.0	13.5	5.0	100.0 (35)
울산	42.0	10.4	2.1	11.6	13.6	0.0	8.2	12.1	0.0	100.0 (22)
경기	25.0	5.7	1.2	12.9	31.7	0.8	12.7	6.1	3.9	100.0 (258)
강원	29.8	20.2	1.0	0.7	24.9	5.5	3.2	10.0	4.7	100.0 (49)
충북	21.6	56.9	1.0	2.0	13.8	0.8	2.1	0.9	0.9	100.0 (79)
충남	24.9	36.1	0.9	4.0	12.6	3.1	9.8	2.4	6.2	100.0 (57)
전북	30.6	7.1	5.2	8.5	28.2	1.3	10.0	4.8	4.3	100.0 (87)
전남	14.6	17.0	4.2	13.8	12.6	6.3	29.7	1.8	0.0	100.0 (58)
경북	15.0	17.8	3.1	14.5	19.0	2.1	21.3	5.1	2.1	100.0 (103)
경남	25.2	6.1	6.1	4.6	29.6	0.6	13.1	13.6	1.1	100.0 (87)
제주	26.9	21.9	10.2	5.0	16.9	3.6	8.7	5.1	1.7	100.0 (1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나눔활동 참여율

(단위: %, 명)

지역	참여율			(명)
	기부 ²⁾	다른 사람 돕기 ³⁾	자원봉사활동 ⁴⁾	
전국 ¹⁾	3.5	9.5	4.0	(10,279)
서울	6.3	9.2	5.7	(1,844)
부산	4.6	25.8	3.3	(745)
대구	1.0	5.8	5.1	(472)
인천	1.2	7.0	1.7	(463)
광주	1.6	0.3	4.1	(257)
대전	0.6	3.6	5.4	(252)
울산	3.7	4.4	4.6	(152)
경기	4.0	4.4	4.6	(1,989)
강원	2.0	4.6	3.9	(404)
충북	0.8	15.7	2.0	(374)
충남	1.3	13.2	1.5	(569)
전북	4.3	1.3	4.8	(528)
전남	0.7	0.0	1.2	(626)
경북	3.8	9.4	4.8	(769)
경남	4.3	18.5	2.8	(710)
제주	5.3	66.6	4.5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금전적 대가없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함.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은 제외 됨.

4) 시간 및 노력 제공 모두 포함됨.

〈부표Ⅱ-11-1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지역	현재 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4.5	14.5	81.0	100.0 (10,279)
서울	6.4	20.9	72.7	100.0 (1,844)
부산	4.0	17.3	78.7	100.0 (745)
대구	5.0	16.6	78.4	100.0 (472)
인천	2.4	12.4	85.2	100.0 (463)
광주	5.3	16.6	78.1	100.0 (257)
대전	4.8	15.1	80.1	100.0 (252)
울산	5.2	12.3	82.5	100.0 (152)
경기	5.1	13.1	81.8	100.0 (1,989)
강원	4.2	10.7	85.1	100.0 (404)
충북	2.6	8.3	89.1	100.0 (374)
충남	2.1	7.4	90.5	100.0 (569)
전북	5.4	15.2	79.4	100.0 (528)
전남	1.8	9.2	89.0	100.0 (626)
경북	4.9	14.6	80.5	100.0 (769)
경남	3.2	12.9	83.9	100.0 (710)
제주	4.3	14.4	81.3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10.2	13.5	22.6	11.4	25.6	16.7	100.0 (461)
서울	8.1	12.0	27.9	4.5	29.2	18.3	100.0 (118)
부산	4.8	0.0	32.3	9.9	39.3	13.7	100.0 (30)
대구	13.0	8.9	18.4	12.8	29.9	17.0	100.0 (24)
인천	13.4	9.9	0.0	33.7	43.0	0.0	100.0 (11)
광주	15.5	38.1	23.7	9.7	13.0	0.0	100.0 (14)
대전	6.9	41.2	27.8	17.5	6.6	0.0	100.0 (12)
울산	1.6	7.1	10.3	42.3	32.7	6.0	100.0 (8) ²⁾
경기	19.1	14.0	24.0	15.2	15.6	12.1	100.0 (101)
강원	19.9	15.5	12.7	7.8	6.1	38.0	100.0 (17)
충북	0.0	17.4	16.0	8.2	32.4	26.0	100.0 (10)
충남	1.9	4.7	30.3	10.1	18.3	34.7	100.0 (12)
전북	6.0	18.6	36.6	7.0	18.0	13.8	100.0 (29)
전남	12.4	5.8	9.7	5.1	36.2	30.8	100.0 (11)
경북	1.6	18.0	12.4	12.7	31.6	23.7	100.0 (38)
경남	7.3	2.3	5.8	16.1	44.8	23.7	100.0 (23)
제주	0.0	37.5	11.7	20.9	29.9	0.0	100.0 (5)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1-12〉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지역	개인적으로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타	계 (명)
전국 ¹⁾	8.8	25.4	16.2	15.4	20.6	10.6	3.0	100.0 (461)
서울	5.1	42.6	13.2	9.5	16.5	7.1	6.0	100.0 (118)
부산	4.9	22.5	13.0	11.1	37.7	10.8	0.0	100.0 (30)
대구	0.0	30.1	11.3	30.2	20.0	8.4	0.0	100.0 (24)
인천	0.0	21.7	3.7	3.3	58.5	12.8	0.0	100.0 (11)
광주	28.8	19.1	6.8	10.0	30.0	5.3	0.0	100.0 (14)
대전	14.6	41.1	11.5	22.5	6.1	4.2	0.0	100.0 (12)
울산	16.8	6.1	8.3	19.0	22.2	27.6	0.0	100.0 (8) ²⁾
경기	10.7	16.3	29.0	14.9	15.4	8.7	5.0	100.0 (101)
강원	1.5	19.8	4.4	38.4	20.3	14.5	1.1	100.0 (17)
충북	45.2	28.5	7.8	10.2	8.3	0.0	0.0	100.0 (10)
충남	15.1	13.8	9.6	35.1	24.3	2.1	0.0	100.0 (12)
전북	7.9	26.0	22.7	13.1	16.8	13.5	0.0	100.0 (29)
전남	22.9	16.4	10.2	24.7	13.2	12.6	0.0	100.0 (11)
경북	4.2	17.4	6.3	21.0	29.1	22.0	0.0	100.0 (38)
경남	20.3	3.0	24.7	10.4	17.9	23.7	0.0	100.0 (23)
제주	11.3	22.2	19.7	25.0	21.8	0.0	0.0	100.0 (5)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1-1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지역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기타	계 (명)
전국 ¹⁾	56.8	3.6	8.9	18.2	5.3	4.3	2.9	100.0 (461)
서울	58.8	4.4	11.0	9.3	5.5	2.9	8.1	100.0 (118)
부산	66.2	3.5	10.9	19.4	0.0	0.0	0.0	100.0 (30)
대구	56.0	1.5	28.3	14.2	0.0	0.0	0.0	100.0 (24)
인천	39.2	0.0	23.1	29.6	4.4	0.0	3.7	100.0 (11)
광주	46.3	5.3	20.0	11.9	3.1	13.4	0.0	100.0 (14)
대전	52.3	0.0	0.0	20.7	19.3	6.1	1.6	100.0 (12)
울산	44.5	0.0	17.0	26.8	11.7	0.0	0.0	100.0 (8) ²⁾
경기	51.7	2.5	8.6	21.1	8.3	5.6	2.2	100.0 (101)
강원	69.2	1.2	5.2	14.3	0.0	10.1	0.0	100.0 (17)
충북	71.0	4.1	9.2	0.0	15.7	0.0	0.0	100.0 (10)
충남	76.5	0.0	0.0	8.2	4.9	10.4	0.0	100.0 (12)
전북	51.3	8.3	0.0	19.9	6.5	10.5	3.5	100.0 (29)
전남	55.6	9.7	0.0	28.9	0.0	5.8	0.0	100.0 (11)
경북	51.8	5.7	1.9	34.2	4.3	2.1	0.0	100.0 (38)
경남	65.8	0.0	0.0	32.1	0.0	2.1	0.0	100.0 (23)
제주	73.1	10.1	6.0	3.6	0.0	7.2	0.0	100.0 (5)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1-1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지역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기타	계 (명)
전국 ¹⁾	77.0	14.9	8.0	0.1	100.0 (461)
서울	68.3	18.8	12.9	0.0	100.0 (118)
부산	85.0	15.0	0.0	0.0	100.0 (30)
대구	70.5	17.4	12.1	0.0	100.0 (24)
인천	84.4	5.3	10.3	0.0	100.0 (11)
광주	72.2	26.1	1.7	0.0	100.0 (14)
대전	86.9	7.7	5.4	0.0	100.0 (12)
울산	94.2	0.0	5.8	0.0	100.0 (8) ²⁾
경기	85.4	7.1	7.5	0.0	100.0 (101)
강원	65.4	26.2	8.4	0.0	100.0 (17)
충북	89.7	4.0	0.0	6.3	100.0 (10)
충남	79.4	15.7	4.9	0.0	100.0 (12)
전북	61.9	26.4	11.7	0.0	100.0 (29)
전남	94.2	5.8	0.0	0.0	100.0 (11)
경북	81.8	16.1	2.1	0.0	100.0 (38)
경남	77.2	13.1	9.7	0.0	100.0 (23)
제주	62.9	29.9	7.2	0.0	100.0 (5)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6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Ⅱ-11-15〉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전혀 사용 불가능	계 (명)
전국	2.9	7.0	7.1	83.0	100.0 (10,279)
서울	5.7	11.2	9.8	73.3	100.0 (1,844)
부산	2.4	8.1	7.1	82.4	100.0 (745)
대구	2.2	4.3	6.7	86.8	100.0 (472)
인천	0.6	3.5	6.5	89.4	100.0 (463)
광주	2.9	6.4	7.5	83.2	100.0 (257)
대전	2.4	7.4	8.6	81.6	100.0 (252)
울산	2.2	6.4	8.2	83.2	100.0 (152)
경기	4.4	6.5	9.2	79.9	100.0 (1,989)
강원	0.0	7.1	3.7	89.2	100.0 (404)
충북	0.5	4.8	4.4	90.3	100.0 (374)
충남	1.4	6.6	5.5	86.5	100.0 (569)
전북	1.0	7.9	4.2	86.9	100.0 (528)
전남	0.4	3.3	2.2	94.1	100.0 (626)
경북	3.9	6.1	6.1	83.9	100.0 (769)
경남	1.3	5.9	6.3	86.5	100.0 (710)
제주	0.9	8.2	4.2	86.7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16>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핸드폰 소유 여부 및 기능 사용 수준

(단위: %, 명)

지역	스마트폰 소유	일반 핸드폰 소유	갖고 있지 않음	기능 사용 수준 ²⁾				계 (명)
				전화 받기/걸기	문자 받기	문자받기 /보내기	검색/뉴스 보기	
전국 ¹⁾	13.7	66.8	19.5	59.7	18.6	13.4	8.3	100.0 (8,277)
서울	25.8	62.0	12.2	48.5	19.4	19.5	12.6	100.0 (1,620)
부산	13.9	69.5	16.6	45.1	31.3	15.7	7.9	100.0 (621)
대구	10.4	69.3	20.3	60.8	18.7	14.2	6.3	100.0 (376)
인천	9.3	74.2	16.5	62.5	23.3	11.0	3.2	100.0 (386)
광주	12.1	68.5	19.4	72.9	5.9	13.4	7.8	100.0 (207)
대전	9.7	72.6	17.7	68.2	11.5	15.2	5.1	100.0 (207)
울산	12.9	72.1	15.0	62.7	14.0	15.5	7.8	100.0 (129)
경기	17.6	66.5	15.9	57.5	15.7	15.3	11.5	100.0 (1,672)
강원	10.4	70.4	19.2	54.1	27.7	10.8	7.4	100.0 (326)
충북	4.9	67.2	27.9	58.4	28.8	9.4	3.4	100.0 (270)
충남	5.7	68.1	26.2	68.8	16.2	9.6	5.4	100.0 (420)
전북	11.4	61.2	27.4	72.8	11.6	6.6	9.0	100.0 (384)
전남	3.1	71.6	25.3	85.0	8.6	4.9	1.5	100.0 (468)
경북	10.0	64.8	25.2	64.0	18.2	9.2	8.6	100.0 (575)
경남	8.1	65.7	26.2	63.9	21.8	10.6	3.7	100.0 (523)
제주	5.6	68.6	25.8	68.9	16.9	10.2	4.0	100.0 (93)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스마트폰 또는 일반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8,278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하위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지를 의미함.

<부표 II-11-1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명)

지역	현재 이용률 ¹⁾	향후(개년) 이용 희망률 ²⁾	1주간 평균이용 일수 ³⁾	이용만족도 ³⁾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국 ¹⁾	25.9	34.2	4.2	8.5	67.7	20.6	2.9	0.3	100.0 (2,663)
서울	9.0	18.4	4.2	13.0	57.5	21.3	8.2	0.0	100.0 (166)
부산	12.0	28.7	3.6	7.0	43.4	40.6	6.8	2.2	100.0 (90)
대구	13.9	28.7	4.3	0.0	66.1	30.5	3.4	0.0	100.0 (66)
인천	14.1	21.0	4.3	3.5	73.9	17.9	4.0	0.7	100.0 (65)
광주	21.3	24.5	4.0	4.3	88.9	4.8	2.0	0.0	100.0 (55)
대전	19.9	20.2	3.9	68.7	24.4	5.2	1.7	0.0	100.0 (50)
울산	12.9	19.1	3.3	14.3	72.5	13.2	0.0	0.0	100.0 (19)
경기	24.2	30.6	4.1	9.1	71.0	17.3	2.6	0.0	100.0 (482)
강원	32.5	38.6	4.0	9.0	57.0	30.2	3.1	0.7	100.0 (131)
충북	44.0	48.4	5.3	7.6	64.0	27.9	0.5	0.0	100.0 (165)
충남	45.8	48.7	4.7	5.0	68.8	22.9	3.3	0.0	100.0 (261)
전북	40.8	49.7	3.9	11.8	64.4	19.8	2.9	1.1	100.0 (215)
전남	43.0	49.5	4.7	15.6	76.7	7.2	0.5	0.0	100.0 (269)
경북	43.8	48.7	3.8	3.4	74.6	19.8	2.2	0.0	100.0 (337)
경남	34.2	48.2	3.8	7.8	62.1	27.1	2.7	0.3	100.0 (243)
제주	39.4	56.7	1.7	24.2	62.4	10.1	3.3	0.0	100.0 (4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1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이용이유

(단위: %, 명)

지역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참여	건강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국 ¹⁾	4.4	1.9	0.5	0.5	6.6	85.5	0.6	100.0 (2,663)
서울	4.5	5.4	3.8	0.0	14.5	71.8	0.0	100.0 (166)
부산	1.4	0.0	0.0	0.0	7.9	90.8	0.0	100.0 (90)
대구	3.0	0.0	0.0	0.0	0.0	94.0	3.0	100.0 (66)
인천	8.4	0.6	3.1	0.0	3.9	82.8	1.1	100.0 (65)
광주	2.4	1.6	0.0	1.3	7.0	87.8	0.0	100.0 (55)
대전	2.8	0.0	0.0	1.2	4.1	91.9	0.0	100.0 (50)
울산	13.6	3.4	0.0	0.0	0.4	82.7	0.0	100.0 (19)
경기	1.8	5.0	0.2	0.0	9.0	82.4	1.5	100.0 (482)
강원	5.5	0.0	1.4	0.0	7.1	83.5	2.5	100.0 (131)
충북	4.5	0.0	0.0	0.0	1.6	93.9	0.0	100.0 (165)
충남	11.0	0.7	0.4	1.6	0.3	85.7	0.4	100.0 (261)
전북	3.7	3.0	0.2	0.9	8.0	83.5	0.7	100.0 (215)
전남	2.2	0.7	0.0	0.5	6.3	90.3	0.0	100.0 (269)
경북	4.7	0.8	0.0	0.0	5.4	89.1	0.0	100.0 (337)
경남	2.6	0.5	0.0	0.3	4.2	92.1	0.3	100.0 (243)
제주	15.9	3.0	0.0	8.4	33.1	39.0	0.7	100.0 (49)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19〉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경로당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지역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기타	계 (명)
전국 ¹⁾	14.3	7.8	4.5	66.4	5.6	1.4	100.0 (85)
서울	13.4	0.0	0.0	76.2	10.4	0.0	100.0 (14)
부산	0.0	0.0	0.0	100.0	0.0	0.0	100.0 (8) ²⁾
대구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인천	55.3	28.7	0.0	16.0	0.0	0.0	100.0 (3) ²⁾
광주	100.0	0.0	0.0	0.0	0.0	0.0	100.0 (1) ²⁾
대전	0.0	0.0	0.0	100.0	0.0	0.0	100.0 (3) ²⁾
울산	0.0	0.0	0.0	0.0	0.0	0.0	0.0 (0)
경기	16.9	9.6	9.9	52.6	11.0	0.0	100.0 (12)
강원	6.5	19.2	0.0	68.7	0.0	5.6	100.0 (5) ²⁾
충북	0.0	67.9	0.0	32.1	0.0	0.0	100.0 (1) ²⁾
충남	11.8	7.9	20.4	41.7	12.5	5.7	100.0 (9) ²⁾
전북	11.2	26.6	10.0	47.6	0.0	4.6	100.0 (9) ²⁾
전남	100.0	0.0	0.0	0.0	0.0	0.0	100.0 (1) ²⁾
경북	12.7	0.0	0.0	75.3	0.0	12.0	100.0 (8) ²⁾
경남	11.2	0.0	0.0	88.8	0.0	0.0	100.0 (7) ²⁾
제주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85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11-20>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명)

지역	현재 이용률 ¹⁾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1주간 평균이용 일수 ³⁾	이용만족도 ³⁾					계 (명)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전국	8.9	19.5	2.6	12.6	71.8	13.3	2.3	0.0	100.0 (916)
서울	10.1	23.9	2.9	13.2	65.4	15.0	6.4	0.0	100.0 (186)
부산	3.5	31.5	1.8	10.3	50.8	38.9	0.0	0.0	100.0 (26)
대구	9.0	23.1	1.4	7.4	74.8	15.6	2.2	0.0	100.0 (43)
인천	12.6	20.5	1.5	3.9	88.7	5.9	1.5	0.0	100.0 (58)
광주	8.5	12.2	1.8	14.5	80.8	4.7	0.0	0.0	100.0 (22)
대전	14.1	16.0	2.0	4.0	56.6	34.6	4.8	0.0	100.0 (35)
울산	12.9	26.4	1.6	5.2	85.8	6.5	2.5	0.0	100.0 (20)
경기	7.5	15.5	1.8	11.0	76.1	12.9	0.0	0.0	100.0 (150)
강원	8.6	16.6	1.3	10.3	82.1	7.6	0.0	0.0	100.0 (35)
충북	6.8	10.1	2.0	19.9	74.0	6.1	0.0	0.0	100.0 (25)
충남	9.4	11.0	1.8	16.2	78.2	3.2	2.4	0.0	100.0 (53)
전북	10.5	15.3	1.6	14.0	68.6	13.9	3.5	0.0	100.0 (56)
전남	15.2	19.7	1.8	15.6	71.2	13.2	0.0	0.0	100.0 (95)
경북	4.8	16.7	2.0	4.1	80.3	11.3	4.3	0.0	100.0 (37)
경남	8.8	24.7	2.0	23.9	61.8	14.3	0.0	0.0	100.0 (62)
제주	9.4	20.0	1.4	35.5	60.6	3.9	0.0	0.0	100.0 (12)

-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21-1>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지역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계 (명)
전국 ¹⁾	53.2	3.9	4.8	3.8	17.6	14.9	1.8	100.0 (916)
서울	47.2	6.2	5.4	4.3	22.4	12.1	2.4	100.0 (186)
부산	28.6	0.0	38.3	2.3	10.9	19.9	0.0	100.0 (26)
대구	58.1	0.0	0.0	0.0	5.3	36.6	0.0	100.0 (43)
인천	76.6	0.0	5.4	0.8	10.4	4.5	2.3	100.0 (58)
광주	44.7	9.9	5.6	8.3	14.4	17.1	0.0	100.0 (22)
대전	46.8	7.6	7.3	0.0	13.7	24.6	0.0	100.0 (35)
울산	51.4	3.4	0.0	7.5	18.1	3.8	15.8	100.0 (20)
경기	68.0	5.6	1.1	1.8	12.4	11.1	0.0	100.0 (150)
강원	53.7	1.1	1.0	4.4	15.8	24.0	0.0	100.0 (35)
충북	68.4	0.0	2.1	5.6	18.2	5.7	0.0	100.0 (25)
충남	32.7	1.9	11.9	5.9	28.6	11.8	7.2	100.0 (53)
전북	57.1	7.5	2.1	7.8	11.0	14.5	0.0	100.0 (56)
전남	42.0	2.4	6.4	4.4	24.6	19.7	0.5	100.0 (95)
경북	58.7	7.2	1.4	0.0	9.8	16.4	6.5	100.0 (37)
경남	51.9	0.0	0.0	7.5	26.9	12.7	1.0	100.0 (62)
제주	37.2	0.0	0.0	8.2	22.0	30.3	2.3	100.0 (12)

-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2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지역	시설 열악	프로그램 미비	교통 불편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경제적 부담	기타	계 (명)
전국 ¹⁾	21.3	3.2	13.5	59.1	2.9	0.0	100.0 (21)
서울	36.9	0.0	0.0	63.1	0.0	0.0	100.0 (12)
부산	0.0	0.0	0.0	0.0	0.0	0.0	0.0 (0)
대구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인천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광주	0.0	0.0	0.0	0.0	0.0	0.0	0.0 (0)
대전	0.0	0.0	81.6	18.4	0.0	0.0	100.0 (2) ²⁾
울산	0.0	0.0	100.0	0.0	0.0	0.0	100.0 (1) ²⁾
경기	0.0	0.0	0.0	0.0	0.0	0.0	0.0 (0)
강원	0.0	0.0	0.0	0.0	0.0	0.0	0.0 (0)
충북	0.0	0.0	0.0	0.0	0.0	0.0	0.0 (0)
충남	0.0	52.1	47.9	0.0	0.0	0.0	100.0 (1) ²⁾
전북	0.0	0.0	16.7	52.0	31.3	0.0	100.0 (2) ²⁾
전남	0.0	0.0	0.0	0.0	0.0	0.0	0.0 (0)
경북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경남	0.0	0.0	0.0	0.0	0.0	0.0	0.0 (0)
제주	0.0	0.0	0.0	0.0	0.0	0.0	0.0 (0)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지역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없음	계 (명)
전국 ¹⁾	30.2	23.7	10.5	1.2	0.3	1.0	33.1	100.0 (10,278)
서울	21.1	32.2	12.3	0.7	0.4	0.8	32.5	100.0 (1,844)
부산	54.0	11.3	7.9	0.9	0.7	2.9	22.3	100.0 (745)
대구	41.9	13.5	16.2	1.6	0.0	0.9	25.9	100.0 (472)
인천	20.7	28.7	12.4	0.1	0.0	0.8	37.3	100.0 (463)
광주	17.6	23.6	17.6	1.1	0.3	0.2	39.6	100.0 (257)
대전	28.2	25.3	10.8	1.6	0.0	0.3	33.8	100.0 (252)
울산	58.8	10.3	5.1	0.3	0.0	0.4	25.1	100.0 (152)
경기	24.0	28.7	12.6	2.4	0.0	1.3	31.0	100.0 (1,989)
강원	34.5	16.6	7.6	0.4	0.0	0.8	40.1	100.0 (404)
충북	33.3	15.0	10.6	0.7	0.0	0.3	40.1	100.0 (374)
충남	26.5	19.3	9.4	0.8	0.3	0.6	43.1	100.0 (569)
전북	14.7	33.6	11.7	0.6	0.8	0.3	38.3	100.0 (528)
전남	14.4	32.6	8.1	0.8	1.2	1.1	41.8	100.0 (626)
경북	44.0	19.8	6.6	1.5	0.0	0.5	27.6	100.0 (768)
경남	51.8	10.5	4.0	1.3	0.5	2.0	29.9	100.0 (710)
제주	37.6	4.7	8.2	2.0	0.0	0.3	47.2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1-23〉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여생)의 소득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9.8	19.3	9.0	45.7	16.2	100.0 (10,279)
서울	13.2	16.3	10.6	42.1	17.8	100.0 (1,844)
부산	4.0	21.4	17.8	39.1	17.7	100.0 (745)
대구	8.4	17.0	4.0	51.6	19.0	100.0 (472)
인천	8.5	16.5	5.5	54.1	15.4	100.0 (463)
광주	1.5	10.7	8.4	58.1	21.3	100.0 (257)
대전	3.3	20.7	5.2	54.4	16.4	100.0 (252)
울산	18.9	13.6	10.8	43.1	13.6	100.0 (152)
경기	12.3	17.6	7.2	45.8	17.1	100.0 (1,989)
강원	13.9	19.8	4.8	42.8	18.7	100.0 (404)
충북	10.7	29.7	0.5	46.9	12.2	100.0 (374)
충남	10.6	23.1	4.9	47.8	13.6	100.0 (569)
전북	5.9	18.0	12.0	37.5	26.6	100.0 (528)
전남	5.9	23.1	11.4	42.7	16.9	100.0 (626)
경북	15.0	22.9	7.8	45.4	8.9	100.0 (769)
경남	2.0	20.0	15.0	53.9	9.1	100.0 (710)
제주	10.3	32.7	8.1	41.2	7.7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1-24〉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1.7	4.7	14.3	58.3	21.0	100.0 (10,279)
서울	2.6	7.3	20.5	50.0	19.6	100.0 (1,844)
부산	1.0	3.1	16.0	57.1	22.8	100.0 (745)
대구	0.8	5.2	23.0	57.1	13.9	100.0 (472)
인천	1.2	4.3	17.0	58.8	18.7	100.0 (463)
광주	0.4	4.6	17.6	51.3	26.1	100.0 (257)
대전	0.0	4.4	6.2	68.8	20.6	100.0 (252)
울산	3.0	4.6	6.4	64.2	21.8	100.0 (152)
경기	2.6	5.0	13.3	59.7	19.4	100.0 (1,989)
강원	1.8	3.4	7.3	65.1	22.4	100.0 (404)
충북	0.4	2.4	9.0	68.5	19.7	100.0 (374)
충남	0.1	1.5	6.0	77.0	15.4	100.0 (569)
전북	1.4	7.2	10.6	42.4	38.4	100.0 (528)
전남	0.0	2.0	15.4	46.0	36.6	100.0 (626)
경북	3.0	5.3	13.3	61.1	17.3	100.0 (769)
경남	0.8	3.2	9.6	72.0	14.4	100.0 (710)
제주	1.8	5.1	21.6	55.7	15.8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2.4	10.6	12.2	52.2	22.6	100.0 (10,279)
서울	4.3	13.2	13.2	45.8	23.5	100.0 (1,844)
부산	2.0	11.1	15.8	48.9	22.2	100.0 (745)
대구	0.6	12.4	16.8	56.7	13.5	100.0 (472)
인천	2.4	12.8	10.5	46.8	27.5	100.0 (463)
광주	0.0	6.2	17.5	37.2	39.1	100.0 (257)
대전	0.0	7.2	12.8	59.6	20.4	100.0 (252)
울산	4.2	8.8	7.5	56.7	22.8	100.0 (152)
경기	2.7	9.6	11.4	54.7	21.6	100.0 (1,989)
강원	0.8	8.7	6.4	46.6	37.5	100.0 (404)
충북	1.6	17.1	7.8	50.3	23.2	100.0 (374)
충남	0.7	5.7	7.8	65.9	19.9	100.0 (569)
전북	2.0	13.2	13.8	45.1	25.9	100.0 (528)
전남	0.7	8.1	12.7	53.2	25.3	100.0 (626)
경북	4.9	11.2	12.7	55.4	15.8	100.0 (769)
경남	1.4	8.3	12.4	60.8	17.1	100.0 (710)
제주	2.7	10.6	8.1	54.0	24.6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1-2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9.0	52.6	20.2	14.9	3.3	100.0 (10,278)
서울	14.4	47.4	16.9	15.6	5.7	100.0 (1,844)
부산	4.4	50.9	21.3	18.6	4.8	100.0 (745)
대구	4.9	71.3	14.0	8.0	1.8	100.0 (472)
인천	5.1	69.1	9.9	12.8	3.1	100.0 (463)
광주	2.5	50.2	32.0	14.7	0.6	100.0 (257)
대전	0.8	58.7	30.6	8.6	1.3	100.0 (252)
울산	16.3	39.2	20.6	20.8	3.1	100.0 (152)
경기	7.8	51.7	17.9	17.8	4.8	100.0 (1,989)
강원	7.7	54.1	14.0	20.7	3.5	100.0 (404)
충북	30.6	58.1	10.2	0.8	0.3	100.0 (374)
충남	17.5	44.4	29.2	7.8	1.1	100.0 (569)
전북	5.7	41.3	30.4	18.9	3.7	100.0 (528)
전남	2.2	48.8	30.9	16.1	2.0	100.0 (626)
경북	9.1	59.7	13.5	17.0	0.7	100.0 (769)
경남	3.3	56.6	26.9	11.1	2.1	100.0 (710)
제주	7.2	43.6	28.5	18.6	2.1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1-27〉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17.9	27.7	12.5	29.0	12.9	100.0 (10,278)
서울	23.5	24.8	9.5	27.3	14.9	100.0 (1,844)
부산	14.1	26.3	22.8	27.9	8.9	100.0 (745)
대구	13.8	42.0	9.5	27.5	7.2	100.0 (472)
인천	18.2	39.4	8.2	28.1	6.1	100.0 (463)
광주	13.6	34.7	9.9	19.2	22.6	100.0 (257)
대전	3.8	31.8	23.9	25.9	14.6	100.0 (252)
울산	23.9	25.6	15.6	29.2	5.7	100.0 (152)
경기	21.8	26.5	8.5	30.1	13.1	100.0 (1,989)
강원	18.1	31.6	6.9	35.3	8.1	100.0 (404)
충북	16.4	18.6	17.1	28.4	19.5	100.0 (374)
충남	14.0	14.2	23.8	31.2	16.8	100.0 (569)
전북	16.3	33.6	8.6	24.3	17.2	100.0 (528)
전남	17.1	32.0	5.4	24.8	20.7	100.0 (626)
경북	21.6	27.5	11.3	32.7	6.9	100.0 (769)
경남	7.9	24.9	24.3	34.2	8.7	100.0 (710)
제주	9.4	28.9	9.9	35.8	16.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1-28〉 노인(65세 이상)의 사도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0.1	0.6	0.6	28.0	70.7	100.0 (10,278)
서울	0.3	0.9	0.7	28.6	69.5	100.0 (1,844)
부산	0.0	1.2	1.3	18.1	79.4	100.0 (745)
대구	0.0	0.5	0.0	19.8	79.7	100.0 (472)
인천	0.2	0.4	0.0	31.8	67.6	100.0 (463)
광주	0.0	0.8	0.0	16.2	83.0	100.0 (257)
대전	0.0	0.0	0.1	12.3	87.6	100.0 (252)
울산	0.0	0.0	0.3	41.6	58.1	100.0 (152)
경기	0.2	0.6	0.9	31.8	66.5	100.0 (1,989)
강원	0.1	0.3	0.6	30.3	68.7	100.0 (404)
충북	0.0	0.2	0.5	17.7	81.6	100.0 (374)
충남	0.0	0.0	0.4	15.8	83.8	100.0 (569)
전북	0.0	0.1	1.4	19.3	79.2	100.0 (528)
전남	0.1	0.1	0.0	24.7	75.1	100.0 (626)
경북	0.2	0.9	0.2	44.3	54.4	100.0 (769)
경남	0.1	0.4	0.1	39.1	60.3	100.0 (710)
제주	0.5	0.8	1.0	44.2	53.5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1-2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6.9	33.2	13.5	36.4	10.0	100.0 (10,279)
서울	11.8	31.7	12.4	32.2	11.9	100.0 (1,844)
부산	4.1	41.4	11.4	30.4	12.7	100.0 (745)
대구	4.5	40.9	18.9	29.3	6.4	100.0 (472)
인천	5.6	34.3	8.0	44.3	7.8	100.0 (463)
광주	2.5	40.5	22.3	27.0	7.7	100.0 (257)
대전	0.9	40.0	15.3	33.7	10.1	100.0 (252)
울산	16.0	31.3	11.0	29.7	12.0	100.0 (152)
경기	6.1	29.8	12.7	41.3	10.1	100.0 (1,989)
강원	10.4	29.8	9.0	43.8	7.0	100.0 (404)
충북	7.4	30.7	10.5	42.7	8.7	100.0 (374)
충남	6.0	22.4	22.9	39.5	9.2	100.0 (569)
전북	5.4	38.2	16.1	25.0	15.3	100.0 (528)
전남	1.1	33.2	13.9	39.6	12.2	100.0 (626)
경북	12.5	37.5	12.5	30.1	7.4	100.0 (769)
경남	1.9	33.5	13.2	44.4	7.0	100.0 (710)
제주	9.5	23.7	10.2	50.3	6.3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택종류

(단위: %, 명)

지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전국 ¹⁾	51.7	34.7	11.8	1.9	100.0 (10,451)
서울	34.8	43.2	20.5	1.5	100.0 (1,862)
부산	48.7	34.7	14.8	1.9	100.0 (780)
대구	55.5	36.1	8.3	0.1	100.0 (485)
인천	36.1	28.3	34.3	1.4	100.0 (471)
광주	34.6	62.7	2.2	0.5	100.0 (261)
대전	38.0	49.0	9.8	3.3	100.0 (255)
울산	78.1	11.3	6.9	3.7	100.0 (152)
경기	36.8	48.8	13.1	1.3	100.0 (2,009)
강원	32.4	63.3	2.5	1.8	100.0 (414)
충북	70.5	20.1	3.3	6.2	100.0 (382)
충남	70.8	19.0	5.7	4.4	100.0 (578)
전북	66.9	25.0	7.2	0.9	100.0 (532)
전남	87.5	5.8	3.7	3.0	100.0 (627)
경북	64.0	26.4	7.1	2.5	100.0 (776)
경남	76.2	16.4	6.9	0.5	100.0 (734)
제주	90.4	7.9	1.7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위치

(단위: %, 명)

지역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계 (명)
전국 ¹⁾	0.6	2.5	96.8	0.0	100.0 (10,450)
서울	2.5	7.8	89.6	0.1	100.0 (1,862)
부산	0.0	0.6	99.4	0.0	100.0 (780)
대구	0.0	0.5	99.5	0.0	100.0 (485)
인천	0.6	6.4	93.0	0.0	100.0 (471)
광주	0.0	0.0	100.0	0.0	100.0 (261)
대전	0.0	0.7	98.9	0.4	100.0 (255)
울산	0.0	0.6	99.4	0.0	100.0 (152)
경기	0.7	3.1	96.2	0.0	100.0 (2,009)
강원	0.5	0.4	99.2	0.0	100.0 (414)
충북	0.0	0.2	99.8	0.0	100.0 (382)
충남	0.0	0.5	99.5	0.0	100.0 (577)
전북	0.0	0.1	99.6	0.3	100.0 (532)
전남	0.0	0.3	99.7	0.0	100.0 (627)
경북	0.1	0.1	99.8	0.0	100.0 (776)
경남	0.0	0.5	99.5	0.0	100.0 (734)
제주	0.0	0.3	99.7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2-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형태

(단위: %, 명)

지역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계 (명)
전국 ¹⁾	69.2	8.4	9.8	1.7	11.0	100.0 (10,451)
서울	60.5	16.9	16.3	0.6	5.7	100.0 (1,862)
부산	70.2	8.6	12.4	0.9	7.8	100.0 (780)
대구	70.5	8.1	6.7	3.3	11.4	100.0 (485)
인천	58.0	10.7	20.8	1.1	9.4	100.0 (471)
광주	77.3	4.7	5.4	1.7	10.8	100.0 (261)
대전	74.0	4.7	13.7	0.3	7.4	100.0 (255)
울산	67.4	5.6	18.1	2.1	6.8	100.0 (152)
경기	65.7	11.9	12.7	0.7	9.0	100.0 (2,009)
강원	70.7	3.5	3.2	2.6	19.9	100.0 (414)
충북	76.0	3.0	3.1	3.7	14.2	100.0 (382)
충남	78.8	5.2	3.5	2.0	10.5	100.0 (578)
전북	77.5	4.6	7.0	1.6	9.3	100.0 (532)
전남	74.8	2.8	1.1	1.7	19.6	100.0 (627)
경북	73.7	2.8	2.5	3.1	17.9	100.0 (776)
경남	74.5	1.4	6.0	2.9	15.1	100.0 (734)
제주	66.2	0.3	5.0	7.9	20.7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

(단위: %, 명)

지역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국 ¹⁾	17.3	78.1	4.6	100.0 (10,450)
서울	14.2	77.4	8.4	100.0 (1,862)
부산	21.4	77.3	1.3	100.0 (780)
대구	17.0	81.3	1.7	100.0 (485)
인천	5.5	91.1	3.4	100.0 (471)
광주	12.2	75.9	11.9	100.0 (261)
대전	12.7	85.8	1.4	100.0 (255)
울산	15.8	84.2	0.0	100.0 (152)
경기	14.2	78.4	7.4	100.0 (2,009)
강원	5.1	93.0	2.0	100.0 (414)
충북	14.1	85.2	0.7	100.0 (382)
충남	13.4	84.7	1.9	100.0 (577)
전북	26.5	65.0	8.5	100.0 (532)
전남	45.6	53.6	0.8	100.0 (627)
경북	17.9	81.2	0.9	100.0 (776)
경남	21.7	75.1	3.2	100.0 (734)
제주	15.9	83.1	1.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2-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지역	없음	현관 및 복도	계단	화장실 및 욕실	침실 및 거실	문턱	부엌 및 식당	기타	계 (명)
전국 ¹⁾	55.0	2.8	15.3	12.5	1.5	9.1	3.7	0.2	100.0 (10,278)
서울	56.0	1.6	18.3	10.0	2.7	6.0	4.7	0.6	100.0 (1,844)
부산	71.5	1.6	11.4	8.0	0.7	3.4	3.6	0.0	100.0 (745)
대구	39.2	4.2	17.9	17.4	2.3	14.3	4.7	0.0	100.0 (472)
인천	42.2	1.9	26.1	12.6	1.8	11.9	3.2	0.3	100.0 (463)
광주	74.8	1.7	6.4	9.2	0.0	6.7	1.2	0.0	100.0 (257)
대전	52.2	1.6	14.8	13.3	2.1	11.2	4.8	0.0	100.0 (252)
울산	34.0	3.2	29.9	14.0	0.6	11.7	6.6	0.0	100.0 (152)
경기	67.6	1.4	14.2	7.7	1.3	6.1	1.7	0.1	100.0 (1,989)
강원	72.8	0.8	7.6	7.1	1.4	7.7	2.6	0.0	100.0 (404)
충북	41.4	8.5	20.6	15.6	2.3	7.6	3.9	0.0	100.0 (374)
충남	37.4	4.1	22.9	13.3	3.1	13.3	5.6	0.3	100.0 (568)
전북	56.3	7.5	8.5	10.6	0.6	14.5	2.1	0.0	100.0 (528)
전남	39.0	5.1	11.0	20.4	0.6	19.4	4.2	0.2	100.0 (626)
경북	40.2	4.3	13.6	18.5	1.5	15.1	6.7	0.1	100.0 (769)
경남	55.3	1.4	14.4	19.7	0.4	6.2	2.7	0.0	100.0 (710)
제주	62.5	1.2	1.6	31.5	0.4	0.5	2.3	0.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2-6-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30.0	40.3	16.9	12.7	100.0 (10,451)
서울	39.1	46.0	13.5	1.4	100.0 (1,862)
부산	35.4	37.0	23.0	4.6	100.0 (780)
대구	41.4	52.7	4.6	1.2	100.0 (485)
인천	13.4	67.4	18.7	0.5	100.0 (471)
광주	22.6	47.0	30.1	0.3	100.0 (261)
대전	32.9	48.3	16.6	2.2	100.0 (255)
울산	56.0	34.2	8.2	1.7	100.0 (152)
경기	30.6	42.0	15.5	12.0	100.0 (2,009)
강원	16.0	41.6	20.6	21.9	100.0 (414)
충북	44.1	27.3	5.3	23.2	100.0 (382)
충남	32.3	35.1	14.7	17.9	100.0 (578)
전북	21.4	32.4	18.8	27.3	100.0 (532)
전남	18.8	18.9	26.9	35.4	100.0 (627)
경북	25.7	34.8	17.2	22.4	100.0 (776)
경남	21.0	35.1	21.5	22.5	100.0 (734)
제주	17.7	45.0	25.1	12.3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6-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6.3	28.8	36.3	28.6	100.0 (10,451)
서울	10.8	37.4	32.1	19.7	100.0 (1,862)
부산	14.0	30.9	40.3	14.9	100.0 (780)
대구	3.0	44.5	40.5	11.9	100.0 (485)
인천	3.8	21.5	65.2	9.5	100.0 (471)
광주	0.8	29.8	54.3	15.2	100.0 (261)
대전	3.2	29.5	55.6	11.7	100.0 (255)
울산	16.1	48.7	21.4	13.8	100.0 (152)
경기	5.7	30.1	30.1	34.1	100.0 (2,009)
강원	1.7	17.6	47.1	33.6	100.0 (414)
충북	5.5	32.1	24.3	38.2	100.0 (382)
충남	1.4	15.7	45.9	37.0	100.0 (578)
전북	5.5	22.5	31.7	40.2	100.0 (532)
전남	3.2	16.0	35.0	45.8	100.0 (627)
경북	7.0	32.6	27.9	32.5	100.0 (776)
경남	3.3	19.5	34.6	42.6	100.0 (734)
제주	2.6	12.6	34.0	50.8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6-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읍면동 사무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6.9	23.2	41.6	28.4	100.0 (10,451)
서울	15.0	30.4	38.2	16.4	100.0 (1,862)
부산	6.5	32.3	52.5	8.7	100.0 (780)
대구	3.9	22.5	61.3	12.2	100.0 (485)
인천	5.5	22.8	60.9	10.8	100.0 (471)
광주	0.7	15.4	69.8	14.1	100.0 (261)
대전	3.8	26.9	58.5	10.9	100.0 (255)
울산	30.0	32.7	31.9	5.4	100.0 (152)
경기	3.8	23.2	40.5	32.4	100.0 (2,009)
강원	1.3	10.0	47.1	41.6	100.0 (414)
충북	11.2	29.0	25.8	33.9	100.0 (382)
충남	0.9	15.0	46.1	38.0	100.0 (578)
전북	2.7	18.7	39.5	39.1	100.0 (532)
전남	5.0	15.3	32.0	47.7	100.0 (627)
경북	6.9	23.1	36.4	33.7	100.0 (776)
경남	7.0	18.9	22.2	51.9	100.0 (734)
제주	4.1	7.7	23.7	64.6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6-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2.1	7.8	25.0	65.1	100.0 (10,451)
서울	4.8	15.1	36.9	43.2	100.0 (1,862)
부산	0.5	1.0	16.7	81.8	100.0 (780)
대구	0.6	5.2	19.9	74.3	100.0 (485)
인천	3.7	9.0	55.5	31.8	100.0 (471)
광주	1.3	7.5	37.9	53.3	100.0 (261)
대전	1.4	11.1	17.9	69.6	100.0 (255)
울산	0.1	5.2	28.6	66.1	100.0 (152)
경기	1.2	5.3	19.8	73.7	100.0 (2,009)
강원	1.2	4.0	32.6	62.2	100.0 (414)
충북	1.8	8.2	17.4	72.6	100.0 (382)
충남	3.8	6.1	19.5	70.6	100.0 (578)
전북	0.0	4.4	18.3	77.3	100.0 (532)
전남	2.2	8.5	30.0	59.3	100.0 (627)
경북	1.9	11.3	18.2	68.6	100.0 (776)
경남	0.0	2.5	12.8	84.7	100.0 (734)
제주	5.2	22.2	16.8	55.7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6-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1.8	5.8	22.0	70.4	100.0 (10,451)
서울	3.8	14.2	35.0	47.0	100.0 (1,862)
부산	4.5	2.7	18.5	74.2	100.0 (780)
대구	0.3	0.8	13.2	85.7	100.0 (485)
인천	1.8	11.8	51.5	34.9	100.0 (471)
광주	0.4	2.7	24.9	72.1	100.0 (261)
대전	0.5	3.8	34.5	61.2	100.0 (255)
울산	0.2	4.1	26.5	69.2	100.0 (152)
경기	0.8	2.3	20.1	76.8	100.0 (2,009)
강원	0.3	2.0	23.9	73.8	100.0 (414)
충북	1.8	4.4	5.1	88.7	100.0 (382)
충남	0.1	1.6	11.3	87.0	100.0 (578)
전북	0.2	2.8	14.2	82.7	100.0 (532)
전남	0.8	7.6	18.0	73.6	100.0 (627)
경북	1.9	6.9	16.6	74.7	100.0 (776)
경남	0.9	3.7	11.2	84.1	100.0 (734)
제주	9.4	9.6	13.5	67.5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6-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버스·지하철역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지역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국 ¹⁾	26.6	48.8	20.0	4.6	100.0 (10,451)
서울	22.8	55.1	19.5	2.6	100.0 (1,862)
부산	35.6	37.5	21.7	5.1	100.0 (780)
대구	20.0	55.6	22.1	2.4	100.0 (485)
인천	13.6	66.9	18.8	0.7	100.0 (471)
광주	21.8	48.8	28.4	1.1	100.0 (261)
대전	28.1	55.0	16.7	0.3	100.0 (255)
울산	56.1	35.4	7.3	1.2	100.0 (152)
경기	25.9	47.9	20.7	5.6	100.0 (2,009)
강원	15.9	53.9	24.0	6.2	100.0 (414)
충북	49.4	37.6	10.8	2.2	100.0 (382)
충남	32.0	47.0	18.9	2.1	100.0 (578)
전북	23.7	44.8	27.7	3.9	100.0 (532)
전남	21.8	36.7	25.8	15.7	100.0 (627)
경북	35.6	47.0	14.6	2.9	100.0 (776)
경남	24.4	50.6	16.4	8.7	100.0 (734)
제주	16.4	54.1	21.4	8.1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8-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빈도

(단위: %, 명)

지역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국 ¹⁾	94.9	1.5	1.5	0.8	0.7	0.1	0.6	100.0 (10,451)
서울	94.1	2.3	2.1	0.3	0.5	0.1	0.6	100.0 (1,862)
부산	95.9	1.5	1.1	1.0	0.2	0.1	0.3	100.0 (780)
대구	96.6	0.3	1.1	1.6	0.2	0.0	0.2	100.0 (485)
인천	94.8	2.7	0.4	0.0	1.0	0.0	1.2	100.0 (471)
광주	96.0	1.7	2.0	0.2	0.2	0.0	0.0	100.0 (261)
대전	99.1	0.6	0.3	0.0	0.0	0.0	0.0	100.0 (255)
울산	93.5	2.2	1.9	1.0	0.0	0.3	1.1	100.0 (152)
경기	96.2	0.8	1.2	0.6	0.9	0.1	0.3	100.0 (2,009)
강원	98.3	0.3	0.8	0.2	0.3	0.1	0.0	100.0 (414)
충북	94.0	1.1	1.1	3.0	0.3	0.3	0.3	100.0 (382)
충남	95.2	1.7	1.4	1.2	0.4	0.0	0.0	100.0 (578)
전북	94.2	2.1	0.7	1.3	0.9	0.2	0.7	100.0 (532)
전남	91.6	3.1	3.7	0.8	0.5	0.0	0.2	100.0 (627)
경북	90.7	0.8	2.1	1.1	2.1	0.5	2.6	100.0 (776)
경남	94.8	2.1	1.1	0.6	0.5	0.1	0.9	100.0 (734)
제주	99.1	0.2	0.5	0.2	0.0	0.0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8-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빈도

(단위: %, 명)

지역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국 ¹⁾	98.5	0.3	0.5	0.4	0.1	0.1	0.2	100.0 (10,451)
서울	98.2	0.1	1.0	0.5	0.0	0.2	0.1	100.0 (1,862)
부산	99.1	0.0	0.3	0.0	0.4	0.2	0.1	100.0 (780)
대구	98.3	0.0	0.1	1.3	0.2	0.0	0.2	100.0 (485)
인천	98.8	0.1	0.3	0.4	0.1	0.0	0.4	100.0 (471)
광주	99.6	0.0	0.0	0.4	0.0	0.0	0.0	100.0 (261)
대전	93.7	0.3	5.2	0.0	0.3	0.0	0.6	100.0 (255)
울산	98.4	0.0	0.0	0.0	0.0	0.0	1.6	100.0 (152)
경기	98.7	0.9	0.0	0.1	0.2	0.0	0.1	100.0 (2,009)
강원	98.4	0.1	0.7	0.9	0.0	0.0	0.0	100.0 (414)
충북	99.2	0.0	0.4	0.0	0.1	0.3	0.0	100.0 (382)
충남	99.1	0.0	0.3	0.4	0.2	0.0	0.0	100.0 (578)
전북	97.4	0.2	0.3	1.2	0.3	0.1	0.5	100.0 (532)
전남	98.4	0.2	0.2	0.8	0.0	0.0	0.4	100.0 (627)
경북	99.1	0.4	0.2	0.4	0.0	0.0	0.0	100.0 (776)
경남	98.6	0.3	0.2	0.4	0.0	0.0	0.6	100.0 (734)
제주	98.9	0.0	0.4	0.1	0.4	0.2	0.0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8-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빈도

(단위: %, 명)

지역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국 ¹⁾	93.4	1.4	2.8	1.6	0.4	0.1	0.3	100.0	(10,451)
서울	91.8	1.6	3.7	1.8	0.6	0.2	0.3	100.0	(1,862)
부산	96.6	1.0	1.3	0.6	0.3	0.0	0.2	100.0	(780)
대구	91.0	1.6	3.1	3.2	0.4	0.0	0.7	100.0	(485)
인천	90.0	2.2	6.7	0.4	0.1	0.0	0.5	100.0	(471)
광주	93.7	1.1	4.1	0.6	0.5	0.0	0.0	100.0	(261)
대전	89.9	1.3	2.3	6.1	0.5	0.0	0.0	100.0	(255)
울산	89.9	2.6	4.6	1.4	0.4	0.3	0.8	100.0	(152)
경기	93.0	1.2	2.6	2.3	0.5	0.2	0.1	100.0	(2,009)
강원	95.5	0.5	2.7	1.4	0.0	0.0	0.0	100.0	(414)
충북	99.4	0.0	0.2	0.3	0.0	0.0	0.0	100.0	(382)
충남	98.8	0.3	0.8	0.1	0.0	0.0	0.0	100.0	(578)
전북	91.4	1.2	4.2	2.5	0.6	0.0	0.2	100.0	(532)
전남	91.7	3.4	2.8	1.0	0.3	0.1	0.7	100.0	(627)
경북	94.8	0.6	2.1	1.6	0.1	0.3	0.6	100.0	(776)
경남	93.3	2.8	2.1	0.8	0.4	0.1	0.5	100.0	(734)
제주	92.8	0.5	1.8	1.6	2.7	0.0	0.7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8-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이용빈도

(단위: %, 명)

지역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국 ¹⁾	95.5	0.8	2.2	1.0	0.3	0.0	0.2	100.0	(10,451)
서울	92.9	1.5	3.6	1.5	0.1	0.1	0.3	100.0	(1,862)
부산	98.1	0.8	0.9	0.3	0.0	0.0	0.0	100.0	(780)
대구	94.5	1.2	2.9	1.4	0.0	0.0	0.0	100.0	(485)
인천	96.8	0.6	2.4	0.0	0.1	0.0	0.1	100.0	(471)
광주	98.3	0.2	0.9	0.2	0.3	0.0	0.0	100.0	(261)
대전	95.5	0.7	1.5	1.4	1.0	0.0	0.0	100.0	(255)
울산	97.4	0.7	1.2	0.7	0.1	0.0	0.0	100.0	(152)
경기	94.7	0.7	2.9	1.0	0.2	0.0	0.6	100.0	(2,009)
강원	96.6	0.5	1.8	0.8	0.0	0.0	0.2	100.0	(414)
충북	97.0	0.3	2.0	0.4	0.2	0.0	0.0	100.0	(382)
충남	97.3	0.5	1.3	0.5	0.1	0.1	0.1	100.0	(578)
전북	93.0	2.6	2.9	0.8	0.3	0.1	0.3	100.0	(532)
전남	96.9	0.3	1.1	0.4	1.3	0.0	0.0	100.0	(627)
경북	94.6	0.3	1.5	2.4	0.9	0.2	0.0	100.0	(776)
경남	97.6	0.0	1.1	1.0	0.3	0.0	0.0	100.0	(734)
제주	97.4	0.3	0.6	1.2	0.0	0.0	0.5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8-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이용빈도

(단위: %, 명)

지역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국 ¹⁾	98.6	0.2	0.5	0.4	0.1	0.1	0.1	100.0 (10,451)
서울	98.6	0.1	0.8	0.3	0.0	0.0	0.1	100.0 (1,862)
부산	98.2	0.4	0.9	0.5	0.0	0.0	0.0	100.0 (780)
대구	95.9	0.9	0.9	1.9	0.0	0.0	0.3	100.0 (485)
인천	99.1	0.2	0.6	0.0	0.0	0.0	0.1	100.0 (471)
광주	95.4	0.5	0.5	0.2	1.8	1.3	0.4	100.0 (261)
대전	98.7	0.4	0.4	0.1	0.3	0.0	0.0	100.0 (255)
울산	98.5	0.2	0.2	1.0	0.0	0.0	0.0	100.0 (152)
경기	99.0	0.1	0.4	0.2	0.0	0.2	0.0	100.0 (2,009)
강원	99.1	0.0	0.5	0.5	0.0	0.0	0.0	100.0 (414)
충북	99.8	0.0	0.1	0.2	0.0	0.0	0.0	100.0 (382)
충남	99.7	0.1	0.0	0.1	0.0	0.0	0.0	100.0 (578)
전북	97.7	0.0	0.5	0.3	0.5	0.6	0.4	100.0 (532)
전남	99.5	0.3	0.1	0.1	0.0	0.0	0.0	100.0 (627)
경북	97.5	0.0	0.7	0.6	0.6	0.0	0.6	100.0 (776)
경남	98.9	0.4	0.2	0.5	0.0	0.0	0.0	100.0 (734)
제주	99.2	0.0	0.0	0.5	0.0	0.0	0.3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9〉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지역	없음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기타	계 (명)
전국 ¹⁾	20.2	16.5	17.5	11.6	17.4	15.4	1.4	100.0 (10,274)
서울	31.0	13.3	14.8	14.3	10.8	13.2	2.6	100.0 (1,841)
부산	38.7	11.6	14.5	10.4	10.1	13.3	1.4	100.0 (744)
대구	0.6	6.4	18.5	24.3	23.9	26.1	0.2	100.0 (472)
인천	3.9	28.6	18.6	14.4	21.7	12.9	0.0	100.0 (463)
광주	14.1	9.8	6.6	14.1	10.7	43.8	0.9	100.0 (257)
대전	1.4	11.6	25.2	9.9	10.7	39.5	1.6	100.0 (252)
울산	17.0	9.9	8.9	23.4	16.9	24.0	0.0	100.0 (152)
경기	32.4	16.5	17.2	6.6	15.1	9.7	2.5	100.0 (1,989)
강원	9.9	27.5	24.9	8.2	16.7	12.7	0.2	100.0 (404)
충북	1.5	31.7	21.4	15.3	25.1	4.4	0.8	100.0 (374)
충남	0.7	17.6	13.5	12.4	36.0	19.5	0.3	100.0 (569)
전북	10.7	18.2	15.1	12.6	24.5	18.1	0.7	100.0 (528)
전남	10.1	17.0	18.2	15.8	18.2	20.1	0.7	100.0 (626)
경북	9.0	18.5	25.1	6.8	19.4	21.1	0.1	100.0 (769)
경남	31.9	15.4	21.4	6.0	16.9	6.9	1.6	100.0 (708)
제주	20.5	19.8	8.0	14.8	31.2	3.4	2.4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2-10>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지역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국 ¹⁾	48.2	21.2	6.3	20.0	1.7	2.0	0.6	100.0 (10,451)
서울	23.8	57.7	4.3	12.6	0.8	0.1	0.7	100.0 (1,862)
부산	31.8	49.3	6.5	10.8	0.5	0.5	0.6	100.0 (780)
대구	39.2	28.7	8.3	21.2	1.9	0.7	0.0	100.0 (485)
인천	61.8	20.4	5.4	10.8	1.5	0.0	0.1	100.0 (471)
광주	63.4	0.1	8.2	25.3	1.5	1.5	0.1	100.0 (261)
대전	56.6	9.2	6.2	23.6	2.1	0.8	1.4	100.0 (255)
울산	75.5	0.4	5.6	16.6	1.3	0.7	0.0	100.0 (152)
경기	47.8	22.9	4.5	21.9	0.7	1.3	0.8	100.0 (2,009)
강원	58.0	0.6	8.1	29.5	0.5	2.0	1.3	100.0 (414)
충북	62.5	0.0	5.7	25.8	3.0	2.7	0.3	100.0 (382)
충남	55.9	5.3	8.7	24.0	2.4	3.5	0.2	100.0 (578)
전북	52.2	0.0	9.9	29.4	4.4	3.2	0.9	100.0 (532)
전남	67.2	0.0	7.7	15.0	3.5	6.0	0.6	100.0 (627)
경북	57.5	0.0	8.1	26.2	3.7	4.4	0.1	100.0 (776)
경남	63.8	0.3	7.4	22.2	2.0	3.5	0.7	100.0 (734)
제주	46.7	0.0	5.0	36.6	3.1	7.7	0.9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11>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지역	없음	버스 (전철)타고 오르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차량이 많아 다니다기 위험	기타	계(명)
전국 ¹⁾	29.3	12.1	34.1	8.7	4.4	5.5	5.8	0.0	100.0 (10,279)
서울	38.2	6.4	43.0	4.4	2.2	3.9	1.8	0.1	100.0 (1,844)
부산	25.6	2.9	64.8	1.9	1.4	0.5	2.9	0.0	100.0 (745)
대구	20.6	15.7	31.6	9.2	4.9	11.6	6.4	0.0	100.0 (472)
인천	22.0	17.1	40.4	5.8	5.3	5.9	3.6	0.0	100.0 (463)
광주	27.0	9.0	29.1	3.3	7.8	12.9	10.9	0.0	100.0 (257)
대전	2.2	14.0	39.7	4.3	6.5	13.4	19.6	0.2	100.0 (252)
울산	15.5	12.9	46.5	5.1	10.2	3.8	6.1	0.0	100.0 (152)
경기	44.4	13.2	23.5	10.2	2.5	4.6	1.7	0.0	100.0 (1,989)
강원	43.6	13.4	19.6	11.6	2.5	7.1	2.3	0.0	100.0 (404)
충북	21.1	19.8	20.1	14.5	7.2	2.9	14.4	0.1	100.0 (374)
충남	12.5	18.3	27.1	11.4	10.0	10.4	10.3	0.0	100.0 (569)
전북	24.8	9.8	34.5	8.4	6.2	5.5	10.7	0.0	100.0 (528)
전남	11.8	11.5	38.8	10.4	8.3	7.3	11.9	0.0	100.0 (626)
경북	16.6	19.5	28.3	15.3	7.4	6.1	6.7	0.0	100.0 (769)
경남	29.9	13.4	30.9	13.6	2.1	2.1	8.1	0.0	100.0 (710)
제주	53.4	11.0	8.8	8.1	2.8	6.6	9.3	0.0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Ⅱ-12-12〉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명)

지역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만둔 나이(세) ²⁾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그만둔 나이(세) ²⁾	평생 한 적 없음		
전국 ¹⁾	16.1	8.9	59.7	75.0	100.0 (10,451)	
서울	17.0	13.6	60.5	69.4	100.0 (1,862)	
부산	12.2	11.7	57.6	76.1	100.0 (780)	
대구	16.9	9.5	59.7	73.5	100.0 (485)	
인천	9.2	11.0	59.0	79.8	100.0 (471)	
광주	18.6	10.8	60.8	70.7	100.0 (261)	
대전	19.7	9.1	56.7	71.3	100.0 (255)	
울산	18.2	7.9	62.0	73.9	100.0 (152)	
경기	18.7	10.1	60.5	71.2	100.0 (2,009)	
강원	18.3	7.4	60.5	74.3	100.0 (414)	
충북	14.9	4.5	64.3	80.7	100.0 (382)	
충남	13.7	5.9	62.1	80.4	100.0 (578)	
전북	17.5	4.6	56.8	77.9	100.0 (532)	
전남	9.0	3.9	50.1	87.0	100.0 (627)	
경북	18.0	5.7	60.9	76.3	100.0 (776)	
경남	15.0	6.1	57.9	78.9	100.0 (734)	
제주	21.9	4.9	62.1	73.2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935명 중 무응답 1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Ⅱ-12-13〉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서울	0.8	15.6	16.8	27.1	39.6	100.0 (315)
부산	2.4	13.0	6.0	31.7	46.9	100.0 (95)
대구	0.0	6.8	7.1	42.1	44.0	100.0 (82)
인천	0.0	3.8	24.0	31.4	40.8	100.0 (41)
광주	1.4	2.2	22.9	30.1	43.5	100.0 (48)
대전	1.7	13.9	29.7	39.8	14.8	100.0 (50)
울산	0.4	17.8	16.9	34.2	30.8	100.0 (27)
경기	0.0	8.4	17.7	15.9	57.9	100.0 (375)
강원	10.3	10.6	9.9	18.7	50.5	100.0 (76)
충북	0.0	15.2	3.5	41.1	40.2	100.0 (57)
충남	0.0	2.5	23.0	50.8	23.7	100.0 (79)
전북	0.0	16.7	8.2	32.5	42.6	100.0 (93)
전남	0.0	7.7	9.4	44.6	38.3	100.0 (57)
경북	0.0	11.3	23.3	35.4	30.1	100.0 (140)
경남	1.0	15.7	13.1	36.3	34.0	100.0 (110)
제주	0.0	15.3	15.3	56.7	12.8	100.0 (29)

주: 1)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679명 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2-14〉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 여부

(단위: %, 만원, 명)

지역	소유	비소유	계 (명)	예상하는 차 판매가 ²⁾
전국 ¹⁾	32.7	67.3	100.0 (10,451)	755.7
서울	30.3	69.7	100.0 (1,862)	972.2
부산	27.3	72.7	100.0 (780)	490.1
대구	39.7	60.3	100.0 (485)	697.1
인천	22.3	77.7	100.0 (471)	716.8
광주	35.4	64.6	100.0 (261)	942.5
대전	35.8	64.2	100.0 (255)	609.6
울산	39.7	60.3	100.0 (152)	727.6
경기	39.5	60.5	100.0 (2,009)	763.9
강원	39.5	60.5	100.0 (414)	637.4
충북	32.6	67.4	100.0 (382)	758.6
충남	29.2	70.8	100.0 (578)	641.1
전북	37.9	62.1	100.0 (532)	691.6
전남	19.4	80.6	100.0 (627)	496.6
경북	34.0	66.0	100.0 (776)	968.5
경남	29.2	70.8	100.0 (734)	630.2
제주	35.5	64.5	100.0 (132)	620.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3,418명 중 무응답 1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2-15〉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지역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¹⁾	범죄피해 ²⁾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전국	3.0	0.6	0.1	0.3	0.2
서울	3.9	1.0	0.0	0.5	0.5
부산	2.5	0.9	0.2	0.1	0.0
대구	3.7	0.4	0.0	0.1	0.2
인천	1.2	1.0	0.8	0.2	0.0
광주	0.4	0.0	0.0	0.0	0.0
대전	4.1	0.7	0.3	0.4	0.0
울산	3.0	0.2	0.2	0.0	0.7
경기	3.5	0.1	0.0	0.2	0.1
강원	0.6	0.2	0.0	0.2	0.3
충북	2.7	0.6	0.1	0.5	0.0
충남	4.3	0.4	0.0	0.0	0.2
전북	2.5	1.0	0.1	1.4	0.2
전남	1.2	0.2	0.0	0.0	0.0
경북	1.8	1.1	0.0	0.2	0.2
경남	5.1	0.5	0.0	0.4	0.1
제주	1.5	1.8	0.0	0.0	0.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16〉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경험

(단위: %, 명)

지역	낙상률 ¹⁾	낙상횟수 및 치료		계 (명)
		1년간 낙상횟수 ²⁾	병원이용률 ³⁾	
전국 ¹⁾	25.1	2.3	63.4	100.0 (10,451)
서울	26.3	2.0	64.4	100.0 (1,862)
부산	31.9	3.1	55.7	100.0 (780)
대구	20.6	2.1	73.6	100.0 (485)
인천	24.2	2.4	54.5	100.0 (471)
광주	19.5	1.6	57.1	100.0 (261)
대전	25.2	1.8	70.6	100.0 (255)
울산	23.2	1.7	63.3	100.0 (152)
경기	25.6	2.5	70.0	100.0 (2,009)
강원	22.1	1.9	41.3	100.0 (414)
충북	27.2	2.2	59.0	100.0 (382)
충남	29.2	1.8	64.5	100.0 (578)
전북	23.5	2.3	63.9	100.0 (532)
전남	18.0	1.9	59.2	100.0 (627)
경북	22.3	1.9	68.7	100.0 (776)
경남	27.3	2.9	61.5	100.0 (734)
제주	21.0	3.5	69.9	100.0 (132)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12-17〉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이유

(단위: %, 명)

지역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서	경사가 급해서	조명이 어두워서	다리를 접질려서 (발을 헛디뎠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갑자기 주저앉아서)	기타	계 (명)
전국 ¹⁾	26.8	5.8	8.8	1.6	0.4	13.8	12.2	29.5	1.1	100.0 (2,621)
서울	32.1	4.4	9.4	1.4	0.3	12.9	9.1	29.1	1.2	100.0 (490)
부산	22.8	3.6	3.7	0.6	0.0	20.5	24.3	22.1	2.4	100.0 (249)
대구	24.9	10.8	8.1	3.9	1.2	12.1	15.9	23.1	0.0	100.0 (100)
인천	30.9	14.1	9.1	1.3	1.9	9.8	4.4	27.6	0.8	100.0 (114)
광주	27.3	8.4	4.5	0.0	0.0	10.6	15.4	31.6	2.2	100.0 (51)
대전	25.4	1.0	8.5	0.0	0.0	24.0	13.9	24.6	2.6	100.0 (64)
울산	21.3	8.0	9.3	1.3	4.3	15.5	10.8	29.4	0.0	100.0 (35)
경기	28.7	6.9	9.0	1.0	0.0	13.8	10.0	30.1	0.6	100.0 (515)
강원	35.1	3.6	15.0	1.5	0.0	11.9	14.2	18.4	0.3	100.0 (92)
충북	23.5	4.5	12.8	2.5	0.6	9.4	13.4	30.0	3.3	100.0 (104)
충남	28.4	4.4	7.0	0.8	0.8	14.8	8.2	34.5	1.0	100.0 (169)
전북	25.1	3.0	11.5	3.4	0.7	12.3	8.7	33.8	1.6	100.0 (125)
전남	11.8	5.8	12.0	2.4	1.1	11.4	15.6	39.9	0.0	100.0 (113)
경북	20.0	7.1	12.4	2.9	0.3	14.8	11.1	31.2	0.3	100.0 (173)
경남	27.2	4.1	5.2	1.5	0.0	12.9	15.4	33.0	0.6	100.0 (199)
제주	15.5	16.7	7.3	3.8	1.3	8.0	11.4	34.3	1.8	100.0 (28)

주: 1) 전체응답자 10,451명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II-12-18〉 노인(65세 이상)의 시·도별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단위: %, 명)

지역	많이 두려워함	약간 두려워함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	계 (명)
전국 ¹⁾	40.6	38.2	21.2	100.0 (10,271)
서울	37.7	35.2	27.1	100.0 (1,840)
부산	44.8	37.6	17.6	100.0 (745)
대구	40.8	45.0	14.2	100.0 (471)
인천	40.6	42.6	16.8	100.0 (463)
광주	32.7	50.0	17.3	100.0 (257)
대전	33.9	42.1	24.0	100.0 (252)
울산	41.4	32.9	25.7	100.0 (152)
경기	41.0	32.6	26.3	100.0 (1,986)
강원	32.0	52.0	16.0	100.0 (404)
충북	31.9	41.0	27.1	100.0 (374)
충남	34.7	44.7	20.5	100.0 (569)
전북	46.4	33.4	20.2	100.0 (528)
전남	43.4	41.9	14.7	100.0 (626)
경북	49.9	33.2	16.8	100.0 (769)
경남	46.1	38.8	15.1	100.0 (710)
제주	31.7	51.5	16.8	100.0 (126)

주: 1) 본인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록 III.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11771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읍면동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내 완료 노인번호		조사구 내 완료 노인번호	

주소	도로명 주소 (신)	_____ 시도 _____ 사군·구 _____ 읍면 (도로명) _____ (세부주소) _____										가구연락처 () _____ - _____
	지번 주소 (구)	_____ 시도 _____ 사군·구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노인 조사 대상자)	성명		가구원 번호		연락처	
		응답유형 <input type="checkbox"/>	(0) 본인 응답 (1) 동거인 대리 응답 (2) 비동거인 대리 응답	대상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별첨1> [노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응답자 2 (가구 사항)	성명		가구원 번호		연락처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input type="text"/> 분	총 방문 횟수	총 <input type="text"/> 회
1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2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3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최종 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 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조사원 이름	(인)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 기입):	지도원	(인)
-----------	-----	-----------	-----------	--------------	-----	-----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 02-380-8153, 835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노인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노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귀하께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최 병 호

A.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수	노인(65세 이상) 조사원료		노인가구 형태	
	가구원 수	노인 수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 형태
포함 가구원 수				
노인 가구원 수				
노인가구 수				
노인 가구원 수				

가구원 번호	■문A1. 이름		■문A2. 가구주와의 관계		■문A3. 성별	■문A4. 연명		■문A5. 혼인상태	■문A6. 교육 수준		■문A7. 취업 여부	■문A8. 응답 노인과의 관계	■문A9.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
	이름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문A4-1. 출생년월일	■문A4-2. 만연명		■문A6-1. 교육 수준	■문A6-2. 교육 연수			
1													
2													
3													
4													
5													
6													
7													
8													
9													
10													

■문A10. 원재와 2013년 가구원 수 비교(실수 기입)

① 원재 2013년 가구원 수 명
 ② 증가
 ③ 감소

※ 조사원: 설문지 문항 중 ★표시가 있는 문항은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대리응답 불가

B. 건강 상태

■ ★문B1.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B1

■ ★문B2.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B2

■ 문B3. 다음은 귀하께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문B3-1. 만성질환 유무: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입니까?
 □ 문B3-2. 의사진단 여부: 이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환입니까?
 □ 문B3-3. 치료 여부: 진단받은 질환에 대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질환명	□문B3-1. 만성질환 유무	□문B3-2. 의사 진단 여부	□문B3-3. 치료 여부	질환명	□문B3-1. 만성질환 유무	□문B3-2. 의사 진단 여부	□문B3-3. 치료 여부		
	(1) 예 → (2) 아니요	(1) 예 → (2) 아니요 (9) 비해당	(1) 예 (2) 아니요 (9) 비해당		(1) 예 → (2) 아니요	(1) 예 → (2) 아니요 (9) 비해당	(1) 예 (2) 아니요 (9) 비해당		
순환기	1)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심각기	16) 만성중이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뇌졸중(중풍, 뇌경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암(악성산생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위십이지장궤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협심증, 심근경색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간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기타 심장질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간경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분비계	6)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요생식기	21)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갑상선 질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전립선비대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	8)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요실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골다공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상병(매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요통, 좌골신경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빈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흡기계	11) 만성기관지염, 폐기증(COP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26) 피부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천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폐결핵, 결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치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각기	14) 백내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녹내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질병명(무엇:)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총 의사 진단 만성질환 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십시오. (실수 기입)

B3-4 총 수 개

■ 문B4. 귀하께서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은 몇 개(알)입니까? (실수 기입)

1일 _____ 개(알)

B4 개

■ 문B5.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몇 회 이용하셨습니까?

(1) 있다 → (1개월 횟수: _____ 회) (2) 없다

B5 회 B5(1) 회

■ 문B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입원하셨다면, 몇 회 입원하셨습니까?

(1) 있다 → (1년 횟수: _____ 회) (2) 없다

B6 회 B6(1) 회

■ ★문B7.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의 생활이 아래 내용과 같으면 (1) 예, 그렇지 않으면 (2) 아니요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항 목	(1) 예 (2) 아니요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input type="checkbox"/>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input type="checkbox"/>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C. 건강 행태

■ 문C1.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C1
 (1) 예(현재 피움) (2) 아니요

■ 문C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C2
 (0)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문C3으로) (1) 년 1회 이상 ~ 12회 미만
 (2) 한 달에 1회 정도 (3) 한 달에 2~3회 정도 (4) 일주일에 1회 정도
 (5) 일주일에 2~3회 정도 (6) 일주일에 4~6회 정도 (7) 매일

□ 문C2-1.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 정도 마십니까? 평균 _____ 잔 (아래 보기 참고) C2-1 잔

[보기] 잔에 대한 정의: 캔맥주 1개는 1.6잔, 맥주 1병(500cc)은 2잔, 막걸리 1병은 7잔, 소주 1병은 6.5잔, 와인 1병은 8잔, 양주는 병마다 잔 수가 다릅니다.

■ 문C3. 귀하께서는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C3
 (1) 예 (2) 아니요 →(문C4로)

□ 문C3-1. 일주일에 며칠 운동을 하십니까? _____ 일/주 C3-1 일

□ 문C3-2. 한번 운동할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_____ 분/1회 C3-2 분

□ 문C3-3.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별첨6. 운동목록표> 참조 기입) C3-3
 운동명: _____

■ 문C4. 귀하의 몸무게와 키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몸무게 : _____ kg 1)-1. 체중 측정 여부 (1) 측정 (2) 미측정 C4-1) 몸무게 kg C4-1)-1

2) 키 : _____ cm 2)-1. 신장 측정 여부 (1) 측정 (2) 미측정 C4-2) 키 cm C4-2)-1

■ 문C5. 다음은 귀하의 1개월 간 영양 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각각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1) 예 (2) 아니요	항목	(1) 예 (2) 아니요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	<input type="checkbox"/>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input type="checkbox"/>
7)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input type="checkbox"/>	8)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input type="checkbox"/>
9)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input type="checkbox"/>	10)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input type="checkbox"/>

- 문C6.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차 건강검진, 정부의 노인 건강검진 등) C6
 - (1) 있다
 - (2) 없다
- 문C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C7
 - (1) 있다
 - (2) 없다
- 문C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C8
 - (1) 있다
 - (2) 없다

(※ 조사원: <문C7>과 <문C8>의 경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간부족, 교통 불편 등이 모두 포함됨)

D.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 다음은 시력, 청력, 씹기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1) 보조기 사용 여부	★2) 일상생활의 불편함 (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1) 예(사용) (2) 아니요(미사용)	(1) 불편하지 않다 (2) 불편한 편이다 (3) 매우 불편하다
■ 문D1. 시력(텔레비전 보기, 신문 읽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D2. 청력(전화 통화, 옆 사람과의 대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D3. 씹기(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조기 - 시력: 시력보조기(안경, 렌즈, 돋보기 등), 청력: 보청기, 씹기: 틀니(의치)

- 문D4. 다음은 귀하의 근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해 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모아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5번 시행) D4
 - (1) 수행함
 - (2) 시도했으나, 수행 못함(5회 못한 경우)
 - (3)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와상노인, 기타 장애로 일어서기가 불가능한 경우)

■ 문D5.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기】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약간 어렵다 (3) 매우 어렵다 (4) 전혀 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1)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input type="checkbox"/>	2)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input type="checkbox"/>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input type="checkbox"/>	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기	<input type="checkbox"/>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input type="checkbox"/>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input type="checkbox"/>

■ 문D6.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보기】 (1) 완전 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옷 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input type="checkbox"/>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input type="checkbox"/>		
3)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input type="checkbox"/>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input type="checkbox"/>		
5) 누웠던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input type="checkbox"/>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input type="checkbox"/>		
7) 대소변 조절하기	<input type="checkbox"/>				

■ 문D7.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보기】 (1) 완전 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input type="checkbox"/>	2)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참구 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input type="checkbox"/>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input type="checkbox"/>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input type="checkbox"/>	6) 금전 관리(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input type="checkbox"/>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input type="checkbox"/>				

【보기】 (1) 완전 자립		(2) 적은 부분 도움		(3) 많은 부분 도움		(4) 전혀 할 수 없음	
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input type="checkbox"/>	9) 전화 걸고 받기	<input type="checkbox"/>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문D6>과 <문D7>에서 한 항목이라도 부분 도움 또는 완전 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문D8>로 가시오. 모두 완전 자립으로 응답한 경우만 <문D9>로 가시오.

■ 문D8.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문D8-3으로)

D8

□ 문D8-1.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1) 도움 받음		(2) 도움 받지 않음	
1) 가족원(동거, 비동거)	<input type="checkbox"/>	2) 친척, 이웃·친구·지인	<input type="checkbox"/>
3)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파출부)	<input type="checkbox"/>		
4)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input type="checkbox"/>	5)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 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가족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문D8-1>의 '1' 가족원'에 '(1) 도움 받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문D8-2>로, 그 외의 경우는 <문D9>로 가시오.

- 문D8-2.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족원 중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조사원: <별첨1. 노인과의 관계> 참조 기입)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 _____

D8-2

- 문D8-2-1.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가족원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습니까?
→ (질문 후 문D9로)

- (1) 거의 매일 하루 종일 (2) 거의 매일 반일 미만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일주일에 1~2일 정도
(5) 일주일 1회 미만

D8-2-1

- 문D8-3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도움이 필요 없어서
(2) 혼자서 견딜만해서
(3) 도움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라서
(4)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5) 기타(무엇: _____)

D8-3

- 문D9.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D9-2로)

D9

- 문D9-1. (등급인정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은 무엇입니까?

→ (질문 후 「E.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으로)

-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치매특별등급(5등급)
(6) 등급외 (7) 기타(무엇: _____)

D9-1

- 문D9-2. (등급인정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0) 기능상의 제한이 없어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2)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3)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4)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5) 가족 이외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6) 기타(무엇: _____)

D9-2

E.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 문E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여가 문화 활동(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시청 등)을 하셨습니까? E1
 (1) 예 (2) 아니요 →(문E2로)

□ 문E1-1. 주로 하는 여가 문화 활동을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별첨7. 여가활동 목록> 참조 기입)

1순위() 2순위 () 3순위()

E1-1

1순위	2순위	3순위
-----	-----	-----

□ 문E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여행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했다면, 몇 번 하셨습니까?

(1) 있다 → 국내()회, 해외()회 (2) 없다 E1-2 (국내 회, 해외 회)

■ 문E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배우기나 학습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E2
 (1) 예 (2) 아니요 →(문E3으로)

□ 문E2-1. 주로 어떤 영역의 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1) 건강관리(증진)운동 관련 교육 (2) 예술문화(댄스·가요·음악) 관련 교육 E2-1
 (3) 어학 교육 (4) 인문학(사·수필) 교육
 (5) 정보화 교육 (6) 취업교육과 직업 교육 (7) 기타(무엇:)

□ 문E2-2.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1) 노인(종합)복지관 (2) 경로당 E2-2
 (3)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교실(대학) (4)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대학)
 (5)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6) 초·중·고·대학(교)
 (7) 공공 문화센터(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8)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9) 기타(무엇:)

□ 문E2-3. 이 교육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E2-3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 1회 미만

■ 문E3. 귀하는 지난 1년간 동호회(클럽 활동), 친목 단체, 정치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하셨습니까?

□ 문E3-1. 이 단체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항목	■ 문E3. 참여여부	□ 문E3-1. 빈도		
	(1) 예 (2) 아니요 →(다음 항목으로)	(1) 주 4회 이상 (4) 2주 1회	(2) 주 2~3회 (5) 월 1회	(3) 주 1회 (6) 월 1회 미만
동호회(클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친목 단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치사회 단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4.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입하십시오.

항목	(1) 예 (2) 아니요
1) 기부(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2) 금전적 대가 없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돕기(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제외)	<input type="checkbox"/>
3) 자원봉사 활동(시간 및 노력 제공 포함)	<input type="checkbox"/>

■ 문E5. 귀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현재 하고 있음 E5
 (2) 과거에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문E6으로)
 (3) 평생 한 적이 없음 →(문E6으로)

□ 문E5-1.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1) 사회복지 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
 (2) 문화, 체육 분야(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3) 교통질서(안전 지킴이, 기초질서 캠페인 등)
 (4) 환경보호(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E5-1
 (5) 보건, 의료 분야(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6) 교육 활동(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7) 기타(무엇: _____)

□★문E5-2.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단순한 노력 봉사 활동 E5-2
 (2) 오랜 취미 활동이나 (평생)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
 (3) 직업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 활동
 (4) 기타(무엇: _____)

□ 문E5-3.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 1회 미만 E5-3

□ 문E5-4. 귀하께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1) 연계 기관 없음 (2) 종교기관 (3) 경로당(대한노인회 포함) E5-4
 (4) 각종 복지관 등 복지기관 (5) 사·군·구청/자원봉사센터
 (6) 민간단체, NGO (7) 기타(무엇: _____)

■★문E6. 귀하께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 (1)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E6
 (2)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 문E7. 귀하께서는 핸드폰이 있으십니까?

- (1) 스마트폰이 있다 (2) 일반 핸드폰이 있다 (3) 갖고 있지 않다 →(문E8로) E7

□ ★문E7-1. 귀하는 핸드폰 기능이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 (1) 전화 받기/걸기만 이용한다
- (2) 전화 받기/걸기와 문자 받기는 이용하지만, 문자 보내기는 이용하지 않는다
- (3) 전화·문자 받기/보내기는 이용하지만, 정보 검색/뉴스 보기는 이용하지 않는다
- (4) 정보 검색/뉴스 보기까지 모두 이용한다

E7-1

■ 문E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불교
- (2) 개신교(기독교)
- (3) 천주교
- (4) 유교
- (5) 원불교
- (6) 기타(무엇: _____)

E8

■ ★문E9. 다음은 귀하께서 앞으로 희망하시는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1) 반드시 하고 싶음 (2)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3) 가려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4) 별로 할 생각이 없음 (5) 전혀 할 생각이 없음			
1) 소득 활동	<input type="checkbox"/>	2) 자원봉사 활동	<input type="checkbox"/>
3) 학습 활동	<input type="checkbox"/>	4) 취미·여가 활동	<input type="checkbox"/>
5) 종교 활동	<input type="checkbox"/>	6) 정치사회 단체활동	<input type="checkbox"/>
7) 친목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1) 경로당	2) 노인(종합)복지관
■ 문E10.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였다 (2) 이용하지 않았다 → (문E11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10-1.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하십니까? 주 _____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10-2.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2) 자원봉사 활동 참여 (3) 일자리사업 참여 (4) 주간보호 등 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 (5) 식사서비스 이용 (6) 친목 도모 (7)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10-3.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 (문E11로) (2) 만족한다 → (문E11로) (3) 그저 그렇다 → (문E11로) (4)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10-4.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설이 좋지 않아서(공간, 구조, 설비, 위생 문제 등) (2)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3)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4)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5) 가입비 또는 연(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 (6)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E11. 귀하께서는 향후(계속)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이용하겠다 (2) 이용하지 않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 경제 활동

■ 문F1.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

- (1) 현재 일한다
- (2)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문F2-1로)
- (3)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문F4로)

F1

※ 조사원: <문F1-1>~<문F1-10>은 현재 일하는 경우에만 질문

□ 문F1-1. 귀하께서는 현재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조사원: <별첨8. 직업분류표> 참조, 중분류로 코딩 기입)
 하시는 일: _____

F1-1

□ 문F1-2.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농림어업 (2) 경차취우사설관리 (3) 청소업무 (4) 생산작업 (5) 가사·돌봄
- (6) 운전·운송 (7) 전문직 (8) 행정사무 (9) 조리음식업 (10) 택배·배달
- (11) 현장관리 (12) 환경·조경 (13) 건설기계 (14) 문화예술 (15) 공공알서유지
- (16) 폐휴자수거 (17) 기타(무엇: _____) (18) 판매·영업직

F1-2

□ 문F1-3. 귀하께서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4) 고용주 →(문F1-4로) (5) 자영업자 →(문F1-4로) (6) 무급가족종사자 →(문F1-4로)
- (7) 기타(무엇: _____) →(문F1-4로)

F1-3

□ 문F1-3-1.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정부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입니까?

- (1) 예 (2) 아니요

F1-3-1

□ 문F1-4. 귀하께서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사업체 아님(농림어업) (2) 개인사업체(가게)
- (3) 민간회사 (4) 중앙/지방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
- (5)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7)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 (8) 기타(무엇: _____)

F1-4

□ 문F1-5.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1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까?

- (1) 매일 일자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2) 한두 달 정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 (3) 3-4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4) 반년 정도(5-7개월)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 (5) 1년 가까이(8-11개월)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6)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F1-5

□ 문F1-6.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와 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F1-6 주 일 / 주 시간

□ 문F1-7.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에 종사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F1-7 년 개월

□ ★문F1-8.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계비 마련 (2) 용돈이 필요해서 (3) 건강 유지를 위해 (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 (5) 시간을 보이기 위해 (6)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7)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8) 기타 (무엇: _____)

F1-8

- ★문F1-9.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문F1-10으로) (2) 만족하는 편이다 → (문F1-10으로) F1-9
 (3) 그저 그렇다 → (문F1-10으로)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F1-9-1. 귀하가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낮은 급여(소득)수준 (2) 건강 상태와 맞지 않음 (3) 불안정한 일자리 (4) 근로시간 F1-9-1
 (5) 일(업무)의 내용 (6) 인간관계 (7) 기타 (무엇: _____)
- 문F1-10. 현재 하시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입니까?
- (1) 예 (2) 아니요 F1-10

※ <문F2>와 <문F3>은 귀하께서 참여했던 일(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문F2>는 노인이 일생에서 가장 오래한 일에 대한 질문이며, <문F3>은 최장기 일자리 이후 다른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F2-1> ~ <문F2-5>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구분	문항	■ 문F2. 최장기 일자리	■ 문F3. 최근 그만둔 일자리
직업 분류	※ 조사원: <별첨>【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 문F2-1. ⇨ 하셨던 일 : _____ ⇨ 직업 중분류: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문F3-1. ⇨ 하셨던 일 : _____ ⇨ 직업 중분류: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문F3-1-1. 일의 내용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조사원: <문F1-2>의 【보기】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고용주 (5)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7) 기타(무엇: _____)	□ 문F2-2. <input type="checkbox"/>	□ 문F3-2.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여부 (1) 예 (2) 아니요	□ 문F2-2-1.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문F2-2>에서 (1)~(3)번 응답한 경우만 질문하십시오)	□ 문F3-2-1.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문F3-2>에서 (1)~(3)번 응답한 경우만 질문하십시오)
종사 기간	최장기 직업/최근 그만둔 직업의 일한 기간	□ 문F2-3.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개월	□ 문F3-3.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년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개월
일을 그만 둔 이유	(1) 정년퇴직 (2) 건강이 좋지 않아서 (3)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업, 휴업 (4)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5) 근로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 (6) 이직, 창업 (7) 일할 필요가 없어서 (8) 기타(무엇: _____)	□ 문F2-4.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현재 알하는 경우 비례당 'ㄴ' 체크)	□ 문F3-4.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최장기 일자리 퇴직 이후 다른 근로활동 (가교 일자리를) 하셨습니까?	□ 문F2-5.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F3으로) (2) 아니요 → (문F4로)	

■ ★문F4.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1)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문F5로)
-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 (문F4-5로)
- (3)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 (4)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F4

□ ★문F4-1. 귀하께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1) 취업
- (2) 창업
- (3)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4) 취미생활을 통한 여가형 일자리
- (5) 기타(무엇: _____)

F4-1

□ ★문F4-2.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 _____ 시간

F4-2 시간

□ ★문F4-3. 귀하께서 희망하는 월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월 _____ 만원

F4-3 백만 십만 만원

□ ★문F4-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주요 2가지만 고르십시오. ⇨ (), ()

- (1) 취업지원센터(동사무소, 구청, 대한노인회, 고용센터, 복지관 등) 의뢰
- (2) 개인적 인맥 의뢰
- (3)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 (4)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참여
- (5) 직업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일자리박람회 등 참여
- (6) 직업교육훈련 참여
- (7) 기타(무엇: _____)

F4-4

□ ★문F4-5. 귀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 (2) 용돈이 필요해서
- (3) 건강유지를 위해서
- (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 (5)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 (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7) 기타(무엇: _____)

F4-5

※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F5.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현재 참여하고 있다
- (2) 참여한 적이 있다
- (3)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문F5-2로)
- (4) 신청한 적이 없다 →(문F5-2로)

F5

□ 문F5-1. 귀하께서 참여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1) 공익형 (2) 교육형 (3) 복지형 (4)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5) 인력파견형

F5-1

□ ★문F5-2. 귀하께서는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F5-2

G. 경제 상태

※ 조사원: 가구원 사항과 배우자의 조사여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
 (1) 배우자(65세 이상) 조사 완료 → 본인 연수입만 질문하고 배우자의 연수입은 배우자 조사표에서 이기
 (2) 배우자(65세 이상) 조사 미완 → 본인 연수입과 배우자 연수입 모두 질문
 (3) 배우자(65세 미만) 조사 비해당 → 본인 연수입과 배우자 연수입 모두 질문
 (4) 배우자 없음(미혼, 사별, 이혼, 별거, 비동거 배우자) → 본인 연수입만 질문하고 배우자 연수입은 비해당 처리

■ 문G1. 귀하와 배우자의 작년 한 해(2013. 1. 1. ~ 2013. 12. 31.)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지난 1년간의 본인이나 배우자의 수입액을 말씀해주시시오. 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세후소득을 말합니다. (실수 기입)

항목	문G1-1. 본인의 연수입				문G1-2. 배우자의 연수입										
	(1) 있음 (2) 없음	금액			단위	(1) 있음 (2) 없음 (9) 비해당	금액			단위					
1)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2)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3)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수입)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4) 개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5)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6) 주택연금, 농지연금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7) 사적 이전소득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8)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지역)	공적 이전 소득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9)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1)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2) 기타 소득 (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3) 총수입액(본인, 배우자 각각)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4) 총수입액(본인+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문G2.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G2

■ 문G3. 현재 귀하(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수 기입)

항목	문G3-1. 본인				문G3-2. 배우자											
	(1) 있음 (2) 없음	금액			단위	(1) 있음 (2) 없음 (9) 비배당	금액			단위						
1) 부동산자산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2) 금융자산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3) 기타자산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4) 부채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input type="checkbox"/>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단위

■ 문G4. 작년 한 해(2013. 1. 1. ~ 2013. 12. 31) 귀하를 위한 지출항목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수 기입)

항목	(1) 있음 (2) 없음	월평균 지출액	항목	(1) 있음 (2) 없음	월평균 지출액
1) 의료비 (건강보험료 제외)	<input type="checkbox"/>	백만 십만 만 원	2) 문화여가비	<input type="checkbox"/>	백만 십만 만 원
3)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백만 십만 만 원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 귀하의 (손)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손)자녀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 행방불명은 제외).

- 문H1. 귀하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성과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 결혼한 자녀와 양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실수 기입) H1
 - (1)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가 있다 → H1-(1) 제 명 남자 명 여자 명 미혼 명 기혼 명
 - (2)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는 없지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있다
 - (3)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전혀 없다 →(문H4로)
- 문H2.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H2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 문H2-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H2-1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 문H3. 따로 사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방문, 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포함) 자녀는 누구입니까? (※ 조사원 <별첨. 노모와의 관계 참조 기입> H3
- 문H3-1.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사는 곳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H3-1
 - (1) 걸어서 10분 미만 (2)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3) 자동차로 30분 미만 (4) 자동차로 30분 ~ 1시간 미만
 - (5) 자동차로 1시간 ~ 2시간 미만 (6) 자동차로 2시간 ~ 3시간 미만
 - (7) 자동차로 3시간 이상 (8) 해외 거주 (9) 기타(무엇: _____)
- 문H3-2. 귀하는 지난 1년간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H3-2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 문H3-3. 귀하는 지난 1년간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H3-3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 문H4.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H4
 - (1) 예 (2) 아니요 →(문H5로)
- ★문H4-1. 갈등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H4-1
 - (1)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2)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 (3) 자녀가 경제적 도움 요구 (4)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 보조와 관련한 갈등
 - (5)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6) 자녀의 진로, 이성 교제, 결혼 문제
 - (7) 기타(무엇: _____)

【왕래 및 연락 빈도】

- (0)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7) 기타(무엇: _____)

■ 문H5. 귀하는 따로 사는 (친/외) 손자·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있다 → () 명 (2) 없다 → (문H6으로)

H5
H5-0 명

□ 문H5-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손자·손녀 전체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H5-1

□ 문H5-2.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손자·손녀 전체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H5-2

※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배우자가 없으면 <문H6> ~ <문H10-1>은 모두 비해당(9) 처리한 후 <문H11>로 가시오)

■ 문H6. 귀하의 배우자 건강은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H6

■ 문H7. 귀하는 지난 1년간 배우자와 부부 동반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0) 없음 (1)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H7

■ 문H8.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보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2)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3)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문H9. 귀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	<input type="text"/>	2) 나는 배우자를 신뢰한다	<input type="text"/>
--------------------------	----------------------	-----------------	----------------------

■ ★문H10. 귀하는 지난 1개월간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을 경험하십니까?

H10

(1) 예 (2) 아니요 → (문 H11로)

□ ★문H10-1.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컸던 것은 무엇입니까?

- (1) 경제적인 문제 (2) 자녀의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
 (3) 부모 부양 문제 (4) 부부간 가사 분담
 (5) 배우자의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6) 생활습관(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차이
 (7) 기타(무엇:)

H10-1

【왕래 및 연락 빈도】

- (0)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7) 기타(무엇:)

※ 귀하의 가구형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 → <문H11>~<문H13>질문 (<문H14>~<문H15> 비해당(9) 처리)
 • 기혼자녀 동거가구 → <문H14>~<문H15>질문 (<문H11>~<문H13> 비해당(9) 처리)
 • 미혼자녀 동거가구와 그 외 가구 → <문H16>질문 (<문H11>~<문H15> 비해당(9) 처리)

※ 조사원: <문H11>~<문H13>은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만 질문

■ 문H11. 귀하는 언제부터 혼자 또는 두분끼리만 사셨습니까?

H11 년 월

■ ★문H12. 귀하가 부부 또는 혼자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 (2) 건강해서
- (3)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 (4)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 (5) 자녀가 결혼해서
- (6)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하여서
- (7) 자녀가 직장(학업)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 (8)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 (9) 기타(무엇: _____)

H12

■ ★문H13. 귀하가 부부 또는 혼자서 사는 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 (0) 없음
- (1)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 (2)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 (3) 경제적 불안감
- (4) 안전에 대한 불안감
- (5)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 (6) 기타(무엇: _____)

H13

※ 조사원: <문H14>~<문H15>는 기혼자녀 동거가구만 질문

■ ★문H14. 귀하가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 (2)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 (3)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 (4)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 (5)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 (6)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 (7) 기타(무엇: _____)

H14

■ 문H15. 귀하는 함께 사는 자녀와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생활이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십니까?

【보기】 (1) 부모가 부담(수행) (2) 자녀가 부담(수행) (3) 공동 부담(수행) (4) 각자 알아서 따로 하는 편			
1)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생활	<input type="text"/>	2) 가사 등의 일상생활	<input type="text"/>

※ 귀하가 선호하는 노후생활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H16. 귀하는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요 →(문H17로)

H16

□★문H16-1. 귀하는 자녀 중 누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장남
- (2) 아들 중 누군가
- (3) 장녀
- (4) 딸 중 누군가
- (5) 딸·아들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자녀
- (6) 딸·아들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자녀
- (7) 기타(무엇: _____)

H16-1

■★문H17. 귀하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 (2) 자녀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 (3)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4) 본인과 자녀가 함께 마련
- (5)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가 함께 마련
- (6) 기타(무엇: _____)

H17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 조사원: <문1>와 <문2>는 노인 응답자에게 배우자가 없을 경우 본인 부모에 대한 질문만 하시오
(배우자부모는 비 해당 9 처리)

질문 내용	1) 본인의 부	2) 본인의 모	3) 배우자의 부	4) 배우자의 모
■ 문11.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은 모두 살아 계십니까? (1) 예(생존) (2) 아니요(사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12. 현재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이 나쁜 편이다 (4) 건강이 매우 나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13. 귀하는 살아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3
 (1) 있다 →(____명) (2) 없다 13-(1) 명

■ 문14.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14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 문14-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 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14-1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 문15. 귀하는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15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 문15-1. 귀하는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 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15-1
 (※ 조사원: 아래【왕래 및 연락 빈도】참조 기록) _____

【왕래 및 연락 빈도】

(0)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7) 기타(무엇: _____)

■ ★문16. 귀하께서 가끔씩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친구·이웃·지인은 각각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실수 기입)

(1)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2) 친구·이웃·지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 문17. 귀하의 집에 지난 1개월 동안 동거가족 외의 사람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 편입니까?

- (0) 없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한 달에 1회 미만

17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 문J1~J3.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자녀, 부모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 조사원: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시오)

【보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보기】 (1) 있다 (2) 없다						
조사원 확인 사항			1) 고민 상담 (정서적 도움)		2) 청소·식사 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3) 간병·수발·병원 동행 도움		4) 경제적 도움					
									4-1) 정기적 현금 지원		4-2) 비정기적 현금 지원		4-3) 현물지원	
문항	구분	해당자 존재 여부 (1) 있음 (2) 없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1) 도움 받음	(2) 도움 줌		
J1	동거 자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J2	비동거 자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J3	본인 (배우)와 부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J4.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직접 돌봐주신 10세 미만의 (친/외) 손자·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것에 관계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 (1) 있다(명) (2) 없다

J4
 J4-(1) 명

K. 생활환경

■ 문K1. 귀택은 자가입니까? 전·월세입니까? K1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 ★문K2. 귀하께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주택 내 공간은 어디입니까? K2
 (0) 없음 (1) 현관 및 복도 (2) 계단 (3) 화장실 및 욕실
 (4) 침실 및 거실 (5) 문턱 (6) 부엌 및 식당 (7) 기타(무엇: _____)

■ 문K3. 귀하께서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K3
 (1) 버스 (2) 지하철 (3) 택시 (4) 자가용
 (5) 자전거 (6) 오토바이 (7) 기타(무엇: _____)

■ ★문K4. 귀하께서 평소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K4
 (0) 없음 (1)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2)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3) 교통수단 부족
 (4) 이동하기에 불편한 도로상태 (5)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교통 편의시설
 (6) 차량이 많아 다니기에 위험함 (7) 기타(무엇: _____)

■ 문K5.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십니까? K5
 (1) 현재 한다
 (2)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문K5-2로)
 (3) 평생 한 적이 없다 →(문K6으로)

□ ★문K5-1.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문K6으로) K5-1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문K5-2. 귀하께서는 몇 세 때 운전을 그만두셨습니까? 만 _____세 K5-2 세

■ 문K6. 귀택은 비영입용 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K6
 (1) 예 (2) 아니요 →(문K7로)

□ 문K6-1. 지금 그 차를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K6-1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문K7. 다음과 같은 기관(시설 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기】 (1) 걸어서 5분 미만 (2) 걸어서 5분~10분 미만 (3) 걸어서 10분~30분 미만 (4) 걸어서 30분 이상			
1)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input type="checkbox"/>	2)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3) 읍·면·동 사무소	<input type="checkbox"/>	4)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input type="checkbox"/>
5)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input type="checkbox"/>	6) 버스·지하철역	<input type="checkbox"/>

■ 문K8.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까?

【보기】 (0)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3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 한 달에 1~2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1)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input type="checkbox"/>	2)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 (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input type="checkbox"/>
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여성회관 등	<input type="checkbox"/>	4)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5) 민간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 ★문K9.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시장과 대형 마트, 은행 등 각종 생활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
- (2)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
- (3) 녹지공간, 공원 등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
- (4)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
- (5) 각종 사회복지시설(여가, 문화 포함)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
- (6) 기타(무엇: _____)

K9

■ 문K10.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입니까?

- (1) 있다 → (1년 횟수: _____ 회)
- (2) 없다 → (문K11로)

K10 K10-(1) 회

□ 문K10-1. 낙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요

K10-1

□ 문K10-2. 귀하께서 낙상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바닥이 미끄러워서
- (2)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 (3) 보도나 문의 턱에 걸려
- (4) 경사가 급해서
- (5) 조명이 어두워서
- (6)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서)
- (7) 갑자기 어지러워서
- (8)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
- (9) 기타(무엇: _____)

K10-2

■ ★문K11. 귀하께서는 평소 낙상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 (1) 많이 두려워한다
- (2) 약간 두려워한다
- (3)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K11

■ 문K12. 지난 1년간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K12

■ ★문K1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각각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1) 있다 (2) 없다
1) 재산범죄 (강도, 절도,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input type="checkbox"/>
2) 폭력 및 강력범죄 (폭력행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손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input type="checkbox"/>
3)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input type="checkbox"/>
4) 보이스피싱(사기전화) 피해 경험	<input type="checkbox"/>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 ★문L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보기】 (1) 매우 만족함 (2) 만족함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음 (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자신의 건강 상태	<input type="checkbox"/>	2) 자신의 경제 상태	<input type="checkbox"/>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input type="checkbox"/>	4)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input type="checkbox"/>
5) 사회·여가·문화활동	<input type="checkbox"/>	6)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input type="checkbox"/>

■ ★문L2.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_____ 세 이상 L2

■ ★문L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보기】 (1) 매우 좋아 보인다 (2) 좋아 보이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5)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1) 노인이 재혼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2) 노인이 일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3)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input type="checkbox"/>	4)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	<input type="checkbox"/>

■ ★문L4.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십니까? L4

(1) 있다 (2) 없다 →(문L5로)

□ ★문L4-1. 귀하께서 다음 중 가장 자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L4-1

(1)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2) 식당, 커피숍 이용 시
 (3)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판매 시설 이용 시 (4)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 시
 (5) 의료시설 이용 시 (6) 기타(무엇: _____)

■ ★문L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경우,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까?

항목	(1) 예 (2) 아니요	※ 조사원 <별칭> 【노인과의관계】코드를 참조하여 가입하십시오
1)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2)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대화 기피, 의전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3) 타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수입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4)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았다 (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을 주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5)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style="width: 30px;" type="text"/>

■ ★문L6. 귀하는 노인학대 등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L6
 (1) 알고 있다 (2) 모른다

■ ★문L7. 귀하께서 재산 처리 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L7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3) 장남에게만 상속 (4)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5) 경제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상속 (6) 전체 또는 일부 사회에 환원
 (7) 나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 (8) 기타(무엇: _____)

■ ★문L8. 귀하께서는 죽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보기】	(1) 예	(2) 아니요			
1) 수의	<input type="checkbox"/>	2) 묘지(납골당 포함)	<input type="checkbox"/>	3) 상조회 가입	<input type="checkbox"/>
		4) 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5) 죽음준비 교육 수강	<input type="checkbox"/>

■ ★문L9. 귀하께서는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L9
 (1) 화장 후 납골당 (2) 화장 후 자연장(수목·잔디·화초장)
 (3) 화장 후 산골(산·강·바다에 뿌리는 것) (4) 매장
 (5) 시신 기증 (6) 기타(무엇: _____)
 (7)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음

■ ★문L10. 귀하께서는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 행위(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10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 ★문L11.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L11
 (1) 있다 (2) 없다 → (「M. 인지기능」으로)

□ ★문L11-1. 귀하께서 자살을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L11-1
 (1) 건강문제 (2) 경제적 어려움
 (3) 외로움 (4)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6)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
 (7) 기타(무엇: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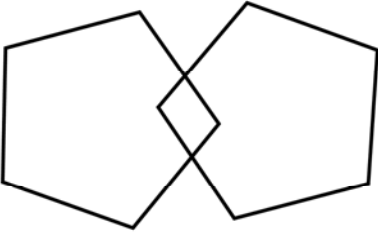
□ ★문L11-2.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L11-2
 있다면 몇 번입니까? L11-2-(1) 회
 (1) 있다 → (____회) (2)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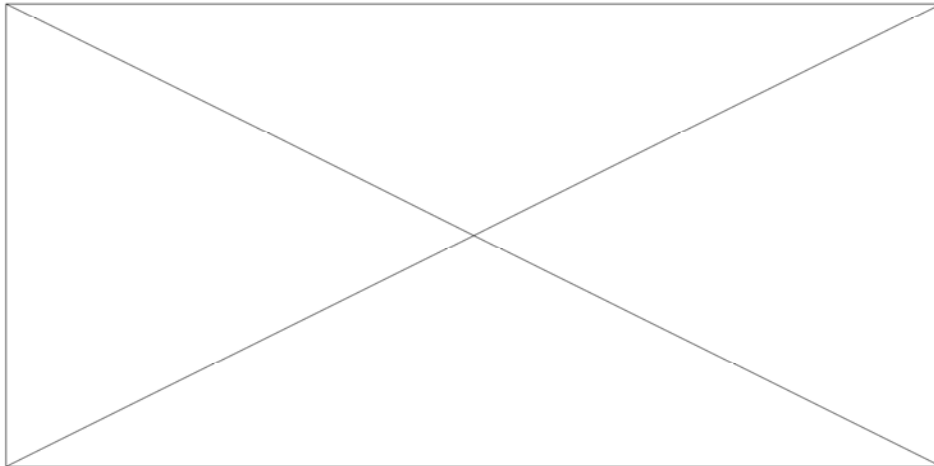
M. 인지기능

※ 조사원: 응답자가 문항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문M1. 지금부터 귀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틀림	맞음
질 문		
1.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0	1
2.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0	1
3. 오늘은 며칠입니까?	0	1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은 몇 월입니까?	0	1
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광역시입니까?	0	1
7.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0	1
8. 여기는 무슨 동/읍/면입니까?	0	1
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0	1
10.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0	1
11.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000님께서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2. 100에서 7일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1
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4. (실제 시계를 보여 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실제 연필을 보여 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질 문		틀림	맞음
16.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 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는다.	0	1
	반으로 접는다.	0	1
	무릎 위에 놓는다.	0	1
17.	(접힌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빈 곳에 그대로 그려 보십시오.		
		0	1
18.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9.	'티끌 모아 태산'은 무슨 뜻입니까?	0	1
총 점			/30



N. 가구 경제상태

※ 조사원 <문N1>~<문N5>는 가구 경제상태를 잘 아는 가구원에게 질문하십시오

■ 문N1.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N1

■ 문N2. 귀댁의 작년 한 해(2013. 1. 1 ~ 2013. 12. 31)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과 부동산 등의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의 현금 지출 등 기타지출은 제외함)

N2

천	백	십	만	원
---	---	---	---	---

■ 문N3. 귀댁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N3

- | | |
|--------------------------------|----------------------|
| (0) 없음 |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
| (2) 교육비 | (3) 월세 |
| (4) 주거 관련비(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 | (5)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
| (6) 가구집가가사용품 | (7)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
| (8) 교양오락비 | (9) 교통비(차량 구입비 제외) |
| (10)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11) 경조사비 |
| (12) 부채상환 | (13) 기타(무엇: _____) |

※ 조사원 노인 독신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문G1-1>과 <문G1-2>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하십시오

■ 문N4. 귀댁의 작년 한 해(2013. 1. 1 ~ 2013. 12. 31)의 소득 항목별 소득 유무와 소득 금액(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및 연 총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1)있음 (2)없음	금액	항목	(1)있음 (2)없음	금액														
1) 근로 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2) 사업 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3) 재산 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4) 사적이전 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5) 공적이전 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6)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7) 총소득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 문N5. 현재 귀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아래의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항목	(1) 있음 (2) 없음	금액							
1) 부동산자산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2) 금융자산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3) 기타자산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4) 부채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억</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천</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백</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십</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만</td>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원</td> </tr> </table>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십	억	천	백	십	만	원			

조사원 확인 사항

■ 1.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주택
 (4) 기타(무엇: _____)

■ 2. 주거위치는 어디입니까?
 (1) 지하 (2) 반지하 (3) 지상 (4) 옥탑

■ 3. 조사원께서는 노인의 주택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느끼십니까?
 (1)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이다
 (2)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3) 노인을 배려한 설비(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를 갖추고 있다
 (4) 기타(무엇: _____)

■ 4. 응답 노인의 배우자의 노인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배우자 조사 완료 → 배우자 조사표상의 ID를 기록하십시오.

(배우자의) 읍면동 번호	조사구 번호	거지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내 인류 노인번호	조사구 내 인류 노인번호
조사원(확인용-1)					

(2) 배우자 조사 미실시(65세 이상)
 (3) 배우자 조사 비해당(65세 미만)
 (4) 배우자 없음(미혼, 사별, 이혼, 별거, 비동거 배우자)

조사원 확인 1)

조사원 확인 2)

조사원 확인 3)

조사원 확인 4)

배우자 가구원 번호

■ 대리 응답인 경우, 어떠한 이유로 대리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1) 와병 상태 (2)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치매 등)
 (3) 청각 장애 (4) 언어 장애
 (5) 노쇠하여서 (6) 기타(무엇: _____)

대리응답 이유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IV. 사후검증용 전화조사표

2014 노인실태조사 사후검증

안녕하세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사후검증을 위한 조사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4년 6월 12일에 시작하여 8월 28일에 끝난 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① 집 (내)방 ② 집 거실 ③ 이웃집
④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⑤ 공원 등 야외 공터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 조사답례품(파스)은 직접 받으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귀택을 방문한 조사원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항	①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1) 조사원이 친절하였다.			
2) 설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3) 조사가 끝난 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4. 조사는 응답하시기가 어떠하십니까?

- ① 수월하였다 ② 보통이었다(그저그렇다) ③ 어려웠다 → (문 4-1로)

4-1.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설문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② 설문내용에 응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었다
③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원의 설명이 부족하였다
④ 조사 시간이 길었다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5. 기타 의견사항

(____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V. 조사지역 명단

1. 서울특별시¹⁰⁾

지역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금호2·3가동
광진구	자양3동
동대문구	이문1동
중랑구	면목3·8동
성북구	길음2동 삼선동
강북구	수유3동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창4동
노원구	월계2동
	중계4동
은평구	응암1동
	신사1동
	수색동
서대문구	남가좌2동
마포구	상암동
강서구	가양3동
	방화2동
구로구	구로5동
	오류2동
영등포구	신길3동
동작구	사당2동
관악구	행운동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삼성2동
	대치1동
송파구	풍납1동
	마천2동
강동구	잠실4동
	길동

10) 이하 모든 지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기준임.

2.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진구	범전동 개금1동
동래구	사직3동
남구	대연2동 대연3동 용호3동
북구	덕천2동 만덕1동 만덕3동
해운대구	반여3동
사하구	괴정4동 하단1동 신평2동 장림1동
연제구	연산1동 연산3동
수영구	남천1동
사상구	모라1동 모라3동

3. 대구광역시

지역	
중구	남산1동
동구	효목1동 안심1동
서구	내당2·3동 내당4동 비산4동
북구	무태조아동 구암동
수성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중동 상동
달서구	이곡1동 진천동 용산2동

4. 인천광역시

지역	
동구	송현1·2동
남구	송의2동
	주안3동
연수구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남동구	만수4동
	남촌도림동
부평구	부평4동
	삼산1동
	십정2동
	삼산2동
계양구	계산2동
	작전서운동
서구	가좌1동

5. 광주광역시

지역	
동구	산수2동
서구	상무1동
	화정4동
남구	사직동
	봉선1동
북구	신안동
	용봉동
	운암2동
	운암3동
	풍향동
	일곡동
광산구	도산동
	우산동

6. 대전광역시

지역	
동구	가양2동
	용전동
	신인동
	성남동
중구	부사동
	용두동
	태평2동
서구	도마1동
	월평2동
	관저1동
	둔산3동
유성구	노은1동
대덕구	덕암동

7. 울산광역시

지역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복산2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중앙동
남구	아음장생포동
	선암동
동구	방어동
	일산동
	남목1동

8. 경기도

지역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운동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복정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의정부시	호원1동
	자금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석수1동
	석수3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광명시	하안3동
평택시	오성면
	송북동
동두천시	소요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송포동

9. 강원도

지역	
춘천시	서면
	약사명동
	석사동
원주시	태장2동
	봉산동
강릉시	옥계면
	강남동
	성덕동
동해시	복삼동
태백시	황지동
삼척시	정라동
횡성군	횡성읍
	갑천면
평창군	대관령면
인제군	북면
양양군	양양읍
	서면

10. 충청북도

지역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내덕1동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봉명1동 강서1동
충주시	노은면 지현동 달천동
제천시	청전동
청원군	오창읍 강외면 북이면
보은군	보은읍
영동군	학산면
단양군	단양읍

11. 충청남도

지역	
천안시 동남구	북면 원성1동 봉명동 일봉동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주교면
보령시	대천1동 대천3동
아산시	온양6동
서산시	동문1동
금산군	금산읍 제원면
연기군	전의면
부여군	규암면
서천군	서천읍
홍성군	홍성읍
태안군	남면

12.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3동
	송천1동
군산시	대야면
	해신동
	월명동
	구암동
익산시	수송동
	오산면
	용안면
정읍시	입암면
	내장상동
	연지동
남원시	금동
	향교동
김제시	백구면
장수군	천천면
고창군	무장면
	성송면
부안군	상서면

13. 전라남도

지역	
목포시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유달동
여수시	이로동
	소라면
순천시	충무동
	송광면
	남제동
나주시	성북동
구례군	산동면
고흥군	고흥읍
강진군	강진읍
영암군	미암면
무안군	일로읍
	현경면
함평군	함평읍
영광군	법성면

14. 경상북도

지역	
포항시 남구	대이동
포항시 북구	중앙동
경주시	중부동
	선도동
김천시	아포읍
안동시	안기동
구미시	원평1동
영주시	상망동
영천시	동부동
상주시	은척면
	영순면
	호계면
	점촌2동
경산시	점촌3동
	남산면
의성군	의성읍
영덕군	영해면
청도군	화양읍
	각북면
	매전면
고령군	덕곡면

15. 경상남도

지역	
진주시	일반성면 상대1동
사천시	사천읍
김해시	진영읍
	대동면
	칠산서부동
거제시	활천동
양산시	사등면
	삼성동 소주동
의창구	대산면
	의창동
	명곡동
	용지동
마산합포구	문화동
	자산동
	교방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구암2동
고성군	고성읍
거창군	거창읍
합천군	울곡면
	초계면
	가회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이도2동
	용담2동
서귀포시	노형동
	남원읍
	서홍동
	대천동 예래동

부록 VI. 자문위원 명단

성명	소속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권중돈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남미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모선희	공주대학교 교수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
박종원	군포시 노인복지관장
배영신	통계청 통계조정과 주무관
손창균	동아대학교 교수
원장원	경희대학교 교수
윤종률	한림대학교 교수
이기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운환	아주대학교 교수
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전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통진	통계청 통계조정과 사무관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